

2016 글로벌 한식·외식 산업조사 결과보고서
- 총칭 -

2016. 12

제 출 문

한식재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6 글로벌 한식·외식 산업조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7월

조사수행기관	EY어드바이저리	
과제책임자	EY어드바이저리	이 광 립
과제수행자	EY어드바이저리	내 한 신
	EY어드바이저리	심 창 용
	EY어드바이저리	배 준 우
	EY어드바이저리	윤 상 일
	EY어드바이저리	서 유 형
	EY어드바이저리	이 승 형
	EY어드바이저리	이 한 주
	EY어드바이저리	이 경 진
	EY어드바이저리	채 규 민
	EY어드바이저리	고 소 진
	EY어드바이저리	홍 민 철
	EY어드바이저리	조 인 준

[목 차]

I. 조사개요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 2. 조사의 범위 1
- 3. 수행 방법론 2

II. 보고서 요약

- 1. 도시 보고서 요약 18

III. 거시 환경 분석

- 1. 일반 정보 62
- 2. 정치적/정책적 환경 65
- 3. 경제적 환경 69
- 4. 사회/문화적 환경 79
- 5. 기술적 환경 88
- 6. PEST 분석 요약 90

IV. 국가 외식 산업 분석

- 1. 외식시장 규모 92
- 2. 외식시장 트렌드 97
- 3. 프랜차이즈 브랜드 현황 101

V. 도시 외식 산업 분석

- 1. 도시 외식 공급자 분석 104
- 2. 도시 외식 소비자 분석 131
- 3. 도시 한식 공급자 분석 227
- 4. 도시 한식 소비자 분석 255

VI. 상권 외식 산업 분석

- 1. 분석 상권 선정 및 요약 301
- 2. 상권별 외식 산업 분석 305

VII. 실무 정보

- 1. 한식당 창업 실무정보 387
- 2. 한식당 운영 실무정보 408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의 범위
3. 수행 방법론

I. 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 최근 급속한 시장개방과 더불어 외식산업의 세계화 추세로 인하여 자국의 전통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수출 전략 상품과의 연계 및 문화 콘텐츠 확산을 추구하는 각국의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한식은 맛과 영양 측면에서 타 에스닉 푸드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산에 성공한 타 에스닉 푸드들에 비해 확산이 더딘 상황임.
- 이에 본 조사를 통해 진출 기업, 개인,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한식의 해외 진출 및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유관기관의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

2) 목적

- 본 조사 수행의 목적은 해외 외식시장의 실정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 정보와 한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하여 한식진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또한, 해외에 한식당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개인 또는 현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개선된 조사 체계와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의 범위

-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음식문화 등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 외식 및 한식산업 외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추세를 식별하고, 각종 변수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영향을 파악함.
- 데스크 리서치, 소비자 설문, 한식당 경영주 설문, 웹 크롤링,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외식 산업 현황 및 소비자 행태를 설명함
- 창업/운영에 활용 가능한 실무 정보를 수집함

3. 수행 방법론



- EY의 2014년 조사사업 수행경험, EY 시장조사 및 벤치마킹 방법론, 기존 조사모델 등을 반영하여 본 조사 사업의 수행방안을 구체화함.
- 단계별 정의 및 한식재단향(向) 수행내역은 아래와 같음.

1) 모델(Model)

□ 현황 분석

○ 정보수요 분석

- 2015 조사 사업 산출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외식기업, 학계, 협회, 정책 기관을 대상으로 글로벌 외식 및 한식산업 정보 관련 지역, 정보 종류, 조사 활동, 공유 방법, 활용 관련 요구사항을 조사함.
- 산출물의 질적 강화를 위해 주요 도시 및 조사 방법을 선정하고, 산출물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전반의 방향성을 확정함.

○ 기존 모델 구조 분석

- 외식 및 한식산업 조사 관련 기존 보고서 분석을 통해 As-Is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기회를 도출함. 다음의 보고서를 분석함.

- 2010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 2011 해외 도시별 외식 시장조사 및 한식 한식당 진출 전략 수립
- 2012 해외 도시별 정보전략 조사
- 2013 한식반응조사 및 마케팅전략수집
- 2013 해외 외식 및 한식산업 조사모델
- 2014 해외 외식 및 한식산업 조사

○ 개선 방향 도출

- 기존 산출물 및 시스템 현황 파악을 통해 프로젝트 전반의 방향성을 확정함.
 - 연도별 조사 대상 도시 및 활용 내용 분석을 통해 외식산업의 동향과 한식 세계화 정도의 지속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도시 수의 적정성을 검토함.
 - 2013년 조사모델 분석을 통해 지역 선정 로직을 점검하고 정보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조사 항목으로 재조정함.
 - 과거 지수 및 지표 설계 내용 분석을 통해 글로벌 외식 및 한식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인 지수 및 지표를 선정함.
 - 기존 조사 및 분석 프레임 분석을 통해 조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분석 프레임 강화하고, 불필요한 조사 항목을 배제하여 중요한 항목에 집중함.

□ 조사모델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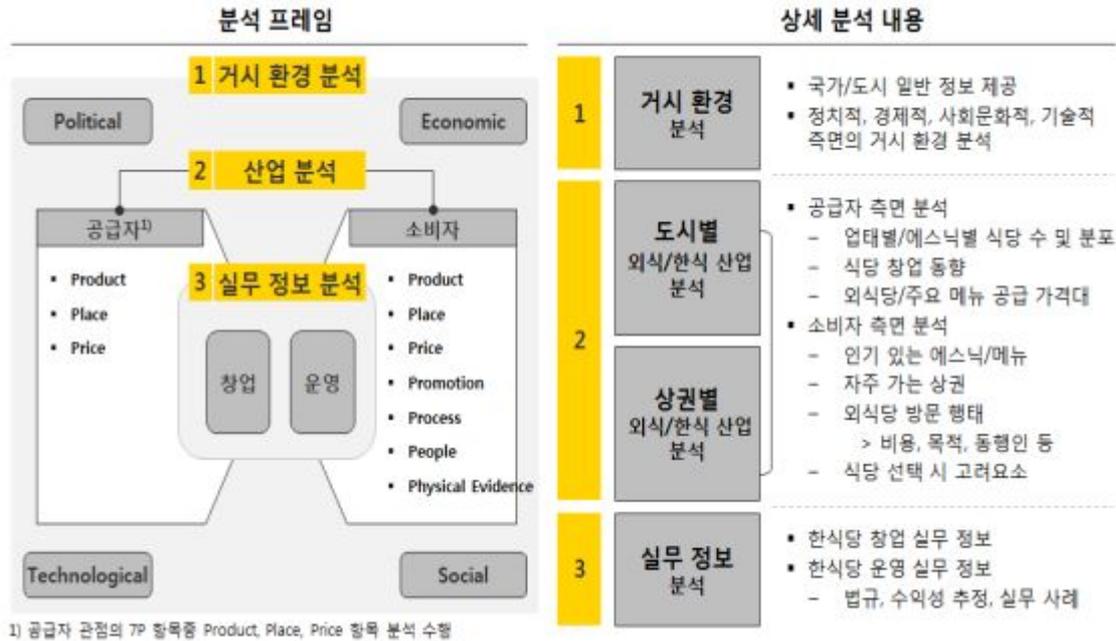
○ 지표 설정

- 지표는 외식 및 한식산업의 시장, 소비자, 경영주 관점에서의 변화를 대변하는 지표와 변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함.
- 지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외식 산업	시장	외식시장 구조의 변화 추세 파악
	소비자	소비자의 외식 지출 패턴 변화 파악
한식 산업	시장	한식당 시장 규모 변화 추세 파악
	소비자	소비자의 한식 외식 지출 패턴 변화 파악 및 만족도 측정
	한식당 경기	한식당 경영주가 체감하는 한식당 경기 및 운영 비용 변화 추이 파악
거시 환경	외식/한식 산업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거시적 환경 변화 확인	

○ 분석 프레임

- PEST 관점의 거시 환경 분석, 7P 관점의 산업 분석, 창업/운영 관점의 실무 정보로 구성함.



1) 공급자 관점의 7P 항목중 Product, Place, Price 항목 분석 수행

- 분석 프레임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음.

거시 환경 분석	국가/도시 일반정보	면적, 인구, 언어, 기후 등	상권 선정	상권 유형별 도시내 주요 상권		
	P(정치적 환경)	경제 정책, 이민 정책, 외식 산업 정책		상권 개요	상권 특징 및 주요 집객 시설	
	E(경제적 환경)	경제 규모 및 동향, 외국인 투자 현황		상권 외식 산업	동선 및 유동 인구	
	S(사회적 환경)	인구 구성 및 종교적 특성, 소비 특성		상권 외식 소비자	외식당 방문 형태	
	T(기술적 환경)	인프라 환경, IT 현황		식당 선택 요인		
도시 외식/한식 산업 분석	외식/한식 산업 지표	외식 산업 및 소비자 지표	상권 외식/한식 산업 분석	외식당 방문 형태		
		한식 산업/소비자, 한식당 운영 지표		외식당 가격대 분포		
	국가 외식 산업	외식 시장 규모 및 트렌드		메뉴 가격대 분포		
	도시 외식 산업	도시 외식 산업 규모 및 창업 동향		외식당 방문 형태		
		외식당 가격대 및 주요 식당 사례		식당 선택 요인		
		업태별 외식당 방문 형태		에스닉/메뉴 인기 현황		
		식당 선택 요인 및 에스닉/메뉴 선호				
	도시 한식 산업	도시 한식 산업 규모 및 창업 동향		실무 정보 분석	한식당 창업 실무	사업자 등록 절차
		한식당 운영 통계			한식당 운영 실무	임대차 계약 절차 및 관행
		한식당 방문 형태				세무 정보 및 수입 통관 제도
	식당 선택 요인 및 메뉴 선호		금융 서비스 및 거주 허가			
	한국 관련 선호 현황			노동/고용 법규		
				업태별 수익성		
				한식당 운영 실무 사례		

○ 조사 프레임

- 분석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데스크리서치, 빅데이터 웹크롤링, 소비자 설문, 경영주 설문, 현장관찰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하며, 하나의 분석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수집활동으로 정보를 확보함.

분석 항목	조사/수집 활동					
	데스크 리서치	빅데이터 웹크롤링	소비자 설문	경영주 설문	현장관찰/인터뷰	
트렌드 (지표) 분석	●	○	●	●		
거시 환경 분석	●				●	
도시 외식/한식 산업 분석	●	●	●	●	●	
상권별 외식/한식 산업 분석	●	●	●		●	
실무 정보 분석	●			○	●	

2) 계획(Plan)

□ 데스크리서치

- 거시환경 분석부터 실무정보 분석까지의 기본 소스로 활용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유료/무료 기관을 활용함.

데스크리서치의 목적 및 활용	세부 주제별 자료 수집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eee;">거시 환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소득지표 (도시별 1인당 GDP/GNP, 경제성장률, 가처분 소득, 고용률 등) 한국 관련지표 (한류, 한인사회 등) </td> <td>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td> <td> </td> </tr> </table>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ee;">외/한식산업 현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식산업 특성 (외식산업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외식산업 구 성비, 트렌드 등) 식품 유통 현황, 한식당 분포 현황 등 외식당 성공 사례, 프랜차이즈 현황 등 </td> <td>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각 국가별 통계청 및 외식 관련 기관</td> <td> </td> </tr> </table>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ee;">상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상권조사 (도시별 주요 상권 현황, 각 상권별 특성 및 경 경 현황 등) 세부 지역단위별 유통인구/소비자/시장/지역특성 자료(소득, 집객시설 등) </td> <td>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민간 조사회사 생 산 통계자료</td> <td> </td> </tr> </table>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ee;">실무 정보</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규조사 (부동산, 외식 관련 법률, 세무 및 부자법, 이민 법, 고용법 등) 식자재 유통 채널 등 </td> <td>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기타 자료 (부동산 사이트, 여행/계수 포털 가이드, 국내외 학술 논문 등)</td> <td> </td> </tr> </table> </td> </tr> </table>	거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소득지표 (도시별 1인당 GDP/GNP, 경제성장률, 가처분 소득, 고용률 등) 한국 관련지표 (한류, 한인사회 등)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td> <td> </td> </tr> </table>	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		외/한식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식산업 특성 (외식산업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외식산업 구 성비, 트렌드 등) 식품 유통 현황, 한식당 분포 현황 등 외식당 성공 사례, 프랜차이즈 현황 등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각 국가별 통계청 및 외식 관련 기관</td> <td> </td> </tr> </table>	각 국가별 통계청 및 외식 관련 기관		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상권조사 (도시별 주요 상권 현황, 각 상권별 특성 및 경 경 현황 등) 세부 지역단위별 유통인구/소비자/시장/지역특성 자료(소득, 집객시설 등)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민간 조사회사 생 산 통계자료</td> <td> </td> </tr> </table>	민간 조사회사 생 산 통계자료		실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규조사 (부동산, 외식 관련 법률, 세무 및 부자법, 이민 법, 고용법 등) 식자재 유통 채널 등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기타 자료 (부동산 사이트, 여행/계수 포털 가이드, 국내외 학술 논문 등)</td> <td> </td> </tr> </table>	기타 자료 (부동산 사이트, 여행/계수 포털 가이드, 국내외 학술 논문 등)	
거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소득지표 (도시별 1인당 GDP/GNP, 경제성장률, 가처분 소득, 고용률 등) 한국 관련지표 (한류, 한인사회 등)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td> <td> </td> </tr> </table>	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																	
국제기구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																				
외/한식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식산업 특성 (외식산업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외식산업 구 성비, 트렌드 등) 식품 유통 현황, 한식당 분포 현황 등 외식당 성공 사례, 프랜차이즈 현황 등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각 국가별 통계청 및 외식 관련 기관</td> <td> </td> </tr> </table>	각 국가별 통계청 및 외식 관련 기관																	
각 국가별 통계청 및 외식 관련 기관																				
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상권조사 (도시별 주요 상권 현황, 각 상권별 특성 및 경 경 현황 등) 세부 지역단위별 유통인구/소비자/시장/지역특성 자료(소득, 집객시설 등)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민간 조사회사 생 산 통계자료</td> <td> </td> </tr> </table>	민간 조사회사 생 산 통계자료																	
민간 조사회사 생 산 통계자료																				
실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규조사 (부동산, 외식 관련 법률, 세무 및 부자법, 이민 법, 고용법 등) 식자재 유통 채널 등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기타 자료 (부동산 사이트, 여행/계수 포털 가이드, 국내외 학술 논문 등)</td> <td> </td> </tr> </table>	기타 자료 (부동산 사이트, 여행/계수 포털 가이드, 국내외 학술 논문 등)																	
기타 자료 (부동산 사이트, 여행/계수 포털 가이드, 국내외 학술 논문 등)																				

□ 소비자 및 경영주 설문

- 소비자 온라인 설문과 한식당 경영주 전화 설문은 조사 목적을 분석 모델 과 연결시키고, 신뢰도 확보하기 위해 인구 비례 및 업태별 비례 표본 추출 방식을 적용함.

소비자 설문 조사				경영주 설문 조사			
목적 및 활용		조사 항목		목적 및 활용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외식패턴, 외식당 선택 요인 분석 지표, 산업분석내 소비자 분석 (도시, 상권, 업태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외식 패턴 업태별 외식 패턴 한식 외식 패턴 한식당 만족도 한국 관련 선호도 한국 방문 의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당의 운영상 기본 정보 확보 (메뉴, 식자재 등) 경영주가 체감하는 현재의 한식당 관련 경기 지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당 여부 확인, 운영현황 식자재 사용 현황 매출 변동 식자재 비용 변동 인건비 비용 변동 임대료 변동, 홍보마케팅 비 	
수행 방법				수행 방법			
표본 설계	설문 디자인	실사	분석	한식당 리스트 갱신	표본 설계 /설문디자인	실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별 인구 분포 조사 인구 비례에 따른 목표 표본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트리 작성 전체 사업과의 연계성 확인 설문 응답자 편의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설문 진행 (CATI) 설문 진행 현황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 데이터 확인 데이터 정리 방향 설정 데이터 변환/1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웹크롤링을 통한 한식당 리스트 오프라인 한식당 리스트 중복 제거 데이터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태별 분포 업태별 비례에 따른 목표 표본 설정 설문 응답자 편의성 고려 설문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원 준비 전화 설문 진행 전화 설문 진행간의 이슈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떻게 진행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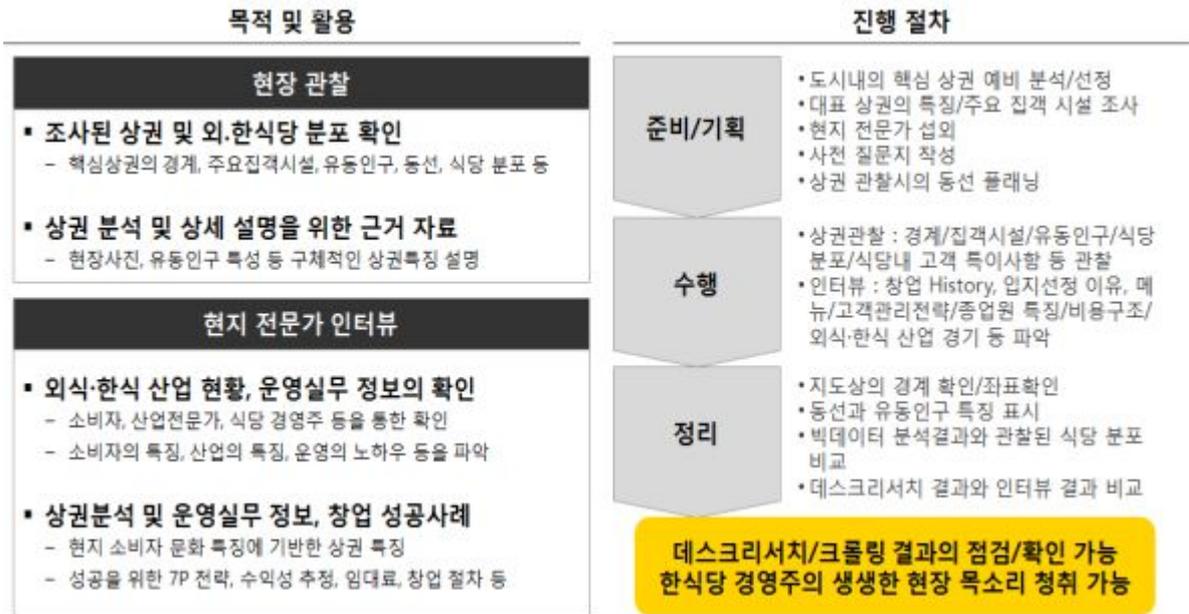
□ 빅데이터 웹크롤링

- 3개 이상의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 웹크롤링을 통해 외식 산업, 상권 분석, 소비자 분석의 기초 정보를 확보하고, 한식당 리스트 갱신을 위한 한식당 정보를 수집함.



□ 현장 관찰 및 인터뷰

- 현장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상권 정보를 확인하고, 현지 전문가 및 식당 경영주가 바라보는 외식·한식산업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확인함.



3) 수집(Collect) 및 분석(Analyze)

□ 데스크 리서치

- 수행절차



- UN, IMF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식품시장 정보, 국가별 외식 관련 정부기관, 통계청 등의 국가별 자료, Euromonitor, BMI 등 민간 시장조사기관의 자료를 모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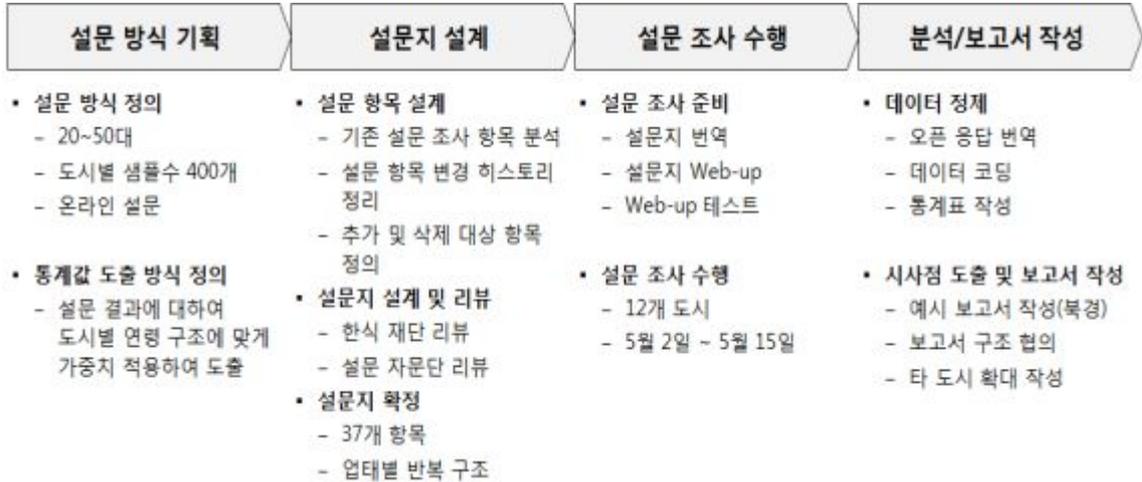
- 국내에서는 코트라의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외식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활용함.
- 데스크리서치 데이터 출처 및 수집 데이터

데이터 소스	데이터 항목
한식재단 기존 조사자료 (The Korean Kitchen 등)	- 한식산업 현황(한식당 개수, 대표 한식당 상세정보 등) - 시장실무(한식 식자재 유통 및 가격정보, 인력수급방안, 금융정보 등)
국가기관 (Kotra, 외교부 등)	- 경제지표(GDP,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 - 인구(연령별/소득별/교육수준별 인구수 등 인구관련 정보) - 사회문화 일반(역사, 문화, 종교 등) - 식문화(해당지역 식습관, 전통음식 등) - 정책(투자, 이민, 경제 등) - 한식산업 현황(한식당 개수, 대표 한식당 상세정보 등) - 시장실무(한식 식자재 유통 및 가격정보, 인력수급방안, 금융정보 등) - 법규(사업자 등록절차 및 서류, 고용노동법 등) - 한국교류관련(한인 이민역사, 한인 거주 인구수, 한류관련 뉴스 등)
해외 리서치/통계 Site (Euromonitor, NRA, JRO, FAO 등)	- 경제지표(GDP,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 - 인구(연령별/소득별/교육수준별 인구수 등 인구관련 정보) - 상관세부정보(상관 유동인구 특성, 집객시설, 상관 주요 식당 등) - 주태상업시설 일반(업종별 점포수, 평균매출 등) - 외식산업현황(외식시장 전체/섹터규모, 업태별 업체 수, 에스닉별 업체 수 등)
각국/도시별 통계청 및 유관 정부기관 (경제은행, 노동부 등) Worldbank, CIA 등)	- 경제지표(GDP, 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 - 인구(연령별/소득별/교육수준별 인구수 등 인구관련 정보) - 사회문화 일반(역사, 문화, 종교 등) - 주태상업시설 일반(업종별 점포수, 평균매출 등) - 정책(투자, 이민, 경제 등) - 시장실무(한식 식자재 유통 및 가격정보, 인력수급방안, 금융정보 등) - 법규(사업자 등록절차 및 서류, 고용노동법, 소득세 등) - 기타(IT관련 통계/트렌드 등)
연구원/민간기관/학술지	- 정책(투자, 이민, 경제 등) - 외식정책(일본, 태국 등 Ethnic 국가의 외식정책 등)
해외 한인 네트워크 (도시별 한인회, 한상회 등)	- 한식산업 현황(한식당 개수, 대표 한식당 상세정보 등) - 시장실무(한식 식자재 유통 및 가격정보, 인력수급방안, 금융정보 등)
가이드북 (JustGo, Lonely Planet 등)	- 상관세부정보(상관 유동인구 특성, 집객시설, 상관 주요 식당 등)
NY/LA Times, 산케이신문, 환구시보 등 지역별 대표 언론사	- 외식정책(일본, 태국 등 Ethnic 국가의 외식정책 등) - 외식산업현황(외식시장 전체/섹터규모, 업태별 업체수, Ethnic별 업체수 등) - 한국교류관련(한인 이민역사, 한인 거주 인구수, 한류관련 뉴스 등)

□ 설문조사

○ 소비자 설문

- 소비자 설문 수행 절차



- 소비자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구조¹⁾
 - 소비자들은 어떤 업태의 식당에서 얼마나 자주 식사하는가?
 - 소비자들은 1회당 어느 정도 금액의 식사를 하는가?
 - 소비자들이 식당 정보를 얻는 경로는 무엇인가?
 - 업태별로 외식 목적은 어떻게 다르고, 동행인은 누구인가?
 - 소비자들의 식당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 소비자들은 어떤 에스닉 식당을 자주 가고, 만족도는 어떠한가?
 - 한식에 대한 만족도 및 추천의향은 어느 정도인가?
 - 즐겨 먹는 한식 메뉴는 무엇이고, 먹어 보고 싶은 메뉴는 무엇인가?
 - 한국에 대한 인지 수준 및 호감 수준은 어떠한가?
- 소비자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00	100
성별	남성	205	51.2
	여성	195	48.8
연령별	20대	108	27.0

1) 자세한 설문 구조는 보고서 맨 뒤에 첨부된 Appendix의 소비자 설문 란을 참조하시길 바람.

	30대	94	23.5
	40대	114	28.5
	50대	84	21.0
직업별	화이트칼라	314	78.5
	블루칼라	45	11.2
	자영업	21	5.3
	학생	5	1.2
	주부	1	0.3
	기타/무직	14	3.5
종교별	천주교	3	0.8
	기독교	16	3.9
	불교	53	13.2
	무슬림교	4	0.9
	기타	24	6.0
	무교	300	75.1
연가구 소득별	55,000위안 미만	108	27.0
	55,000~115,000위안 미만	89	22.1
	115,000~215,000위안 미만	117	29.1
	215,000위안 이상	87	21.7
월평균 외식 빈도	1~5회	142	35.4
	6~10회	118	29.4
	11~20회	95	23.6
	21회 이상	46	11.5

○ 한식당 경영주 설문

- 경영주 설문 수행 절차2)

설문 방식 기획	설문지 설계	설문 조사 수행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방식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국 12개 도시 - 전화 설문 - 설문 길이 5분 이내 • 도시별 필요 샘플 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표본오차 ±4.0%p - 도시별 총 한식당 수에 따라 필요 샘플수가 상이하며, 도시별로 20~150개로 총 1,200여 개 샘플 확보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항목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설문 조사 항목 분석 - 설문 항목 변경 히스토리 정리 - 추가 및 삭제 대상 항목 정의 • 설문지 설계 및 리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 재단 리뷰 - 설문 자문단 리뷰 • 설문지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번역 • 설문 진행 담당자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어 및 한국어 동시 가능자 • 설문 조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일정 : 5월 27일 ~ 6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 응답 번역 - 데이터 코딩 - 통계표 작성 • 시사점 도출 및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구조 협의 - 타 도시 확대 작성

2) 자세한 설문 구조는 보고서 맨 뒤에 첨부된 Appendix의 경영주 설문 란을 참조하시길 바랍.

- 한식당 경영주 설문조사 설문구조
 - 일반정보 파악(식당 규모, 종업원수, 운영형태, 주요 메뉴 등)
 - 현지인 고객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한식재료는 어떻게 조달하는가?
 - 매출 및 비용의 추이는 어떠하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 한식당 경영주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80	100
성별	남성	37	46.3
	여성	42	52.5
한식당 담당 업무	한식당 경영주	38	47.5
	매장 매니저	32	40.0
	기타 직원	10	12.5
한식당 업태	고가 식당	0	0.0
	중저가 식당	76	95.0
	패스트푸드	4	5.0
	카페/바	0	0.0
프랜차이즈 여부	프랜차이즈	32	40.0
	비프랜차이즈	46	57.5
프랜차이즈 형태	가맹점	20	25.0
	직영점	12	15.0
	프랜차이즈 아님	46	57.5
프랜차이즈 운영형태	개인 단독 운영	78	97.8
	그 외	2	2.2
프랜차이즈 세부 운영형태	개인 합작 공동 운영	2	2.2
	개인 단독 운영	78	97.8
경영주 국적	한국인	13	16.3
	현지인	65	81.3
	그 외	2	2.5
객단가	50위안 미만	40	50.0
	50-70위안 미만	21	26.3
	70-90위안 미만	15	18.8
	90위안 이상	4	5.0

□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분석 수행 절차

도시별 수집 가능성 검토	웹크롤링 수행	데이터 검증/정제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별 크롤링 가능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별 주요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 분석하여 사이트별 식당수 및 보유 정보 분석 - 도시당 3~4개 사이트 • 상세 분석 방향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가능 변수 조합을 활용하여 보고서 목차 구성 - 산출물 이미지 작성하여 수행업체와 방향성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권 (5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Table 수행 - 식당 기본 정보 + 메뉴 정보 + 리뷰글 수집 • 동남아 (4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d Table 수행 - 식당 기본 정보 수집 • 미국/일본 (3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Y 수행 - 식당 기본 정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정보의 표현 방식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가격대 등 사이트별 상이한 표현에 대하여 하나로 통일 • 중복 식당 데이터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명, 주소, 전화번호 일치 시 식당 정보 삭제 • 단일 리스트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별 3~4개 사이트 정보를 단일 리스트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태, 에스닉 분류 기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태 키워드, 업종 키워드, 메뉴명, 식당명, 식당 가격대 활용 • 7P 단어 사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리뷰 노출 단어의 7P 기준 분류 •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태별, 에스닉별 외식당 현황 매핑, 가격대 및 외식당 방문 형태 등 20여개 분석 진행 및 결과 정리

- 2015 조사 사업에서는 중화권을 중심으로 식당 분포의 심층분석, 소비자가 식당 선택시 고려 요소, 한식당 방문자의 성향 등의 심층 분석을 위한 정보 수집

구분	기본 분석용 자료 수집	심층 분석용 자료 수집
대상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권 (베이징, 상하이, 충칭, 홍콩, 타이페이) • 동남아권 (자카르타, 싱가포르, 호치민, 태국) • 미국권 (뉴욕, LA) • 일본권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권 (베이징, 상하이, 충칭, 홍콩, 타이페이)
수집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명, 주소, 주소 좌표값, 전화번호, 업태/업종 정보, 식당 가격대 • 만족도 정보 (미국, 일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만족도, 음식/분위기/서비스 품질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 종류, 메뉴별 가격, 메뉴별 추천건수 • 리뷰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글, 평가자 정보, 평가 시점 <p>※ 기본조사 내용은 동일하게 수집함</p>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태별/에스닉별 식당수 및 분포 • 신규 창업 외식당수 및 분포 • 외식당 가격대 분포 • 에스닉별 인기도/만족도 (미국, 일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태별 메뉴 가격대 분포 • 에스닉/메뉴 인기도 시계열 추이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7P 관점) • 한식당 방문자의 외식 성향 등

• 도시별 웹크롤링 대상 사이트

도시	웹 크롤링 대상 사이트
북경	디안핑, 오픈라이스, 트립어드바이저
상해	디안핑, 오픈라이스, 트립어드바이저
충칭	디안핑, 오픈라이스, 트립어드바이저
홍콩	오픈라이스, 디안핑, 옐프, 트립어드바이저
타이페이	오픈라이스, 아이핀, 트립어드바이저, 디안핑
자카르타	오픈라이스, 디안핑, 트립어드바이저
싱가포르	오픈라이스, 디안핑, 트립어드바이저
방콕	오픈라이스, 디안핑, 트립어드바이저
호치민	푸디, 디안핑, 트립어드바이저
LA/뉴욕	옐프, 조마토, 트립어드바이저
동경	옐프, 타베로그, 구루나비, 트립어드바이저

□ 현장관찰

• 현장관찰 수행 절차

관찰 대상 정의	현장 관찰 준비	현장 관찰 수행	결과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권 구분 기준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가, 관광지, 소비 중심, 오피스, 교통 중심지, 교육 등 6개로 구분 조사 대상 상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도시 거주자에게 주요 상권 설문 조사 - 도시별 약 10여명 씩 총 81명 권택 조사 대상 식당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사이트 활용 식당 유형별 주요 식당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별 현황 리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 실무 분석 결과 - 트렌드 조사 결과 상권 주요 특징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형성 배경, 집객 시설, 유동 인구 특성 등 인터뷰 대상자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문가, 외식 전문가, 유통 전문가 - 대표 소비자 출장 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내용의 체계적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관찰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4.11~4.15) - 상하이 (4.11~4.15) - 홍콩 (4.25~4.30) - 타이페이 (4.31~5.06) - 호치민 (4.25~4.29) - 자카르타 (5.09~5.14) - 싱가포르 (5.15~5.22) - 방콕 (5.16~5.22) 현장 관찰 방법론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상하이 현장 관찰 후 방법론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소비자 특징, 식당 운영 방식, 식당 운영 시 고려 사항 등 식당 관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소개, 메뉴구성, 손님 구성, 인테리어 특징, 서비스/종업원 특징 상권관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구성, 주요 동선 및 유동인구, 식당 현황, 상권 사진

• 상권의 정의

- 다수의 지역 전문가로부터 상권 유형별 대표 상권을 추천을 받았으며, 추천 수가 높은 상권을 분석 대상 상권을 선정함.

• 상권유형 분류 기준

- 도시계획 시반 상권유형 분류기준을 준용, 거주지역 및 비거주지역(상업지역)을 세분화하여 EY 상권유형 분류기준을 수립함. 수립된 상권유형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음.

대구분	세부분류	내용
거주지역 상권	주택가	주택가, 아파트 등 거주지역 중심의 상권
비거주지역 상권	관광지 상권	각 지역 랜드마크 등 국내/해외 관광객이 많은 상권
	소비 중심 상권	백화점, 식당, 카페 등 소비 성향이 강한 상권
	오피스 상권	관공서나 직장인이 주류층을 이루는 오피스 밀집 상권
	교통 중심 상권	환승역, 기차, 버스터미널 중심의 상권
	교육 상권	대학가, 학원 등 학생 중심의 상권

- 도시별 상권선정 내역

도시명	관찰 상권
북경	중관춘, 우다코우, 왕푸징, 난뤄구샹, 귀마오, 산리툰, 시단, 스차하이
상해	쉬자후이, 화이하이루, 신천지, 런민광창, 홍첸루, 난징시루, 와이탄, 루지아주이
홍콩	어드미랄티, 완차이, 센트럴, 침사추이, 코즈웨이 베이, 몽콕
타이베이	신의, 융강제, 공관, 중샤오푸싱, 동취/국부기념관, 타이페이처잔, 시먼딩, 스린
자카르타	센트럴파크, 탐린, 고망, 끌라빠가딩, 블록엠, SCBD, 스나얀, 스망기, 구닝안
싱가포르	이스트코스트, 시티홀, 부기스, 로버트슨키, 탄종파가, 차이나타운, 보트키, 오차드로드, 클락키, 마리나베이
방콕	썰롬, 씨암, 랏차다, 스쿰빗, 프롬퐁, 통러
호치민	여행자 거리, 벤 탄, 슈퍼볼, 푸미흥, 타오 디엔, 뱅 에, 디스트릭트 3

- 현장관찰 수행

- 사전조사 단계에서 수집된 상권의 기초 데이터 대한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집객시설의 유형, 규모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주요 상권의 기반 환경을 파악함.
- 현장관찰 시에는 사전에 파악된 정보를 참고하여 현장관찰 방법론에 따라 현장관찰을 실시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함.

- 현장관찰 방법론은 다음과 같음.

방문식당 세부파악	경영주 방문시 현장관찰 극대화	단순경영주 인터뷰에 그치지 않는 현장관찰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의 구성 비율, 가장 많이 취식하고 있는 메뉴 등 관찰 메뉴판, 간판, 시설, 위생, 인테리어 등 관찰
경쟁식당 세부파악	타 에스닉 및 현지 인기 외식당 관찰 수행	지역 경쟁식당으로부터의 인사이트 도출을 목적으로 한 관찰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권별 고객이 붐비는 인기 식당 관찰 (음식종류, 식당형태, 가격대 등 확인) 상권별 에스닉 트렌드 관찰 (선호하는 에스닉 유형, 선호 메뉴 등 파악)
주변환경 세부파악	체크리스트 기반 상권 관찰	리스트에 기반한 주변환경적 요소 관찰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집객시설 유무, 갯수 파악 (대학교, 병원, 대기업, 벽화점, 시장 등) 경쟁점포 숫자 (외식, 에스닉, 한식 등) 교통인프라 편의성 파악 (지하철, 버스 정류장 갯수 등) 지역발달상황 (신축 건물, 토목공사 등) 또는 낙후 정도
실제 경험에 의한 세부파악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 파악	소비자 입장에서의 실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음 (녹화가 가능한 여건일 경우 적극적으로 녹화) 노트테이킹 서비스, 주문소요시간, 맛, 시설, 메뉴구성, 가격 등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관찰

□ 전문가 인터뷰

- 인터뷰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주요 인터뷰 내용

인터뷰 구분		주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 선호 요건
전문가	지역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내 주요 상권 현황 외식당 창업/운영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추세 식당 장업을 위한 팁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 현지사업 경험을 통해 현지의 사회/문화 및 비즈니스 특성에 대한 조언 제공 가능자 • 해외공관(대사관, KOTRA 등) • 해외 창업지원 기관 • 도시별 한인회/한상회 등
	외식/한식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외식 시장 트렌드 한식당 운영 고도화를 위한 팁 한식/한식당 확산을 위한 정부 및 재단에 대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외식산업 전문가 및 외식/한식 전문가로 한식의 해당 지역 경쟁력 및 전망에 대한 Insight 제공 가능자 • 해외 음식 평론가 • 한식요리 연구가 • 한식 조리사 양성기관 • 해외 유명 한식 요리사 등
	식자재 유통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식자재 유통 방식의 특징 한국 식자재 수입 시 특이사항 또는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식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지 식자재 유통업자의 시각으로 지역 한식산업 전망 및 애로사항 파악 가능자 • 도시별 주요 한식재료 유통업자 • 주요 한식재료 판매 대형마트 운영자 등
소비자	주요 현지인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인들의 식습관 특징 한식/한식당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및 향후 변화 방향성 한식/한식당 성장을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인의 외식 습관이나 한식에 대한 인지/선호 정도에 대한 실제 정보 제공 가능자 • 현지인 중 외식/한식 관련 파워블로거 등 여론 형성 가능한 사람 • 평소 한식에 대한 관심과 접촉도가 높은 소비자

□ 데이터 검증

- 수집된 데이터는 산출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포함한 데이터 검증을 거친 후 분석 수행에 사용됨.

검증 대상	검증 항목	검증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에 사용할 정리된 형태의 데이터 구조 • 미가공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미가공 데이터 구조/내용 •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공 기관 - 설문/인터뷰 대상 - 크롤링 대상 웹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수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종류 별 수집 방식의 적절성 - 설문/인터뷰 질문의 응답 왜곡 risk 수준 • 수집 데이터의 유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생성 시점 - 표본 수의 통계적 유의미 수준 - 출처의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전략/고객분석 전문가 - 빅데이터 분석 모델 전문가 - 외식산업 분석 전문가

4) 보고(Deliver)

□ 조사·분석 보고

- 계획(Plan) 단계의 결과물을 고도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핵심 과업에 대한 실제 작업을 수행함.
- 핵심 산출물인 2016 글로벌 한식·외식 산업조사 보고서, 간행물, 세미나 개최결과 보고서 및 정보시스템 운영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함.

□ 신사업 기획(파일럿 실행)

- 조사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 진출 경영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기획함.
- 정보 수요자가 조사 사업을 통해 정보가 확보된 도시 내에서 정보가 필요한 영역을 지정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형 분석 정보를 제공함.

□ 간행물 발간

- 글로벌 외식 및 한식산업 조사 사업을 정보수요자들에게 알리고, 정보시스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제작함

□ 조사 결과발표회 개최

- 한식재단 홍보 및 지식 자산화를 위해 세미나 형태의 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지원 및 결과를 보고함.
 - 성공적인 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를 위한 기획 및 준비 과정 지원
 - 조사 결과 발표회 핵심 내용 중심의 조사발표회 결과 보고서 작성
 - 조사 사업 및 신사업 홍보를 통한 사업의 연속성 확보

1. 도시 보고서 요약

[길라잡이] 빅데이터 분석 참고 사항

□ 식당 샘플 수

- 도시별로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가사이트 3~4 곳을 선정하여 해당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모든 외식당 정보를 수집, 정제, 중복 제거를 통해 도출된 식당 수임. 따라서 현지 온라인 평가사이트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식당 수가 실제 수와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존재함.
- 본 조사사업에서는 체계적인 식당 업종 분류를 위해 1차 업태, 2차 에스닉이라는 기준을 수립하고 전체 도시에 적용하였음. 모든 식당을 해당 기준을 적용 및 분류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 중 일부 경우는 샘플 수 n=30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샘플 수가 적은 업태/에스닉의 경우 실제 식당 수가 적거나 혹은 평가사이트 보유 식당 수의 한계 등 여러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해석에 유의가 필요.

□ 등록 리뷰 비율

- 본 조사사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식당 업종별 방문 빈도, 나아가 식당 업종의 인기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 리뷰 건수'를 수집하였음.
- 리뷰 건수 해석 시에 업태/에스닉별 비교를 목적으로 연도별로 수집된 전체 소비자 리뷰 건수 중 각 업태가 차지하는 비중, 업태별로 각 에스닉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인기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함.

□ 외식당/한식당 주요 판매메뉴

- 해당지역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중 외식당/한식당 업종으로 분류된 식당들이 취급하는 메뉴 리스트를 취합한 결과임. 한식당의 경우 실제 현지 한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메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예 치킨 등).

□ 외식당/한식당 내 주요 소비자 추천 메뉴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들의 판매메뉴에 기록된 소비자 추천 건수를 취합한 결과임. 한식당의 경우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한식당의 메뉴 정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식분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외식당/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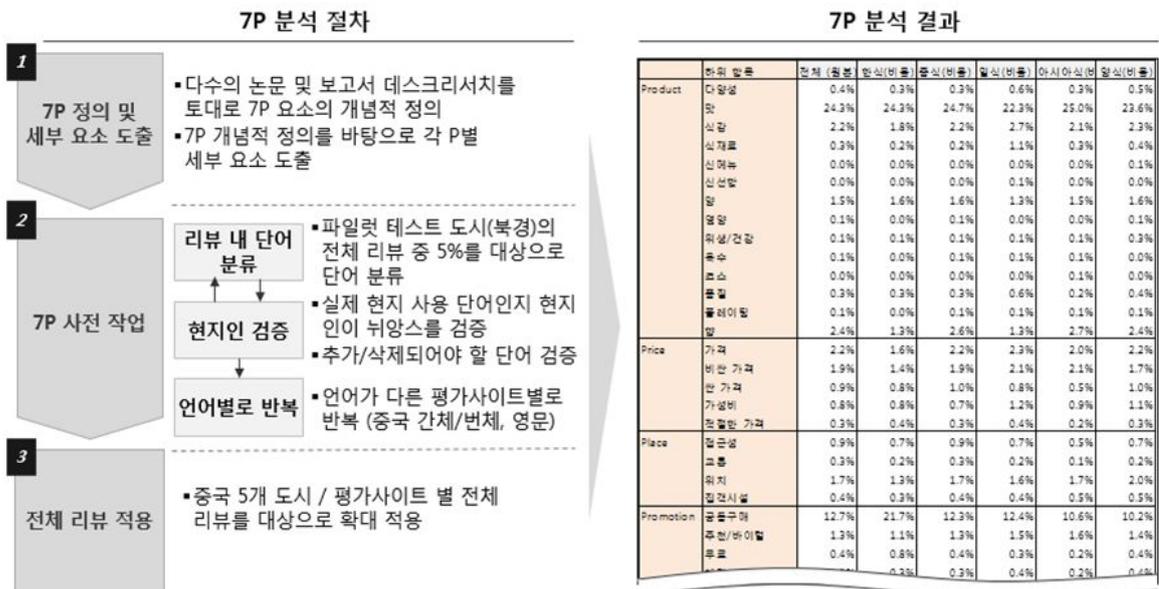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들 중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리뷰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한식당’은 각 평가사이트의 ‘한식’, ‘한국요리’로 분류된 사이트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임.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식당 메뉴키워드 결과는 한식 외에 소비자가 언급한 다양한 에스닉 메뉴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해석이 필요.

□ 추천/판매메뉴 및 메뉴키워드 번역 과정

- 평가사이트 식당 정보란에 등록된 메뉴 정보와 소비자들이 리뷰에서 언급한 메뉴 정보를 중국 현지인이 검수 및 번역하는 과정을 거침. 리뷰 텍스트 특성상, 문맥과 언급 상황이 다양함을 감안할 때 하나의 메뉴명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한글로 번역된 메뉴명은 참고용으로 활용.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7P)

- 7P 프레임을 적용하여 각 세부 마케팅믹스별 개념적 정의 및 세부 요소를 도출하고, 7P 사전 키워드를 작업 후, 전체 리뷰에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II. 보고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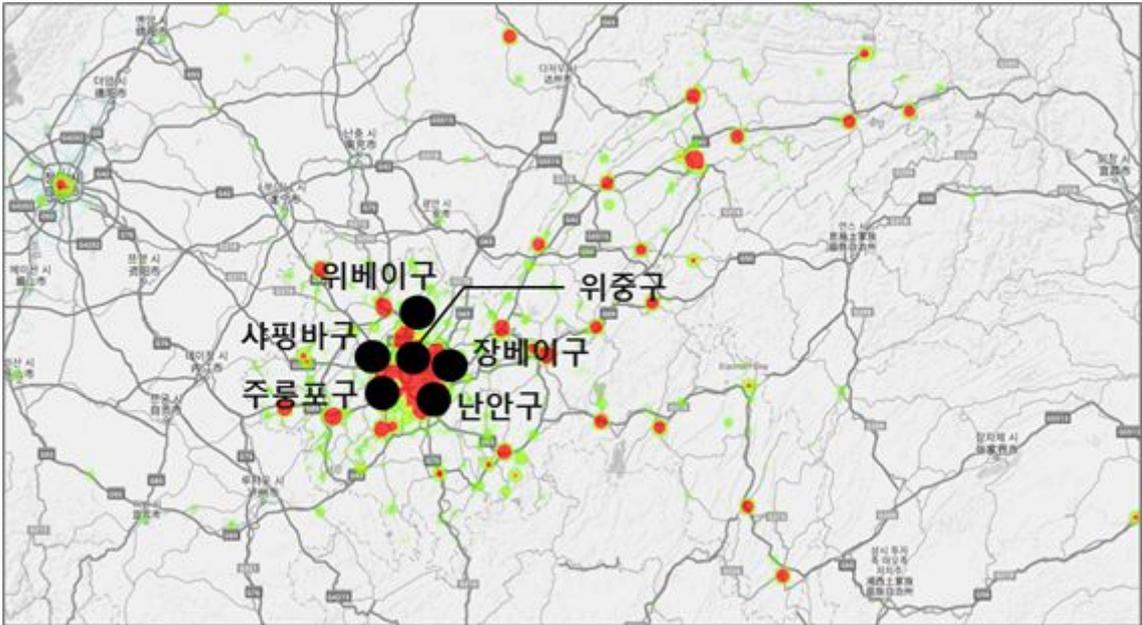
1. 도시 보고서 요약

1.1 도시 외식/한식 산업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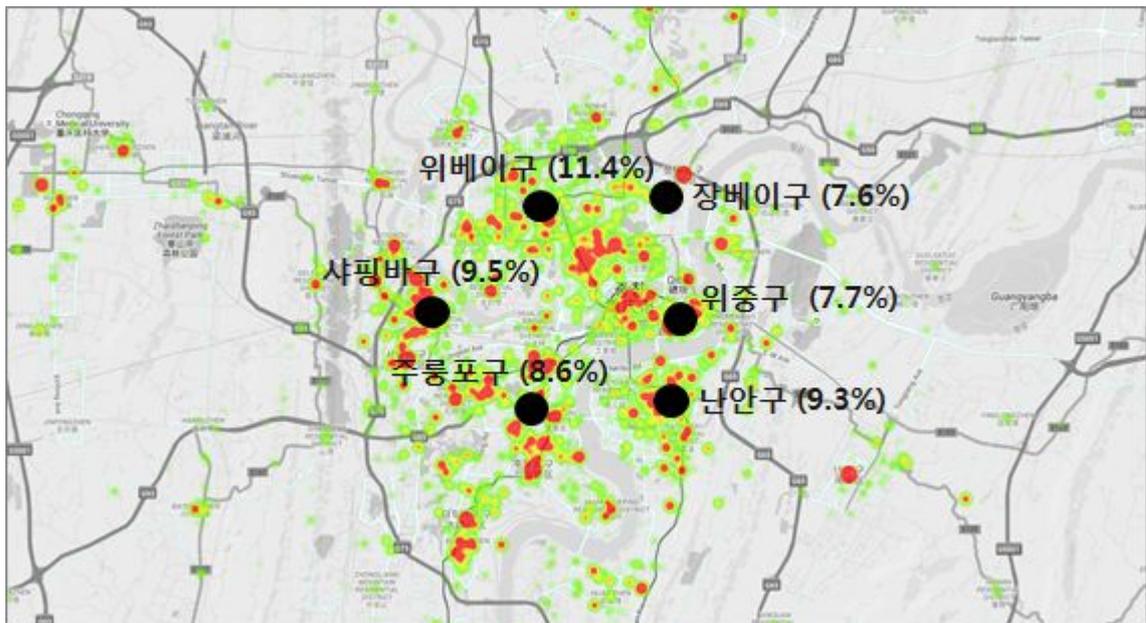
1) 지역별 식당 분포 및 리뷰 건수

- 충청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정보를 분석한 결과, 충청 외식당 밀집 상권은 주로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외식당 밀집 상권은 ‘위베이구’ (11.4%), ‘샤핑바구’ (9.5%), ‘난안구’ (9.3%), ‘주룽포구’ (8.6%) 등으로 파악됨.
-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식당의 최근 3년간 리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식당 밀집 상권은 15년 리뷰 건수 비율이 9~12% 수준으로 높지 않으며, ‘위중구’ (24.8%)와 ‘장베이구’ (20.9%)에서 리뷰 건수 비율이 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최근 3년간 리뷰 건수 추세는 ‘주룽포구’ 와 ‘위베이구’ 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식당이 밀집해 있는 상권은 외식당 밀집 상권과 다소 겹치는 것으로 파악됨. ‘장베이구’ (16.6%)에 가장 많은 수가 분포해 있지만, 그 다음 ‘위베이구’ (13.9%), ‘샤핑바구’ (12.9%), ‘난안구’ (11.1%), ‘주룽포구’ (9.3%) 등지에 다수의 한식당이 밀집해 있음.
- 한식당 밀집 상권인 ‘위중구’ 와 ‘장베이구’ 에서 15년 리뷰 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구’ 는 최근 3년간 리뷰 건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됨.

[충청 식당 분포 지도 - 전체]



[충청 식당 분포 지도 - 중심 지구]



[지역별 식당 분포 비율]³⁾

구분		외식당	한식당
총 샘플 수		94,941	604
공급자	빅데이터	渝北区 (위베이구)	11.4%
		沙坪坝区 (사핑바구)	9.5%
		南岸区 (난안구)	9.3%
		九龙坡区 (주룽포구)	8.6%
		渝中区 (위중구)	7.7%
		江北区 (장베이구)	7.6%
		合川区 (허촨구)	5.1%
		万州区 (완저우구)	5.0%
		永川区 (용촨구)	4.7%
		涪陵区 (푸링구)	3.7%

* 전체 식당 샘플 수 기준 상위 10개 구의 데이터

[지역별 리뷰 건수 비율]

구분		외식당				한식당				
연도별		2013	2014	2015	증감(%p)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만 개)		6.9	43.6	85.2		0.1	1.7	4.3		
소비자	빅데이터	渝北区 (위베이구)	11.2%	12.3%	12.1%	0.9%	3.2%	12.8%	13.5%	10.3%
		沙坪坝区 (사핑바구)	15.4%	11.2%	9.6%	-5.8%	6.8%	9.1%	7.1%	0.3%
		南岸区 (난안구)	13.5%	13.3%	11.6%	-1.9%	27.2%	27.8%	18.6%	-8.6%
		九龙坡区 (주룽포구)	8.2%	12.0%	11.2%	3.1%	10.0%	7.8%	9.3%	-0.7%
		渝中区 (위중구)	25.1%	24.2%	24.8%	-0.3%	17.7%	11.5%	19.5%	1.7%
		江北区 (장베이구)	19.7%	20.9%	20.9%	1.3%	29.0%	28.0%	29.0%	0.0%
		合川区 (허촨구)	0.3%	0.4%	1.4%	1.0%	0.0%	0.1%	0.2%	0.2%
		万州区 (완저우구)	0.4%	0.4%	0.9%	0.5%	0.6%	0.4%	0.7%	0.1%
		永川区 (용촨구)	0.8%	0.6%	1.0%	0.2%	0.8%	0.2%	0.3%	-0.5%
		涪陵区 (푸링구)	0.2%	0.1%	0.6%	0.4%	0.4%	0.3%	0.2%	-0.2%

* 전체 식당 샘플 수 기준 상위 10개 구의 데이터

3) 빅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된 식당 샘플에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식당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2) 업태 구성 및 업태별 방문 빈도4)

- 충청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정보를 분석한 결과, ‘중저가 식당’이 전체 외식당의 51.1%로 가장 많으며, 소비자들도 ‘중저가 식당’을 월평균 11.2회 중 3.6회 방문하여 타 업태 대비 높은 방문율을 보임.
-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최근 3년간의 리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중저가 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은 15년 21.4%로 나타나며,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반면 ‘고가 식당’의 15년 기준 리뷰 건수 비율이 가장 높으며(50.3%),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충청 전체 한식당 중 74.8%가 ‘중저가 식당’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배경 외식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충청 소비자들은 한식당을 월평균 11.3회 중 3.8회 방문하며, 최근 3년간의 리뷰 건수 비율의 추세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업태 구성 및 업태별 방문 빈도]

구분	분석 방식	세부항목	형태	년도	합계/평균	업태별			
						고가 식당	중저가 식당	패스트 푸드	카페/바
공급자	빅데이터	업태별 식당 비율	외식당	2015	100%	5.0%	51.1%	16.7%	27.1%
			한식당	2015	100%	21.9%	74.8%	-	3.3%
소비자	소비자 설문	업태별 방문 빈도	외식당	2015	10.8회	2.3회	3.6회	3.2회	1.3회
			한식당	2015	3.8회	-	-	-	-
	빅데이터	업태별 리뷰 건수	외식당	2013	100%	43.4%	27.0%	16.3%	13.3%
				2014	100%	47.6%	25.1%	14.0%	13.3%
				2015	100%	50.3%	21.4%	14.2%	14.2%
			한식당	2013	100%	70.9%	29.1%	0.0%	0.0%
				2014	100%	71.9%	28.1%	0.0%	0.0%
				2015	100%	71.3%	27.3%	1.4%	0.0%

4)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객단가를 파인/캐주얼다이닝(Dining)업태 구분에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구분 및 분석함.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다이닝(Dining) 업태 식당의 가격 정보를 수집한 뒤 가격대 50위안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고가 식당, 기준값 이하면 중저가 식당으로 구분하고 사용하였음. 분석에 사용된 기준 가격대는 넘베오사이트(www.numbeo.com)의 “2인 기준 3코스식을 제공하는 중급 레스토랑 가격대”(Meal for 2 People, Mid-range Restaurant, Three-course)의 최대값을 절반으로 나눈 값임.

3) 식당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가격 정보를 분석한 결과, 충청 전체 한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56.5위안이며, 이는 충청 내의 전체 외식당 평균 가격대(50.2위안)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외식당의 약 90% 이상이 ‘90위안’ 미만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60위안 미만’ 가격대에 분포함.
- 반면, 충청의 외식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충청 소비자들은 식당 방문 시 1인당 126.3위안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식당 방문 시에는 1인당 약 127.8위안을 지출해 큰 가격차가 존재하지 않음.

[식당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외식당	한식당
공급자	빅데이터	식당 가격대*	50.2위안	56.5위안
	경영주 설문	식당 객단가	미조사	49.7위안
소비자	소비자 설문	1회당 지출 비용	126.3위안	127.8위안

* 소비자들이 식당별로 기록한 한 끼 식사 비용의 평균치

[식당 가격대 분포]

구분	분석 방식	세부항목	전체	고가 식당	중저가 식당	패스트푸드	카페/바	기타
공급자	빅데이터	0~30위안 미만	32.2%	0.0%	19.1%	88.4%	55.8%	69.4%
		30~60위안 미만	41.0%	33.0%	80.9%	8.9%	35.0%	22.4%
		60~90위안 미만	18.6%	47.0%	0.0%	2.0%	5.0%	8.2%
		90~120위안 미만	4.7%	11.6%	0.0%	0.6%	1.9%	0.0%
		120~150위안 미만	1.4%	3.6%	0.0%	0.0%	0.7%	0.0%
		150~180위안 미만	0.8%	1.8%	0.0%	0.0%	0.9%	0.0%
		180~210위안 미만	0.3%	0.8%	0.0%	0.0%	0.2%	0.0%
		210~240위안 미만	0.2%	0.6%	0.0%	0.0%	0.1%	0.0%
		240~270위안 미만	0.2%	0.4%	0.0%	0.0%	0.2%	0.0%
		270~300위안 미만	0.1%	0.2%	0.0%	0.0%	0.0%	0.0%
		300위안 이상	0.4%	0.9%	0.0%	0.1%	0.3%	0.0%

4) 한식당 만족도 및 추천 의향

- 충청 현지 외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한식당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충청 소비자들의 한식당 만족도는 10점 척도 기준 평균 8.37점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한식당 추천 의향을 묻는 질문에 10점 척도 기준 평균 8.33점으로 나타남. 순 추천 고객 지수 (NPS : Net Promoter Score) 는 39임.

[만족도 및 추천의향]

구분	분석 방식	항목	한식당
소비자	소비자 설문	한식당 만족도	8.37점
		한식당 추천 의향	8.33점
		순추천고객지수* (NPS)	39%

* NPS= 추천 고객(9~10점) 비율 - 비추천 고객(0~6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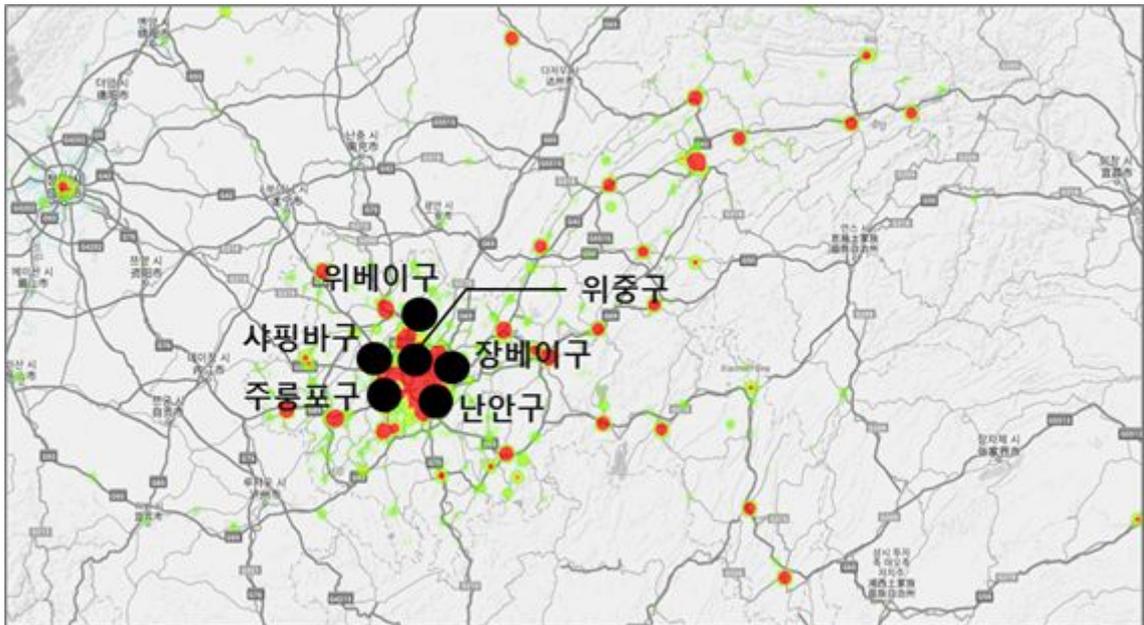
n = 353, 한식당 경험자

1.2 고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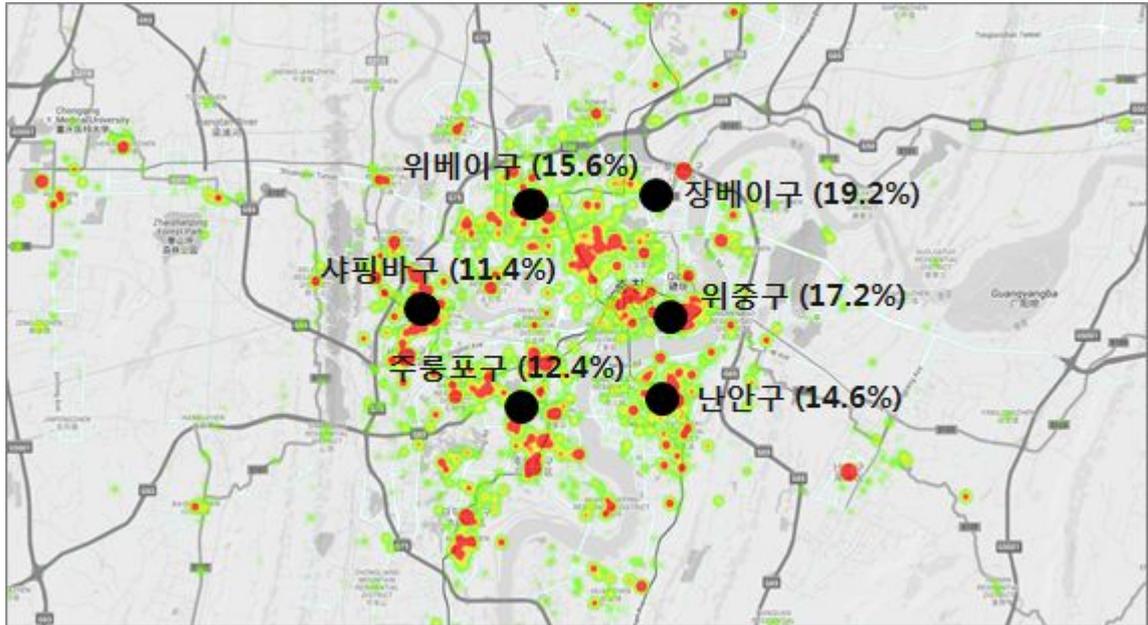
1) 지역별 식당 분포 및 리뷰 건수

- 충청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고가 식당’ 정보를 분석한 결과, 충청의 ‘고가 식당’ 외식당 밀집 상권은 ‘장베이구’, ‘위중구’, ‘난안구’, ‘주룽포구’ 등으로 파악됨. 그 중 ‘장베이구’와 ‘위중구’에 각각 23.7%, 21.0%가 밀집되어 있음.
-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외식당의 최근 3년간 리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위중구’는 15년 리뷰 건수 비율이 29.2%로 ‘장베이구’ (25.1%)와 타 상권에 비해 높은 편이나, 최근 3년간 리뷰 건수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 ‘장베이구’나 ‘주룽포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고가 식당’ 한식당 밀집 지역은 ‘고가 식당’ 외식당 밀집지역과 겹치는 것으로 파악됨. 그 중 ‘위중구’와 ‘장베이구’에 각각 18.0%, 16.0%가 밀집해 있고, 리뷰 건수 비율도 15년 각각 15.7%, 2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최근 3년간 리뷰 건수 비율은 ‘장베이구’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위베이구’도 최근 3년간 리뷰 건수 비율이 11.4% 급증한 것으로 파악됨.

[충청 식당 분포 지도 - 고가 식당]



[충청 식당 분포 지도 - 중심 지구 - 고가 식당]



[충청 지역별 식당 분포 비율 - 고가 식당]

구분		외식당	한식당	
총 샘플 수		4,676	132	
공급자	빅데이터	渝北区 (위베이구)	15.6%	18.9%
		沙坪坝区 (샹핑바구)	11.4%	8.3%
		南岸区 (난안구)	14.6%	12.1%
		九龙坡区 (주룽포구)	12.4%	12.9%
		渝中区 (위중구)	17.2%	18.2%
		江北区 (장베이구)	19.2%	22.7%
		合川区 (허촨구)	0.2%	0.0%
		万州区 (완저우구)	0.5%	0.8%
		永川区 (용촨구)	0.5%	0.8%
		涪陵区 (푸링구)	0.4%	1.5%

* 전체 식당 샘플 수 기준 상위 10개 구의 데이터

[지역별 리뷰 건수 비율 - 고가 식당]

구분		외식당				한식당				
연도별		2013	2014	2015	증감(%p)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만 개)		3.0	21.5	39.6		0.1	1.2	3.1		
소비자	빅데이터	渝北区 (위베이구)	12.9%	13.4%	13.4%	0.5%	4.6%	13.5%	16.0%	11.4%
		沙坪坝区 (사핑바구)	8.5%	7.2%	6.4%	-2.2%	4.3%	7.0%	5.7%	1.4%
		南岸区 (난안구)	14.6%	13.8%	11.9%	-2.7%	39.4%	33.9%	20.5%	-18.8%
		九龙坡区 (주룽포구)	7.4%	11.9%	11.0%	3.7%	12.6%	11.0%	10.9%	-1.6%
		渝中区 (위중구)	30.5%	26.8%	29.2%	-1.2%	24.5%	11.9%	15.7%	-8.8%
		江北区 (장베이구)	23.0%	24.0%	25.1%	2.1%	11.8%	20.6%	29.4%	17.6%
		合川区 (허촨구)	0.0%	0.0%	0.0%	0.0%	0.0%	0.0%	0.0%	0.0%
		万州区 (완저우구)	0.1%	0.2%	0.2%	0.1%	0.6%	0.3%	0.7%	0.0%
		永川区 (용촨구)	0.1%	0.1%	0.1%	0.0%	0.7%	0.2%	0.0%	-0.7%
		涪陵区 (푸링구)	0.0%	0.0%	0.1%	0.0%	0.5%	0.3%	0.1%	-0.4%

* 전체 식당 샘플 수 기준 상위 10개 구의 데이터

2) 에스닉 구성 및 에스닉별 리뷰 건수

- ‘중식’ 식당 수는 전체 ‘고가 식당’ 의 74.7%로 가장 많으며, 소비자 리뷰 건수 비율도 5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한식’ 식당 수 비율은 2.8%로 타 에스닉 대비 낮은 수준이며, 리뷰 건수 비율은 7.0%로 서양식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서양식’ 식당 수 비율은 5.3%로 ‘일식’ 식당(4.0%)에 비해 많지만, 리뷰 비율은 6.8%로 ‘일식’ 식당의 리뷰 비율(9.6%)보다 낮게 나타남.

[에스닉 비율 분석 - 고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에스닉별 세부항목	
공급자	빅데이터	식당 비율	중식	74.7%
			일식	4.0%
			한식	2.8%
			서양식	5.3%
			기타 아시안	1.5%
			구분 어려움	11.8%
			소비자	빅데이터
일식	9.6%			
한식	7.0%			
서양식	6.8%			
기타 아시안	3.0%			
구분 어려움	21.4%			

3) 주요 판매메뉴⁵⁾ 및 소비자 언급 메뉴키워드⁶⁾⁷⁾

- 현지 ‘고가 식당’ 에서 많이 판매되는 외식 메뉴는 ‘천엽(300곳)’, ‘오리창자’ (245곳), ‘거위창자’ (149곳) 등의 동물내장류와 ‘스테이크’ (159곳) 등의 서양식 메뉴로 파악됨.
- 그 중 동물내장류는 2015년 소비자들이 많이 언급하였으나, 최근 4년간 리뷰 건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반면 ‘마라우육’, ‘오리구이’ 등 중국 내 타 지역 메뉴는 15년 언급률도 높고, 최근 4년간 언급률도 증가 추세임.
- ‘스테이크’ 등의 메뉴는 15년 언급률은 높으나, 추세에 큰 변화는 없음.
- 현지 ‘고가 식당’ 중 한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한식 메뉴는 ‘삼겹살구이(64 곳)’, ‘떡볶이(43곳)’, ‘돌솥비빔밥(24곳)’ 등의 메뉴가 주로 판매되고 있음.
- 2015년 소비자들에게 많이 회자된 메뉴는 ‘불고기’, ‘삼겹살구이’, ‘떡볶이’ 등이며, 최근 4년 간 대부분 메뉴의 언급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현지 외식당/한식당 주요 판매메뉴 순위 - 고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외식당			한식당		
		메뉴명(현지어)	메뉴명(한글)	메뉴 수	메뉴명(현지어)	메뉴명(한글)	메뉴 수
공급자 빅데이터		毛肚	천엽	300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64
		鸭肠	오리창자	245	炒年糕	떡볶이	43
		烤牛排	스테이크	159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24
		麻辣牛肉	마라우육	155	烤牛舌	우설 구이	22
		鹅肠	거위창자	149	烤肥牛	소고기구이	21
		酥肉	탕수육	149	烤鸡翅	닭날개구이	21
		老肉片	돼지고기 얇은 조각	138	鸡皮	닭껍질구이	20
		烤牛肉	소고기구이	132	烤牛排	스테이크	18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126	冷面	냉면	16
		烤鱼	대구	120	掌中宝	꼬치구이	15

5)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중 메뉴 정보를 제공하는 식당의 데이터만 사용되었음, 메뉴순위와 메뉴 수는 다소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수치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보다 현지에서 많이 취식하는 메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 이하 모두 동일.

6) 메뉴별 언급 빈도는 빅데이터를 수집한 12개 도시의 업태별 대표메뉴 20개, 에스닉별 대표메뉴 50개씩을 추출해 (이하 총 1,650개) 만든 메뉴사전을 리뷰에 적용한 결과임. 레스토랑 평가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 층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 이하 모두 동일.

7) 빅데이터 메뉴 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은 '빅데이터 분석 참고 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람

[외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고가 식당⁸⁾

순위	메뉴명 (한자)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9,636	25,216	123,330	387,537	
1	火锅	火鍋	14.2%	10.8%	4.9%	4.7%	-9.5%
2	牛肉	쇠고기	6.6%	4.7%	3.2%	3.4%	-3.2%
3	牛排	스테이크	4.8%	5.4%	3.8%	2.7%	-2.1%
4	海鮮	해산물	3.6%	3.1%	2.3%	2.3%	-1.3%
5	烤肉	고기구이	1.6%	1.2%	1.5%	1.7%	0.1%
6	套餐	세트메뉴	3.1%	2.3%	1.6%	1.6%	-1.6%
7	饮料	음료	2.7%	2.1%	1.5%	1.5%	-1.2%
8	三文魚	연어요리	2.9%	2.1%	1.4%	1.4%	-1.5%
9	甜品	디저트	2.4%	1.9%	1.4%	1.4%	-1.1%
10	壽司	초밥	3.4%	2.0%	1.3%	1.2%	-2.2%

[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고가 식당⁹⁾

순위	메뉴명 (한자)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339	598	6,836	27,072	
1	烤肉	불고기	28.6%	27.1%	14.7%	13.5%	-15.1%
2	五花肉	삼겹살구이	15.6%	15.4%	8.4%	7.6%	-8.0%
3	年糕	떡볶이	15.6%	10.5%	6.2%	4.8%	-10.8%
4	牛肉	소고기구이	10.9%	9.0%	6.4%	4.7%	-6.2%
5	拌饭	비빔밥	16.8%	16.2%	6.0%	3.9%	-13.0%
6	饮料	음료수	3.8%	2.0%	3.2%	3.1%	-0.8%
7	套餐	세트메뉴	8.0%	4.8%	2.2%	2.1%	-5.9%
8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0.3%	8.4%	3.7%	1.9%	-8.4%
9	泡菜	김치	4.1%	5.4%	2.5%	1.9%	-2.3%
10	南瓜粥	호박죽	10.6%	4.5%	2.6%	1.6%	-9.0%

8)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9)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4) 식당/메뉴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¹⁰⁾

□ 식당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서 수집된 식당 가격정보를 분석한 결과, ‘고가 식당’ 한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72.3위안’ 으로, 외식당 평균 가격(82.8위안)보다 낮은 수준임.
- 전체 ‘고가 식당’ 외식당 가격대는 ‘90위안 미만’ 에 집중되어 있음. ‘일식’, ‘서양식’, ‘기타아시안식’ 식당의 가격대는 ‘90위안 이상’ 가격대의 비중이 ‘중식’ 식당에 비해 높음.
- ‘한식’ 식당은 ‘90위안 미만’ 가격대에 약 90% 이상 분포해 있으며, ‘중식’ 식당과 더불어 저가격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식당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고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외식당	한식당
공급자	빅데이터	식당 가격대*	82.8위안	72.3위안
	경영주 설문	식당 객단가	미조사	미조사
소비자	소비자 설문	1회당 지출 비용	227.2위안	-

* 소비자들이 식당별로 기록한 한 끼 식사 비용의 평균치

[에스닉별 식당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세부항목	전체	중식	일식	한식	서양식	기타아시안
공급자	빅데이터	50~70위안 미만	58.3%	64.8%	25.6%	42.6%	42.5%	9.5%
		70~90위안 미만	24.4%	22.9%	23.3%	48.9%	23.4%	33.3%
		90~110위안 미만	8.6%	7.6%	12.4%	7.4%	9.0%	35.7%
		110~130위안 미만	3.0%	2.8%	5.4%	0.0%	4.2%	4.8%
		130~150위안 미만	1.8%	0.6%	7.8%	1.1%	6.6%	11.9%
		150~170위안 미만	0.9%	0.5%	3.1%	0.0%	4.2%	0.0%
		170~190위안 미만	0.5%	0.1%	3.1%	0.0%	2.4%	2.4%
		190~210위안 미만	0.2%	0.0%	2.3%	0.0%	0.6%	2.4%
		210~230위안 미만	0.4%	0.1%	5.4%	0.0%	0.6%	0.0%
		230~250위안 미만	0.4%	0.1%	4.7%	0.0%	0.0%	0.0%
		250위안 이상	1.4%	0.6%	7.0%	0.0%	6.6%	0.0%

10)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중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식당의 데이터만 사용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수치는 현지 가격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 이하 모두 동일.

□ 메뉴 가격

-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서 수집된 메뉴 가격을 분석한 결과,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록된 현지 ‘고가 식당’의 평균 메뉴 가격은 ‘48.5위안’이며, 한식당의 평균 메뉴 가격은 ‘42.3위안’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소비자 추천 건수를 기반으로 한 메뉴 가격의 평균은 외식당에서 50.2위안이며, 한식당은 37.6위안으로 외식당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소비자들은 한식당에서 판매되는 메뉴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대의 메뉴를 더 추천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가격대 별로 보면 외식 메뉴는 ‘80위안 미만’의 저가격대 구간에 62.2%가 분포하나, 한식당은 해당 가격대 구간에 81%의 메뉴가 분포해 있음.

[메뉴 가격 평균 - 고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세부항목	외식당	한식당
공급자	빅데이터	메뉴 가격대 평균	48.5위안	42.3위안
소비자		추천 수 반영 메뉴 가격 평균*	50.2위안	37.6위안

* 추천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메뉴 가격의 평균

[가격대별 메뉴 수 비율 - 고가 식당]

(단위 : 위안)

구분	분석 방식	메뉴 가격대	외식당		메뉴 가격대	한식당	
			비율	누적 비율		비율	누적 비율
공급자	빅데이터	평균	48.5위안		평균	42.3위안	
		0~20 미만	10.3%	10.3%	0~40 미만	15.7%	15.7%
		20~40 미만	19.9%	30.2%	40~80 미만	50.5%	66.2%
		40~60 미만	19.0%	49.2%	80~120 미만	14.8%	81.0%
		60~80 미만	12.9%	62.2%	120~160 미만	8.1%	89.0%
		80~100 미만	10.7%	72.9%	160~200 미만	7.1%	96.2%
		100~120 미만	3.3%	76.2%	200~240 미만	2.4%	98.6%
		120~140 미만	4.7%	81.0%	240~280 미만	0.5%	99.0%
		140~160 미만	1.9%	82.9%	280~320 미만	0.5%	99.5%
		160~180 미만	2.6%	85.4%	320~360 미만	0.0%	99.5%
		180~200 미만	4.3%	89.8%	360~400 미만	0.0%	99.5%
200 이상	10.2%	100.0%	400 이상	0.5%	100.0%		

5)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충청 현지 외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외식당 선택 시 음식 요소의 ‘음식의 맛(59%)’ 과 ‘음식의 건강함(44%)’ 을 주로 고려함. 그 외 ‘식당의 이미지(47%)’ 와 ‘내부 분위기(45%)’ 도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 한식당 방문 시 음식 요소의 ‘음식의 맛(56%)’ 과 ‘음식의 건강함(42%)’ 를 주로 고려하며, 그 외 ‘위생상태’ 도 고려하고 있음.
- ‘위생상태(외식당 32%, 한식당 45%)’ 는 한식당 선택 시 더욱 중시되는 요소이나, ‘식당의 이미지(외식당 47%, 한식당 38%)’ 와 ‘식당의 외관’ (외식당 29%, 한식당 16%)은 한식당 선택 시 덜 고려되는 요소로 보임.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고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외식당			한식당		
			순위	세부 항목	비율	순위	세부 항목	비율
소비자	소비자 설문	Product	1	맛	59%	1	맛	56%
			2	건강	44%	2	건강	42%
			3	다양함	33%	3	다양함	33%
			4	양	18%	4	양	23%
		Price	1	가격	14%	1	가격	19%
		Place	1	접근성	19%	1	접근성	24%
		Promotion	1	식당 이미지	47%	1	식당 이미지	38%
			2	가격할인	14%	2	가격할인	16%
			3	이벤트	13%	3	이벤트	13%
		Physical Evidence	1	내부 분위기	45%	1	위생상태	41%
			2	위생상태	32%	2	내부 분위기	37%
			3	외관	29%	3	외관	16%
			4	주차시설	14%	4	편의시설	15%
			5	편의시설	12%	5	주차시설	9%
		Process	1	격식 서비스	28%	1	격식 서비스	24%
			2	신속함	14%	2	편리함	19%
			3	편리함	13%	3	신속함	17%
		People	1	직원 태도	19%	1	직원 태도	16%
			2	용모	12%	2	인지도	13%
			3	의사소통	11%	3	의사소통	13%
			4	인지도	5%	4	용모	9%
			5	개인적 관계	3%	5	개인적 관계	8%

6) 식당 방문 목적 및 동행인

- 충청 현지 외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고가 식당’ 업태 식당의 방문 목적은 ‘사적인 모임’ 이 각각 외식당(45%), 한식당(63%)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외식당의 경우 공식적인 모임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42%로 뒤따르는 반면, 한식당은 일상적인 식사(26%)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 공식적인 모임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은 11%로 낮은 편임.
- ‘사적인 모임’ 의 경우 외식당과 한식당 모두 가족 혹은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식당 방문 목적 및 동행인 - 고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식당 방문 목적			동행인		
		항목	외식당	한식당*	세부항목	외식당	한식당*
소비자	소비자 설문	사적인 모임	45%	63%	가족	35%	38%
					친구	39%	47%
					연인	26%	15%
		일상적인 식사	13%	26%	가족	43%	45%
					혼자	27%	19%
					친구	14%	25%
					직장동료	16%	11%
		공식적인 모임	42%	11%	고객	68%	60%
					직장동료	32%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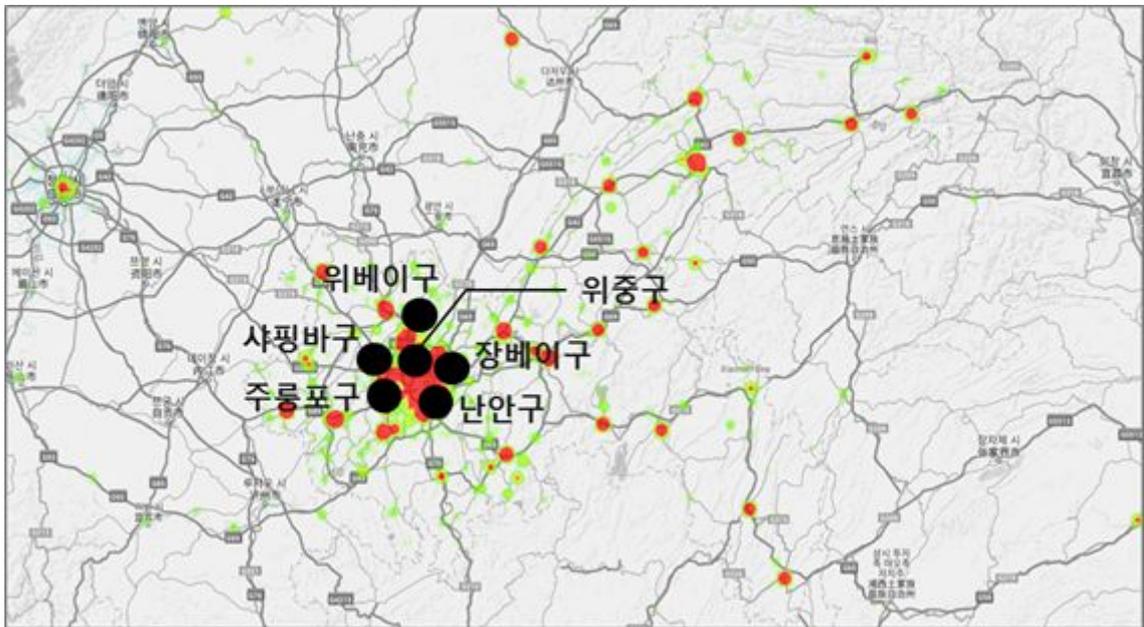
* 한식당 데이터는 업태로 구분하지 않은 전체 평균 값임.

1.3 중저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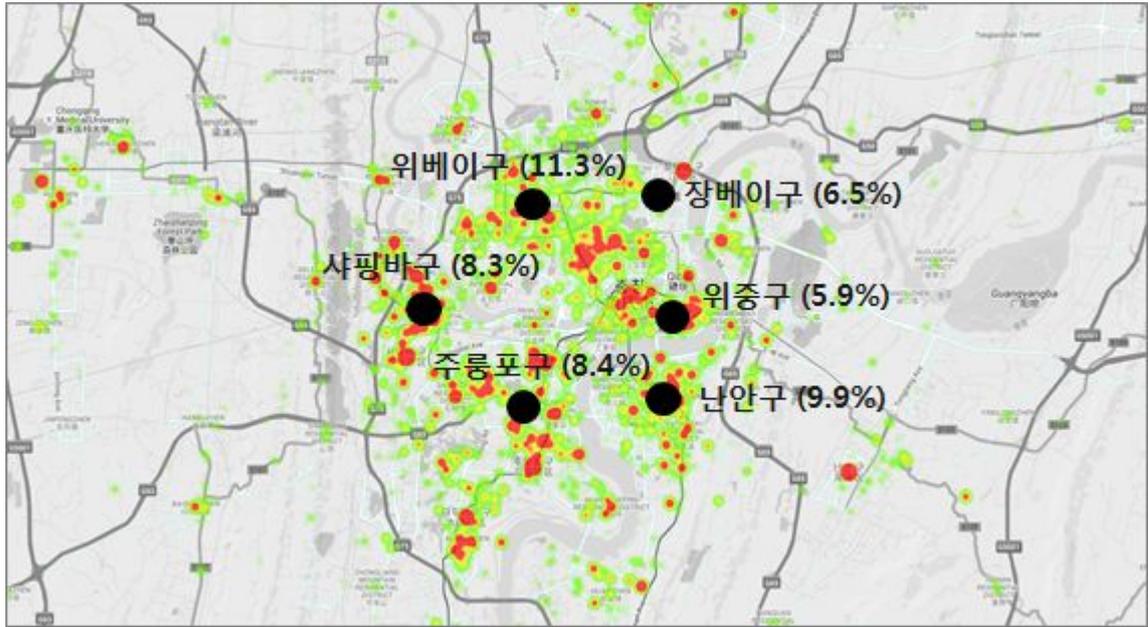
1) 지역별 식당 분포 및 리뷰 건수

- 충청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중저가 식당’ 정보를 분석한 결과, 충청 내 ‘중저가 외식당’은 주요 상권 별로 고른 비율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그 중 ‘위베이구’ (11.3%)에 ‘중저가 외식당’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식당의 최근 3년간 리뷰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리뷰 건수 비율이 높은 상권은 ‘위중구’ (16.1%)이며, 최근 4년간 리뷰 건수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반면 ‘샤핑바구’와 ‘장베이구’, ‘난안구’ 등은 최근 3년 간 계속 감소함.
- 한식당도 주요 상권 별로 각각 8.0~12.0%의 고른 비율로 분포해 있음. 그 중 ‘샤핑바구’와 ‘장베이구’에 각각 14.4%, 14.2%가 밀집해 있음.
- ‘허촨구’와 ‘완저우구’ 등지에서는 15년 리뷰 건수 비율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식당이 밀집해 있는 ‘위중구’와 ‘장베이구’ 등지에서 리뷰 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위중구’에서는 최근 3년간 리뷰 건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장베이구’는 급감하고 있음.

[충청 식당 분포 지도 - 중저가 식당]



[충청 식당 분포 지도 - 중심 지구 - 중저가 식당]



[충청 지역별 식당 분포 비율 - 중저가 식당]

구분		외식당	한식당	
총 샘플 수		47,365	452	
공급자	빅데이터	渝北区 (위베이구)	11.3%	12.6%
		沙坪坝区 (샤핑바구)	8.3%	14.4%
		南岸区 (난안구)	9.9%	11.1%
		九龙坡区 (주룽포구)	8.4%	8.6%
		渝中区 (위중구)	5.9%	9.3%
		江北区 (장베이구)	6.5%	14.2%
		合川区 (허촨구)	5.3%	3.1%
		万州区 (완저우구)	5.7%	3.8%
		永川区 (용촨구)	5.2%	2.4%
		涪陵区 (푸링구)	4.3%	2.9%

* 전체 식당 샘플 수 기준 상위 10개 구의 데이터

[지역별 리뷰 건수 비율 - 중저가 식당]

구분		외식당				한식당				
연도별		2013	2014	2015	증감(%p)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만 개)		19	10.4	16.4		0.04	0.51	1.12		
소비자	빅데이터	渝北区 (위베이구)	11.2%	13.7%	14.5%	3.3%	0.5%	11.1%	7.4%	6.9%
		沙坪坝区 (사핑바구)	21.3%	16.5%	13.1%	-8.3%	11.5%	14.1%	11.3%	-0.2%
		南岸区 (난안구)	13.3%	13.7%	12.4%	-0.9%	3.5%	13.7%	13.5%	10.0%
		九龙坡区 (주룽포구)	10.3%	11.9%	10.3%	0.0%	4.9%	0.6%	5.4%	0.5%
		渝中区 (위중구)	13.5%	15.0%	16.1%	2.7%	4.5%	10.6%	30.3%	25.8%
		江北区 (장베이구)	17.9%	18.4%	16.0%	-1.9%	62.4%	44.8%	25.1%	-37.3%
		合川区 (허촨구)	0.6%	0.8%	2.2%	1.6%	0.0%	0.3%	0.6%	0.6%
		万州区 (완저우구)	0.8%	0.5%	1.0%	0.2%	0.5%	0.7%	0.9%	0.4%
		永川区 (용촨구)	1.5%	1.4%	2.6%	1.1%	0.9%	0.3%	1.0%	0.0%
涪陵区 (푸링구)	0.3%	0.2%	1.2%	0.8%	0.2%	0.1%	0.3%	0.1%		

* 전체 식당 샘플 수 기준 상위 10개 구의 데이터

2) 에스닉 구성 및 에스닉별 리뷰 건수

- 전체 ‘중저가 식당’ 중 ‘중식’ 식당 수가 전체의 73,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비자 리뷰 건수 비율도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식’ 식당의 비율은 1,0%로 다른 에스닉 식당과 비슷하지만, 리뷰 건수 비율은 6,3%로 ‘서양식’ 식당과 동일한 비율을 차지함.
- ‘서양식’ 과 ‘일식’ 식당의 식당 수 비율은 각각 1,5%, 1,0%로 비슷하나, 리뷰 건수 비율은 ‘서양식’ 의 경우 약 6,3%로 ‘일식’ (3,6%)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남.

[에스닉 비율 분석 - 중저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에스닉별 세부항목	
공급자	빅데이터	식당 비율	중식	73.2%
			일식	1.0%
			한식	1.0%
			서양식	1.5%
			기타 아시안	0.3%
			구분 어려움	23.0%
소비자	빅데이터	리뷰 비율	중식	65.5%
			일식	3.6%
			한식	6.3%
			서양식	6.3%
			기타 아시안	0.2%
			구분 어려움	18.0%

3) 주요 판매메뉴 및 소비자 언급 메뉴키워드

- 충청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메뉴키워드들을 수집한 결과, 현지 ‘중저가 식당’ 에서 많이 판매되는 외식 메뉴는 ‘천엽(461곳)’, ‘오리창자’ (350곳), ‘거위창자’ (195곳) 등의 동물내장류와 ‘소고기구이’ (272곳) 등으로 파악됨.
- 2015년도 소비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메뉴는 ‘튀김’, ‘고기구이’ 등이며. ‘피자’ 를 제외한 대부분의 메뉴들은 최근 4년간 언급률이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세임.
- 현지 ‘중저가 식당’ 중 한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삼겹살구이(33곳)’, ‘떡볶이(22곳)’, ‘돌솥비빔밥(16곳)’ 등으로 나타남. 떡볶이 등의 메뉴는 2015년 리뷰 언급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감소하는 추세임.
- 최근 4년간 언급 비율이 증가한 한식당 메뉴는 ‘김밥’, ‘김’ 등으로 파악됨. ‘

[현지 외식당/한식당 주요 판매메뉴 순위 - 중저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외식당			한식당		
		메뉴명(현지어)	메뉴명(한글)	메뉴 수	메뉴명(현지어)	메뉴명(한글)	메뉴 수
공급자	빅데이터	毛肚	천엽	461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33
		鸭肠	오리창자	350	炒年糕	떡볶이	22
		烤牛肉	소고기구이	272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6
		麻辣牛肉	마라우육	254	烤牛肉	소고기구이	6
		鹅肠	거위창자	195	鲑鱼	오징어	6
		酥肉	탕수육	186	部队火锅	부대찌개	6
		老肉片	얇은 돼지고기	166	烤肥牛	소고기구이	6
		嫩牛肉	연한 소고기	163	炸鸡拼盘	후라이드치킨	5
		现炸酥肉	씨에짜수로우	149	部队年糕锅	부대찌개	5
		烤鱼	생선구이	143	炒饭	차오뵴(볶음밥)	5

[외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중저가 식당¹¹⁾]

순위	메뉴명 (한자)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5,306	15,704	65,024	164,744	
1	火锅	火鍋	13.0%	9.4%	5.2%	4.8%	-8.2%
2	牛肉	쇠고기	4.5%	4.1%	2.8%	3.1%	-1.4%
3	饮料	음료	3.1%	3.2%	2.2%	2.0%	-1.1%
4	土豆	감자	2.6%	2.1%	1.5%	1.7%	-0.8%
5	披萨	피자	0.9%	0.6%	0.8%	1.4%	0.6%
6	套餐	세트메뉴	2.8%	2.0%	1.3%	1.2%	-1.6%
7	毛肚	전엽	2.5%	2.1%	1.1%	1.2%	-1.4%
8	牛排	스테이크	2.1%	1.7%	1.0%	1.0%	-1.0%
9	烤鱼	생선구이	2.1%	2.1%	0.9%	1.0%	-1.1%
10	炒饭	차오뵴(볶음밥)	0.7%	0.8%	0.8%	0.9%	0.2%

[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중저가 식당¹²⁾]

순위	메뉴명 (한자)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56	245	2,677	10,376	
1	年糕	떡볶이	23.2%	33.5%	11.4%	12.9%	-10.4%
2	包饭	김밥	5.4%	4.5%	2.6%	6.9%	1.6%
3	拌饭	비빔밥	21.4%	12.2%	4.4%	5.6%	-15.8%
4	炒饭	차오뵴(볶음밥)	0.0%	6.9%	4.2%	3.9%	3.9%
5	火锅	전골	7.1%	8.6%	3.9%	3.6%	-3.5%
6	紫菜	김	0.0%	2.0%	1.6%	3.5%	3.5%
7	牛肉	소고기구이	7.1%	7.3%	4.2%	3.1%	-4.0%
8	泡菜	김치	8.9%	7.8%	3.5%	3.0%	-6.0%
9	烤肉	불고기	23.2%	6.9%	3.5%	2.6%	-20.6%
10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0.7%	5.7%	1.9%	2.3%	-8.4%

11)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12)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4) 식당/메뉴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식당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레스토랑 평가사이트 분석 결과, ‘중저가 식당’ 업체의 한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33.5위안’으로, 외식당 평균 가격(38.2위안)과 비슷한 수준임.
- ‘중저가 식당’의 전체 외식당 가격대는 ‘20~60위안’ 사이에 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한식당을 포함한 대부분 에스닉 외식당들이 해당 가격대에 분포해 있음.

[식당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중저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외식당	한식당
공급자	빅데이터	식당 가격대*	38.2위안	33.5위안
	경영주 설문	식당 객단가	미조사	51.3위안
소비자	소비자 설문	1회당 지출 비용	77.4위안	-

* 소비자들이 식당별로 기록한 한 끼 식사 비용의 평균치

[에스닉별 식당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세부항목	전체	중식	일식	한식	서양식	기타아시아
공급자	빅데이터	0~20위안 미만	5.1%	3.8%	41.9%	14.1%	0.0%	0.0%
		20~40위안 미만	40.6%	40.4%	27.9%	46.9%	47.5%	0.0%
		40~60위안 미만	54.4%	55.8%	30.2%	39.1%	52.5%	100.0%
		60~8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0.0%
		80~10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0.0%
		100~12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0.0%
		120~14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0.0%
		140~16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0.0%
		160~18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0.0%
		180~20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0.0%
		200위안 이상	0.0%	0.0%	0.0%	0.0%	0.0%	

□ 메뉴 가격

-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중저가 식당’의 평균 메뉴 가격은 ‘34.8위안’이며, ‘한식당’ 메뉴의 평균 가격도 ‘34.5위안’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됨.
- 소비자 추천 건수를 기반으로 한 메뉴 가격의 평균은 외식당이 ‘31.4위안’이며, 한식당은 ‘42.0위안’으로 외식당에 비해 높게 나타남. 소비자들은 한식당에서 판매되는 메뉴의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의 메뉴를 더 추천하는 것으로 추정됨.
- 가격대 별로 보면, 외식메뉴 대부분은 ‘80위안 미만’에 분포하나(89.0%), ‘80위안 미만’의 한식메뉴 수 비율은 ‘79.6%로 소폭 낮은 편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한식메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메뉴 가격 평균 - 중저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세부항목	외식당	한식당
공급자	빅데이터	메뉴 가격대	34.8위안	34.5위안
소비자		추천 수 반영 메뉴 가격 평균*	31.4위안	42.0위안

* 추천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메뉴 가격의 평균

[가격대별 메뉴 수 비율 - 중저가 식당]

(단위 : 위안)

구분	분석 방식	메뉴 가격대	외식당		메뉴 가격대	한식당	
			비율	누적 비율		비율	누적 비율
공급자	빅데이터	평균	34.8위안		평균	34.5위안	
		0~20 미만	34.6%	34.6%	0~40 미만	50.4%	50.4%
		20~40 미만	32.7%	67.3%	40~80 미만	29.2%	79.6%
		40~60 미만	15.1%	82.4%	80~120 미만	4.4%	84.1%
		60~80 미만	6.7%	89.0%	120~160 미만	1.8%	85.8%
		80~100 미만	4.5%	93.5%	160~200 미만	8.8%	94.7%
		100~120 미만	1.6%	95.1%	200~240 미만	0.0%	94.7%
		120~140 미만	1.4%	96.6%	240~280 미만	2.7%	97.3%
		140~160 미만	0.7%	97.3%	280~320 미만	1.8%	99.1%
		160~180 미만	0.7%	98.0%	320~360 미만	0.0%	99.1%
		180~200 미만	0.5%	98.6%	360~400 미만	0.0%	99.1%
200 이상	1.4%	100.0%	400 이상	0.9%	100.0%		

5)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충청 현지 외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외식당 선택 시 음식 요소의 ‘음식의 맛(55%)’ 과 ‘음식의 건강함(42%)’ 을 주로 고려함. 그 외 ‘식당의 위생상태(54%)’ 도 중요하게 생각함.
- 한식당 방문 시에도 음식 요소의 ‘음식의 맛(56%)’ 과 ‘음식의 건강함(42%)’ 를 주로 고려하며, 그 다음으로 ‘위생상태’ (41%)를 중요하게 생각함.
- ‘가격(외식당 27%, 한식당 17%)’ 과 ‘위생상태(외식당 54%, 한식당41%)’ 는 한식당 선택 시 덜 고려되는 요소로 보임.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중저가 식당]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외식당			한식당		
			순위	세부 항목	비율	순위	세부 항목	비율
소비자	소비자 설문	Product	1	맛	55%	1	맛	56%
			2	건강	42%	2	건강	42%
			3	양	29%	3	다양함	33%
			4	다양함	28%	4	양	23%
		Price	1	가격	27%	1	가격	19%
		Place	1	접근성	27%	1	접근성	24%
		Promotion	1	식당이미지	36%	1	식당 이미지	38%
			2	가격할인	19%	2	가격할인	16%
			3	이벤트	10%	3	이벤트	13%
		Physical Evidence	1	위생상태	54%	1	위생상태	41%
			2	내부 분위기	34%	2	내부 분위기	37%
			3	외관	17%	3	외관	16%
			4	편의시설	15%	4	편의시설	15%
			5	주차시설	10%	5	주차시설	9%
		Process	1	편리함	25%	1	격식 서비스	24%
			2	격식 서비스	19%	2	편리함	19%
			3	신속함	16%	3	신속함	17%
		People	1	직원 태도	17%	1	직원 태도	16%
			2	의사소통	12%	2	인지도	13%
			3	용모	6%	3	의사소통	13%
			4	개인적 관계	2%	4	용모	9%
			5	인지도	1%	5	개인적 관계	8%

6) 식당 방문 목적 및 동행인

- 충청 현지 외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저가 외식당’의 방문목적은 ‘일상적인 식사’가 62%로 가장 높은 반면, 한식당 방문목적은 ‘사적인 모임(60%)’이 가장 높음.
- ‘일상적인 식사’의 경우 외식당은 ‘가족’과 식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한식당은 한식당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특이점임.
- ‘사적인 모임’의 경우 외식당은 친구(62%)와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한식당의 경우 연인(53%), 그다음 친구(40%)와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식당 방문 목적 및 동행인 - 중저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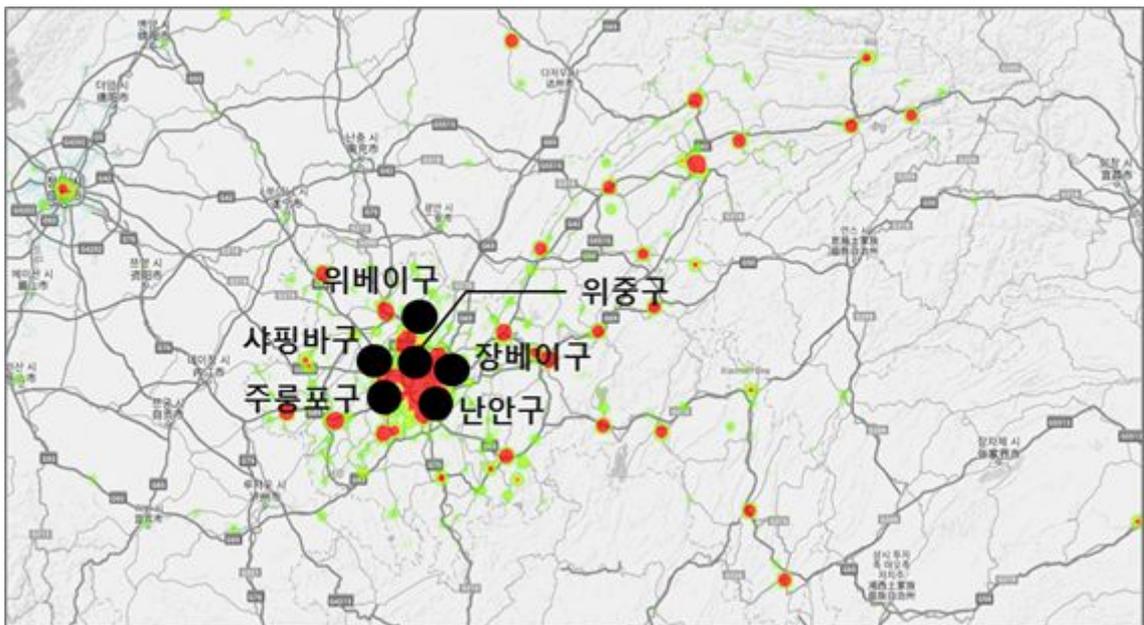
구분	분석 방식	식당 방문 목적			동행인		
		항목	외식당	한식당	세부항목	외식당	한식당
소비자	소비자 설문	일상적인 식사	62%	31%	가족	37%	28%
					혼자	25%	45%
					친구	19%	20%
					직장동료	19%	6%
		사적인 모임	37%	60%	친구	62%	40%
					가족	27%	8%
					연인	11%	53%
		공식적인 모임	1%	9%	직장동료	100%	40%
					고객	0%	60%

1.4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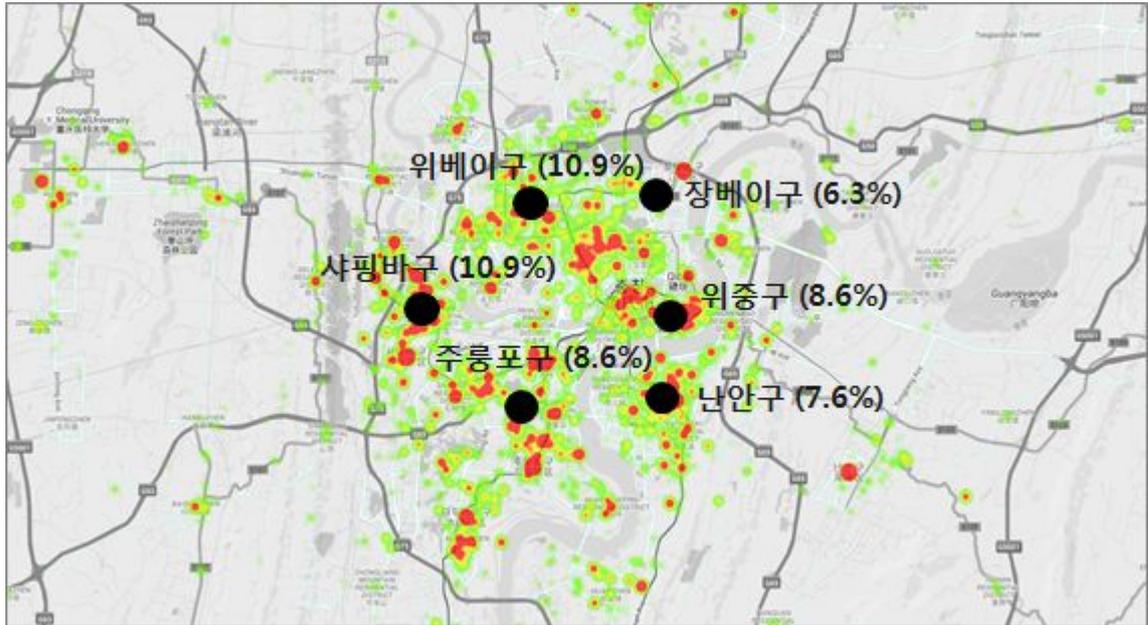
1) 지역별 식당 분포 및 리뷰 건수

- 충청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패스트푸드’ 식당 정보를 분석한 결과, 충청 내 ‘패스트푸드’ 외식당은 주요 상권 별로 각각 9.0~11.0% 수준으로 고른 비율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그 중 ‘샤핑바구’ (11.3%)와 ‘위중구’ (11.1%)에 ‘중저가 외식당’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식당의 최근 3년간 리뷰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리뷰 건수 비율이 높은 상권도 ‘위중구’ (23.6%)이며, 그 외 ‘장베이구’에서도 16.2%로 높게 나타남.
- 이들 상권의 최근 3년간 리뷰 건수 비율은 ‘중저가 식당’과 비슷하게 나타남. ‘위중구’에서는 최근 3년간 리뷰 건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장베이구’에서는 증가하고 있음. 그 외 ‘주룽포구’에서 리뷰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한식당은 특정 상권에 밀집되는 경향을 보임. ‘용촨구’에 42.3%, ‘위중구’에 20.9%의 한식당이 밀집해 있음.
- 반면 15년 리뷰 건수 비율은 ‘용촨구’, ‘위중구’보다 ‘장베이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베이구’의 최근 3년간 리뷰 건수 비율도 급증하는 추세로 파악됨.

[충청 식당 분포 지도 - 패스트푸드]



[충청 식당 분포 지도 - 중심 지구 - 패스트푸드]



[충청 지역별 식당 분포 비율 - 패스트푸드]

구분		외식당	한식당	
총 샘플 수		25,145	20	
공급자	빅데이터	渝北区 (위베이구)	10.9%	10.0%
		沙坪坝区 (샤핑바구)	10.9%	10.0%
		南岸区 (난안구)	7.6%	5.0%
		九龙坡区 (주룽포구)	8.6%	0.0%
		渝中区 (위중구)	8.6%	25.0%
		江北区 (장베이구)	6.3%	30.0%
		合川区 (허촨구)	5.8%	0.0%
		万州区 (완저우구)	4.9%	0.0%
		永川区 (용촨구)	5.0%	10.0%
		涪陵区 (푸링구)	4.1%	0.0%

* 전체 식당 샘플 수 기준 상위 10개 구의 데이터

[지역별 리뷰 건수 비율 - 패스트푸드]

구분		외식당				한식당				
연도별		2013	2014	2015	증감(%p)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만 개)		1.1	5.7	11.2		0.00	17개	863개		
소비자	빅데이터	渝北区 (위베이구)	10.1%	9.6%	9.8%	-0.3%	-	0.0%	1.7%	1.7%
		沙坪坝区 (사핑바구)	21.0%	16.0%	12.8%	-8.2%	-	0.0%	0.3%	0.3%
		南岸区 (난안구)	11.6%	12.5%	11.4%	-0.2%	-	0.0%	16.9%	16.9%
		九龙坡区 (주룽포구)	8.1%	12.7%	13.2%	5.1%	-	0.0%	0.0%	0.0%
		渝中区 (위중구)	30.5%	29.0%	23.6%	-6.9%	-	100%	13.1%	-86.9%
		江北区 (장베이구)	9.8%	12.2%	16.2%	6.4%	-	0.0%	64.0%	64.0%
		合川区 (허촨구)	0.6%	0.8%	1.8%	1.2%	-	0.0%	0.0%	0.0%
		万州区 (완저우구)	0.8%	0.6%	1.9%	1.1%	-	0.0%	0.0%	0.0%
		永川区 (영촨구)	1.1%	0.7%	1.3%	0.2%	-	0.0%	3.5%	3.5%
		涪陵区 (푸링구)	0.3%	0.2%	0.6%	0.4%	-	0.0%	0.0%	0.0%

* 전체 식당 샘플 수 기준 상위 10개 구의 데이터

2) 에스닉 구성 및 에스닉별 리뷰 건수

- 전체 ‘패스트푸드’ 중 ‘중식’ 식당 수는 전체 ‘패스트푸드’ 의 67.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소비자 리뷰 건수 비율도 9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식’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에스닉은 식당 수와 리뷰 비율이 모두 낮은 편이며, 특히 ‘한식’의 경우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식당 비율 0.1%, 리뷰 비율 0.5%)

[에스닉 비율 분석 - 패스트푸드]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에스닉별 세부항목	
공급자	빅데이터	식당 비율	중식	67.2%
			일식	0.1%
			한식	0.1%
			서양식	0.3%
			기타 아시안	0.0%
			구분 어려움	32.4%
			소비자	빅데이터
일식	0.4%			
한식	0.5%			
서양식	8.4%			
기타 아시안	0.0%			
구분 어려움	0.0%			

3) 주요 판매메뉴 및 소비자 언급 메뉴키워드

- 충청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식당들의 메뉴키워드 정보를 분석한 결과 현지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쇠고기면(294곳)’, ‘소면’ (217곳), ‘완두고기면’ (120곳), ‘새콤달콤당면’ (108곳) 등 주로 국수 메뉴인 것으로 파악됨.
- 많이 판매되는 외식 메뉴들이 대부분 소비자로부터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대부분 언급률은 최근 4년 동안 감소하고 있음. 예를 들어 ‘새콤달콤당면’은 2015년 기준 2.2%의 언급율을 보이나, 최근 4년간 언급률은 5.6% 감소하였고, ‘쇠고기면’도 언급률은 3.1%이나, 최근 4년간 1.6%감소하였음.
- 현지 ‘패스트푸드’ 한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한식 메뉴는 ‘후라이드치킨’와 ‘떡볶이’ 등의 메뉴로 파악됨.

[현지 외식당/한식당 주요 판매메뉴 순위 - 패스트푸드]¹³⁾

구분	분석 방식	외식당			한식당		
		메뉴명(현지어)	메뉴명(한글)	메뉴 수	메뉴명(현지어)	메뉴명(한글)	메뉴 수
공급자 빅데이터		牛肉面	쇠고기 면	294	原味炸鸡	후라이드치킨	3
		小面	소면	217	石锅饭	돌솥밥	1
		碗杂面	완두고기면	120	紫菜包饭	김밥	1
		酸辣粉	새콤매콤당면	108	炒年糕 热狗	붕어빵	1
		杂酱面	자장면	98	炸鸡 紫菜包饭	참치김밥	1
		抄手	완탕	86	韩式	한국음식	1
		凉糕	랑고	67	原味部队火锅	원조 부대찌개	1
		酸菜米线	양고기쌀국수	64	水果色拉	과일샐러드	1
		肥肠面	대창면	60	芝士排骨火锅	치즈풍두갈비	1
		酸菜肉丝米线	돼지고기국수	54	韩国泡菜拌饭	김치비빔밥	1

[외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패스트푸드]¹⁴⁾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3,465	9,475	36,399	109,172	
1	牛肉	쇠고기	10.2%	8.3%	4.5%	4.0%	-6.2%
2	小面	소면	6.0%	5.6%	3.6%	2.8%	-3.1%
3	套餐	세트메뉴	2.5%	1.5%	1.4%	1.6%	-1.0%
4	火锅	튀김	1.2%	1.0%	1.1%	1.5%	0.3%
5	饮料	음료	2.0%	1.6%	1.7%	1.5%	-0.6%
6	牛肉面	우육면	4.8%	3.8%	1.8%	1.4%	-3.4%
7	抄手	완탕	6.1%	4.1%	1.6%	1.3%	-4.8%
8	汉堡	햄버거	0.9%	0.7%	0.6%	1.1%	0.3%
9	肥肠	돼지창자	3.2%	2.2%	1.3%	1.1%	-2.1%
10	薯条	프렌치프라이	0.4%	0.7%	1.0%	1.1%	0.7%

13) 패스트푸드 업체 한식당의 경우 판매메뉴 정보가 거의 수집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해석에 유의할 것.

14)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패스트푸드]¹⁵⁾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	-	-	515		
1	炸鸡	후라이드치킨	자료 없음				46.0%	-
2	火锅	한국식 전골					16.7%	-
3	年糕	떡					15.5%	-
4	鸡翅	닭날개구이					7.2%	-
5	年糕火锅	즉석떡볶이					6.6%	-
6	啤酒	맥주					5.6%	-
7	饮料	음료					4.7%	-
8	部队锅	부대찌개					5.2%	-
9	沙拉	샐러드					3.5%	-
10	鸡腿	닭다리구이					3.3%	-

4) 식당/메뉴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식당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수집된 식당 가격정보 분석 결과, ‘패스트푸드’ 한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54.6위안’ 으로, 외식당 평균 가격(19.6위안)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음.
- ‘패스트푸드’ 의 전체 외식당 가격대는 주로 ‘20위안 미만’ 에 집중되어 있으나, 한식당 가격대는 ‘40~80위안’ 구간으로 높게 형성됨. ‘서양식’ 과 ‘일식’ 식당은 ‘20~60위안’ 사이로 형성됨.

[식당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패스트푸드]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외식당	한식당
공급자	빅데이터	식당 가격대*	19.6위안	54.6위안
	경영주 설문	식당 객단가	미조사	19.0위안
소비자	소비자 설문	1회당 지출 비용	58.4위안	-

* 소비자들이 식당별로 기록한 한 끼 식사 비용의 평균치

15)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에스닉별 식당 가격대 분포 - 패스트푸드]

구분	분석 방식	세부항목	전체	중식	일식	한식	서양식	기타아시아
공급자	빅데이터	0~20위안 미만	69.7%	74.2%	0.0%	0.0%	19.3%	-
		20~40위안 미만	23.2%	19.1%	53.3%	0.0%	79.5%	-
		40~60위안 미만	4.4%	3.9%	46.7%	60.0%	1.2%	-
		60~80위안 미만	1.4%	1.4%	0.0%	40.0%	0.0%	-
		80~100위안 미만	0.9%	1.0%	0.0%	0.0%	0.0%	-
		100~120위안 미만	0.3%	0.3%	0.0%	0.0%	0.0%	-
		120~14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
		140~16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
		160~18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
		180~200위안 미만	0.0%	0.0%	0.0%	0.0%	0.0%	-
		200위안 이상	0.1%	0.1%	0.0%	0.0%	0.0%	-

□ 메뉴 가격

- 충청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패스트푸드’ 외식당의 평균 메뉴 가격은 ‘16.9위안’이며, 한식당 메뉴 가격 평균은 ‘83.0위안’으로 외식당 메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한식 메뉴는 여러 명이 나눠먹는 메뉴가 많아 외식 일반 메뉴 대비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소비자 추천 건수를 기반으로 한 메뉴 가격의 평균은 외식당에서 13.3위안이며, 한식당은 80.5위안으로 외식당에 비해 높음.
- 가격대별로 ‘0~40위안’ 사이에 전체 외식당 메뉴의 91.0%가 속하나, 한식당 메뉴는 ‘120~200위안’에 많아 상대적으로 한식메뉴의 가격대가 높게 형성됨.

[메뉴 가격 평균 - 패스트푸드]

구분	분석 방식	세부항목	외식당	한식당
공급자	빅데이터	메뉴 가격대	16.9위안	83.0위안**
소비자		추천 수 반영 메뉴 가격 평균*	13.3위안	80.5위안**

* 추천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메뉴 가격의 평균

** 샘플 수가 부족하여 해석에 유의

[가격대별 메뉴 수 비율 - 패스트푸드]

(단위 : 위안)

구분	분석 방식	메뉴 가격대	외식당		메뉴 가격대	한식당	
			비율	누적 비율		비율	누적 비율
공급자	빅데이터	평균	16.9위안		평균	83.0위안	
		0~20 미만	70.2%	70.2%	0~40 미만	0.0%	0.0%
		20~40 미만	20.9%	91.0%	40~80 미만	0.0%	0.0%
		40~60 미만	3.9%	94.9%	80~120 미만	0.0%	0.0%
		60~80 미만	1.9%	96.8%	120~160 미만	50.0%	50.0%
		80~100 미만	1.3%	98.1%	160~200 미만	50.0%	100.0%
		100~120 미만	0.5%	98.6%	200~240 미만	0.0%	100.0%
		120~140 미만	0.2%	98.8%	240~280 미만	0.0%	100.0%
		140~160 미만	0.2%	99.1%	280~320 미만	0.0%	100.0%
		160~180 미만	0.3%	99.3%	320~360 미만	0.0%	100.0%
		180~200 미만	0.1%	99.4%	360~400 미만	0.0%	100.0%
		200 이상	0.6%	100.0%	400 이상	0.0%	100.0%

5)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충청 현지 외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패스트푸드’ 외식당 선택 시 음식 요소의 ‘음식의 맛(60%)’ 과 ‘음식의 건강함(51%)’ 을 주로 고려함. 그 외 ‘식당의 위생상태(56%)’ 와 ‘신속한 서비스’ (35%)를 중시하고 있음.
- ‘패스트푸드’ 한식당을 방문 시에는 음식 요소의 ‘음식의 맛(56%)’ 과 ‘음식의 건강함(42%)’ 를 주로 고려하며, 그 외 ‘위생상태(41%)’ 와 ‘내부 분위기’ (37%)를 중요하게 생각함.
- 특히 소비자들은 한식당 선택 시 ‘접근성’ (외식당 31%, 한식당 24%)는 덜 고려하며, ‘내부 분위기’ (외식당 20%, 한식당 37%)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패스트푸드]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외식당			한식당		
			순위	세부 항목	비율	순위	세부 항목	비율
소비자	소비자 설문	Product	1	맛	60%	1	맛	56%
			2	건강	51%	2	건강	42%
			3	다양함	37%	3	다양함	33%
			4	양	27%	4	양	23%
		Price	1	가격	21%	1	가격	19%
		Place	1	접근성	31%	1	접근성	24%
		Promotion	1	식당 이미지	31%	1	식당 이미지	38%
			2	가격할인	16%	2	가격할인	16%
			3	이벤트	12%	3	이벤트	13%
		Physical Evidence	1	위생상태	46%	1	위생상태	41%
			2	내부 분위기	20%	2	내부 분위기	37%
			3	편의시설	12%	3	외관	16%
			4	외관	10%	4	편의시설	15%
			5	주차시설	6%	5	주차시설	9%
		Process	1	신속함	35%	1	격식 서비스	24%
			2	편리함	31%	2	편리함	19%
			3	격식 서비스	16%	3	신속함	17%
		People	1	직원 태도	15%	1	직원 태도	16%
			2	의사소통	12%	2	인지도	13%
			3	응모	8%	3	의사소통	13%
			4	인지도	1%	4	응모	9%
			5	개인적 관계	0%	5	개인적 관계	8%

6) 식당 방문 목적 및 동행인

- 충청 현지 외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패스트푸드’ 외식당 이용 시 주로 ‘일상적인 식사(82%)’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반면, 한식당의 경우 ‘사적인 모임(60%)’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일상적인 식사(31%)’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보다 높음.
- ‘일상적인 식사’의 경우 ‘패스트푸드’ 외식당과 한식당 모두 혼자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한식당의 경우 친구와 함께하는 경향이 일부 있음.
- ‘사적인 모임’의 경우 외식당은 친구나 가족과 주로 방문하나, 한식당은 연인 혹은 친구와 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식당 방문 목적 및 동행인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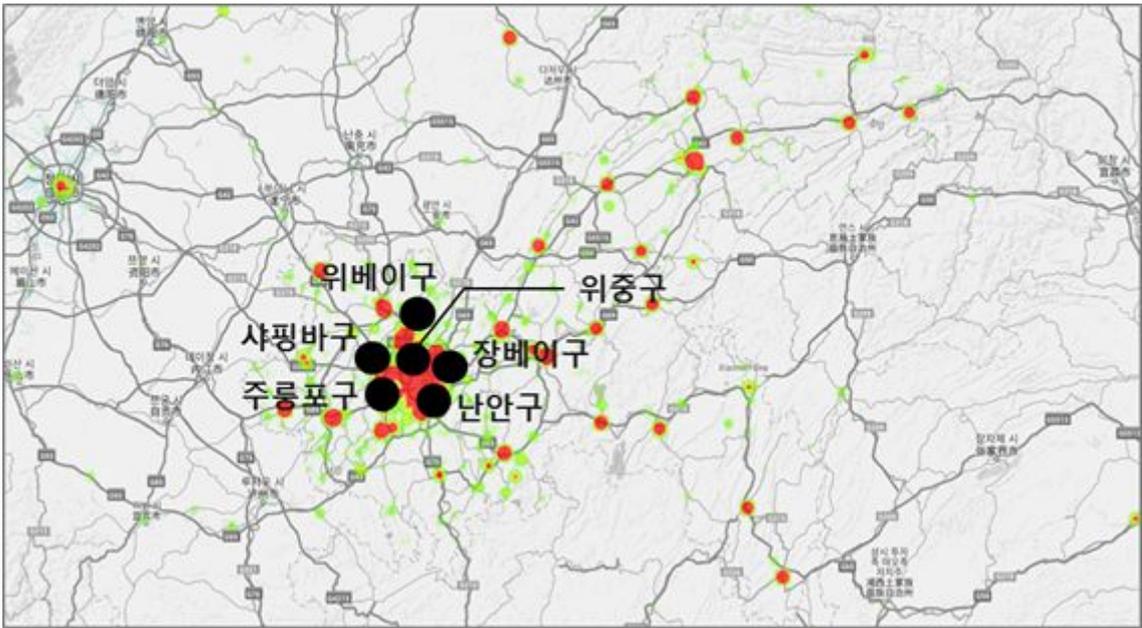
구분	분석 방식	식당 방문 목적			동행인		
		항목	외식당	한식당	세부항목	외식당	한식당
소비자	소비자 설문	일상적인 식사	82%	31%	가족	25%	28%
					혼자	51%	45%
					친구	10%	20%
					직장동료	15%	6%
		사적인 모임	17%	60%	친구	30%	40%
					가족	58%	8%
					연인	9%	53%
					기타	3%	0%
		공식적인 모임	1%	9%	직장동료	100%	40%
					고객	0%	60%

1.5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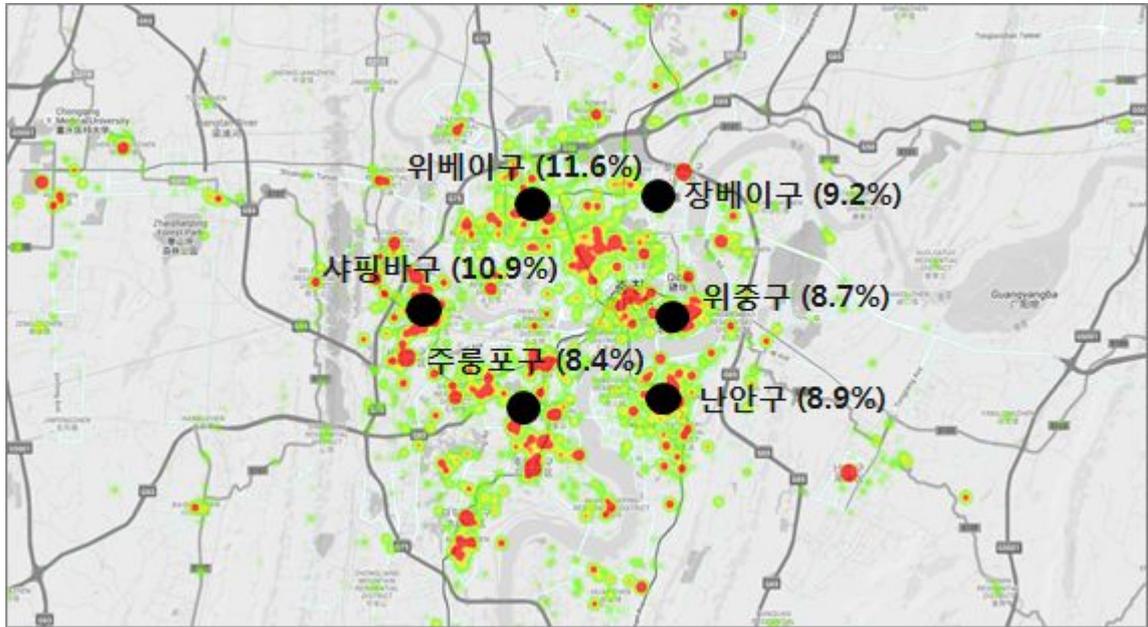
1) 지역별 식당 분포 및 리뷰 건수

- 충청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카페/바’ 식당 정보를 분석한 결과, 충청 내 ‘카페/바’ 외식당은 주요 상권 전체에 고른 비율로 퍼져 있음. 그 중 도시 중심의 상권에 ‘카페/바’ 외식당이 다소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에 등재된 식당의 최근 3년간 리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식당 밀집 지역인 ‘위중구’와 ‘장베이구’의 리뷰 건수 비율은 2015년 각각 24.9%, 19.4%로 타 상권 대비 높은 수준이나, 최근 4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반면 ‘주룽포구’와 ‘허촨구’는 리뷰 건수 비율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충청 식당 분포 지도 - 카페/바]



[충청 식당 분포 지도 - 중심 지구 - 카페/바]



[충청 지역별 식당 분포 비율 - 카페/바]

구분		외식당	한식당
총 샘플 수		15,479	0
공급자 빅데이터	渝北区 (위베이구)	11.6%	0.0%
	沙坪坝区 (샹핑바구)	10.9%	0.0%
	南岸区 (난안구)	8.9%	0.0%
	九龙坡区 (주룽포구)	8.4%	0.0%
	渝中区 (위중구)	8.7%	0.0%
	江北区 (장베이구)	9.2%	0.0%
	合川区 (허환구)	4.7%	0.0%
	万州区 (완저우구)	4.5%	0.0%
	永川区 (용환구)	4.3%	0.0%
	涪陵区 (푸링구)	2.5%	0.0%

* 전체 식당 샘플 수 기준 상위 10개 구의 데이터

[지역별 리뷰 건수 비율 - 카페/바]

구분		외식당				한식당				
연도별		2013	2014	2015	증감(%p)	2013	2014	2015	2015-2013	
총 리뷰 건수(만 개)		1.0	6.4	10.3			-	-		-
소비자	빅데이터	渝北区 (위베이구)	7.1%	8.4%	6.8%	-0.3%	-	-	-	-
		沙坪坝区 (사핑바구)	18.1%	12.1%	10.0%	-8.1%	-	-	-	-
		南岸区 (난안구)	12.8%	11.1%	8.8%	-4.0%	-	-	-	-
		九龙坡区 (주룽포구)	6.5%	11.8%	10.6%	4.1%	-	-	-	-
		渝中区 (위중구)	25.2%	27.1%	24.9%	-0.3%	-	-	-	-
		江北区 (장베이구)	25.0%	22.5%	19.4%	-5.6%	-	-	-	-
		合川区 (허촨구)	0.4%	1.1%	4.9%	4.5%	-	-	-	-
		万州区 (완저우구)	0.3%	0.6%	2.6%	2.4%	-	-	-	-
		永川区 (윙촨구)	0.9%	1.1%	1.0%	0.1%	-	-	-	-
		涪陵区 (푸링구)	0.2%	0.1%	1.7%	1.6%	-	-	-	-

* 전체 식당 샘플 수 기준 상위 10개 구의 데이터

2) 에스닉 구성 및 에스닉별 리뷰 건수

- ‘카페/바’ 업태의 식당 비율은 ‘커피/주스/차(64.3%)’ 업종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베이커리(28.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리뷰 비율도 식당 비율과 동일하게 ‘커피/주스/차’ 비율이 가장 높고 (65.1%), 그 다음으로 ‘베이커리’의 리뷰 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남(32.0%).

[에스닉 비율 분석 - 카페/바]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에스닉별 세부항목	
공급자	빅데이터	식당 비율	커피/주스/차	64.3%
			베이커리	28.1%
			주류	5.5%
			아이스크림	0.1%
			기타	2.1%
소비자	빅데이터	리뷰 비율	커피/주스/차	65.1%
			베이커리	32.0%
			주류	2.1%
			아이스크림	0.0%
			기타	0.8%

3) 주요 판매메뉴 및 소비자 언급 메뉴키워드

- 현지 ‘카페/바’ 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디저트류 중에서는 ‘티라미수 케이크(111곳)’가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음료류 중에서는 ‘카페라떼(89곳)’와 ‘카푸치노(84곳)’가 많이 판매됨.
- 2015년 소비자들은 ‘요구르트’를 많이 언급하며(3.8%) 최근 4년간 언급률은 증가하는 추세임. 그 외 2015년 언급률이 높은 메뉴는 ‘두리안크레페케이크’, ‘밀푼유’ 등으로 나타남.

[현지 외식당/한식당 주요 판매메뉴 순위 - 카페/바]

구분	분석 방식	외식당			한식당		
		메뉴명(현지어)	메뉴명(한글)	메뉴 수	메뉴명(현지어)	메뉴명(한글)	메뉴 수
공급자	빅데이터	提拉米苏	티라미수케이크	111	-	-	-
		拿铁	카페라떼	89	-	-	-
		卡布奇诺	카푸치노	84	-	-	-
		芝士蛋糕	치즈케이크	72	-	-	-
		摩卡	카페모카	68	-	-	-
		焦糖玛奇朵	카라멜 마끼아또	66	-	-	-
		蛋挞	에그타르트	66	-	-	-
		杨枝甘露	망고푸딩	63	-	-	-
		咖啡	커피	61	-	-	-
		美式咖啡	아메리카노	55	-	-	-

[외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카페/바]¹⁶⁾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2,640	7,728	34,496	109,097	
1	蛋糕	케이크	13.9%	10.5%	9.6%	10.1%	-3.9%
2	咖啡	커피	14.5%	12.3%	8.1%	5.8%	-8.7%
3	面包	빵	9.5%	6.1%	4.5%	5.0%	-4.5%
4	甜品	디저트	10.1%	9.5%	5.2%	3.9%	-6.2%
5	奶茶	밀크티	4.7%	4.5%	2.9%	2.6%	-2.1%
6	冰淇淋	아이스크림	4.8%	3.6%	3.7%	2.6%	-2.2%
7	酸奶	요구르트	2.3%	2.0%	1.8%	2.4%	0.1%
8	奶油	크림	3.4%	2.8%	2.3%	2.3%	-1.1%
9	饮料	음료	4.0%	3.3%	2.5%	2.0%	-2.0%
10	巧克力	초콜릿	4.8%	3.1%	2.1%	1.5%	-3.3%

16)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4) 식당/메뉴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식당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충청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카페/바’ 업태의 외식당 가격대의 평균은 ‘33.8위안’이며 소비자들은 카페/바 방문 시 식당 가격대의 2배 이상인 128.7위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 시 여러 메뉴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됨.
- ‘커피/주스/차’와 ‘베이커리’ 등의 디저트류의 가격대는 주로 ‘40위안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주류’ 가격대는 전체적으로 넓게 형성되고 있음.

[식당 가격대 및 1회당 지출 비용 - 카페/바]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외식당	한식당
공급자	빅데이터	식당 가격대*	33.8위안	-
	경영주 설문	식당 객단가	미조사	미조사
소비자	소비자 설문	1회당 지출 비용	128.7위안	-

* 소비자들이 식당별로 기록한 한 끼 식사 비용의 평균치

[에스닉별 식당 가격대 분포 - 카페/바]

구분	분석 방식	세부항목	전체	커피/주스/차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주류
공급자	빅데이터	0~20위안 미만	35.6%	31.1%	61.0%	-	0.0%
		20~40위안 미만	41.8%	48.1%	25.8%	-	13.0%
		40~60위안 미만	14.4%	15.4%	5.6%	-	35.2%
		60~80위안 미만	4.0%	3.3%	2.8%	-	18.5%
		80~100위안 미만	1.1%	0.8%	0.0%	-	9.3%
		100~120위안 미만	1.1%	0.6%	1.4%	-	5.6%
		120~140위안 미만	0.4%	0.3%	0.5%	-	1.9%
		140~160위안 미만	0.7%	0.1%	1.9%	-	3.7%
		160~180위안 미만	0.4%	0.0%	0.5%	-	5.6%
		180~200위안 미만	0.2%	0.0%	0.5%	-	1.9%
		200위안 이상	0.5%	0.3%	0.0%	-	5.6%

□ 메뉴 가격

-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카페/바' '외식당 메뉴의 평균 가격은 '38.9위안'이며 추천 수 반영 시 '37.9위안' 임. 평균 근처의 가격대에 추천 수가 많아 비슷하게 형성됨.
- 메뉴 가격대 비율을 보면, '60위안 미만'의 가격대에 대부분(89.2%)의 메뉴가 분포함.

[메뉴 가격 평균 - 카페/바]

구분	분석 방식	세부항목	외식당	한식당
공급자	빅데이터	메뉴 가격대	38.9위안	-
소비자		추천 수 반영 메뉴 가격 평균*	37.9위안	-

* 추천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메뉴 가격의 평균

[가격대별 메뉴 수 비율 - 카페/바]

(단위 : 위안)

구분	분석 방식	메뉴 가격대	외식당		메뉴 가격대	한식당	
			비율	누적 비율		비율	누적 비율
공급자	빅데이터	평균	38.9위안		평균	-	
		0~20 미만	34.3%	34.3%	0~40 미만	-	-
		20~40 미만	44.0%	78.3%	40~80 미만	-	-
		40~60 미만	7.9%	86.2%	80~120 미만	-	-
		60~80 미만	3.0%	89.2%	120~160 미만	-	-
		80~100 미만	2.3%	91.5%	160~200 미만	-	-
		100~120 미만	0.7%	92.2%	200~240 미만	-	-
		120~140 미만	0.5%	92.8%	240~280 미만	-	-
		140~160 미만	0.7%	93.5%	280~320 미만	-	-
		160~180 미만	1.0%	94.5%	320~360 미만	-	-
		180~200 미만	1.9%	96.4%	360~400 미만	-	-
200 이상	3.6%	100.0%	400 이상	-	-		

5)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충청 현지 외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카페/바’ 방문 시 소비자들은 ‘내부 분위기(49%)’ 를 가장 중시하며, 다음으로 ‘음식의 맛(48%)’, ‘식당의 이미지(36%)’를 주로 고려함.
- 한식당의 경우 ‘맛(72%)’ 이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음식의 건강함(42%)’, ‘위생상태’ (41%)를 주요 요소로 고려함.
- 소비자들은 한식당 방문 시 외식당을 방문할 때에 비해 음식 요소의 ‘맛’ 과 ‘건강’ 그리고 ‘음식의 다양함’, 그 외 ‘가격’ 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됨.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카페/바]

구분	분석 방식	항목	외식당			한식당		
			순위	세부 항목	비율	순위	세부 항목	비율
소비자	소비자 설문	Product	1	맛	48%	1	맛	56%
			2	건강	34%	2	건강	42%
			3	양	24%	3	다양함	33%
			4	다양함	20%	4	양	23%
		Price	1	가격	10%	1	가격	19%
		Place	1	접근성	32%	1	접근성	24%
		Promotion	1	식당 이미지	36%	1	식당 이미지	38%
			2	이벤트	20%	2	가격할인	16%
			3	가격할인	13%	3	이벤트	13%
		Physical Evidence	1	내부 분위기	49%	1	위생상태	41%
			2	위생상태	39%	2	내부 분위기	37%
			3	외관	32%	3	외관	16%
			4	편의시설	15%	4	편의시설	15%
			5	주차시설	8%	5	주차시설	9%
		Process	1	격식 서비스	27%	1	격식 서비스	24%
			2	편리함	21%	2	편리함	19%
			3	신속함	14%	3	신속함	17%
		People	1	직원 태도	25%	1	직원 태도	16%
			2	의사소통	16%	2	인지도	13%
			3	응모	12%	3	의사소통	13%
			4	인지도	3%	4	응모	9%
			5	개인적 관계	2%	5	개인적 관계	8%

6) 식당 방문 목적 및 동행인

- 충청 현지 외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카페/바’ 외식당과 한식당을 주로 ‘사적인 모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음. (외식당 69%, 한식당 60%)
- ‘사적인 모임’의 경우 외식당은 주로 ‘친구’ (65%)나 가족(25%)과 함께 방문하지만, 한식당은 ‘연인’ (53%)이나 ‘친구’ (40%)와 함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일상적인 식사’의 경우 외식당과 한식당 모두 가족을 동반하거나 혼자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식당 방문 목적 및 동행인 - 카페/바]

구분	분석 방식	식당 방문 목적			동행인		
		항목	외식당	한식당	세부항목	외식당	한식당
소비자	소비자 설문	일상적인 식사	16%	31%	가족	34%	28%
					혼자	32%	45%
					친구	24%	20%
					직장동료	10%	6%
		사적인 모임	69%	60%	친구	65%	40%
					가족	25%	8%
					연인	10%	53%
		공식적인 모임	15%	9%	직장동료	31%	40%
					고객	69%	60%

제3장 거시 환경 분석

1. 일반 정보
2. 정치적/정책적 환경
3. 경제적 환경
4. 사회/문화적 환경
5. 기술적 환경
6. PEST 분석 요약

III. 거시 환경 분석

1. 일반 정보



* 출처 : 2016 Google, ORION-ME, SK telecom, ZENRIN

구분	내용
국명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위치	아시아 대륙 동부와 태평양 서안에 위치
면적	약 960만km ² [면적: 세계 제 4위, 한반도의 약 44배]
수도	북경(北京; Beijing)
인구	13억 6,782만 명(2014년 말 기준) [인구 세계 1위]
언어	한어(漢語; Chinese) [표준어: 보통화(普通話; Mandarin)]

* 출처 : 중국통계청 및 두산백과



* 출처 : 2016 Google

구분	내용
도시명	충칭 (Chongqing)
면적	총 면적 82,400km ² 로 서울의 약 135배
인구	2,991만 명(2014년 말 기준)

* 출처 : 중국통계청 및 두산백과

1.1 특징

- 중국의 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은 4분법, 6분법, 8분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6분법을 기준으로 할 때 크게 화동지방, 동북지방, 화북지방, 중남지방, 서북지방, 서남지방으로 분류됨.
- 중국을 남부와 북부 지방으로 구분할 경우, 두 지방은 정치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임. 북방은 잦은 전쟁을 치루면서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결과 역대 왕조의 수도는 대부분 북방에 위치하였음. 남방은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양과 온난한 기후를 바탕으로 재화의 생산량이 풍부하였음. 또한,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음.
- 중국의 동서 간 격차는 민족적 차별과 지역 불균형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전통적인 남북 경제 격차에 비해 훨씬 심각한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 중국 서부에 비해 평지가 많은 동부 지방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농업 및 산업이 발달하였음.
- 특히 동부 해안지대는 해상 운송이 용이하여 개혁개방시기에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었음. 한편, 중국 내륙지방은 여전히 소수민족들이 대거 군집하고 있으며, 민족 단위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는 곳이 많음.
- 충칭(重庆)은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위치한 도시로, 송나라 시기 공주(恭州)로 불렸으나 공주 왕이 후에 황제가 되면서, 이중으로 경사가 났다는 의미의 충칭이라는 지명이 붙여졌음.
- 1919년 상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하여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항저우, 전장, 난징, 광저우 등 중국 각지로 이동하였음. 이 후 1940년 4월부터 1945년 8.15 광복까지 충칭에 정착함. 충칭 임시정부청사는 현재까지도 중국의 A급 유적지로 보호되고 있음.
- 3,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의 도시인 충칭은, 1997년 중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직할시로 임명되어 충칭의 경제발전이 본격화되었음. 현재 충칭은 중국 남서부의 유일한 직할시로, 중국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동서를 연결하는 결합부에 놓여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위성 도시와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다중심 조직형 구조를 띠고 있음.

1.2 지형과 기후 특성

- 중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부와 태평양의 서안에 위치해 있음.
- 국토의 대부분은 기온이 온화하나 광대한 영토로 인하여 기후 분포가 다양함. 동북지방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냉대 기후에 속하는 반면 남부지방은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은 아열대 기후에 속함.
- 충청은 사천성(四川省)에 속한 직할시로, 중국의 네 개의 직할시 중 유일하게 서부에 위치하며 사천분지의 동부, 창강의 상류에 위치함.
-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날씨로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음. 반면에 여름에는 극심한 더위로 인하여 우한(武汉), 난징(南京)과 함께 중국 3대 화로라고 불림.

2. 정치적/정책적 환경

2.1 경제 활성화 정책

□ 10대 중점 정책

-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 보장, 기업의 원가 절감 지원, 개혁 개방 확대,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등의 10대 중점 정책을 발표했다.

□ 전(全) 도시 공통 목표

- 각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표를 모든 도시에 일괄 적용함.
 - GDP 성장률 7% 달성
 - 실업률 3% 이내 유지
 - 평균 소득 성장률 7% 달성
 - 소비자 물가상승률 3.5% 유지

□ 서비스업 시범 개방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경을 서비스업 시범 개방 도시로 지정하였음.
- 이에 따라 북경시는 외국인 투자 항목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국 기업의 서비스 산업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개혁할 예정임.

□ 충칭 주요 경제 정책

- 중국 내 70% 이상의 지역은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반면에 충칭, 귀주(贵州), 시창(西藏)의 경우 목표치를 10% 내외로 상향 조정하였음.
- 충칭 양장신구(两江新区)는 상해의 푸둥, 톈진의 빈하이신구에 이은 중국의 3번째 개발구역으로 2015년~2020년의 경제성장률 15% 이상을 목표로 함. 2020년까지 해당 지역 내 모든 투자 기업에게 기업소득세 15%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충칭은 자체적으로 도시 실업률을 4% 이하로 조정하기 위하여 충칭 도시 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할 예정임. 또한 빈곤 인구를 대상으로 ‘빈곤 인구 직업 기술 훈련 3년 계획’의 취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최저임금

- 중국은 각 지방정부가 지역 내 경제 발전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 수준을 자체적으로 조정함. 2015년 기준 19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4%를 기록함. 2016년 7월, 20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 평균 16% 추가 인상됨.
-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의 경우, 2011년 이후 북경은 매년 약 150위안(약 27,000원), 상해는 매년 약 200위안(약 36,000원) 증가함.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의 경우, 북경이 18.7위안(약 3,4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 중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중국 내 주요 도시 연도별 월 최저임금]

(단위 : 위안)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북경	1,260	1,400	1,560	1,720
상해	1,450	1,620	1,820	2,020
충칭	1,050	1,050	1,250	1,500
우한	900	1,020	1,300	1,550

* 출처 : 중국통계청

[중국 내 주요 도시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단위 : 위안)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북경	14.0	15.2	16.9	18.7
상해	12.0	14.0	17.0	18.0
충칭	10.2	10.3	12.5	15.0
우한	9.5	11.0	14.0	16.0

* 출처 : 중국통계청

2.2 이민 정책

- 중국 이민정책
- 중국은 이민제도가 없으며,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인과 결혼하는 것임.
-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에 강화하기 위해 비자 정책의 개방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중국 당·정 기관은 최근 공동으로 ‘외국국적 고급인재에 대한 비자 및 거류 편의 제공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해, 성(省)급 기관이 도입한 총 55개 인재 유치 프로젝트에 기존의 비자 우대 정책을 확대 적용하기로 함.
- 통지문에서 언급한 55개 프로젝트에는 7개 중앙부처와 21개 성급 기관, 12개 성도급 도시 등에서 추진 중인 중인 인재 유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지문은 이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외국 인재들에게 기존의 ‘천인계획’에 준하는 비자 우대 정책을 제공하기로 했음.
- ‘천인계획’이란 외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천 명 영입을 목표로 내걸고 중국이 2008년에 도입한 프로젝트로서 이 프로젝트에는 외국인 영구 거류증(녹색카드)이나 장기 복수비자 등 파격적인 우대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2.3 식품 및 외식산업 정책

□ 유기농 제품 인증 개정안 발표

- 중국 정부는 2014년 4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증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상품 인증을 부여하며, 이에 대한 제품의 포장 및 라벨링에 있어 ‘유기(有機)’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함.

□ 강화된 식품안전법

- 중국 내 발생한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급증함. 따라서 중국 정부는 식품 안정성 확립하기 위하여 식품 안전법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기로 함.
 -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및 그 외 식품 관련 제품은 반드시 중국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만족시켜야 함.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반드시 국가 출입국 검역국에 등록해야 함.
 - 수입한 포장제품에는 중문라벨 및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함.

[연도별 식품 관련 안전사고]

연도	사고	상세 설명
2009	싼루(三鹿) 멜라민 분유사건	중국 1위 분유업체였던 싘루그룹이 제조한 유아 분유에 독성 멜라민이 들어 있어 이를 먹은 유아 6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유아들이 신장결석에 걸림.
2011	건강원(健康元) 쓰레기기름 사건	건강원의 자회사가 쓰레기 기름을 구매하여 세팔로스포린의 주요 중간체인 7-ACA를 생산하는데 이용함.
2011	인조계란 사건	인조계란은 가축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 낸 것으로, 삶은 인조계란의 노른자는 공처럼 탄력성이 강함. 인조계란은 색소 등 물질로 만들어 졌고,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다소 낮은 편이나 장기 복용 시 만성질환을 일으킴.
2012	젤라틴 요거트 사건	발암물질인 크롬이 함유되어 타이어를 먹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공업용 젤라틴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요거트와 젤리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킴.
2013	푸시(福喜) 썩은 고기 사건	상해푸시식품유한공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대량 구매해 맥도날드, KFC, 피자헛 등에 유통하는 사건이 발생함.
2014	강시(僵尸)육 유통사건	불법 밀수업체 20여 곳이 유통기한이 40년이나 지난 육류 10만 톤을 밀수한 후, 중국 14개성에 유통, 판매함.

3. 경제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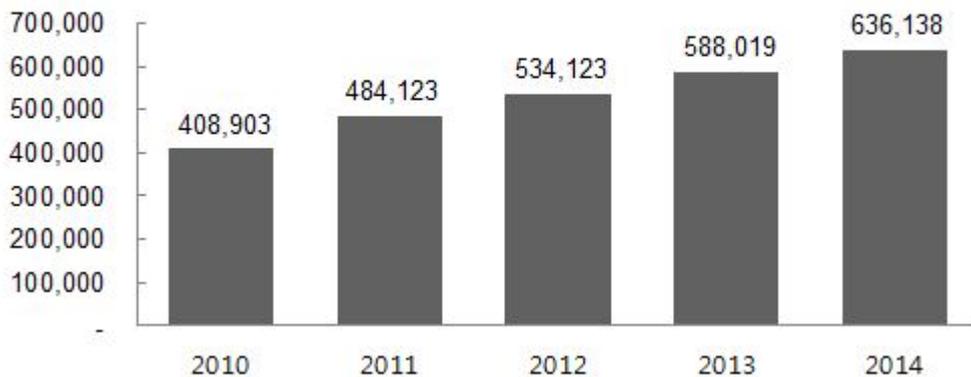
3.1 경제 규모

□ 중국 및 도시별 GDP

- 중국은 2010년 이후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음. 미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020년 중국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20%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함.

[중국 연도별 GDP]

(단위 : 억 위안)



* 출처 : 중국통계청

- 2014년 도시 GDP 순위에서 상해, 북경, 충칭은 각각 1위, 2위, 6위를 차지함. 특히 2008년 상해의 36% 수준이었던 충칭의 GDP는 2015년 상해의 63%의 수준으로 성장함.

[중국 내 주요 도시 연도별 GDP]

(단위 : 억 위안)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북경	16,250	17,880	19,800	21,330	22,970
상해	19,200	20,180	21,820	21,820	24,970
충칭	10,010	11,410	12,780	14,260	15,720
우한	6,760	8,000	9,050	10,070	10,900

* 출처 : 중국통계청

□ 주요 산업 특성

- 중국의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온라인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시장 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외곽지역이 넓어 1차 산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1차 산업 중 농업이 충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임.
- 충청은 항일전쟁 시기에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서남 지역의 최대의 종합 공업기지가 되었음.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 중심지이자 가장 큰 오토바이 생산지임.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 생산업체, 세계 최대 노트북 PC생산기지가 위치해있음.

□ 중국 산업별 GDP

- 중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 2차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며 성장률이 둔화된 반면에 서비스업은 급격히 성장하였음. 그 결과, 2014년 전체 GDP 중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을 추월하였음.

[중국 내 GDP 산업별 구성 비율]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차	4.2	5.3	4.4	4.8
2차	51.5	49.3	48.0	47.1
3차	44.3	45.4	47.6	48.1

* 출처 : 중국통계청

- 호텔·외식업은 중국 중산층의 구매력이 보이는 시장이며, 매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산업이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 특히 북경과 상해에서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와 60% 이상으로 중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

[중국 연도별 외식업 GDP 및 성장률]

(단위 : 억 위안,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외식업 GDP	8,570	9,540	10,230	11,160
성장률	1.8	1.8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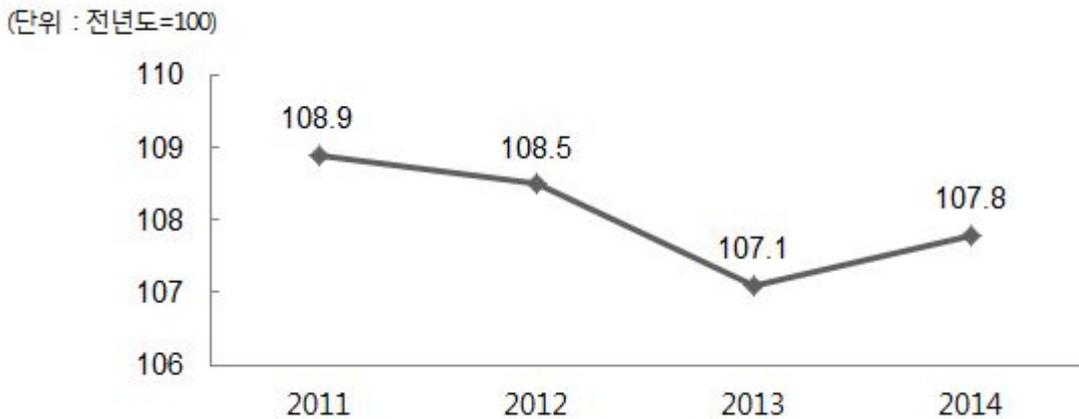
* 출처 : 중국통계청

- 중국 외식협회에 따르면 2015년 1~8월 사이 전국 외식업 수입은 2조 349억 위안(약 366조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7% 성장함.
- 중국 외식업 GDP의 성장률이 4년간 모두 1%대를 보인 반면에, 충청의 외식·숙박업 성장률은 2013년, 2014년 각각 10.8%, 13.4%로 확인됨.

3.2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중국 전체 연도별 경제성장률]



* 출처 : 중국통계청

- 2009~2010년 중국은 9~10%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 성장률에 50% 이상 기여하였음. 2016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력 있는 지역이며 특히 중국의 세계 GDP 점유율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세계 GDP 기여율은 1995년 2%에서 2015년 15%로 급증하였음.
- 2011년 이후부터 세계 경기부진으로 인해 대외 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매년 7%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률의 약 30%를 주도하고 있음. 이처럼 침체 상황에서조차 다른 주요 경제국들이 부러워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성장률이 낮아져도 경제 규모는 불과 6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하였음.

[중국의 국가 및 주요 도시 경제 성장률]

(단위 : 해당 전년도=100)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국	108.9	108.5	107.1	107.8
북경	108.1	107.7	107.7	107.3
상해	108.2	107.5	107.7	107.0
충칭	116.4	113.6	112.3	110.9
우한	113.8	111.3	110.1	1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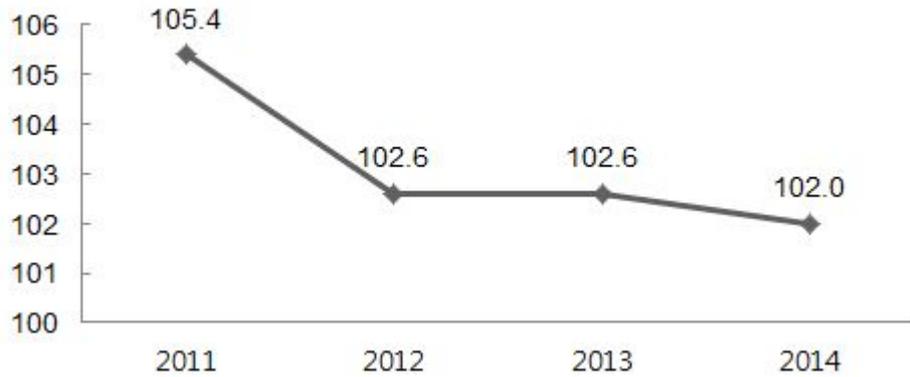
* 출처 : 중국통계청

- 최근 북경과 상해의 경제성장률 둔화현상에 대하여 중국사회과학원 산업경제연구실 주임 후샤오핑(胡曉鵬)은 1인당 평균 GDP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두 도시의 경제 산업의 중심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음.
- 충칭은 2014년 이후 8분기 연속 중국 내 경제성장률 1위 도시로 확인되며, 특히 금융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최근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強)은 ‘충칭 경제가 휘귀처럼 뜨겁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충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전국 상위권임. 충칭 경제에서 금융업의 비중은 2010년 6.8%에서 2015년 9%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중국 내륙 지방의 은행 중 최초로 충칭은행이 2013년에 홍콩증시에 상장하였음.
- 우한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성도에서 국가중심 도시 정도의 경제 수준으로 성장하였음. 20년 동안 우한의 GDP가 17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중국 중부 지역에서 GDP가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음.

□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 전년도=100)



* 출처 : 중국통계청

-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하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6년 3월 기준 식품 이외 품목의 물가상승률은 1.1%로 상승했으며, 식품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7.6% 상승함.

[중국의 국가 및 주요 도시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 해당 전년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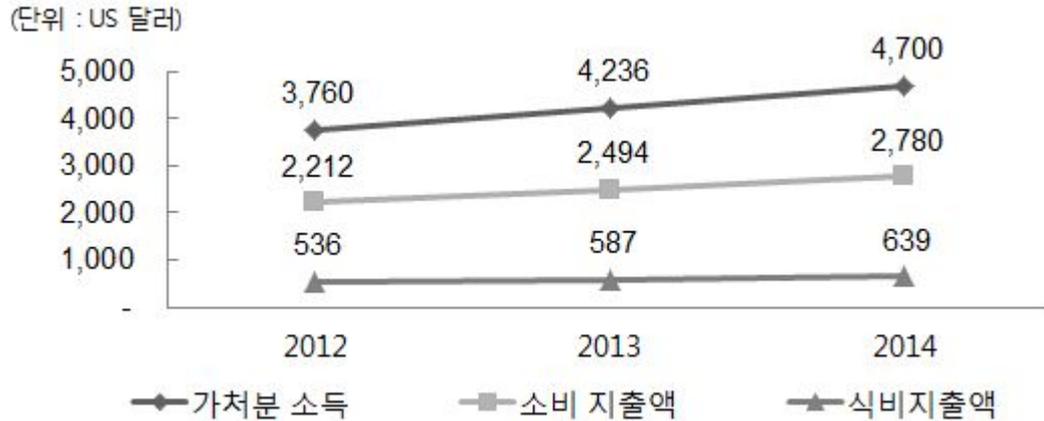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국	105.4	102.6	102.6	102.0
북경	105.6	103.3	103.3	101.6
상해	105.2	102.8	102.3	102.7
충칭	105.3	102.6	102.7	101.8
우한	-	102.8	102.4	101.9

* 출처 : 중국통계청

- 중국인들은 대부분 가장 큰 명절인 춘절 직전에 연휴를 위하여 소비를 줄이는 특성이 있음. 그 결과, 대체적으로 춘절 직전의 소비자 물가가 한 해 중 가장 낮은 경우가 많으며 춘절 시기에 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임.
- 영국의 국제 인력자원 관리업체인 ECA(Export Credit Agency)의 아시아 내 생활물가 도시 순위에 따르면, 상해는 2014년 3위에서 2015년 1위로, 북경은 2014년 4위에서 2위로 부상하였음.

□ 중국 가처분소득 및 소비 지출액

[중국 연도별 1인당 가처분소득, 소비 지출액 및 식비지출액]



* 출처 : 중국통계청

- 2015년 북경 중산층의 소득은 연간 약 25.6만 위안(약 4,500만 원)으로 중국 중산층 소득 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상해 중산층은 연간 21.9만 위안(약 3,800만 원)으로 중국 내에서 2번째로 높음.
- 북경 중산층의 총 지출액은 12.6만 위안(약 2,200만 원)으로 중국 내 도시별 중산층 총 지출액 중 가장 높았음. 상해 중산층은 연간 11.4만 위안(약 2,000만 원)으로 2번째로 높았음. 북경 및 상해 중산층의 지출액 중 식비 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주요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소비 지출액

[주요 도시 연도별 1인당 가처분소득 및 소비 지출액]

(단위 :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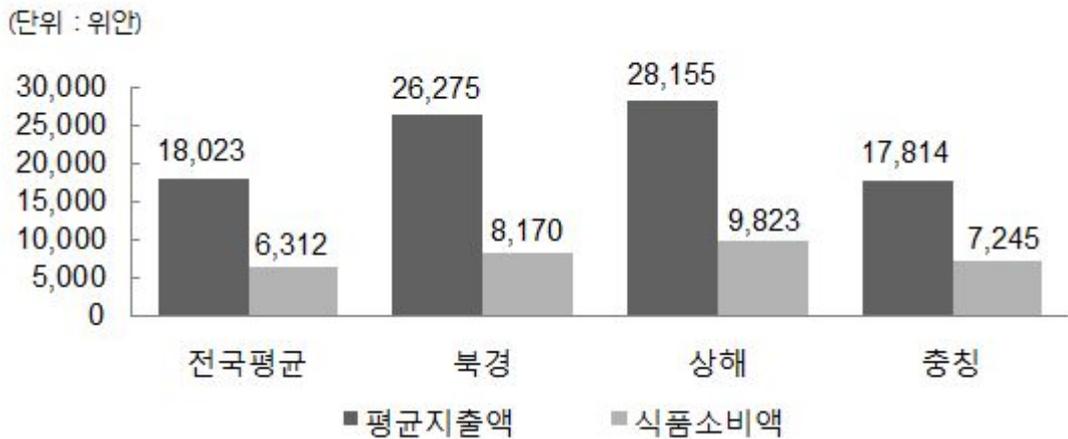
구분	가처분소득			소비 지출액		
	북경	상해	총칭	북경	상해	총칭
2011년	32,903	36,230	20,250	21,984	25,102	14,974
2012년	36,469	40,188	22,968	24,046	26,253	16,573
2013년	40,321	43,851	25,216	26,275	28,155	17,814
2014년	43,910	47,710	25,147	28,009	30,520	18,279
2015년	52,859	52,962	27,239	36,642	36,946	19,742

* 출처 : 중국통계청

- 중국인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식음료 지출을 나타내며, 평균적으로 전체 가계 소비 지출액의 약 14%를 식음료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중국 조찬 외식시장 규모가 2009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음. 특히 북경의 경우, 상주인구의 30%가 아침식사를 밖에서 해결하고 있음

□ 2013년 1인 평균 소비 지출액과 식품 소비액(현금)

[중국의 국가 및 주요 도시 1인 평균 소비 지출액 및 식품소비액(현금)]



* 출처 : 중국통계청

- 북경과 상해는 중국 내에서 평균 지출액이 높은 도시들이며 식품소비액도 많은 편임. 반면에 충청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적지만 식품 소비액은 많은 편임.

□ 고용률 및 실업률

- 중국 도시 실업률은 2012~2015년 동안 지속적으로 4%대를 유지함. 하지만 중국의 실업률은 도시 실업률이 기준이기 때문에 미등록 도시 실업자는 물론이고 농촌의 실업자가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실업률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15년 전국 취업률은 68.2%로 집계 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4.2% 하락한 수치임. 특히 2016년 중국 정부는 중국 대졸자들이 최악의 취업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

[연도별 중국 도시 기준 실업률]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분기
도시 실업률	4.1	4.1	4.1	4.05

* 출처 : 중국 통계청

3.3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연도별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

(단위 : 억 US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분기
FDI 금액	1,117	1,176	1,196	949

* 출처 : KOTRA

□ 중국 내 FDI 동향

- 2015년 1~9월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은 1만 8,98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으며, 실행 투자금액은 949억 US 달러(약 112조 원)로 9% 증가함.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12.3%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은 11.0% 증가함.

□ FDI 투자 지역

- 2009년 이후 대 중국 투자가 서부지방의 충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 그러나 여전히 장쑤, 랴오닝, 상해, 광둥 지방 등의 동부 연해지역에 외국기업 투자가 가장 집중되어 있음.

[중국 동부¹⁷⁾, 중부¹⁸⁾, 서부¹⁹⁾지방의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억 US 달러, %)

구분	동부		중부		서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1	966.0	7.5	78.4	14.3	115.7	28.2
2012	925.1	-4.2	92.9	18.5	99.2	-14.3
2013	968.8	4.7	101.0	8.8	106.1	7.0
2014	979.2	1.1	108.6	7.5	107.8	1.6

* 출처 : 중국상무부

17) 중국 동부 지방 : 북경, 천진, 허베이, 상해, 저장, 하이난 등

18) 중국 중부 지방 : 산시성, 길림성, 흑룡강성, 후난성, 후베이성 등

19) 중국 서부 지방 : 서부지방에는 충칭, 사천성, 귀주, 네이멍구 등

3.4 한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 진출 한국 기업 형태 및 수

- 중국에는 삼성, 현대, LG 등 한국 대기업 뿐 아니라 주요 중견, 중소기업 및 산하 공장까지 다양한 형태로 한국 기업이 진출했음.
- 2015년 9월 기준 중국에 한번이라도 등록된 적이 있는 한국 업체는 51,409 개이나 실제 진출기업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추정됨.

□ 한국 외식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 2015년 이랜드 그룹의 한식뷔페 전문점 ‘자연별곡’ 이 상해에 진출하였음. ‘자연별곡’ 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현지인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한 결과 100일 만에 매출 20억 원을 돌파함.
-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중국 진출이 활발함. 특히 뚜레쥬르와 파리바게트는 전체 해외 매장 중에서 중국 매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6%, 70%임.

□ 한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1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
- 2013년 한국 대 중국 투자 증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 내 마케팅 거점을 강화했으며, 중국 시장이 확대되며 자동차와 반도체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기 때문임.
- 또한 최근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자제품과 통신설비 제조업은 한국 기업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대 중국 투자분야임. 특히 IT산업은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신흥 산업으로 진출 경쟁이 치열한 편임.
- 반면 2010년부터 한국 대 중국 신규 법인 신고 수가 매년 하락세를 보임. 특히 2차 산업 투자 신고 법인 수는 2011년 1,552건에 비해 2015년 692건으로 약 50% 하락함.

[연도별 한국 대 중국 투자 금액]

(단위 : 천 US달러)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투자금액	3,685,800	3,613,400	5,097,500	3,133,000

* 출처 : 수출입은행

[한국 대 중국 산업별 신규 법인 수 및 투자 신고 건수]

(단위 : 건,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차	신고건수	13	6	10	6	4
	신규 법인 수	7	3	2	2	1
2차	신고건수	1,552	1,281	1,199	987	692
	신규 법인 수	451	385	421	340	264
3차	신고건수	769	667	763	720	554
	신규 법인 수	403	354	410	375	276
전체	신고건수	2,334	1,954	1,972	1,713	1,250
	신규 법인 수	861	742	833	717	541

* 출처 : 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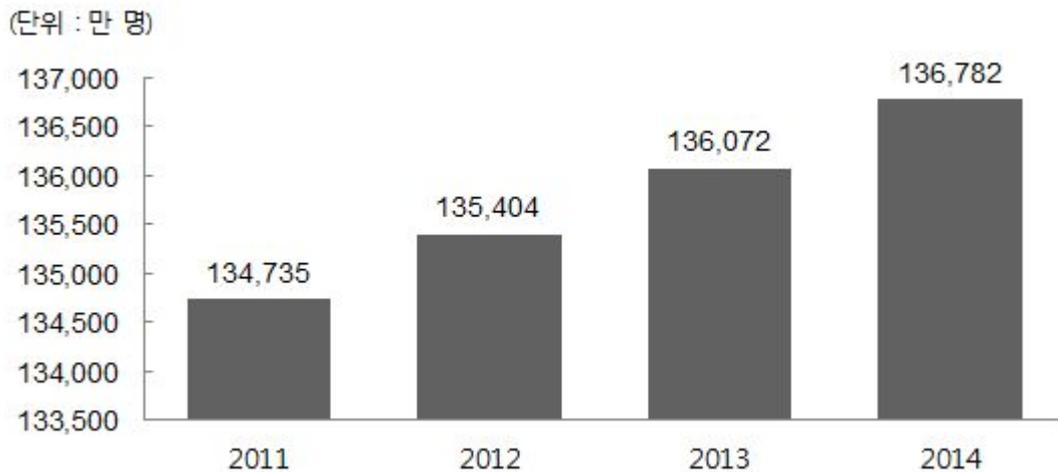
4. 사회/문화적 환경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인구규모

- 중국은 세계 인구 순위 1위 국가이며 2014년 기준 약 13.6억 명임. 매년 약 4%씩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됨.

[중국 연도별 총 인구수]



* 출처 : 중국통계청

[북경/상해/충청/우한 인구수]

단위 : 만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북경	2,019	2,069	2,115	2,152
상해	2,347	2,380	2,415	2,426
충청	2,919	2,945	2,970	2,991
우한	1,002	1,012	1,034	1,061

* 출처 : 중국통계청

□ 중국 인종 구성

- 한족이 95.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이 외에 만주족, 몽고족, 조선족, 위구르족 등의 소수 민족은 약 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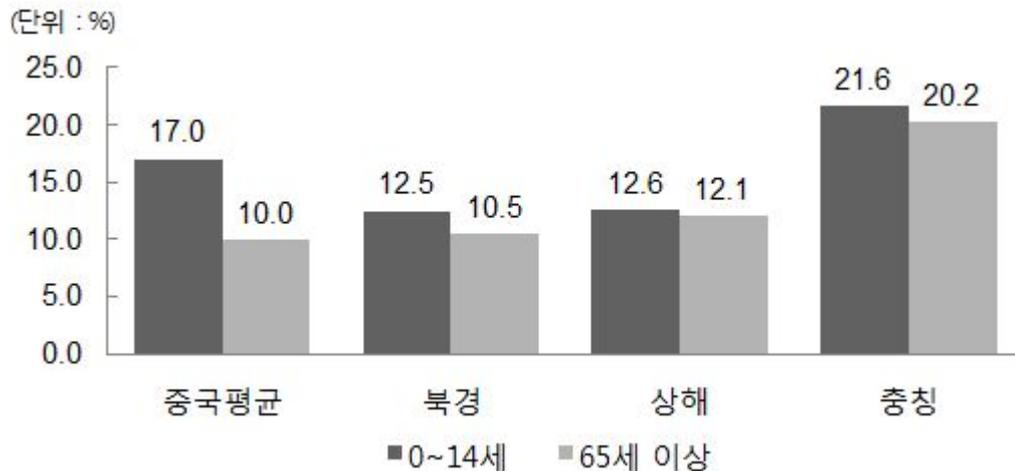
□ 중국 연령별 특성

- 중국 14세 이하 인구 비율은 2013년 및 2014년에 동일하게 22.5%로 유지됨.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인구 비율이 매년 0.5%씩 증가하여 2014년 기준 13.7%로 확인됨.
- 중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2억 명을 돌파했으며 2015년부터는 매년 1,000만~1,200만 명씩 증가하여 2035년에 노인 인구수가 4억 1800만 명,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 파리 신문사 르피가로(Le Figaro)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2,000만 명에 달함.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5년 정점에 달했고 2016년부터 축소될 전망이며 2050년까지 2.5억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실제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독일이나 일본, 한국보다 빠른 편임.
- 중국 인구 고령화의 주된 요인으로 1980년대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이 거론되며 남녀 성비 불균형도 저 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음.

□ 중국 내 주요 도시 연령별 특성

- 북경과 상해의 연령별 인구 비율은 유사한 편이지만 충청의 경우, 14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북경과 상해에 비해 높은 편임.

[2014년 기준 중국/북경/상해/충청 연령별 인구 비율]



* 출처 : 중국통계청

4.2 언어적 특성

□ 중국 언어

- 중국, 대만, 싱가포르 국민들이 사용하는 중국어를 표준어(보통화, 普通話)로 칭함. 보통화란 북경어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어를 기초 어휘로 한 현대 표준어를 뜻함. 이외 지역별로 상이한 방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종 타 지역민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또한 중국은 간체자(簡體字)를 사용하고 대만과 홍콩의 경우 번체자(繁體字)의 한자 표기 방법을 사용함.

4.3 종교적 특성

- 중국 헌법에 의거하여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교회, 사찰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 미사 등의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 단체에서 초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종교단체, 종교 사무기구, 종교 학원, 종교 활동 장소 등은 설립할 수 없음.
- 중국 공민을 종교인으로 전환시키거나 종교 교직인원을 임명하거나 종교 포교를 위한 물건을 배포하거나 다른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4.4 사회적 특성

□ 중화사상

- 중국인은 자국 문화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음. 중(中)은 ‘중앙’ 이라는 뜻이며, 화(華)는 ‘문화’ 라는 뜻으로, 중화(中華)는 자신들이 온 천하의 중심이면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선민의식을 나타내는 단어임.

□ 중국인의 특성

-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오랜 중화사상으로 인하여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과 명분을 중시함. 광활한 국토의 면적만큼 각 지역 사람들의 기질과 특성이 다양한 편임.

□ 상해인의 특성

- 중국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상해인이라 하면 대부분 ‘이기적이다’ 라고 평가됨. 위치적 특성과 개방적 성향으로 인하여 경제가 발달 된 만큼 두뇌회전이 빠르고 실용성을 추구하며, 손익에 굉장히 민감하며 합리적인 편임.

- 구매 패턴이 서구화 되어 있어 경쟁소비 심리와 허영심이 큰 편임. 고가품인 최상급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지역별 외식당 적정 가격대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외식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며 외식이 중국 현지인들의 일상생활화 된 경향이 강하지만 지역별로 식당의 가격대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응이 다름.
- 북경에서는 고급 양식당들도 세트메뉴가 800위안(약 14만 원)을 초과하면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북경 외식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한 편임. 반면 경제의 중심지인 상해의 경우 고가의 음식들로 구성된 식당은 항상 손님으로 붐빔.

□ 중국 비만의 문제로 인한 식생활 변화

- 중국 성인 인구 중 3억 명 이상이 과체중으로 분류되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비만대국이 되었음. 최근 젊은 층에게 KFC나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말 아침식사를 배달시켜 먹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며 비만율이 더욱 상승함. 급증한 비만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최근에 유기농 식재료만을 사용하는 식당과 먹을 만큼 덜어낸 양에 따라 돈을 내고 먹는 식당이 증가함.

□ 빠질 수 없는 기호음료, 차(茶)

- 중국 속담에 ‘아침에 차를 마시면 하루 종일 위풍당당하고, 정오에 차를 마시면 일하는 것이 즐겁고, 저녁에 차를 마시면 정신이 들고 피로가 가신다.’ 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임. 가정은 물론 관공서나 직장에서도 각자의 찻잔이나 차를 우려내는 병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중국인들은 차를 즐김.

□ 극심한 공기 오염 문제

- 최고 단계 스모그 경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2015년 중국에서 신규 폐암 발병 건수가 약 73.3만 건으로 확인됨. 이는 하루에 약 2천씩 폐암 발병 환자가 증가하는 수치임.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 수는 약 61만 명으로, 하루 약 1,6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됨. 전체 사망 암 환자 2,814,000명 중 폐암이 21.1%를 차지함.
- 실제로 2013년 중국 8살 여아가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음. 당시 이 여아의 폐에는 초미세먼지가 가득했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갈수록 심해지는 공해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4.5 소비 특성

□ 건강한 먹거리의 수요 증가

-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국인의 소비 수준이 향상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
- 건강식품 시장규모는 2004년 기준 226억 위안(약 3조 9,540억 원)에서 2013년 기준 약 5,000억 위안(약 87.5조 원)으로 10년간 약 20배 성장하였음. 특히 '녹색식품 (유기농 식품)'의 수요와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영양 성분 구성과 균형 등에 민감한 소비자가 늘어남.

□ 배달 전쟁 중인 중국

- 중국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는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중국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 온라인 음식배달시장의 거래규모가 1분기 대비 4분기에 약 3배가 증가하여 60.2억 위안(약 1.1조 원)을 기록함. 중국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는 매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014년 분기별 음식배달시장 거래규모]

(단위 : 위안)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거래규모	21억 6,130만	31억 3,960만	38억 5,480만	60억 2,000만

* 출처 : 중국엔포데스크

- 상해의 온라인 식사 주문 고객 중 68.4%가 화이트칼라 직군임. 상해의 온라인 점심 식사 주문량은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잦은 야근으로 인한 상해인의 저녁 식사 시간은 분산되어 있음.
-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대학생이 늘어남. 이처럼 상해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주문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음.

4.6 음식 문화적 특성

□ 중국의 4대 요리 특징

- 황하강 유역 북방은 북경요리를 대표로 하고, 양쯔강의 하류는 상해요리를, 양쯔강 중상류는 사천요리를, 주강 유역은 광둥요리를 대표로 하고 있음.

- 광동요리는 본 재료의 맛을 살려 맛이 담백하고 연한 편임. 사천요리는 고추, 산초, 후추가 거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얼얼하고 매콤한 맛으로 잘 알려져 있음. 또한 향이 좋고 비교적 기름지며 색상이 짙은 것이 특징임. 산동요리는 재료 선택을 중요시 여기며 조리 기술이 정밀하고 섬세함. 재료의 맛이 싱싱하고 깔끔한 편이며 양념으로 맛을 맞추는데 뛰어남. 장쑤요리는 호수에서 잡은 게, 민물 생선 등이 주요 식재료로 쓰고, 특히 음식의 빛깔과 모양을 중요시 함.

□ 충청 요리 특징

- 더위와 추위가 심해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 요리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저린 맛의 매운 요리와 마늘·파·고추를 사용하는 요리가 많은 편임.

□ 충청 대표적인 전통 요리

구분	사진	특징
<p>충청식 휘귀 (火鍋)</p>		<p>샤브샤브처럼 큰 양푼에 담긴 육수에 여러 야채를 넣고 끓이면서 각종 육류나 버섯 등을 데친 뒤 양념장에 찍어 먹는 음식임. 현재 많은 식당에서 양푼의 한 쪽에는 맵고 얼얼한 홍탕(紅湯)을, 나머지는 맵지 않은 청탕(淸湯)을 담아 줌.</p>
<p>마파두부 (麻婆豆腐)</p>		<p>중국인 열 중 아홉이 두부당(豆腐黨, 두부를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두부를 사용한 음식을 선호함. 고추기름에 다진 돼지고기, 홍고추, 청고추를 넣고 볶다 두반장(매운 맛이 나는 중국식 고추장)과 두부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 조리법이 간단함.</p>

□ 전통 음식 조리법

명칭	조리법
자(炸)	다량의 기름으로 튀기는 것
바오(爆)	뜨거운 기름으로 살짝 튀기거나 뜨거운 물로 살짝 데치는 것
지엔(煎)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부치거나 지지는 것
차오(炒)	중간 불로 기름에 볶는 것
먼(焖)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 오래 끓여서 달여 내는 것
둔(炖)	주재료에 국물을 붓고 푹 고는 것
쑤(熏)	재료를 연기로 찌는 일종의 훈증식
카오(烤)	불에 직접 굽는 것
류(溜)	달콤한 녹말 소스를 끼얹는 것

□ 식문화 및 식기구

- 중국인의 주식은 쌀과 밀가루로 남방사람들은 미판(米飯, 쌀밥)과 니엔카오(年糕, 떡)를, 북방사람들은 분식을 즐겨 먹음.
- 주식과 반찬, 요리를 함께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과는 달리, 중국식 식사는 먼저 차이(菜, 요리)로 배를 채우고 뒤이어 주식으로 밥이나 면 등을 주문해 먹는 경향이 있으나 가정에서는 주식과 요리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음.
- 중국음식은 요리가 반찬처럼 여러 가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만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으므로 회식을 즐기는 경향이 있음.
- 최근 중국엔 대가족 제도의 붕괴로 홀로 식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스턴트 간편식인 '콰이찬(快餐, 패스트푸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 쌀은 대부분 찰기가 없기 때문에 국을 마실 때를 제외하고, 젓가락만 사용하여 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임. 젓가락으로 요리를 뒤적이거나 소리 내어 음식을 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여김.

□ 식사 시간

- 하루에 점심과 저녁의 두 번의 식사가 일반적임. 두 번의 식사 이외에 아침 식사, 오후 3시의 간식, 밤 10시경의 야식에 해당하는 시간대에는 주로 간단한 '디엔신(点心, 가벼운 음식)'을 먹음.
- 한국의 간식이나 야식은 통상 식사가 아닌 주전부리의 느낌이 강하나, 중국의 디엔신은 중요한 하나의 식사라는 점에서 한국의 간식이나 야식과는 개념이 다름.

□ 향신료

- 중국 음식은 대개 기름지고 느끼해서 항상 향신료 소스와 채소를 곁들이는 편임. 주로 고수 잎이 소화를 도와준다 하여 즐겨 사용함.
- 중국 요리는 대체로 재료와 소스를 섞어서 요리를 만드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간장, 두반장, 굴소스, 춘장, 식초, 고추기름 등을 주로 사용함.

4.7 한인과 한류 현황

□ 한인 현황

- 1992년 한·중 수교 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가 되면서 한인사회가 급격히 성장함. 중국에 거주하는 기업인, 유학생 등의 숫자가 급증하자 재외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생겨남. 1992년 ‘북경 한국 유학생회’가 설립되었으며 1993년에는 중국 정부에 등록된 유일한 한인단체인 ‘중국한국상회’가 설립되었음.
- 외교부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수는 2,573,178명으로 확인됨.

[중국 내 재외동포 현황]

(단위 : 명)

일반 체류자	유학생	시민권자	영주권자	총합
299,493	56,977	2,216,644	64	2,573,178

* 출처 : 외교부

- 충청은 중국의 타 직할시 대비 한인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편임. 충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70%와 대부분의 한국 대기업은 양장신구에 밀집해 있음.
- 외교부에 따르면, 2014년 충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수는 1,999명으로 확인됨.

[충청 내 재외동포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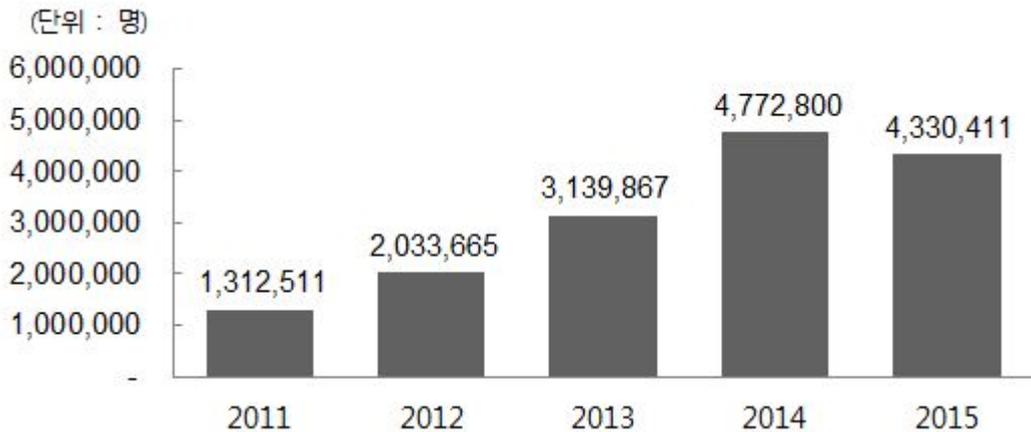
일반 체류자	유학생	시민권자	영주권자	총합
659	140	1,200	-	1,999

* 출처 : 외교부

□ 한국 방문 관광객의 수

- 한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하지만 2015년 한국에 창궐한 메르스로 인하여 중국 관광객이 소폭 감소하였음.

[한국 방문 중국인의 수]



*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인기 한류 문화의 종류

- 중국의 젊은 층들은 한국 드라마부터 음악, 화장품, 의류, 식품 등을 선호하며 한국 스타를 선망함. 특히 한국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주인공 전지현의 ‘눈오는 날에는 치맥인데’라는 대사가 이목을 끌면서 중국에서 치킨에 맥주를 곁들이는 ‘치맥’이 2014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함. 그 결과로 당해 치맥의 매출이 300% 이상 상승하였음.
- 중국 외식시장에서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음식, 세련된 문화 공간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외식 브랜드 및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 특히 중국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식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짬뽕 라면 및 허니버터아몬드가 큰 인기를 얻었음.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한국에서 인기를 얻으면, 중국에서도 무조건 인기 있다’ 라는 인식이 등장하였음.
- 한국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연이어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커피 전문점들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메뉴,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맛과 편안한 실내 인테리어 때문에 한국 카페를 애용하고 있음.

5. 기술적 환경

5.1 인프라 수준

□ 수돗물의 안전 문제

- 2015년 북경 수돗물의 60%를 공급하는 단장코우(丹江口) 저수지 내 납 함 유량이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20배를 초과하였음.
- 양돈 농가들은 죽은 돼지를 땅에 묻지 않고 상해시 수돗물 취수원이 있는 황푸(黃浦)강에 죽은 돼지를 대량으로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충청 모노레일

- 충청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경사져 있고 작은 골목 위주의 길이 발달해 있어 지하철 및 버스 대신 모노레일이 주요 교통수단임.
- 2016년부터 1호선 모노레일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향후 2, 3호선에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할 예정임.

5.2 IT 특성

□ 중국 인터넷 이용자 수

- 중국 인터넷 이용자 수가 10년 사이에 6배 이상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소비자가 급증함. 2015년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6억 명 이상으로 확인되며 외곽 지역의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 되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최대 SNS, 위챗(WeChat)

- 2011년 출시된 중국 최대 SNS인 위챗은 중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90%가 사용하고 있음. 중국의 젊은 층은 제품 구매 시, 위챗에 공유되는 지인의 구매 후기를 참고하며 외식당 경영주들도 식당의 광고와 고객과의 소통을 위하여 위챗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

□ 배달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시장의 성장

- 연령을 불문하고 음식 배달 문화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음.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북경의 1인 고령 가구 중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44.6%가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1년 사이에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거래규모와 배달 앱을 통한 주문량이 모두 약 3배 이상 증가함. 또한 식품 구매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2009년 출시된 '얼러마(饿了么)'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품 O2O 플랫폼임. 얼러마는 현재 소비자의 위치 근처에 있는 식당 리스트를 제공함. 또한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얼러마 페이지 하단에 최저가 배송과 배송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부 5성급 호텔은 젊은 외식소비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터넷 메뉴'를 출시하였으며, 80허우(80后)와 90허우(90后)²⁰⁾의 입맛을 겨냥한 배달세트 메뉴를 개발 중임.
- 북경의 한 식당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위챗을 사용하여 메뉴를 고르고 결제하는 등 스마트폰으로 모든 주문을 대체하기 시작함.

20) 80허우, 90허우: 80허우는 1980~1989년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며, 90허우는 1990~1999년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킴. 이들은 약 3억 4,000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함. 개혁개방과 산아제한정책 이후 외동아들·외동딸로 태어난 소황제(小皇帝)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가정에서 자란 세대임.

6. PEST 분석 요약

구분	요약
Political (정치·정책적) 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 잠재적 외식 소비자의 증가가 예상됨 - '환경보호정책' 시행 및 '식품 안전 관련법' 세분화에 따라 식당 개업/운영 시 규제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Economic (경제적) 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산업 GDP 내 외식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여, 중국의 둔화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외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북경, 상해 및 충청 중산층의 지출액 중 식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아,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함께 식비 지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Social (사회적) 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국 공산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신뢰 가능한 녹색식품(유기농 식품)의 수요가 증가함. - 대학생 및 직장인 중심으로 인터넷 및 핸드폰 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함.
Technological (기술적) 환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사이에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의 거래규모가 약 3배 증가할 정도로 O2O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외식 소비자가 중국 본토의 SNS(위챗, 웨이보, 모멘트 등)을 통해 식당 정보를 얻고 후기를 참조할 정도로 SNS 활용도가 큼. - 수돗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내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하는 등 수돗물 수질 문제로 인해 안전 대책이 필요함

제4장 국가 외식 산업 분석

1. 외식 시장 규모
2. 외식 시장 트렌드
3. 프랜차이즈 브랜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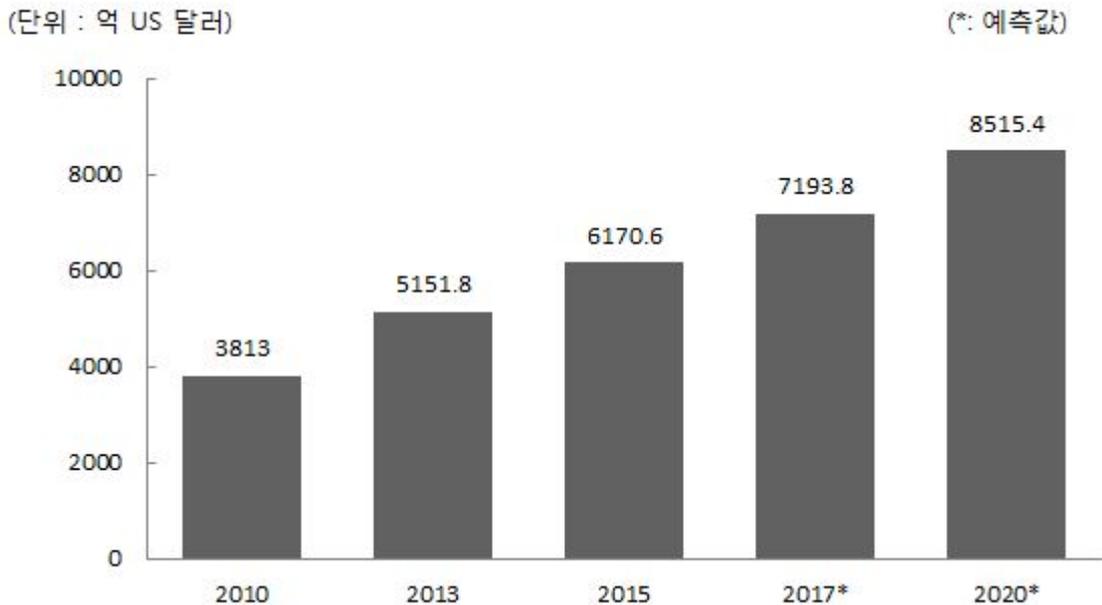
IV. 국가 외식 산업 분석

1. 외식 시장 규모

1.1 매출액 기준 외식산업 규모²¹⁾

- 2015년 매출액 기준 중국의 외식산업 규모는 6,171억 US 달러(약 711조 원)임. 이는 2010년 기준 외식산업 규모(약 3,813억 US 달러, 약 441조 원) 대비 연평균 10.1% 증가한 수치임. 2020년까지 연평균 6.7%씩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외식산업 규모는 약 8,515억 US 달러(약 981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 매출액 기준 외식산업 규모]



* 출처: Euromonitor

- 2015년 매출액 기준 중국 외식시장의 업태별 규모를 살펴보면 풀서비스 레스토랑이 74.5%(약 4,147억 US 달러, 약 479조 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패스트푸드(21.8%, 약 1,343억 US 달러, 약 155조 원), 카페/바(2.1%, 약 133억 US 달러, 약 15.3조 원), 노점/키오스크(1.5%, 89.6억 US 달러, 약 10.3조 원) 순임. 셀프/서비스 카페테리아(0.1%, 약 6.3억 US 달러, 약 7,200억 원) 및 배달/테이크 아웃 전문점(0.03%, 약 2.1억 US 달러, 약 2,400억 원)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21) 식당 업태는 'Euromonitor' 의 조사 카테고리에 의한 분류로 일반적인 식당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업태 기준은 '[참고]Euromonitor 업태 구분' 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배달/테이크 아웃 전문점은 지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약 24%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약 7.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지난 5년간 전체 외식 산업과 비슷한 성장률 (약 10.1%)를 기록했지만, 향후 5년간 외식 시장 전체 성장률(6.7%)보다 높은 성장률(7.2%)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중국 매출액 기준 외식산업 업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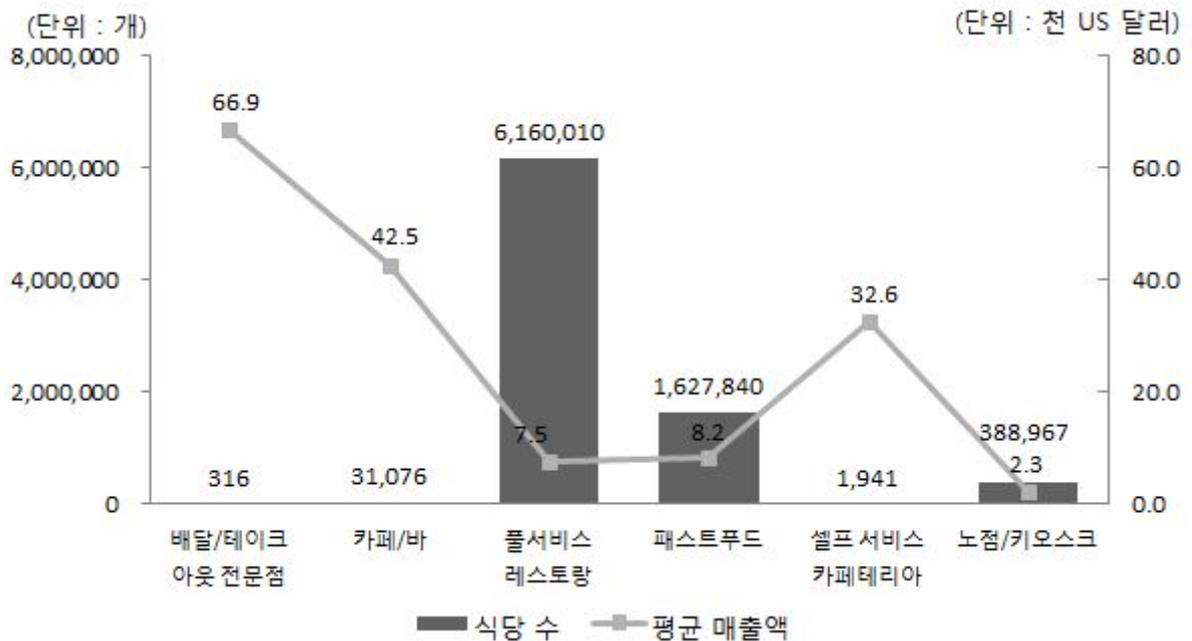
	2010년	2015년			2020년(추정)	
	억 US 달러	억 US 달러	CAGR(10~15)	점유율	억 US 달러	CAGR(15~20)
외식산업	3,813	6,171	10.1%	100.0%	8,515	6.7%
배달/테이크 아웃 전문점	0.7	2.1	24.1%	0.03%	3.1	7.8%
카페/바	68.7	132.0	14.0%	2.1%	192.5	7.8%
풀서비스 레스토랑	2,792	4,598	10.5%	74.5%	6,519	7.2%
패스트푸드	884	1,342	7.1%	21.8%	1,680	4.6%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	3.7	6.3	11.4%	0.1%	8.4	5.9%
노점/키오스크	64.1	89.5	6.9%	1.5%	111.1	4.4%

* 출처: Euromonitor

1.2 식당 수 기준 외식산업 규모

- 2015년 기준 중국에는 8,210,150개의 식당이 위치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2010년 기준 6,096,990개 대비 연평균 약 6.1% 증가한 수치임. 2020년까지 연평균 3.6%씩 증가하여 2020년 기준 9,786,769개의 식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기준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전체 외식당의 약 75%(6,160,01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패스트푸드(약 19.8%, 1,627,840개), 노점/키오스크(약 4.7%, 388,967개) 순임. 셀프 서비스 카페테리아(약 0.02%, 1,941개) 및 배달/테이크 아웃 전문점(약 0.004%, 316개)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식당 업태별 시장 규모와 식당수를 기준으로 식당별 연평균 매출액을 보면, 배달/테이크 아웃 전문점이 평균 6.7만 US 달러(약 7,700만 원)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음. 카페/바는 4.2만 US 달러(약 4,800만 원), 셀프 서비스 카페테리아는 3.3만 US 달러(약 3,300만 원)를 기록함.

[2015년 기준 업태별 식당 수 및 연평균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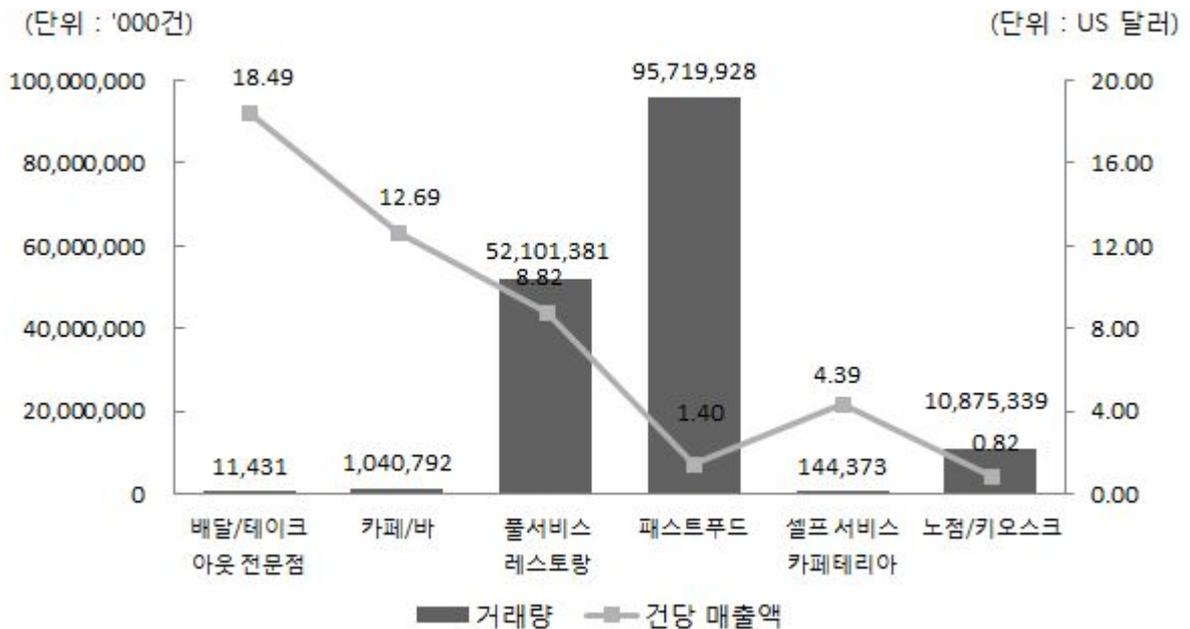


* 출처 : Euromonitor

1.3 거래량 기준 외식산업 규모

- 2015년 기준 중국 외식산업에는 약 1,599억 건의 거래가 발생함. 이는 2010년 기준 약 805억 건 대비 연평균 14.7% 증가한 수치임. 2020년까지 연평균 5.3%씩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약 2,067억 건의 거래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기준 중국 외식산업 내 가장 많은 거래가 발생한 곳은 패스트푸드(약 60.0%, 약 957억 건)임. 그 다음으로 풀서비스 레스토랑(약 32.6%, 약 52.1억 건), 노점/키오스크(6.8%, 약 10.9억 건) 순임.
- 업태별 건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풀서비스 레스토랑이 평균 18.49 US 달러(약 2만 원)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음. 이에 반면 패스트푸드(평균 1.40 US 달러, 약 1,600원) 및 노점/키오스크(평균 0.82 US 달러, 약 940원)의 건당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2015년 기준 업태별 거래량 및 건당 매출액]



[참고] Euromonitor 업태 구분

○ 배달/테이크 아웃 전문점

- 고객이 식당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매장을 방문해서 픽업하거나, 매장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구조의 식당임. 대표적인 메뉴는 피자, 중식, 인도식, 서양식 등임. 노점/키오스크 대비 매장이 고정되어 있음.

○ 카페/바

- 주요 메뉴는 주류 및 음료이지만, 음식도 제공하는 식당을 일컬음.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 또는 간식류보다는 음료/주류만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 카페/바 카테고리는 카페, 바, 호프, 커피전문점, 주스/스무디 전문점 등을 포함함. 매출액의 50% 이상이 주류 및 음료로부터 창출되면 카페/바로 취급함.

○ 풀서비스 레스토랑

- 자리에 앉아서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 형태의 식당임. 음료/주류 보다 음식에 더 초점이 맞춰지며 비교적 높은 품질의 음식이 제공되고 음식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음. 뷔페식 식당도 포함함.

○ 패스트푸드

- 패스트푸드는 규격화되고 제한된 메뉴에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함. 음식은 일정하게 정해진 양과 재료에 따라 조리되며, 품목별로 개별 포장됨. 비교적 젊고 미숙련된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은 카운터에서 주문 및 픽업을 함.

○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

- 종업원의 서비스 없이 고객이 직접 배식대에서 음식을 선택하고 자리로 가져가서 먹는 형태의 식당임. 지불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뷔페 형태로 입장료를 내거나 요리별로 지불하는 것임. 대표적인 예는 오피스 건물이나 대형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구내식당임.

○ 노점/키오스크

- 규모가 작은 이동식 판매처로서 가격이 싸고 구매 가능한 음식이 제한적임. 길거리 노점상이 대부분이며 대형 쇼핑몰 내에 있는 키오스크 및 간이 상점도 포함함.

2. 외식 시장 트렌드

2.1 외식시장 트렌드 선정

○ 검색어

- 2014년~2016년 2월의 자료를 다음의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함.
 - 食品趋势(식품트렌드)
 - 餐饮趋势(외식업트렌드)
 - 美食时尚(외식트렌드)
 - 餐饮市场分析(외식시장분석) 등

○ 검색 결과 자료

[중국 외식시장 트렌드 리스트]

순서	날짜	출처	출처 설명	제목
1	2015.07	Euromonitor	전문 조사기관	Consumer Foodservice in China
2	2013.03	Euromonitor	전문 조사기관	Waste Not Want Not: Chinese Diners Return to Frugality
3	2014.10	Jumpstart magazine	홍콩 스타트업 전문 매거진	What trends can we expect from China in 2015
4	2016.03	sina뉴스	중국 최대 포털 내 경제 신문	上海休闲食品行业发展趋势, 悠百佳好前景 상해 캐주얼식품업 발전 트렌드, 悠百佳 전망
5	2015.02	中国食品报 중국 식품보(신문)	중국 경공업 연합회 신문	速览2015年食品相关行业发展走向 2015년 식품 관련 업계 트렌드
6	2015.02	中国食品报 중국 식품보(신문)	중국 경공업 연합회 신문	4个美食时尚趋势让你Chic 당신을 특별하게 하는 4가지 음식트렌드
7	2015.01	青年网 중국 청년일보	관영노조인 총공회 기관지	2015年餐饮八大发展趋势 2015년 외식업 8대 트렌드
8	2015.11	中国行业研究院 중국 산업연구소	중국계 컨설팅업 1위	绿色健康餐饮成中国餐饮发展新趋势 녹색건강음식 중국 외식 새로운 트렌드
9	2015.12	中国行业研究院 중국 산업연구소	중국계 컨설팅업 1위	享受网络订餐 勿忘安全健康 배달 음식, 안전을 잊지 마라
10	2016.02	中国烹饪协会 중국 요리협회	전(주) 중국 외식업 협회	2015年中国餐饮市场分析报告 2015년 중국 외식시장 분석보고

(계속)

순서	날짜	출처	출처 설명	제목
11	2016.01	赢商新闻 중국 영상신문	중국 부동산업 1위 뉴스 채널	详解2016年餐饮行业的九大发展趋势 2016년 외식업 9대 발전 트렌드
12	2015.01	中国报告大厅 중국 보고회장	시장 연구기관	2014年餐饮行业现状及2015年 餐饮市场发展趋势分析 2014년 외식산업현황 및 2015년 외식시장발전트렌드 분석
13	2015.11	北京商报网 북경 상보신문	국가 기관지 북경일보 소속	新形势下的餐饮业转型与可持续发展 외식업의 새로운 정세와 지속 가능 발전
14	2014.09	中国报告大厅 중국 보고회장	시장 연구기관	2014年餐饮行业现状分析 2014년 외식산업 현황 분석
15	2015.04	食品商务网 중국 식품상무	중국 식품 관련 사이트 1위	我国食品消费趋势五大趋势分析 중국 식품소비 5대 트렌드 분석
16	2015.12	腾讯财经 중국 텐센트	중국 최대 포털 내 경제 신문	食品饮料行业:坚果炒货消费量提升空间大 “健康、风味、混搭”是趋势 중국 식품음료업: 볶은 견과류 소비 상승과 건강 맛 퓨전이 트렌드
17	2016.02	中华新闻 중화신문	미국, 홍콩, 대만 등지 화교 신문	美食界2016流行趋势发布 외식계 2016년 유행 트렌드 발표

- 데스크리서치, 현장 관찰 인터뷰 및 관찰 조사의 결과로 녹색화의 등장, 고급외식수요 감소 및 일반외식수요 증가, 외식업계와 IT기술의 결합, 캐주얼 식품의 성장 등 4개의 트렌드를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함.

2.2 주요 트렌드 키워드

키워드	상세 내용
녹색화의 등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음식의 소비와 신선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식품의 수요가 모두 증가함.
고급외식수요 감소 및 일반외식수요 증가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를 한정 공략하는 고급외식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식당이 각광을 받고 있음.
외식업계와 IT기술의 결합	중국 내 온라인 및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의 증가에 따라 외식업계도 모바일 앱 및 인터넷을 통해 고객관리 및 홍보관리를 진행함.
캐주얼 식품의 성장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중국식 간식 중 볶은 견과류, 약과, 콩 제품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2.3 주요 트렌드 상세 내용

○ 녹색화의 등장

- ‘녹색화’란 중국의 신조어로 자연 친화를 의미함. 식생활에도 녹색화 바람이 불며 ‘환경을 보호하며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먹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중국인의 식습관의 변화를 나타냄.
- 중산층의 인구가 증가하여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최대한 정제되지 않은 식품 본연의 맛을 선호하기 시작함.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 수의 증가와 ‘녹색화’의 인식 확산으로 친환경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식품상무국(食品商務局)에 따르면, 중국인 식품 소비자의 41%가 식품 첨가물에 대해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이들은 음식을 조리 시 사용하는 식재료로 천연 식품첨가물, 유기농 재료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됨. 원산지에서 신선하게 공급된 식품을 소비하는 ‘토식주의(土食主義)’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식재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식품 눈높이는 높아질 전망이며,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건강’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환경오염에 무방한 식품 포장 재질을 선호하기 시작함. 이에 디저트 카페는 먹어도 되는 아이스크림 그릇을 개발하는 등 외식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사항을 반영하기 시작함. 정부 및 민간 기관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많은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등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고급 외식수요 감소 및 일반 외식수요 증가

-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를 한정 공략하는 고급외식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식당이 각광을 받고 있음. 또한 바쁜 현대인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간편한 요리가 인기를 얻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상해, 선전 등 경제 중심의 대도시에서 주로 발견됨. 특히 오피스 타운 내 간편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 및 테이크아웃 전문점의 수요 증가하고 있음.

○ 외식업계와 IT기술의 결합

- 외식산업에서 O2O(Online to Offline)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소비자의 외식 생활 패턴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식당을 예약하고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음. 이에 중국 대표 SNS인 위챗을 사용하여 고객과의 관계 유지, 광고 및 온라인 주문 서비스 제공 하는 식당이 증가하였음.
- 중국 내 위챗 사용자 중 약 6억 명의 인구가 위챗과 연계된 O2O 서비스 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O2O 서비스의 사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캐주얼 식품의 성장

- 캐주얼 식품은 누구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중국식 간식이며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인기를 얻고 있음.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맛있는 양질의 간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음.
- 캐주얼 식품은 식재료로도 각광을 받고 있음. 가장 인기가 많은 캐주얼 식품은 볶은 견과류이며, 일반 식당에서 요리에 견과류 및 꿀을 첨가하여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중국 내 캐주얼 식품관련 프랜차이즈 점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는 ‘요우바이지아(悠百佳)’가 있음.

3. 프랜차이즈 브랜드 현황

3.1 프랜차이즈 브랜드 별 매출액

- 2015년 중국 내 가장 큰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KFC' 임. 'KFC' 는 약 48.2억 US 달러(약 5.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프랜차이즈 외식산업의 8.9%를 차지함.
-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출액 기준 Top 10에 포함되는 중국 브랜드는 3개 있음. 'Xiao Wei Yang' 은 중국 휘귀 요리를 판매하며, 'chHLS' 은 치킨 전문점, 'Quanjude' 는 북경 오리구이 전문점임.
- 지난 5년간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브랜드는 외식시장 업체 중 '카페/바' 및 '패스트푸드' 에 속하는 브랜드임. 'Starbucks' 는 2010년 2.9억 US 달러(약 3,300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5년 기준 19.6억 US 달러(약 2,3조 원)까지 연평균 47.1%의 성장률을 기록함. 'Pizza Hut' 은 22.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출액이 8.3억 US 달러에서 23.3억 US 달러(약 2.7조 원)까지 성장함.
- 2015년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 1위인 'KFC' 와 2위 'McDonald' s' 의 매출액은 약 2배 차이를 보임.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매출액 기준)]

(단위 : 만 US 달러)

순위	브랜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점유율
1	KFC	448,900	577,380	684,520	586,570	529,640	481,970	1.4%	8.9%
2	McDonald's	174,720	218,630	257,420	295,950	276,420	279,180	9.8%	5.2%
3	Pizza Hut	83,090	105,550	142,050	180,750	215,020	233,410	23.0%	4.3%
4	Starbucks	28,520	41,660	62,530	108,100	148,420	196,390	47.1%	3.6%
5	Dicos	69,150	83,260	112,400	131,990	151,790	147,730	16.4%	2.7%
6	Xiao Wei Yang	50,880	55,390	72,260	75,410	78,570	81,880	10.0%	1.5%
7	UBC Café	53,170	60,090	70,100	73,850	75,300	67,900	5.0%	1.3%
8	cnHLS	36,610	43,400	47,740	52,510	64,860	61,210	10.8%	1.1%
9	Ajisen Ramen	44,140	52,070	51,170	56,250	58,900	56,370	5.0%	1.0%
10	Quanjude	36,050	44,620	48,390	49,210	48,410	48,340	6.0%	0.9%

* 출처 : Euromonitor

3.2 프랜차이즈 브랜드 별 매장 수

- 2015년 중국 내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KFC' 임. 'KFC' 는 약 5천 개의 매장을 보유함.
-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수 기준 Top 10에는 중국 브랜드가 3개가 속해 있음. 'cnHLS' 은 치킨 전문점이며 'Xiao Wei Yang' 및 'Dezhuang' 은 휘귀 전문점임.
- 지난 6년간 매장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Starbucks' 임. 'Starbucks' 는 연평균 37.0%씩 매장 수가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약 2천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음. 'Pizza Hut' 은 연평균 22.9%씩 매장 수를 증가하여 2010년 기준 매장 수가 500 여개에서 2015기준 1,400 여개로 늘어남.
- 중국 본토 치킨 전문점 브랜드인 'cnHLS' 는 시장 확대 전략으로 'KFC' 매장 근처에 신규 점포를 개점하고 있어 두 브랜드 매장 수 격차는 매년 비슷한 수치임.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매장 수 기준)]

(단위 : 개)

순위	브랜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1	KFC	3,244	3,701	4,260	4,563	4,828	4,965	8.9%
2	cnHLS	1,900	2,350	2,703	3,042	3,847	3,721	14.4%
3	Dicos	1,052	1,214	1,713	2,004	2,250	2,300	16.9%
4	McDonald's	1,287	1,464	1,705	1,956	2,142	2,232	11.6%
5	Starbucks	406	496	700	1,140	1,486	1,957	37.0%
6	Pizza Hut	520	626	826	1,060	1,313	1,457	22.9%
7	UBC Café	1,100	1,236	1,474	1,576	1,594	1,415	5.2%
8	Xiao Wei Yang	482	500	600	605	612	628	5.4%
9	Ajisen Ramen	473	622	624	596	630	619	5.5%
10	Dezhuang	481	540	499	523	539	568	3.4%

* 출처 : Euromonitor

제5장

도시 외식산업 분석

1. 도시 외식 공급자 분석
2. 도시 외식 소비자 분석
3. 도시 한식 공급자 분석
4. 도시 한식 소비자 분석

V. 도시 외식 산업 분석

1. 도시 외식 공급자 분석

1.1 빅데이터 분석 결과

[길라잡이] 빅데이터 분석 참고 사항

□ 식당 샘플 수

- 도시별로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가사이트 3~4 곳을 선정하여 해당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모든 외식당 정보를 수집, 정제, 중복 제거를 통해 도출된 식당 수입. 따라서 현지 온라인 평가사이트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식당 수가 실제 수와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존재함.
- 본 조사사업에서는 체계적인 식당 업종 분류를 위해 1차 업태, 2차 에스닉이라는 기준을 수립하고 전체 도시에 적용하였음. 모든 식당을 해당 기준을 적용 및 분류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 중 일부 경우는 샘플 수 n=30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샘플 수가 적은 업태/에스닉의 경우 실제 식당 수가 적거나 혹은 평가사이트 보유 식당 수의 한계 등 여러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해석에 유의가 필요.

□ 등록 리뷰 비율

- 본 조사사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식당 업종별 방문 빈도, 나아가 식당 업종의 인기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 리뷰 건수'를 수집하였음.
- 리뷰 건수 해석 시에 업태/에스닉별 비교를 목적으로 연도별로 수집된 전체 소비자 리뷰 건수 중 각 업태가 차지하는 비중, 업태별로 각 에스닉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인기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함.

□ 외식당/한식당 주요 판매메뉴

- 해당지역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중 외식당/한식당 업종으로 분류된 식당들이 취급하는 메뉴 리스트를 취합한 결과임. 한식당의 경우 실제 현지 한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메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예 치킨 등).

□ 외식당/한식당 내 주요 소비자 추천 메뉴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들의 판매메뉴에 기록된 소비자 추천 건수를 취합한 결과임. 한식당의 경우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한식당의 메뉴 정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식분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외식당/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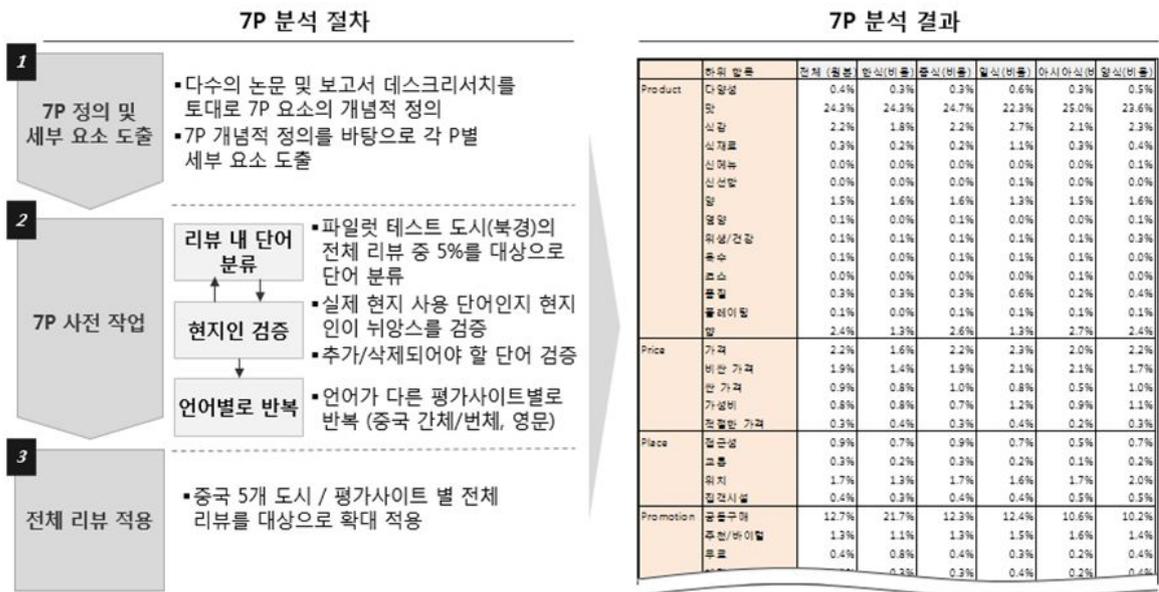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들 중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리뷰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한식당’은 각 평가사이트의 ‘한식’, ‘한국요리’로 분류된 사이트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임.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식당 메뉴키워드 결과는 한식 외에 소비자가 언급한 다양한 에스닉 메뉴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해석이 필요.

□ 추천/판매메뉴 및 메뉴키워드 번역 과정

- 평가사이트 식당 정보란에 등록된 메뉴 정보와 소비자들이 리뷰에서 언급한 메뉴 정보를 중국 현지인이 검수 및 번역하는 과정을 거침. 리뷰 텍스트 특성상, 문맥과 언급 상황이 다양함을 감안할 때 하나의 메뉴명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한글로 번역된 메뉴명은 참고용으로 활용.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7P)

- 7P 프레임을 적용하여 각 세부 마케팅믹스별 개념적 정의 및 세부 요소를 도출하고, 7P 사전 키워드를 작업 후, 전체 리뷰에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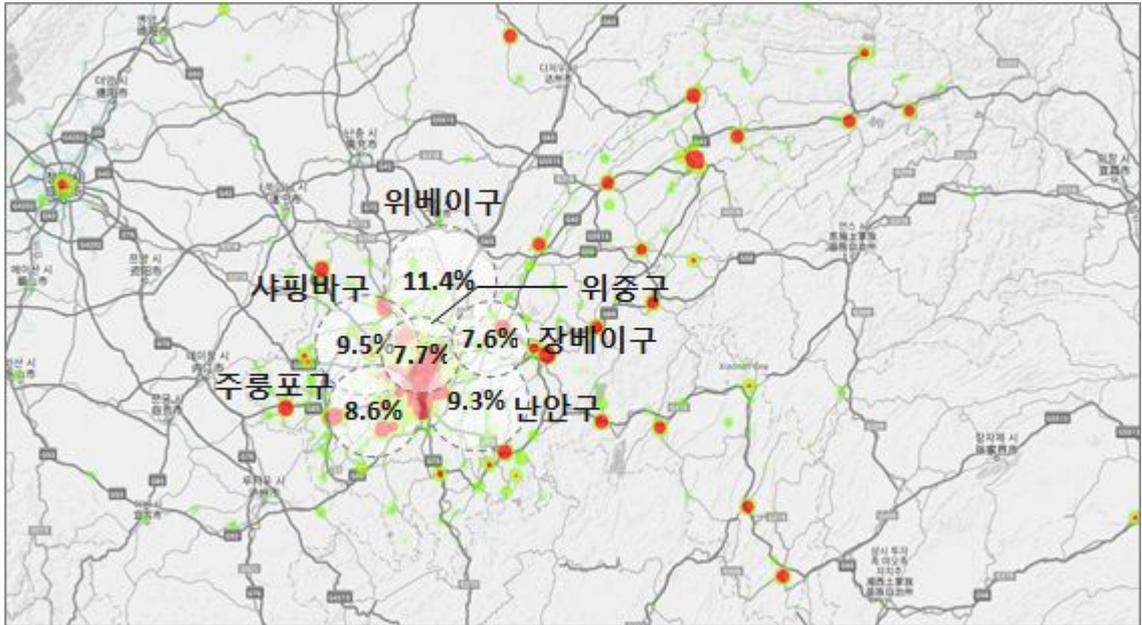
1) 외식당 현황

가) 지역별 외식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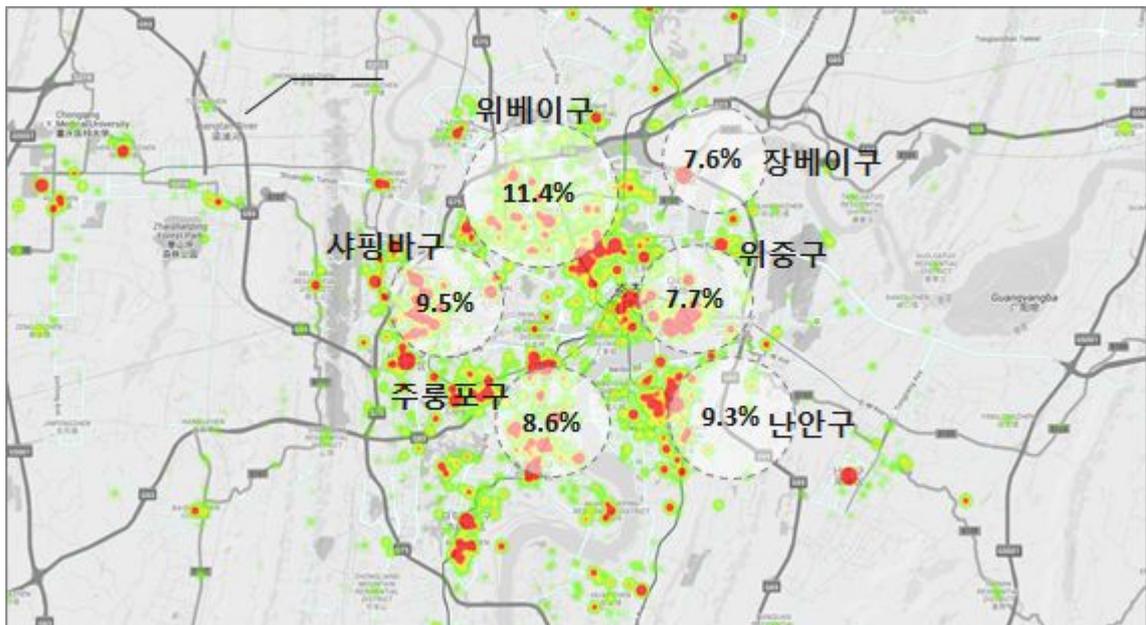
□ 외식당 분포 현황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레스토랑을 크롤링하여 취합한 결과, 충청 도심의 중심 구역에 외식당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임. 중심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위베이구’의 외식당 비율이 1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 외 도심 중심 구역인 ‘샤핑바구’, ‘난안구’의 비율이 각각 9.5%, 9.3%로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고 있음. 그 외 중심구역도 7~8% 비율로 외식당이 분포되고 있음.
- ‘고가 식당’은 중심 구역의 장베이구 ‘와 위중구’에서의 밀집도가 높게 나타남. ‘장베이구’와 ‘위중구’ 내 ‘고가 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2.5%, 11.1%로 타 상권(구)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카페/바’의 비율은 도심 중심 구역이 타 상권(구)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장베이구’의 비율은 19.9%이며, ‘샤핑바구’의 비율은 18.6%임.

[전체 외식당 분포 지도]



[외식당 분포 지도 - 중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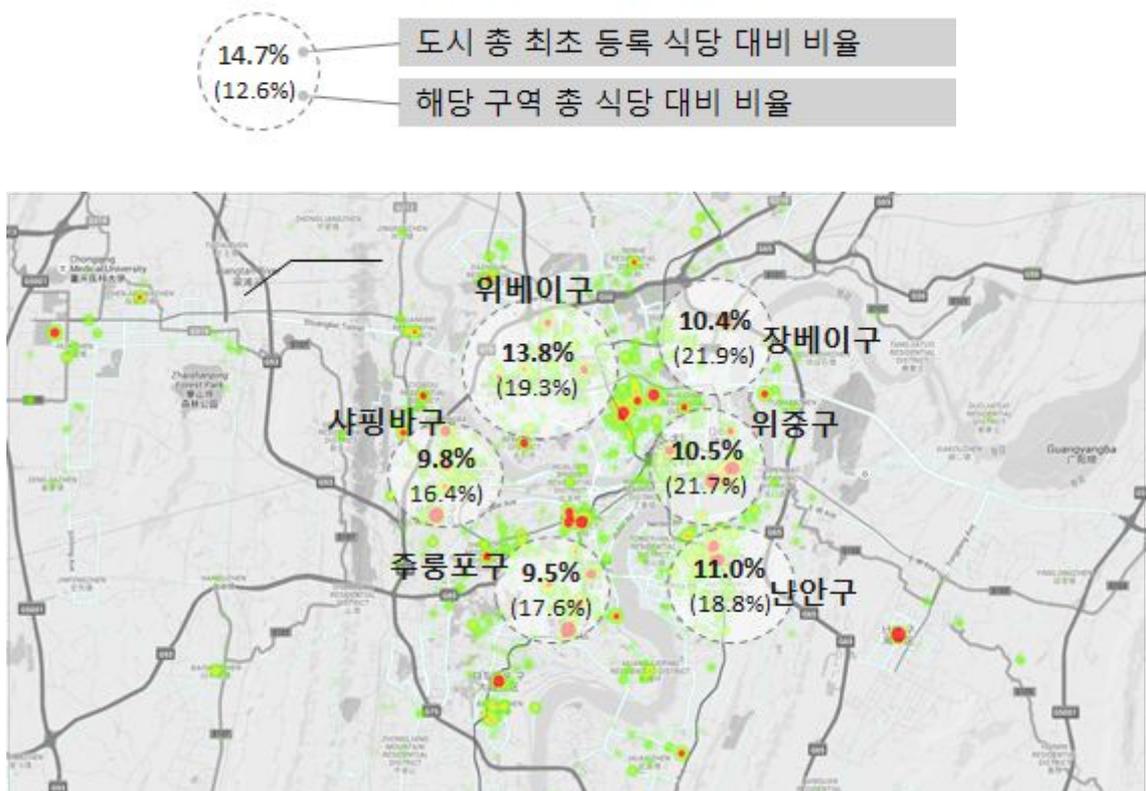
[상권(구)별 외식당 현황]

상권(구)	총 샘플 수	전체	업태별 비율			
			고가 식당	중저가 식당	패스트푸드	카페/바
상권(구)	총 샘플 수	94,941	4,676	47,365	25,145	15,479
徐北区 (위베이구)		11.4%	6.7%	49.7%	25.4%	16.7%
沙坪坝区 (사핑바구)		9.5%	5.9%	43.1%	30.3%	18.6%
南岸区 (난안구)		9.3%	7.7%	53.0%	21.5%	15.6%
九龙坡区 (주룽포구)		8.6%	7.1%	48.8%	26.5%	15.9%
渝中区 (위중구)		7.7%	11.1%	38.3%	29.8%	18.5%
江北区 (장베이구)		7.6%	12.5%	43.1%	22.1%	19.9%
渝北区 (허합구)		5.1%	0.2%	52.1%	30.4%	15.2%
万州区 (완저우구)		5.0%	0.5%	56.8%	25.8%	14.8%
永川区 (영합구)		4.7%	0.6%	54.6%	27.9%	14.9%
涪陵区 (푸링구)		3.7%	0.5%	57.5%	28.8%	11.0%
北碚区 (베이베이구)		2.5%	4.6%	52.2%	24.9%	15.8%
巴南区 (바난구)		2.4%	2.5%	57.7%	19.9%	17.8%
长寿区 (장서우)		2.4%	0.5%	53.8%	26.1%	17.6%
大渡口区 (다두커우구)		2.2%	4.5%	54.6%	24.4%	15.1%
璧山区 (비산구)		2.0%	0.8%	51.5%	31.3%	14.9%
南川区 (난합구)		1.9%	0.3%	57.9%	25.4%	13.3%
荣昌区 (릉창구)		1.7%	0.1%	41.5%	37.6%	19.5%
江津区 (장진구)		1.4%	0.3%	58.1%	20.0%	20.3%
潼南区 (통난구)		1.4%	0.4%	54.0%	25.2%	18.8%
开县 (카이현)		1.2%	0.9%	56.0%	24.7%	16.4%
云阳县 (윈양현)		0.7%	0.2%	55.9%	23.7%	16.5%
武隆县 (우룽현)		0.7%	2.5%	63.5%	25.4%	5.4%
垫江县 (연장현)		0.6%	0.5%	53.9%	27.0%	16.2%
石柱土家族自治县 (소주투가족 자치현)		0.5%	0.2%	56.6%	28.9%	12.3%
丰都县 (펑두현)		0.5%	0.0%	51.5%	30.3%	14.9%
梁平县 (량평현)		0.4%	0.7%	53.2%	28.9%	15.5%
秀山土家族苗族自治县 (슈산투가족묘족 자치현)		0.4%	0.0%	46.9%	37.2%	14.5%
奉节县 (펑제현)		0.4%	0.3%	50.0%	36.2%	12.6%
酉阳土家族苗族自治县 (유양투가족 자치현)		0.3%	0.0%	53.1%	28.9%	15.8%
忠县 (중현)		0.3%	0.0%	45.2%	34.4%	18.2%
彭水苗族土家族自治县 (펑수이묘족투가족 자치현)		0.3%	0.0%	48.2%	31.7%	18.2%
巫山县 (우산현)		0.3%	2.2%	43.4%	30.1%	21.3%
铜梁区 (통량구)		0.1%	0.0%	57.1%	22.6%	19.5%
黔江区 (첸커우현)		0.1%	0.0%	62.6%	22.0%	13.8%
酉溪县 (우시현)		0.1%	0.0%	65.8%	19.3%	14.0%
大足区 (다주구)		0.1%	13.8%	69.0%	4.6%	10.3%
兼江区 (지장구)		0.1%	8.6%	61.7%	13.6%	14.8%
黔江区 (첸장구)		0.0%	2.3%	93.0%	0.0%	4.7%
근교		0.8%	1.1%	42.2%	51.0%	5.6%
기타		1.2%	0.2%	48.6%	8.8%	7.7%

□ 최근 1년 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분포²²⁾

- 도심 중심 구역에서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 충청에서 최근 1년간 최초로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중 13.8%가 중심 구역의 ‘위베이구’에서 발생했음.
- 중심 구역의 동쪽인 ‘장베이구’와 ‘위중구’에서의 비율도 각각 10~1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타 상권(구)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중심 구역의 서쪽인 ‘샤팡바구’와 ‘주룽포구’에서도 각각 9~10% 수준으로 타 상권(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고가 식당’은 주로 ‘위중구’ (10.0%)와 ‘장베이구’ (12.2%)에서의 최근 1년 간 최초 리뷰 등록 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카페/바’는 중심 구역인 ‘위중구’ (19.8%)와 ‘장베이구’ (19.1%), ‘샤팡바구’ (19.4%), 그리고 완저우구 (24.4%), 허촨구 (20.6%)에서 타 상권(구) 대비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분포 지도】



22)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 중 최근 1년('15. 4.~'16. 4.) 내에 리뷰가 최초로 등록된 식당만 별도 분석, 최초리뷰 등록 시점과 창업시점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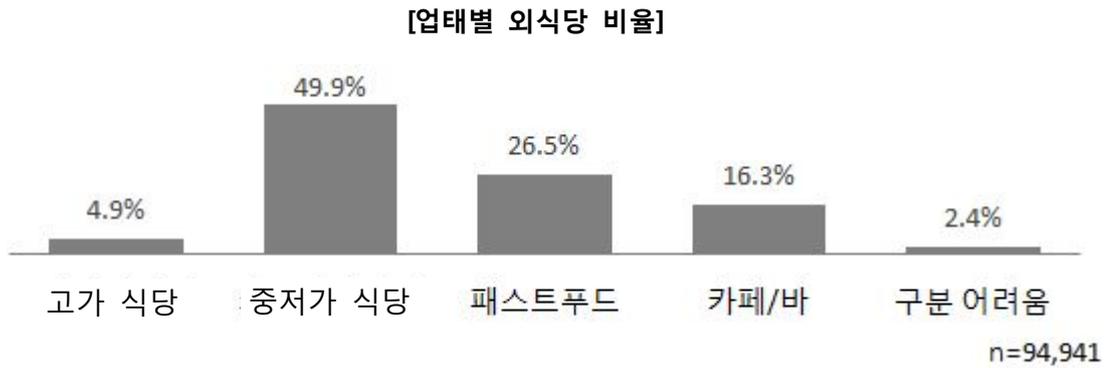
[상권(구)별 최초 리뷰 등록 외식당 비율]

상권(구)	총 식당 샘플 수	최근 1년 최초 리뷰 등록 식당 샘플 수	해당 구역 총 식당 샘플 수 대비 비율	도시 총 최초 리뷰 등록 식당 대비 비율	업태별 비율			
					고가 식당	중저가 식당	패스트 푸드	카페/바
총 샘플 수	94,941	15,103	15.9%	100.0%	784	7,487	3,948	2,455
渝北区(위베이구)	10,792	2,088	19.3%	13.8%	6.9%	53.2%	26.3%	11.2%
沙坪坝区(사핑바구)	9,062	1,486	16.4%	9.8%	4.3%	43.4%	29.8%	19.4%
南岸区(난안구)	8,854	1,667	18.8%	11.0%	5.3%	50.7%	26.5%	14.4%
九龙坡区(주룽포구)	8,193	1,440	17.6%	9.5%	4.8%	51.7%	28.3%	13.1%
渝中区(위중구)	7,289	1,583	21.7%	10.5%	10.0%	33.6%	33.8%	19.8%
江北区(장베이구)	7,171	1,567	21.9%	10.4%	12.2%	42.4%	24.0%	19.1%
合川区(허촨구)	4,827	698	14.5%	4.6%	0.3%	53.6%	23.6%	20.6%
万州区(완저우구)	4,768	537	11.3%	3.6%	0.4%	51.4%	21.8%	24.4%
永川区(영촨구)	4,481	586	13.1%	3.9%	0.9%	58.9%	21.0%	17.1%
涪陵区(후링구)	3,550	454	12.8%	3.0%	0.2%	55.3%	25.8%	15.9%
北碚区(베이베이구)	2,343	494	21.1%	3.3%	4.5%	49.4%	23.3%	18.8%
巴南区(바남구)	2,275	407	17.9%	2.7%	3.4%	64.6%	16.5%	13.5%
长寿区(장서우)	2,275	269	11.8%	1.8%	0.7%	59.5%	22.7%	13.8%
大渡口区(다두커우구)	2,108	331	15.7%	2.2%	2.7%	54.1%	30.5%	11.5%
璧山区(비산구)	1,942	154	7.9%	1.0%	1.3%	54.5%	22.1%	17.5%
南川区(난촨구)	1,797	149	8.3%	1.0%	0.7%	55.7%	24.8%	14.8%
潼南区(통남구)	1,661	88	5.3%	0.6%	0.0%	48.9%	28.4%	17.0%
江津区(장진구)	1,376	158	11.5%	1.0%	1.3%	65.8%	18.4%	12.0%
潼南区(통남구)	1,365	113	8.3%	0.7%	0.0%	62.8%	17.7%	15.9%
开县(카이현)	1,169	83	7.1%	0.5%	0.0%	55.4%	25.3%	15.7%
云阳县(윈양현)	655	54	8.2%	0.4%	0.0%	66.7%	22.2%	5.6%
忠县(중현)	633	121	19.1%	0.8%	4.1%	66.1%	17.4%	7.4%
垫江县(단장현)	599	72	12.0%	0.5%	0.0%	43.1%	23.6%	30.6%
石柱土家族自治县(스주 슈주현)	440	44	10.0%	0.3%	0.0%	54.5%	22.7%	15.9%
丰都县(펑두현)	429	61	14.2%	0.4%	0.0%	54.1%	26.2%	9.8%
梁平县(량핑현)	425	68	16.0%	0.5%	1.5%	44.1%	32.4%	17.6%
秀山土家族自治县(쇼산 쇼산현)	422	23	5.5%	0.2%	0.0%	47.8%	30.4%	13.0%
奉节县(펑제현)	398	44	11.1%	0.3%	0.0%	47.7%	25.0%	25.0%
酉阳土家族自治县(유양 유양현)	322	29	9.0%	0.2%	0.0%	62.1%	27.6%	6.9%
忠县(중현)	314	37	11.8%	0.2%	0.0%	48.6%	29.7%	13.5%
彭水苗族土家族自治县(펑수 펑수현)	303	29	9.6%	0.2%	0.0%	55.2%	13.8%	20.7%
巫山县(우산현)	272	21	7.7%	0.1%	0.0%	61.9%	19.0%	19.0%
铜梁区(통량구)	133	27	20.3%	0.2%	0.0%	59.3%	29.6%	11.1%
垫江县(단장현)	123	17	13.8%	0.1%	0.0%	64.7%	17.6%	11.8%
岳池县(우시현)	114	14	12.3%	0.1%	0.0%	64.3%	21.4%	14.3%
大足区(다주구)	87	20	23.0%	0.1%	5.0%	70.0%	5.0%	15.0%
兼江区(찬장구)	81	12	14.8%	0.1%	0.0%	66.7%	0.0%	25.0%
黔江区(첸장구)	43	6	14.0%	0.0%	0.0%	83.3%	0.0%	16.7%
근교	753	9	1.2%	0.1%	0.0%	66.7%	11.1%	22.2%
기타	1,097	43	3.9%	0.3%	2.3%	48.8%	9.3%	2.3%

나) 업태별 외식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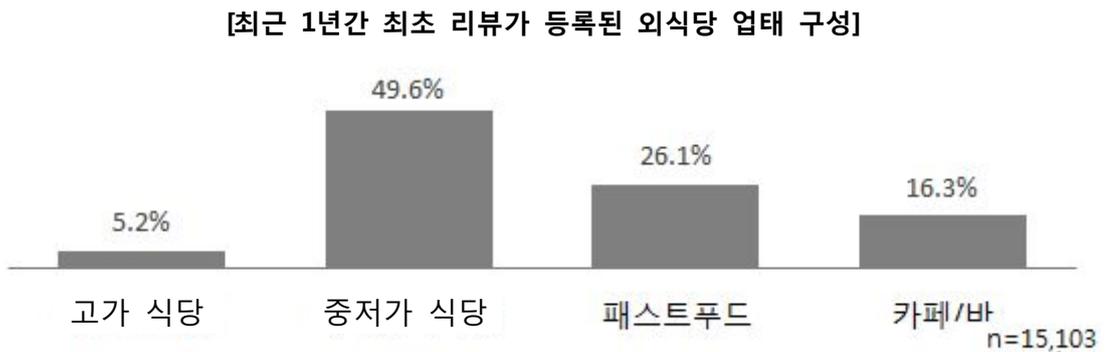
□ 업태별 외식당 구성

- 충청의 외식당 중에서 ‘중저가 식당’ 이 차지하는 비율은 49.9%이며, 전체 업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패스트푸드’ 의 외식당 분포 비율은 26.5%이며, ‘카페/바’ 의 비율은 16.3%임.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업태 구성²³⁾

- 최근 1년 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중 ‘중저가 식당’ 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패스트푸드’ 의 최근 1년 간 최초 리뷰 등록 비율이 26.1%, ‘카페/바’ 의 창업 식당 비율이 1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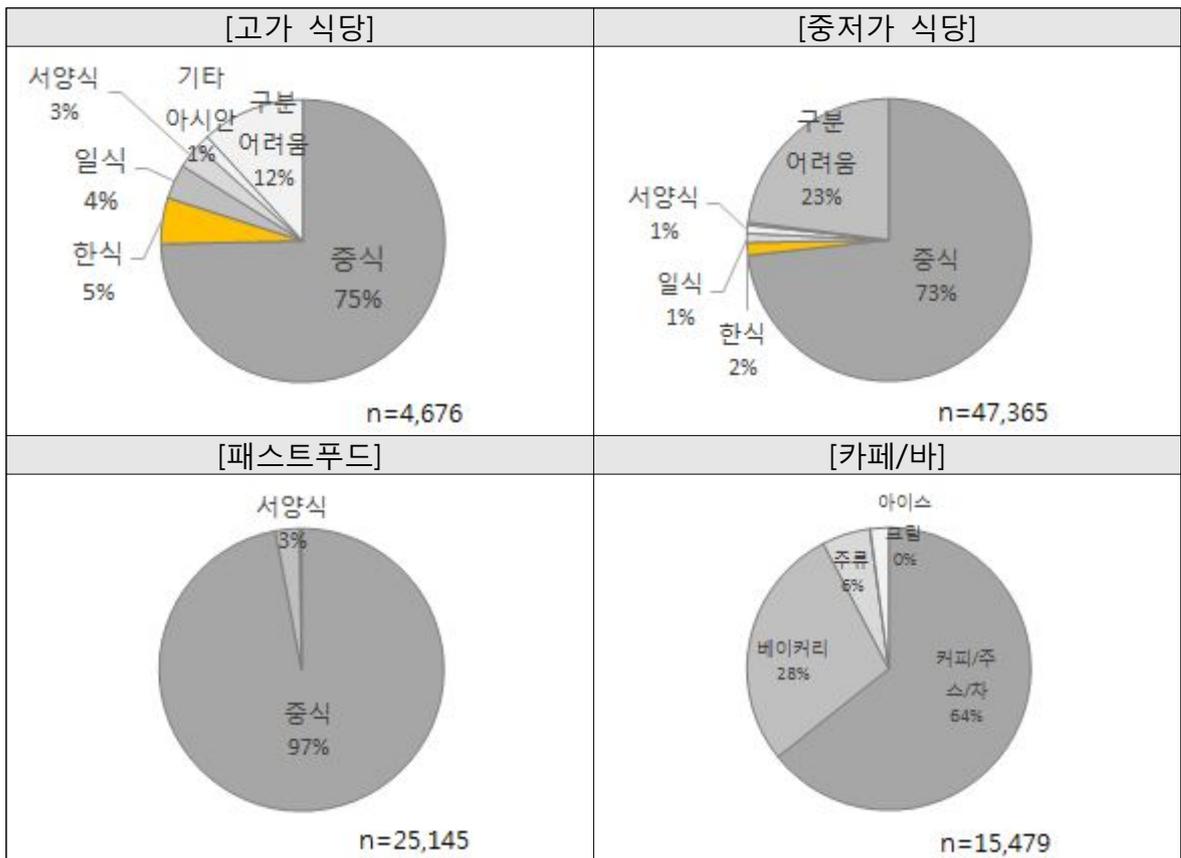
23)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 중 최근 1년('15. 4.~'16. 4.) 내에 리뷰가 최초로 등록된 식당만 별도 분석, 최초리뷰 등록 시점과 창업시점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다) 업체 내 에스닉별 외식당 현황

□ 업체 내 에스닉별 외식당 구성

- ‘고가 식당’ 의 75%가 ‘중식’ 식당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한식’ 식당의 구성비는 5%이며, ‘일식’ 식당의 구성비는 4%임.
- ‘중저가 식당’ 중에 ‘중식’ 식당의 비율이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식’ 식당의 비율은 2%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패스트푸드’ 의 97%가 ‘중식’ 식당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에스닉 식당 중에 ‘서양식’ 식당의 비율이 3%를 차지하고 있음.
- ‘카페/바’ 중에 ‘커피/주스/차’ 업종의 비율은 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베이커리’ 의 비율이 28%를 차지하며, 그 외 ‘주류’ 나 ‘아이스크림’ 업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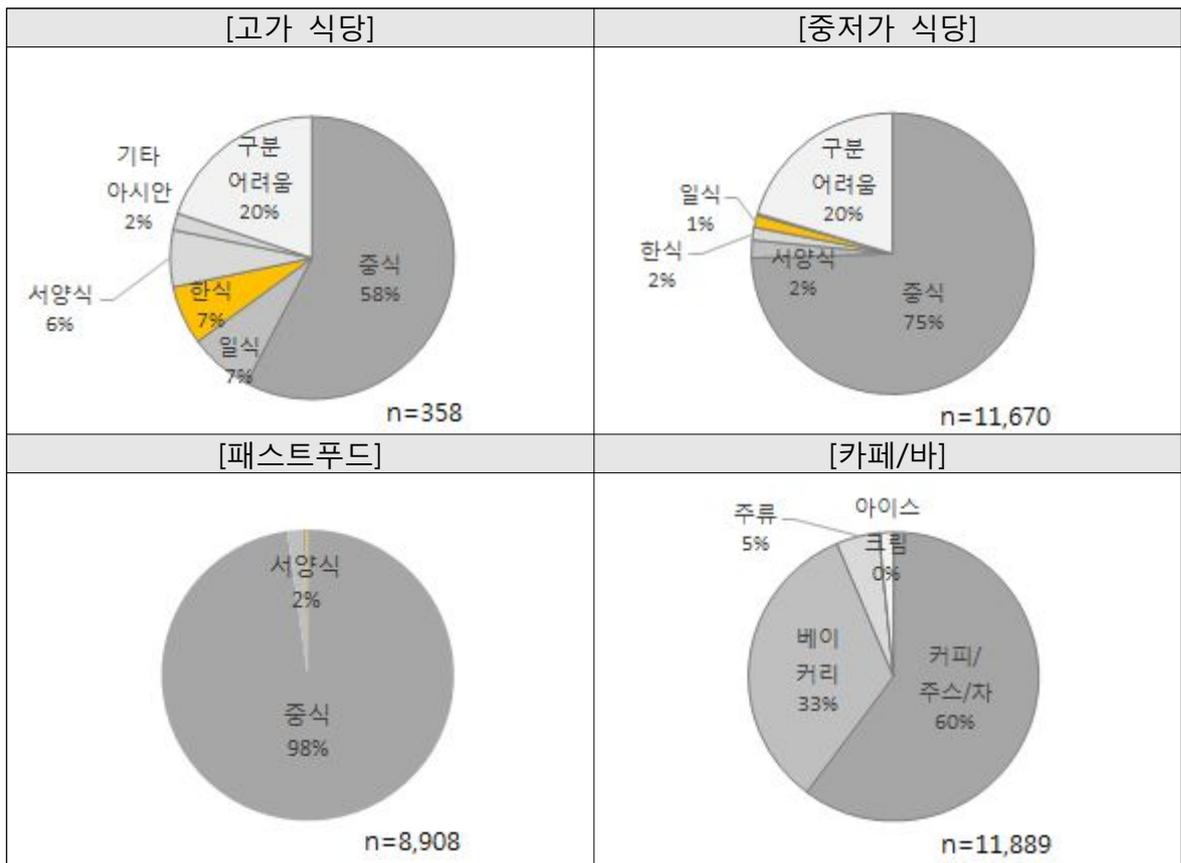
[업체 내 에스닉별 외식당 구성]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에스닉 구성²⁴⁾

- 최근 1년 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중 ‘고가 식당’ 의 58%가 ‘중식’ 식당이며, 전체 에스닉 식당 중에 가장 높은 비율임. 또한 ‘한식’ 식당의 비율은 7%로 ‘일식’ 식당의 비율과 동일함. ‘서양식’ 식당의 비율은 6%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분이 어려운’ 식당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 ‘중저가 식당’ 은 ‘중식’ 식당의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비율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식(2%)’, ‘일식(1%)’ 등의 현지 외 ‘아시아’ 식당은 상대적으로 식당 수가 적은 경향이 있음.
- ‘패스트푸드’ 는 ‘중식’ 식당의 최근 1년간 최초 리뷰 등록 비율이 9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커피/주스/차’ 업종의 최근 1년간 최초 리뷰 등록 비율이 60%이며, ‘베이커리’ 는 33%를 차지하고 있음. 대부분 디저트 업종에서 높은 경향이 있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에스닉 구성]



24)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 중 최근 1년('15. 4.~'16. 4.) 내에 리뷰가 최초로 등록된 식당만 별도 분석, 최초리뷰 등록 시점과 창업시점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2) 현지 외식당 주요 판매메뉴

가) 업체별 주요 판매메뉴²⁵⁾²⁶⁾

□ 고가 식당

- ‘고가 식당’에서는 ‘천엽’ (59.6위안), ‘오리창자’ (18.2위안) 등의 동물내장류와 ‘스테이크’ (119.8위안) 등의 서양식 메뉴가 많이 판매되고 있음.

[주요 판매메뉴 - 고가 식당]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판매식당수
1	毛肚	천엽	59.6	300
2	鸭肠	오리창자	18.2	245
3	烤牛排	스테이크	119.8	159
4	麻辣牛肉	마라우육	26.1	155
5	鹅肠	거위창자	23.3	149
6	酥肉	탕수육	28.8	149
7	老肉片	돼지고기 얇은 조각	17.4	138
8	烤牛肉	소고기구이	24.2	132
9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28.3	126
10	烤鱼	대구	27.7	120

□ 중저가 식당

- ‘중저가 식당’에서는 ‘천엽’ (33.8위안), ‘오리창자’ (16.7위안), ‘소고기구이’ (26.2위안), ‘마라우육’ (16.6위안) 등의 메뉴가 많이 판매되고 있음.

[주요 판매메뉴 - 중저가 식당]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판매식당수
1	毛肚	천엽	33.8	461
2	鸭肠	오리창자	16.7	350
3	烤牛肉	소고기구이	26.2	272
4	麻辣牛肉	마라우육	16.6	254
5	鹅肠	거위창자	22.8	195
6	酥肉	탕수육	14.2	186
7	老肉片	돼지고기 얇은 조각	11.4	166
8	嫩牛肉	연한 소고기	20.5	163
9	现炸酥肉	씨에짜수로우	11.8	149
10	烤鱼	생선구이	42.6	143

25) 전체 식당 중 메뉴 정보가 존재하는 식당 데이터만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하 동일

26) 많이 판매하는 메뉴(판매식당 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판매식당 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이하 동일

□ 패스트푸드

- ‘패스트푸드’에서는 ‘쇠고기면’ (14.7위안), ‘소면’ (5.6위안), ‘완두고기면’ (10.7위안) 등의 국수/면 메뉴가 많이 판매되고 있음.

[주요 판매메뉴 - 패스트푸드]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판매식당수
1	牛肉面	쇠고기 면	14.7	294
2	小面	소면	5.6	217
3	豌豆面	완두고기면	10.7	120
4	酸辣粉	새콤매콤당면	7.1	108
5	杂酱面	자장면	8.6	98
6	抄手	완탕	9.8	86
7	凉糕	랑고	4.7	67
8	酸菜米线	양고기쌀국수	7.9	64
9	肥肠面	대창면	12.8	60
10	酸菜肉丝米线	돼지고기국수	9.7	54

□ 카페/바

- ‘카페/바’에서는 ‘티라미수케이크’ (69.6위안), ‘카페라떼’ (29.4위안), ‘카푸치노’ (29.1위안) 등의 메뉴가 많이 판매되고 있음.

[주요 판매메뉴 - 카페/바]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판매식당수
1	提拉米苏	티라미수케이크	69.6	111
2	拿铁	카페라떼	29.4	89
3	卡布奇诺	카푸치노	29.1	84
4	芝士蛋糕	치즈케이크	23.0	72
5	摩卡	카페모카	31.4	68
6	焦糖玛奇朵	카라멜 마끼아또	31.3	66
7	蛋挞	에그타르트	7.2	66
8	杨枝甘露	망고푸딩	23.7	63
9	咖啡	커피	25.3	61
10	美式咖啡	아메리카노	23.8	55

3) 외식당 가격대 분포²⁷⁾

가) 전체 외식당 가격대 분포

- 충청 외식당의 가격대는 평균 ‘50.2위안’ 으로 파악됨.
- 가격대가 ‘20~60위안’ 인 외식당이 타 가격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위안’ 을 기준으로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그 분포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외식당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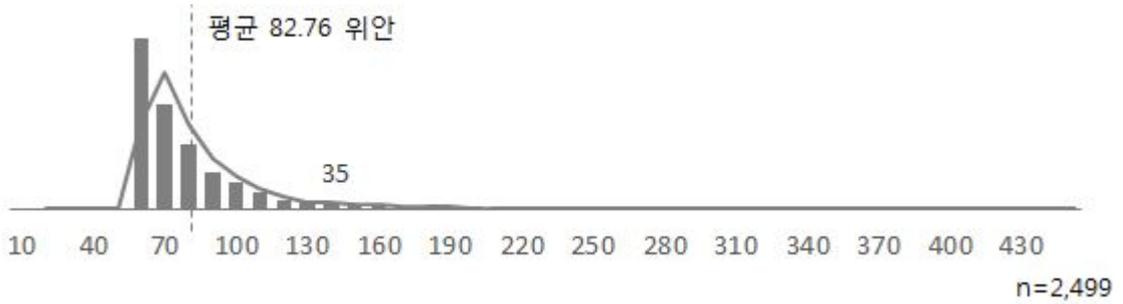


나) 업태별 외식당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의 평균 가격대는 ‘82.8위안’ 이며, 가격대는 주로 ‘60~70위안’ 의 가격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음.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 의 평균 가격대는 ‘38.2위안’ 임. 주로 ‘20~50위안’ 의 가격대에서 분포를 나타내며, 그 중 ‘40~50위안’ 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
- ‘패스트푸드’ 의 평균 가격대는 ‘33.8위안’ 이며, ‘10~40위안’ 의 가격대에 주로 분포되고 있음. 가장 많은 외식당이 분포된 가격대는 ‘10~20위안’ 사이로 파악됨.
- ‘카페/바’ 의 평균 가격대는 ‘19.6위안’ 이며, ‘10~20위안’ 의 가격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

27) 전체 식당 데이터 중 가격 정보가 존재하는 식당 데이터만 사용되었으며, 실제 가격대 분포는 이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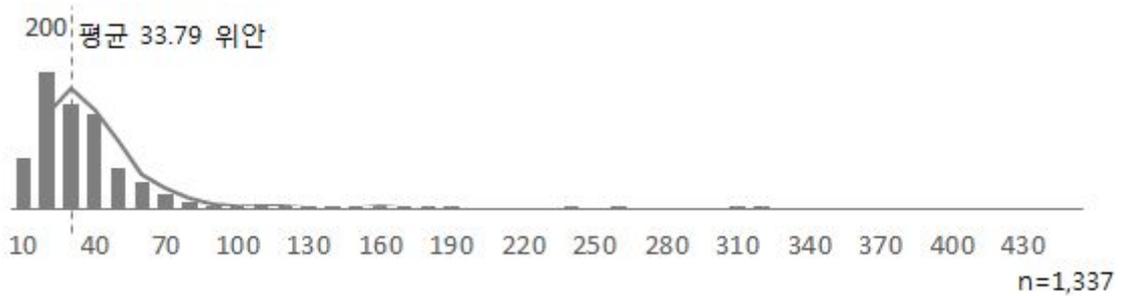
[외식당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외식당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



[외식당 가격대 분포 - 패스트푸드]



[외식당 가격대 분포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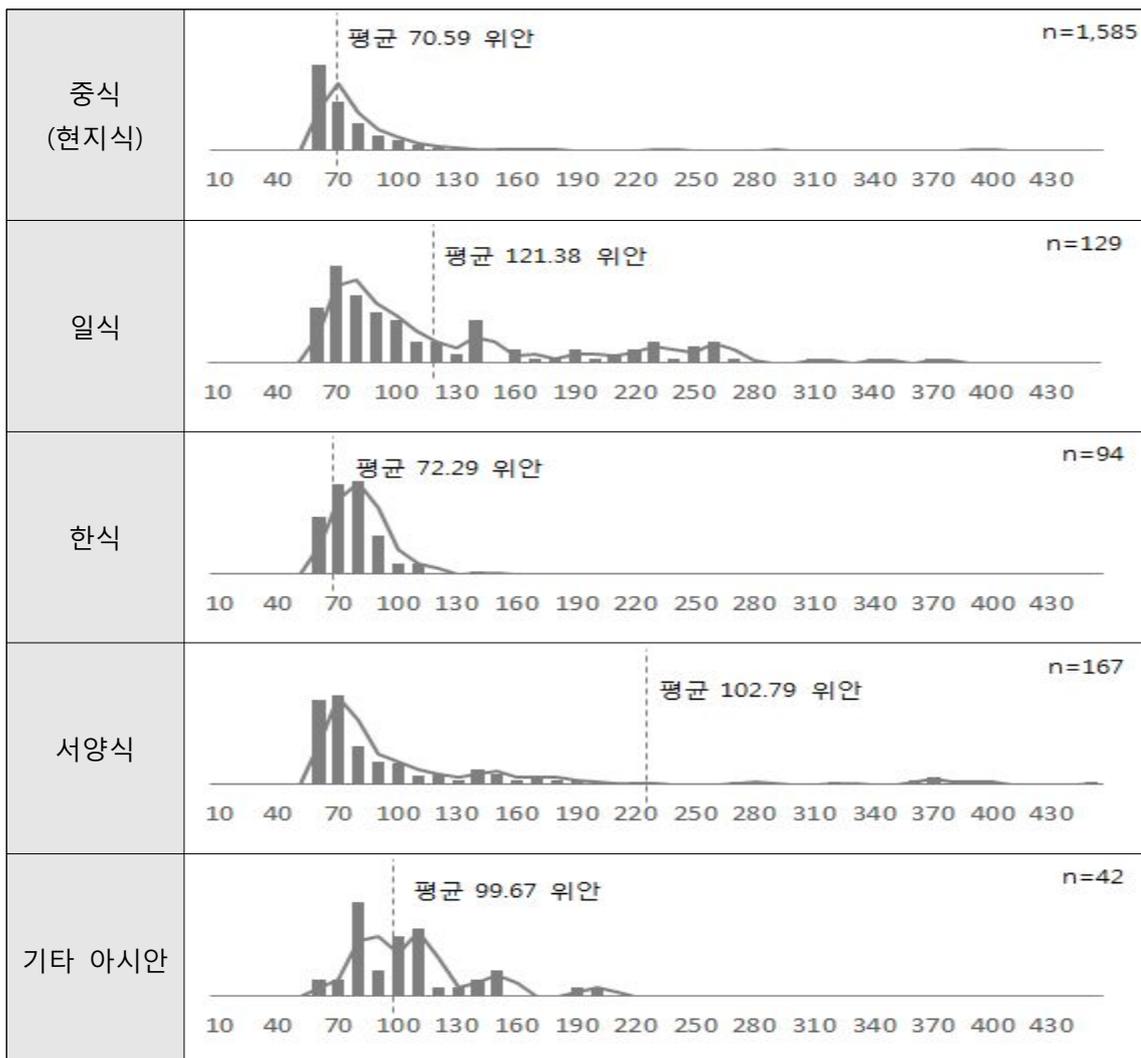


다) 업체 내 에스닉별 외식당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 ‘중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70.6위안’ 으로 전체 에스닉 식당 중 가장 높음. ‘50~70위안’ 의 가격대에 집중적으로 식당이 분포되고 있음.
- ‘일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121.4위안’ 이며, 타 에스닉 대비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 ‘일식’ 식당은 ‘50~100위안’ 가격대에서 집중적으로 식당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72.3위안’ 으로 타 에스닉 식당 대비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한식’ 식당은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분포해 있으며, 가장 집중되는 가격대는 ‘70~80위안’ 임.
- 그 밖에 ‘서양식’ 식당과 ‘기타 아시아’ 식당의 경우 각각 평균 가격대가 ‘102.8위안’ , ‘99.7위안’ 으로 ‘한식’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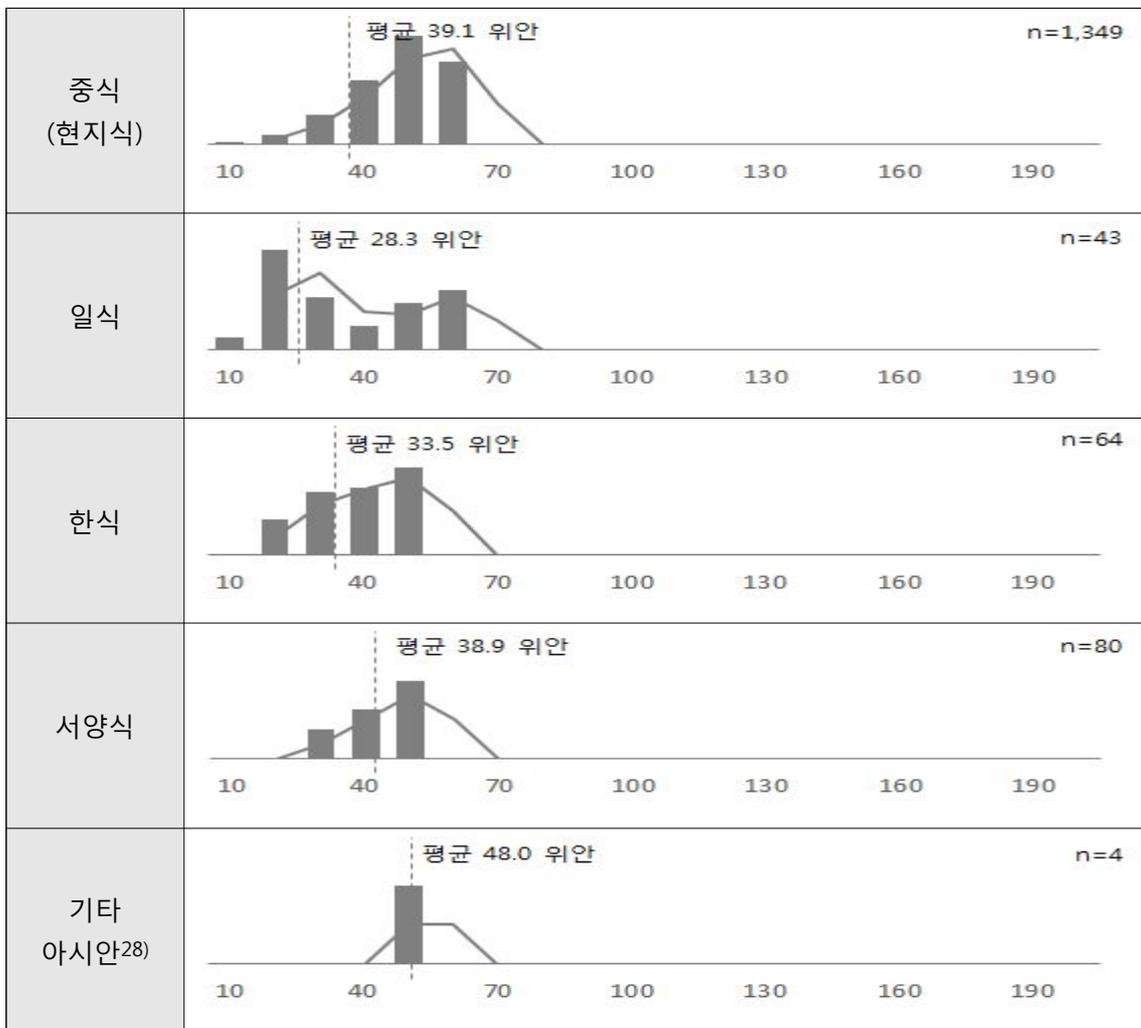
[가격대 분포 및 평균 - 고가 식당]



□ 중저가 식당

- ‘중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39.1위안’이며, 주로 ‘40~60위안’의 가격대에 식당이 분포하고 있음.
- ‘일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28.3위안’으로 전체 에스닉 식당 중 가격대가 낮은 편에 속함. 주로 ‘10~30위안’의 가격대에 많은 식당이 분포하고 있음.
- ‘한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33.5위안’으로 ‘중식’ 식당보다 다소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20~50위안’의 가격대에 고르게 식당이 분포하고 있음.
- ‘서양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38.9위안’으로 ‘중식’ 식당보다 다소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주로 ‘30~50위안’의 가격대에 많은 식당이 분포하고 있음.
- ‘기타 아시안’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48.0위안’이며, 전체 에스닉 식당 중 고 가격군을 형성하고 있음.

[가격대 분포 및 평균 - 중저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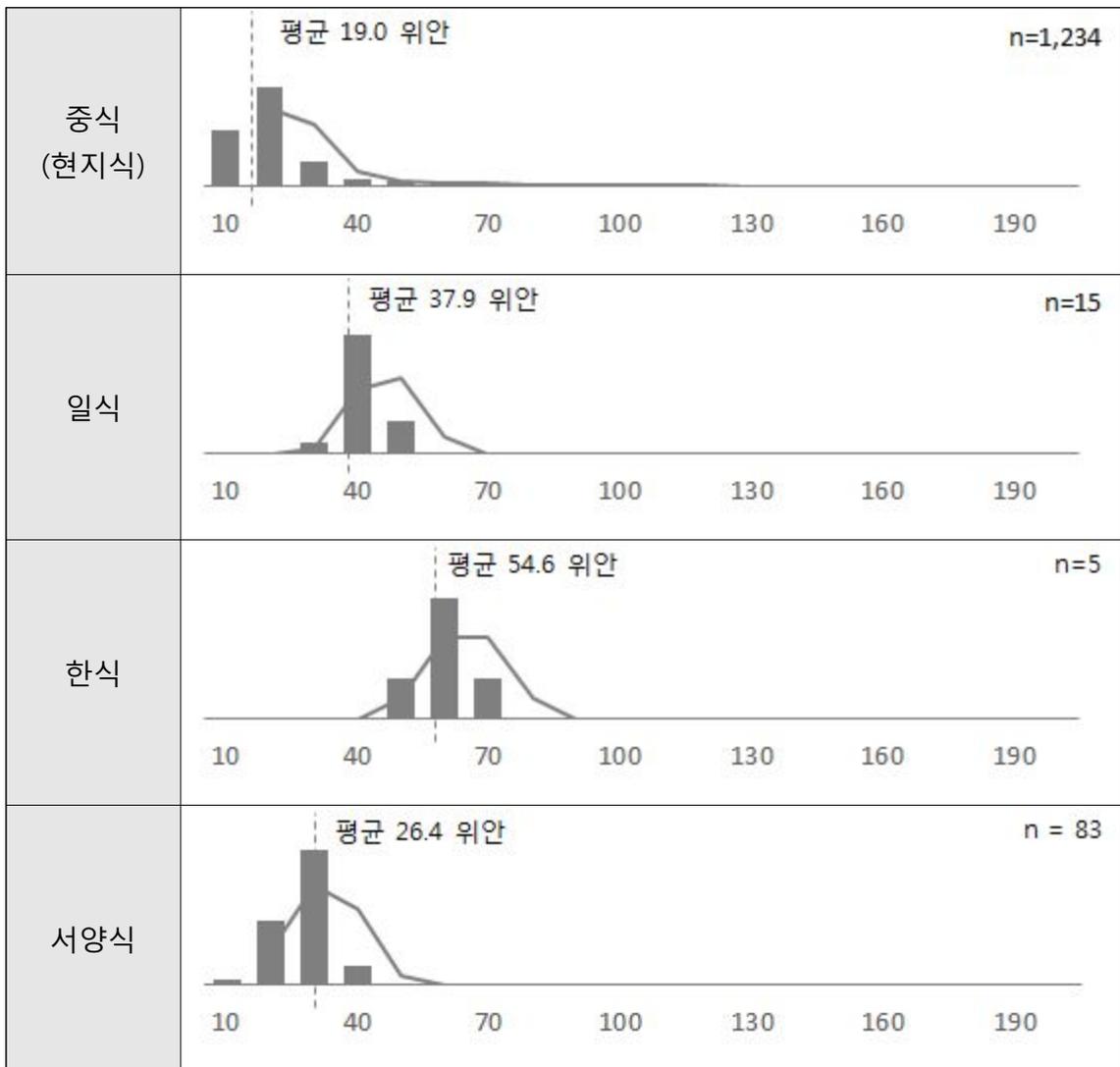


28)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 패스트푸드

- ‘중식’ 식당은 가장 낮은 가격대인 ‘19.0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음. 주로 ‘10~20 위안’ 의 가격대에 가장 많은 식당이 분포되고 있음.
- ‘일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37.9위안’ 이며, ‘30~40위안’ 의 가격대에 다수의 식당이 분포하고 있음.
- ‘한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54.6위안’ 으로 전체 에스닉 식당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형성됨. 주로 ‘50~60위안’ 의 가격대에 많은 식당이 분포하고 있음.
- ‘서양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26.4위안’ 으로 ‘중식’ 식당의 가격대보다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함. 주로 ‘20~30위안’ 의 가격대에 많은 식당이 분포하고 있음.

[가격대 분포 및 평균 - 패스트푸드]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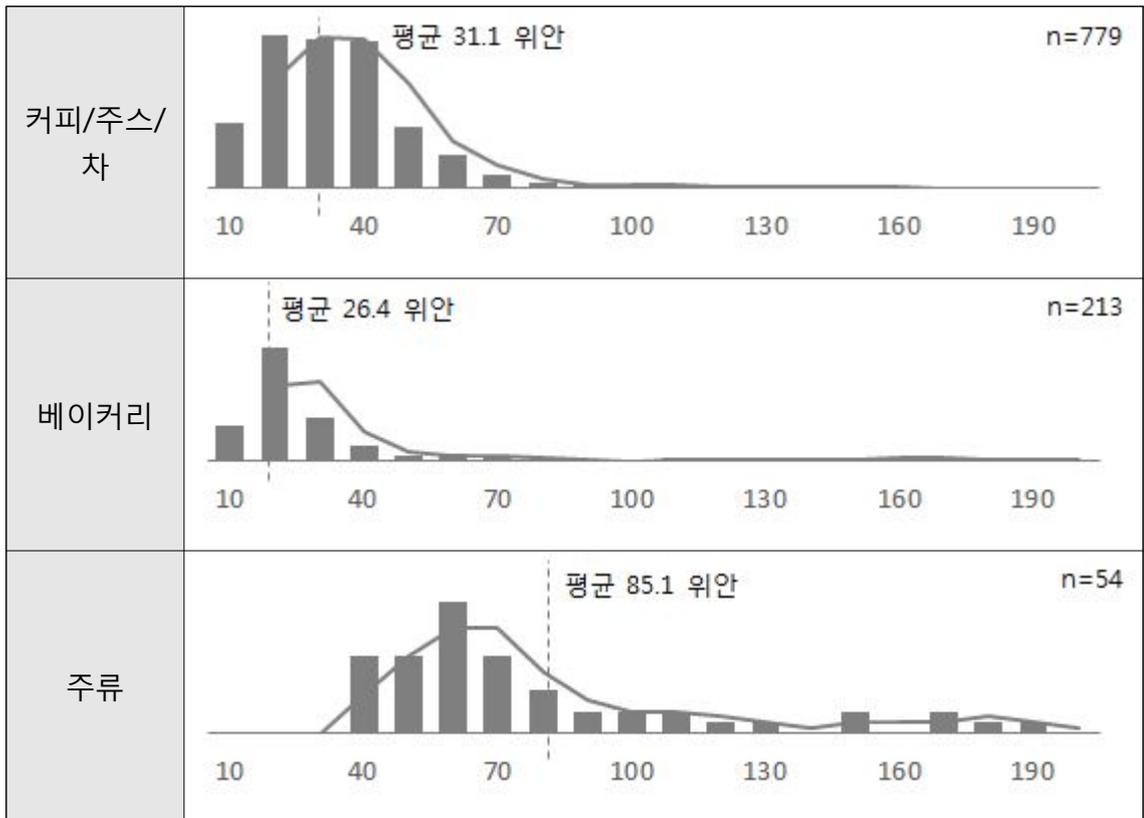


29) 중식을 제외한 나머지 에스닉은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 카페/바

- ‘카페/바’ 중에 ‘커피/주스/차’ 업종의 평균 가격대는 ‘31.1위안’ 이며, 주로 ‘10~40위안’ 의 가격대에 가장 많은 식당이 분포하고 있음.
- ‘베이커리’ 업종의 평균 가격대는 ‘26.4위안’ 이며, ‘10~20위안’ 의 가격대에 가장 많은 식당이 분포하고 있음.
- ‘주류’ 업종의 경우, 주로 ‘40~70위안’ 의 가격대에서 식당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대는 ‘85.1위안’ 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형성됨.

[가격대 분포 및 평균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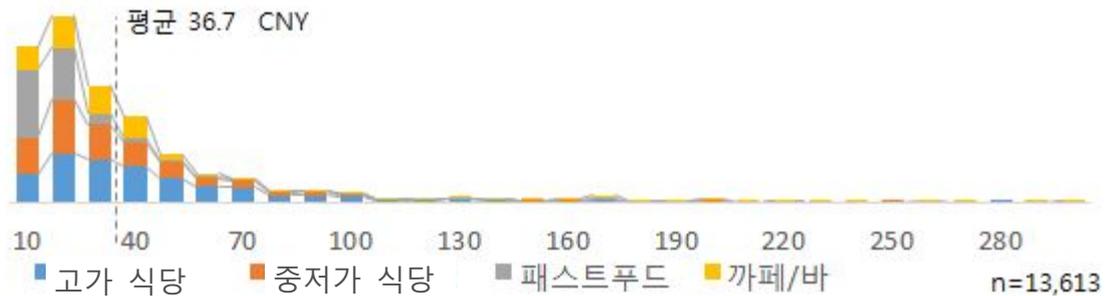


가) 전체 식당 등록메뉴 가격대 분포

가) 전체 메뉴 가격대 분포

- 충청 외식당의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36.7위안’ 으로 형성됨. 주로 ‘10~4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고 있음. 그 중 식당 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가격대는 ‘10~20위안’ 으로 파악됨.

[전체 식당 등록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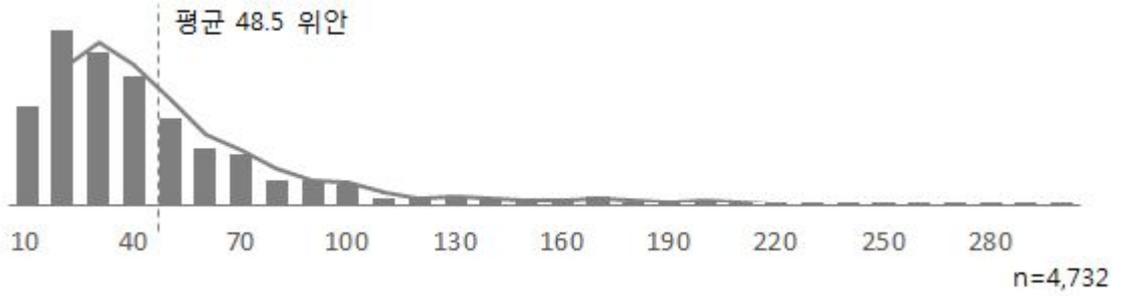


나) 업태 내 메뉴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 ‘고가 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48.5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20~40위안’ 의 가격대에 많은 메뉴가 분포하고 있으며, ‘20위안’ 이상 가격대를 정점으로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식당 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존재함.
- 충청 소비자들이 주로 먹는 ‘천엽’의 평균 가격은 ‘59.6위안’ 이며, ‘20~40위안’ 의 가격대에 식당이 다수 분포되고 있음.
- ‘스테이크’의 평균 가격은 ‘119.8위안’ 으로 형성됨. 이 메뉴는 주로 ‘40~100위안’ 의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
- ‘마라우육’의 평균 가격은 ‘26.1위안’ 이며, 이 메뉴는 주로 ‘20~40위안’ 의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임.

[메뉴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주요 메뉴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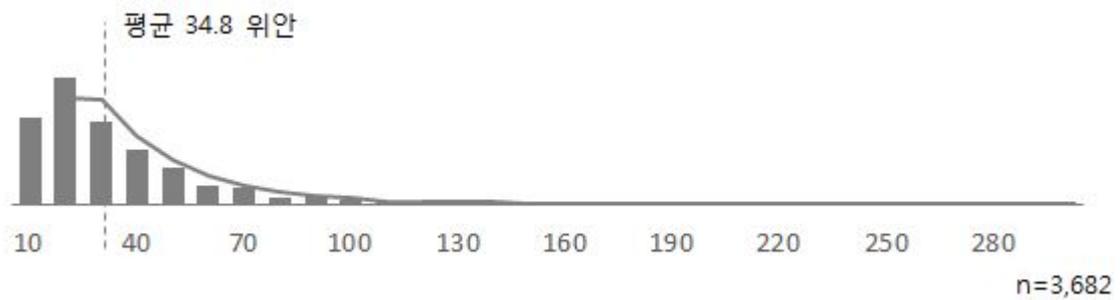
천엽	<p>평균 59.6 위안</p> <p>n=25</p>
오리창자	<p>평균 18.2 위안</p> <p>n=13</p>
스테이크	<p>평균 119.8 위안</p> <p>n=23</p>
마라우육	<p>평균 26.1 위안</p> <p>n=15</p>

30)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 중저가 식당

- ‘중저가 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34.8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음. 주로 ‘10~4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메뉴가 분포하고 있음.
- 충청 소비자들이 주로 먹는 ‘천엽’ 의 평균 가격은 ‘33.8위안’ 이며, 주로 ‘0~40 위안’ 의 가격대에 많은 분포를 보임.
- ‘오리창자’ 의 평균 가격은 ‘16.7위안’ 으로 형성됨. 이 메뉴는 주로 ‘0~20위안’ 의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
- ‘소고기구이’ 의 평균 가격은 ‘26.2위안’ 이며, 이 메뉴는 주로 ‘0~40위안’ 의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 ‘마라우육’ 은 주로 ‘0~40위안’ 의 가격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이 ‘26.2위안’ 으로 파악됨.

[메뉴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



[주요 메뉴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³¹⁾

천엽	
오리창자	
소고기구이	
마라우육	

31)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 패스트푸드

- ‘패스트푸드’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16.9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0~20위안’ 의 가격대에 많은 메뉴가 분포하고 있음.
- 충청 소비자가 주로 먹는 메뉴는 ‘쇠고기 면’, ‘소면’, ‘완두고기 면’, ‘새콤달콤 당면’ 이며, 이 메뉴들은 대부분 ‘0~20위안’ 의 저렴한 가격대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

[메뉴 가격대 분포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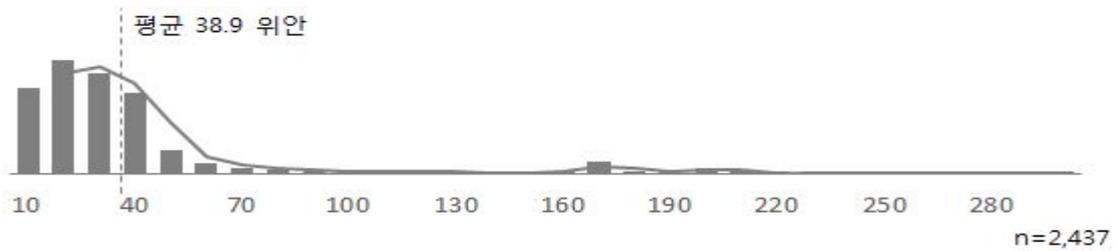
[주요 메뉴 가격대 분포 - 패스트푸드]

쇠고기 면	79	평균 14.7 위안							n=87
	10	30	50	70	90	110	130	150	
소면	60	평균 5.6 위안							n=60
	10	30	50	70	90	110	130	150	
완두고기 면	43	평균 10.7 위안							n=44
	10	30	50	70	90	110	130	150	
새콤매콤 당면	36	평균 7.1 위안							n=36
	10	30	50	70	90	110	130	150	

□ 카페/바

- ‘카페/바’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38.9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10~40위안’ 의 가격대에 많은 메뉴가 분포하고 있음.
- 충청 소비자가 주로 먹는 메뉴인 ‘카페라테’, ‘카푸치노’ 등의 커피류와 ‘망고 푸딩’, ‘치즈케이크’ 등의 메뉴들은 대부분 ‘20~40위안’ 의 가격대에서 다수 분포되고 있음.

[메뉴 가격대 분포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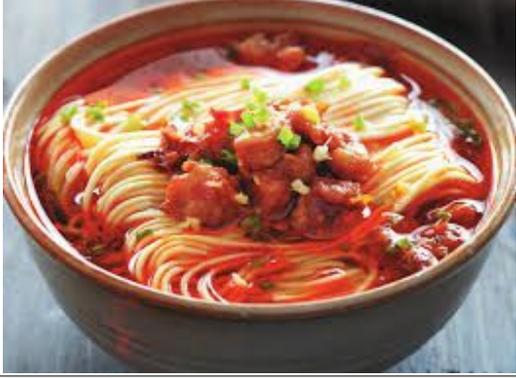
[주요 메뉴 가격대 분포 - 카페/바]³²⁾

망고푸딩	<p>평균 23.7 위안 n=17</p>
카페라떼	<p>평균 29.4 위안 n=26</p>
카푸치노	<p>평균 29.1 위안 n=26</p>
치즈케이크	<p>평균 23.0 위안 n=8</p>

32)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참고] 메뉴 설명

메뉴 사진	메뉴명(원문)	메뉴 설명
	<p>궁보기정 (宮保雞丁)</p>	<p>닭고기와 캐슈넛, 고추 등을 넣고 만든 대표적인 사천식 요리로 중국에선 궁바오지딩(宮保雞丁, Gōngbǎo jīdīng), 미국 등에선 썬파오 치킨(Kung Pao Chicken)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p>
	<p>마라탕 (麻辣燙)</p>	<p>마라탕은 사천식 샤브샤브로 다양한 재료를 넣어 취식함. 길거리 노점에서는 손님이 다시마, 감자, 메추리알, 등 재료를 선택하면 노점상이 직접 큰 가마의 국물에 데쳐 소스를 발라줌. 샤브샤브와 다른 점이라면 손님이 주문한 재료를 한데 섞어 요리가 된다는 점. 전체적인 맛은 맵고 국물은 아주 얼큰함.</p>
	<p>우육면 (牛肉面)</p>	<p>진한 소고기 육수와 소고기 고명을 넣어 만든 중국식 면 요리. 중국 전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며 대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음식임.</p>

메뉴 사진	메뉴명(원문)	메뉴 설명
	<p>매운고기국수 (辣肉面)</p>	<p>'라로우미안' 으로 불리우는 고기를 넣은 매운 맛의 국수요리로 상하이 음식으로 분류됨.</p>
	<p>갯가재요리 (濼尿虾)</p>	<p>'라이니아오시아'로 불리우는 말린 고추와 후추, 두반장, 생강, 양파를 넣어 만든 갯가재 요리. 새우 껍질은 벗기기가 까다롭지만 그 꼬리살은 질감이 좋고 풍미가 많음. 새우보다는 가재에 가까움.</p>
	<p>마라우육 (麻辣牛肉)</p>	<p>'마라니우로우'로 불리오는 대표적인 사천식 요리로 '맵게 만든 쇠고기 요리'라는 뜻. 마라 [麻辣] 는 중국어로 '매운, 매운 맛'을 뜻함.</p>
	<p>새콤달콤당면 (酸辣粉)</p>	<p>'수안라펜'이라 불리우는 맵고 신맛이 나는 스추안 지역 당면요리. 맵고 신맛은 남서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이며 고구마가루로 만든 당면을 사용함.</p>

메뉴 사진	메뉴명(원문)	메뉴 설명
	<p>성젠만터우 (生煎馒头)</p>	<p>성젠만터우(生煎馒头)는 상하이 요리 중 하나로, 소고기를 속으로 만든 만두로 고객에게 제공할 때는 후라이팬에 지지서 만두밑을 딱딱하게 만듦.</p>
	<p>샤오훈둔 (小馄饨)</p>	<p>샤오(小)는 작다는 뜻이며 훈둔(馄饨)은 빵이라는 뜻의 훈(馄)과 끓이다는 뜻의 둔(炖)자임. 샤오훈둔은 저렴한 가격에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임.</p>
	<p>메주즙닭발 (豉汁凤爪)</p>	<p>'치지펑추아'로 불리우며 닭발을 기름에 튀긴 후 간장, 굴소스, 후추, 설탕, 치킨 파우더, 고추기름으로 만든 소스에 버무린 광동 전통음식임.</p>
	<p>오리창자 (鸭肠)</p>	<p>'야창'으로 불리우며 오리의 내장을 말함. 휘귀에 넣어먹으며 마오두(내장), 두나오(돼지머리), 연뿌리, 감자, 콩나물등의 야채와 함께 먹음.</p>

메뉴 사진	메뉴명(원문)	메뉴 설명
	<p>망고 사교 포멜로(杨枝甘露)</p>	<p>망고와 연두색의 자몽처럼 생긴 열대과일 포멜로, , 야자줄기에서 추출한 녹말 성분으로 만든 사교에 우유를 넣어 만든 디저트.</p>
	<p>완두고기 면 (豌杂面)</p>	<p>'완자미엔'으로 불리우며 완두, 같은 고기가 들어간 매운맛의 충칭의 면요리.</p>
	<p>차사오 (叉烧)</p>	<p>차사오는 돼지고기를 덩어리로 양념하여 구운 요리임. 주로 등심이나 엉덩이살이 사용됨.</p>
	<p>홍사려우 (红烧肉)</p>	<p>동파육으로도 불리우는 홍사려우는 두꺼운 삼겹살, 사과, 계피, 팔각 등으로 맛을 내 향이 깊고 진하며 진간장을 넣고 졸여 붉은 색감이 먹음직스러움.</p>

2. 도시 외식 소비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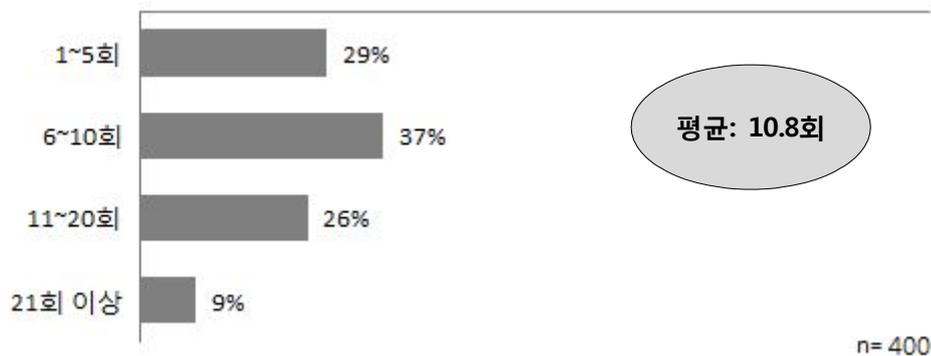
2.1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³³⁾

1) 일반 외식 패턴

□ 월평균 외식당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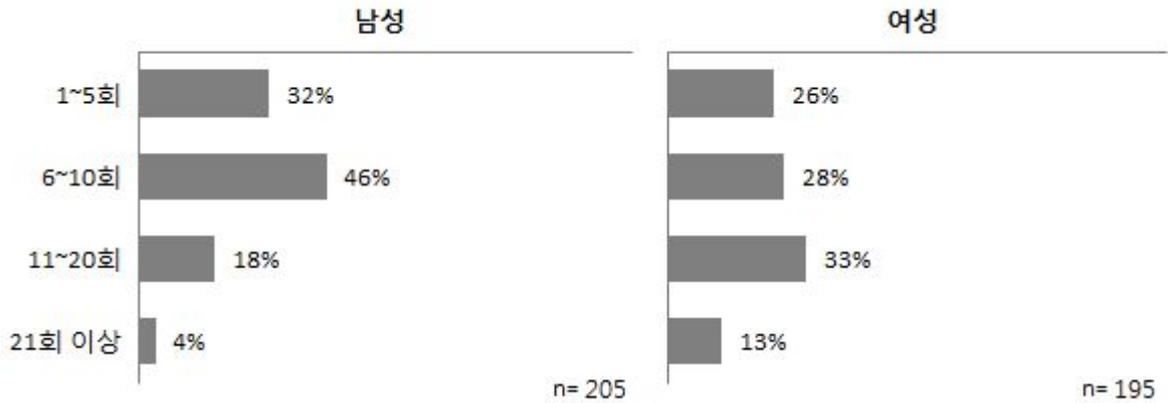
- 외식당을 월 평균 ‘6~10회’ 방문하는 비율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5회’ 방문이 29%, ‘11~20회’ 방문이 26%임.
- 여성이 남성보다 외식당을 방문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여성의 월평균 방문 횟수가 ‘11~20회’ 가 여성 전체의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40대의 월 평균 ‘11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44%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50대의 경우 외식당에 월 평균 ‘1~5회’ 방문하는 비율이 47%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적게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 연 소득이 높을수록 외식당을 더 자주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연 소득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의 60%이상은 월평균 ‘11회 이상’ 외식당에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월평균 외식당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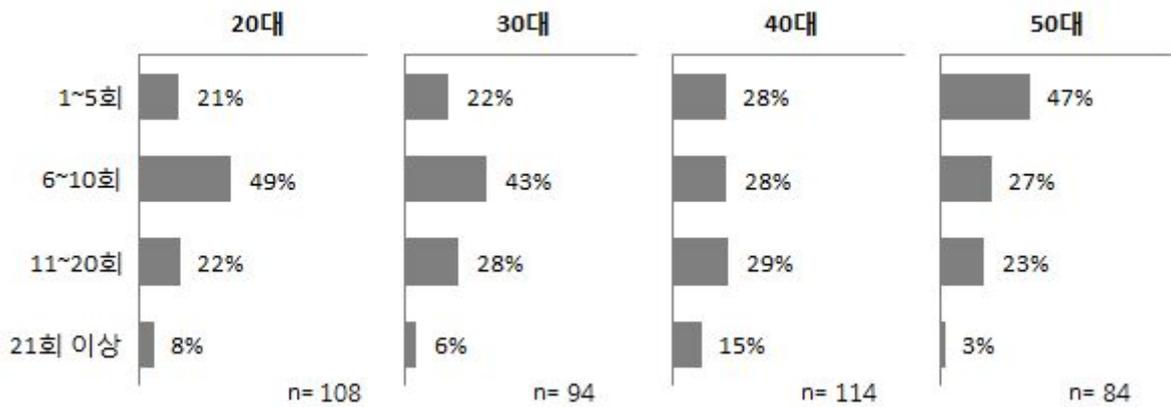


33) 자세한 설문문의 개요 및 응답자 특성은 본문 앞 조사 개요 챕터에 수록된 소비자 설문란을 참고하시길 바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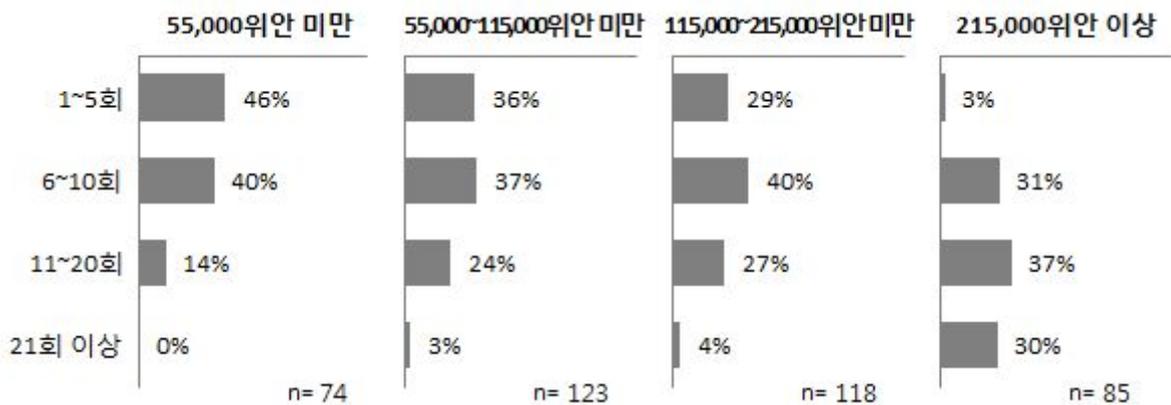
[성별 월평균 외식당 방문 횟수]



[연령대별 월평균 외식당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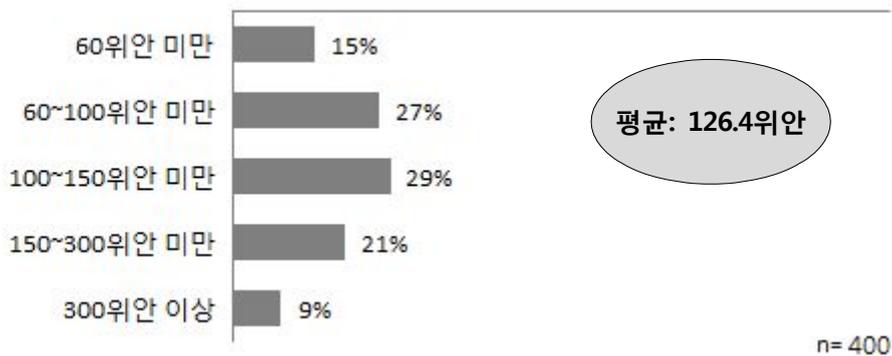
[연 소득별 월평균 외식당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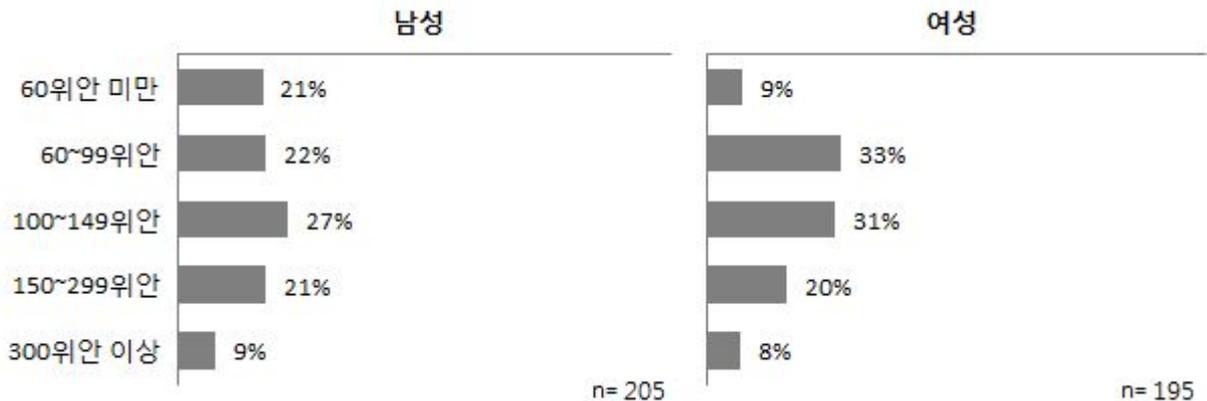
□ 1회당 외식 비용(1인 기준)

- 1회당 ‘100~150위안’ 을 외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율은 29%이며, 타 가격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소비자의 약 60%가 외식으로 ‘10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 남성이 여성보다 외식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임. 남성은 ‘100~150위안’ 지출하는 비율이 27%로 가장 높으며, 여성은 ‘60~100위안’ 을 지출하는 비율이 33%로 가장 높음.
- 40대의 31%가 외식 비용으로 ‘150위안 이상’ 을 지출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20대, 30대, 50대는 외식 비용으로 ‘100~150위안’ 을 지출하는 비율이 각각 28%, 29%, 30%로 가장 높음.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임.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 인 소득층의 약 60%는 ‘150위안 이상’ 을 외식에 지출하며, 반면에 ‘55,000위안 미만’ 인 소득층의 약 60%는 ‘100위안 미만’ 을 지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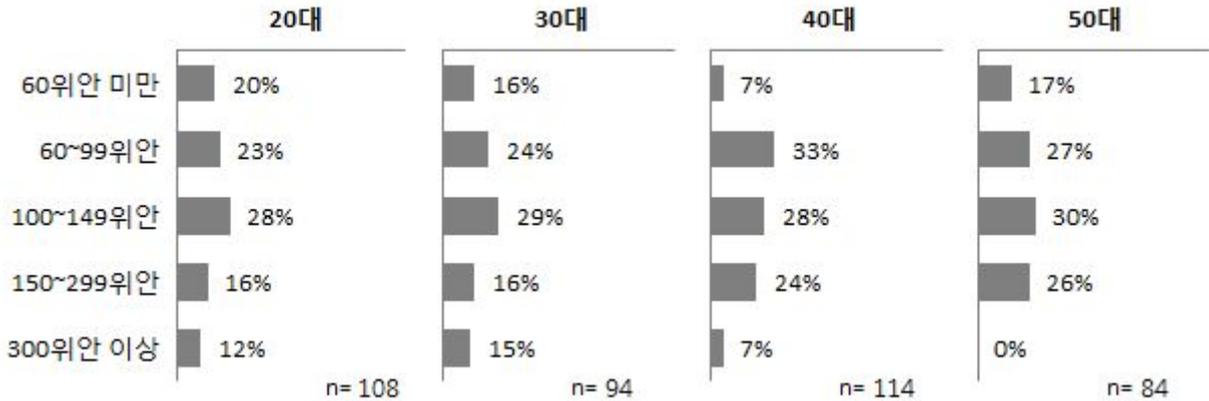
[1회당 외식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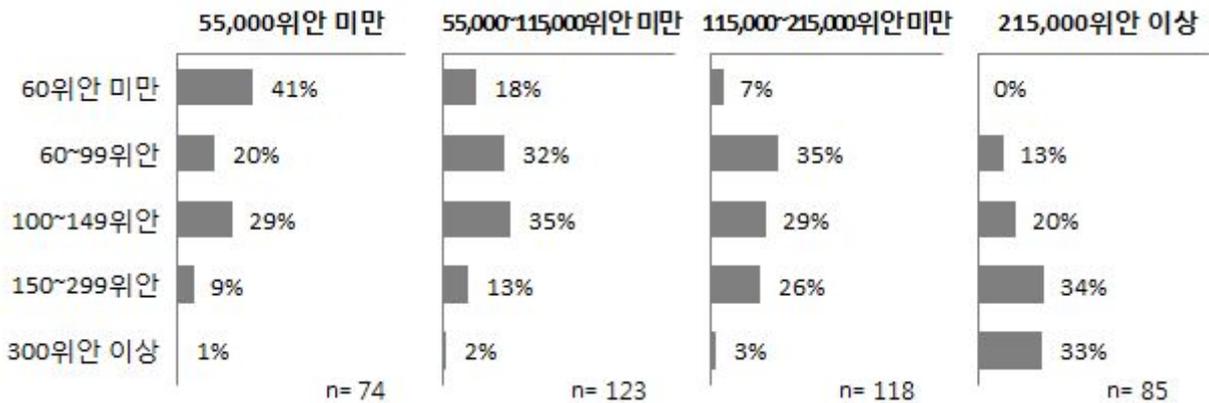
[성별 1회당 외식 비용]



[연령대별 1회당 외식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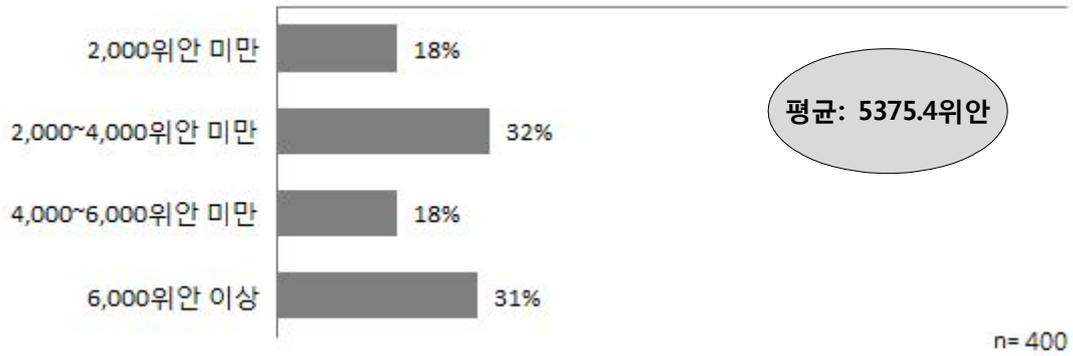
[연 소득별 1회당 외식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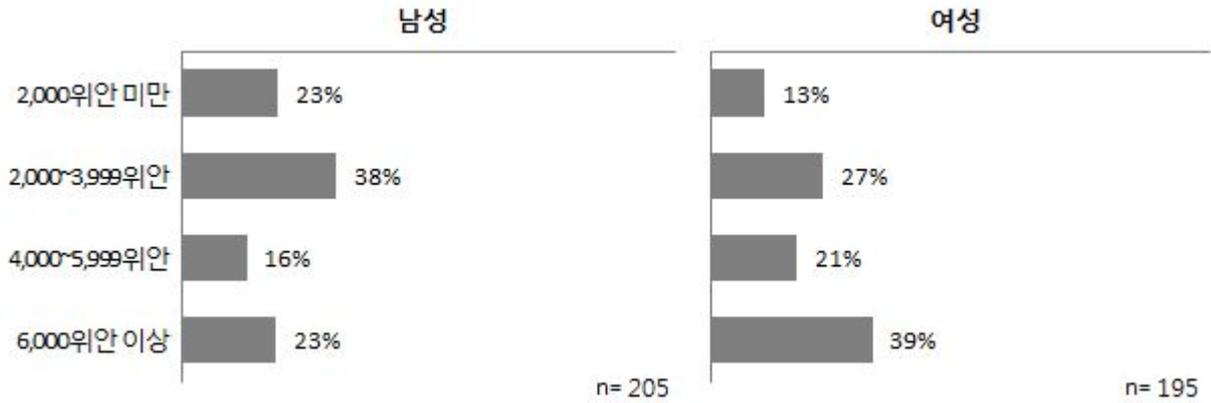
□ 월 평균 지출액

- 외식당에 월 평균 ‘2,000~4,00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6,00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31%를 차지함.
-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외식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은 월 평균 ‘6,00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40~50대가 타 연령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40~50대는 월 평균 ‘6,000위안 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각각 40%,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액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연 소득 ‘215,000 위안 이상’ 인 소비자의 100%가 월 평균 ‘6000위안 이상’ 을 외식에 지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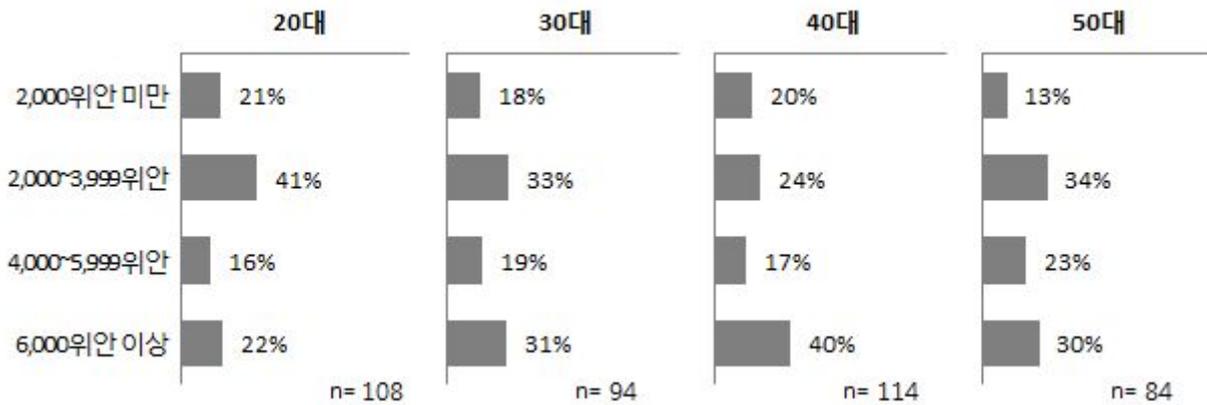
[월 평균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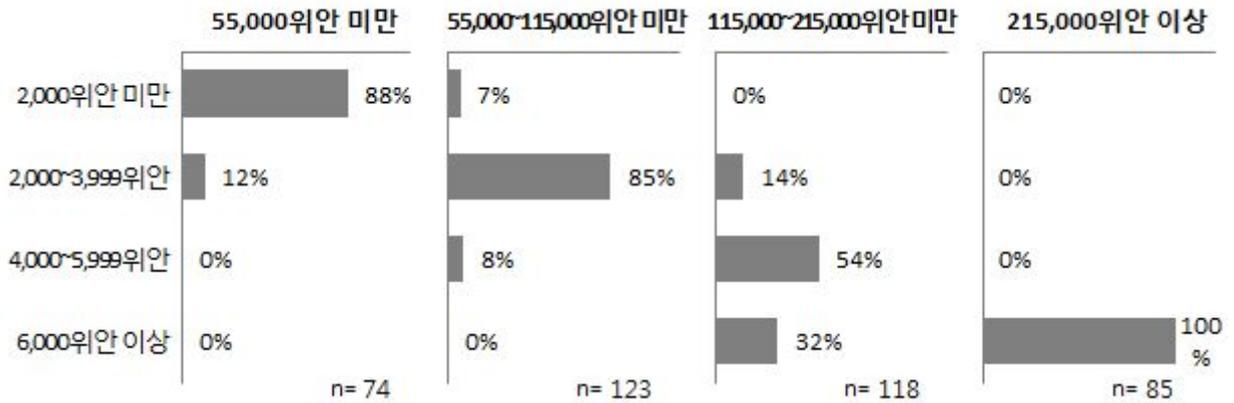
[성별 월 평균 지출액]



[연령대별 월 평균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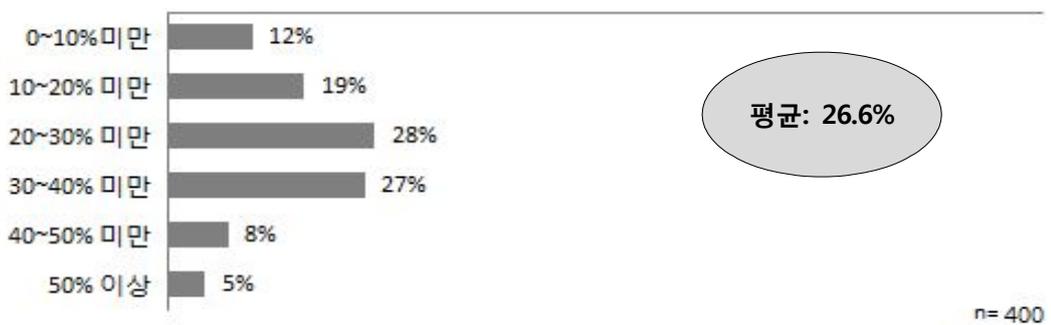
[연 소득별 월 평균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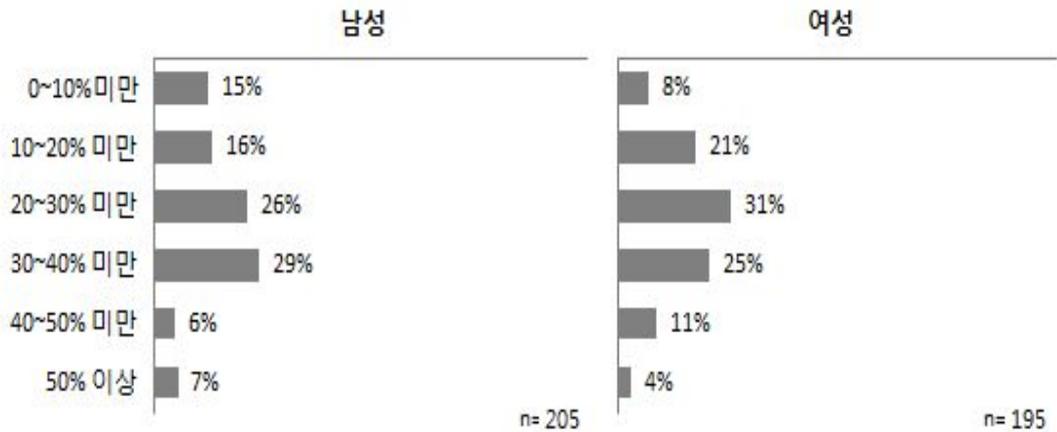
□ 식비 지출액 비중

- ‘20~30% 미만’ 을 지출하는 소비자가 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소비자의 과반 이상이 ‘20~40% 미만’ 에 분포하며 지출액 비중이 높음.
- 성별에 관계없이 ‘20~40% 미만’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층이 낮을수록 지출액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음. 특히 20대는 ‘30~40% 미만’ 이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액 비중이 높은 경향이 뚜렷함. 특히 ‘55,000 위안 미만’ 인 소득층은 ‘30% 이상’ 이 약 73%로 타 소득층에 비해 월등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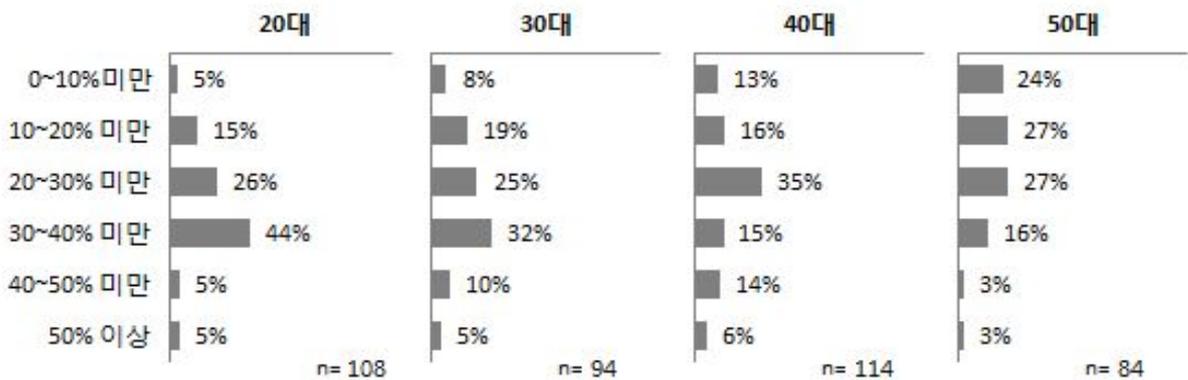
[월 평균 식비 지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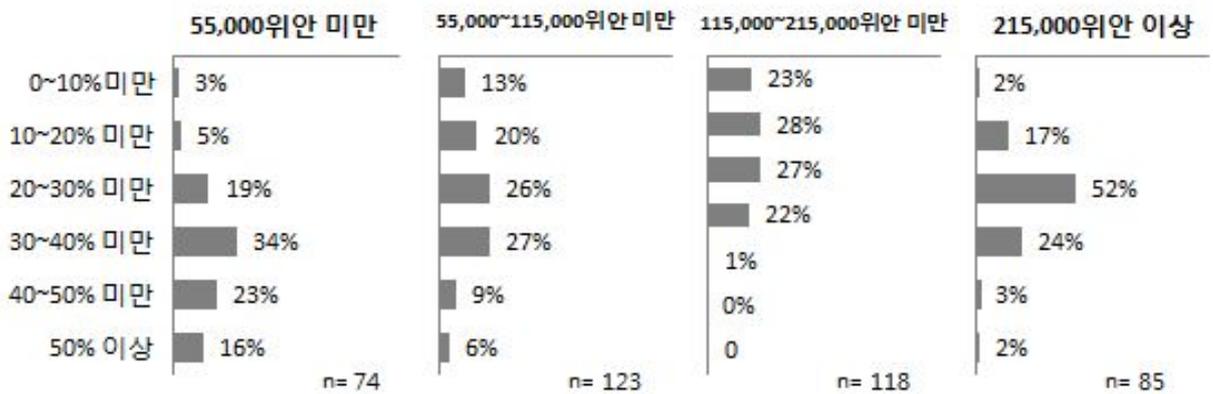
[성별 월 평균 식비 지출액 비중]



[연령대별 월 평균 식비 지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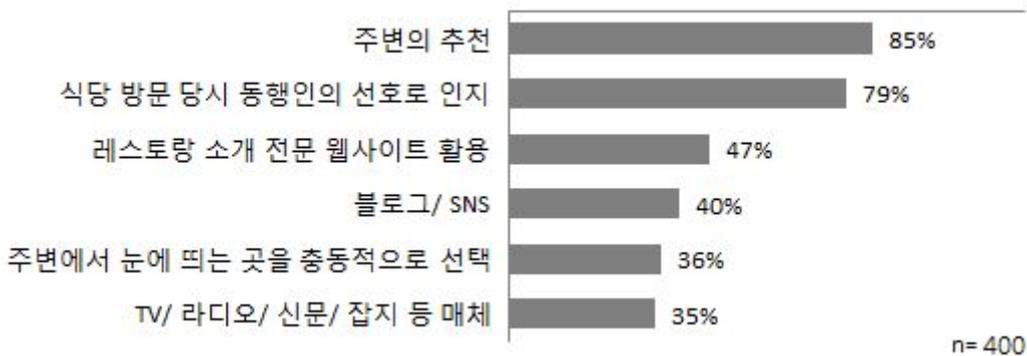
[연 소득별 월 평균 식비 지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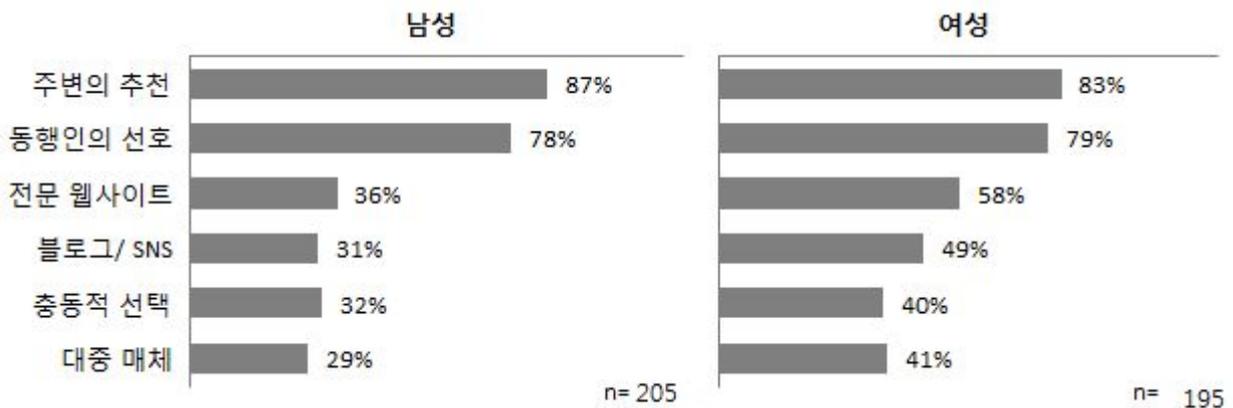
□ 식당 인지 경로

- 충청의 소비자는 ‘주변의 추천(85%)’ 이나 ‘동행인의 선호(79%)’ 에 의해 외식을 찾는 경향이 있음. ‘대중 매체(35%)’ 나 ‘충동적 선택(36%)’ 으로 방문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 관계없이 ‘주변의 추천’ 또는 ‘동행인의 선호’ 에 의해 외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그 외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문 웹사이트’ 나 ‘블로그/SNS’ 를 통해 외식당을 찾는 경향이 있음.
- 전 연령층이 동일하게 ‘주변의 추천’ 이나 ‘동행인의 선호’ 에 의해 외식당을 찾는 경향이 있음. 30대와 40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전문 웹사이트’ 를 통해 방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변의 추천’ 과 ‘동행인의 선호’ 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는 타 소득층에 비해 ‘전문 웹사이트’, ‘블로그/SNS’, ‘대중매체’ 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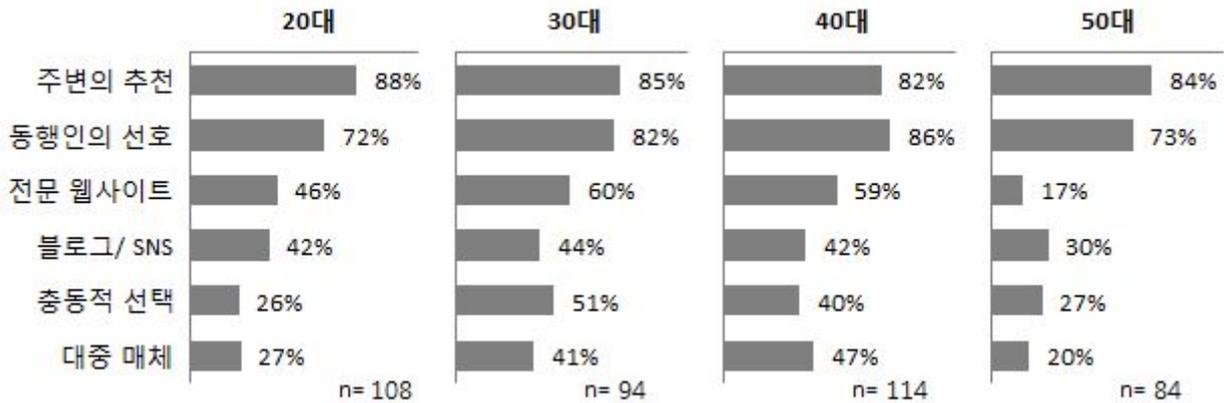
[식당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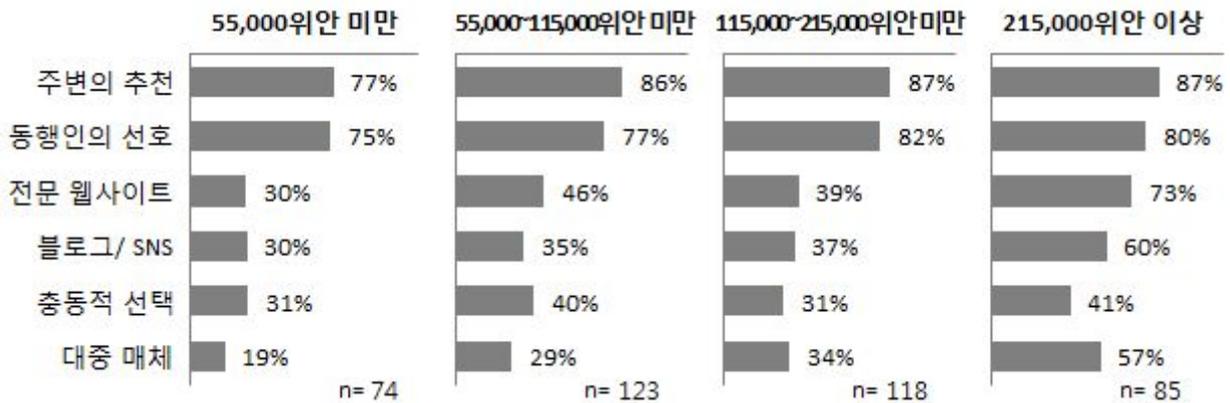
[성별 식당 인지 경로]



[연령대별 식당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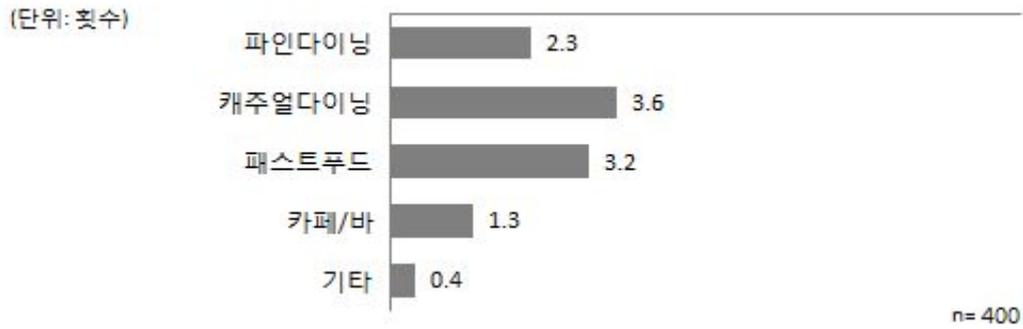
[연 소득별 식당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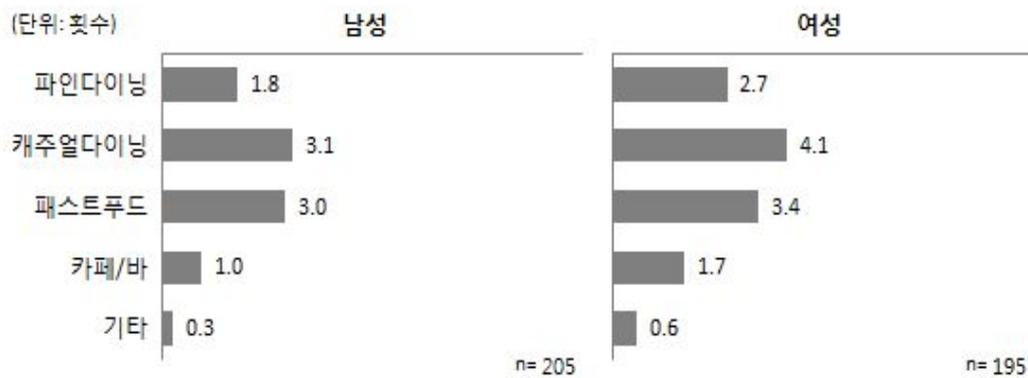
□ 자주 가는 업체

- 소비자가 자주 가는 외식당 업체는 ‘캐주얼다이닝’이며, 월 평균 3.6회 방문으로 타 업체에 비해 가장 많음. ‘패스트푸드’가 월 평균 3.2회로 다음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음.
- 성별 관계없이 ‘캐주얼다이닝’과 ‘패스트푸드’를 가장 자주 방문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에스닉 식당을 자주 가는 경향이 있음.
- 20~40대는 ‘캐주얼다이닝’에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50대는 ‘패스트푸드’에 방문하는 횟수가 3.3회로 타 에스닉 식당의 방문보다 자주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캐주얼다이닝’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 소득이 올라갈수록 ‘패스트푸드’와 ‘파인다이닝’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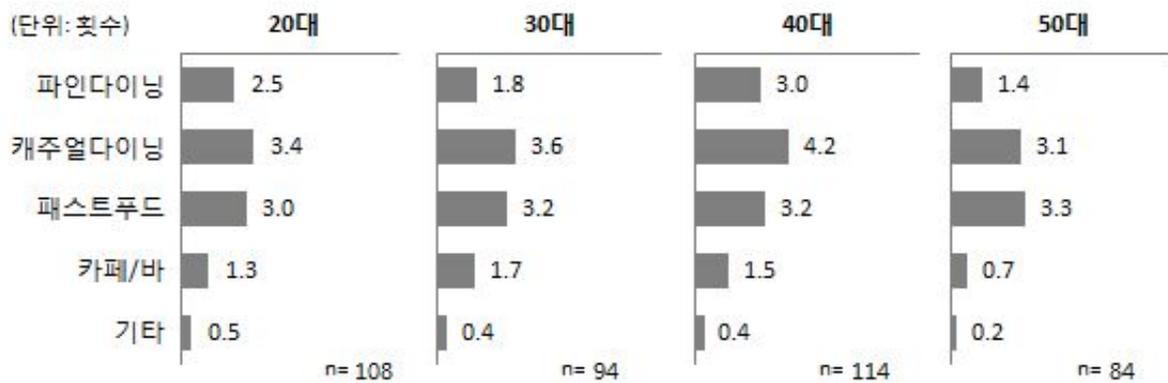
[자주 가는 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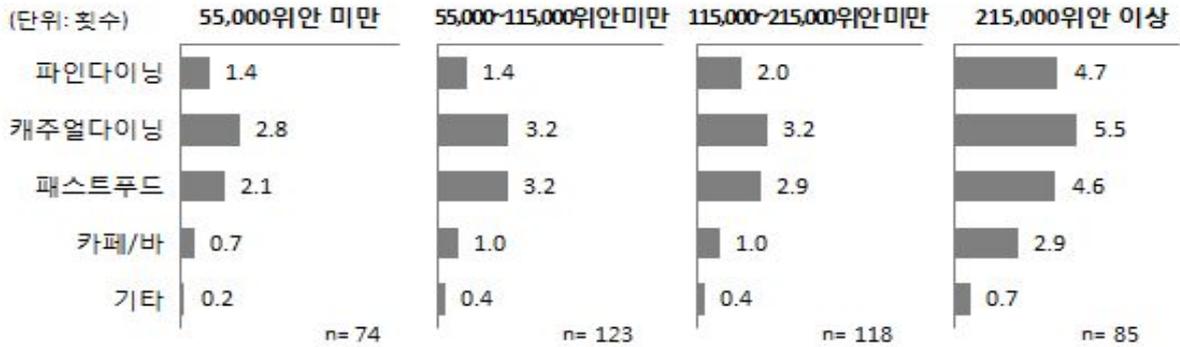
[성별 자주 가는 업태]



[연령대별 자주 가는 업태]



[연 소득별 자주 가는 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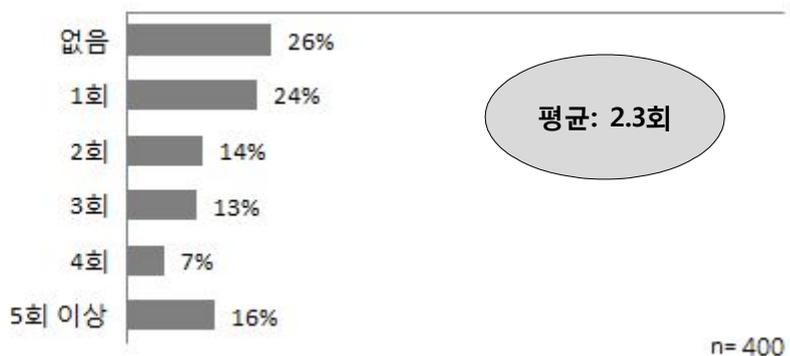
2) 업태별 외식 패턴

가)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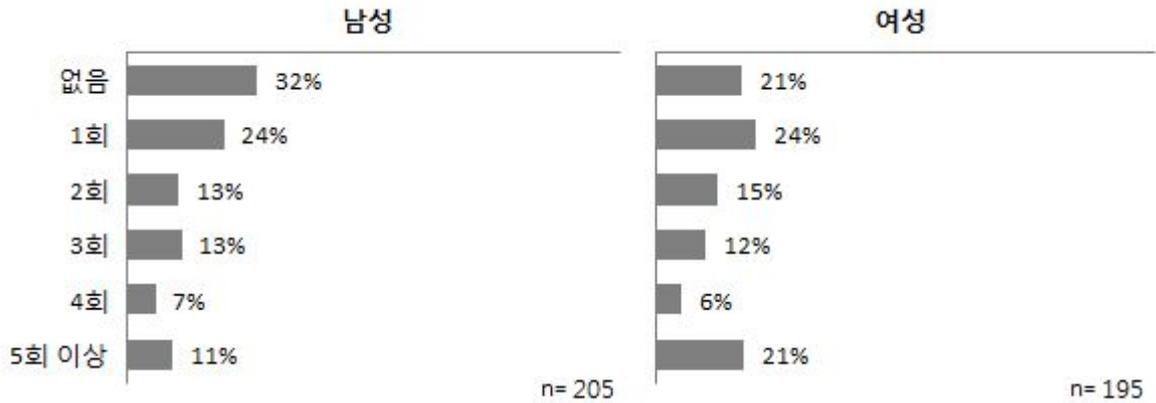
□ 월 평균 방문 횟수

- ‘파인다이닝’에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파인다이닝’에 방문하지 않는 비율이 26%로 가장 높음.
- 여성이 남성보다 ‘파인다이닝’에 더 많이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은 월 평균 5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21%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4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파인다이닝’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40대의 월 ‘3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46%로 타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음.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파인다이닝’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215,000위안 이상’ 소득층의 월 평균 ‘5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42%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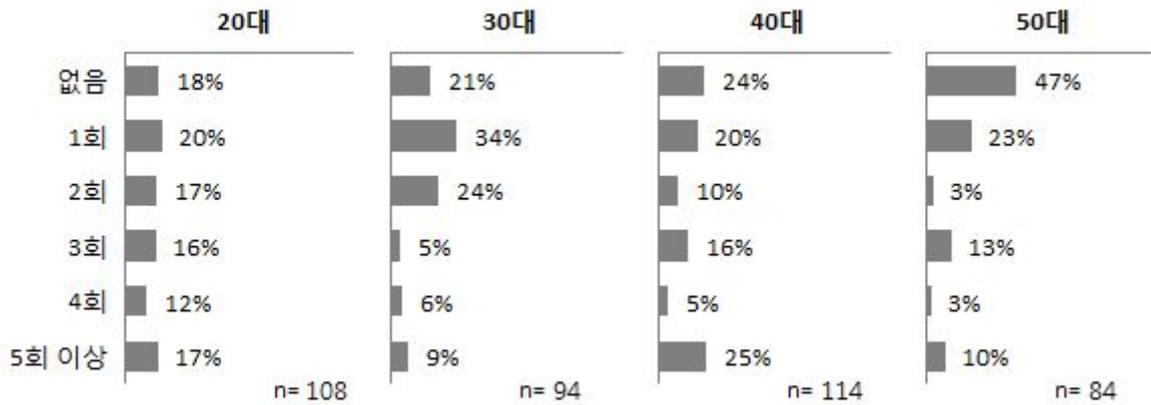
[월 평균 방문 횟수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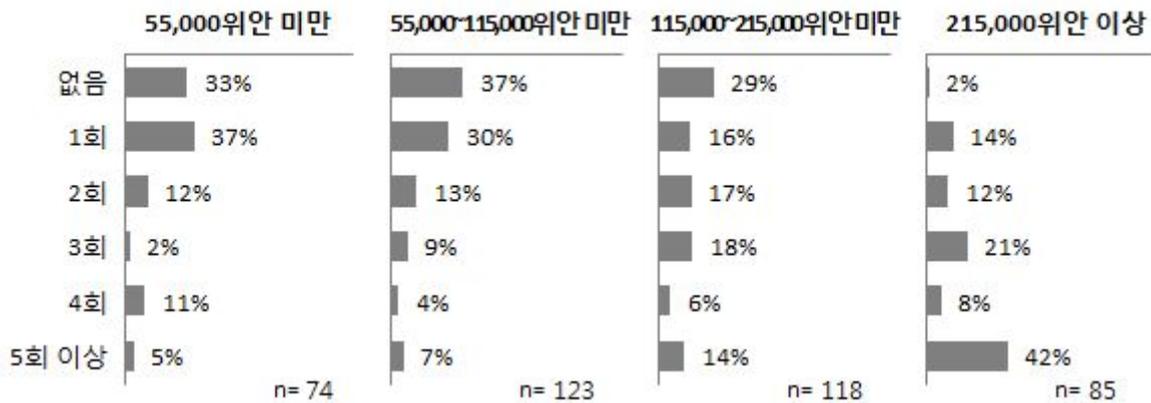
[성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파인다이닝]



[연령대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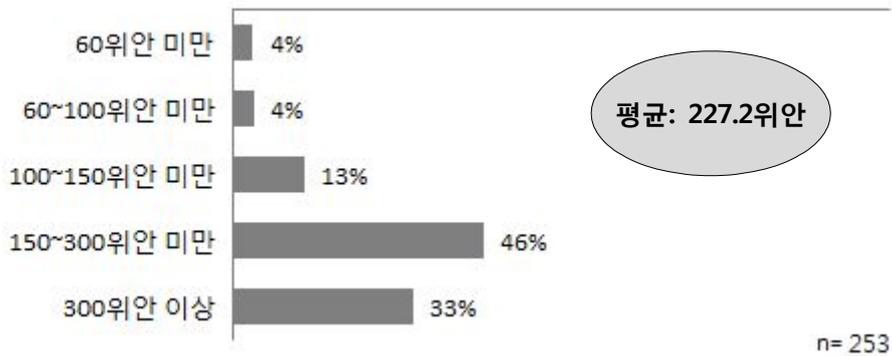
[연 소득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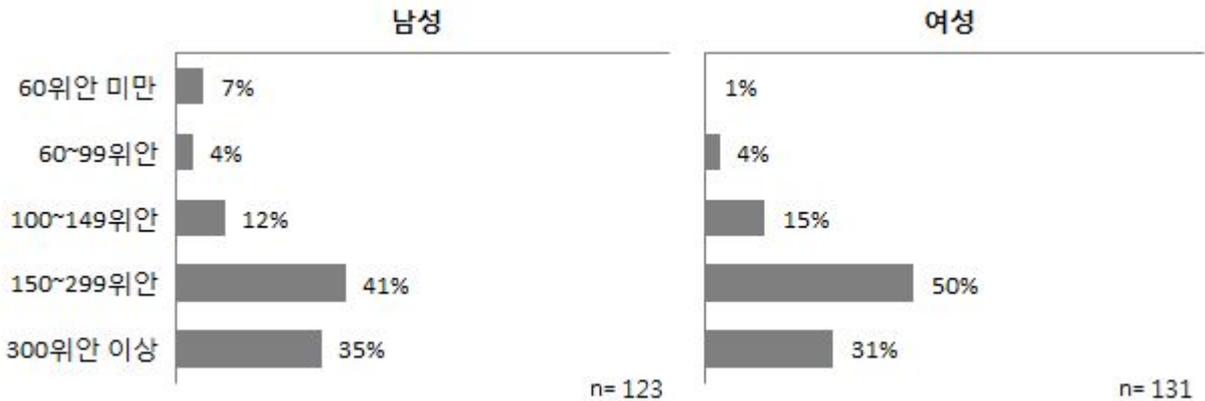
□ 1회당 외식 비용(1인 기준)

- 외식 비용으로 1회당 ‘150~300위안 미만’ 을 지출하는 소비자가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소비자의 약 80%이상이 1회당 ‘15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 남성이 여성보다 외식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임. 남성은 외식 비용으로 1회당 ‘30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35%로 여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
- 30~50대는 외식 비용으로 1회당 ‘15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80%이상임. 5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1회당 외식 비용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임.
- 연 소득 ‘215,000위안 이상’ 인 소득층이 외식 비용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소득이 가장 적은 ‘55,000위안 미만’ 의 소득층도 ‘15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5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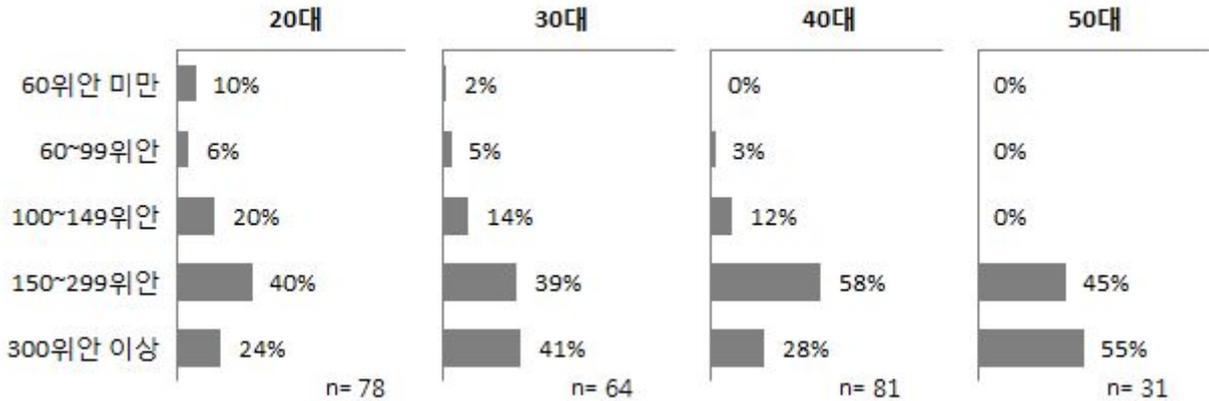
[1회당 외식 비용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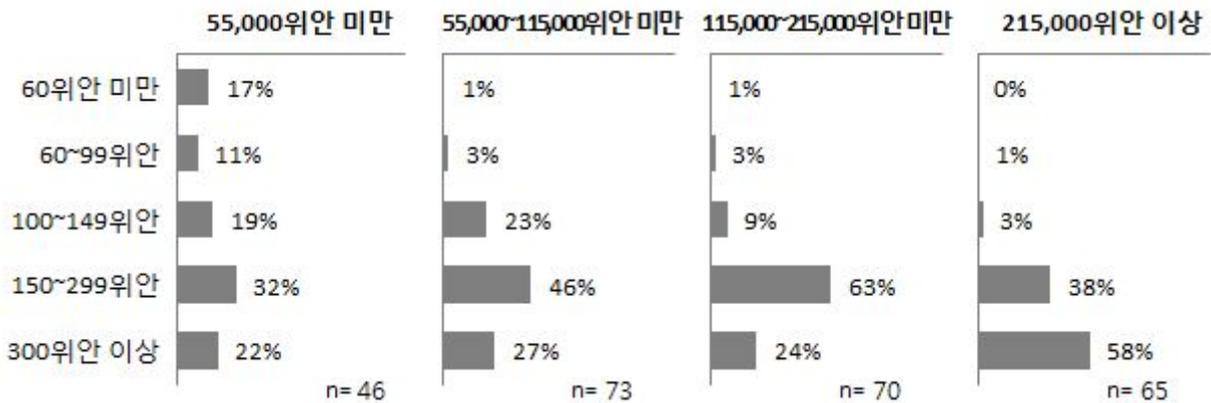
[성별 1회당 외식 비용 - 파인다이닝]



[연령대별 1회당 외식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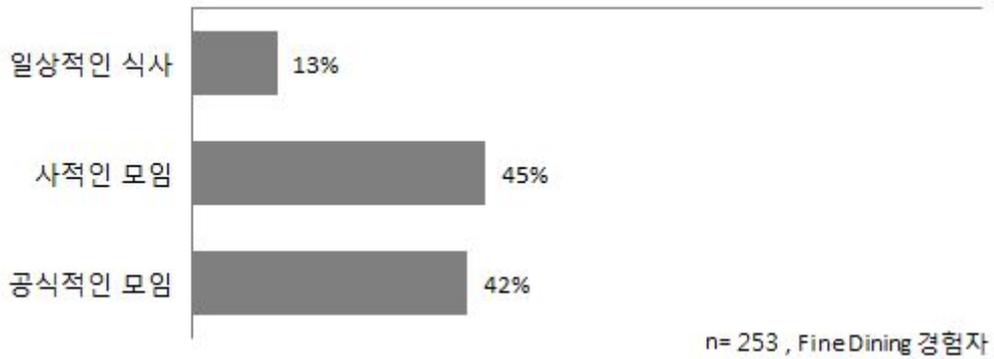
[연 소득별 1회당 외식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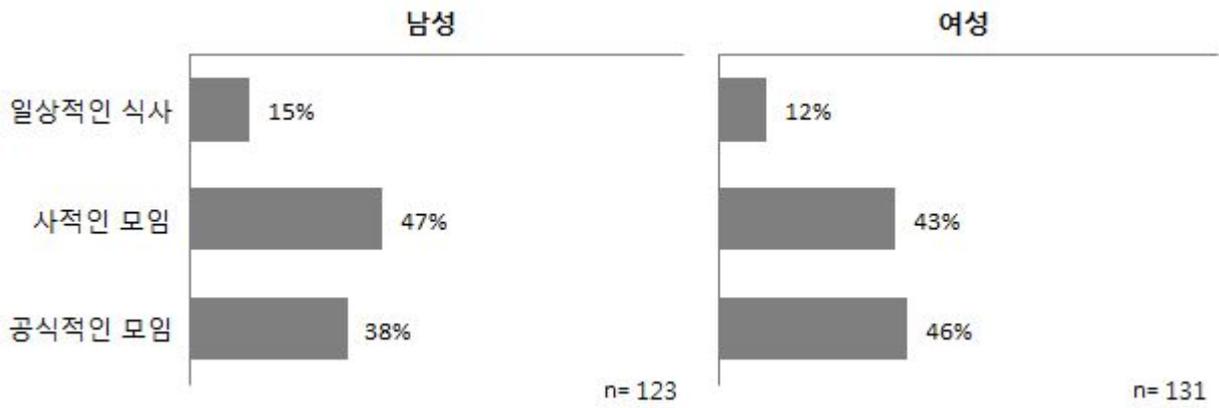
□ 외식당 방문 목적

- ‘파인다이닝’ 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사적인 모임’ 의 경우가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모임’ 이 방문의 목적인 비율이 87%로 ‘일상적인 식사’ 보다 선호하는 것이 뚜렷함.
- 남성은 ‘사적인 모임’ 으로 ‘파인다이닝’ 에 방문하는 비율이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여성은 ‘공식적인 모임’ 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46%로 남성과 다른 경향이 있음.
- 40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공식적인 모임’ 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외 연령층은 ‘사적인 모임’ 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20대의 ‘사적인 모임’ 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임’ 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일상적인 식사’ 의 목적보다 월등히 높음. ‘215,000위안 이상’ 인 소득층은 ‘공식적인 모임’ 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으며, ‘55,000위안 미만’ 의 소득층은 ‘사적인 모임’ 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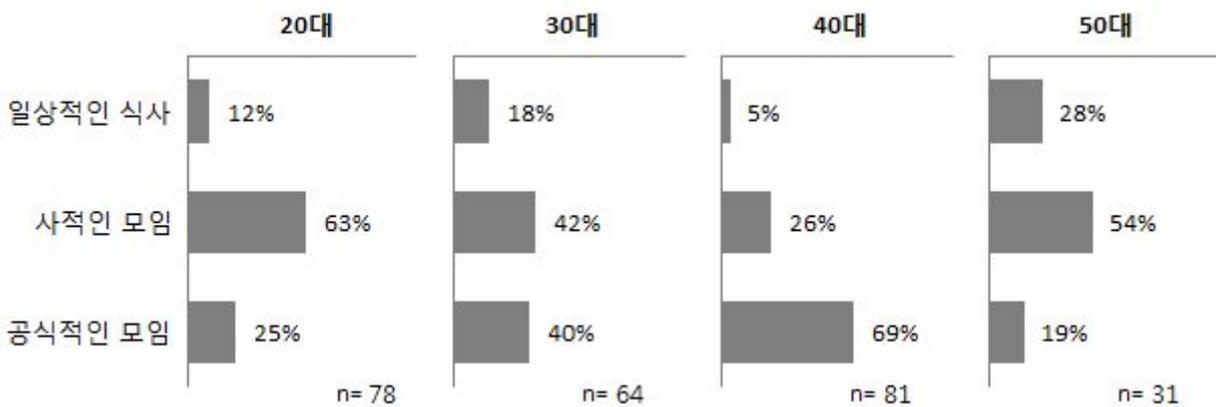
[외식당 방문 목적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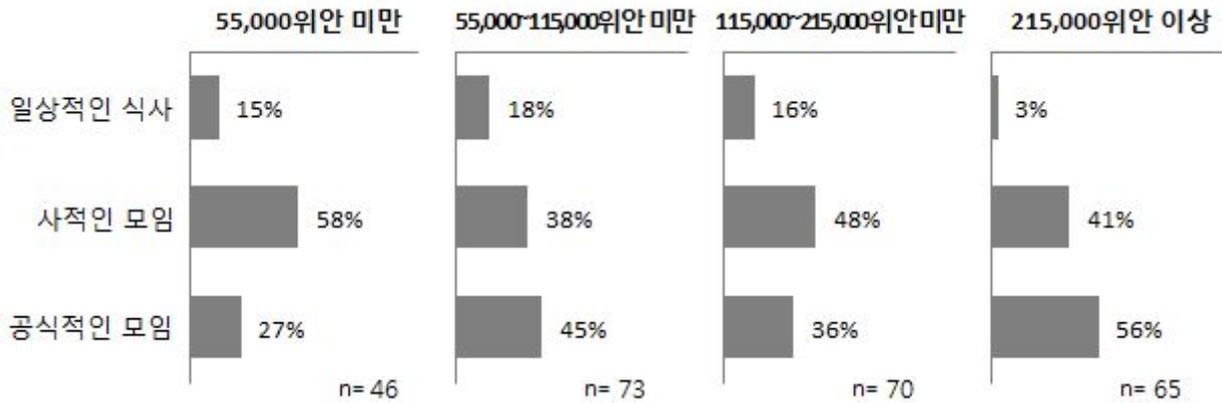
[성별 외식당 방문 목적 - 파인다이닝]



[연령대별 외식당 방문 목적 - 파인다이닝]



[연 소득별 외식당 방문 목적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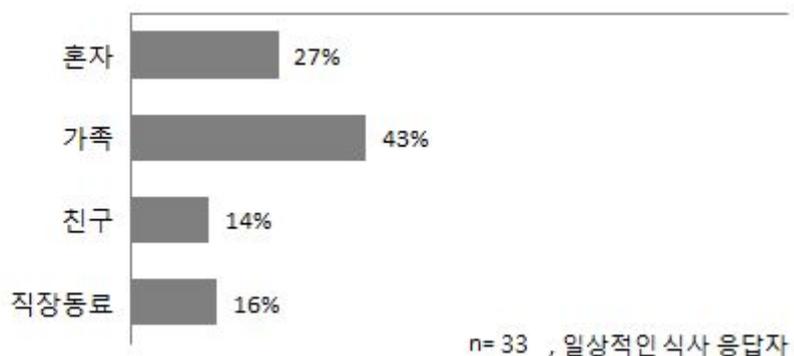


□ 외식당 방문 목적 별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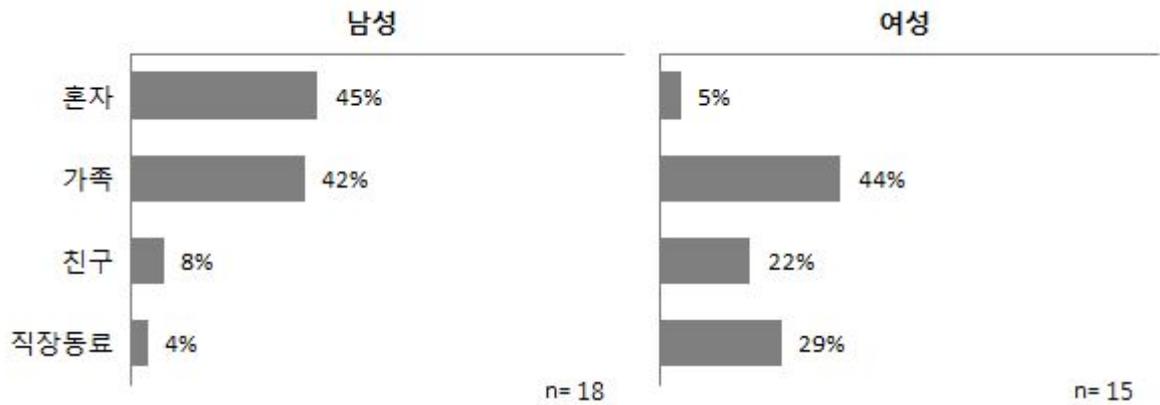
○ 일상적인 식사

- 일상적인 식사로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혼자’ 방문하는 비율은 27%,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은 16%임.
- 남성은 ‘혼자’ 방문하거나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반대로 여성은 ‘가족’ 과 동행하거나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상적인 식사’ 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동행인은 연령층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대는 ‘혼자’ 방문하는 경향이 있으며, 30대, 50대는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연 소득이 ‘1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는 ‘가족’ 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55,000~115,000위안’ 의 소득층은 ‘혼자’ 외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높음. 또한 ‘55,000위안 미만’ 의 소득층은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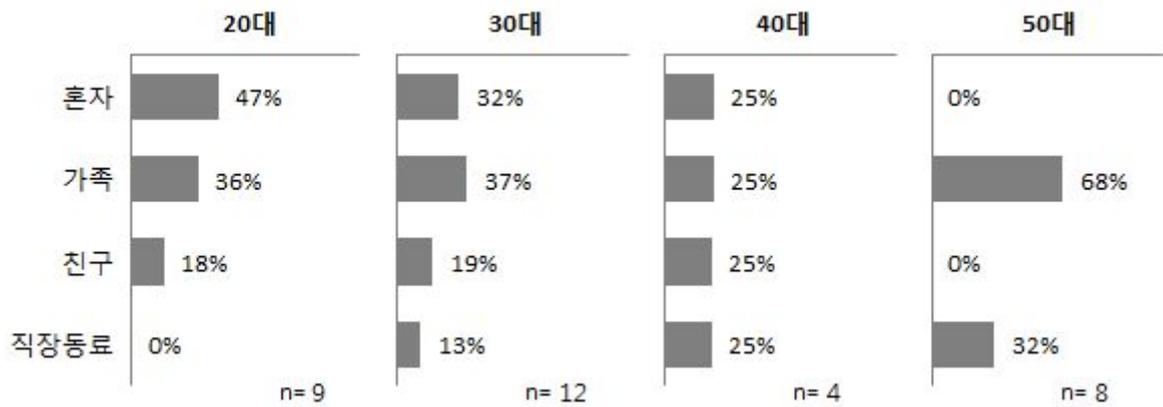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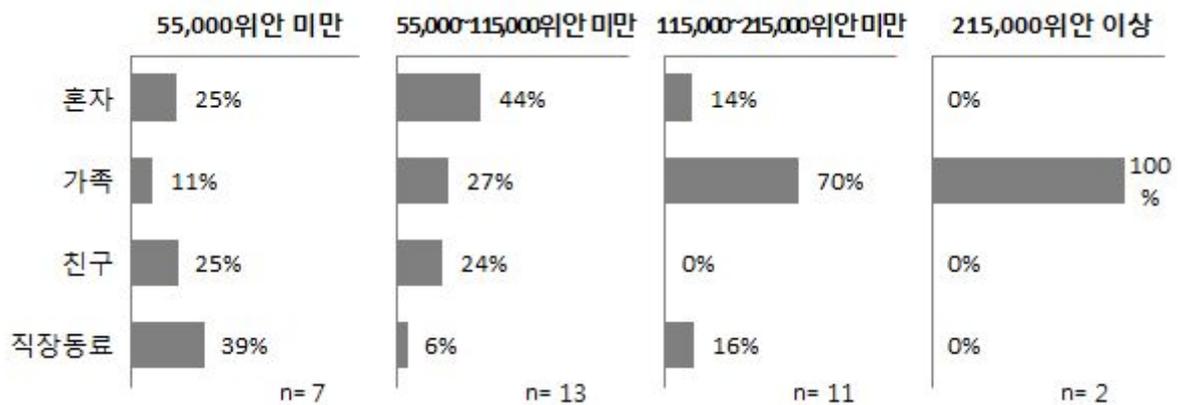
[성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파인다이닝]



[연령대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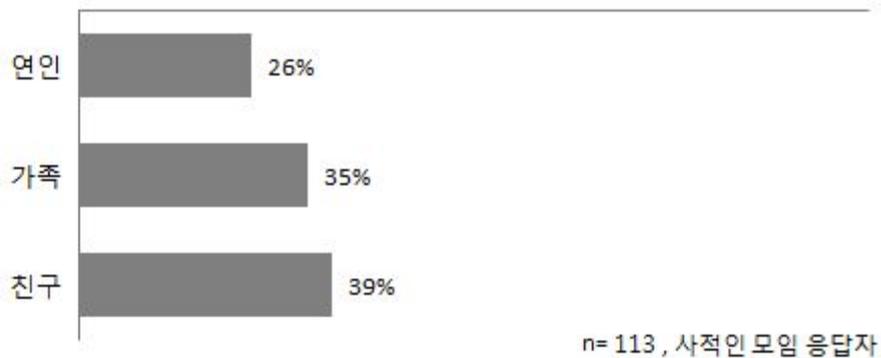
[연 소득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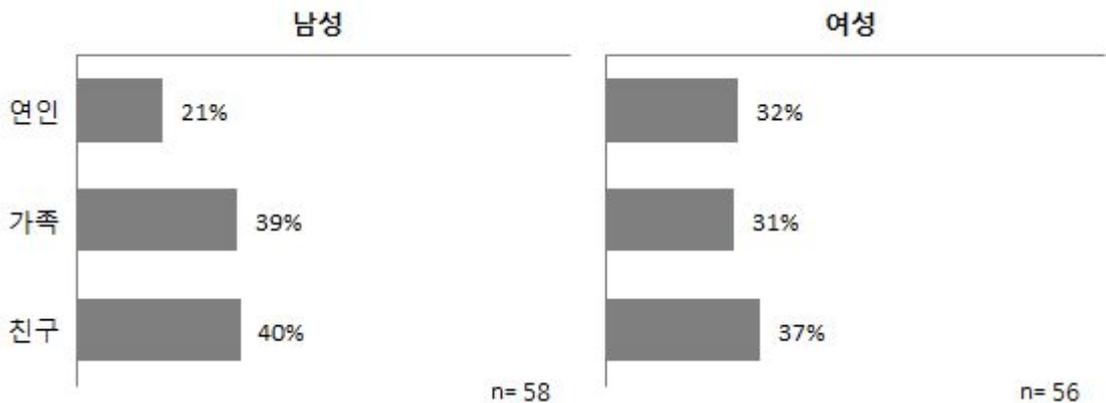
○ 사적인 모임

- 사적인 모임으로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이 35%이며, ‘연인’과 동행하는 비율은 26%임.
- 성별 관계 없이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 그 외에 여성은 ‘연인’과 동행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30대의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54%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으며, 50대의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20대는 ‘연인’과 동행하는 비율이 타 연령층보다 높음.
- 연 소득 ‘215,000위안 이상’인 소비자는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48%로 가장 높으며, ‘55,000~115,000위안’인 소비자의 ‘연인’과 동행하는 비율이 타 연령층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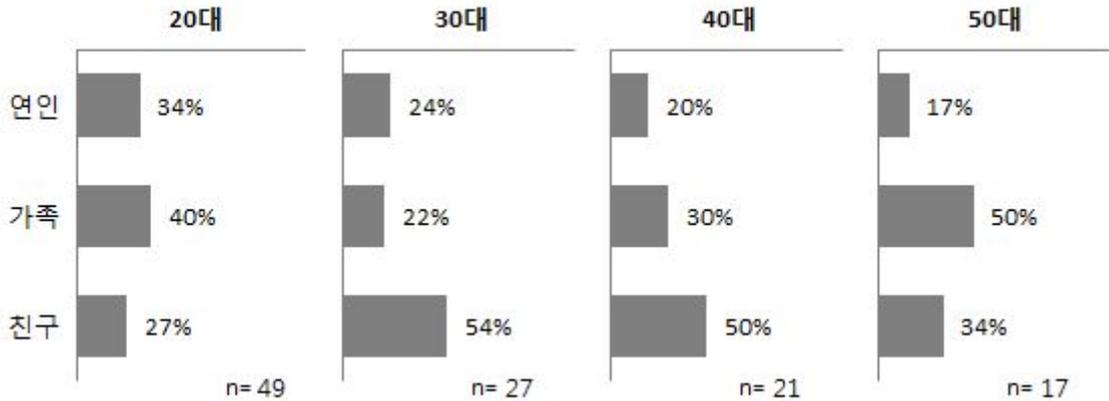
[사적인 모임 동행인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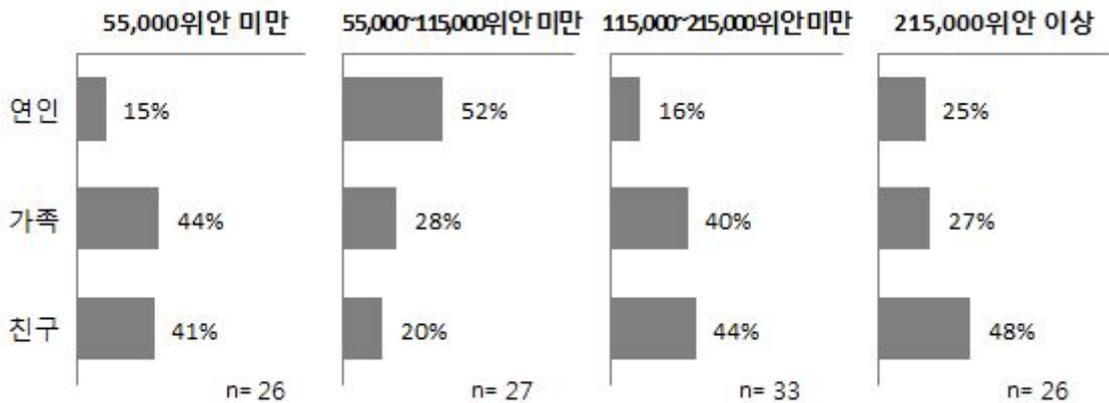
[성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파인다이닝]



[연령대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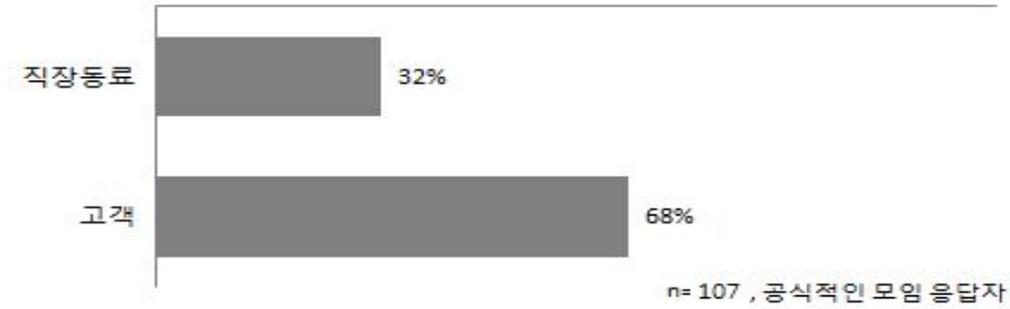
[연 소득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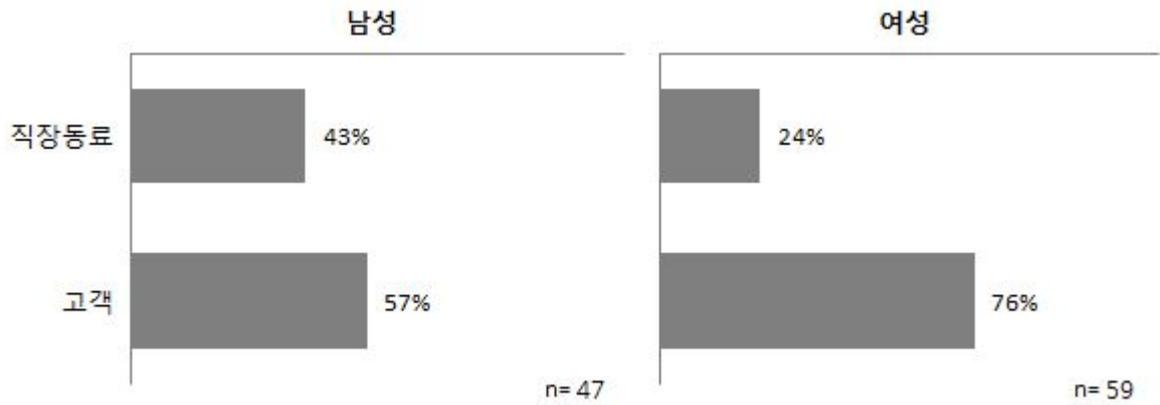
○ 공식적인 모임

- 공식적인 모임으로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68%로 ‘직장동료’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성별 관계없이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그 중 여성이 남성보다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대와 40대의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타 연령층보다 높으며, 30대는 ‘고객’ 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음. 50대는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과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50%로 동일함.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그 중 연 소득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는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76%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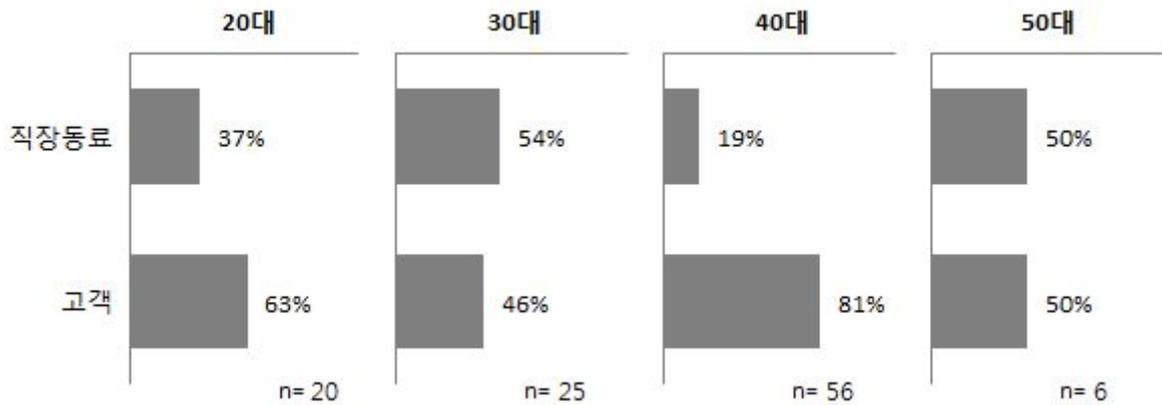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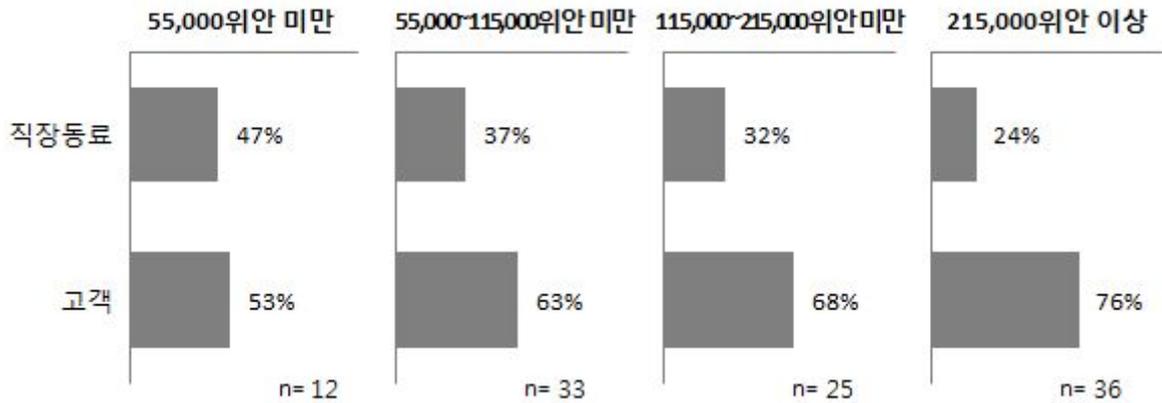
[성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파인다이닝]



[연령대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파인다이닝]



[연 소득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파인다이닝]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파인다이닝’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는 주로 ‘음식 수준’, ‘식당 수준’, ‘식당 시설’이며, 반면에 ‘가격’, ‘장소’, ‘서비스 수준’, ‘종업원 수준’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음식 수준’ 중에서 주로 ‘음식의 맛(59%)’과 ‘건강한 음식(44%)’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음식의 양(18%)’은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 ‘식당 수준’ 중에서 ‘식당의 평판(47%)’와 ‘위생상태(32%)’를 고려하며, ‘특별 이벤트(13%)’나 ‘가격할인(14%)’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식당 시설’ 중에서 ‘식당 내부 분위기(45%)’를 주로 고려하며, ‘편의시설(12%)’나 ‘주차공간(14%)’은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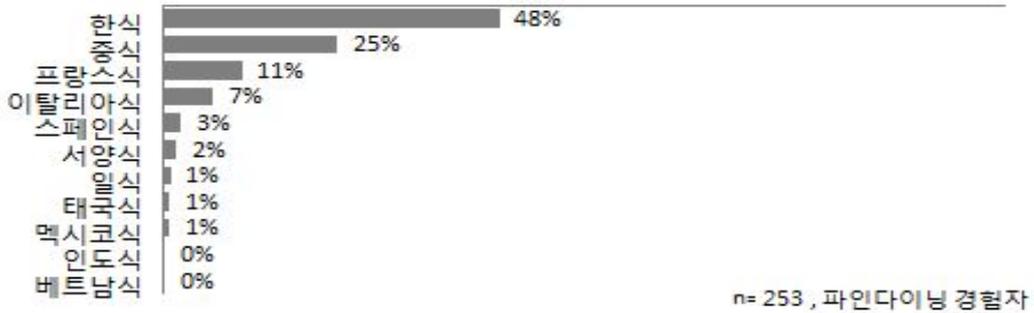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파인다이닝]

항목	순위	세부 항목	비율
Product	1	음식의 맛	59%
	2	건강한 음식	44%
	3	다양한 메뉴	33%
	4	음식의 양	18%
Price	1	가격	14%
Place	1	식당의 접근성	19%
Promotion	1	식당(브랜드)의 평판 또는 이미지	47%
	2	가격할인	14%
	3	특별 이벤트(마술쇼, 밴드, 생일파티 등)	13%
Physical Evidence	1	식당의 내부 분위기	45%
	2	식당의 위생상태	32%
	3	식당의 외관	29%
	4	주차공간	14%
	5	편의시설 (화장실, 놀이시설 등)	12%
Process	1	격식 있는 서비스	28%
	2	신속한 서비스	14%
	3	편리한 서비스 (주문, 지불 등)	13%
People	1	종업원의 태도	19%
	2	종업원의 용모	12%
	3	종업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11%
	4	인지도 있는 경영주/종업원	5%
	5	종업원/식당 주인과의 개인적 관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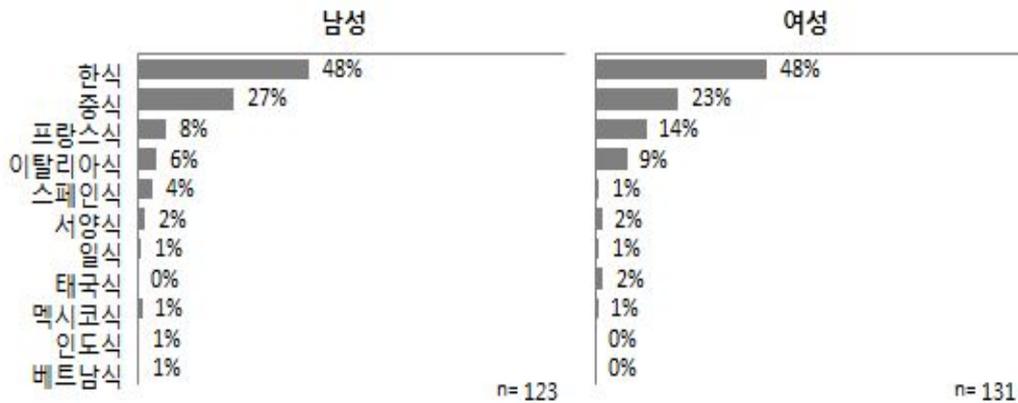
□ 자주 가는 에스닉

- 소비자가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은 ‘한식’ 식당이 48%, ‘중식’ 식당이 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 외에도 ‘프랑스’ 식당과 ‘이탈리안’ 식당의 비율이 11%, 7%로 타 식당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임.
- 성별 관계없이 ‘한식’ 식당에 방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프랑스’ 식당과 ‘이탈리안’ 식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연령층 관계없이 ‘한식’ 식당에 방문하는 경향이 높음. 40대는 ‘중식’ 식당에 방문하는 비율이 40%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 50대는 ‘이탈리안’ 식당에 방문하는 비율이 18%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의 ‘한식’ 식당 방문 비율이 44%이며, 타 에스닉 식당에 비해 높은 비율임. 연 소득이 ‘55,000위안 미만’ 인 소득층은 ‘중식’ 식당 방문 비율이 40%로 ‘한식’ 식당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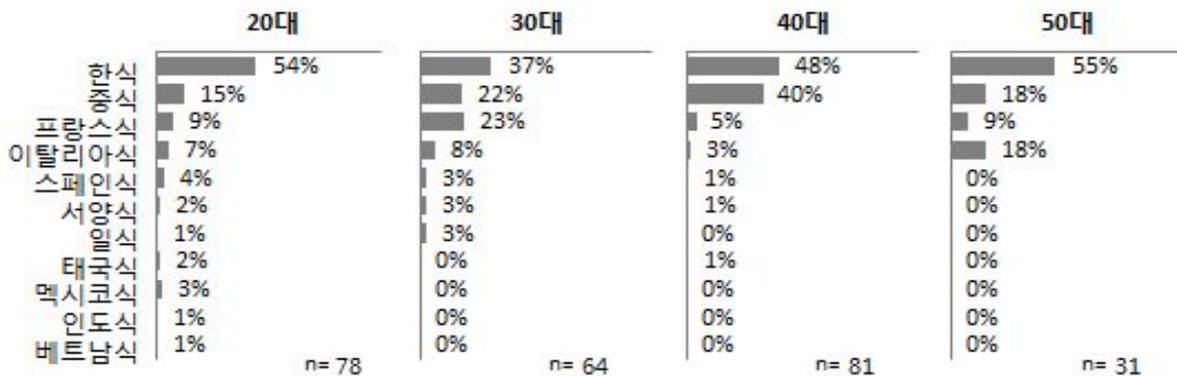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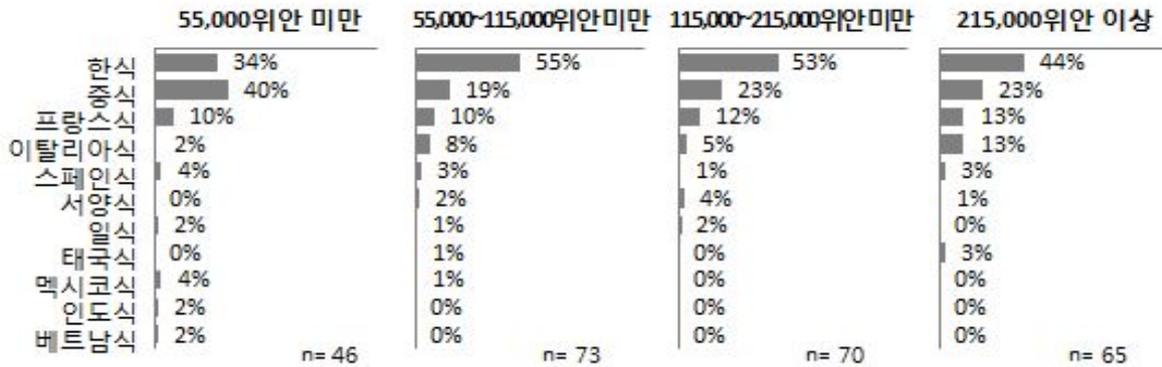
[성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파인다이닝]



[연령대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파인다이닝]



[연 소득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파인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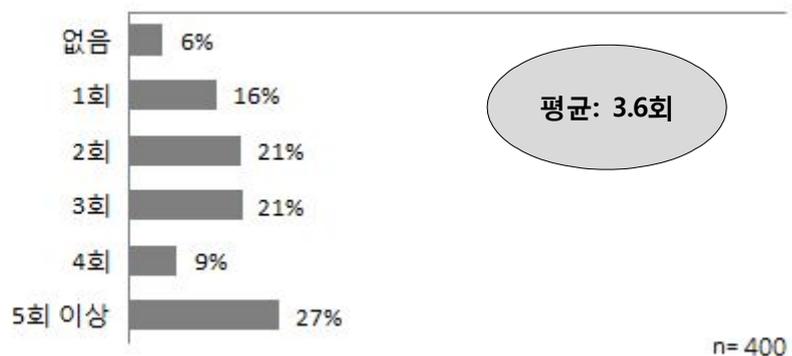


나)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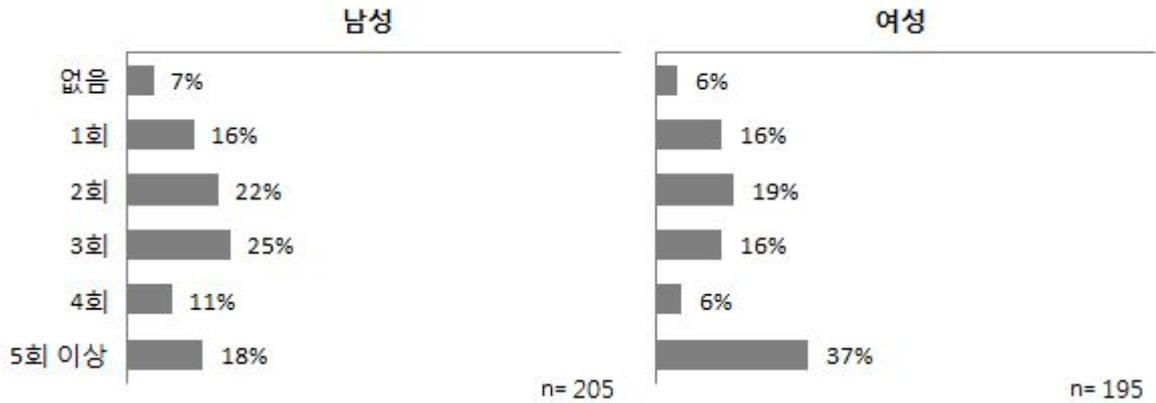
□ 월 평균 방문 횟수

- 소비자의 과반이 월 평균 ‘3회 이상’ 방문하며, 그 중 월 평균 ‘5회 이상’ 방문 비율이 27%로 가장 높음.
- 여성이 남성보다 ‘캐주얼다이닝’에 많이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의 월 평균 방문 횟수는 ‘5회 이상’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층 관계없이 소비자의 과반이 3회 이상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40대가 타 연령층보다 ‘캐주얼다이닝’을 가장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캐주얼다이닝’을 자주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215,000위안 이상’의 소득층은 월 평균 5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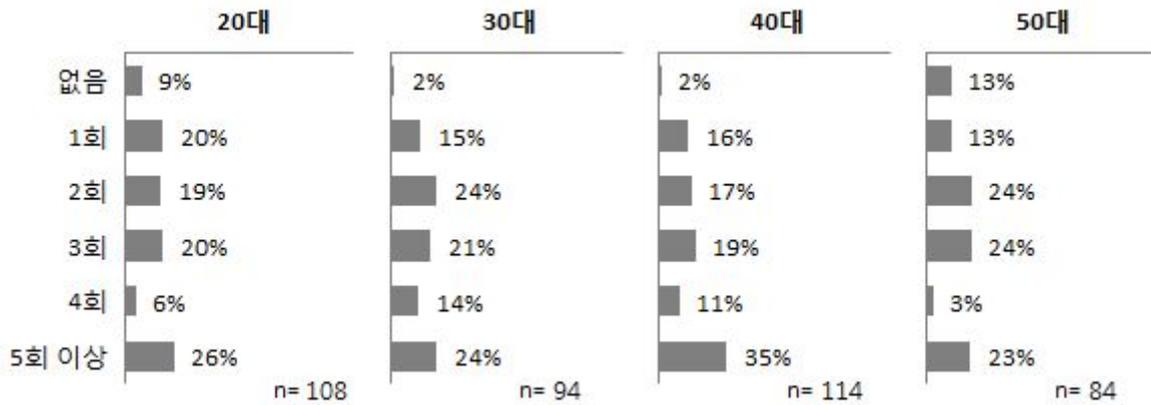
[월 평균 방문 횟수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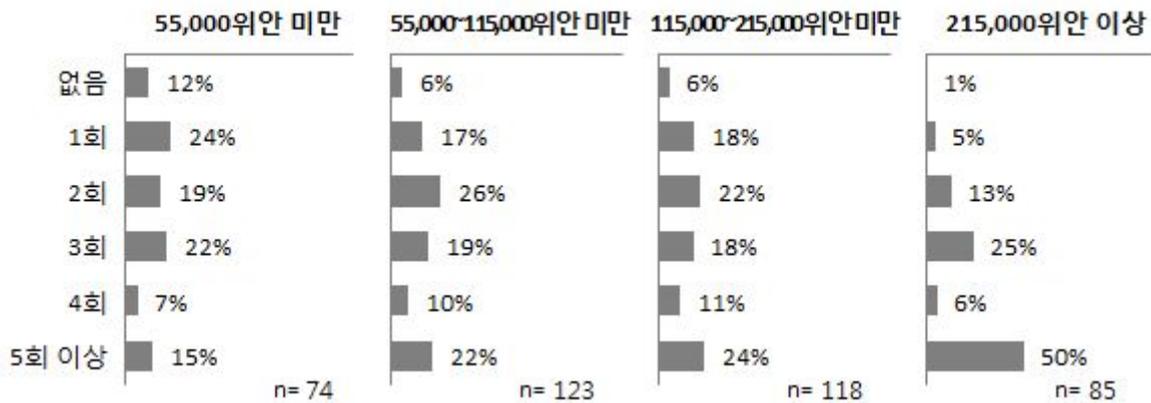
[성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캐주얼다이닝]



[연령대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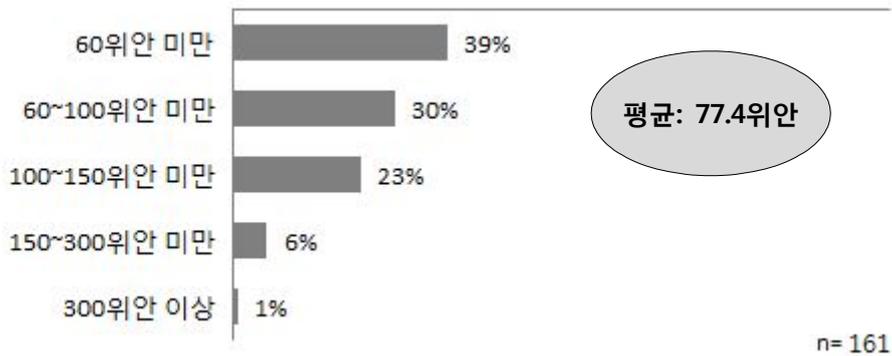
[연 소득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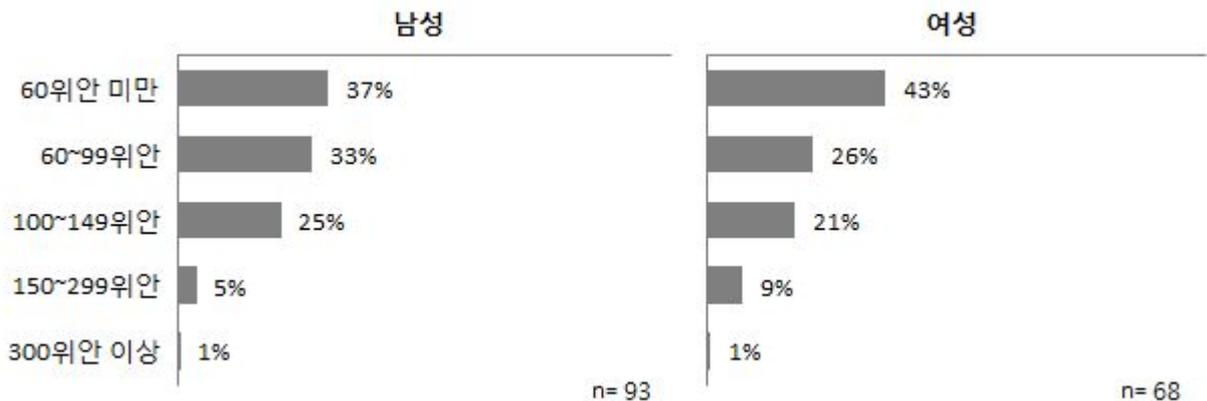
□ 1회당 외식 비용(1인 기준)

- 외식 비용으로 1회당 ‘60위안 미만’ 을 지출하는 소비자가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지출 비용이 많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성별 관계없이 외식 비용으로 1회당 ‘60위안 미만’ 을 지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이 여성보다 외식 비용을 근소하게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임.
- 연령층이 낮을수록 ‘캐주얼다이닝’ 에서 외식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20~30대는 1회당 외식 비용으로 ‘10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각각 45%, 38%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음.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캐주얼다이닝’ 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음.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의 50%이상은 외식 비용으로 ‘10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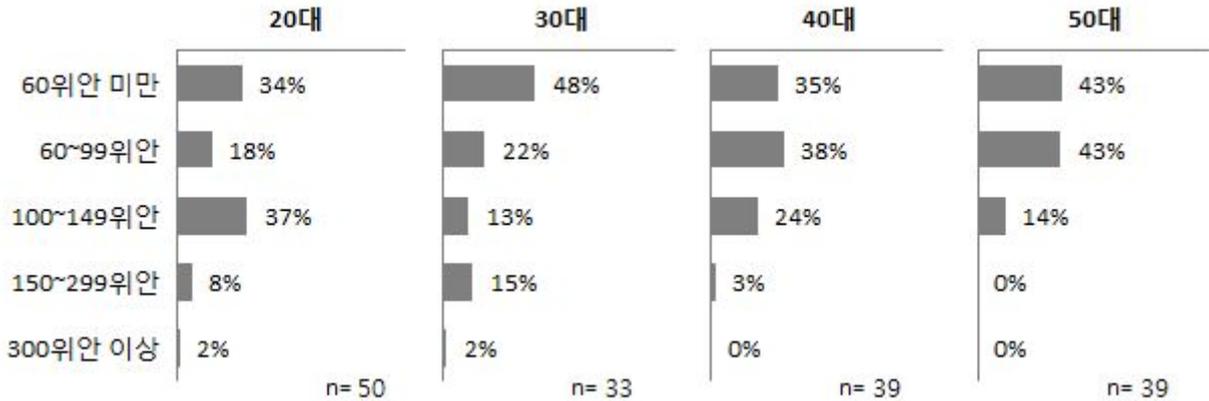
[1회당 외식 비용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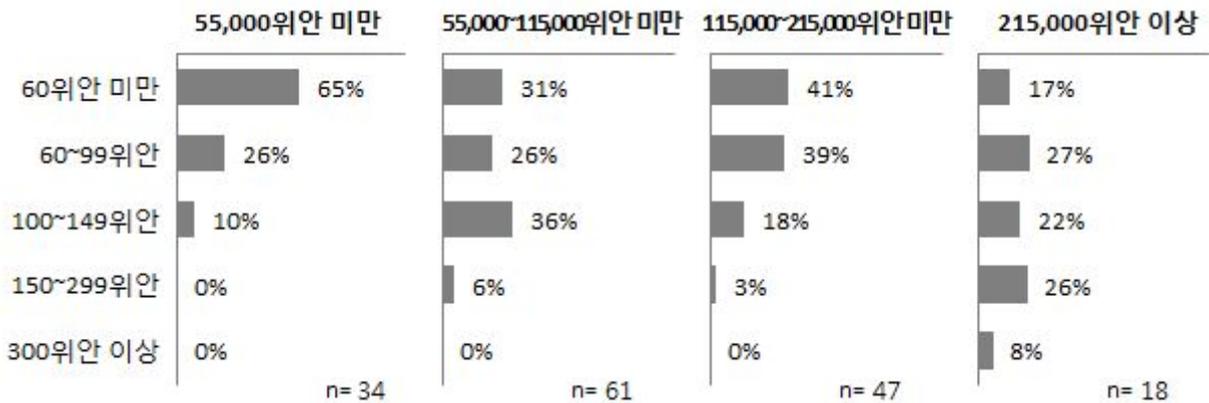
[성별 1회당 외식 비용 - 캐주얼다이닝]



[연령대별 1회당 외식 비용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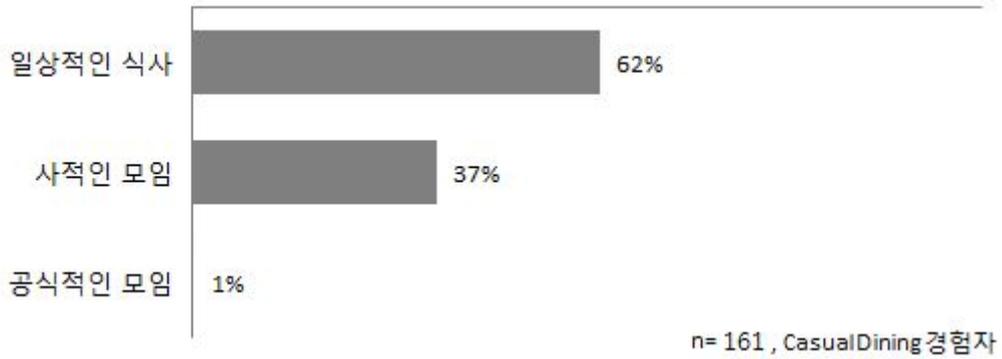
[연 소득별 1회당 외식 비용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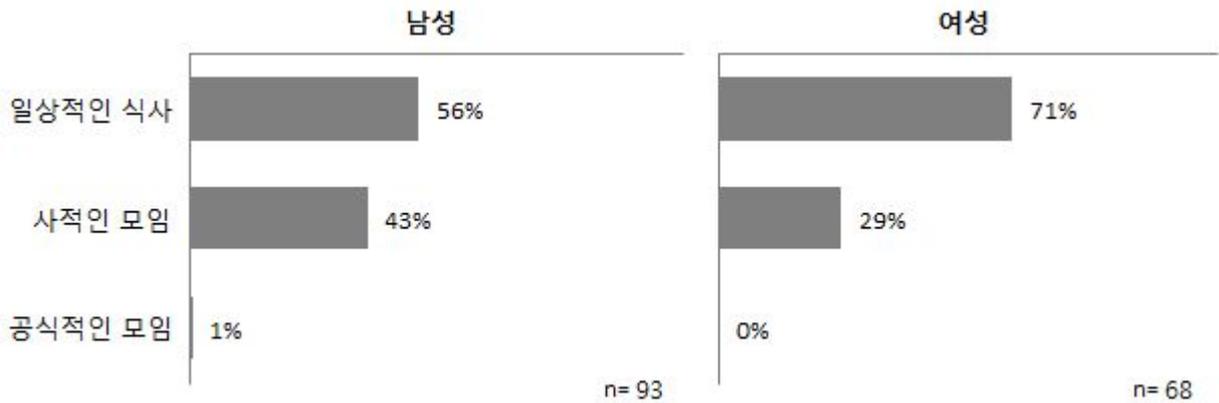
□ 외식당 방문 목적

- ‘캐주얼다이닝’에 방문하는 목적으로 ‘일상적인 식사’가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모임’의 목적보다 ‘일상적인 식사’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 성별 관계없이 ‘일상적인 식사’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이 남성보다 ‘일상적인 식사’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층 관계없이 ‘일상적인 식사’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30대가 ‘일상적인 식사’로 방문하는 비율은 74%로 타 목적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상적인 식사’의 목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인 소비자는 ‘일상적인 식사’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82%로 월등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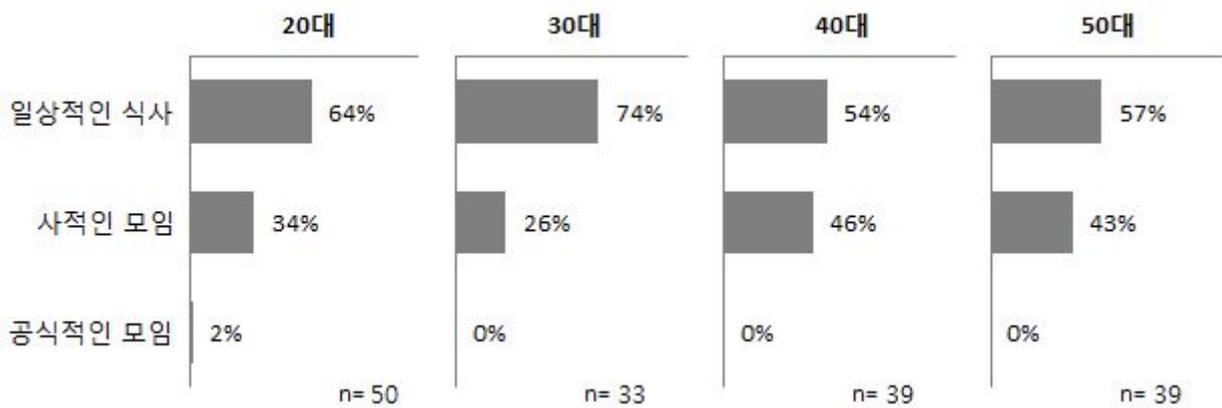
[외식당 방문 목적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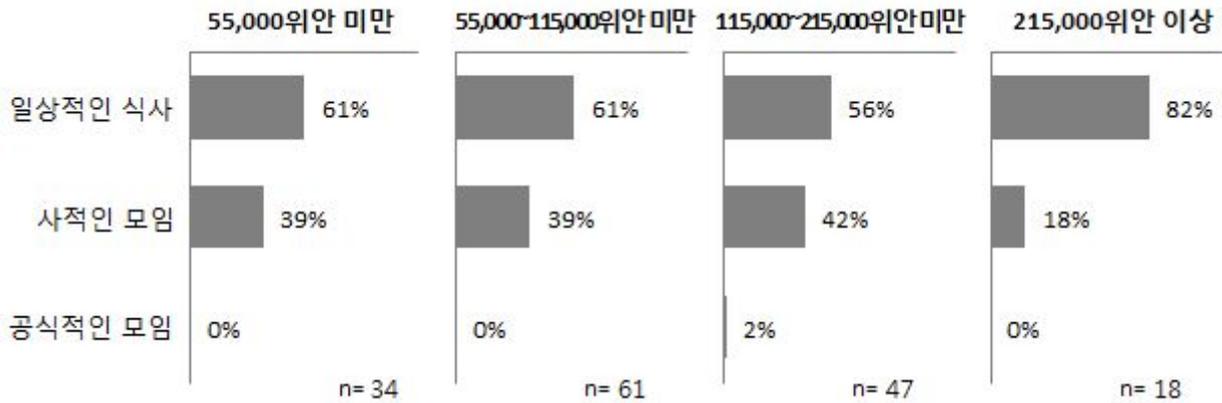
[성별 외식당 방문 목적 - 캐주얼다이닝]



[연령대별 외식당 방문 목적 - 캐주얼다이닝]



[연 소득별 외식당 방문 목적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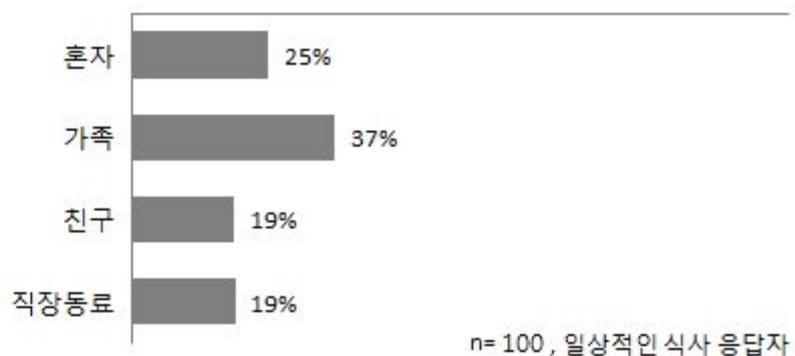


□ 외식당 방문 목적 별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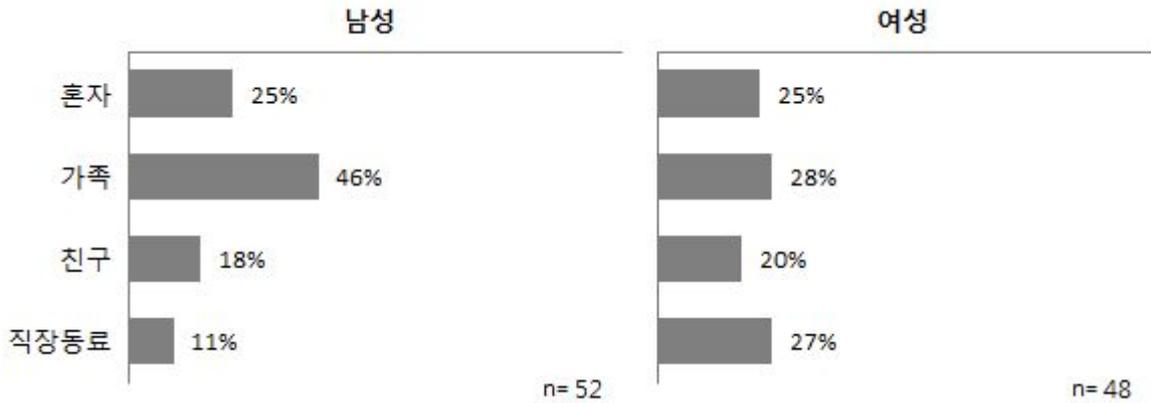
○ 일상적인 식사

- 일상적인 식사로 ‘가족’ 과 동행하여 외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혼자’ 방문하는 비율은 25%이며, ‘친구’ 나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은 19% 비율임.
- 성별 관계없이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이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46%로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20~30대는 외식당을 ‘혼자’ 방문하는 경향이 있으나, 40~50대는 ‘가족’ 과 동행하는 경향이 높음. 그 중 50대는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63%로 타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연 소득 ‘55,000~215,000위안’ 인 소비자는 ‘가족’ 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음. 그 외 소득층은 ‘직장동료’ 와 동행하여 외식당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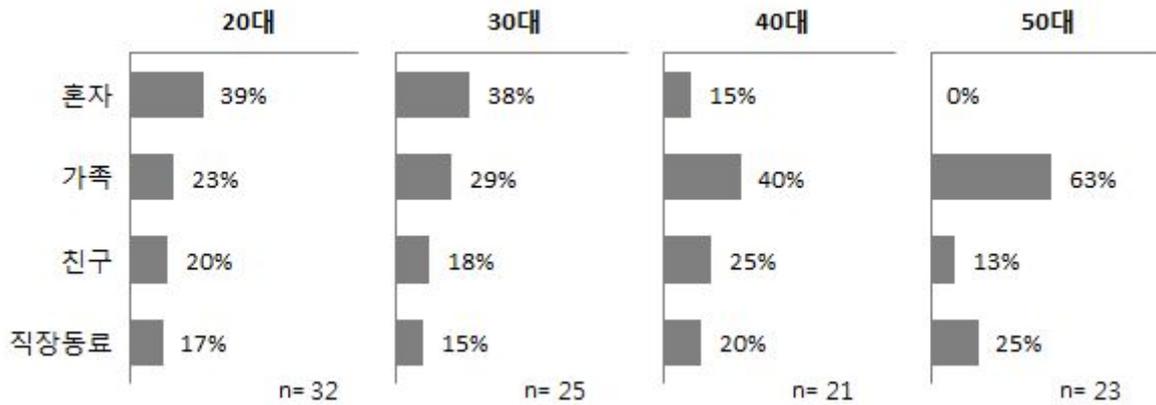
[외식당 방문 목적별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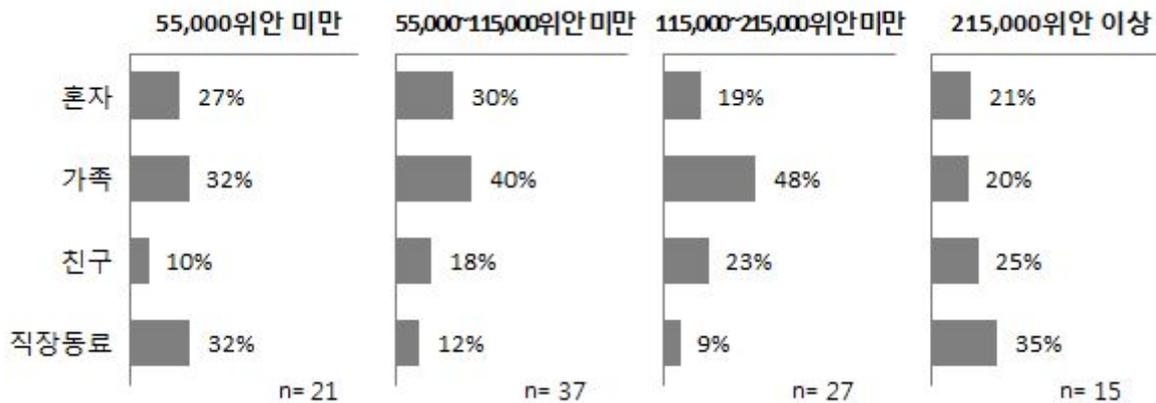
[성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연령대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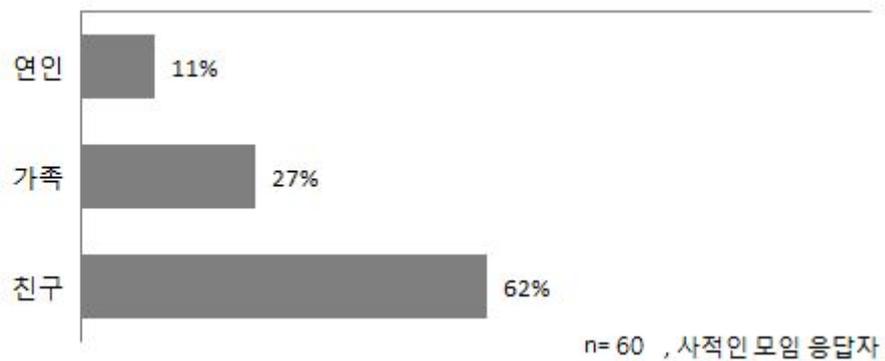
[연 소득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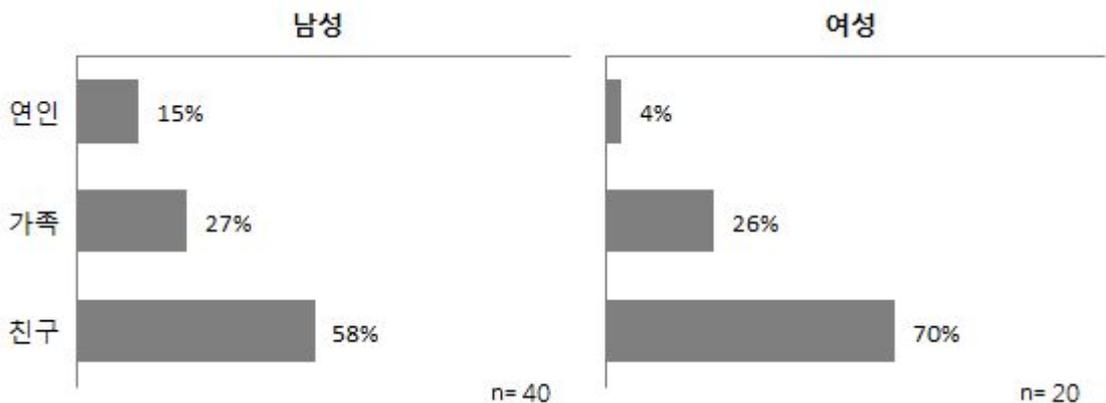
○ 사적인 모임

- 사적인 모임으로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은 62%이며, ‘가족’이나 ‘연인’과 동행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음.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은 27%, ‘연인’과 동행하는 비율은 11%임.
- 성별 관계없이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성이 남성보다 ‘친구’와 동행하는 경향이 높은 경향이 있음.
- 30~40대는 ‘친구’와 동행하는 경향이 월등히 높음. 20대는 ‘연인’과 동행하는 비율이 다소 높으며, 50대는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과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50%로 동일함.
- 연 소득이 낮을수록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반면에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인 소비자는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이 68%로 타 소득층에 비해 월등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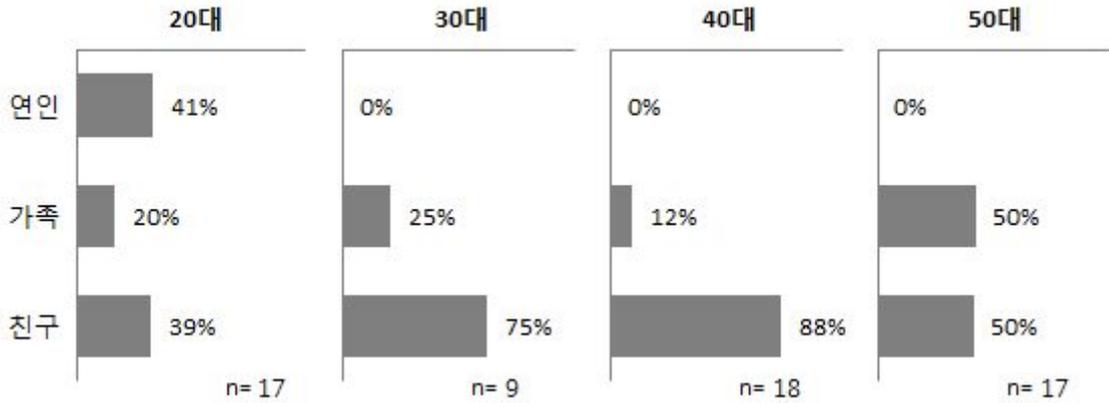
[사적인 모임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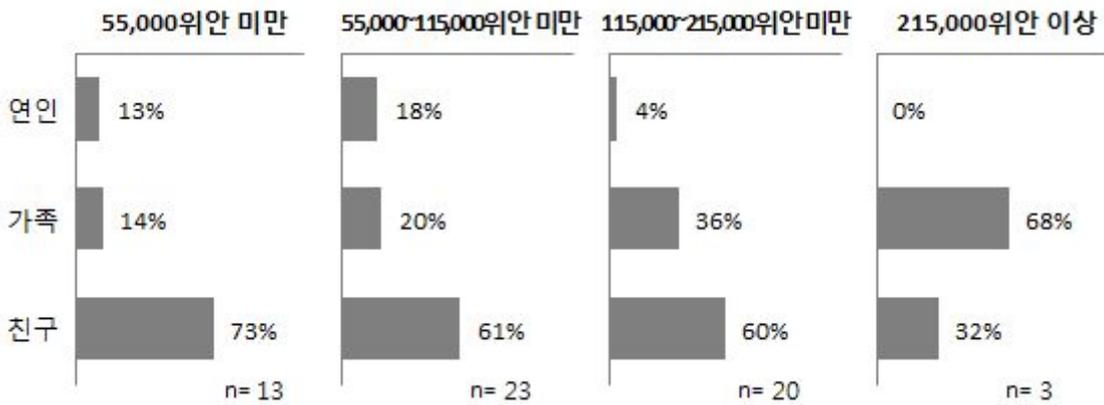
[성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연령대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연 소득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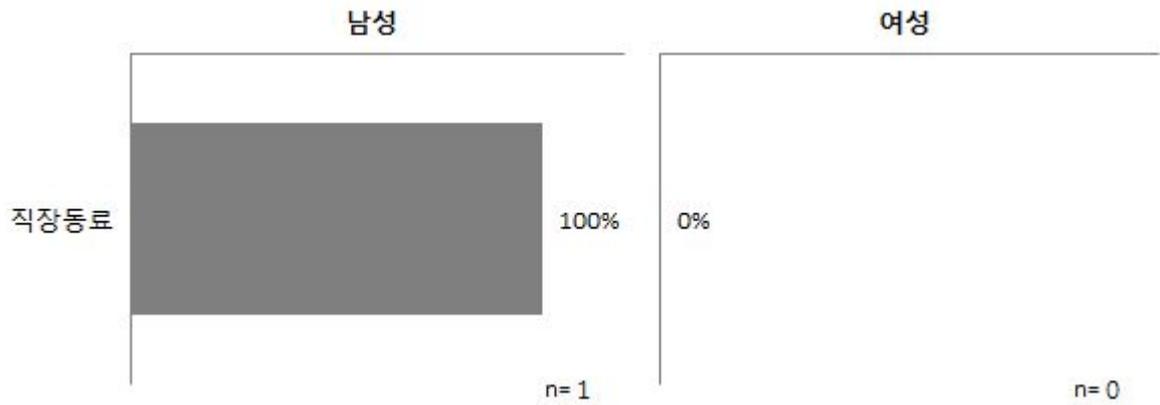
○ 공식적인 모임

- 공식적인 모임으로 ‘직장동료/상사’ 와 동행하는 비율이 100%임.
- 남성의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이 100%임.
- 20대의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이 100%임.
- 연 소득이 ‘115,000위안~215,000위안’ 인 소비자가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이 1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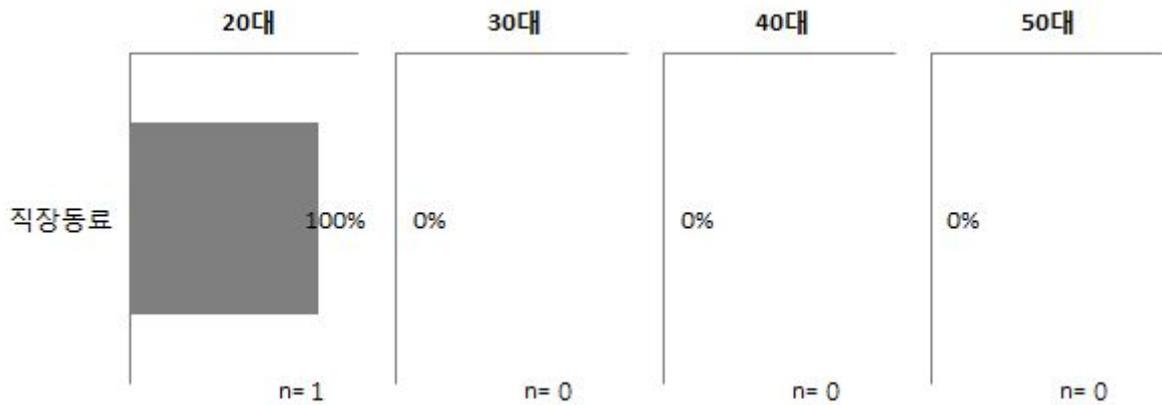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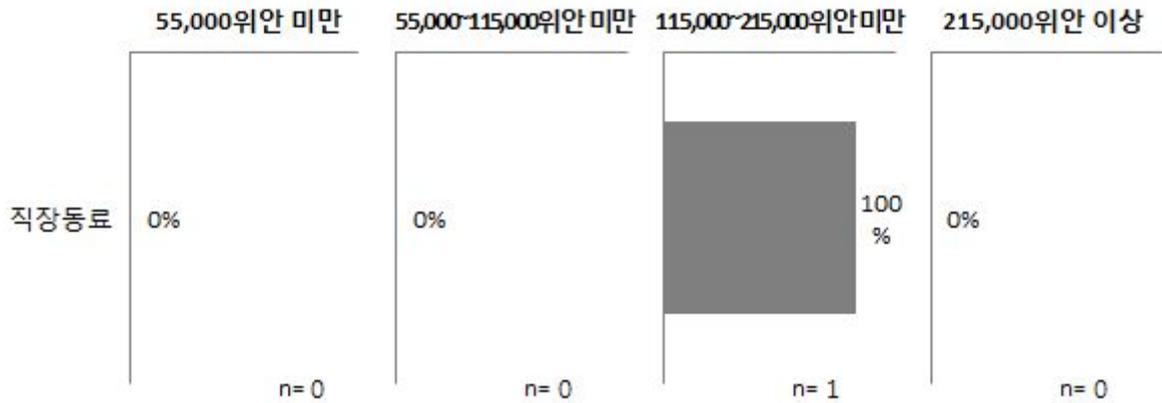
[성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연령대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연 소득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캐주얼다이닝]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캐주얼다이닝’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는 주로 ‘음식 수준’, ‘식당 수준’, ‘식당 시설’이며, 반면에 ‘가격’, ‘장소’, ‘서비스 수준’, ‘종업원 수준’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음식 수준’ 중에서 주로 ‘음식의 맛(55%)’ 과 ‘건강한 음식(42%)’ 을 주로 고려하며, 반면에 ‘다양한 메뉴(28%)’ 는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식당 수준’ 중에서 ‘위생상태(54%)’ 와 ‘식당의 평판(36%)’ 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 이벤트(10%)’ 는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식당 시설’ 중에서 ‘분위기(34%)’ 를 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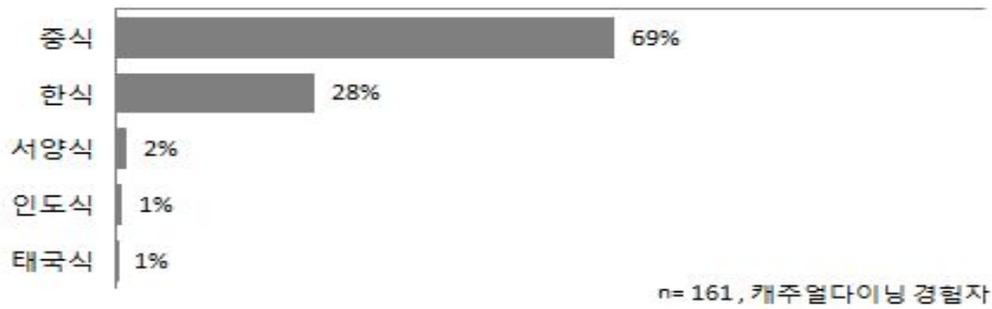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캐주얼다이닝]

항목	순위	세부 항목	비율
Product	1	음식의 맛	55%
	2	건강한 음식	42%
	3	음식의 양	29%
	4	다양한 메뉴	28%
Price	1	가격	27%
Place	1	식당의 접근성	27%
Promotion	1	식당(브랜드)의 평판 또는 이미지	36%
	2	가격할인	19%
	3	특별 이벤트(마술쇼, 밴드, 생일파티 등)	10%
Physical Evidence	1	식당의 위생상태	54%
	2	식당의 내부 분위기	34%
	3	식당의 외관	17%
	4	편의시설 (화장실, 놀이시설 등)	15%
	5	주차공간	10%
Process	1	편리한 서비스 (주문, 지불 등)	25%
	2	격식 있는 서비스	19%
	3	신속한 서비스	16%
People	1	종업원의 태도	17%
	2	종업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12%
	3	종업원의 용모	6%
	4	종업원/식당 주인과의 개인적 관계	2%
	5	인지도 있는 경영주/종업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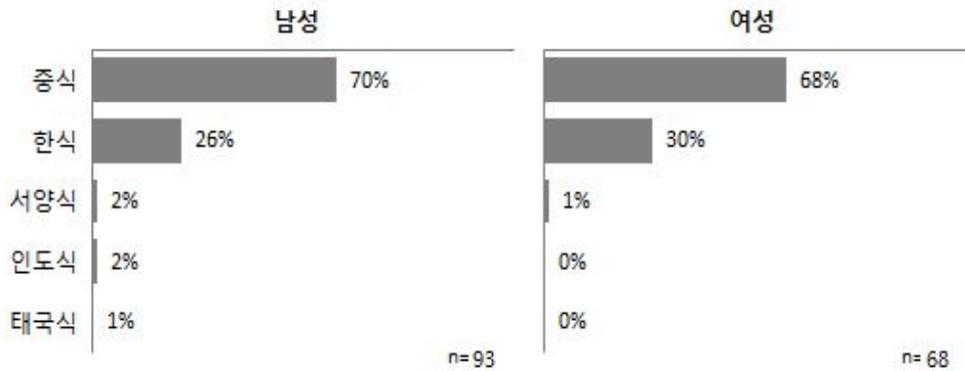
□ 자주 가는 에스닉

- 소비자가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은 ‘중식’ 식당이 69%이며, 타 에스닉 식당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은 28%이며, 그 외 에스닉 식당은 미비한 수준임.
- 성별 관계없이 ‘중식’ 식당을 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중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다소 높음.
- 연령층 관계없이 ‘중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타 에스닉 식당의 방문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0대는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37%로 타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는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71%로 타 에스닉 식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향이 있음. 반면에 그 외 소득층은 ‘중식’ 식당을 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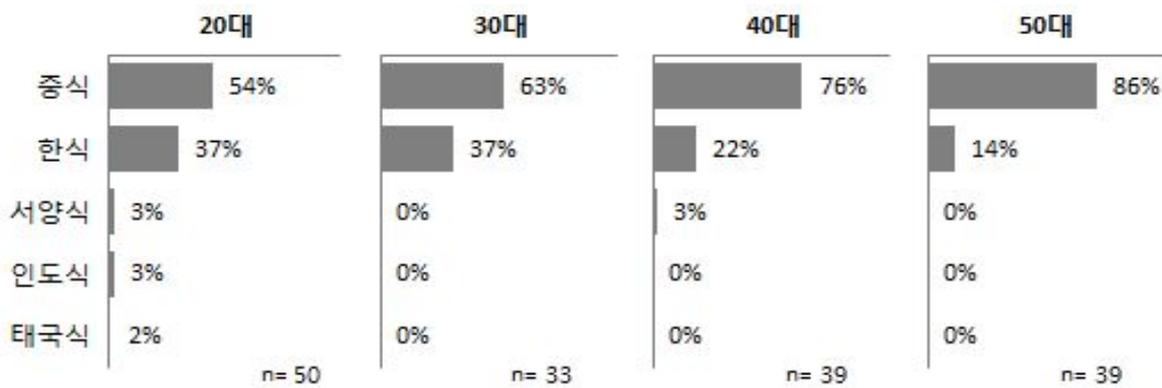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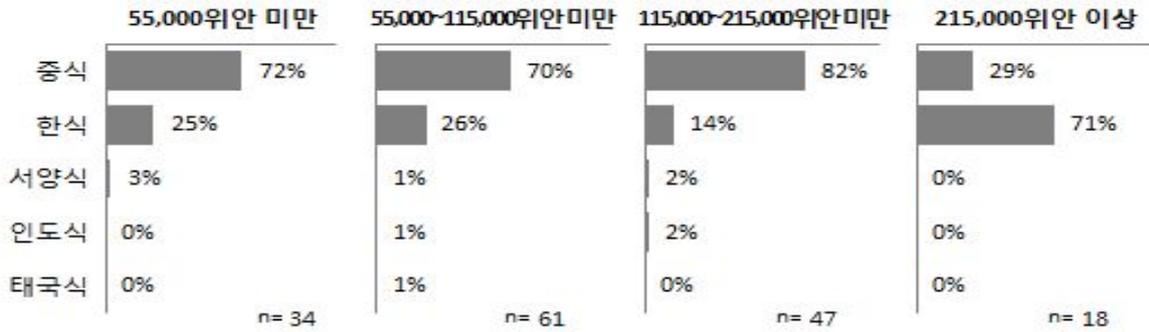
[성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캐주얼다이닝]



[연령대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캐주얼다이닝]



[연 소득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캐주얼다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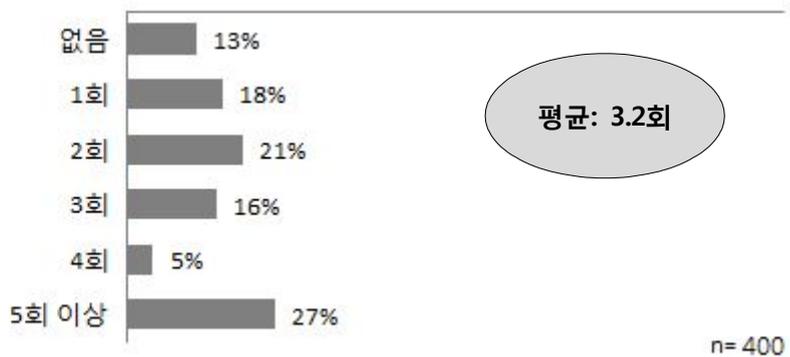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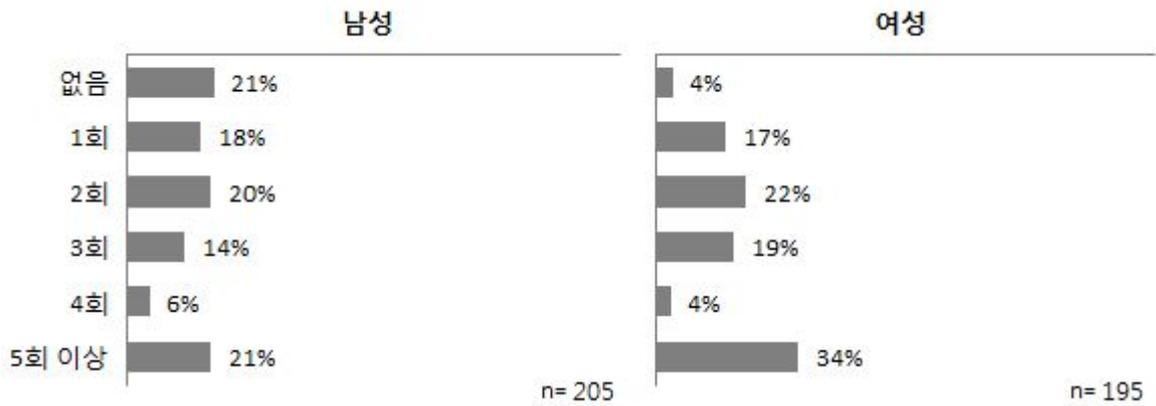
다) 패스트푸드

□ 월 평균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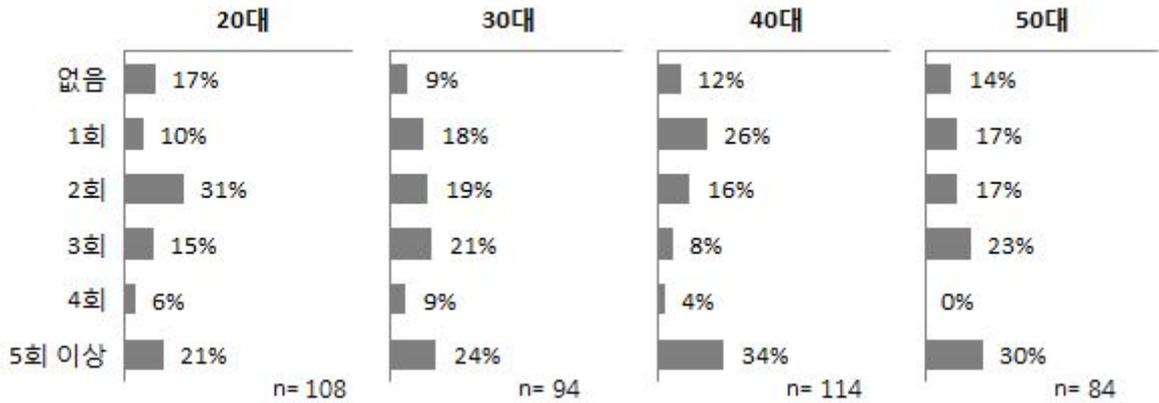
- ‘패스트푸드’에 방문하는 소비자는 월 평균 5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소비자의 약 50%는 월 평균 3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관계없이 월 평균 5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여성이 남성보다 ‘패스트푸드’에 방문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음.
- 40대의 ‘패스트푸드’의 방문 횟수가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은 경향이 있음. 반면에 20대는 월 평균 2회 이하 방문하는 비율이 58%로 타 연령층보다 드물게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패스트푸드’를 자주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215,000위안 이상’의 소득층은 월 평균 5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47%임.

[월 평균 방문 횟수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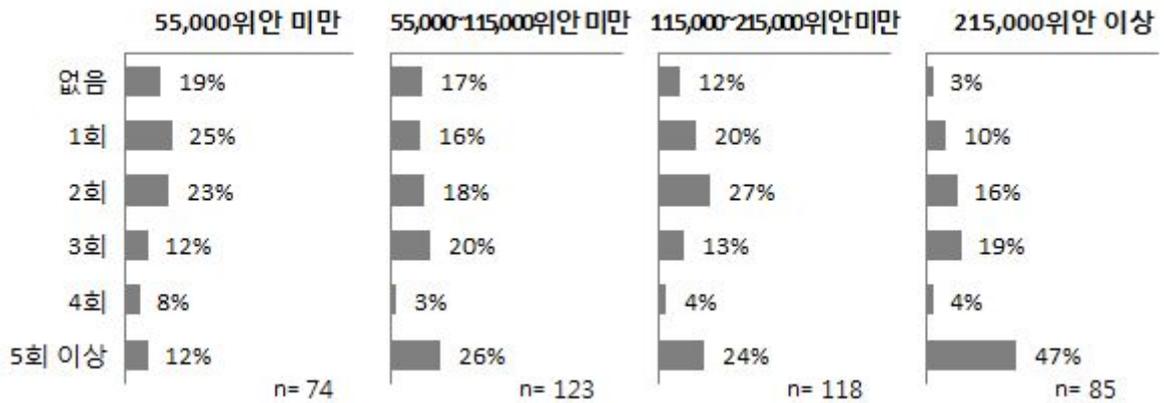




[연령대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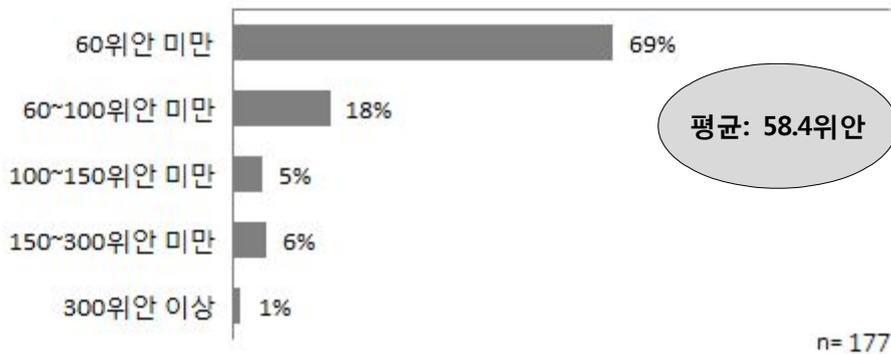
[연 소득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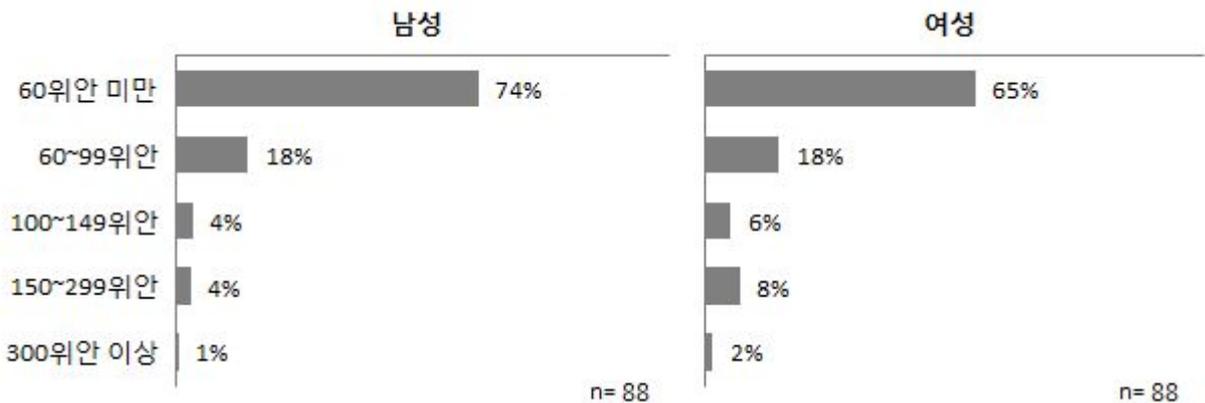
□ 1회당 외식 비용(1인 기준)

- 외식 비용으로 1회당 ‘60위안 미만’ 을 지출하는 소비자가 69%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지출 비용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임.
- 여성이 남성보다 외식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임. 여성은 외식 비용으로 1회당 ‘60위안 미만’ 을 지출하는 비율이 65%로 가장 높음.
- 연령층 관계없이 외식 비용으로 1회당 ‘60위안 미만’ 을 지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지출 비용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50대가 타 연령층보다 외식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60위안 미만’ 을 지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215,000위안 이상’ 의 소득층이 타 소득층보다 외식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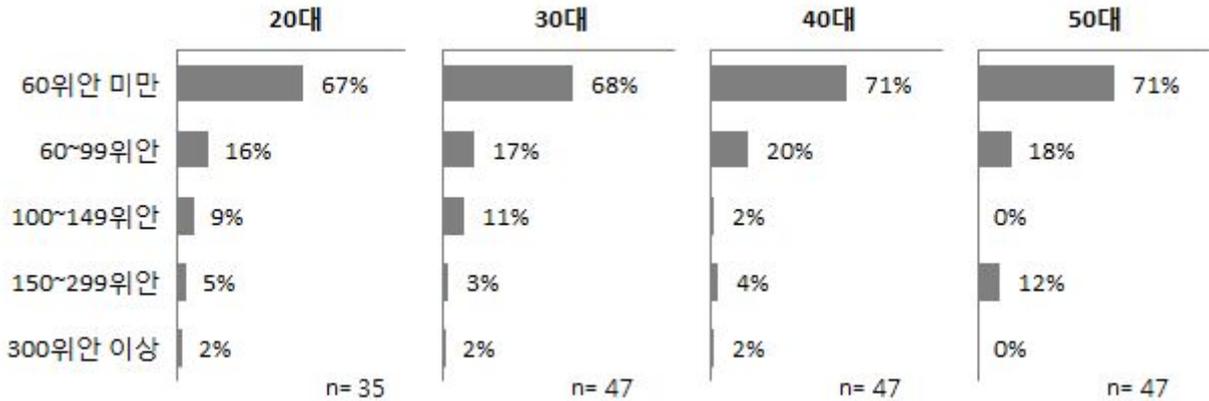
[1회당 외식 비용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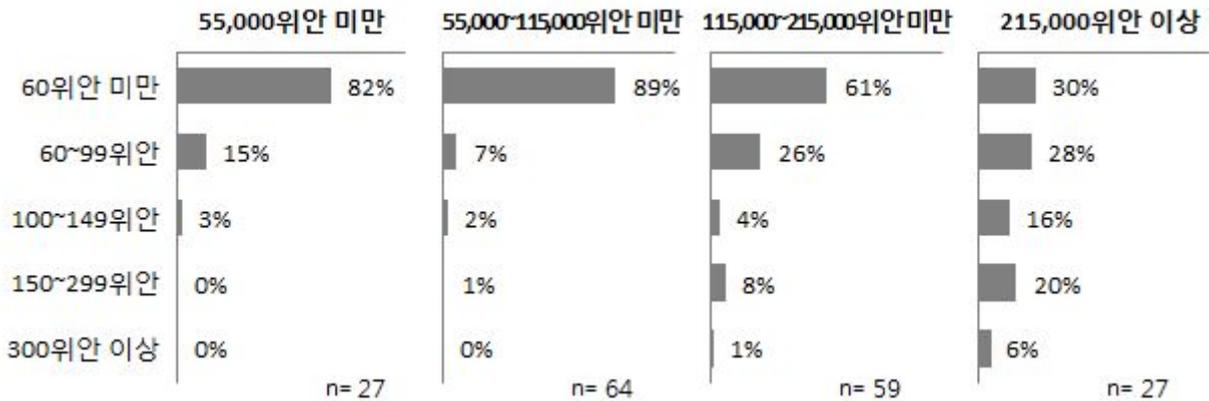
[성별 1회당 외식 비용 - 패스트푸드]



[연령대별 1회당 외식 비용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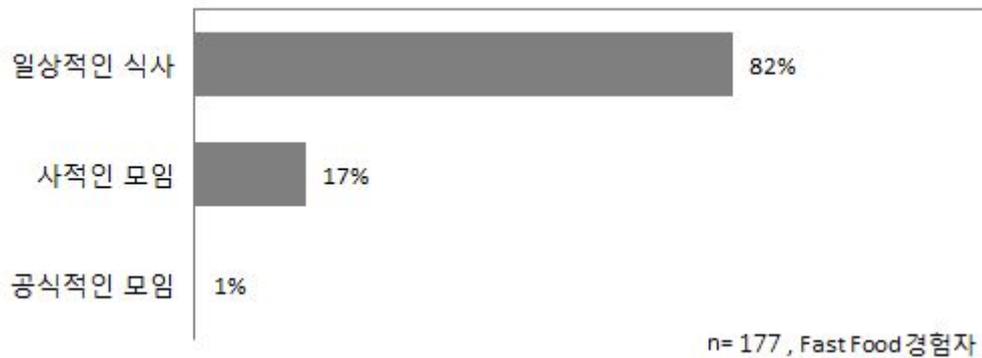
[연 소득별 1회당 외식 비용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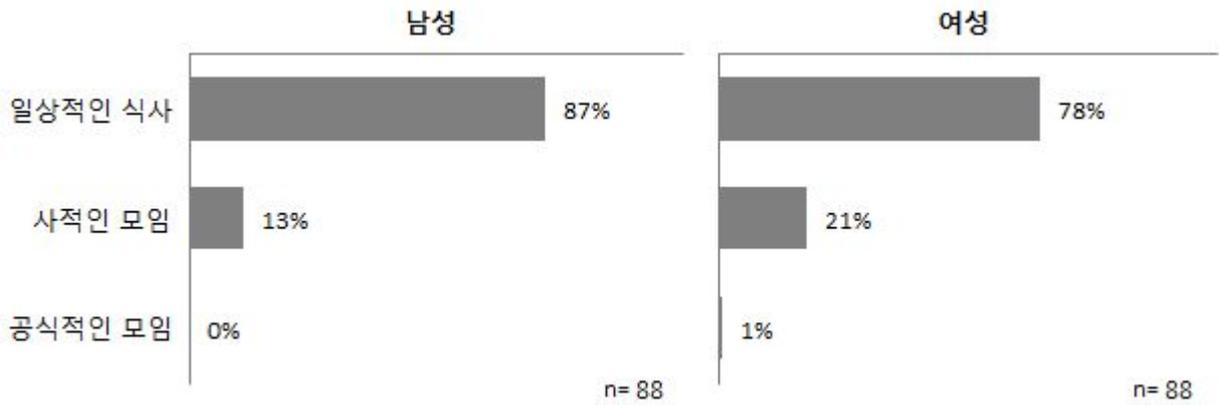
□ 외식당 방문 목적

- ‘패스트푸드’ 를 방문하는 목적으로 ‘일상적인 식사’ 가 82%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사적인 모임’ 이 17%이며, ‘공식적인 모임’ 이 1%임.
- 성별 관계없이 ‘일상적인 식사’ 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사적인 모임’ 으로 식당을 방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연령층 관계없이 ‘일상적인 식사’ 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뚜렷함. 50대의 비율이 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20대는 ‘사적인 모임’ 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26%로 타 연령층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상적인 식사’ 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215,000위안 이상’ 의 소득층이 타 소득층에 비해 ‘사적인 모임’ 의 목적으로 ‘패스트푸드’ 에 방문하는 경향이 다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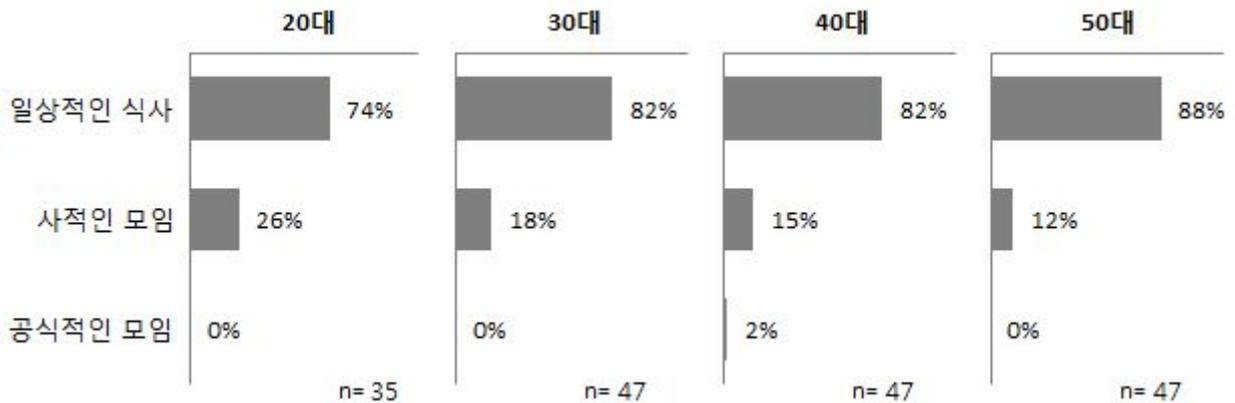
[외식당 방문 목적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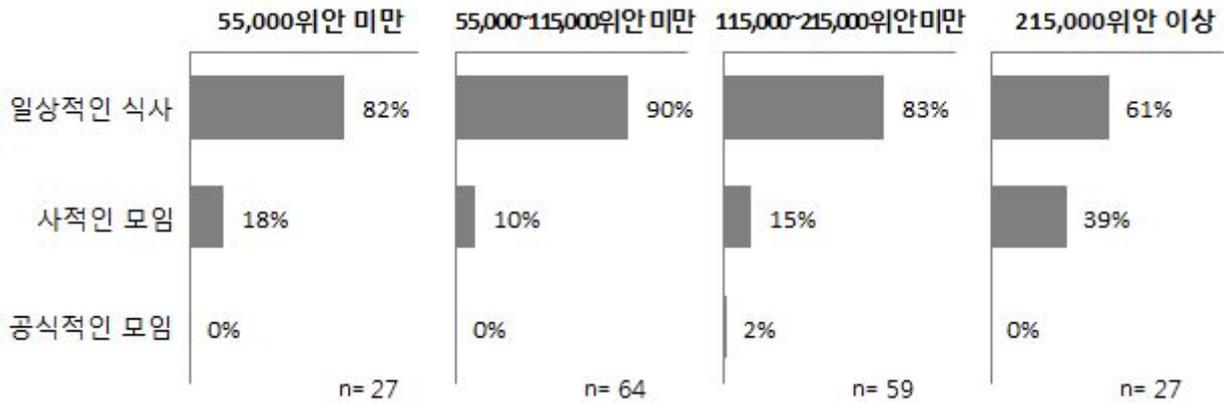
[성별 외식당 방문 목적 - 패스트푸드]



[연령대별 외식당 방문 목적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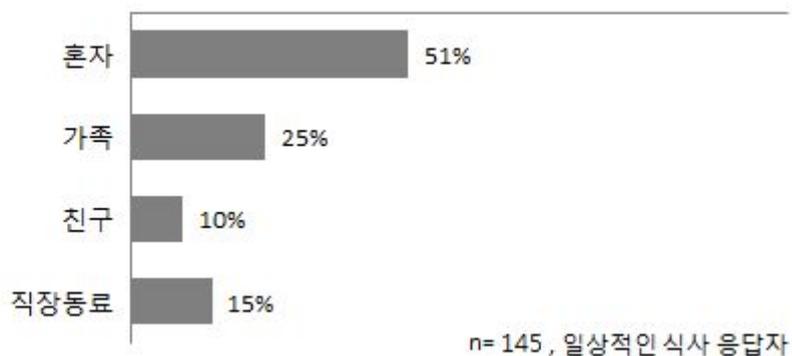
[연 소득별 외식당 방문 목적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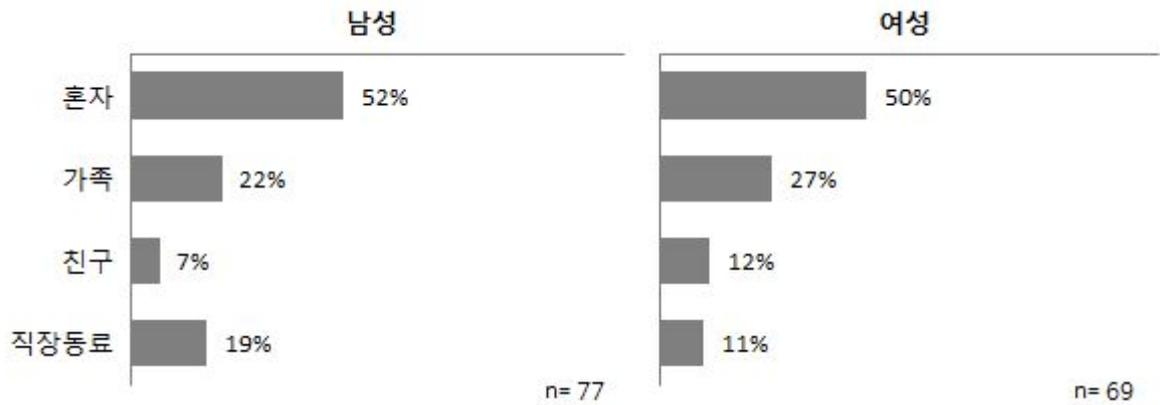
○ 일상적인 식사

- 일상적인 식사로 ‘혼자’ 외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은 25%,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은 15% 비율임.
- 성별 관계없이 ‘혼자’ 외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여성은 ‘가족’ 과 방문하는 비율이 27%로 남성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함. 반대로 남성은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층 관계없이 ‘혼자’ 외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연 소득이 ‘55,000위안 이상’ 인 소득층은 ‘가족’ 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음. 그 외 소득층은 ‘혼자’ 방문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 ‘115,000~215,000위안’ 인 소득층의 ‘혼자’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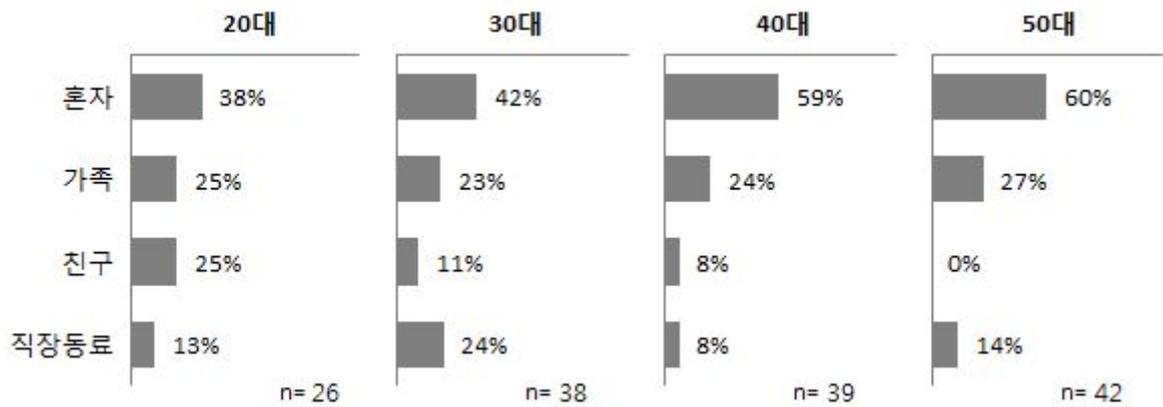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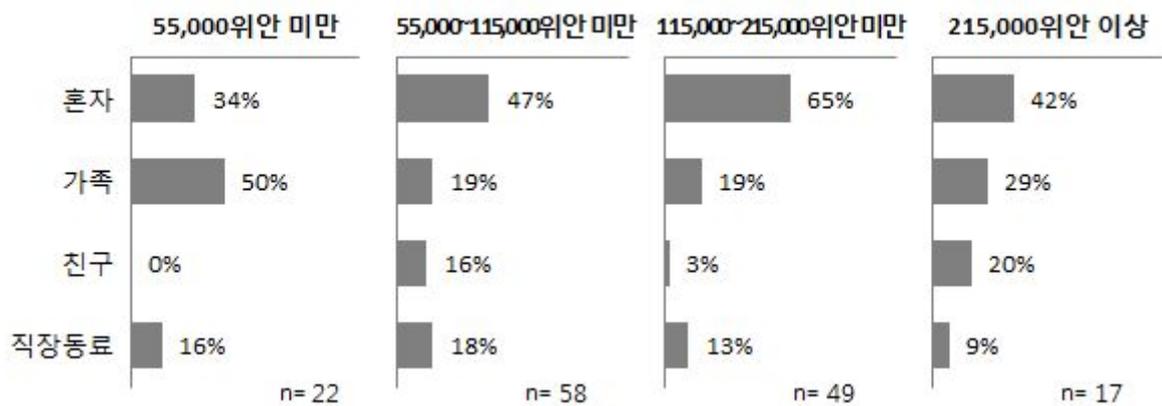
[성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패스트푸드]



[연령대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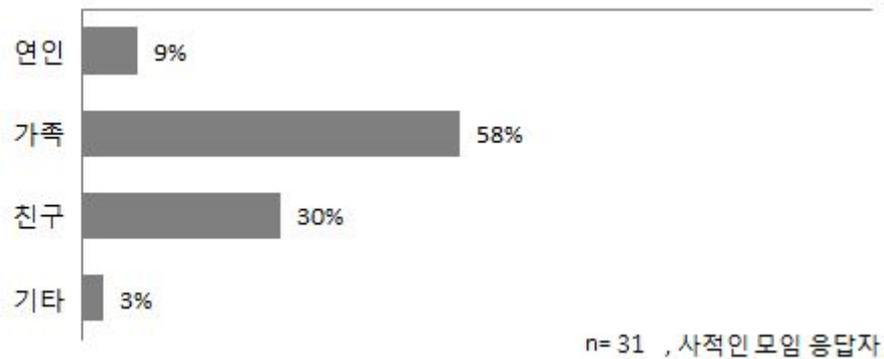
[연 소득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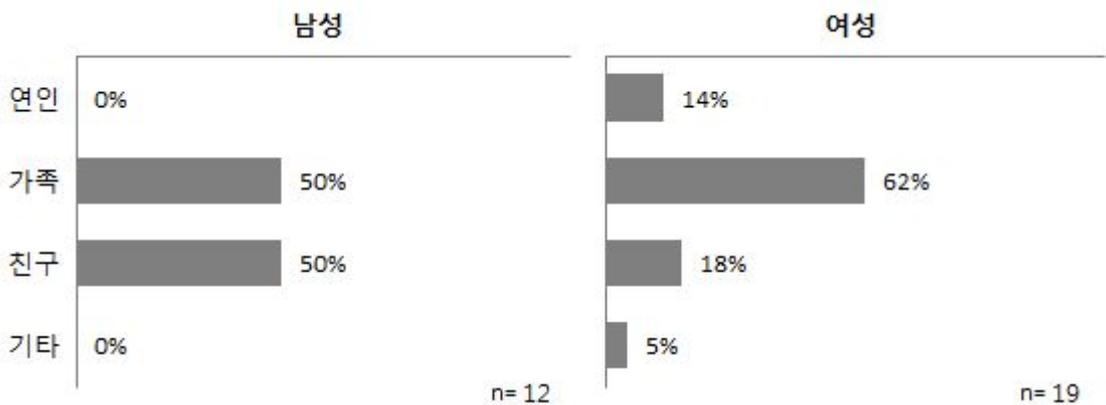
○ 사적인 모임

- 사적인 모임으로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은 30%, ‘연인’ 과 동행하는 비율은 9%임.
- 여성은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에 남성은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과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이 동일하게 50%임.
- 40대는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이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타 연령층은 ‘가족’ 과 동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연 소득 ‘55,000위안 미만’ 인 소득층은 ‘친구’ 와 방문하는 비율이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반면에 그 외 소득층은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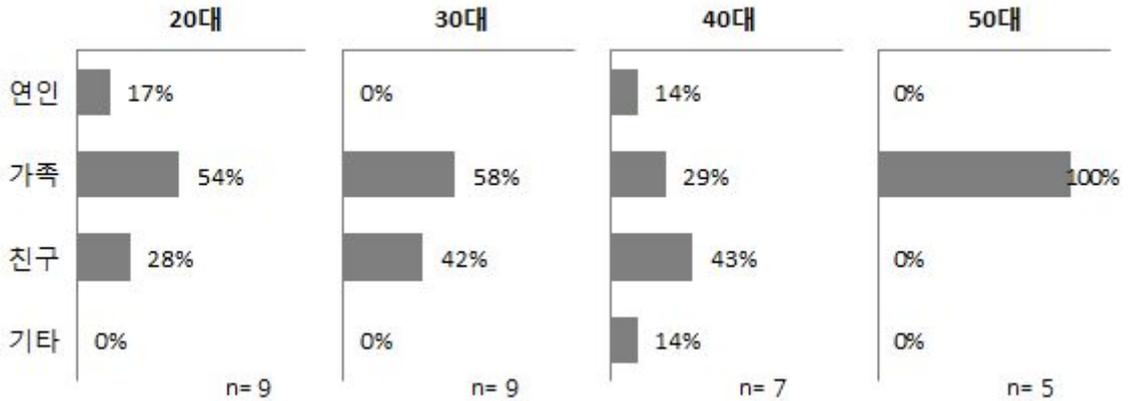
[사적인 모임 동행인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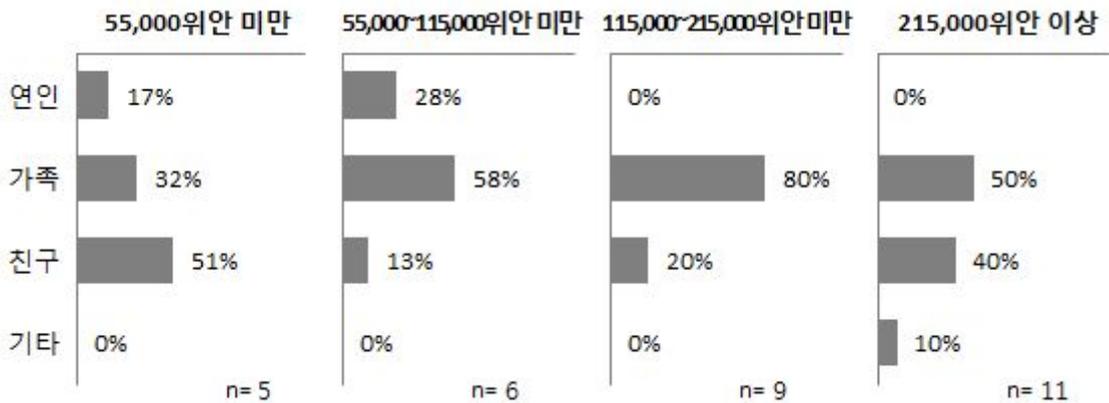
[성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패스트푸드]



[연령대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패스트푸드]



[연 소득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패스트푸드]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패스트푸드’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는 주로 ‘음식 수준’, ‘식당 수준’, ‘식당 시설’, ‘장소’이며, 반면에 ‘가격’, ‘서비스 수준’, ‘종업원 수준’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음식 수준’ 중에서 주로 ‘음식의 맛(60%)’ 과 ‘건강한 음식(51%)’ 을 주로 고려하며, 반면에 ‘음식의 양(27%)’ 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식당 수준’ 중에서 ‘위생상태(46%)’ 와 ‘식당의 평판(31%)’ 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 이벤트(12%)’ 는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그 외에도 식당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로 ‘장소’ 가 31%의 비율로 기타 고려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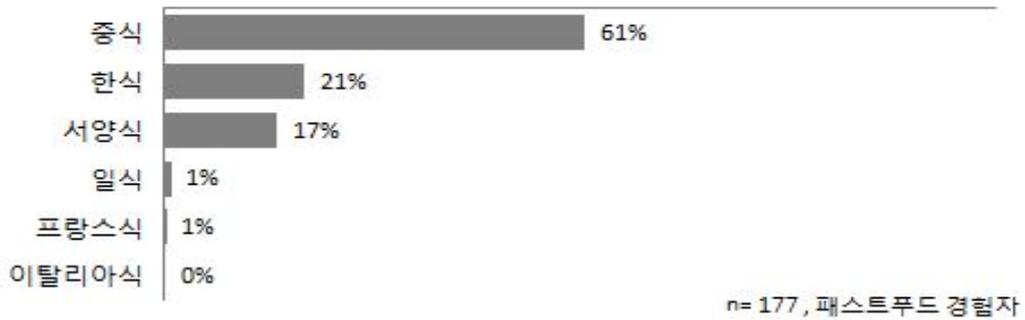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패스트푸드]

항목	순위	세부 항목	비율
Product	1	음식의 맛	60%
	2	건강한 음식	51%
	3	다양한 메뉴	37%
	4	음식의 양	27%
Price	1	가격	21%
Place	1	식당의 접근성	31%
Promotion	1	식당(브랜드)의 평판 또는 이미지	31%
	2	가격할인	16%
	3	특별 이벤트(마술쇼, 밴드, 생일파티 등)	12%
Physical Evidence	1	식당의 위생상태	46%
	2	식당의 내부 분위기	20%
	3	편의시설 (화장실, 놀이시설 등)	12%
	4	식당의 외관	10%
	5	주차공간	6%
Process	1	신속한 서비스	35%
	2	편리한 서비스 (주문, 지불 등)	31%
	3	격식 있는 서비스	16%
People	1	종업원의 태도	15%
	2	종업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12%
	3	종업원의 용모	8%
	4	인지도 있는 경영주/종업원	1%
	5	종업원/식당 주인과의 개인적 관계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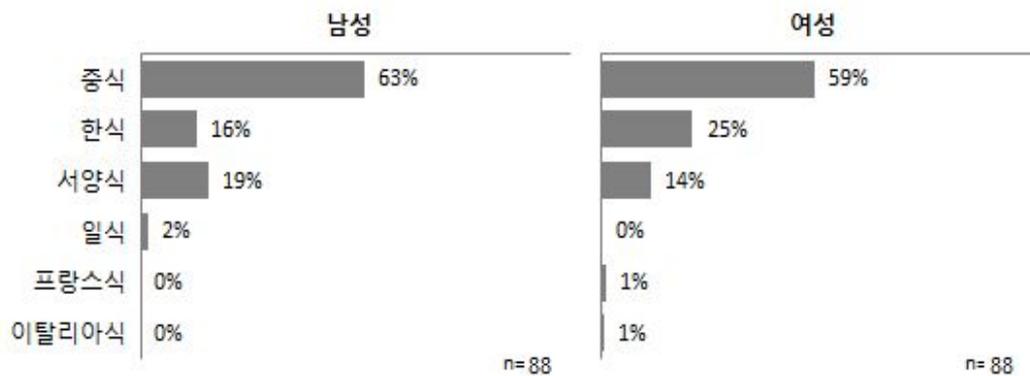
□ 자주 가는 에스닉

- 소비자가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은 ‘중식’ 식당이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은 21%이며, ‘서양식’ 식당은 17%로 기타 에스닉 식당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성별 관계없이 ‘중식’ 식당을 주로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은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
- 연령층 관계없이 ‘중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5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30대와 50대로 각각 25%, 23%를 차지함.
- 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중식’ 식당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식’ 식당에 방문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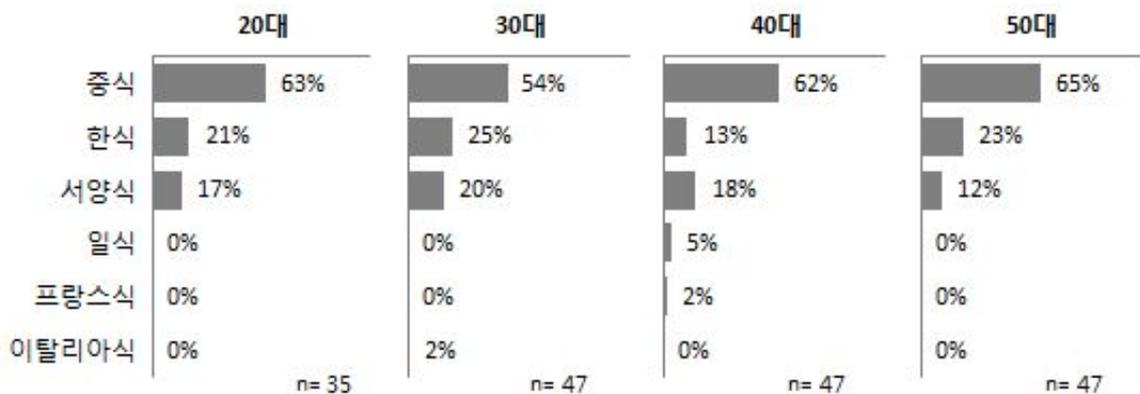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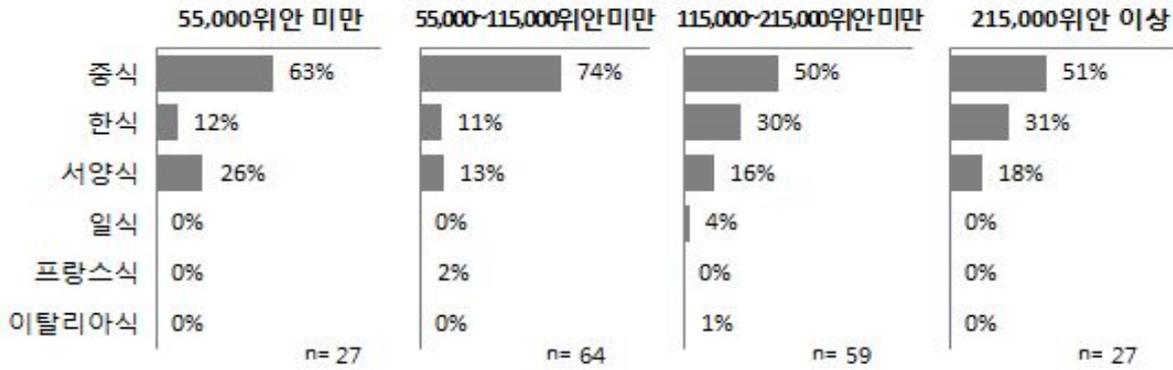
[성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패스트푸드]



[연령대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패스트푸드]



[연 소득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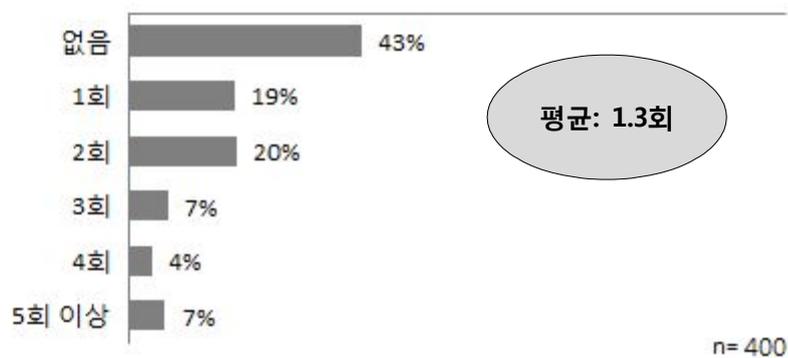


라)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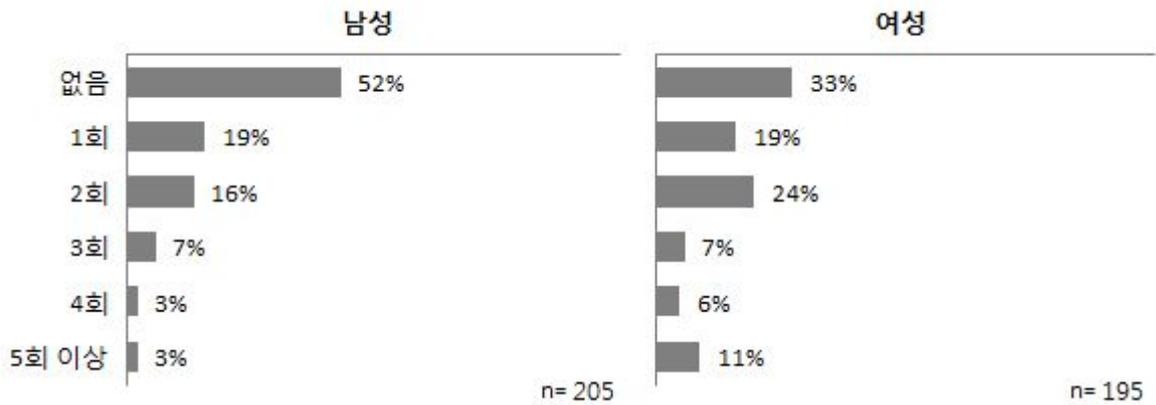
□ 월 평균 방문 횟수

- ‘카페/바’에 월 평균 2회 이하로 방문하는 비율이 61%이며, 그 중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의 비율이 43%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이 남성보다 ‘카페/바’를 더 자주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 소비자의 약 50%가 월 평균 2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층이 낮을수록 ‘카페/바’에 방문하는 횟수가 많은 경향이 있음. 50대의 67%는 ‘카페/바’에 방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카페/바’에 더 자주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215,000위안 이상’의 소득층은 월 평균 5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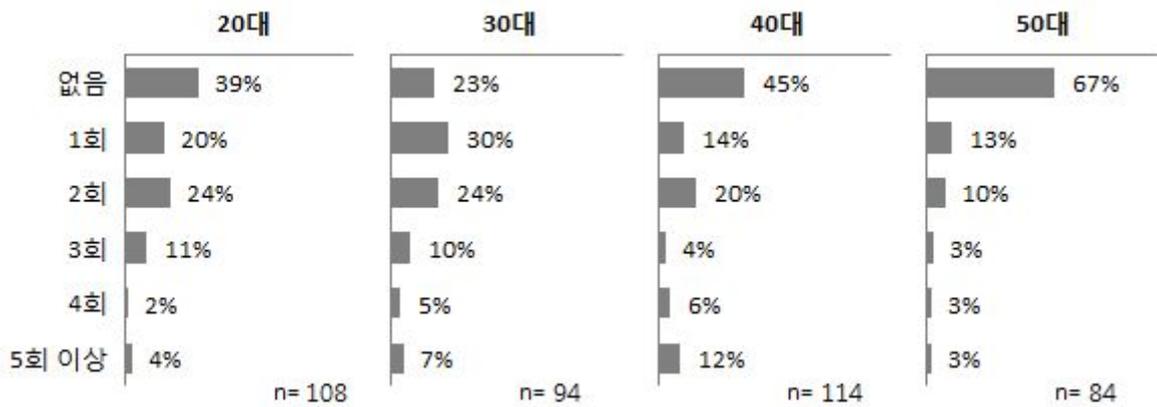
[월 평균 방문 횟수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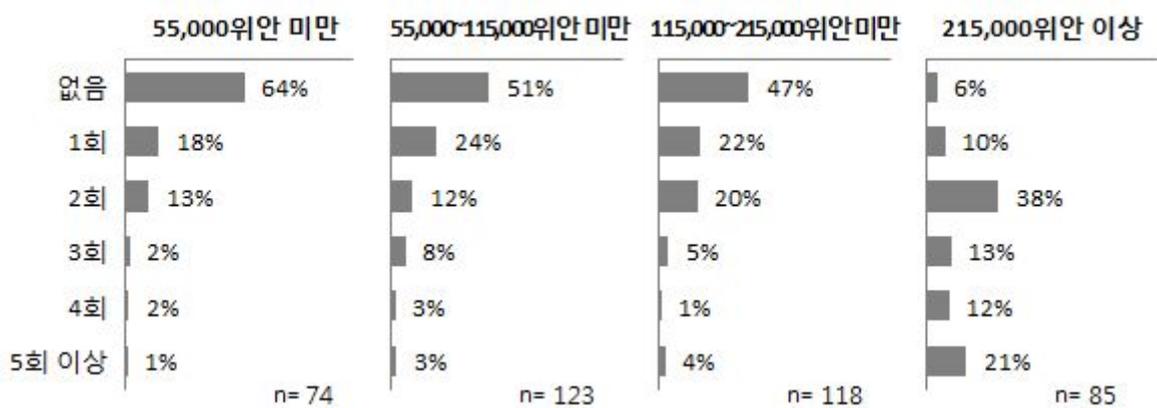
[성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카페/바]



[연령대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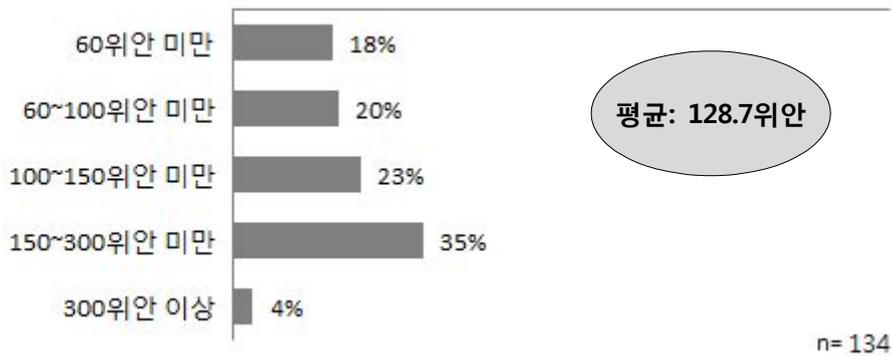
[연 소득별 월 평균 외식 횟수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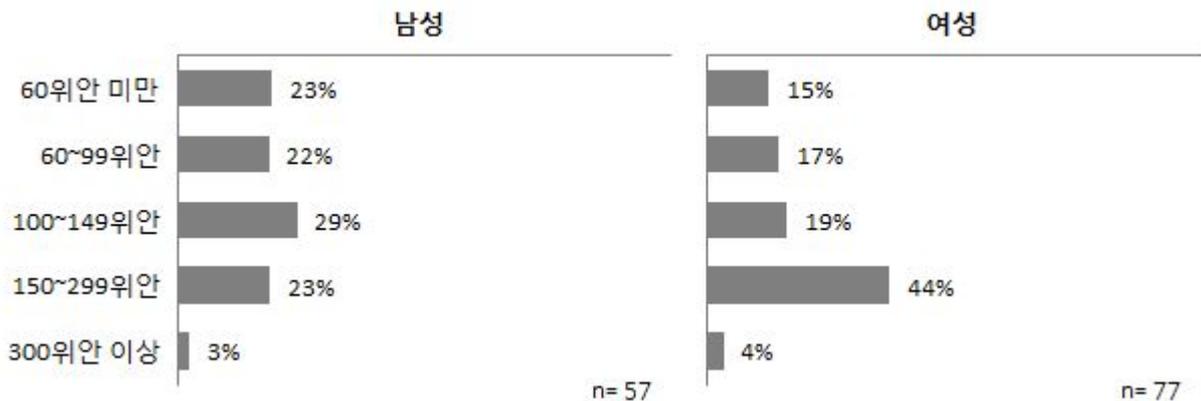
□ 1회당 외식 비용(1인 기준)

- 외식 비용으로 1회당 ‘60~300위안’ 의 가격대에서 소비자 분포가 고르게 나타남. 그 중 ‘150~300위안’ 을 지출하는 소비자가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성별 관계없이 지출 비용이 ‘300위안 미만’ 인 가격대에서는 비용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여성이 남성보다 ‘카페/바’ 에서 외식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임.
- 연령층이 높을수록 1회당 외식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그 중 50대는 1회당 ‘150~300위안’ 을 지출하는 비율이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는 1회당 외식 비용으로 ‘15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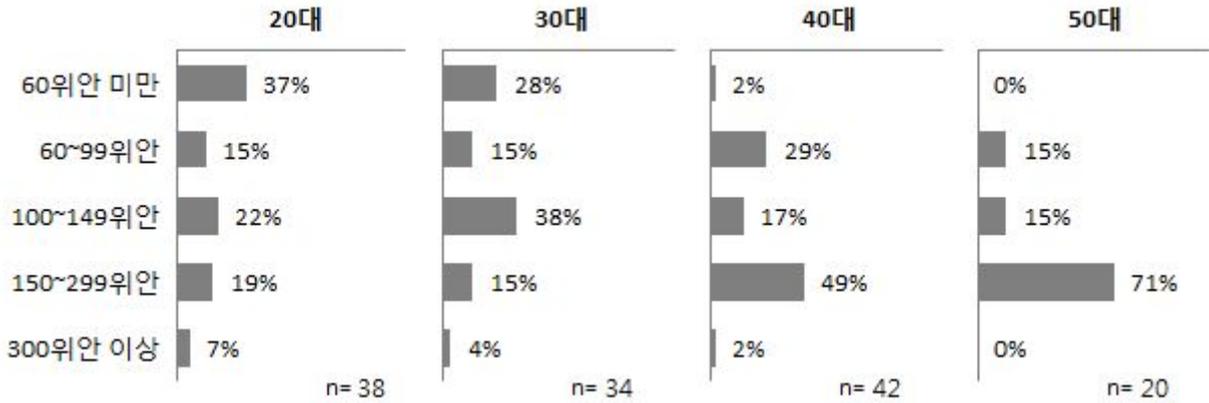
[1회당 외식 비용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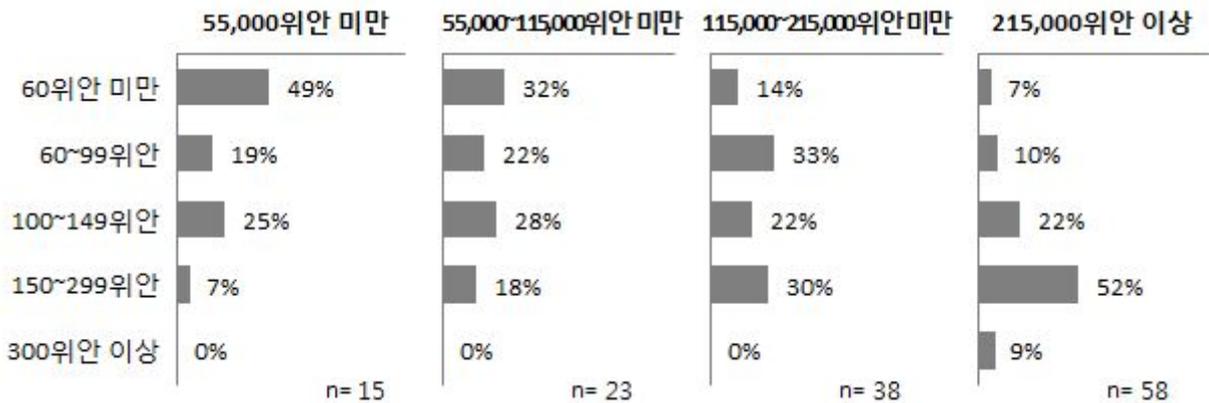
[성별 1회당 외식 비용 - 카페/바]



[연령대별 1회당 외식 비용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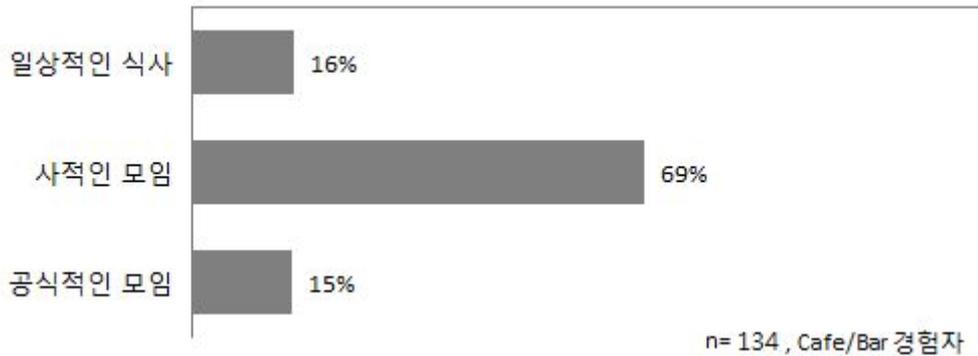
[연 소득별 1회당 외식 비용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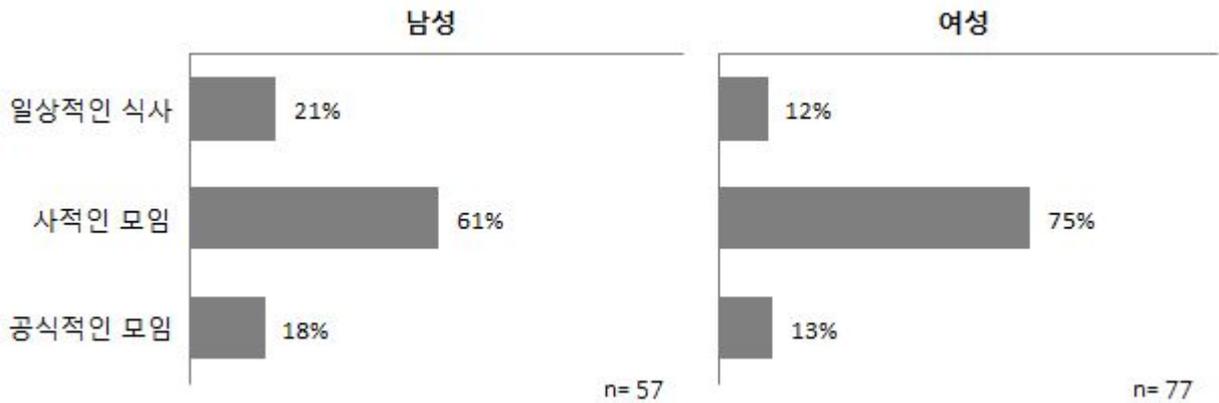
□ 외식당 방문 목적

- ‘카페/바’ 를 방문하는 목적으로 ‘사적인 모임’ 이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일상적인 식사’ 인 경우가 16%이며, ‘공식적인 모임’ 이 15%임.
- 성별 관계없이 ‘사적인 모임’ 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높음. 그 중 여성이 ‘사적인 모임’ 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층 관계없이 ‘사적인 모임’ 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향이 뚜렷함. 40대는 ‘공식적인 모임’ 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29%로 타 연령층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적인 모임’ 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약 70% 수준임.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는 ‘공식적인 모임’ 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26%로 타 소득층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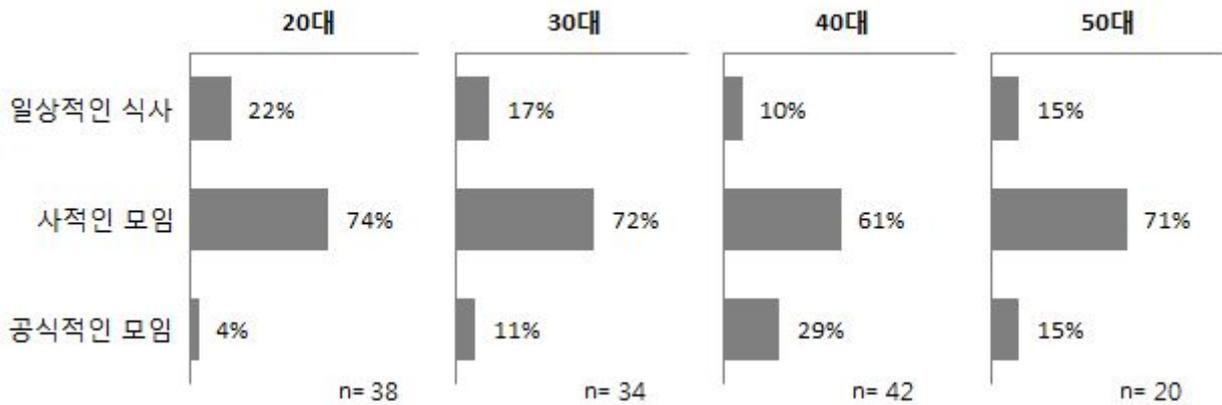
[외식당 방문 목적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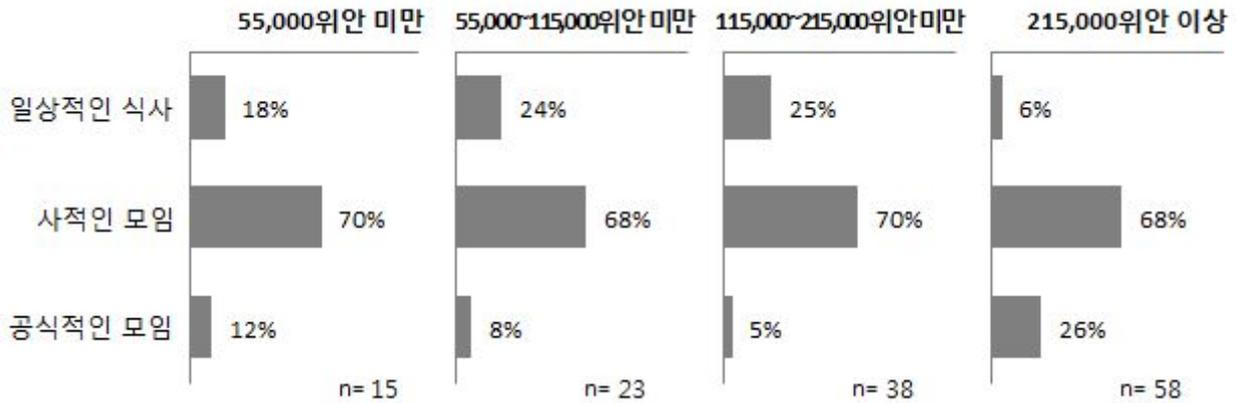
[성별 외식당 방문 목적 - 카페/바]



[연령대별 외식당 방문 목적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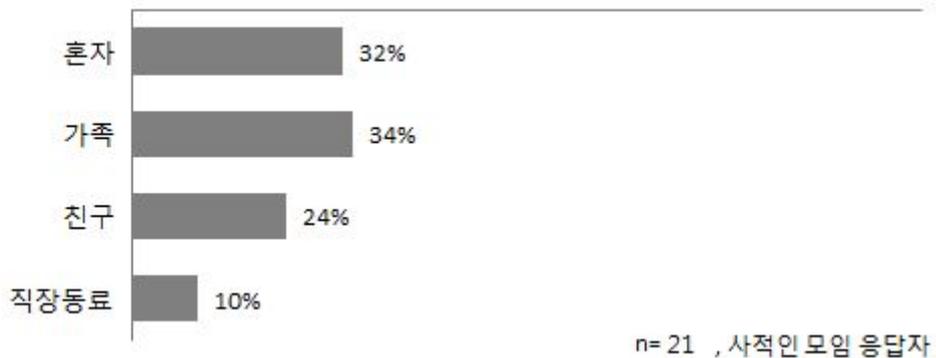
[연 소득별 외식당 방문 목적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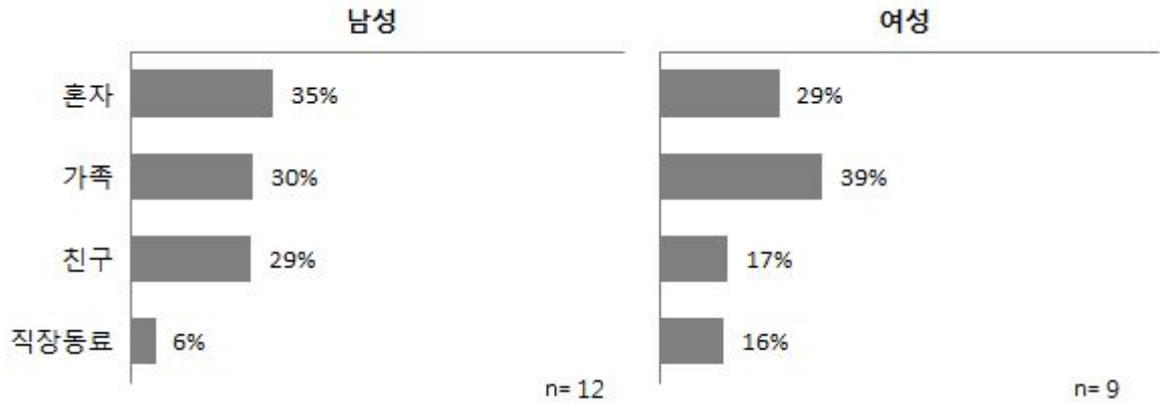
○ 일상적인 식사

- 일상적인 식사로 ‘가족’ 과 동행하여 외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34%로 근소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함. ‘혼자’ 방문하는 비율은 32%,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은 24%임.
- 남성은 ‘혼자’ 방문하는 비율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반면에 여성은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대는 ‘혼자’ 방문하는 비율이 60%로 타 연령층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경향이 있음. 30대는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40대는 ‘가족’ 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음. 50대는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100%임.
- 동행인의 경향은 소득 수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55,000위안 미만’ 의 소득층과 ‘215,000위안 이상’ 의 소득층은 ‘혼자’ 방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그 외 소득층은 ‘가족’ 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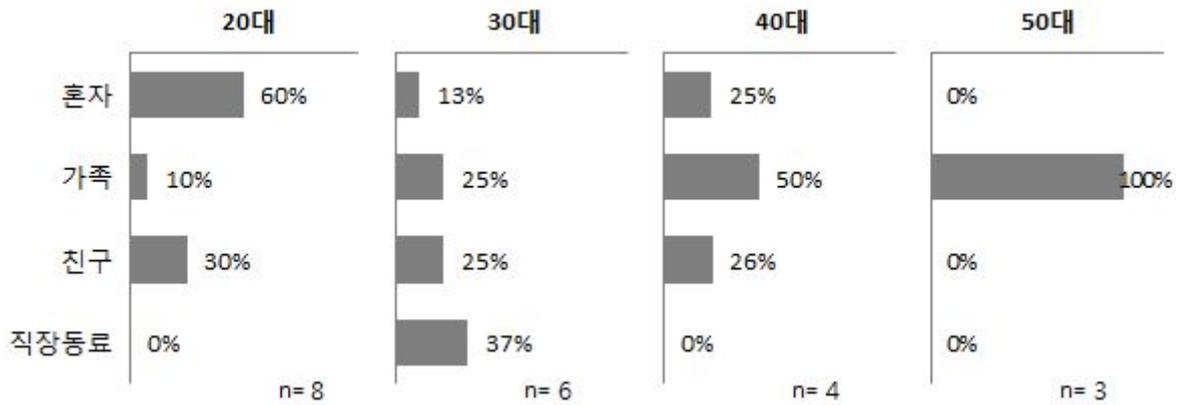
[외식당 방문 목적별 동행인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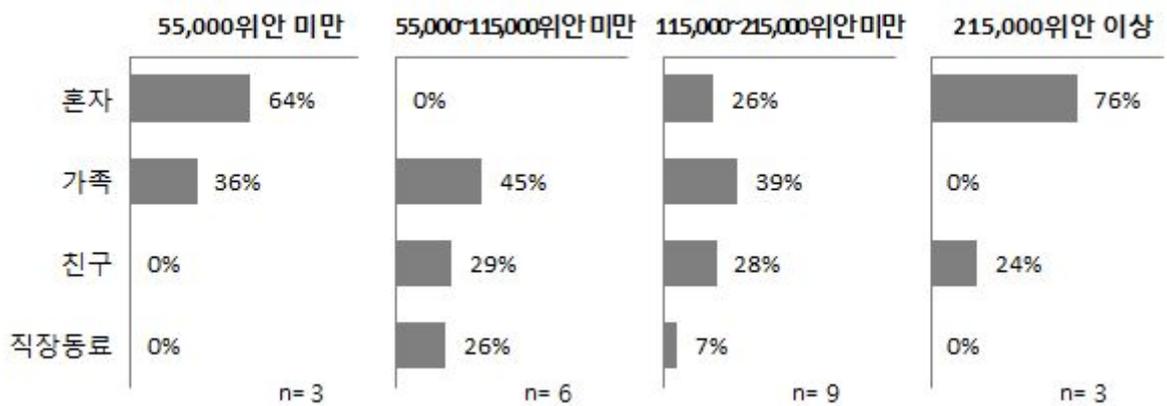
[성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카페/바]



[연령대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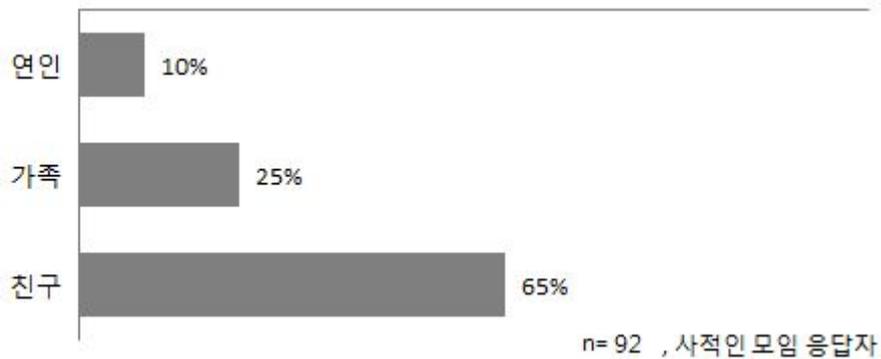
[연 소득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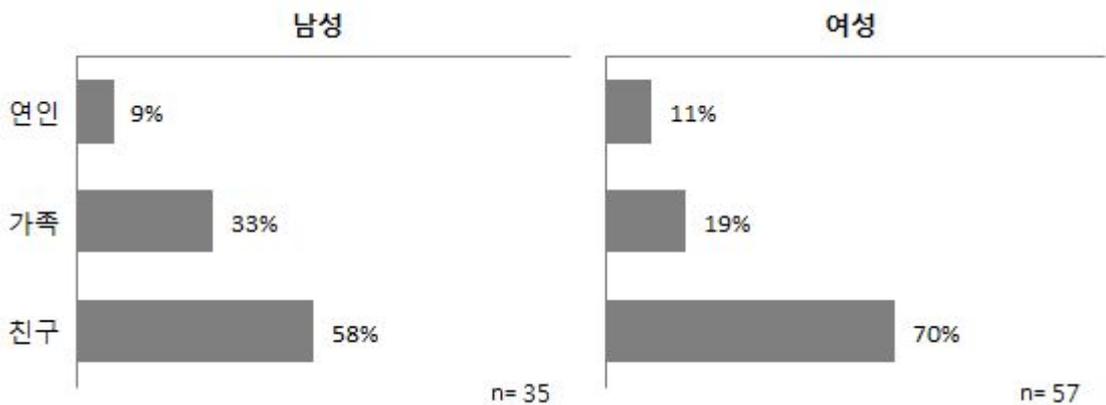
○ 사적인 모임

- 사적인 모임으로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이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은 25%,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은 10%임.
- 성별 관계없이 ‘친구’ 와 동행하는 것을 선호함. 여성이 남성보다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
- 40대가 타 연령층보다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50대는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40%로 타 연령층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연 소득이 ‘55,000~115,000위안’ 인 소비자는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이 74%로 가장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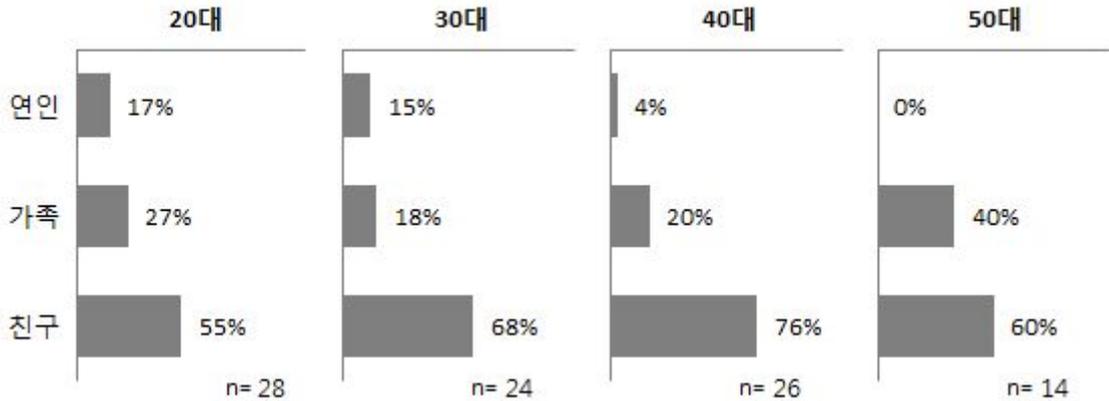
[사적인 모임 동행인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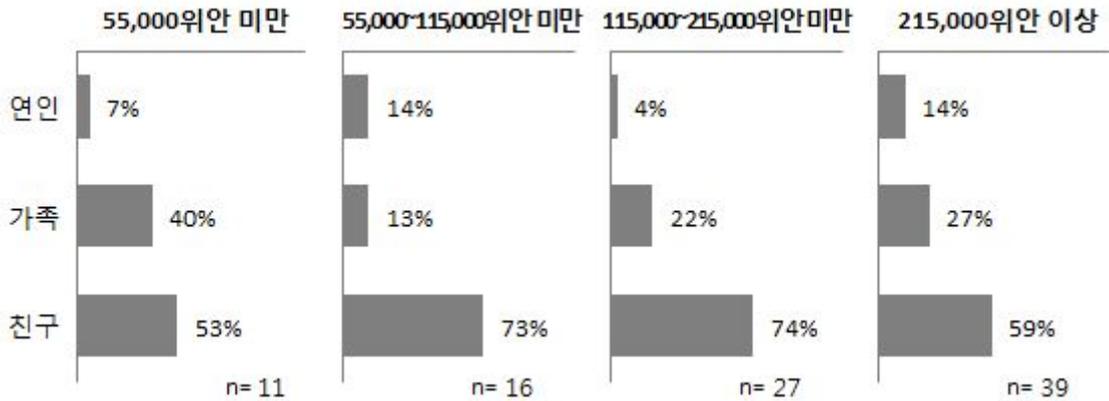
[성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카페/바]



[연령대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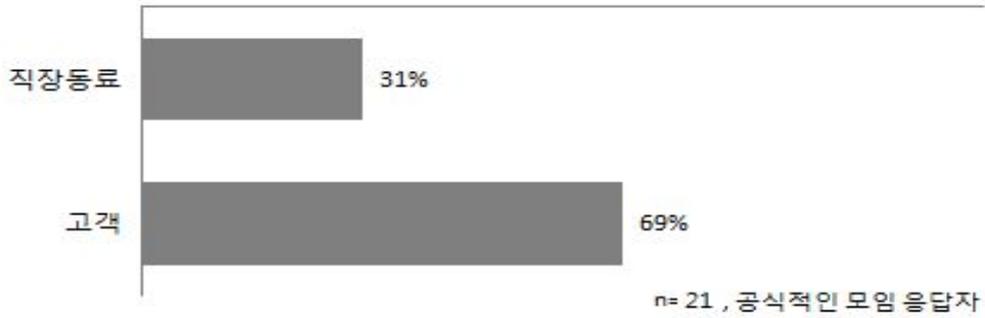
[연 소득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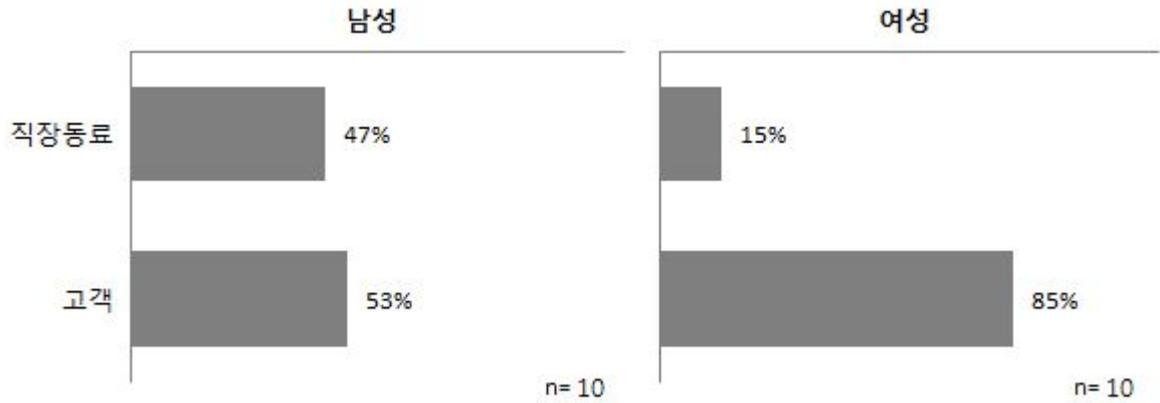
○ 공식적인 모임

- 공식적인 모임으로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69%로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
- 성별 관계없이 ‘고객’ 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은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85%로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음.
- 연령층 관계없이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보다 높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연 소득이 ‘55,000~115,000위안’ 인 소비자는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이 높으나, 그 외 소득층은 반대로 ‘고객’ 과 동행하는 경향이 뚜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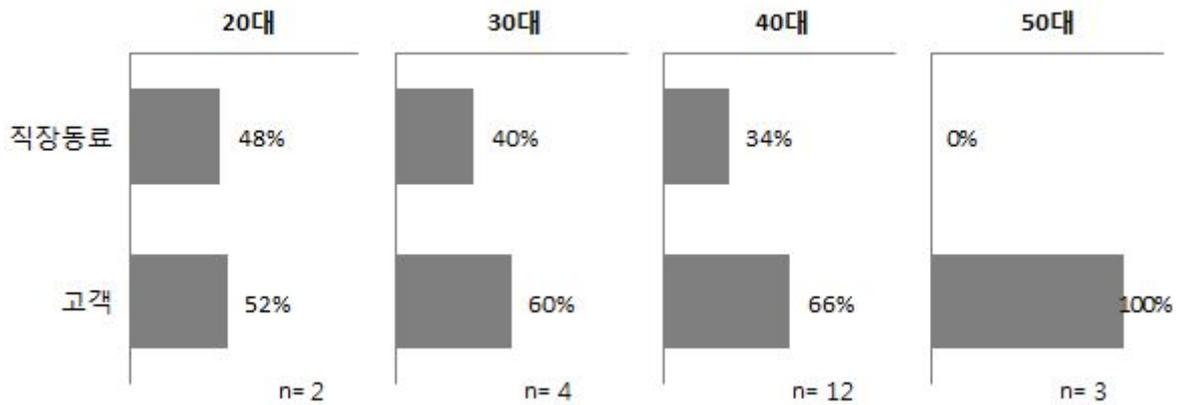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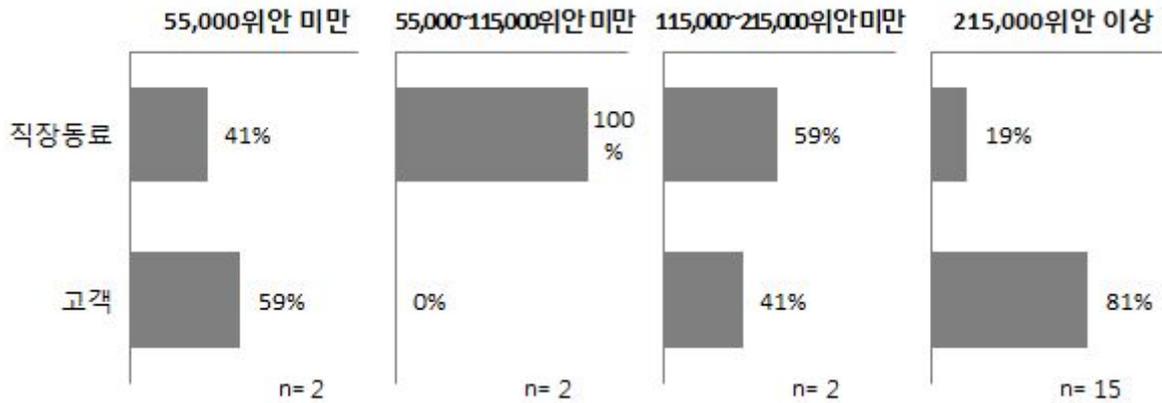
[성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카페/바]



[연령대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카페/바]



[연 소득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카페/바]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카페/바’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는 주로 ‘음식 수준’, ‘식당 시설’, ‘식당 수준’, ‘장소’ 이며, 반면에 ‘가격’, ‘서비스 수준’, ‘종업원 수준’ 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음식 수준’ 중에서 ‘음식의 맛(48%)’ 과 ‘건강한 음식(34%)’ 이 주로 고려하는 요소이며, ‘다양한 메뉴(20%)’ 는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 ‘식당 시설’ 중에서 주로 ‘식당 내부 분위기(49%)’ 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편의시설(15%)’ 나 ‘주차공간(8%)’ 는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 ‘식당 수준’ 중에서 ‘위생상태(39%)’, ‘식당의 평판(36%)’ 을 주로 고려하며, ‘특별 이벤트(20%)’ 나 ‘가격할인(13%)’ 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그 외에도 ‘장소’ 를 고려하여 식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32%로 다른 항목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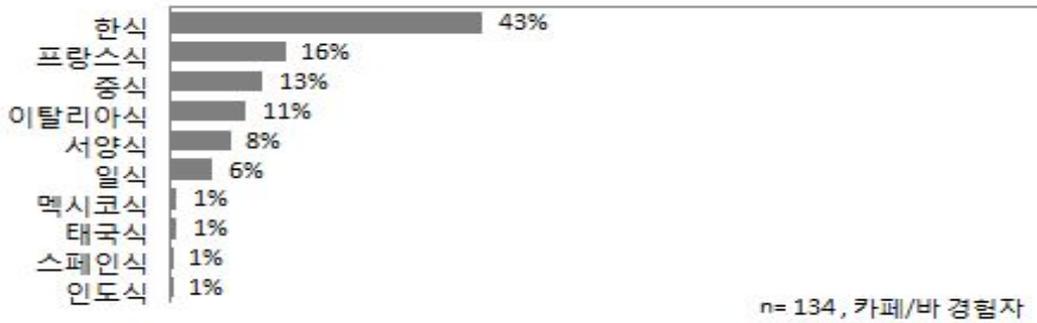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카페/바]

항목	순위	세부 항목	비율
Product	1	음식의 맛	48%
	2	건강한 음식	34%
	3	음식의 양	24%
	4	다양한 메뉴	20%
Price	1	가격	10%
Place	1	식당의 접근성	32%
Promotion	1	식당(브랜드)의 평판 또는 이미지	36%
	2	특별 이벤트(마술쇼, 밴드, 생일파티 등)	20%
	3	가격할인	13%
Physical Evidence	1	식당의 내부 분위기	49%
	2	식당의 위생상태	39%
	3	식당의 외관	32%
	4	편의시설 (화장실, 놀이시설 등)	15%
	5	주차공간	8%
Process	1	격식 있는 서비스	27%
	2	편리한 서비스 (주문, 지불 등)	21%
	3	신속한 서비스	14%
People	1	종업원의 태도	25%
	2	종업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16%
	3	종업원의 용모	12%
	4	인지도 있는 경영주/종업원	3%
	5	종업원/식당 주인과의 개인적 관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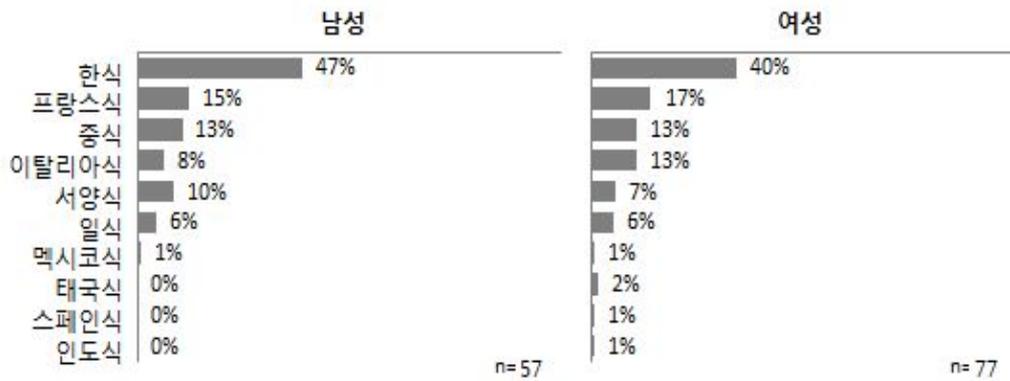
□ 자주 가는 에스닉

- 소비자가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은 ‘한식’ 식당이 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프랑스’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은 16%, ‘중식’ 식당은 13%의 비율임.
- 성별 관계없이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남성이 여성보다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 성별 관계없이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대는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71%로 타 에스닉 식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 수준이 ‘55,000~115,000위안’ 인 소비자는 ‘중식’ 식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나, 그 외 소득층은 ‘한식’ 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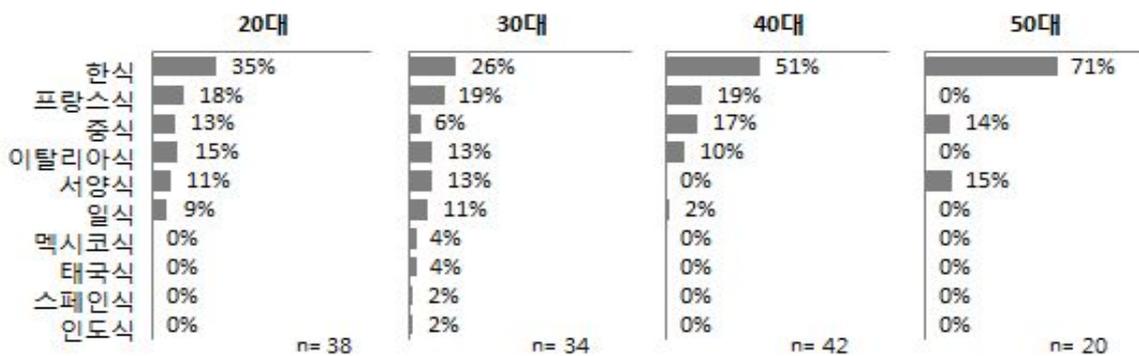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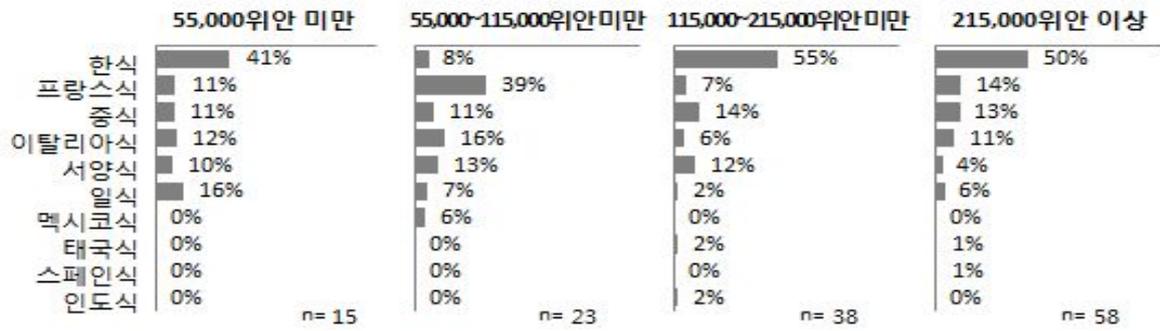
[성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카페/바]



[연령대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카페/바]



[연 소득별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 카페/바]



2.2 빅데이터 분석

[길라잡이] 빅데이터 분석 참고 사항

□ 식당 샘플 수

- 도시별로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가사이트 3~4 곳을 선정하여 해당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모든 외식당 정보를 수집, 정제, 중복 제거를 통해 도출된 식당 수입. 따라서 현지 온라인 평가사이트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식당 수가 실제 수와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존재함.
- 본 조사사업에서는 체계적인 식당 업종 분류를 위해 1차 업태, 2차 에스닉이라는 기준을 수립하고 전체 도시에 적용하였음. 모든 식당을 해당 기준을 적용 및 분류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 중 일부 경우는 샘플 수 n=30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샘플 수가 적은 업태/에스닉의 경우 실제 식당 수가 적거나 혹은 평가사이트 보유 식당 수의 한계 등 여러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해석에 유의가 필요.

□ 등록 리뷰 비율

- 본 조사사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식당 업종별 방문 빈도, 나아가 식당 업종의 인기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 리뷰 건수'를 수집하였음.
- 리뷰 건수 해석 시에 업태/에스닉별 비교를 목적으로 연도별로 수집된 전체 소비자 리뷰 건수 중 각 업태가 차지하는 비중, 업태별로 각 에스닉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인기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함.

□ 외식당/한식당 주요 판매메뉴

- 해당지역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중 외식당/한식당 업종으로 분류된 식당들이 취급하는 메뉴 리스트를 취합한 결과임. 한식당의 경우 실제 현지 한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메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예 치킨 등).

□ 외식당/한식당 내 주요 소비자 추천 메뉴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들의 판매메뉴에 기록된 소비자 추천 건수를 취합한 결과임. 한식당의 경우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한식당의 메뉴 정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식분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외식당/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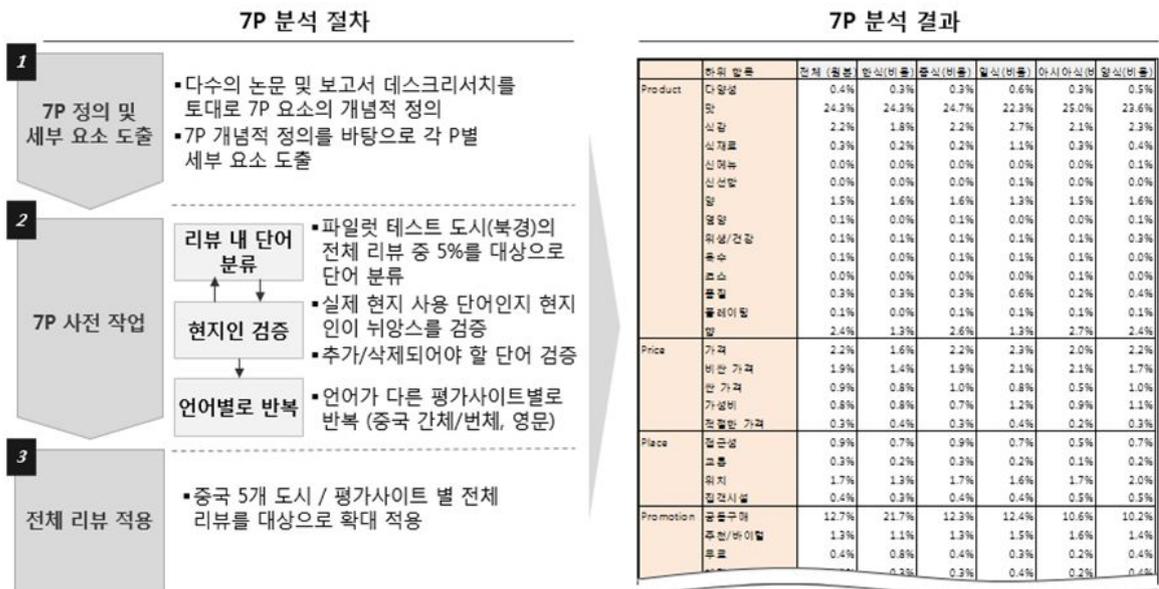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들 중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리뷰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한식당’은 각 평가사이트의 ‘한식’, ‘한국요리’로 분류된 사이트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임.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식당 메뉴키워드 결과는 한식 외에 소비자가 언급한 다양한 에스닉 메뉴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해석이 필요.

□ 추천/판매메뉴 및 메뉴키워드 번역 과정

- 평가사이트 식당 정보란에 등록된 메뉴 정보와 소비자들이 리뷰에서 언급한 메뉴 정보를 중국 현지인이 검수 및 번역하는 과정을 거침. 리뷰 텍스트 특성상, 문맥과 언급 상황이 다양함을 감안할 때 하나의 메뉴명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한글로 번역된 메뉴명은 참고용으로 활용.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7P)

- 7P 프레임을 적용하여 각 세부 마케팅믹스별 개념적 정의 및 세부 요소를 도출하고, 7P 사전 키워드를 작업 후, 전체 리뷰에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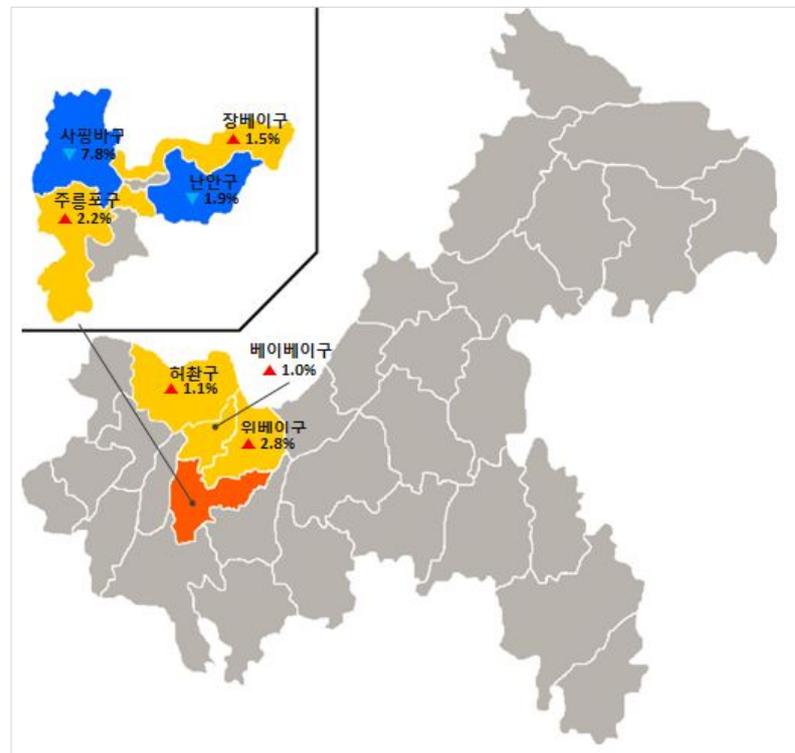


1) 외식당 방문 행태

□ 상권별 리뷰 건수³⁴⁾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레스토랑의 전체 리뷰를 크롤링하여 취합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충청의 중심 구역과 그 주변을 기준으로 외식당 리뷰 건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중심 구역 내 ‘위베이구’의 외식당 리뷰 건수 비율은 2012년부터 2016년 최근 4년간 2.8% 증가하였음.
- 중심 구역 내에서는 상권(구)에 따라 최근 4년간 리뷰 건수 비율의 변동이 존재함. ‘사평바구’와 ‘난인구’에서는 리뷰 건수 비율이 최근 4년 간 각각 7.8%, 1.9% 감소한 반면, ‘주릉포구’와 ‘장베이구’에서는 각각 2.2%, 1.5% 증가함.
- 기타 구역은 외식당 리뷰 건수 증감률이 1% 미만 수준임.

[상권별 리뷰 건수 증감 현황]³⁵⁾



34) 리뷰 건수는 소비자들의 방문자 수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기술되었음. 리뷰 건수와 소비자 방문자 수와의 상관 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소비자 인기/선호도 파악에 활용 가능.

35) 최근 4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감 현황을 표시

[상권 별 리뷰 건수 추세]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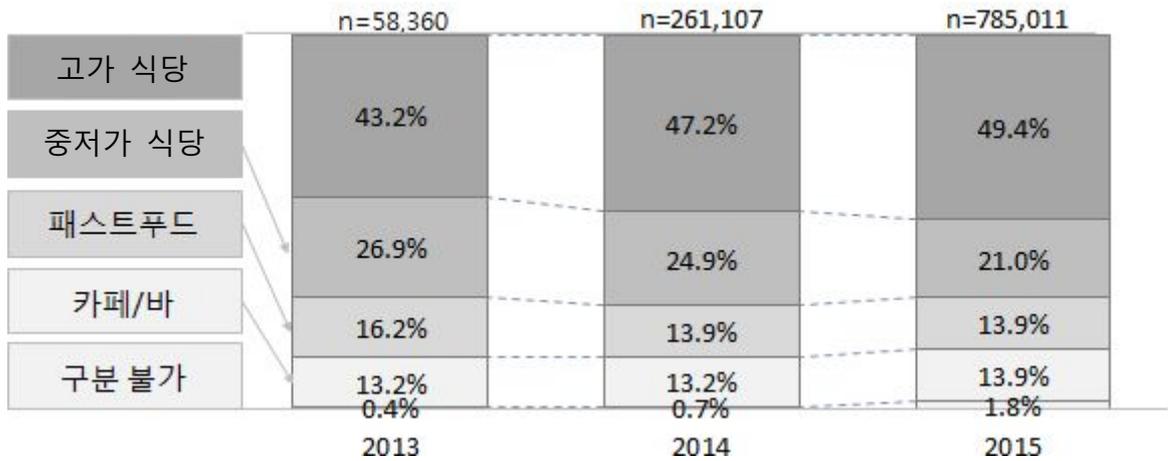
상권(구)	전체 수	12.05~13.04	13.05~14.04	14.05~15.04	15.05~16.04	4개년 Gap
중구 (위중구)		25.1%	25.1%	24.2%	24.8%	-0.3%
강북구 (강북구)		19.4%	19.7%	20.9%	20.9%	1.5%
북구 (위북구)		9.3%	11.2%	12.3%	12.1%	2.8%
남구 (남안구)		13.5%	13.5%	13.3%	11.6%	-1.9%
구룡포구 (구룡포구)		9.1%	8.2%	12.0%	11.2%	2.2%
사평바구 (사평바구)		17.3%	15.4%	11.2%	9.6%	-7.8%
비비구 (비비구)		1.0%	1.3%	1.0%	2.0%	1.0%
허참구 (허참구)		0.2%	0.3%	0.4%	1.4%	1.1%
다두커우구 (다두커우구)		1.3%	1.4%	1.7%	1.4%	0.1%
용참구 (용참구)		0.2%	0.8%	0.6%	1.0%	0.8%
원저우구 (원저우구)		0.6%	0.4%	0.4%	0.9%	0.4%
바남구 (바남구)		0.6%	0.6%	0.9%	0.9%	0.3%
푸림구 (푸림구)		0.2%	0.2%	0.1%	0.6%	0.4%
항서우 (항서우)		0.3%	0.4%	0.2%	0.3%	0.0%
비산구 (비산구)		0.2%	0.3%	0.2%	0.2%	0.0%
우릉현 (우릉현)		0.2%	0.1%	0.1%	0.2%	0.0%
카이현 (카이현)		0.1%	0.1%	0.0%	0.1%	0.0%
장진구 (장진구)		0.2%	0.1%	0.1%	0.1%	-0.1%
남참구 (남참구)		0.1%	0.1%	0.0%	0.1%	0.0%
룡참구 (룡참구)		0.1%	0.1%	0.0%	0.1%	0.0%
연장현 (연장현)		0.1%	0.1%	0.0%	0.1%	0.0%
룡남구 (룡남구)		0.1%	0.1%	0.0%	0.1%	0.0%
원양현 (원양현)		0.0%	0.0%	0.0%	0.0%	0.0%
양평현 (양평현)		0.0%	0.0%	0.0%	0.0%	0.0%
평두현 (평두현)		0.1%	0.0%	0.0%	0.0%	-0.1%
평제현 (평제현)		0.0%	0.0%	0.0%	0.0%	0.0%
소주무자족자치현 (소주무자족자치현)		0.0%	0.0%	0.0%	0.0%	0.0%
다루구 (다루구)		0.0%	0.0%	0.0%	0.0%	0.0%
치장구 (치장구)		0.0%	0.0%	0.0%	0.0%	0.0%
평수이마오족자치현 (평수이마오족자치현)		0.0%	0.0%	0.0%	0.0%	0.0%
유양무자족자치현 (유양무자족자치현)		0.0%	0.0%	0.0%	0.0%	0.0%
우산현 (우산현)		0.0%	0.0%	0.0%	0.0%	0.0%
중현 (중현)		0.1%	0.0%	0.0%	0.0%	0.0%
룡랑구 (룡랑구)		0.0%	0.0%	0.0%	0.0%	0.0%
슈산 무자족 마오족자치현 (슈산 무자족 마오족자치현)		0.0%	0.0%	0.0%	0.0%	0.0%
우시현 (우시현)		0.0%	0.0%	0.0%	0.0%	0.0%
청커우현 (청커우현)		0.0%	0.0%	0.0%	0.0%	0.0%
청장구 (청장구)		0.0%	0.0%	0.0%	0.0%	0.0%
근교		0.0%	0.0%	0.0%	0.0%	0.0%
기타		0.4%	0.4%	0.0%	0.0%	-0.4%

36) 최근 4년 데이터 기준

□ 업체별 리뷰 건수³⁷⁾

- 업체 중 ‘고가 식당’의 방문 리뷰 건수가 타 업체의 방문 리뷰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 리뷰 건수의 비율이 2013년에 43.2%에서 2015년에 49.4%로 증가하는 추세임.
- ‘고가 식당’을 제외한 타 업체는 방문 리뷰 건수의 비율이 감소하거나, 증감률이 낮은 추세임. 그 중 ‘중저가 식당’의 방문 리뷰 건수의 비율은 2013년 26.9%에서 2015년 21.0%로 5.9%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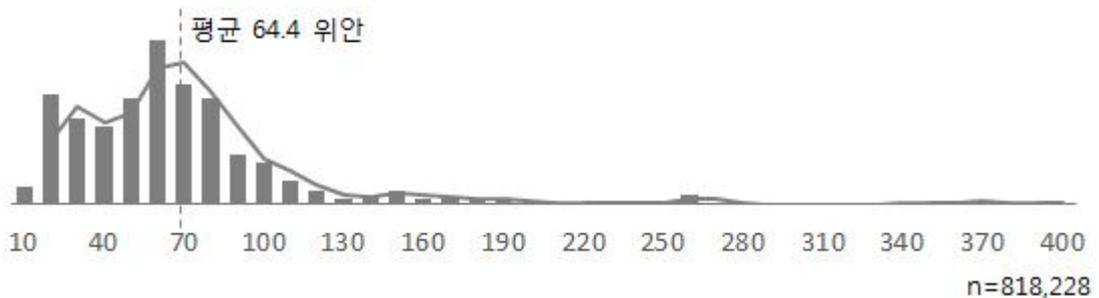
[업체별 리뷰 건수 추세 (13~15년)]



□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들이 리뷰를 많이 남기는 외식당 가격대는 평균 ‘64.6위안’으로 파악됨.
- 주로 ‘20~70위안’의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리뷰가 분포되고 있으며, 그 가격대의 식당에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됨.

[전체 가격대별 리뷰 건수]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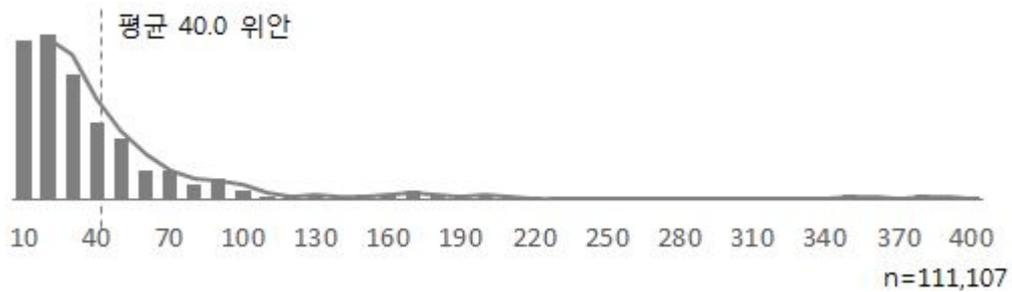
37) 레스토랑 평가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고가 외식당’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리뷰 건수 비율과 소비자들의 실제 외식당 방문율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활용 시 주의가 필요.

38) 최근 1년 동안 수집된 리뷰 데이터 기준

□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³⁹⁾

- 외식당의 메뉴 중에 리뷰를 남긴 메뉴의 평균 가격은 ‘40.0위안’ 으로 형성됨.
- 소비자가 남긴 메뉴의 리뷰 건수는 ‘10~3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며, 그 가격대의 메뉴를 주로 주문하는 것으로 추정됨.

[전체 외식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2) 업태별 외식당 방문 행태

가) 고가 식당

□ 외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⁴⁰⁾

- 7P 요소 ‘음식’ 중에서 ‘맛(0.40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으며, ‘양(0.09회/건), ‘식감(0.08회/건)’, ‘향(0.07회/건)’ 관련 단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에서는 ‘분위기’ 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 요소(0.12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내부 환경적 요소’ (0.09회/건), ‘외부 환경적 요소’ (0.03회/건) 관련 단어는 적게 언급되고 있음.
- 그 외 ‘가격’ 요소(0.20회/건)와 ‘프로모션’ 요소의 ‘공동구매’ (1.14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음.

39) 과거부터 현재(16.04) 시점까지의 누적 추천건수가 활용되었으며, 최근 시점의 추천메뉴와 상이할 수 있음.

40)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의 특성 상 레스토랑을 평가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프로모션’ 채널로도 활용되므로 ‘공동구매’ 요소가 많이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7P 세부 요소별 언급 빈도 - 고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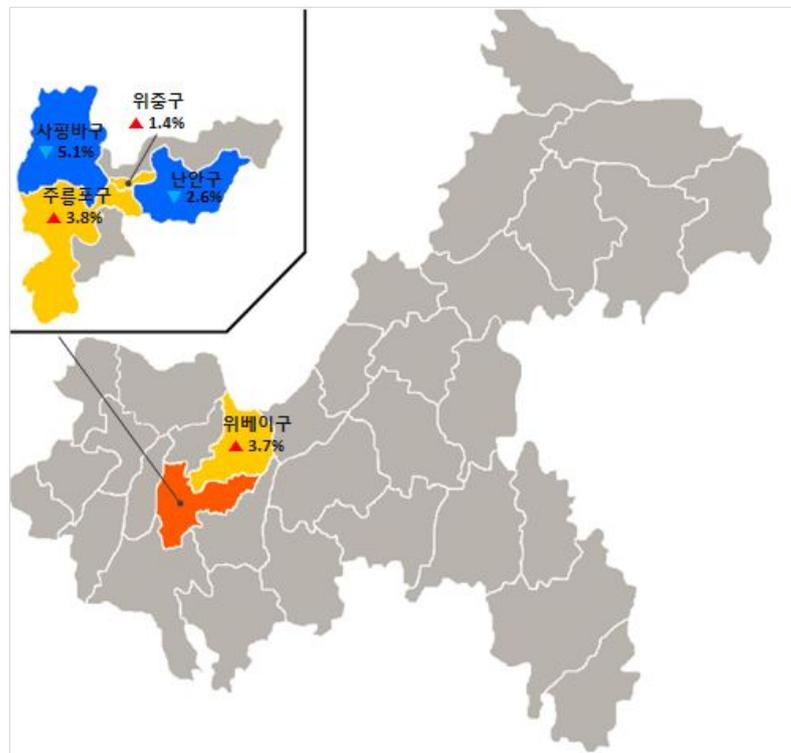
(단위: 언급 빈도/리뷰 건수)

7P 요소	순위	7P 하위 요소	리뷰당 언급 빈도
음식	1	맛	0.40
	2	양	0.09
	3	식감	0.08
	4	향	0.07
가격	1	가격	0.20
위치	1	접근성	0.05
	2	교통편의성	0.01
	3	입지	0.01
프로모션	1	공동구매	1.14
	2	상품권/쿠폰	0.01
	3	시식	0.01
	4	무료	0.01
물리적 환경	1	내부 디자인 요소	0.12
	2	내부 환경적 요소	0.09
	3	외부 환경적 요소	0.03
서비스	1	대기	0.03
	2	주문	0.02
	3	예약	0.01
	4	결제	0.01
종업원	1	종업원 태도	0.07
	2	요리사	0.01
	3	사장님	0.01
	4	복장/용모	0.01

□ 상권별 리뷰 건수

- 충청 중심 구역을 기준으로 북부 지역의 ‘고가 식당’ 방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위베이구’의 리뷰 건수 비율은 2012년 9.7%에서 2015년 13.4%로 전체 상권(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함.
- 그 외 중심 구역 내에서 ‘주릉포구’의 리뷰 건수 비율이 최근 4년 동안 3.8% 증가하였으며, ‘위중구’의 리뷰 건수 비율은 최근 4년간 1.4% 증가해 타 구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 반면 중심 구역 내 ‘샤핑바구’, ‘난인구’의 리뷰 건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중 ‘샤핑바구’의 최근 4년간 리뷰 건수 감소율은 5.1%로 높게 나타남.

[상권별 리뷰 건수 증감 현황 - 고가 식당⁴¹⁾



41) 최근 4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감 현황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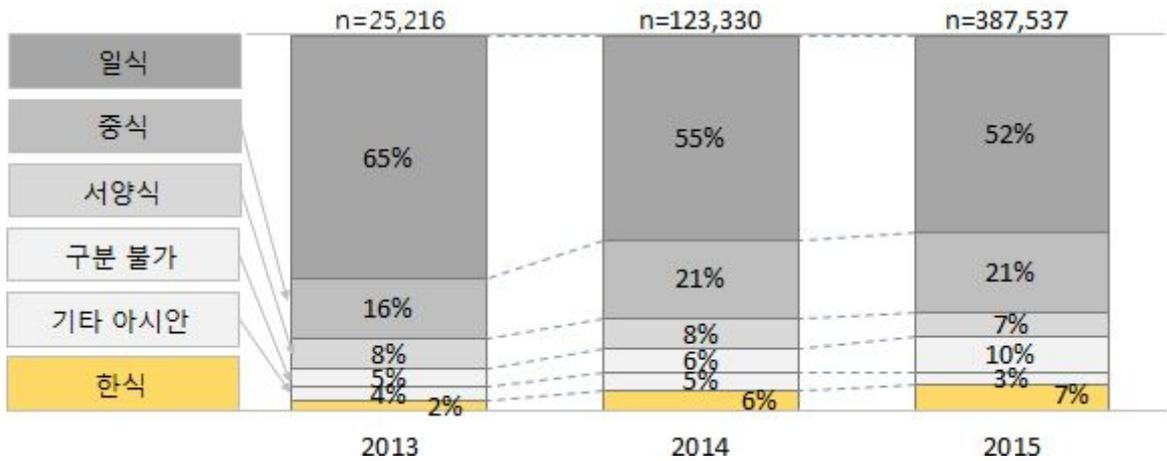
[상권별 리뷰 건수 추세 - 고가 식당]

상권(구)	전체 수	12.05~13.04	13.05~14.04	14.05~15.04	15.05~16.04	4개년 Gap
		13,430	29,689	215,404	395,812	
渝中区 (위중구)		30.6%	30.5%	26.8%	29.2%	-1.4%
江北区 (장베이구)		24.5%	23.0%	24.0%	25.1%	0.6%
渝北区 (위베이구)		9.7%	12.9%	13.4%	13.4%	3.7%
南岸区 (난안구)		14.6%	14.6%	13.8%	11.9%	-2.6%
九龙坡区 (주룽포구)		7.2%	7.4%	11.9%	11.0%	3.8%
沙坪坝区 (사핑바구)		11.4%	8.5%	7.2%	6.4%	-5.1%
大渡口区 (다두커우구)		0.8%	1.5%	1.5%	1.0%	0.2%
北碚区 (베이베이구)		0.5%	0.6%	0.4%	0.8%	0.3%
巴南区 (바남구)		0.3%	0.3%	0.5%	0.4%	0.1%
万州区 (완저우구)		0.1%	0.1%	0.2%	0.2%	0.2%
永川区 (영청구)		0.1%	0.1%	0.1%	0.1%	0.1%
武隆县 (우룽현)		0.1%	0.1%	0.0%	0.1%	0.1%
长寿区 (창서우)		0.1%	0.2%	0.1%	0.1%	0.0%
合川区 (허립구)		0.1%	0.0%	0.0%	0.1%	0.0%
璧山区 (비산구)		0.1%	0.2%	0.1%	0.1%	-0.1%
合川区 (허침구)		0.0%	0.0%	0.0%	0.0%	0.0%
兼江区 (차장구)		0.0%	0.0%	0.0%	0.0%	0.0%
江津区 (장진구)		0.0%	0.0%	0.0%	0.0%	0.0%
梁平县 (량평현)		0.0%	0.0%	0.0%	0.0%	0.0%
大足区 (다주구)		0.0%	0.0%	0.0%	0.0%	0.0%
岳池县 (우산현)		0.0%	0.0%	0.0%	0.0%	0.0%
潼南区 (통남구)		0.0%	0.0%	0.0%	0.0%	0.0%
铜梁区 (청량구)		0.0%	0.0%	0.0%	0.0%	0.0%
丰都县 (풍두현)		0.0%	0.0%	0.0%	0.0%	0.0%
邻水县 (린양현)		0.0%	0.0%	0.0%	0.0%	0.0%
南川区 (난촨구)		0.0%	0.0%	0.0%	0.0%	0.0%
垫江县 (연장현)		0.0%	0.0%	0.0%	0.0%	0.0%
城口县 (청커우현)		0.0%	0.0%	0.0%	0.0%	0.0%
奉节县 (풍제현)		0.0%	0.0%	0.0%	0.0%	0.0%
巫溪县 (우시현)		0.0%	0.0%	0.0%	0.0%	0.0%
开县 (카이현)		0.0%	0.0%	0.0%	0.0%	0.0%
彭水苗族土家族自治县 (펑수이묘족투자족자치현)		0.0%	0.0%	0.0%	0.0%	0.0%
忠县 (중현)		0.0%	0.0%	0.0%	0.0%	0.0%
石柱土家族自治县 (소주투자족 자치현)		0.0%	0.0%	0.0%	0.0%	0.0%
秀山土家族自治县 (슈산 투자족 마오족 자치현)		0.0%	0.0%	0.0%	0.0%	0.0%
梁山区 (량샹구)		0.0%	0.0%	0.0%	0.0%	0.0%
酉阳土家族苗族自治县 (유양투자족 자치현)		0.0%	0.0%	0.0%	0.0%	0.0%
铜梁区 (통량구)		0.0%	0.0%	0.0%	0.0%	0.0%
근교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 에스닉/업종별 리뷰 건수

- ‘일식’ 식당을 방문한 리뷰 건수의 비율은 2013년 65%에서 2015년 52%로 타 에스닉 식당에 비해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식’ 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은 2013년 16%에서 2015년 21%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한식’ 식당의 경우, 2013년 방문 리뷰 건수의 비율이 2%에서 2015년에 7%로 에스닉 식당 중 가장 많이 증가함.
- 그 외 에스닉 식당 중, ‘서양식’ 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은 2013년 대비 1% 감소해 큰 추세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에스닉별 리뷰 건수 추세(13~15년) - 고가 식당]



□ 메뉴 현황

○ 주요 추천 메뉴⁴²⁾

- ‘고가 식당’ 업체의 주요 메뉴 중, 많은 소비자가 추천하는 외식 메뉴는 ‘천엽(6,041건)’이며, 평균 가격은 ‘59.6위안’으로 나타남.
- 그 외 추천되는 외식 메뉴는 평균 가격이 ‘119.8위안’인 ‘스테이크(3,015건)’와 평균 가격이 ‘18.2위안’인 ‘오리창자(4,630건)’ 등으로 파악됨.

[주요 추천 메뉴 - 고가 식당]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추천 건수
1	毛肚	천엽	59.6	6,041
2	鸭肠	오리창자	18.2	4,630
3	烤牛排	스테이크	119.8	3,015
4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28.3	2,299
5	三文鱼	연어	96.1	2,065
6	老肉片	돼지고기 얇은 조각	17.4	2,035
7	麻辣牛肉	마라우육	26.1	1,898
8	酥肉	탕수육	28.8	1,571
9	现炸酥肉	시에짜수로우(닭고기튀김)	15.5	1,369
10	鳝鱼	선어	23.8	1,363

42) 과거부터 현재(16.04) 시점까지의 누적 추천건수가 활용되었으며, 최근 시점의 추천메뉴와 상이할 수 있음.

○ 메뉴별 언급 빈도 시계열 추이⁴³⁾

- 15년 리뷰에서 언급빈도가 높은 메뉴들은 대부분 과거 시점 대비 언급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많은 ‘고가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튀김’의 언급 비율은 ‘-9.5%’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됨.
- 언급 빈도 증가율이 높은 메뉴는 ‘돼지갈비’ (0.3%), ‘후라이드치킨’ (0.2%), ‘파인애플빵’ (0.2%) 등으로 파악됨.

[2015년 언급빈도 상위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고가 식당⁴⁴⁾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9,636	25,216	123,330	387,537	
1	火锅	튀김	14.2%	10.8%	4.9%	4.7%	-9.5%
2	牛肉	쇠고기	6.6%	4.7%	3.2%	3.4%	-3.2%
3	牛排	스테이크	4.8%	5.4%	3.8%	2.7%	-2.1%
4	海鲜	해산물	3.6%	3.1%	2.3%	2.3%	-1.3%
5	烤肉	고기구이	1.6%	1.2%	1.5%	1.7%	0.1%
6	套餐	세트메뉴	3.1%	2.3%	1.6%	1.6%	-1.6%
7	饮料	음료	2.7%	2.1%	1.5%	1.5%	-1.2%
8	三文鱼	연어요리	2.9%	2.1%	1.4%	1.4%	-1.5%
9	甜品	디저트	2.4%	1.9%	1.4%	1.4%	-1.1%
10	寿司	초밥	3.4%	2.0%	1.3%	1.2%	-2.2%

[언급빈도 상승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고가 식당⁴⁵⁾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9,636	25,216	123,330	387,537	
1	猪排	돼지갈비	0.2%	0.1%	0.3%	0.5%	0.3%
2	炸鸡	후라이드치킨	0.0%	0.0%	0.1%	0.2%	0.2%
3	菠萝油	파인애플빵	0.2%	0.4%	0.3%	0.4%	0.2%
4	肠粉	창펀	0.1%	0.2%	0.1%	0.2%	0.1%
5	麻辣牛肉	마라우육	0.1%	0.1%	0.1%	0.2%	0.1%
6	烤肉	고기구이	1.6%	1.2%	1.5%	1.7%	0.1%
7	炸猪排	돈가스	0.0%	0.0%	0.0%	0.1%	0.1%
8	甜虾	단새우	0.1%	0.1%	0.1%	0.2%	0.1%
9	流沙包	라사빠우 (커스터드크림찐빵)	0.0%	0.0%	0.1%	0.1%	0.1%
10	小鲜肉	생고기	0.0%	0.0%	0.0%	0.1%	0.1%

43) 언급 빈도는 도시별로 각 업체 상위 20개, 각 에스닉별로 50개의 메뉴명을 추출하여 구성된 메뉴 사전을 리뷰에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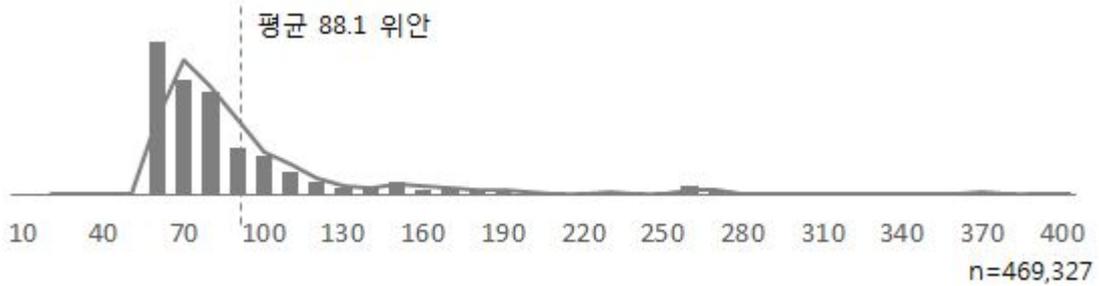
44)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45)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들이 리뷰를 많이 남기는 평균 외식당 가격은 ‘88.1위안’ 으로 나타나며, ‘50~80위안’ 의 가격대에 리뷰가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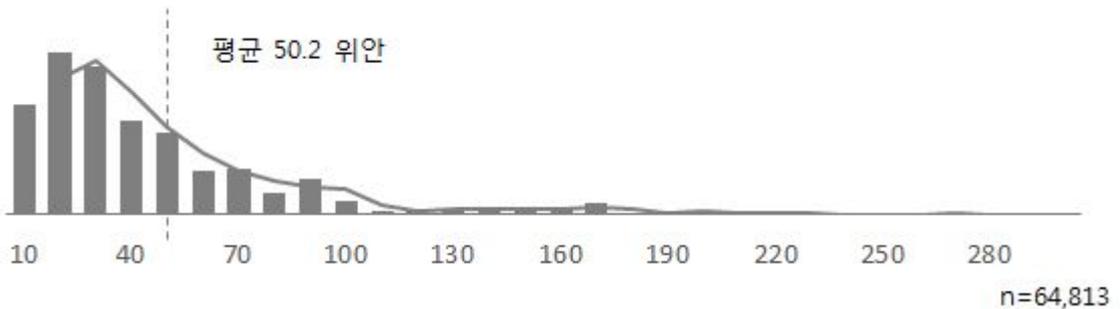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⁴⁶⁾



□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⁴⁷⁾

- ‘고가 식당’ 메뉴의 평균 추천 가격은 ‘50.2위안’ 으로 나타나며, 추천 건수 분포는 ‘20~5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 ‘천엽’ 의 평균 추천 가격은 ‘39.1위안’ 임. 이 메뉴의 추천 건수가 많이 분포된 가격대는 ‘20~40위안’ 으로 파악됨.
- ‘스테이크’ 의 평균 추천 가격은 ‘235.0위안’ 임. 이 메뉴의 추천 건수가 많이 분포된 가격대는 ‘50~90위안’ 과 ‘340~380위안’ 으로 파악됨.
- ‘오리창자’ 의 경우, 평균 추천 가격이 타 주요메뉴의 평균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추천 건수가 많은 가격대는 ‘0~20위안’ 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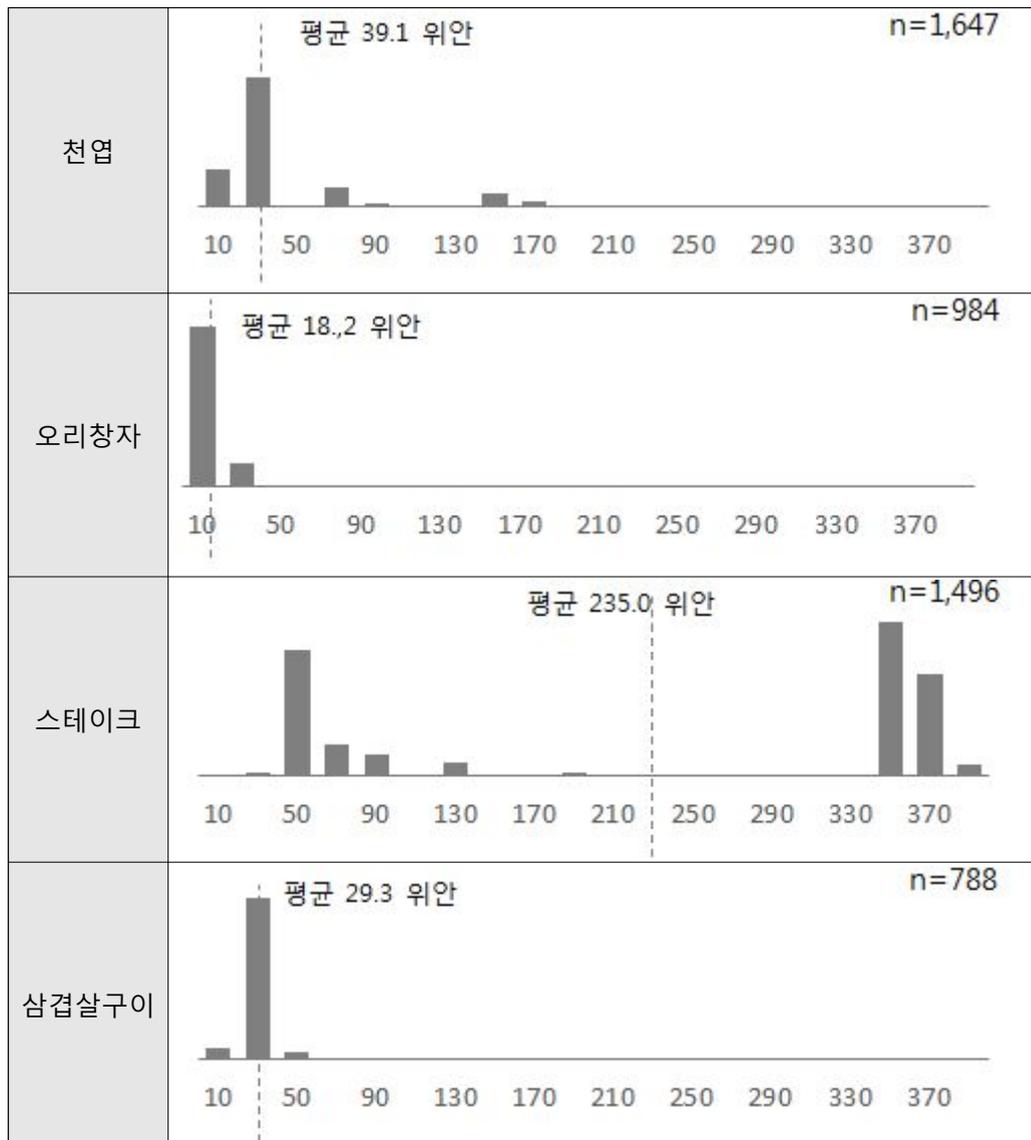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고가 식당]



46) 최근 1년 동안 수집된 리뷰 데이터 기준

47) 전체 메뉴 데이터 중 메뉴 가격 정보와 추천 건수가 동시에 있는 메뉴 데이터만 활용되었으며, 실제 추천 가격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주요 추천 메뉴 가격 분포 - 고가 식당]



나) 중저가 식당

□ 외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7P 요소 ‘음식’ 중에서 ‘맛(0.41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으며, ‘양(0.11회/건), ‘향(0.08회/건)’, ‘식감(0.07회/건)’ 관련 단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음.
- ‘물리적 환경’에서는 ‘내부 환경적 요소’ (0.10회/건)와 ‘분위기’ 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 요소(0.09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적 요소’ (0.03회/건) 관련 단어는 적게 언급되고 있음.
- 그 외 ‘가격’ 요소(0.20회/건)와 ‘프로모션’ 요소의 ‘공동구매’ (1.15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음.

[7P 세부 요소별 언급 빈도 - 중저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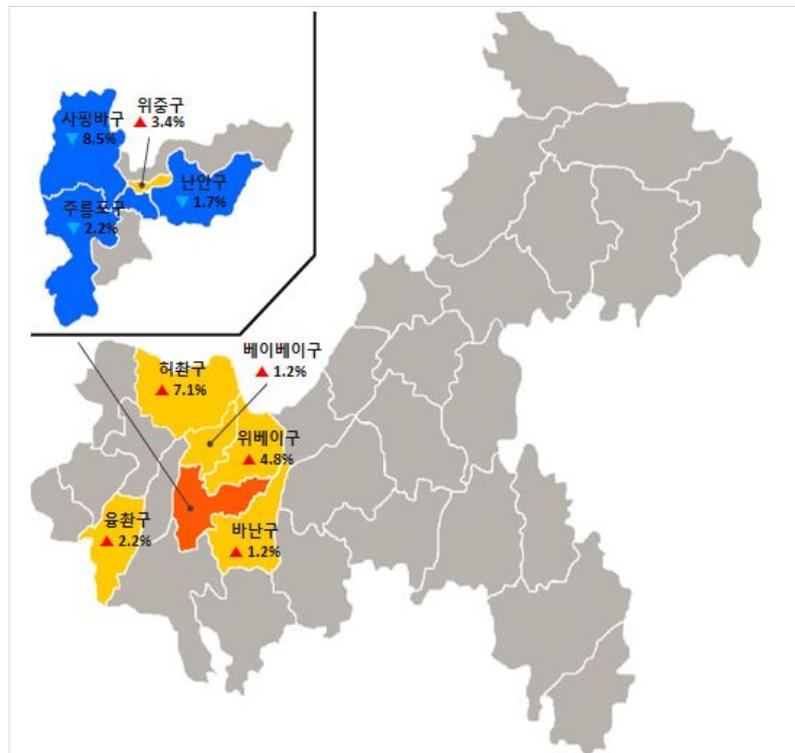
(단위: 언급 빈도/리뷰 건수)

7P 요소	순위	7P 하위 요소	리뷰당 언급 빈도
음식	1	맛	0.41
	2	양	0.11
	3	향	0.08
	4	식감	0.07
가격	1	가격	0.20
위치	1	접근성	0.07
	2	교통편의성	0.01
	3	입지	0.01
프로모션	1	공동구매	1.15
	2	무료	0.02
	3	시식	0.01
	4	상품권/쿠폰	0.01
물리적 환경	1	내부 환경적 요소	0.10
	2	내부 디자인 요소	0.09
	3	외부 환경적 요소	0.03
서비스	1	대기	0.02
	2	주문	0.01
	3	포장/배달	0.01
	4	결제	0.01
종업원	1	종업원 태도	0.07
	2	사장님	0.01
	3	요리사	0.01
	4	복장/용모	0.00

□ 상권별 리뷰 건수

- 충청 중심 구역은 리뷰 건수 비율이 감소 추세인 반면, 중심 구역 주변의 상권(구)는 리뷰 건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심 구역에서는 ‘위중구’ (3.4%)를 이외에 ‘샤핑바구’ , ‘주릉포구’ , ‘난인구’ 에서의 리뷰 건수 비율은 최근 4년 간 각각 8.5%, 2.2%,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심 구역 주변의 상권에서는 ‘허촨구’ (7.1%), ‘위베이구’ (4.8%)의 최근 4년 간 리뷰 건수 비율이 증가 추세로 파악됨.

[상권별 리뷰 건수 증감 현황 - 중저가 식당⁴⁸⁾]



48) 최근 4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감 현황을 표시

[상권별 리뷰 건수 추세 - 중저가 식당]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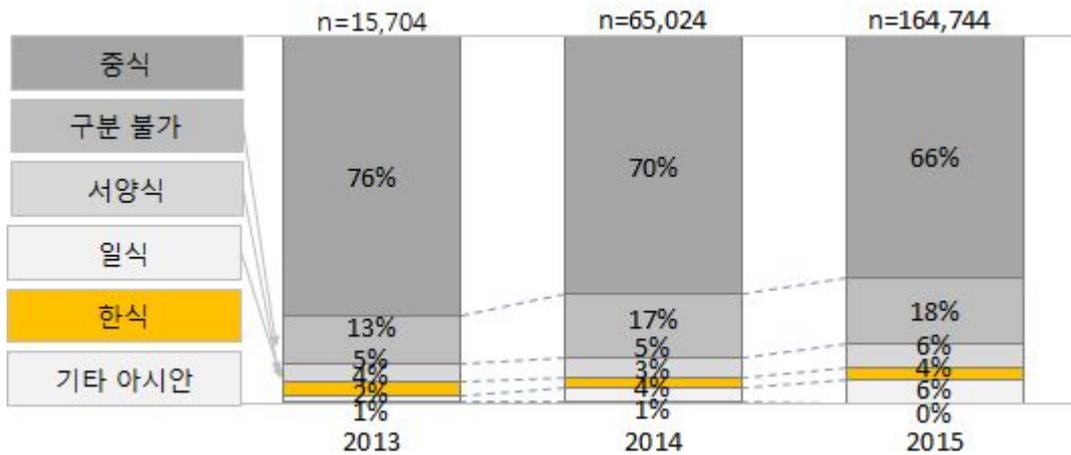
상권(구)	전체 수	12.05~13.04	13.05~14.04	14.05~15.04	15.05~16.04	4개년 Gap
		7,539	18,534	104,369	164,041	
渝中区 (위중구)		12.7%	13.5%	15.0%	16.1%	3.4%
江北区 (장베이구)		16.8%	17.9%	18.4%	16.0%	-0.8%
渝北区 (위베이구)		9.7%	11.2%	13.7%	14.5%	4.8%
沙坪坝区 (사핑바구)		21.6%	21.3%	16.5%	13.1%	-8.5%
南岸区 (난안구)		14.1%	13.3%	13.7%	12.4%	-1.7%
九龙坡区 (주룽포구)		12.5%	10.3%	11.9%	10.3%	-2.2%
北碚区 (베이베이구)		2.1%	2.2%	1.9%	3.3%	1.2%
永川区 (영청구)		0.4%	1.5%	1.4%	2.6%	2.2%
合川区 (허청구)		0.5%	0.6%	0.8%	2.2%	1.7%
巴南区 (바난구)		0.8%	1.0%	1.5%	2.1%	1.2%
大渡口区 (다두커우구)		1.9%	1.7%	2.1%	1.9%	0.0%
涪陵区 (푸링구)		0.5%	0.3%	0.2%	1.2%	0.7%
万州区 (완저우구)		0.9%	0.8%	0.5%	1.0%	0.1%
长寿区 (창서우)		0.7%	0.8%	0.4%	0.7%	-0.1%
江津区 (장진구)		0.6%	0.3%	0.2%	0.4%	-0.2%
璧山区 (비산구)		0.4%	0.5%	0.5%	0.4%	0.0%
武隆县 (우룽현)		0.5%	0.2%	0.2%	0.3%	-0.2%
南川区 (난청구)		0.2%	0.3%	0.1%	0.2%	0.1%
潼南区 (통난구)		0.2%	0.2%	0.1%	0.2%	0.0%
荣昌县 (롱창구)		0.1%	0.2%	0.1%	0.2%	0.0%
开县 (카이현)		0.4%	0.2%	0.1%	0.1%	-0.3%
梁平县 (량평현)		0.1%	0.1%	0.1%	0.1%	0.0%
大足县 (다주구)		0.1%	0.1%	0.0%	0.1%	0.0%
邻水县 (린양현)		0.1%	0.0%	0.0%	0.1%	0.0%
垫江县 (디장현)		0.2%	0.1%	0.0%	0.1%	-0.1%
丰都县 (펑두현)		0.3%	0.1%	0.1%	0.1%	-0.2%
石柱土家族自治县 (스주투가족 자치현)		0.1%	0.1%	0.0%	0.1%	0.0%
奉节县 (펑제현)		0.1%	0.1%	0.0%	0.0%	0.0%
铜梁区 (통량구)		0.1%	0.0%	0.0%	0.0%	-0.1%
垫江区 (디장구)		0.0%	0.0%	0.0%	0.0%	0.0%
酉阳土家族苗族自治县 (유양투가족 자치현)		0.1%	0.0%	0.0%	0.0%	0.0%
秀山土家族苗族自治县 (슈산 투가족 마오족 자치현)		0.0%	0.1%	0.0%	0.0%	0.0%
忠县 (중현)		0.2%	0.0%	0.0%	0.0%	-0.2%
黔水苗族土家族自治县 (괘수이마오족투가족자치현)		0.1%	0.1%	0.0%	0.0%	-0.1%
酉溪县 (우시현)		0.0%	0.0%	0.0%	0.0%	0.0%
酉山 (우산현)		0.1%	0.1%	0.0%	0.0%	0.0%
城口县 (청커우현)		0.0%	0.0%	0.0%	0.0%	0.0%
黔江区 (첸장구)		0.0%	0.0%	0.0%	0.0%	0.0%
근교		0.0%	0.0%	0.0%	0.0%	0.0%
기타		0.9%	0.7%	0.1%	0.1%	-0.8%

49) 최근 4년 데이터 기준

□ 에스닉/업종별 리뷰 건수

- ‘중식’ 식당의 리뷰 건수의 비율이 2013년 76%에서 2015년 66%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반대로 ‘한식’ 식당의 리뷰 건수의 비율은 2013년 2%에서 2015년 6%로 증가하는 추세임.
- ‘서양식’ 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은 2013년 5%에서 2015년 6%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식’ 식당의 방문 리뷰 건수의 비율은 2013년부터 꾸준히 4% 수준으로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에스닉 식당 중, ‘기타 아시안’ 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이 2013년에 비해 1% 감소하는 추세로 파악됨.

[에스닉별 리뷰 건수 추세(13~15년) - 중저가 식당]



□ 메뉴 현황

○ 주요 추천 메뉴⁵⁰⁾

- ‘중저가 식당’ 업체의 주요 메뉴 중, 많은 소비자가 추천하는 메뉴는 ‘천엽 (1,499건)’이며, 평균 가격은 ‘33.8위안’으로 나타남.
- 그 외 많이 추천되는 외식 메뉴는 평균 가격 ‘26.2위안’인 ‘소고기구이(1,451건)’과 평균 가격 ‘16.7위안’인 ‘오리창자(1,136건)’ 등으로 파악됨.

50) 과거부터 현재(16.04) 시점까지의 누적 추천건수가 활용되었으며, 최근 시점의 추천메뉴와 상이할 수 있음.

[주요 추천 메뉴 - 중저가 식당]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추천 건수
1	毛肚	천엽	33.8	1,499
2	烤牛肉	소고기구이	26.2	1,451
3	鸭肠	오리창자	16.7	1,136
4	石锅鲫鱼	돌솥냄비민물고기	30.3	878
5	混椒鸡	고추닭볶음	-	735
6	麻辣牛肉	마라우육	16.6	581
7	鸡杂	닭내장	40.8	551
8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31.3	542
9	老肉片	돼지고기 얇은 조각	11.4	537
10	烤鱼	생선구이	42.6	516

○ 메뉴별 언급 빈도 시계열 추이

- 15년 리뷰에서 언급빈도가 높은 메뉴들은 대부분 과거 시점 대비 언급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많은 ‘중저가 식당’ 에서 판매하고 있는 ‘횡귀’의 언급 비율은 ‘-8.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서양식’ 메뉴들의 언급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언급 빈도 증감률이 높은 메뉴는 ‘피자’ (0.6%), “ 두리안피자 (0.3%), ‘떡’ (0.3%), ‘부대찌개’ (0.1%) 등으로 나타남.

[2015년 언급빈도 상위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중저가 식당⁵¹⁾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5,306	15,704	65,024	164,744	
1	火锅	횡귀	13.0%	9.4%	5.2%	4.8%	-8.2%
2	牛肉	쇠고기	4.5%	4.1%	2.8%	3.1%	-1.4%
3	饮料	음료	3.1%	3.2%	2.2%	2.0%	-1.1%
4	土豆	감자	2.6%	2.1%	1.5%	1.7%	-0.8%
5	披萨	피자	0.9%	0.6%	0.8%	1.4%	0.6%
6	套餐	세트메뉴	2.8%	2.0%	1.3%	1.2%	-1.6%
7	毛肚	천엽	2.5%	2.1%	1.1%	1.2%	-1.4%
8	牛排	스테이크	2.1%	1.7%	1.0%	1.0%	-1.0%
9	烤鱼	생선구이	2.1%	2.1%	0.9%	1.0%	-1.1%
10	炒饭	차오뵘(볶음밥)	0.7%	0.8%	0.8%	0.9%	0.2%

51)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언급빈도 상승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중저가 식당]⁵²⁾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5,306	15,704	65,024	164,744	
1	披萨	피자	0.9%	0.6%	0.8%	1.4%	0.6%
2	榴莲披萨	두리안피자	0.0%	0.0%	0.1%	0.3%	0.3%
3	年糕	떡	0.5%	0.5%	0.4%	0.7%	0.3%
4	炒饭	차오판(볶음밥)	0.7%	0.8%	0.8%	0.9%	0.2%
5	拉面	라면	0.3%	0.4%	0.3%	0.5%	0.2%
6	部队锅	부대찌개	0.0%	0.1%	0.1%	0.1%	0.1%
7	蔬菜	자채	0.1%	0.1%	0.1%	0.3%	0.1%
8	麻辣牛肉	마라우육	0.2%	0.2%	0.2%	0.3%	0.1%
9	炸鸡	후라이드치킨	0.0%	0.0%	0.0%	0.1%	0.1%
10	土豆沙拉	감자샐러드	0.0%	0.0%	0.0%	0.1%	0.1%

□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들이 리뷰를 많이 남기는 평균 외식당 가격은 ‘39.6위안’ 으로 나타나며, 주로 ‘40~50위안’ 의 가격대에서 많은 리뷰가 분포되고 있음.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중저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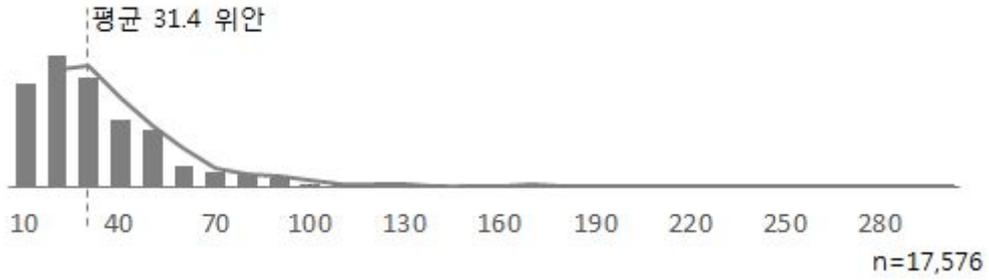
□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⁵³⁾

- 소비자들의 평균 메뉴 추천 가격은 ‘31.4위안’ 으로 나타나며, 추천 건수는 ‘20~4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고 있음.
- 많은 소비자들이 취식하는 ‘천엽’, ‘소고기구이’, ‘오리창자’, ‘마라우육’ 의 추천 가격은 주로 ‘20~40위안’ 사이에 분포되고 있음.

52)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53) 전체 메뉴 데이터 중 메뉴 가격 정보와 추천 건수가 동시에 있는 메뉴 데이터만 활용되었으며, 실제 추천 가격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중저가 식당]



[주요 추천 메뉴 가격 분포 - 중저가 식당]

천엽	<p>평균 19.7 위안</p> <p>n=52</p>
소고기구이	<p>평균 18.0 위안</p> <p>n=4</p>
오리창자	<p>평균 15.9 위안</p> <p>n=60</p>
마라우육	<p>평균 17.8 위안</p> <p>n=12</p>

다) 패스트푸드

□ 외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7P 요소 ‘음식’ 중에서 ‘맛(0.49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으며, ‘향(0.11회/건), ‘양(0.09회/건)’, ‘식감(0.07회/건)’ 관련 단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음.
- ‘물리적 환경’에서는 ‘분위기’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 요소(0.11회/건)’ 과 ‘내부 환경적 요소’ (0.09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적 요소’ (0.03회/건) 관련 단어는 적게 언급되고 있음.
- 그 외 ‘가격’ 요소(0.21회/건)와 ‘프로모션’ 요소의 ‘공동구매’ (1.04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음.

[7P 세부 요소별 언급 빈도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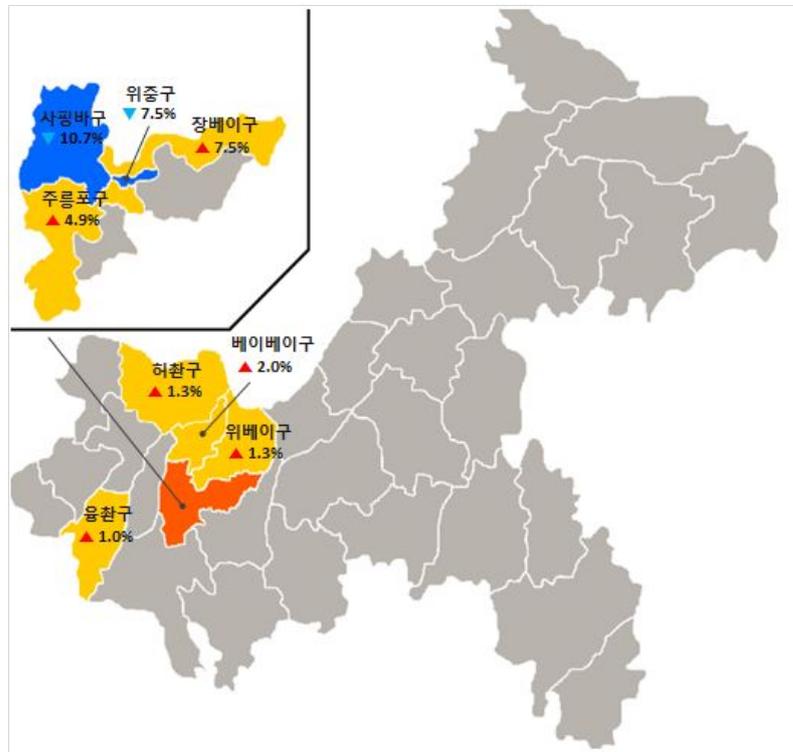
(단위: 언급 빈도/리뷰 건수)

7P 요소	순위	7P 하위 요소	리뷰당 언급 빈도
음식	1	맛	0.49
	2	향	0.11
	3	양	0.09
	4	식감	0.07
가격	1	가격	0.21
위치	1	접근성	0.07
	2	교통편의성	0.01
	3	입지	0.01
프로모션	1	공동구매	1.04
	2	혜택	0.01
	3	상품권/쿠폰	0.01
	4	무료	0.01
물리적 환경	1	내부 디자인 요소	0.11
	2	내부 환경적 요소	0.09
	3	외부 환경적 요소	0.03
서비스	1	대기	0.02
	2	주문	0.02
	3	결제	0.02
	4	포장/배달	0.01
종업원	1	종업원 태도	0.05
	2	사장님	0.01
	3	요리사	0.01
	4	복장/용모	0.00

□ 상권별 리뷰 건수

- 충청 주변 상권(구)의 리뷰 건수 비율은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심 구역은 리뷰 건수 추세가 변동하고 있음.
- 중심 구역의 ‘주릉포구’ (4.9%)와 ‘장배이구’ (7.5%)에서는 리뷰 건수 비율이 최근 4년 간 증가 추세이나, ‘샤핑바구’ (-10.7%), ‘위중구’ (-7.5%)에서는 리뷰 건수 비율이 감소 추세임.
- 중심 구역 주변 상권 중에서는 ‘허찬구’ (1.3%), ‘위베이구’ (1.3%), ‘베이베이구’ (2.0%)의 리뷰 건수 비율이 증가 추세로 파악됨.

[상권별 리뷰 건수 증감 현황 - 패스트푸드]⁵⁴⁾



54) 최근 4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감 현황을 표시

[상권별 리뷰 건수 추세 - 패스트푸드]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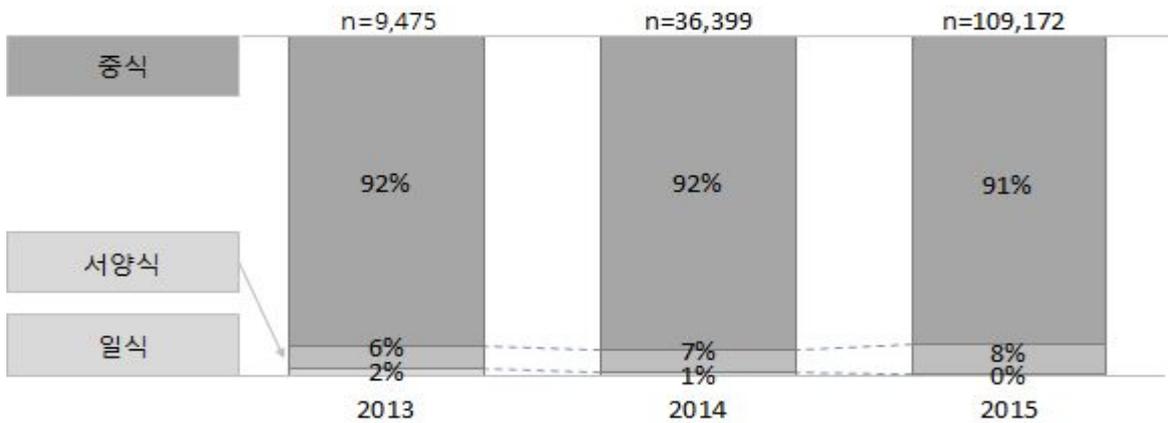
상권(구)	전체 수	12.05~13.04	13.05~14.04	14.05~15.04	15.05~16.04	47년 Gap
渝中区 (위중구)		31.2%	30.5%	29.0%	23.6%	-7.5%
江北区 (장베이구)		8.7%	9.8%	12.2%	16.2%	7.5%
九龙坡区 (주룽포구)		8.3%	8.1%	12.7%	13.2%	4.9%
沙坪坝区 (사핑바구)		23.5%	21.0%	16.0%	12.8%	-10.7%
南岸区 (난안구)		10.9%	11.6%	12.5%	11.4%	0.4%
渝北区 (위베이구)		8.4%	10.1%	9.6%	9.8%	1.3%
北碚区 (베이베이구)		0.8%	1.6%	1.2%	2.8%	2.0%
万州区 (완저우구)		1.6%	0.8%	0.6%	1.9%	0.3%
合川区 (허청구)		0.5%	0.6%	0.8%	1.8%	1.3%
大渡口区 (다두커우구)		2.1%	1.3%	1.7%	1.7%	-0.4%
永川区 (영청구)		0.3%	1.1%	0.7%	1.3%	1.0%
巴南区 (바난구)		1.0%	0.7%	1.1%	1.0%	-0.1%
涪陵区 (푸링구)		0.3%	0.3%	0.2%	0.6%	0.4%
长寿区 (장서우)		0.2%	0.4%	0.1%	0.4%	0.2%
璧山区 (비산구)		0.1%	0.1%	0.2%	0.2%	0.1%
开县 (카이현)		0.2%	0.1%	0.1%	0.2%	0.0%
荣昌县 (융창현)		0.1%	0.1%	0.1%	0.2%	0.0%
荣昌区 (융창구)		0.2%	0.2%	0.1%	0.1%	-0.1%
江津区 (장진구)		0.2%	0.1%	0.2%	0.1%	-0.1%
南川区 (난청구)		0.1%	0.2%	0.1%	0.1%	0.0%
潼南区 (통난구)		0.2%	0.1%	0.1%	0.1%	-0.1%
铜梁县 (통평현)		0.1%	0.1%	0.1%	0.1%	0.0%
铜梁区 (통평구)		0.1%	0.0%	0.0%	0.1%	0.0%
垫江县 (전장현)		0.1%	0.1%	0.1%	0.1%	-0.1%
丰都县 (풍두현)		0.1%	0.1%	0.1%	0.0%	0.0%
石柱土家族自治县 (스주투가족 자치현)		0.0%	0.0%	0.0%	0.0%	0.0%
酉阳土家族苗族自治县 (유양투가족 자치현)		0.0%	0.0%	0.0%	0.0%	0.0%
梁平县 (평제현)		0.0%	0.1%	0.0%	0.0%	0.0%
秀山土家族苗族自治县 (슈산 투가족 먀오족 자치현)		0.1%	0.1%	0.0%	0.0%	-0.1%
忠县 (중현)		0.1%	0.1%	0.0%	0.0%	-0.1%
铜梁区 (통량구)		0.0%	0.0%	0.0%	0.0%	0.0%
黔水苗族土家族自治县 (평수이먀오족투가족자치현)		0.0%	0.0%	0.0%	0.0%	0.0%
巫山県 (우산현)		0.0%	0.0%	0.0%	0.0%	0.0%
巫溪县 (우시현)		0.0%	0.0%	0.0%	0.0%	0.0%
城口县 (청커우현)		0.0%	0.0%	0.0%	0.0%	0.0%
黔江区 (치장구)		0.0%	0.0%	0.0%	0.0%	0.0%
大足县 (다주구)		0.0%	0.0%	0.0%	0.0%	0.0%
黔江区 (청장구)		0.0%	0.0%	0.0%	0.0%	0.0%
근교		0.0%	0.0%	0.0%	0.0%	0.0%
기타		0.2%	0.5%	0.0%	0.0%	-0.2%

55) 최근 4년 데이터 기준

□ 에스닉/업종별 리뷰 건수

- ‘중식’ 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은 2013년 92%에서 2015년 91%로 크게 추세 변동이 나타나지 않음. ‘일식’ 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은 2013년 2%에서 2015년 0%로 감소하였음.
- ‘서양식’ 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은 2013년 6%에서 2015년 8%로, 2%로 증가하였음.

[에스닉별 리뷰 건수 추세(13~15년) - 패스트푸드]



□ 메뉴 현황

○ 주요 추천 메뉴(56)

- ‘패스트푸드’ 업체의 주요 메뉴 중, 다수의 소비자가 추천하는 메뉴는 ‘짜지양수안라면(1,823건)’이며, 평균 가격은 ‘6.8위안’ 임.
- 그 외 추천 외식 메뉴는 평균 가격 ‘14.7위안’ 인 ‘쇠고기 면(1,652건)’ 와 평균 가격 ‘10.7위안’ 인 ‘완두고기면(1,255건)’ 임.

[주요 추천 메뉴 - 패스트푸드]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추천 건수
1	杂酱酸辣粉	짜지양수안라면	6.8	1,823
2	牛肉面	쇠고기 면	14.7	1,652
3	豌豆面	완두고기면	10.7	1,255
4	酸辣粉	새콤매콤당면	7.1	1,080
5	小面	소면	5.6	867
6	抄手	완탕	9.8	578
7	酸菜肉丝米线	돼지고기국수	9.7	364
8	麻花	과배기	15.0	332
9	刨冰	빙수	11.5	321
10	鸡汁锅贴	닭육수군만두	5.0	315

56) 과거부터 현재(16.04) 시점까지의 누적 추천건수가 활용되었으며, 최근 시점의 추천메뉴와 상이할 수 있음.

○ 메뉴별 언급 빈도 시계열 추이

- 15년 리뷰에서 언급빈도가 높은 메뉴들은 대부분 과거 시점 대비 언급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많은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 관련 메뉴의 언급 비율도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언급 빈도 증가율이 높은 메뉴는 ‘프렌치프라이’ (0.7%), ‘디저트’ (0.4%), ‘튀김’ (0.3%) 등으로 나타남.

[2015년 언급빈도 상위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패스트푸드]⁵⁷⁾

순위	메뉴명 (한자)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3,465	9,475	36,399	109,172	
1	牛肉	쇠고기	10.2%	8.3%	4.5%	4.0%	-6.2%
2	小面	소면	6.0%	5.6%	3.6%	2.8%	-3.1%
3	套餐	세트메뉴	2.5%	1.5%	1.4%	1.6%	-1.0%
4	火锅	튀김	1.2%	1.0%	1.1%	1.5%	0.3%
5	饮料	음료	2.0%	1.6%	1.7%	1.5%	-0.6%
6	牛肉面	우육면	4.8%	3.8%	1.8%	1.4%	-3.4%
7	抄手	완탕	6.1%	4.1%	1.6%	1.3%	-4.8%
8	汉堡	햄버거	0.9%	0.7%	0.6%	1.1%	0.3%
9	香肠	돼지장자	3.2%	2.2%	1.3%	1.1%	-2.1%
10	薯条	프렌치프라이	0.4%	0.7%	1.0%	1.1%	0.7%

[언급빈도 상승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패스트푸드]⁵⁸⁾

순위	메뉴명 (한자)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3,465	9,475	36,399	109,172	
1	薯条	프렌치프라이	0.4%	0.7%	1.0%	1.1%	0.7%
2	甜品	디저트	0.4%	0.7%	0.8%	0.8%	0.4%
3	火锅	튀김	1.2%	1.0%	1.1%	1.5%	0.3%
4	汉堡	햄버거	0.9%	0.7%	0.6%	1.1%	0.3%
5	夫妻肺片	쇠고기편육모듬	0.3%	0.4%	1.0%	0.6%	0.3%
6	鸡排	지파이	0.3%	0.3%	0.4%	0.6%	0.2%
7	鱿鱼	오징어	0.4%	0.4%	0.8%	0.6%	0.2%
8	酸梅汤	오매탕	0.1%	0.4%	0.2%	0.3%	0.2%
9	炸鸡	후라이드치킨	0.3%	0.3%	0.3%	0.5%	0.2%
10	毛肚	전엽	0.3%	0.2%	0.3%	0.4%	0.2%

57)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58)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들이 리뷰를 많이 남기는 평균 외식당 가격은 ‘23.7위안’ 으로 나타나며, 주로 ‘10~30위안’ 의 가격대에서 많은 리뷰가 분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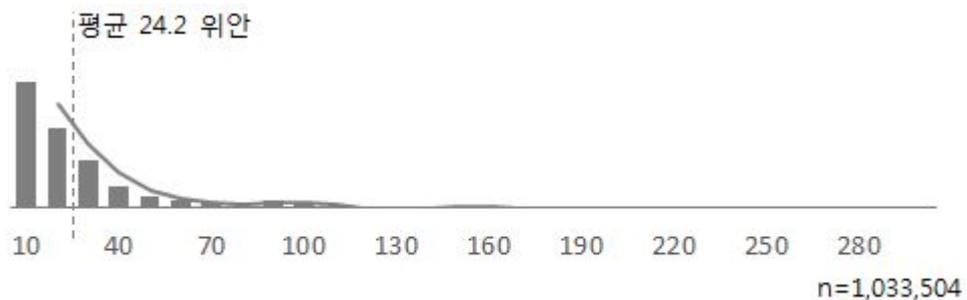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패스트푸드]



□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⁵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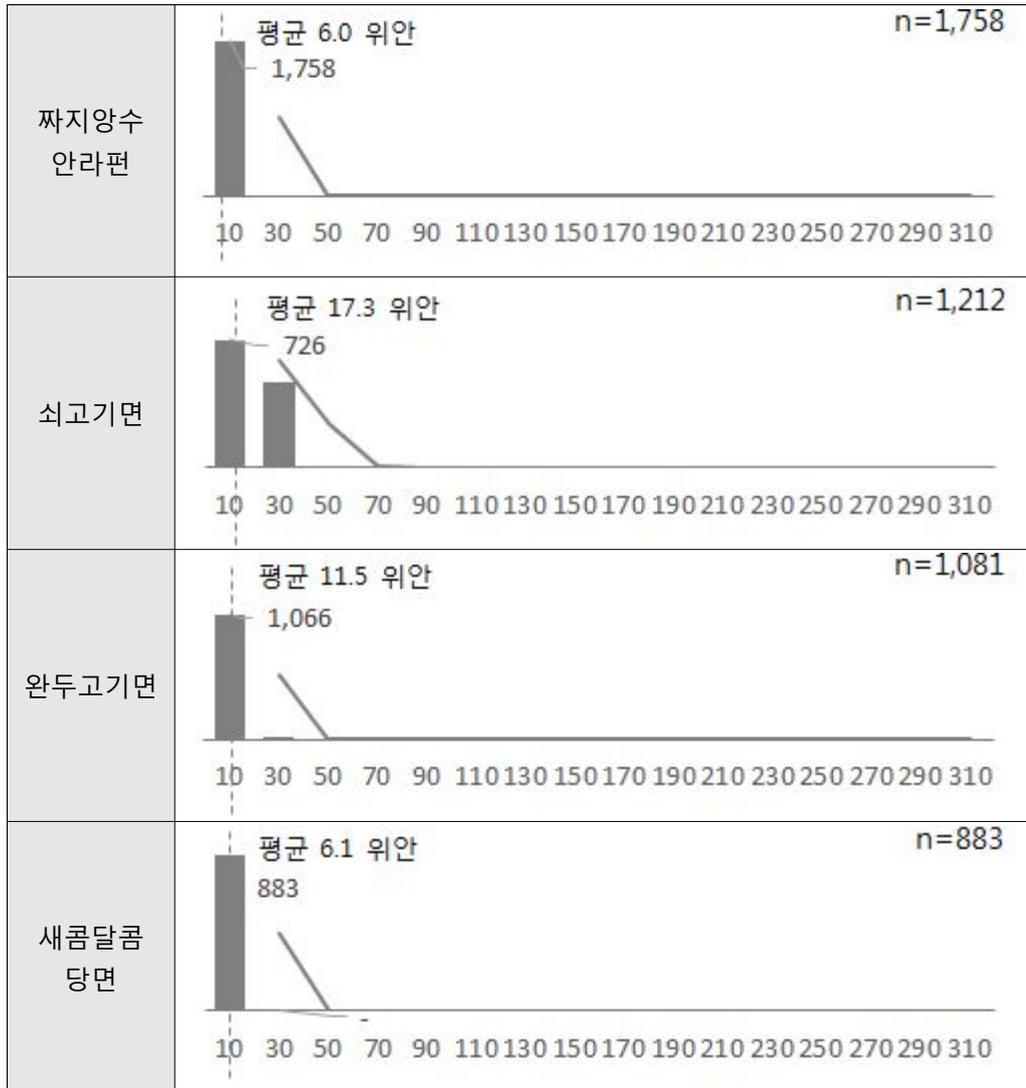
- 소비자가 추천하는 메뉴의 평균 가격은 ‘24.2위안’ 으로 나타나며, 주로 추천하는 메뉴 건수의 분포는 ‘10위안’ 의 가격대에 가장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 주요 메뉴는 대부분 ‘20위안 미만’ 가격대에서 추천 건수가 분포되고 있음.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패스트푸드]



59) 전체 메뉴 데이터 중 메뉴 가격 정보와 추천 건수가 동시에 있는 메뉴 데이터만 활용되었으며, 실제 추천 가격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주요 메뉴 가격 분포 - 패스트푸드]



라) 카페/바

□ 외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7P 요소 ‘음식’ 중에서 ‘맛(0.40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으며, ‘향(0.08회/건), ‘식감(0.07회/건)’, ‘양(0.03회/건)’ 관련 단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에서는 ‘분위기’ 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 요소(0.17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내부 환경적 요소’ (0.08회/건)와 ‘외부 환경적 요소’ (0.03회/건) 관련 단어는 적게 언급되고 있음.
- 그 외 ‘가격’ 요소(0.21회/건)와 ‘프로모션’ 요소의 ‘공동구매’ (1.22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음.

[7P 세부 요소별 언급 빈도 - 카페/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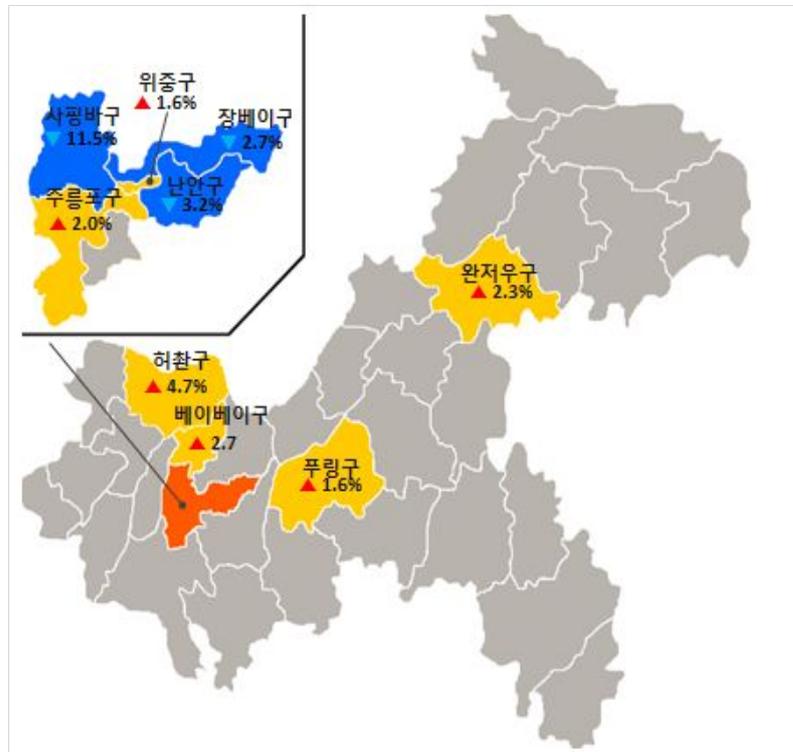
(단위: 언급 빈도/리뷰 건수)

7P 요소	순위	7P 하위 요소	리뷰당 언급 빈도
음식	1	맛	0.40
	2	향	0.08
	3	식감	0.07
	4	양	0.03
가격	1	가격	0.21
위치	1	접근성	0.06
	2	교통편의성	0.01
	3	입지	0.01
프로모션	1	공동구매	1.22
	2	시식	0.02
	3	혜택	0.02
	4	상품권/쿠폰	0.01
물리적 환경	1	내부 디자인 요소	0.17
	2	내부 환경적 요소	0.08
	3	외부 환경적 요소	0.03
서비스	1	주문	0.02
	2	결제	0.01
	3	예약	0.01
	4	포장/배달	0.01
종업원	1	종업원 태도	0.07
	2	사장님	0.01
	3	복장/용모	0.01
	4	요리사	0.00

□ 상권별 리뷰 건수

- 충청 중심 구역의 리뷰 건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변 상권(구)의 리뷰 건수 비율은 증가 추세로 파악됨.
- 중심 구역에서 ‘주릉포구’ (2.0%)를 제외한 나머지 ‘샤핑바구’ (-11.5%)와 ‘난인구’ (-3.2%), ‘장베이구’ (-2.7%)에서는 리뷰 건수 비율이 최근 4년 간 감소 추세로 나타남.
- 중심 구역 외 주변 상권 중에서는 ‘허환구’ (4.7%), ‘베이베이구’ (2.7%), ‘완저우구’ (2.3%), ‘푸림구’ (1.6%)의 의 리뷰 건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상권별 리뷰 건수 증감 현황 - 카페/바]⁶⁰⁾



60) 최근 4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감 현황을 표시

[상권별 리뷰 건수 추세 - 카페/바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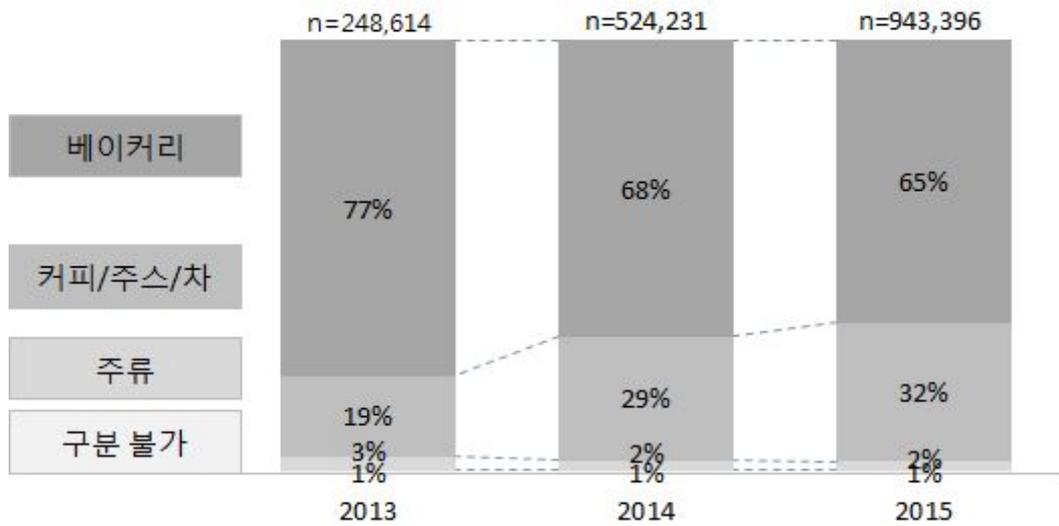
상권(구)	전체 수	12.05~13.04	13.05~14.04	14.05~15.04	15.05~16.04	4개년 Gap
渝中区 (위중구)		23.3%	25.2%	27.1%	24.9%	16%
江北区 (장베이구)		22.1%	25.0%	22.5%	19.4%	-2.7%
九龙坡区 (주룽포구)		8.5%	6.5%	11.8%	10.6%	2.0%
沙坪坝区 (사핑바구)		21.5%	18.1%	12.1%	10.0%	-11.5%
南岸区 (난안구)		12.1%	12.8%	11.1%	8.8%	-3.2%
渝北区 (위베이구)		7.7%	7.1%	8.4%	6.8%	-0.9%
合川区 (허촨구)		0.2%	0.4%	1.1%	4.9%	4.7%
北碚区 (베이베이구)		1.2%	1.1%	1.1%	3.8%	2.7%
万州区 (완저우구)		0.3%	0.3%	0.6%	2.6%	2.3%
涪陵区 (푸링구)		0.1%	0.2%	0.1%	1.7%	1.6%
大渡口区 (다두커우구)		0.7%	0.7%	1.2%	1.1%	0.4%
永川区 (영촨구)		0.3%	0.9%	1.1%	1.0%	0.7%
巴南区 (바난구)		0.5%	0.4%	0.9%	0.9%	0.3%
长寿区 (장서우)		0.2%	0.2%	0.2%	0.7%	0.5%
开县 (카이현)		0.1%	0.1%	0.0%	0.7%	0.6%
璧山区 (비산구)		0.2%	0.2%	0.1%	0.3%	0.1%
垫江县 (전장현)		0.0%	0.1%	0.0%	0.3%	0.3%
南川区 (난촨구)		0.1%	0.2%	0.1%	0.2%	0.1%
丰都县 (펑두현)		0.1%	0.0%	0.0%	0.2%	0.0%
忠县 (중지현)		0.0%	0.0%	0.0%	0.2%	0.1%
江津区 (장진구)		0.2%	0.1%	0.1%	0.1%	-0.1%
武隆县 (우룽현)		0.0%	0.0%	0.0%	0.1%	0.1%
梁平县 (량핑현)		0.0%	0.0%	0.1%	0.1%	0.0%
云阳县 (윈양현)		0.0%	0.0%	0.1%	0.1%	0.1%
黔水苗族土家族自治县 (펑수이마오족투자족자치현)		0.0%	0.0%	0.0%	0.1%	0.1%
潼南区 (통난구)		0.0%	0.0%	0.0%	0.1%	0.0%
石柱土家族自治县 (슈주투자족 자치현)		0.0%	0.0%	0.0%	0.1%	0.1%
巫山县 (위산현)		0.0%	0.0%	0.0%	0.0%	0.0%
忠县 (중현)		0.0%	0.0%	0.0%	0.0%	0.0%
奉节县 (펑절현)		0.0%	0.1%	0.0%	0.0%	0.0%
开县 (카이현)		0.0%	0.0%	0.0%	0.0%	0.0%
大足区 (다주구)		0.0%	0.0%	0.0%	0.0%	0.0%
秀山土家族自治县 (슈산 투자족 마오족 자치현)		0.1%	0.0%	0.0%	0.0%	-0.1%
黔江区 (전장구)		0.0%	0.0%	0.0%	0.0%	0.0%
酉阳土家族自治县 (유양투자족 자치현)		0.0%	0.0%	0.0%	0.0%	0.0%
铜梁区 (통량구)		0.0%	0.0%	0.0%	0.0%	0.0%
城口县 (청커우현)		0.0%	0.0%	0.0%	0.0%	0.0%
근교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 에스닉/업종별 리뷰 건수

- 가장 높은 리뷰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커리’ 업종 리뷰 건수 비율은 2013년 77%에서 2015년 65%로 감소하는 추세임.
- 반면에 ‘커피/주스/차’ 업종의 리뷰 건수 비율은 2013년 19%에서 2015년 32%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류’ 업종은 2013년 3%에서 2015년 2%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61) 최근 4년 데이터 기준

[에스닉별 리뷰 건수 추세(13~15년) - 카페/바]



□ 메뉴 현황

○ 주요 추천 메뉴(62)

- ‘카페/바’ 업태의 주요 메뉴 중, 많은 소비자가 추천하는 메뉴는 ‘카페라떼 (409건)’ 이며, 평균 가격은 ‘29.4위안’ 으로 나타남.
- 그 외 추천 메뉴는 평균 가격 ‘69.6위안’ 인 ‘티라미수(399건)’ 과 평균 가격 ‘23.7위안’ 인 ‘망고푸딩(365건)’ 등으로 파악됨.

[주요 추천 메뉴 - 카페/바]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추천 건수
1	拿铁	카페라떼	29.4	409
2	提拉米苏	티라미수	69.6	399
3	杨枝甘露	망고푸딩	23.7	365
4	拿破仑	밀푼유	14.8	317
5	芝士蛋糕	치즈케이크	23.0	315
6	卡布奇诺	카푸치노	29.1	265
7	老婆饼	라오포빙(아내의떡)	5.2	230
8	烤牛排	스테이크	62.9	224
9	暴风雪	아이스크림셰이크	13.2	215
10	酸奶	요구르트	12.0	206

62) 과거부터 현재(16.04) 시점까지의 누적 추천건수가 활용되었으며, 최근 시점의 추천메뉴와 상이할 수 있음.

○ 메뉴별 언급 빈도 시계열 추이

- 15년 리뷰에서 언급빈도가 높은 메뉴들은 대부분 과거 시점 대비 언급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많은 '카페/바'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케이크'와 '커피'의 언급 비율은 최근 4년 간 각각 '-3.9%', '-8.7%'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반면 언급 빈도 증가율이 높은 메뉴는 '두리안크레페케이크' (1.0%), '라즈지' (0.3%), '까이단자이' (0.2%) 등으로 파악됨.

[2015년 언급빈도 상위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카페/바]⁶³⁾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2,640	7,728	34,496	109,097	
1	蛋糕	케이크	13.9%	10.5%	9.6%	10.1%	-3.9%
2	咖啡	커피	14.5%	12.3%	8.1%	5.8%	-8.7%
3	面包	빵	9.5%	6.1%	4.5%	5.0%	-4.5%
4	甜品	디저트	10.1%	9.5%	5.2%	3.9%	-6.2%
5	奶茶	밀크티	4.7%	4.5%	2.9%	2.6%	-2.1%
6	冰淇淋	아이스크림	4.8%	3.6%	3.7%	2.6%	-2.2%
7	酸奶	요구르트	2.3%	2.0%	1.8%	2.4%	0.1%
8	奶油	크림	3.4%	2.8%	2.3%	2.3%	-1.1%
9	饮料	음료	4.0%	3.3%	2.5%	2.0%	-2.0%
10	巧克力	초콜릿	4.8%	3.1%	2.1%	1.5%	-3.3%

[언급빈도 상승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카페/바]⁶⁴⁾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2,640	7,728	34,496	109,097	
1	榴莲千层	두리안크레페케이크	0.0%	0.0%	0.0%	1.0%	1.0%
2	辣子鸡	라즈지	0.0%	0.0%	0.2%	0.3%	0.3%
3	鸡蛋仔	까이단자이(홍콩 간식)	0.1%	0.0%	0.0%	0.3%	0.2%
4	水果茶	과실차	0.0%	0.1%	0.2%	0.2%	0.1%
5	酸奶	요구르트	2.3%	2.0%	1.8%	2.4%	0.1%
6	松饼	머핀	0.3%	0.3%	0.7%	0.4%	0.1%
7	牛肉面	우육면	0.1%	0.1%	0.1%	0.1%	0.1%
8	抹茶拿铁	라떼말차	0.1%	0.1%	0.1%	0.1%	0.1%
9	鱼蛋	위단(어묵)	0.0%	0.0%	0.0%	0.0%	0.0%
10	腊肠	돼지창자	0.0%	0.1%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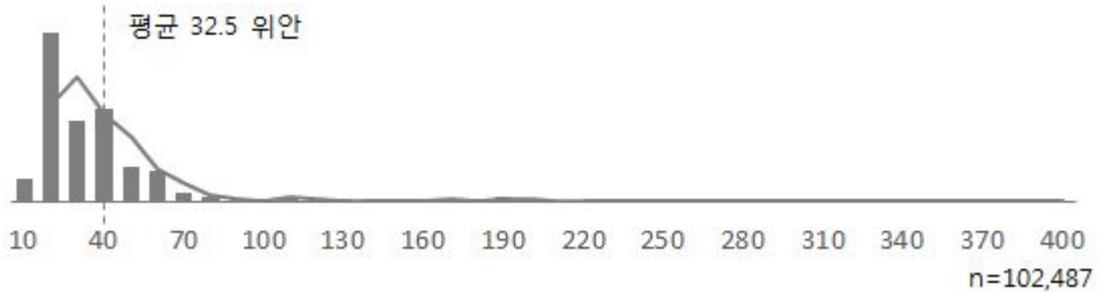
63)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64)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들이 리뷰를 많이 남기는 평균 외식당 가격은 ‘32.5위안’ 으로 나타나며, 주로 ‘10~40위안’ 의 가격대에서 많은 리뷰가 분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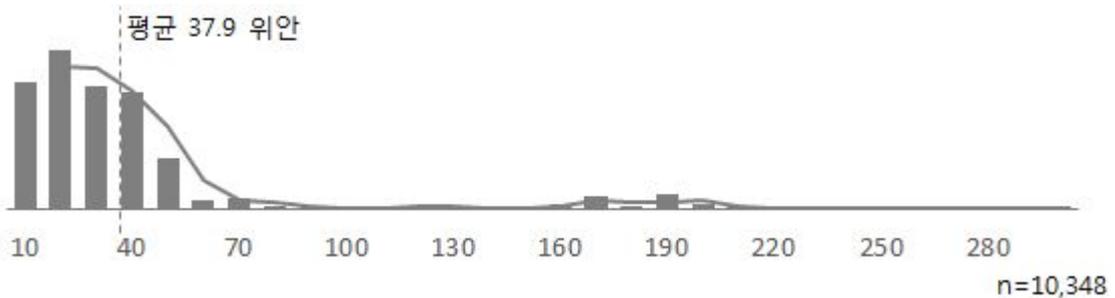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카페/바]



□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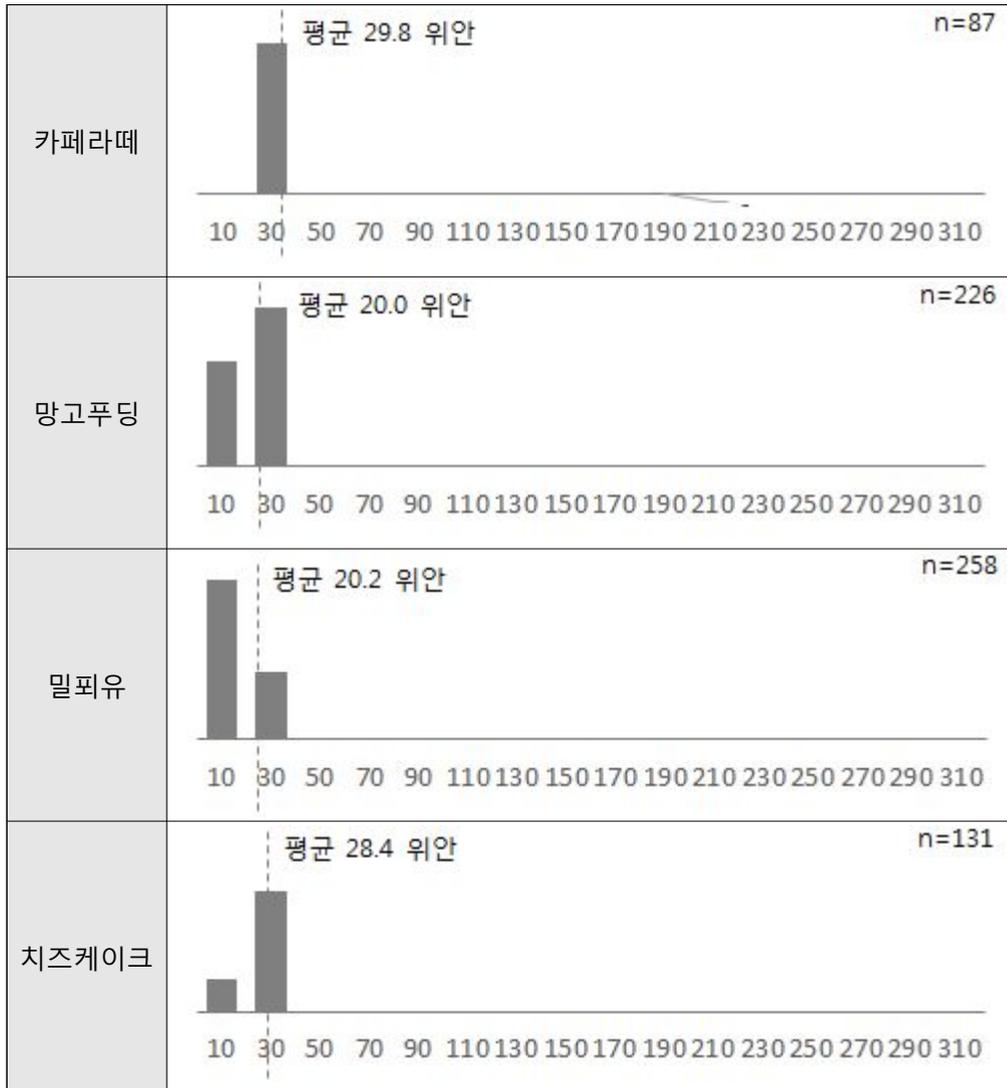
- 메뉴의 평균 추천 가격은 ‘37.9위안’ 으로 나타나며, 추천 건수는 ‘10~40위안’ 의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카페/바]



65) 전체 메뉴 데이터 중 메뉴 가격 정보와 추천 건수가 동시에 있는 메뉴 데이터만 활용되었으며, 실제 추천 가격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주요 메뉴 가격 분포 - 카페/바]



3. 도시 한식 공급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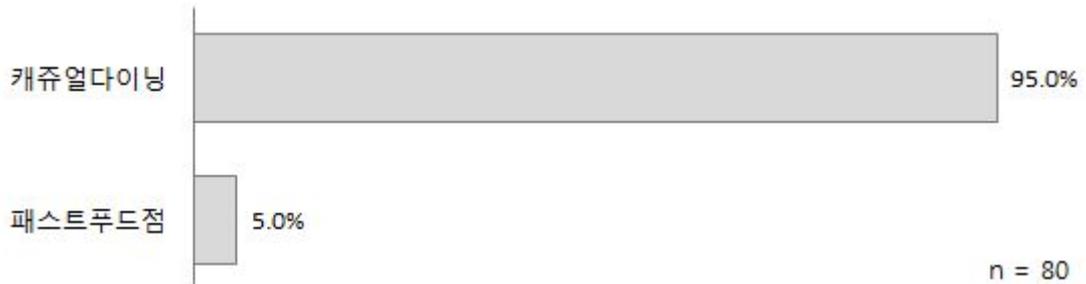
3.1 경영주 설문조사 결과⁶⁶⁾

1) 한식당 일반 정보

○ 업체 구성

- 경영주 설문 조사 결과 ‘캐주얼다이닝’ 형태의 한식당 비율이 95%로 나타남. 이어서 ‘패스트푸드점’ 형태의 한식당 비율이 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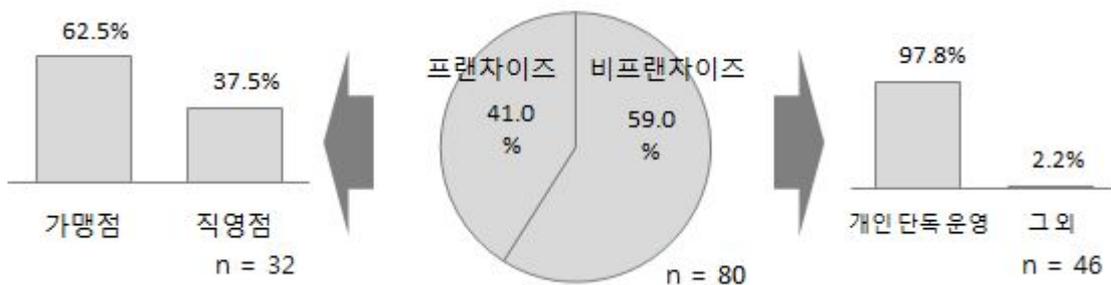
[업체별 한식당 운영 현황]



○ 프랜차이즈 현황

- 한식당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한식당의 41.0%가 ‘프랜차이즈’에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비프랜차이즈’의 비율은 59.0%로 조사됨.
- 프랜차이즈 한식당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이 6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영점’은 37.5%로 조사됨. 비프랜차이즈 한식당의 경우 ‘개인 단독 운영’의 비율이 97.8%를 차지함.

[프랜차이즈 가입여부 및 세부 운영 형태]



66) 자세한 설문의 개요 및 응답자 특성은 본문 앞 조사 개요 챕터에 수록된 경영주 설문란을 참고하시길 바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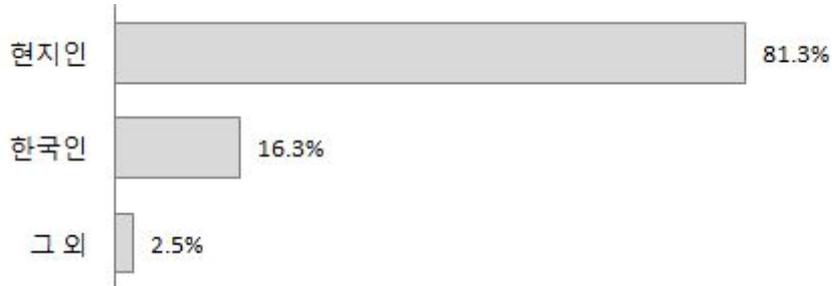
[업태별 프랜차이즈 현황]

항 목	구 분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총 샘플 수		0개	76개	4개	0개
프랜차이즈	샘플 수	0개	38개	2개	0개
	직영점	0.0%	60.0%	0.0%	0.0%
	가맹점	0.0%	40.0%	100.0%	0.0%
비프랜차이즈	샘플 수	0개	38개	2개	0개
	개인 단독 운영	0.0%	100.0%	97.7%	0.0%
	그 외	0.0%	0.0%	2.3%	0.0%

○ 경영주 국적

- 경영주 설문 조사 결과, 경영주 국적 중 ‘현지인(81.3%)’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 국적은 ‘한국인(16.3%)’, ‘그 외(2.5%)’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식당 경영주 국적]



[업태별 경영주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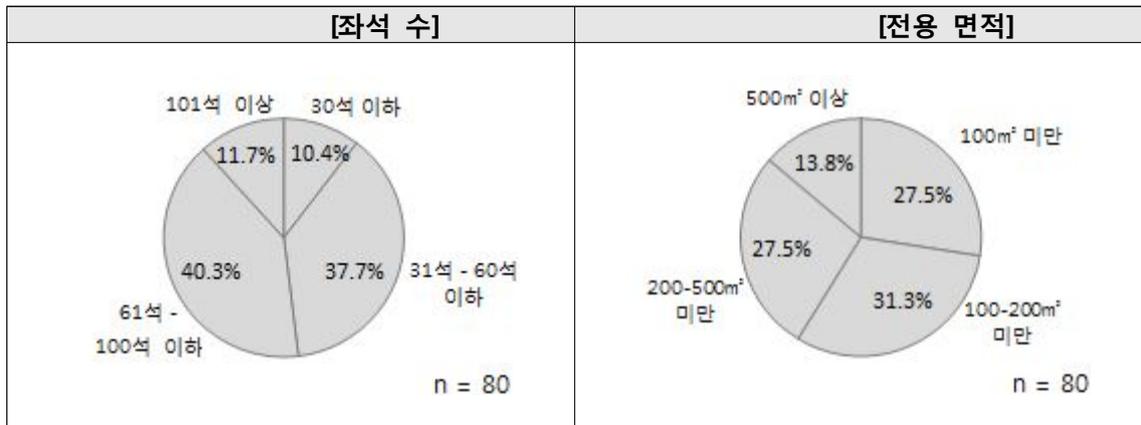
항 목	단 위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개	0개	76개	4개	0개
한국인	%	0.0%	17.1%	0.0%	0.0%
현지인	%	0.0%	80.3%	100.0%	0.0%
그 외	%	0.0%	2.6%	0.0%	0.0%

○ 수용 인원 및 면적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 한식당 좌석 수는 ‘61석-100석 이하(40.3%)’, ‘31석-60석 이하(37.7%)’ 등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용 면적은 ‘100-200㎡미만(31.3%)’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좌석 수 및 전용 면적]



[업태별 좌석 수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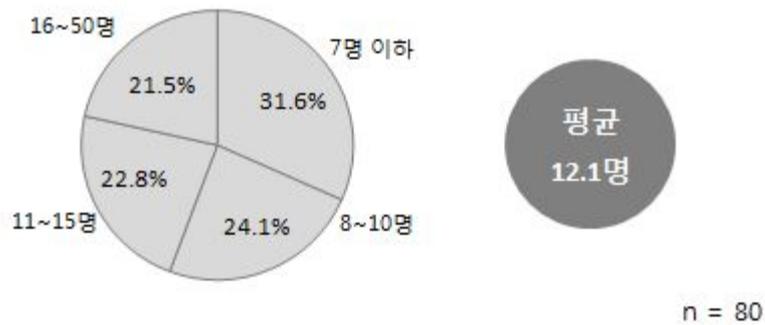
항 목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76개	4개	0개
30석 이하	0.0%	6.6%	75.0%	0.0%
31-60석 이하	0.0%	38.2%	0.0%	0.0%
61-100석 이하	0.0%	40.8%	0.0%	0.0%
101석 이상	0.0%	11.8%	0.0%	0.0%
샘플 수	0개	76개	4개	0개
100㎡ 미만	0.0%	23.7%	100.0%	0.0%
100-200㎡ 미만	0.0%	32.9%	0.0%	0.0%
200-500㎡ 미만	0.0%	28.9%	0.0%	0.0%
500㎡ 이상	0.0%	14.5%	0.0%	0.0%

2) 한식당 운영 정보

○ 종업원 규모

- 한식당 종업원 규모에서 종업원 수는 평균 12.1명이며, 규모별로 살펴보면 ‘7명 이하(31.6%)’ 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어서 ‘8~10명(24.1%)’, ‘11~15명(22.8%)’ 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식당 업태별 기준으로 구역별 종업원수를 살펴보면, ‘주방의 총 종업원 평균 인원’ 은 6.1명으로 조사됨, 또한 ‘캐주얼다이닝 주방의 종업원 평균 인원’ 은 6.3명으로 조사됨.
- ‘홀의 경우, 총 종업원 평균 인원’ 은 6명, ‘캐주얼다이닝 종업원 평균 인원’ 은 6.3명으로 나타남.

[종업원 규모 비율 및 평균 종업원 수]



[업태별 종업원 규모 비율]

항목	평균	업태별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모름/무응답
샘플수	80	0	76	4	0	0
7명이하	31.6%	0.0%	28.0%	100.0%	0.0%	0.0%
8-10명	24.1%	0.0%	25.3%	0.0%	0.0%	0.0%
11-15명	22.8%	0.0%	24.0%	0.0%	0.0%	0.0%
16-50명	21.5%	0.0%	22.7%	0.0%	0.0%	0.0%

[업태별/구역별 종업원 평균 수]

항목		평균	업태별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모름/무응답
샘플수		80	0	76	4	0	0
전체	홀평균	6.0	0.0	6.3	1.8	0.0	0.0
	주방평균	6.1	0.0	6.3	2.3	0.0	0.0
7명이하	홀평균	2.6	0.0	2.6	1.8	0.0	0.0
	주방평균	3.1	0.0	3.2	2.3	0.0	0.0
8-10명	홀평균	4.0	0.0	4.2	0.0	0.0	0.0
	주방평균	4.6	0.0	4.8	0.0	0.0	0.0
11-15명	홀평균	6.3	0.0	6.6	0.0	0.0	0.0
	주방평균	5.8	0.0	6.1	0.0	0.0	0.0
16-50명	홀평균	12.0	0.0	12.7	0.0	0.0	0.0
	주방평균	11.6	0.0	12.2	0.0	0.0	0.0

○ 방문 고객 특성

- 한식당에 방문하는 고객 중 한국인과 현지인, 외국인의 비율은 81.8%가 ‘현지인’ 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인’ 과 ‘외국인’ 은 각각 15.7%와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식당 방문 고객 비율]



[업태별 한식당 방문 고객 비율]

항 목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252개	9개	0개
한국인 또는 한국계	0.0%	16.3%	3.3%	0.0%
현지인	0.0%	81.1%	96.3%	0.0%
한국인 아닌 외국인	0.0%	2.6%	0.5%	0.0%

○ 메뉴 특성⁶⁷⁾

- 한식당 대표 메뉴로 응답빈도가 가장 높은 메뉴는 ‘비빔밥(71.3%)’ 으로 나타남.
- 이어서 ‘불고기(61.3%)’, ‘찌개(47.5%)’, ‘떡볶이(41.3%)’, ‘전골(13.8%)’ 등의 순으로 응답빈도가 높은 메뉴로 나타남.

[업태별 주요 메뉴 순위]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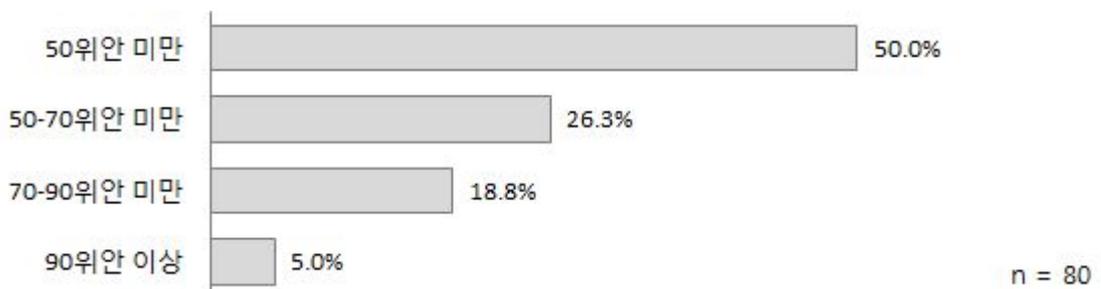
(n = 80, 중복 응답)

순위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메뉴명	응답률	메뉴명	응답률	메뉴명	응답률	메뉴명	응답률
샘플 수	0개		254개		9개		0개	
1	-	0.0%	비빔밥	73.7%	떡볶이	75.0%	-	0.0%
2	-	0.0%	불고기	64.5%	김밥	75.0%	-	0.0%
3	-	0.0%	찌개	50.0%	Korean BBQ	25.0%	-	0.0%
4	-	0.0%	떡볶이	39.5%	비빔밥	25.0%	-	0.0%
5	-	0.0%	전골	14.5%	-	0.0%	-	0.0%

○ 객단가

- 경영주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식당의 객단가는 ‘50위안 미만(50.0%)’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50-70위안 미만(26.3%)’ 의 객단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업태별 객단가를 살펴보면, 캐주얼다이닝에서 ‘50위안 미만’ 이 각각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된 패스트푸드에서는 ‘50위안 미만’ 의 객단가 비율이 100%로 조사됨.

[한식당 객단가]



67) 경영주 설문 조사 내 ‘귀하 식당의 대표 메뉴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 3가지’ 에 대한 응답 결과
 68)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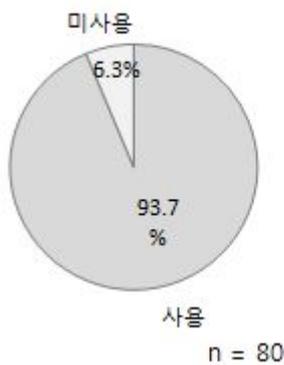
[업태별 한식당 객단가]

항 목	단 위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개	0개	76개	4개	0개
50위안 미만	%	0.0%	47.4%	100.0%	0.0%
50-70위안 미만	%	0.0%	27.6%	0.0%	0.0%
70-90위안 미만	%	0.0%	19.7%	0.0%	0.0%
90위안 이상	%	0.0%	5.3%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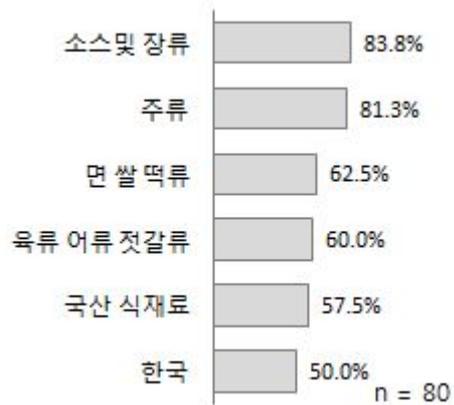
○ 한국산 식재료 사용 현황

- 한식당 중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은 93.7%로 조사됨.
- 식재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식당 중 ‘소스 및 장류’ 를 사용하는 비율이 8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업태별 기준으로 종류별 식재료 사용 비율을 조사한결과, 캐주얼다이닝에서 ‘주류(100%)’, ‘소스 및 장류(100%)’, ‘면, 쌀, 떡류(100%)’, ‘기타 식재료 (100%)’ 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한국산 식재료 사용 비율]



[식재료별 한국산 사용 비율]⁶⁹⁾



69)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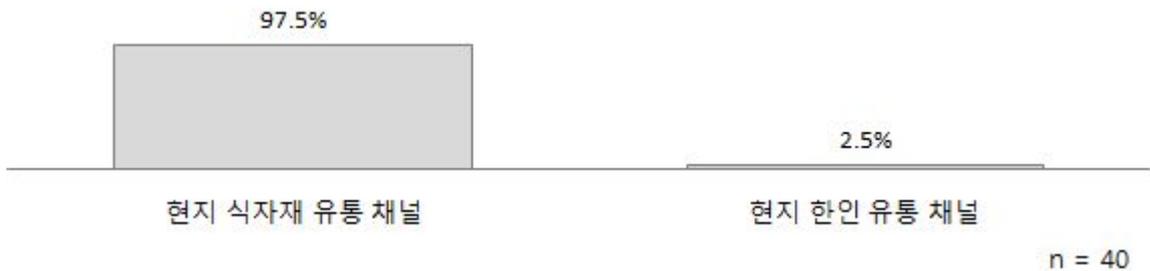
[업태별 한국산 식재료 사용 비율]⁷⁰⁾

항 목	파인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76개	4개	0개
소스 및 장류	0.0%	75.0%	56.6%	0.0%
주류	0.0%	75.0%	84.2%	0.0%
면, 쌀, 떡류	0.0%	75.0%	61.8%	0.0%
육류, 어류, 젓갈류	0.0%	25.0%	84.2%	0.0%
기타	0.0%	75.0%	59.2%	0.0%
채소류	0.0%	50.0%	50.0%	0.0%

○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채소류
- 한국산 채소류를 구매하는 경로는 ‘현지 식자재 유통 채널(97.5%)’ 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경로로 나타남.
- 업태별로 살펴보면 ‘캐주얼다이닝’ 은 ‘현지 식자재 유통 채널(97.4%)’ 의 구매 경로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채소류]⁷¹⁾



[업태별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채소류]⁷²⁾

항 목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38개	2개	0개
현지 식자재 유통 채널	0%	97.4%	100.0%	0%
현지 한인 유통 채널	0%	2.6%	0%	0%

70) 중복 응답

71) 중복 응답

72) 중복 응답

- 한국산 소스 및 장류
- 한국산 소스 및 장류를 구매하는 경로는 ‘프랜차이즈본사’가 34.3%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로로 나타남. 이어서 ‘현지 한인 유통 채널(31.3%)’, ‘한국에서 수입(19.4%)’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소스 및 장류]⁷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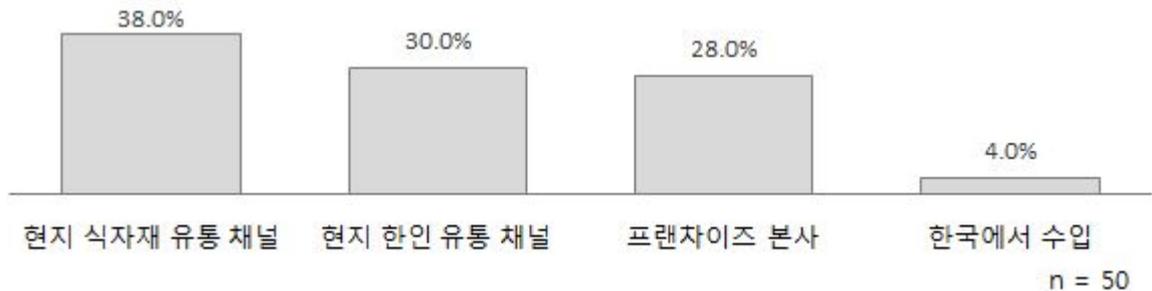


[업태별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소스 및 장류]⁷⁴⁾

항 목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64개	3개	0개
현지 한인 유통 채널	0.0%	31.3%	33.3%	0.0%
프랜차이즈 본사	0.0%	34.4%	33.3%	0.0%
한국에서 수입	0.0%	20.3%	0.0%	0.0%
현지 식자재 유통 채널	0.0%	14.1%	66.7%	0.0%

- 한국산 면, 쌀, 떡류
- 한국산 면, 쌀, 떡류를 구매하는 경로는 ‘현지 식자재 유통 채널’이 38.0%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구매 경로로 조사됨. 이어서 ‘현지 한인 유통 채널(30%)’, ‘프랜차이즈 본사(28%)’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면, 쌀, 떡류]⁷⁵⁾



73) 중복 응답

74)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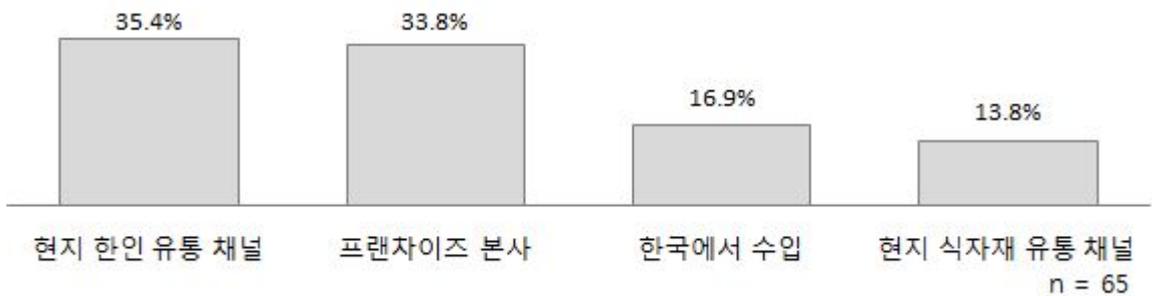
75) 중복 응답

[업태별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면, 쌀, 떡류]76)

항 목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47개	3개	0개
현지 식자재 유통 채널	0.0%	38.3%	33.3%	0.0%
현지 한인 유통 채널	0.0%	29.8%	33.3%	0.0%
프랜차이즈 본사	0.0%	27.7%	33.3%	0.0%
한국에서 수입	0.0%	4.3%	0.0%	0.0%

- 한국산 주류
- 한국산 주류를 구매하는 경로는 ‘현지 한인 유통 채널’ 이 35.4%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경로로 나타남. 이어서 ‘프랜차이즈 본사’, ‘한국에서 수입’ 이 각각 33.8%, 16.9%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주류]77)



[업태별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주류]78)

항 목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64개	1개	0개
현지 한인 유통 채널	0%	35.94%	0%	0%
프랜차이즈 본사	0%	32.81%	100%	0%
한국에서 수입	0%	17.19%	0%	0%
현지 식자재 유통 채널	0%	14.06%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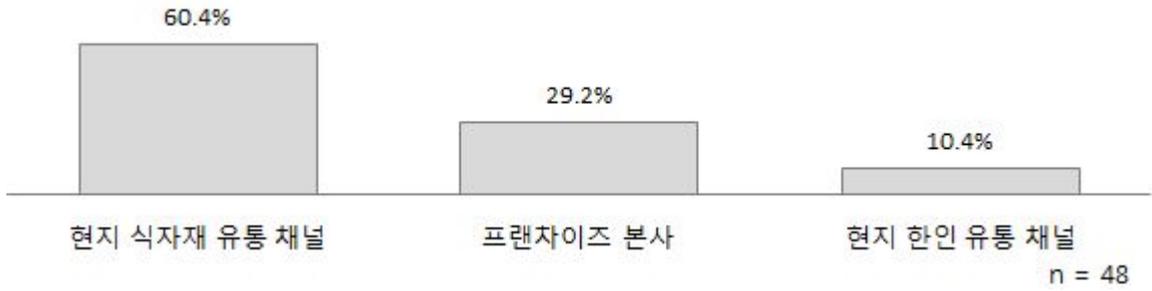
- 한국산 육류, 어류, 젓갈류
- 한국산 육류, 어류 및 젓갈류를 구매하는 경로로 ‘현지 식자재 유통 채널’ 이 60.4%의 비율로 가장 높은 구매 경로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 와 ‘현지 한인 유통 채널’ 이 각각 29.2%, 1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76) 중복 응답

77) 중복 응답

78) 중복 응답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육류, 어류, 젓갈류]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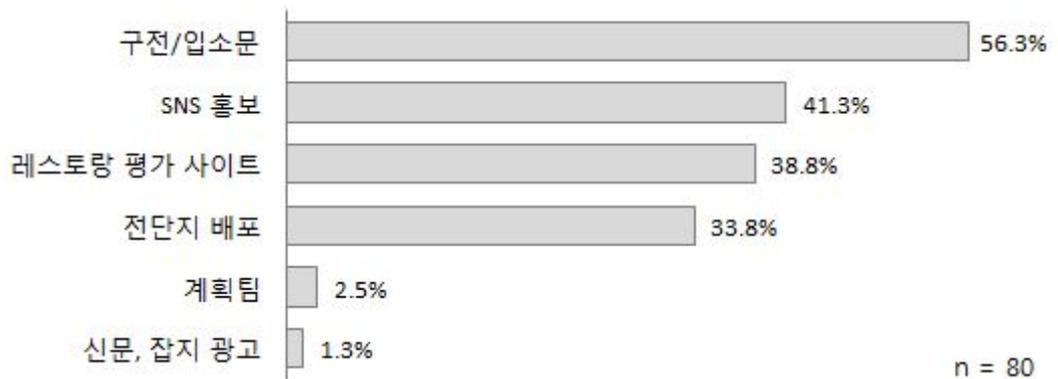
[업태별 한국산 식재료 구매 경로 - 한국산 육류, 어류, 젓갈류]⁸⁰⁾

항 목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45개	3개	0개
현지 식자재 유통 채널	0.0%	60.0%	66.7%	0.0%
프랜차이즈 본사	0.0%	28.9%	33.3%	0.0%
현지 한인 유통 채널	0.0%	11.1%	0.0%	0.0%

○ 식당 홍보 방식

- 한식당을 홍보하기 위해 ‘구전 및 입소문’ 이 사용되는 비율이 56.3%를 차지 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로로 나타남.
- ‘SNS 홍보’,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 또한 각각 41.3%, 38.8%의 높은 비율로 한식당을 홍보하는 방법들로 조사됨.
- ‘신문 및 잡지 광고’ 를 통한 홍보는 1.3% 비율로 낮게 나타남.

[한식당 홍보 경로]⁸¹⁾



79) 중복 응답

80) 중복 응답

81)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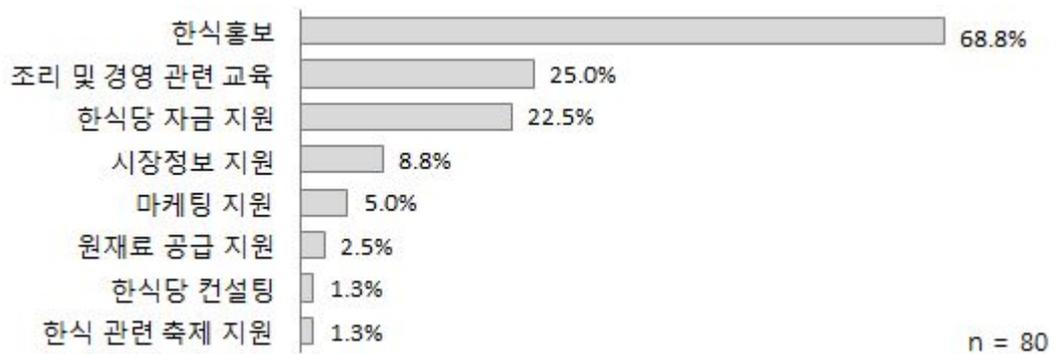
[업태별 한식당 홍보 경로]⁸²⁾

항 목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76개	4개	0개
구전/입소문	0.0%	56.6%	50.0%	0.0%
SNS 홍보	0.0%	42.1%	25.0%	0.0%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	0.0%	38.2%	50.0%	0.0%
전단지 배포	0.0%	32.9%	50.0%	0.0%
계획팀	0.0%	2.6%	0.0%	0.0%
신문, 잡지 광고	0.0%	1.3%	0.0%	0.0%

3) 한식당 경영 시 애로사항

○ 한식당 경영 시 지원 필요 사항

- 한식당 경영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중, ‘한식 홍보(68.6%)’, ‘조리 및 경영 관련 교육(25.0%)’, ‘자금 지원(22.5%)’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식당 경영 관련 지원 필요 사항]⁸³⁾

82) 중복 응답

83) 복수 응답,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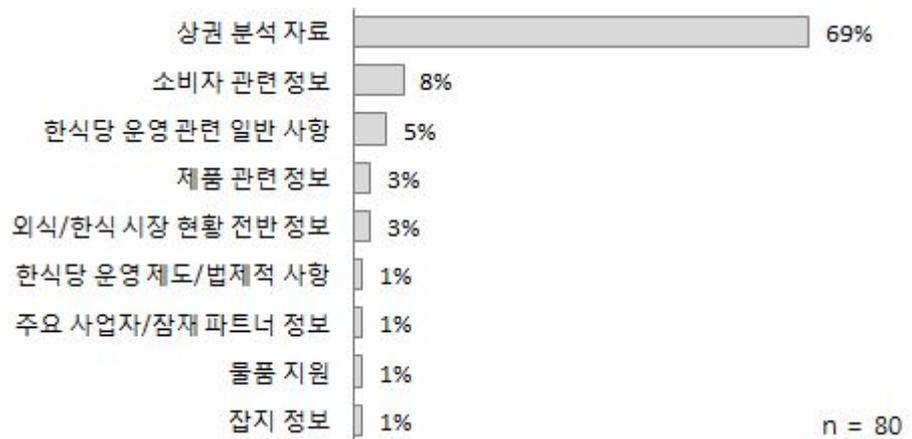
[업태별 한식당 경영 관련 지원 필요 사항]⁸⁴⁾

항목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76개	4개	0개
한식홍보	0.0%	71.1%	25.0%	0.0%
조리 및 경영 관련 교육	0.0%	26.3%	0.0%	0.0%
한식당 자금 지원	0.0%	21.1%	50.0%	0.0%
시장정보 지원	0.0%	7.9%	25.0%	0.0%
마케팅 지원	0.0%	5.3%	0.0%	0.0%
원재료 지원	0.0%	1.3%	25.0%	0.0%
한식당 컨설팅	0.0%	1.3%	0.0%	0.0%
한식 관련 축제 지원	0.0%	1.3%	0.0%	0.0%

○ 한식당 경영 시 필요 정보

- 한식당을 경영할 때 필요한 정보로 ‘상권 분석 자료(6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소비자 관련 정보(8%)’, ‘한식당 운영 관련 일반 사항(5%)’ 등의 의견들이 높은 비율로 제시되고 있음.

[한식당 경영 시 필요한 정보]⁸⁵⁾



84) 복수 응답, 중복 응답

85) 복수 응답, 중복 응답

[업태별 한식당 경영 시 필요한 정보]⁸⁶⁾

항 목	파인다이닝	캐주얼다이닝	패스트푸드	카페/바
샘플 수	0개	76개	4개	0개
상권 분석 자료	0.0%	75.0%	68.4%	0.0%
소비자 관련 정보	0.0%	0.0%	7.9%	0.0%
한식당 운영 관련 일반 사항	0.0%	0.0%	5.3%	0.0%
제품 관련 정보	0.0%	0.0%	2.6%	0.0%
외식/한식 시장 현황 전반 정보	0.0%	0.0%	2.6%	0.0%
한식당 운영 제도/법제적 사항	0.0%	0.0%	1.3%	0.0%
주요 사업자/잠재 파트너 정보	0.0%	0.0%	1.3%	0.0%
물품 지원	0.0%	0.0%	1.3%	0.0%
잡지 정보	0.0%	0.0%	1.3%	0.0%

86) 복수 응답, 중복 응답

3.2 빅데이터 분석

[길라잡이] 빅데이터 분석 참고 사항

□ 식당 샘플 수

- 도시별로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가사이트 3~4 곳을 선정하여 해당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모든 외식당 정보를 수집, 정제, 중복 제거를 통해 도출된 식당 수입. 따라서 현지 온라인 평가사이트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식당 수가 실제 수와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존재함.
- 본 조사사업에서는 체계적인 식당 업종 분류를 위해 1차 업태, 2차 에스닉이라는 기준을 수립하고 전체 도시에 적용하였음. 모든 식당을 해당 기준을 적용 및 분류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 중 일부 경우는 샘플 수 n=30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샘플 수가 적은 업태/에스닉의 경우 실제 식당 수가 적거나 혹은 평가사이트 보유 식당 수의 한계 등 여러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해석에 유의가 필요.

□ 등록 리뷰 비율

- 본 조사사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식당 업종별 방문 빈도, 나아가 식당 업종의 인기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 리뷰 건수'를 수집하였음.
- 리뷰 건수 해석 시에 업태/에스닉별 비교를 목적으로 연도별로 수집된 전체 소비자 리뷰 건수 중 각 업태가 차지하는 비중, 업태별로 각 에스닉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인기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함.

□ 외식당/한식당 주요 판매메뉴

- 해당지역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중 외식당/한식당 업종으로 분류된 식당들이 취급하는 메뉴 리스트를 취합한 결과임. 한식당의 경우 실제 현지 한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메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예 치킨 등).

□ 외식당/한식당 내 주요 소비자 추천 메뉴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들의 판매메뉴에 기록된 소비자 추천 건수를 취합한 결과임. 한식당의 경우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한식당의 메뉴 정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식분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외식당/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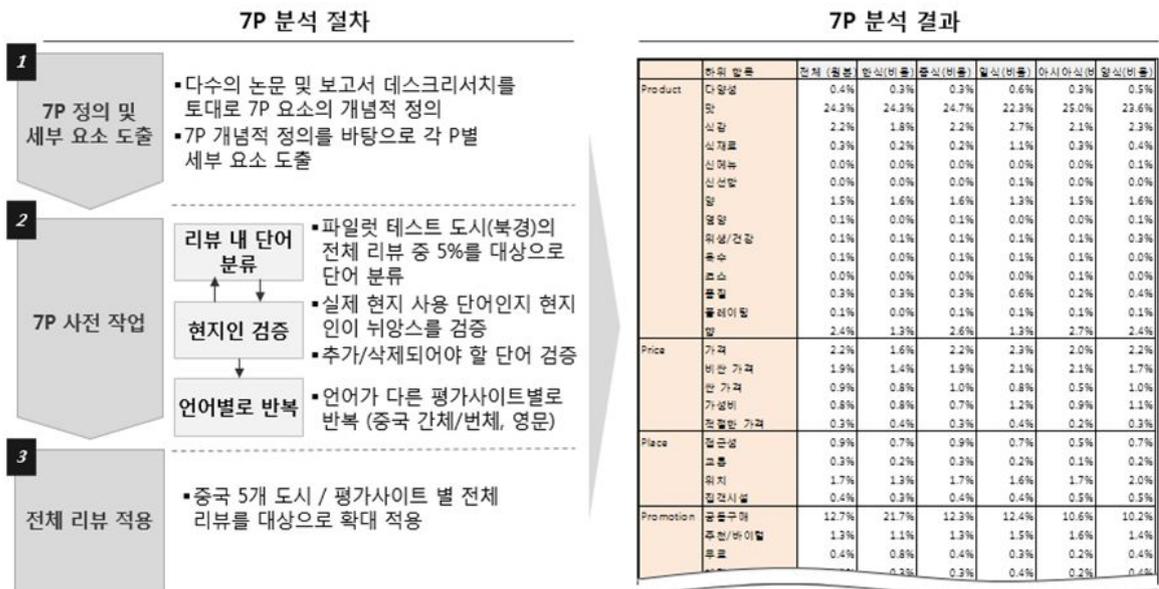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들 중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리뷰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한식당’은 각 평가사이트의 ‘한식’, ‘한국요리’로 분류된 사이트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임.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식당 메뉴키워드 결과는 한식 외에 소비자가 언급한 다양한 에스닉 메뉴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해석이 필요.

□ 추천/판매메뉴 및 메뉴키워드 번역 과정

- 평가사이트 식당 정보란에 등록된 메뉴 정보와 소비자들이 리뷰에서 언급한 메뉴 정보를 중국 현지인이 검수 및 번역하는 과정을 거침. 리뷰 텍스트 특성상, 문맥과 언급 상황이 다양함을 감안할 때 하나의 메뉴명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한글로 번역된 메뉴명은 참고용으로 활용.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7P)

- 7P 프레임을 적용하여 각 세부 마케팅믹스별 개념적 정의 및 세부 요소를 도출하고, 7P 사전 키워드를 작업 후, 전체 리뷰에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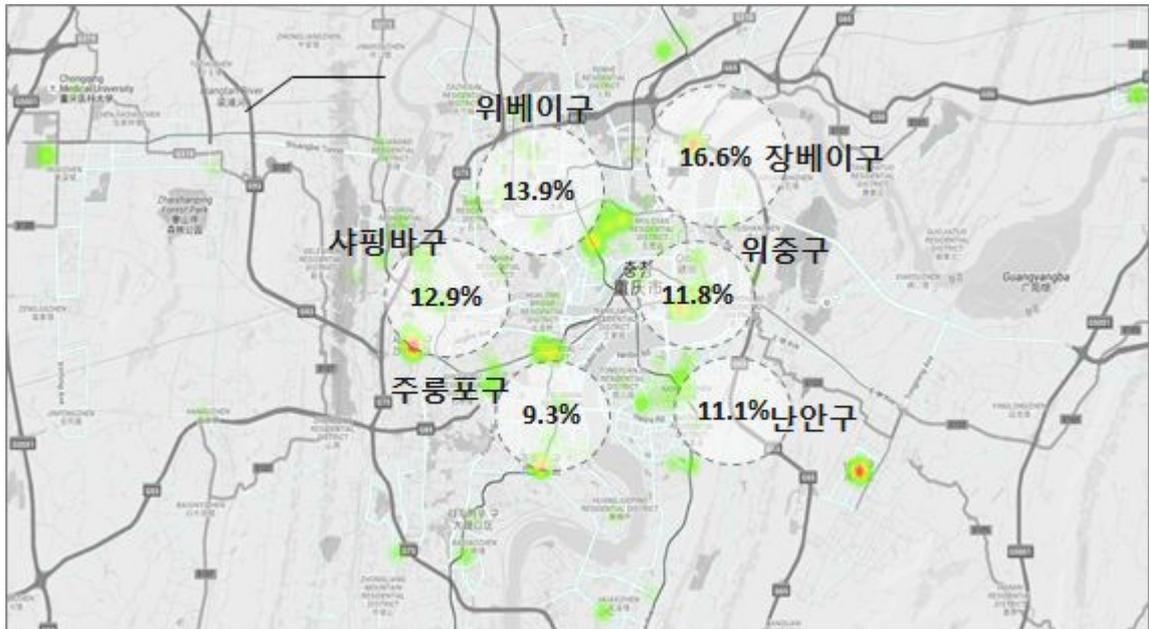
1) 한식당 현황

가) 지역별 한식당 현황

□ 한식당 분포 현황

- 충청지역의 주요 레스토랑 평가사이트를 통하여 작성된 한식당 목록을 전수 전화로 확인하여 최종 파악한 충청 내 한식당은 267개임. 단,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한식당 샘플 수는 1차 목록에 포함된 604개의 정보를 활용하였음.
- 한식당은 주로 중심 구역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파악됨. 한식당 수가 가장 많은 구역은 ‘장베이구’로 전체 상권(구) 중 1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중심 구역 서쪽에 위치한 ‘위베이구’와 ‘샤핑바구’에는 각각 13.9%, 12.9% 비율로 한식당이 분포되어 있으며, 동쪽에 위치한 ‘위중구’(11.8%)와 ‘난안구’(11.1%)에도 타 구역에 비해 다소 높은 한식당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평가사이트 등록 한식당 전체 분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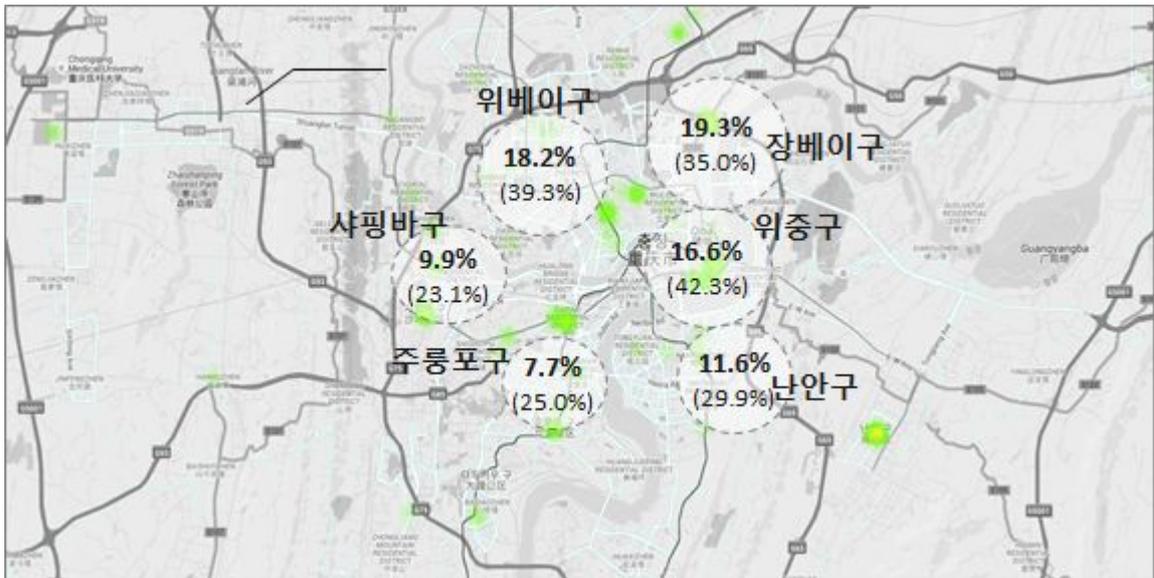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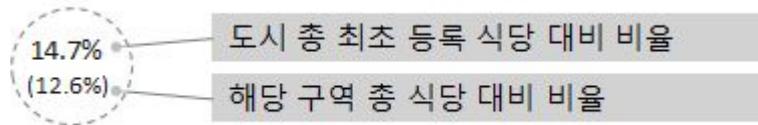
[상권(구)별 평가사이트 등록 한식당 현황]

상권(구)	전체	업체별 비율			
		고가 식당	중저가 식당	패스트푸드	카페/바
총 샘플 수	604	132	452	20	0
江北区 (장베이구)	16.6%	30.0%	64.0%	6.0%	0.0%
渝北区 (위베이구)	13.9%	29.8%	67.9%	2.4%	0.0%
沙坪坝区 (사핑바구)	12.9%	14.1%	83.3%	2.6%	0.0%
渝中区 (위중구)	11.8%	33.8%	59.2%	7.0%	0.0%
南岸区 (난안구)	11.1%	23.9%	74.6%	1.5%	0.0%
九龙坡区 (주룽포구)	9.3%	30.4%	69.6%	0.0%	0.0%
北碚区 (베이베이구)	3.3%	20.0%	80.0%	0.0%	0.0%
万州区 (완저우구)	3.0%	5.6%	94.4%	0.0%	0.0%
巴南区 (바난구)	2.5%	6.7%	93.3%	0.0%	0.0%
涪陵区 (푸링구)	2.5%	13.3%	86.7%	0.0%	0.0%
合川区 (허합구)	2.3%	0.0%	100.0%	0.0%	0.0%
永川区 (영청구)	2.3%	7.1%	78.6%	14.3%	0.0%
长寿区 (장서우)	1.0%	0.0%	100.0%	0.0%	0.0%
开县 (카이현)	1.0%	0.0%	83.3%	16.7%	0.0%
江津区 (장진구)	0.8%	0.0%	100.0%	0.0%	0.0%
大渡口区 (다두커우구)	0.7%	0.0%	100.0%	0.0%	0.0%
丰都县 (핑두현)	0.7%	0.0%	100.0%	0.0%	0.0%
梁山土家族苗族自治县 (수산 투가족 먀오족 자치현)	0.5%	0.0%	100.0%	0.0%	0.0%
璧山区 (비산구)	0.5%	0.0%	66.7%	33.3%	0.0%
潼南区 (통난구)	0.5%	0.0%	100.0%	0.0%	0.0%
大足区 (다주구)	0.5%	0.0%	100.0%	0.0%	0.0%
铜梁区 (통량구)	0.5%	0.0%	100.0%	0.0%	0.0%
垫江县 (디장현)	0.3%	0.0%	100.0%	0.0%	0.0%
岳池县 (우산현)	0.3%	0.0%	100.0%	0.0%	0.0%
邻水县 (릉수현)	0.3%	0.0%	100.0%	0.0%	0.0%
荣昌县 (릉창구)	0.3%	0.0%	100.0%	0.0%	0.0%
黔江区 (첸장구)	0.2%	0.0%	100.0%	0.0%	0.0%
酉阳土家族苗族自治县 (우양 투가족 먀오족 자치현)	0.2%	0.0%	100.0%	0.0%	0.0%
黔江縣 (우청현)	0.2%	0.0%	100.0%	0.0%	0.0%
黔水苗族土家族自治县 (핑수미먀오족 투가족 자치현)	0.2%	0.0%	100.0%	0.0%	0.0%
城口县 (청커우현)	0.2%	0.0%	100.0%	0.0%	0.0%
丰都县 (핑두현)	0.2%	0.0%	100.0%	0.0%	0.0%
铜梁县 (통량구)	0.0%	0.0%	0.0%	0.0%	0.0%
云阳县 (윈양현)	0.0%	0.0%	0.0%	0.0%	0.0%
巫山县 (우시현)	0.0%	0.0%	0.0%	0.0%	0.0%
忠县 (중현)	0.0%	0.0%	0.0%	0.0%	0.0%
梁平县 (량핑현)	0.0%	0.0%	0.0%	0.0%	0.0%
石柱土家族自治县 (스주 투가족 자치현)	0.0%	0.0%	0.0%	0.0%	0.0%
秀山县 (지장구)	0.0%	0.0%	0.0%	0.0%	0.0%
근교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 최근 1년 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분포⁸⁷⁾

- 중심구역 내에서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 중 ‘한식’ 식당이 이미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장베이구’와 ‘위베이구’에서의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식당의 비율이 각각 전체 샘플 수의 19.3%,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심 구역 동쪽에 위치한 ‘위중구’에서도 16.2%로 높게 나타남.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분포 지도]



87)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 중 최근 1년('15. 4.~'16. 4.) 내에 리뷰가 최초로 등록된 식당만 별도 분석, 최초리뷰 등록 시점과 창업시점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상권(구)별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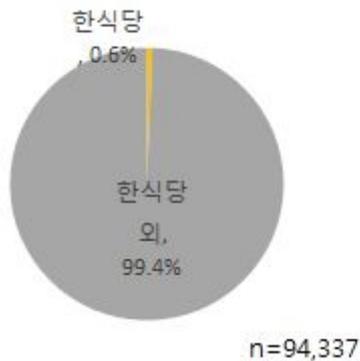
상권 (구)	총 식당 샘플 수	최근 1년 최초 리뷰 등록 식당 샘플 수	해당 구역 총 식당 샘플 수 대비 비율	도시 총 최초 리뷰 등록 식당 대비 비율	업태별 비율			
					고가 식당	중저가 식당	패스트 푸드	까페/바
전체 수	604	181	30.0%	100.0%	57	110	14	-
江北区 (장베이구)	100	35	35.0%	19.3%	40.0%	51.4%	8.6%	0.0%
渝北区 (위베이구)	84	33	39.3%	18.2%	39.4%	54.5%	6.1%	0.0%
沙坪坝区 (사핑바구)	78	18	23.1%	9.9%	11.1%	83.3%	5.6%	0.0%
渝中区 (위중구)	71	30	42.3%	16.6%	43.3%	43.3%	13.3%	0.0%
南岸区 (난안구)	67	20	29.9%	11.0%	25.0%	70.0%	5.0%	0.0%
九龙坡区 (주룽포구)	56	14	25.0%	7.7%	50.0%	50.0%	0.0%	0.0%
北碚区 (베이베이구)	20	5	25.0%	2.8%	60.0%	40.0%	0.0%	0.0%
万州区 (완저우구)	18	3	16.7%	1.7%	0.0%	100.0%	0.0%	0.0%
巴南区 (바난구)	15	1	6.7%	0.6%	0.0%	100.0%	0.0%	0.0%
涪陵区 (푸링구)	15	2	13.3%	1.1%	0.0%	100.0%	0.0%	0.0%
合川区 (허촨구)	14	3	21.4%	1.7%	0.0%	100.0%	0.0%	0.0%
永川区 (영취구)	14	5	35.7%	2.8%	0.0%	60.0%	40.0%	0.0%
长寿区 (장서우)	6	1	16.7%	0.6%	0.0%	100.0%	0.0%	0.0%
开县 (카이현)	6	2	33.3%	1.1%	0.0%	50.0%	50.0%	0.0%
江津区 (장진구)	5	-	0.0%	0.0%	0.0%	0.0%	0.0%	0.0%
大渡口区 (다두커우구)	4	1	25.0%	0.6%	0.0%	100.0%	0.0%	0.0%
奉节县 (펑저현)	4	-	0.0%	0.0%	0.0%	0.0%	0.0%	0.0%
奉节土家族自治县 (수산 투자족 먀오족 자치현)	3	1	33.3%	0.6%	0.0%	100.0%	0.0%	0.0%
璧山区 (비산구)	3	2	66.7%	1.1%	0.0%	100.0%	0.0%	0.0%
潼南区 (통난구)	3	1	33.3%	0.6%	0.0%	100.0%	0.0%	0.0%
大足区 (다주구)	3	1	33.3%	0.6%	0.0%	100.0%	0.0%	0.0%
南川区 (난취구)	3	-	0.0%	0.0%	0.0%	0.0%	0.0%	0.0%
垫江县 (디장현)	2	-	0.0%	0.0%	0.0%	0.0%	0.0%	0.0%
岳池县 (우산현)	2	-	0.0%	0.0%	0.0%	0.0%	0.0%	0.0%
荣昌区 (룽창구)	2	1	50.0%	0.6%	0.0%	100.0%	0.0%	0.0%
铜梁区 (통량구)	1	-	0.0%	0.0%	0.0%	0.0%	0.0%	0.0%
铜梁土家族自治县 (유양투자족 자치현)	1	1	100.0%	0.6%	0.0%	100.0%	0.0%	0.0%
合川区 (우통현)	1	1	100.0%	0.6%	0.0%	100.0%	0.0%	0.0%
彭水苗族土家族自治县 (펑수이먀오족투자족자치현)	1	-	0.0%	0.0%	0.0%	0.0%	0.0%	0.0%
城口县 (청커우현)	1	-	0.0%	0.0%	0.0%	0.0%	0.0%	0.0%
丰都县 (펑두현)	1	-	0.0%	0.0%	0.0%	0.0%	0.0%	0.0%
铜梁区 (통량구)	-	-	0.0%	0.0%	0.0%	0.0%	0.0%	0.0%
铜梁县 (원양현)	-	-	0.0%	0.0%	0.0%	0.0%	0.0%	0.0%
岳池县 (우시현)	-	-	0.0%	0.0%	0.0%	0.0%	0.0%	0.0%
忠县 (중현)	-	-	0.0%	0.0%	0.0%	0.0%	0.0%	0.0%
梁平县 (량평현)	-	-	0.0%	0.0%	0.0%	0.0%	0.0%	0.0%
石柱土家族自治县 (스주투자족 자치현)	-	-	0.0%	0.0%	0.0%	0.0%	0.0%	0.0%
秀山县 (슈양구)	-	-	0.0%	0.0%	0.0%	0.0%	0.0%	0.0%
군구	-	-	0.0%	0.0%	0.0%	0.0%	0.0%	0.0%
기타	-	-	0.0%	0.0%	0.0%	0.0%	0.0%	0.0%

나) 업태별 한식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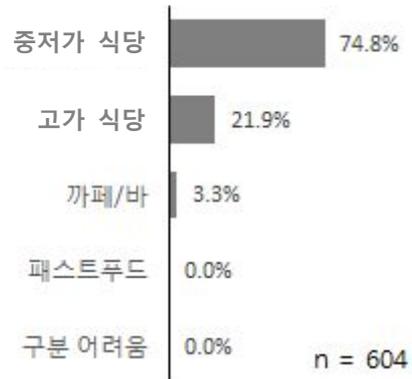
□ 한식당 비율 및 업태별 한식당 구성

- 충청 전체 외식당 중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0.6%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 한식당 중 ‘중저가 식당’ 이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가 식당’의 비율은 21.9%, ‘카페/바’의 비율은 3.3%임.

[전체 대비 한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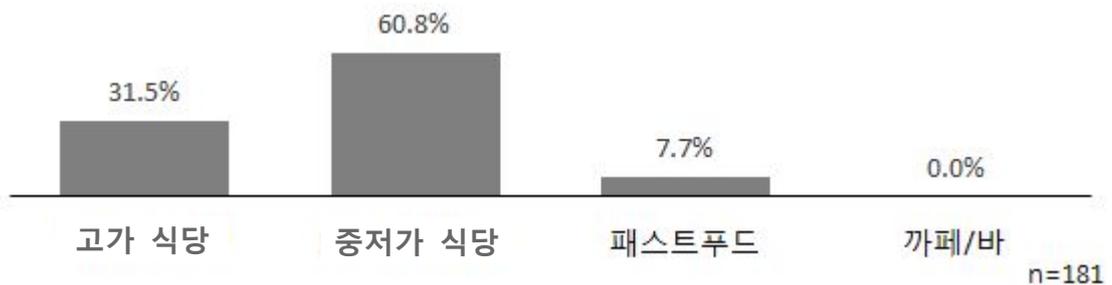
[업태별 한식당 비율]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의 업태 구성⁸⁸⁾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총 샘플 중 ‘중저가 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60.8%로 전체 업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업태로는 ‘고가 식당’ 업태의 최초 리뷰 등록 비율이 31.5%이며, 타 업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구성]



88) 최근 1년: 15.04~16.04

2) 현지 한식당 내 주요 판매메뉴⁸⁹⁾⁹⁰⁾

가) 현지 한식당 내 주요 판매메뉴

- ‘한식’ 식당에서는 ‘삼겹살구이’ (33.0위안), ‘소고기구이’ (30.6위안)를 비롯한 고기구이류와 ‘떡볶이’ (20.3위안), ‘돌솥비빔밥’ (16.8위안) 등의 단품 메뉴가 많이 판매되고 있음.

[현지 한식당 내 주요 판매메뉴]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판매식당수
1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33.0	97
2	炒年糕	떡볶이	20.3	65
3	烤肥牛	소고기구이	30.6	47
4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6.8	40
5	烤鸡翅	닭날개구이	-	25
6	鸡皮	닭껍질구이	-	24
7	烤牛舌	우설 구이	40.3	23
8	冷面	냉면	22.5	19
9	烤牛排	스테이크	-	19
10	大酱汤	된장찌개	20.3	17

나) 현지 한식당 업태별 주요 판매메뉴

□ 고가 식당

- ‘고가 식당’에서는 ‘삼겹살구이’ (34.3위안), ‘떡볶이’ (22.8위안), ‘돌솥비빔밥’ (18.6위안) 등의 메뉴가 많이 판매되고 있음.

[현지 한식당 내 주요 판매메뉴 - 고가 식당]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판매식당수
1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34.3	64
2	炒年糕	떡볶이	22.8	43
3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8.6	24
4	烤牛舌	우설 구이	40.3	22
5	烤肥牛	소고기구이	36.7	21
6	烤鸡翅	닭날개구이	-	21
7	鸡皮	닭껍질구이	-	20
8	烤牛排	스테이크	-	18
9	冷面	냉면	22.5	16
10	掌中宝	고치구이	-	15

89) 전체 식당 중 메뉴 정보가 존재하는 식당 데이터만 사용되었음.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90) 많이 판매하는 메뉴(판매식당 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판매식당 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빅데이터 메뉴 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은 '빅데이터 분석 참고 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람.

□ 중저가 식당

- ‘중저가 식당’에서는 ‘삼겹살구이’ (25.3위안), ‘떡볶이’ (15.3위안), ‘돌솥비빔밥’ (15.3위안), ‘부대찌개’ (74.0위안) 등의 메뉴가 다수 판매되고 있음.

[현지 한식당 내 주요 판매메뉴 - 중저가 식당]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판매식당수
1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25.3	33
2	炒年糕	떡볶이	15.3	22
3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5.3	16
4	部队火锅	부대찌개	74.0	11
5	烤牛肉	소고기구이	15.0	6
6	鱿鱼	오징어	-	6
7	烤肥牛	소고기구이	-	6
8	炸鸡拼盘	후라이드치킨	22.0	5
9	炒饭	차오판(볶음밥)	-	5
10	大酱汤	된장찌개	20.0	5

□ 패스트푸드

- ‘패스트푸드’에서는 ‘후라이드치킨’, ‘돌솥밥’, ‘김밥’ 등의 메뉴 사례가 수집됨.

[현지 한식당 내 주요 판매메뉴 - 패스트푸드]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판매식당수
1	原味炸鸡	후라이드치킨	-	3
2	石锅饭	돌솥밥	-	1
3	紫菜包饭	김밥	-	1
4	炒年糕 热狗	붕어빵	-	1
5	炸鸡 紫菜包饭	참치김밥	-	1
6	韩式	한국음식	-	1
7	原味部队火锅	오리지널 맛 부대찌개	88.0	1
8	水果色拉	과일샐러드	-	1
9	芝士排骨火锅	치즈풍두갈비	-	1
10	韩国泡菜拌饭	김치비빔밥	-	1

3) 한식당 가격대 분포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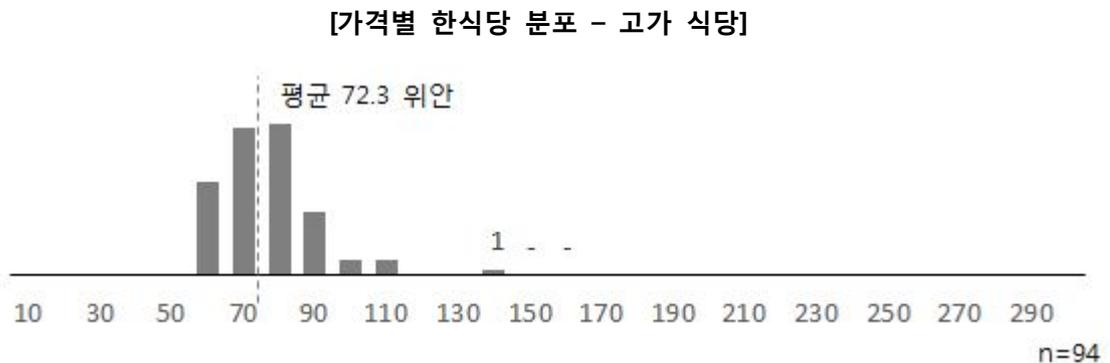
가) 전체 한식당 가격대 분포

- 충청 한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56.5위안’ 으로 파악됨. 평균 가격대를 기준으로 낮은 가격대에는 ‘중저가 식당’ 이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대에는 ‘고가 식당’ 이 대부분 분포하고 있음.



나) 업태별 한식당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의 평균 가격대는 ‘72.3위안’ 으로 확인되며, 한식당의 분포가 ‘70~80 위안’ 의 가격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저가 식당’ 의 평균 가격대는 ‘33.5위안’ 이며, ‘30~5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 ‘패스트푸드’ 는 주로 ‘6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식당이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대는 ‘54.6위안’ 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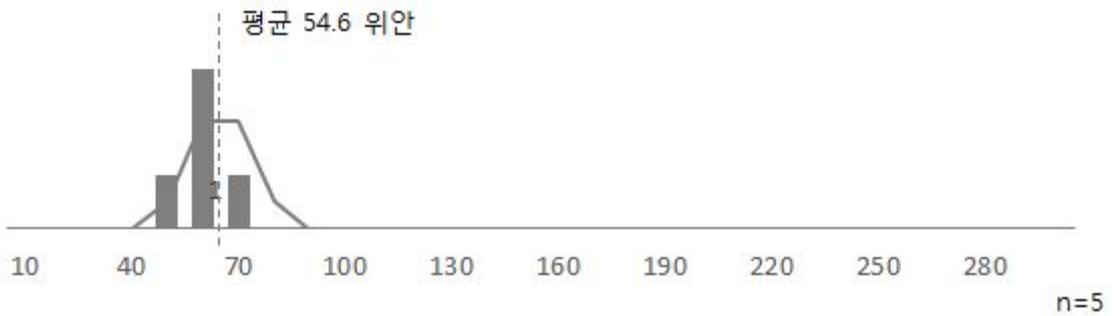


91) 전체 식당 데이터 중 가격 정보가 존재하는 식당 데이터만 사용되었으며, 실제 가격대 분포는 이와 상이할 수 있음.

[가격별 한식당 분포 - 중저가 식당]



[가격별 한식당 분포 - 패스트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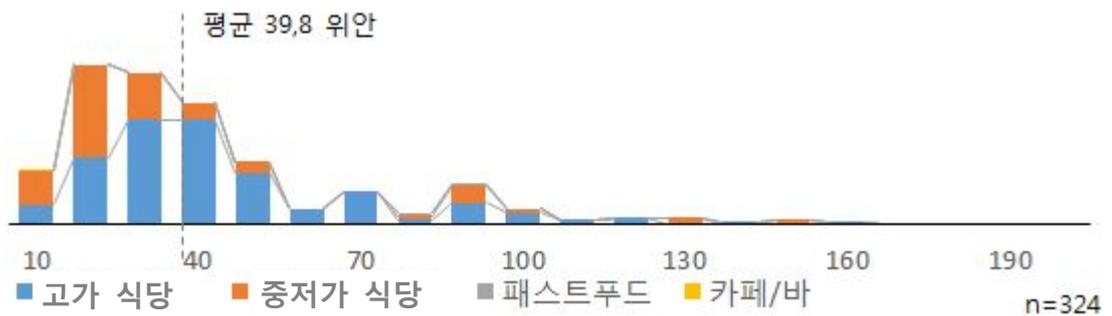


4) 한식 메뉴 가격대 분포⁹²⁾

가) 전체 한식당 등록메뉴 가격대 분포

- 한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39.8위안’ 이며, 주로 ‘20~4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되고 있음.

[전체 한식당 등록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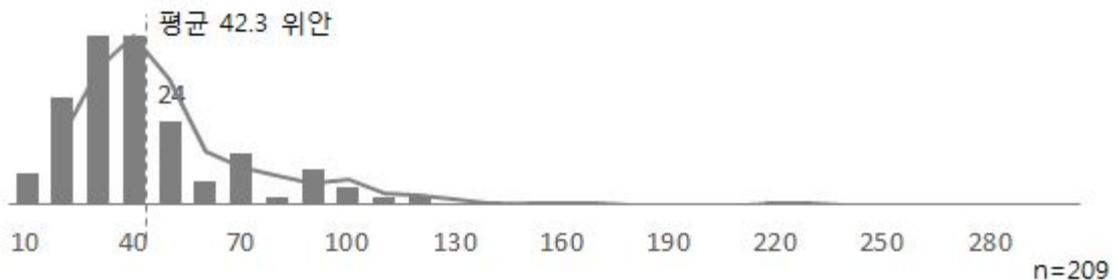
92) 수집된 전체 메뉴 중 가격 정보가 존재하는 메뉴만 제시되었으며, 이는 실제 메뉴 가격대 분포와 상이할 수 있음.

나) 업체 내 한식 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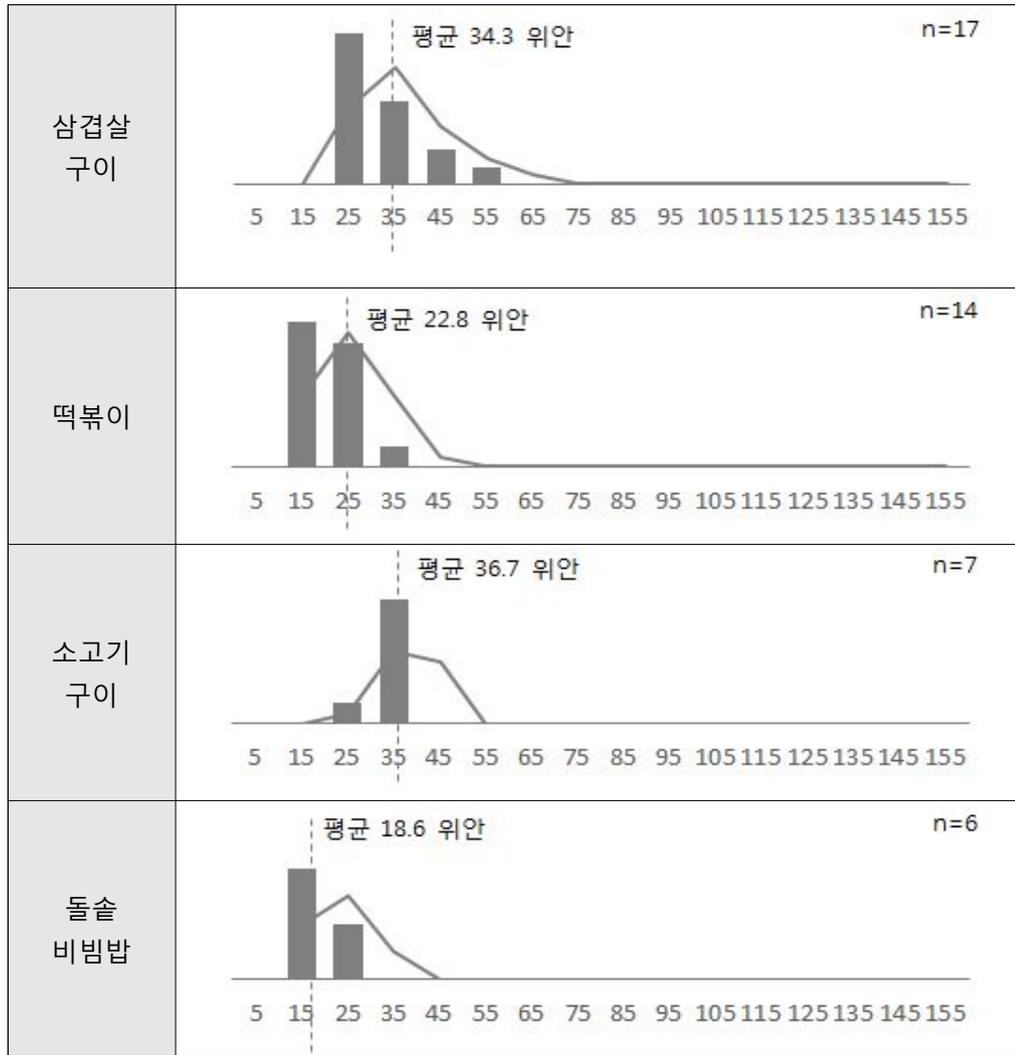
□ 고가 식당

- ‘고가 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42.3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20~40위안’ 의 가격대에 많은 메뉴가 분포하고 있음.
- 주요 메뉴 중 ‘삼겹살구이’ (343.3위안)과 ‘소고기구이’ (36.7위안) 등의 고기구이류의 평균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 ‘삼겹살구이’ 는 주로 가격대 ‘20~40위안구간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음.
- 그 외 주요메뉴 중 ‘떡볶이’ 와 ‘돌솥비빔밥’ 은 주로 ‘10~30위안’ 의 가격대에 주로 판매되고 있음.

[메뉴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주요메뉴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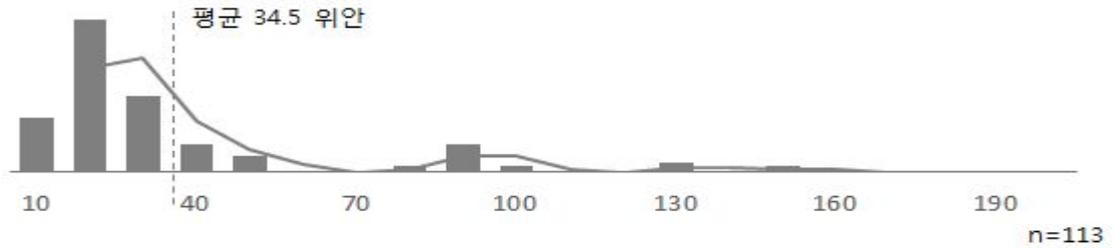


93)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 중저가 식당

- ‘중저가 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34.5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가격대 ‘10~30위안’ 사이에 많은 메뉴가 분포하고 있음.

[메뉴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



[주요메뉴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⁹⁴⁾

떡볶이	<p>평균 15.3 위안 n=7</p>
돌솥 비빔밥	<p>평균 15.3 위안 n=6</p>
삼겹살 구이	<p>평균 25.3 위안 n=3</p>
부대찌개	<p>평균 73.0 위안 n=3</p>

94)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4. 도시 한식 소비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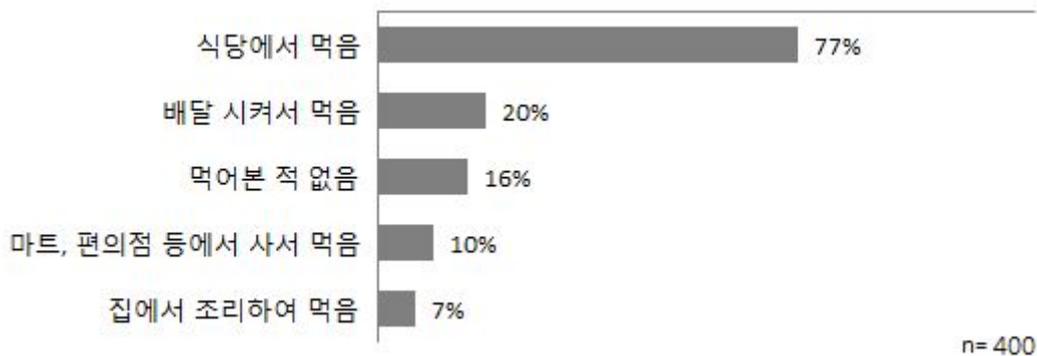
4.1.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⁹⁵⁾

1) 한식 외식 패턴

□ 한식 취식 경험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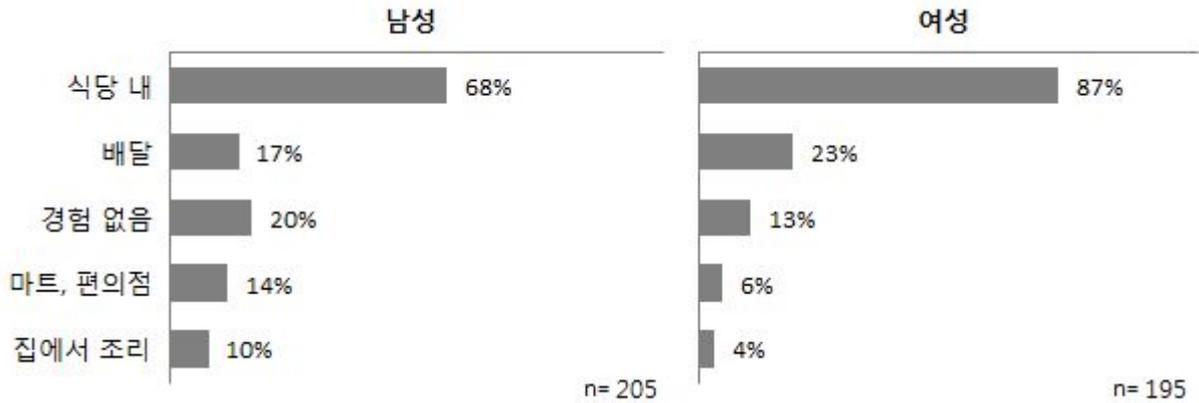
- 한식을 경험한 소비자는 주로 ‘식당에서’ 취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비율이 77%로 타 경험 형태에 비해 월등히 높음. 그 외 ‘배달’ 을 통해 경험하는 비율은 20%, ‘먹어본 적 없음’ 이 10%를 차지함.
- 성별 관계없이 ‘식당에서’ 한식을 취식한 경험이 월등히 높음. 여성은 ‘배달’ 로 한식을 접해본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층 관계없이 ‘식당에서’ 한식을 취식한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 밖에 20~40대는 ‘배달’ 을 통해서 경험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식당에서’ 한식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음. 연 소득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는 타 소득층에 비해 ‘배달’ 로 한식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한식 취식 경험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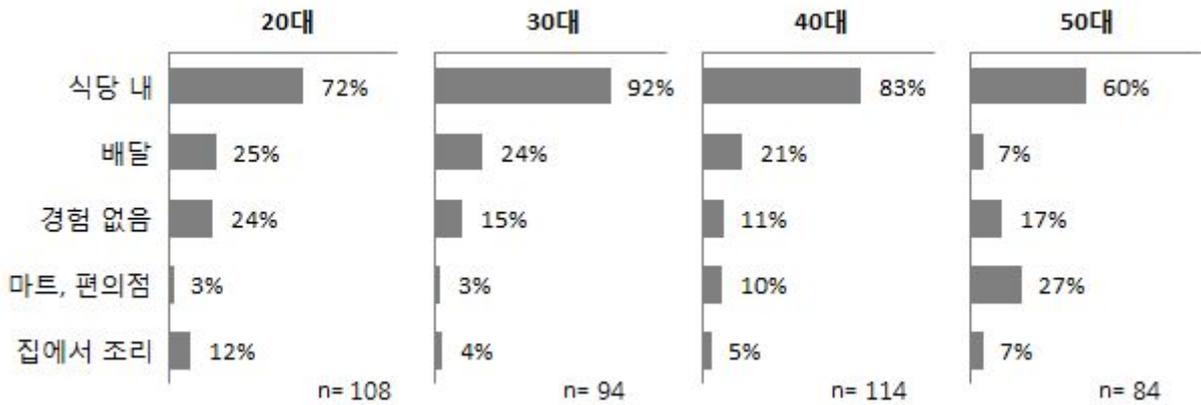


95) 자세한 설문문의 개요 및 응답자 특성은 본문 앞 조사 개요 챕터에 수록된 소비자 설문란을 참고하시길 바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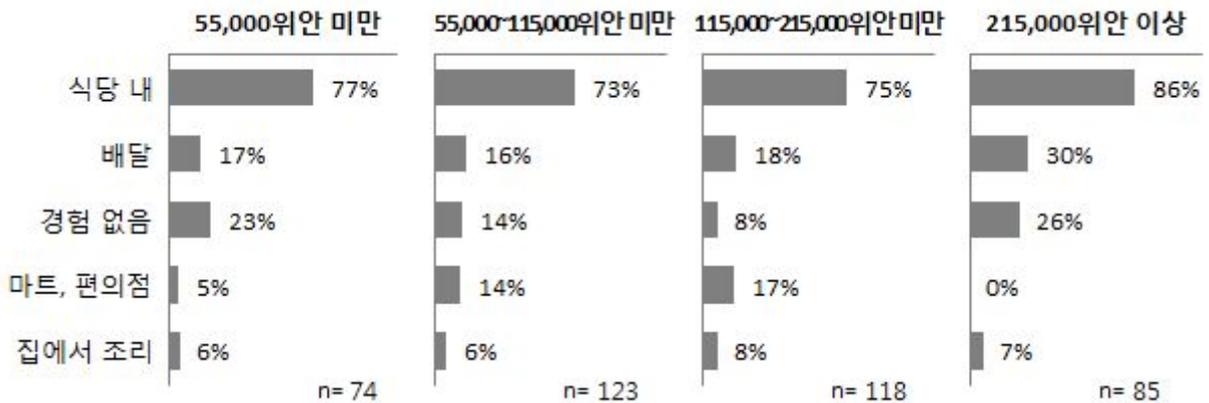
[성별 한식 취식 경험 및 형태]



[연령대별 한식 취식 경험 및 형태]



[연 소득별 한식 취식 경험 및 형태]



□ 한식당 여부 판단 기준

- 한식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국에서 건너온 브랜드일 때(53%)’와 ‘대부분의 메뉴가 한식일 때(4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에 ‘경영주/종업원 중 한국사람이 있을 때(27%)’나 ‘메뉴에 일부라도 한식 메뉴가 있을 때(24%)’는 상대적으로 한식당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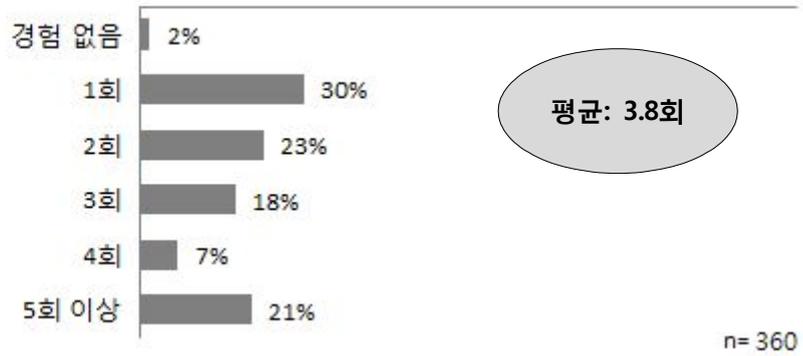
[한식당 인지 기준]

응답기준	비율
한국에서 건너온 브랜드일 때 (식당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일 때)	53%
대부분의 메뉴가 한식일 때	45%
사용하는 소스/ 식재료가 한국식인 느낌을 받을 때	44%
전통 한식 메뉴인 느낌을 받을 때	42%
한국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할 때	42%
한식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	40%
간판에 한식 혹은 한국식으로 써 있는 식당	39%
한국 관련 콘텐츠 (드라마/ 가사 등)에 소개된 음식/식당	33%
한국적인 소품/ 영상/ 음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33%
경영주/종업원 중에 한국사람이 있을 때	27%
메뉴 중에 일부라도 한식 메뉴가 있을 때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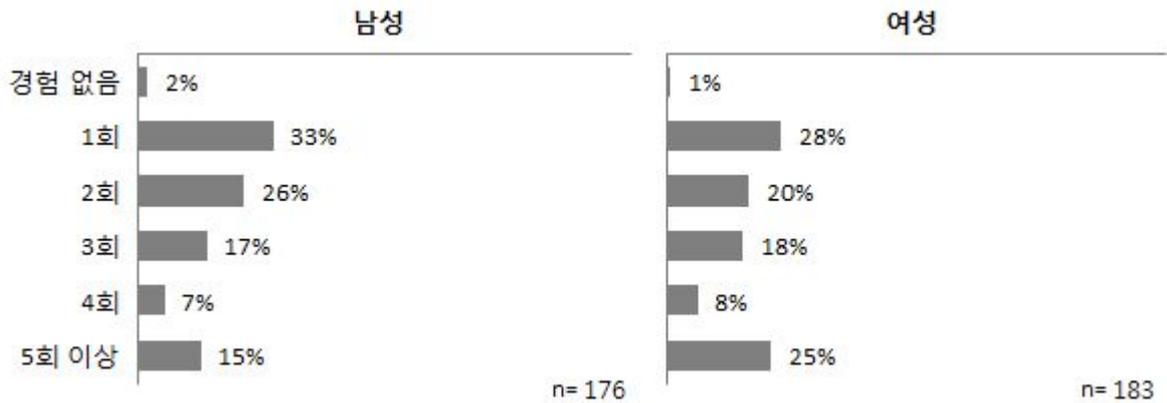
□ 월 평균 한식당 방문 횟수

- 한식당을 월 평균 ‘1회’ 방문하는 비율이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소비자의 과반이 월 ‘2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관계없이 월 평균 ‘1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한식당을 자주 찾는 경향이 있음.
-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한식당을 방문하는 횟수가 높은 경향이 있음. 20대의 70% 이상은 월 평균 2회 이상 한식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50대는 방문 횟수가 ‘1회 이하’의 비율이 약 50%임.
-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인 소비자는 월 평균 ‘5회 이상’을 한식당에 방문하는 비율이 40%로 가장 높음.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을 방문하는 비율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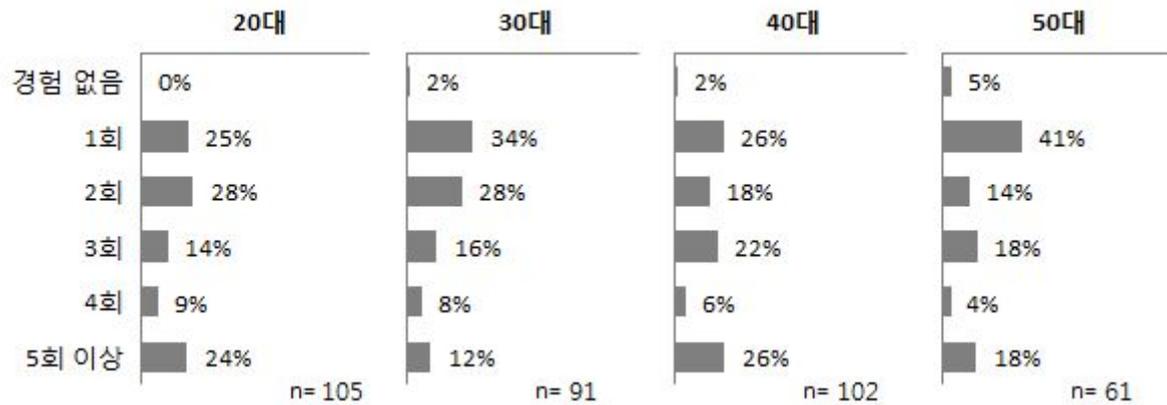
[월 평균 한식당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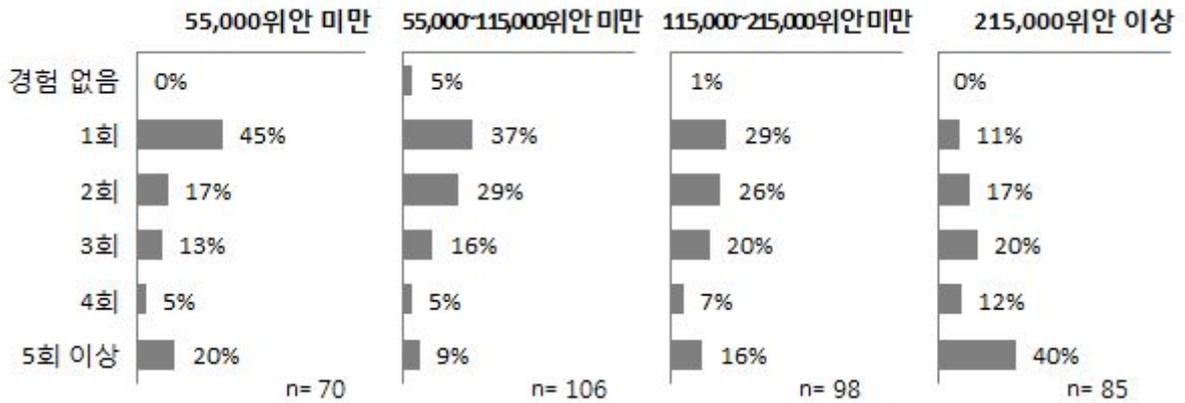
[성별 월 평균 한식당 방문 횟수]



[연령대별 월 평균 한식당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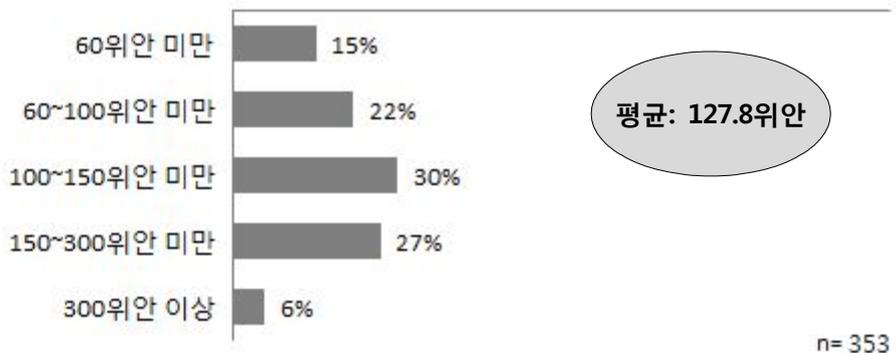
[연 소득별 월 평균 한식당 방문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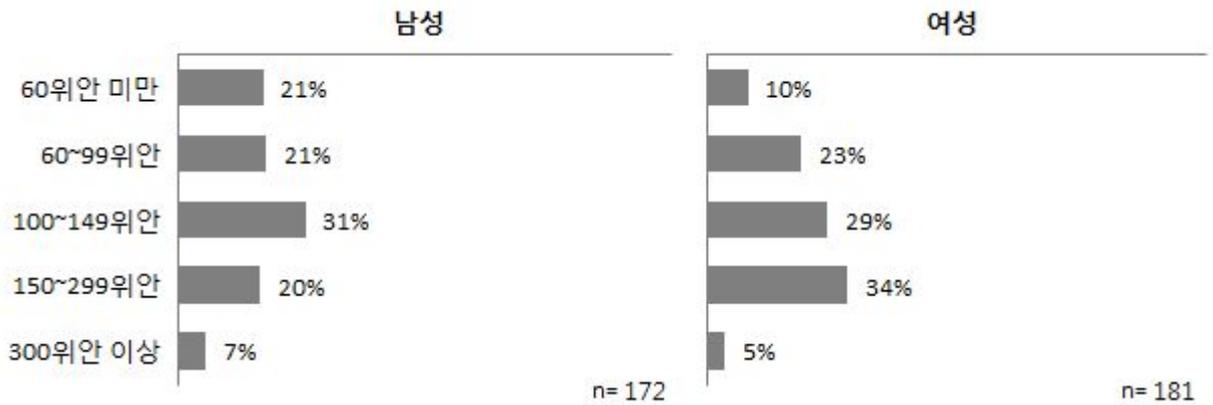
□ 1회당 한식 외식 비용(1인 기준)

- 1회당 ‘100~150위안’ 을 한식의 외식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30%이며, 타 가격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소비자의 60%이상이 ‘100위안 이상’ 을 한식 외식으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 여성이 남정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한식 외식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은 ‘15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약 40%를 차지함.
- 연령층이 높을수록 한식 외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음. 특히 50대는 외식 비용으로 ‘15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식 외식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는 ‘150위안 이상’ 을 지출하는 비율이 65%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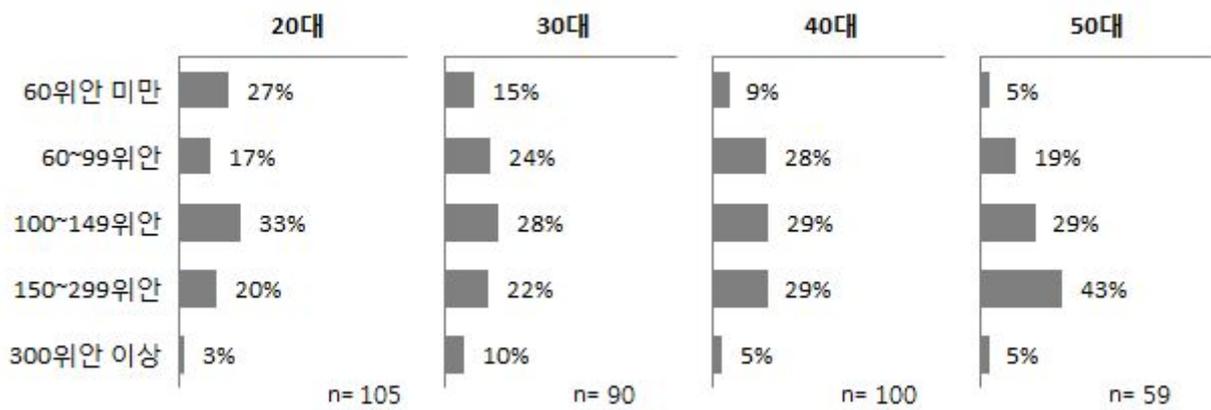
[1회당 한식 외식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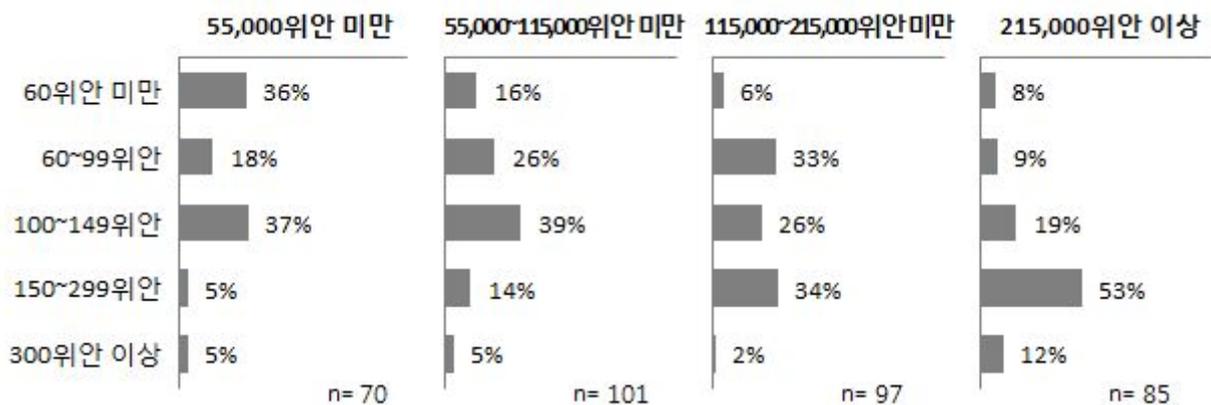
[성별 1회당 한식 외식 비용]



[연령대별 1회당 한식 외식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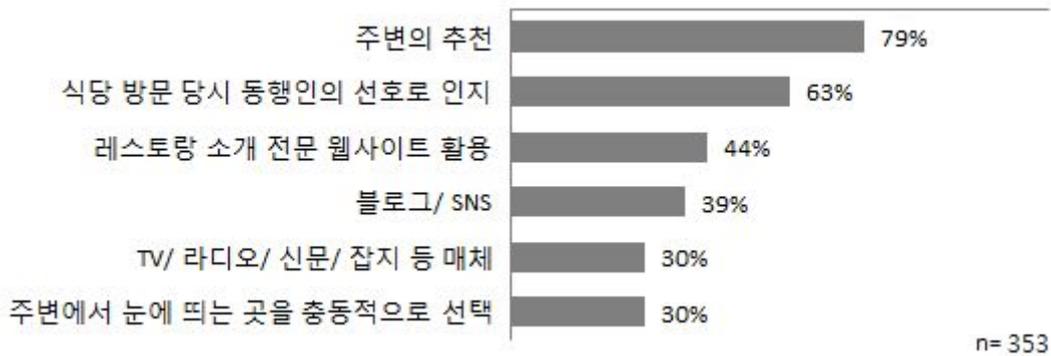
[연 소득별 1회당 한식 외식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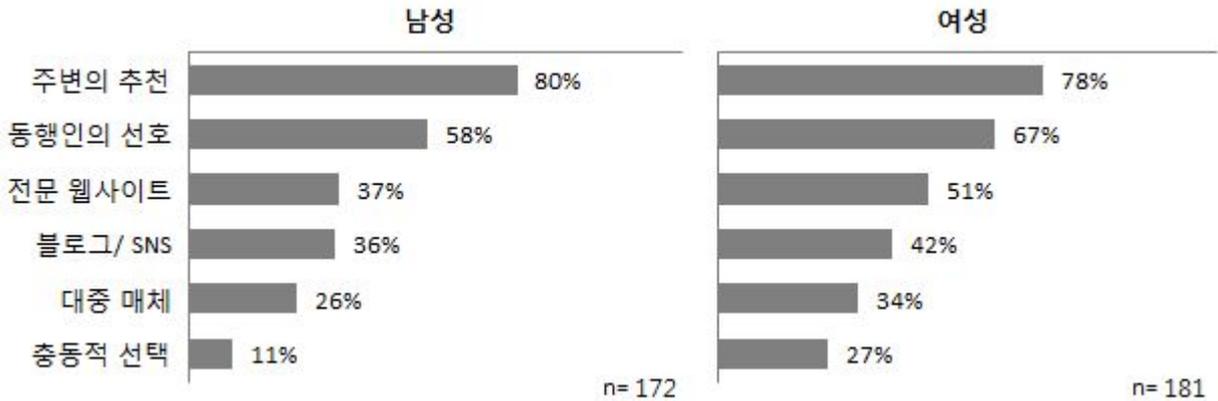
□ 한식당 인지 경로

- 한식당을 찾는 경로로 ‘주변의 추천’ 이 79%로 가장 높음. ‘동행인의 선호’ 에 의해 방문하는 비율이 63%이며, ‘전문 웹사이트’ 를 통해 알게 된 것이 44%로 다른 경로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성별 관계없이 ‘주변의 추천’ 이나 ‘동행인의 선호’ 에 의해 방문하는 비율이 높음. 여성은 남성보다 ‘전문 웹사이트’ 나 ‘블로그/SNS’ 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더 많음.
- 연령층 관계없이 ‘주변의 추천’ 이나 ‘동행인의 선호’ 에 의해 방문하는 비율이 높음. 30대는 타 연령층보다 ‘전문 웹사이트’ 를 통해 한식당을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변의 추천’ 이나 ‘동행인의 선호’ 에 의해 방문하는 비율이 높음. ‘215,000위안 이상’ 의 소득층은 ‘대중 매체’ 나 ‘충동적 선택’ 에 의해 한식당을 방문하는 경향이 타 소득층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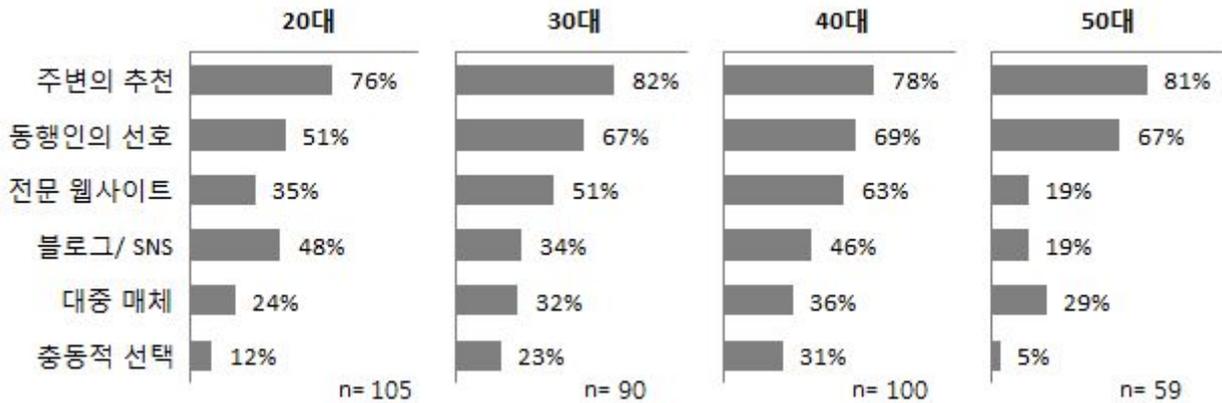
[한식당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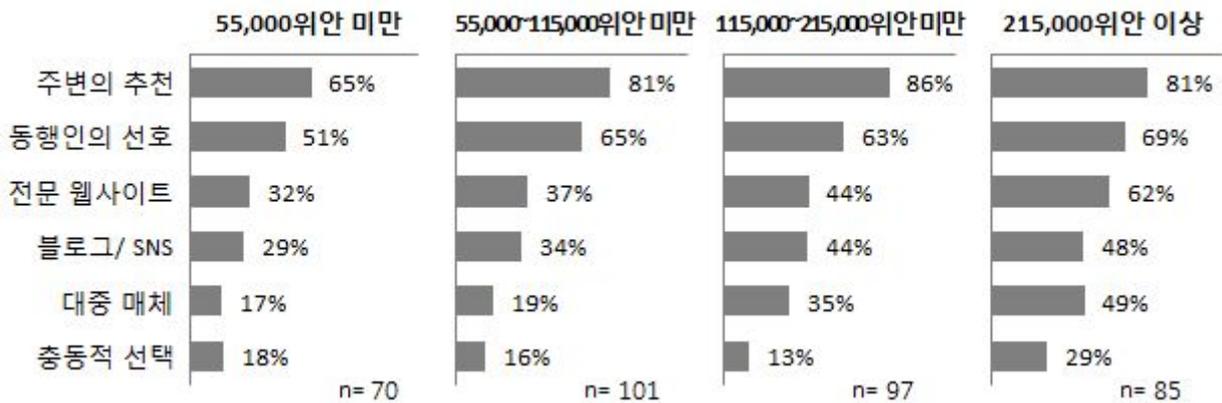
[성별 한식당 인지 경로]



[연령대별 한식당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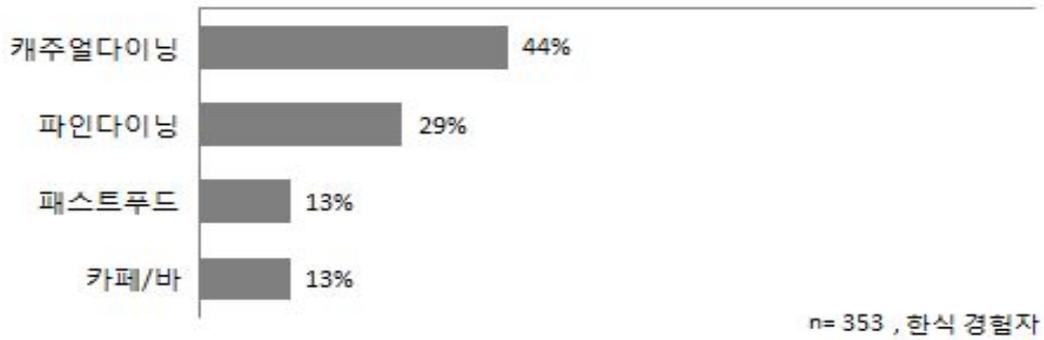
[연 소득별 한식당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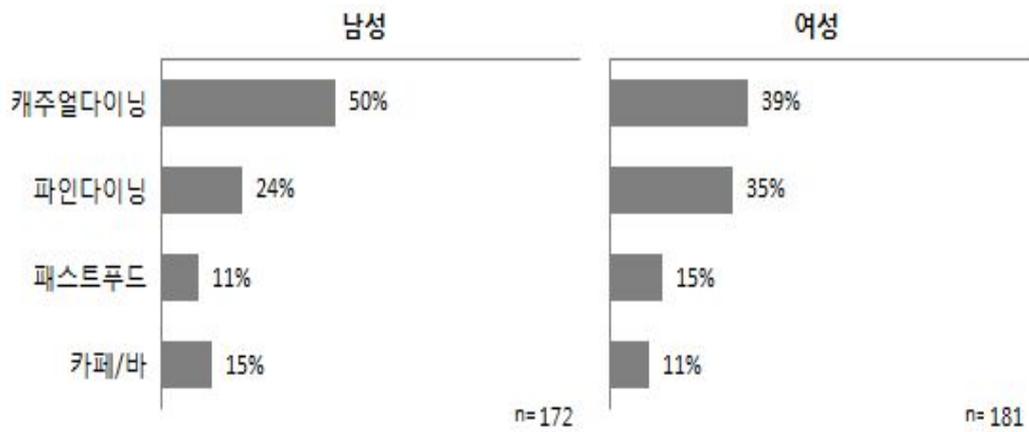
□ 한식당 방문 업태

- 충청 소비자가 한식당을 방문하는 업태로는 ‘캐주얼다이닝’ 이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파인다이닝’ 이 29%이며 ‘카페/바’ 와 ‘패스트푸드’ 가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성별 관계없이 ‘캐주얼다이닝’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남성이 여성보다 ‘캐주얼다이닝’ 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여성이 남성보다 ‘파인다이닝’ 에 방문하는 경향이 높음.
- 연령층 관계없이 ‘캐주얼다이닝’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50대가 ‘캐주얼다이닝’ 한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는 ‘파인다이닝’ 을 방문하는 비율이 44%로 타 업태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반면에 그 외 소득층은 ‘캐주얼다이닝’ 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그 중 ‘55,000위안 미만’ 의 소득층은 ‘캐주얼다이닝’ 에 방문하는 비율이 5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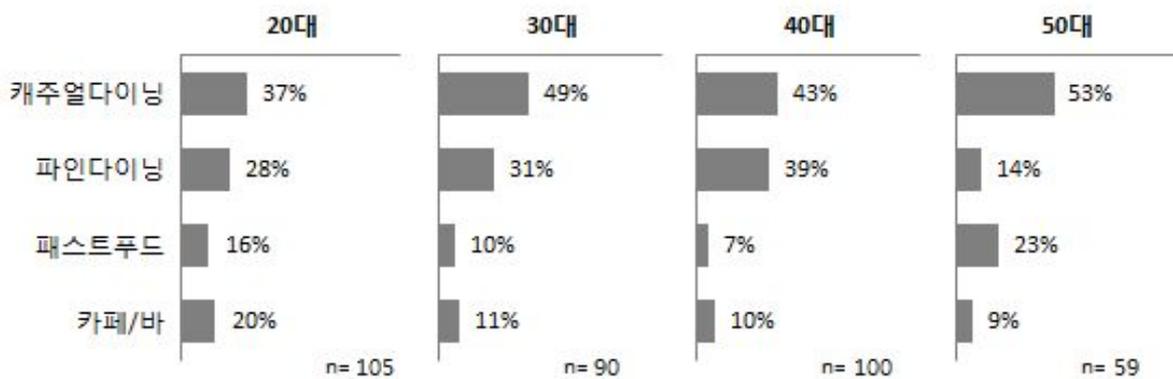
[한식당 방문 업태]



[성별 한식당 방문 업태]



[연령대별 한식당 방문 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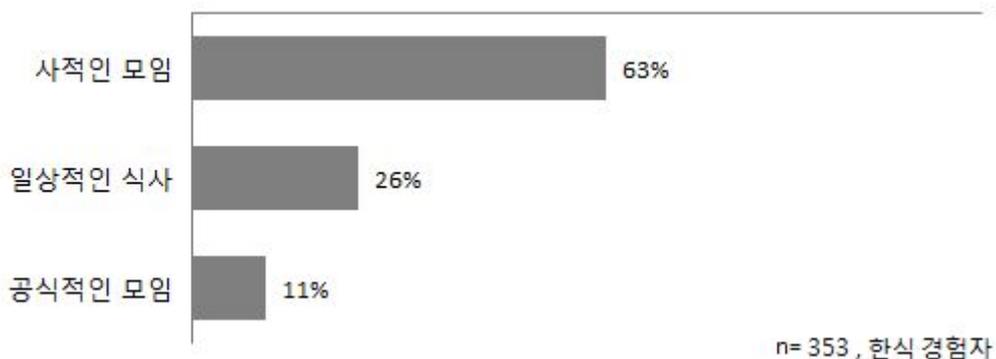
[연 소득별 한식당 방문 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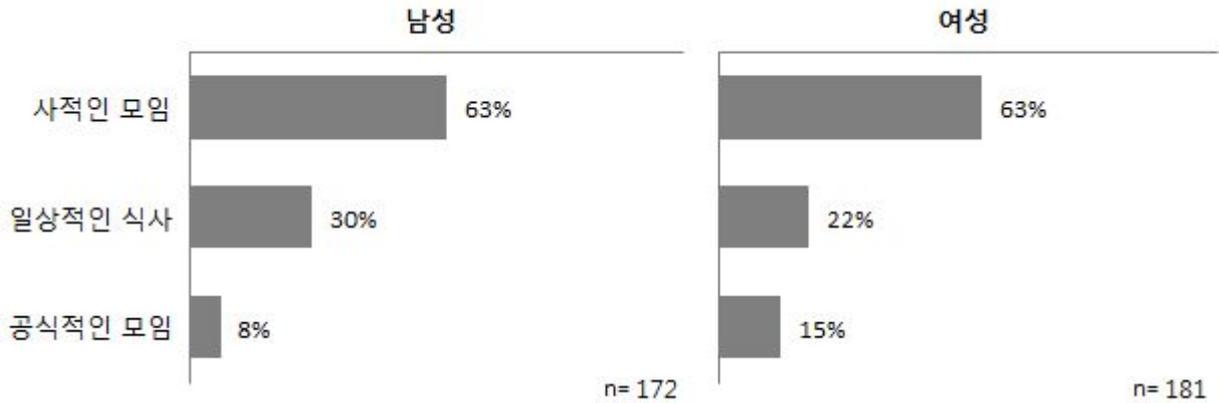
□ 한식당 방문 목적

- 한식당을 찾는 목적으로 ‘사적인 모임’ 이 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목적이 ‘일상적인 식사’ 인 경우가 26%이며, ‘공식적인 모임’ 이 11%임.
- 성별 관계없이 ‘사적인 모임’ 의 목적으로 한식당을 찾는 비율이 높음. 남성이 여성보다 ‘일상적인 식사’ 로 한식당을 찾는 경향이 있음.
- 연령층 관계없이 ‘사적인 모임’ 을 목적으로 한식당을 찾는 비율이 가장 높음. 그 외 40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공식적인 모임’ 을 목적으로 한식당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적인 모임’ 을 목적으로 한식당을 찾는 비율이 가장 높음. 그 중 연 소득이 ‘55,000위안 미만’ 인 소비자가 ‘사적인 모임’ 을 목적으로 한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67%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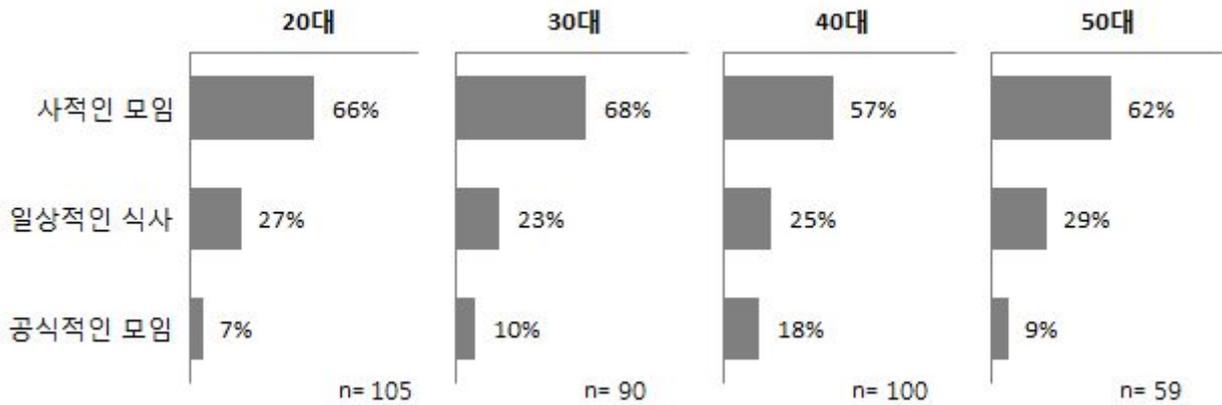
[한식당 방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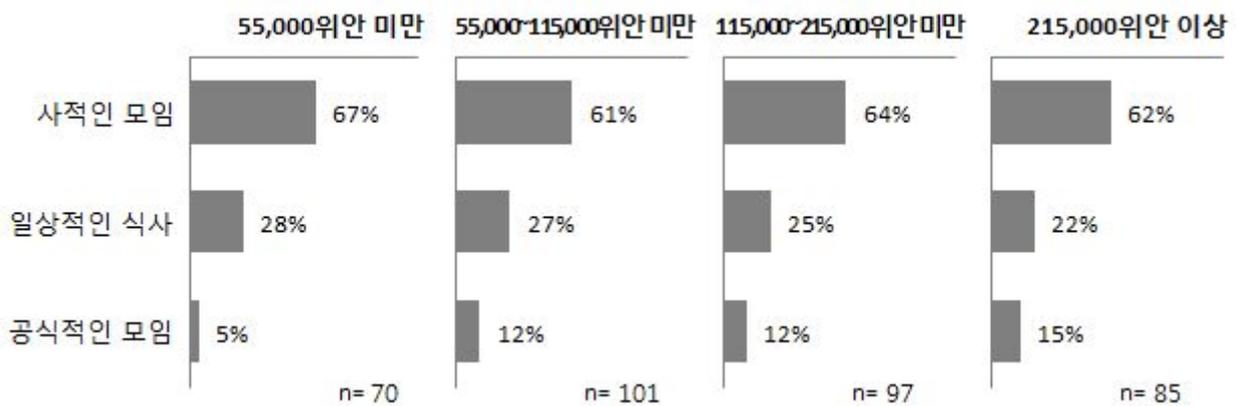
[성별 한식당 방문 목적]



[연령대별 한식당 방문 목적]



[연 소득별 한식당 방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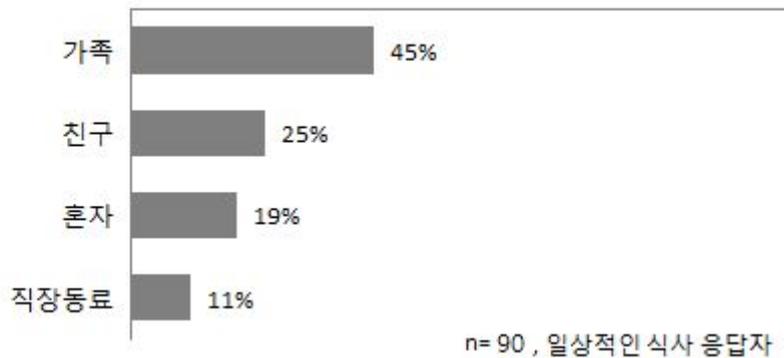


□ 한식당 방문 목적별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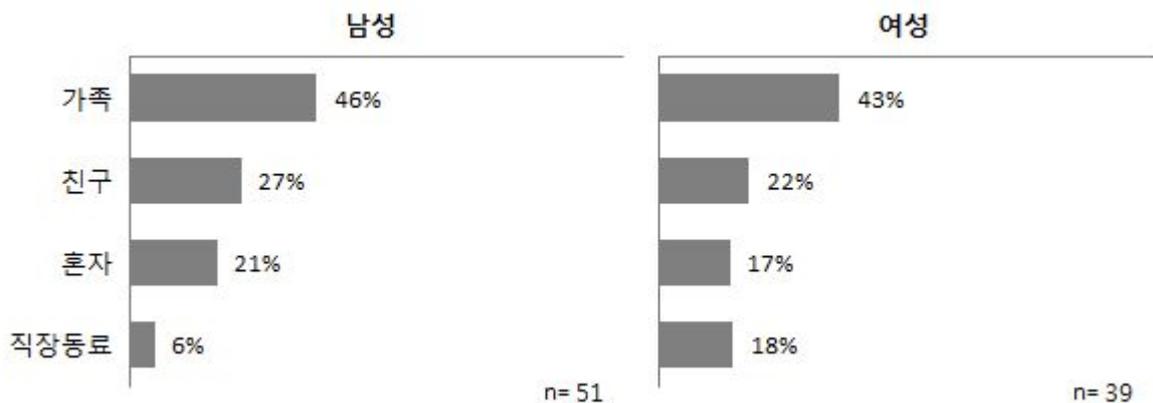
○ 일상적인 식사

- 일상적인 식사를 목적으로 한식당에 방문하는 소비자는 ‘가족’ 과 동행하여 한식당을 방문하는 비율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친구’ 와 동행하는 비율은 25%, ‘혼자’ 방문하는 비율은 19%임.
- 남성은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46%로 여성보다 근소하게 높은 경향이 있음. 여성은 남성보다 ‘직장동료’ 와 동행하여 방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연령층 관계없이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50대는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이 33%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중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 인 소비자는 ‘가족’ 과 동행하는 비율이 50%로 타 소득층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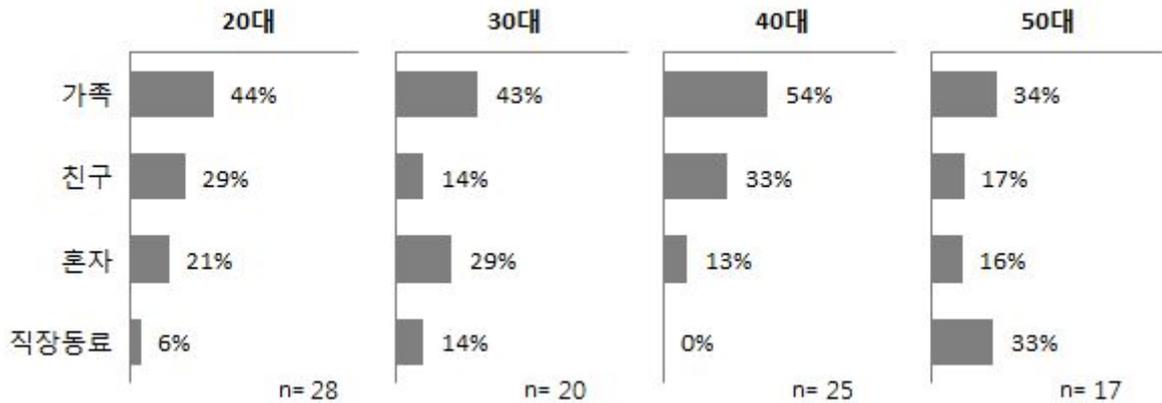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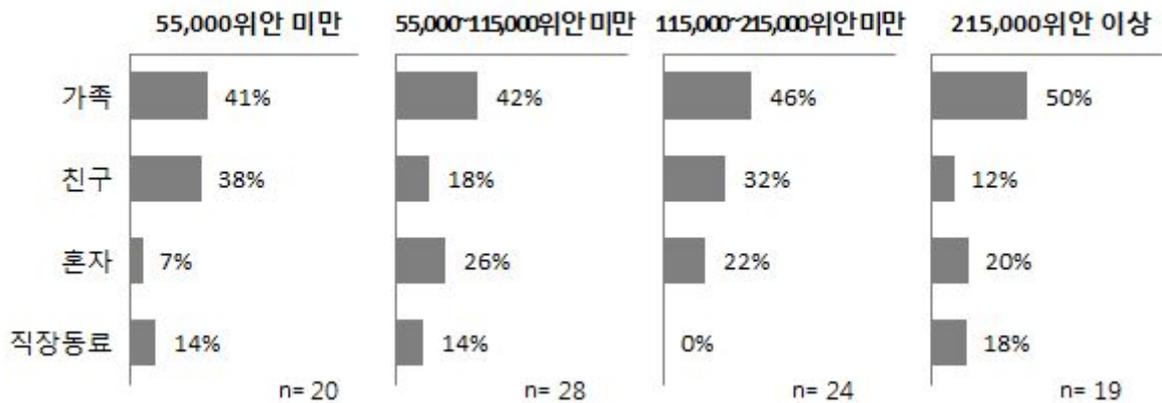
[성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연령대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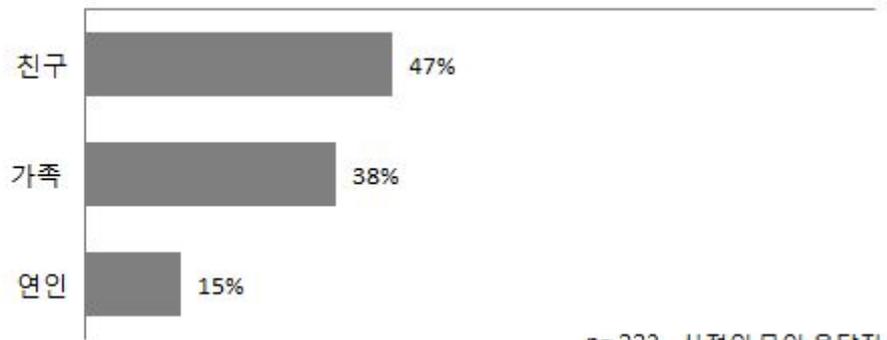
[연 소득별 일상적인 식사 동행인]



○ 사적인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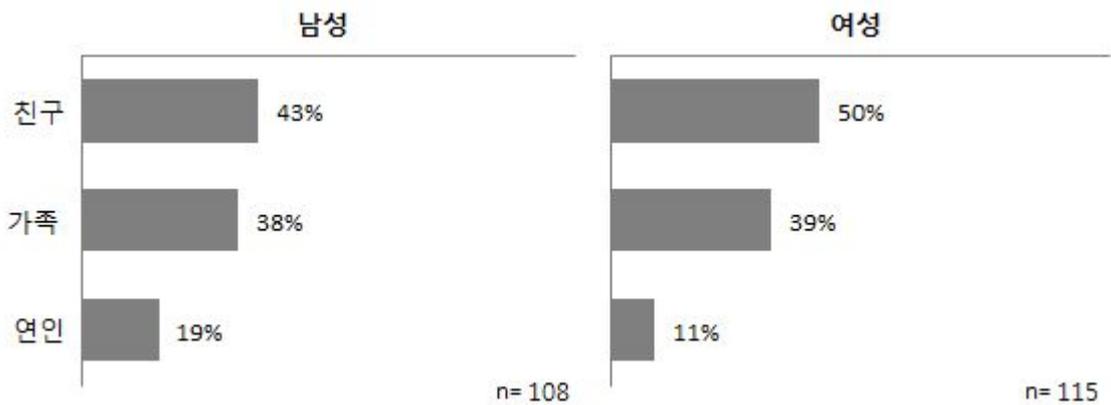
- 사적인 모임으로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은 38%, ‘연인’과 동행하는 비율은 15%임.
- 성별 관계없이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중 여성이 남성보다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다소 높음. 남성은 여성보다 ‘연인’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음.
- 30~50대 연령층에서는 ‘친구’와 동행하는 경향이 가장 높으며, 20대는 ‘가족’과 동행하는 비율이 4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친구’와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55,000~115,000위안’의 소득층은 ‘연인’과 동행하는 비율이 27%로 타 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사적인 모임 동행인]



n= 223 , 사적인 모임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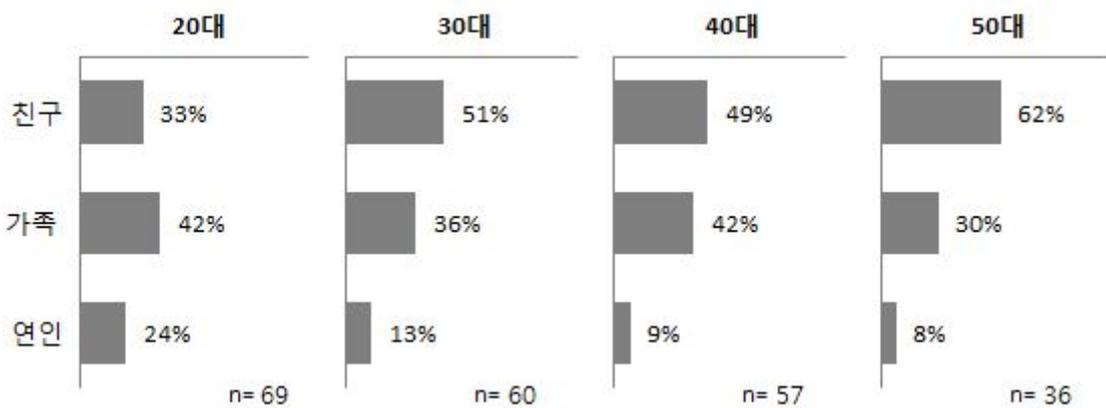
[성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n= 108

n= 115

[연령대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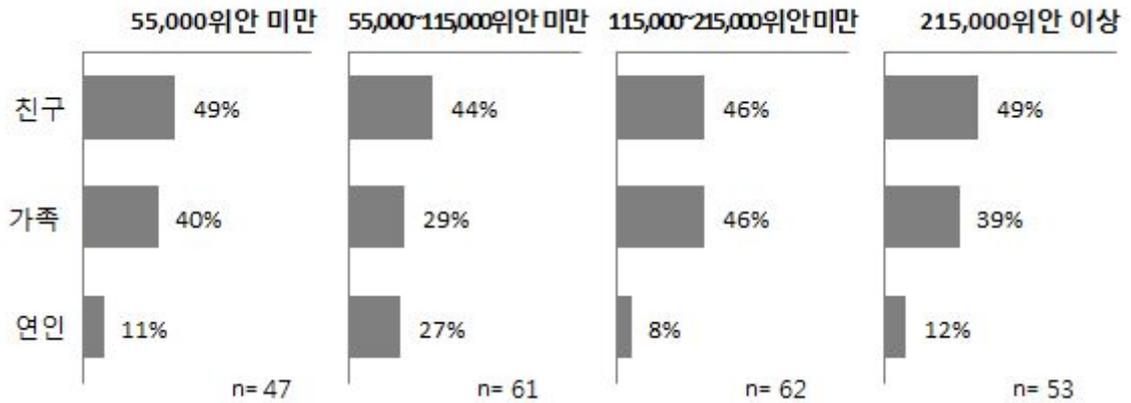
n= 69

n= 60

n= 57

n=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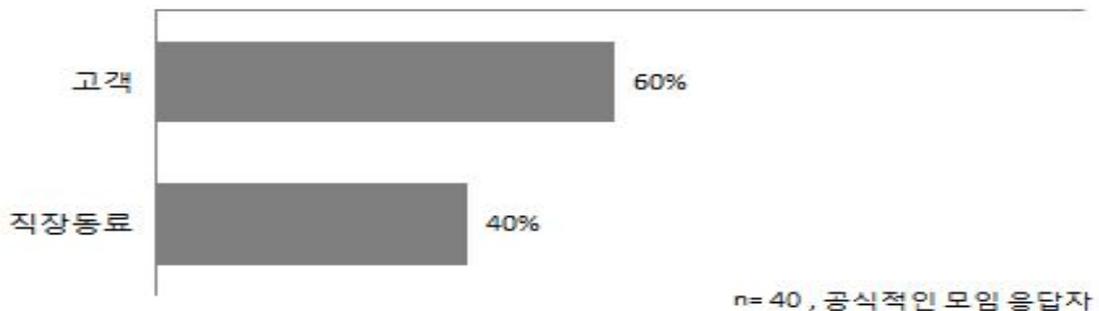
[연 소득별 사적인 모임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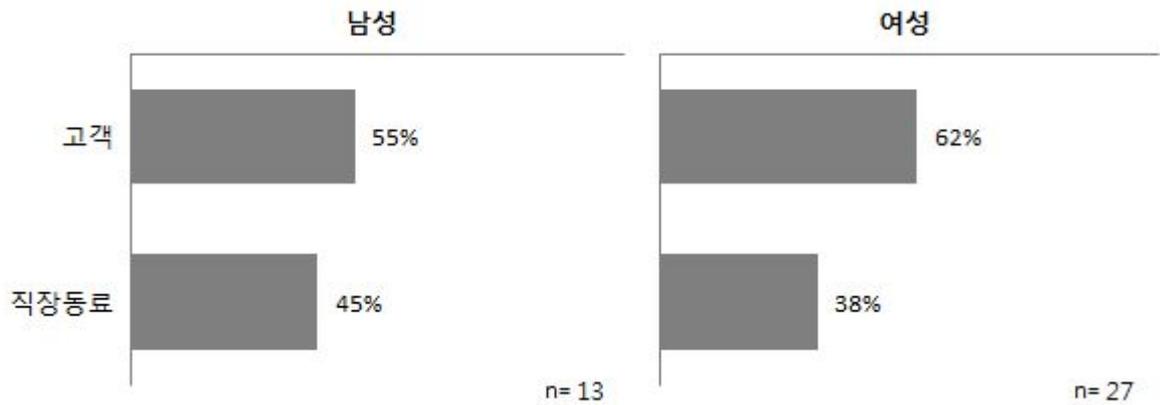
○ 공식적인 모임

- 공식적인 모임으로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은 40%임.
- 성별 관계없이 ‘고객’ 과 동행하는 경향이 있음. 그 중 여성이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62%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20~30대는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경향이 뚜렷함. 반면에 40대는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89%로 월등히 높음. 50대는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과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비율이 50%로 동일함.
- 연 소득이 ‘55,000~115,000위안’ 인 소비자는 ‘직장동료’ 와 동행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외 소득층은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높음. 그 중 ‘215,000위안 이상’ 의 소득층은 ‘고객’ 과 동행하는 비율이 77%로 타 소득층에 비해 월등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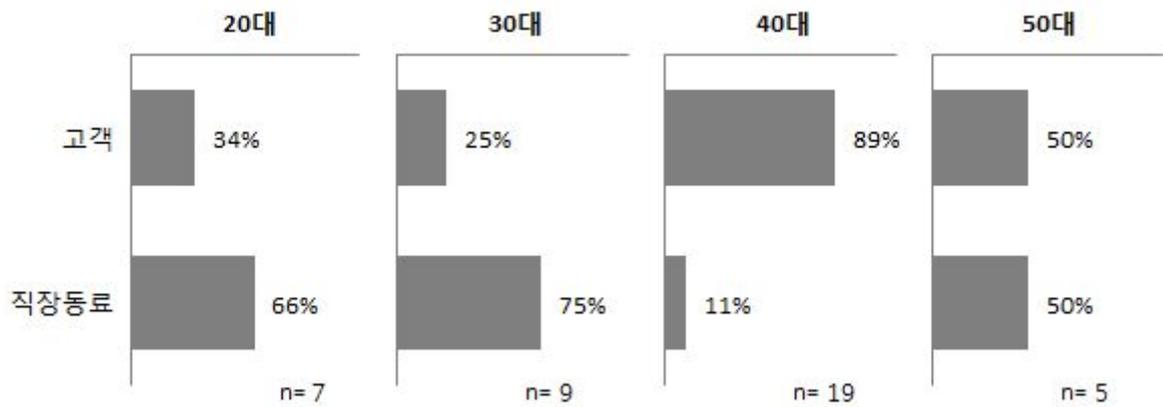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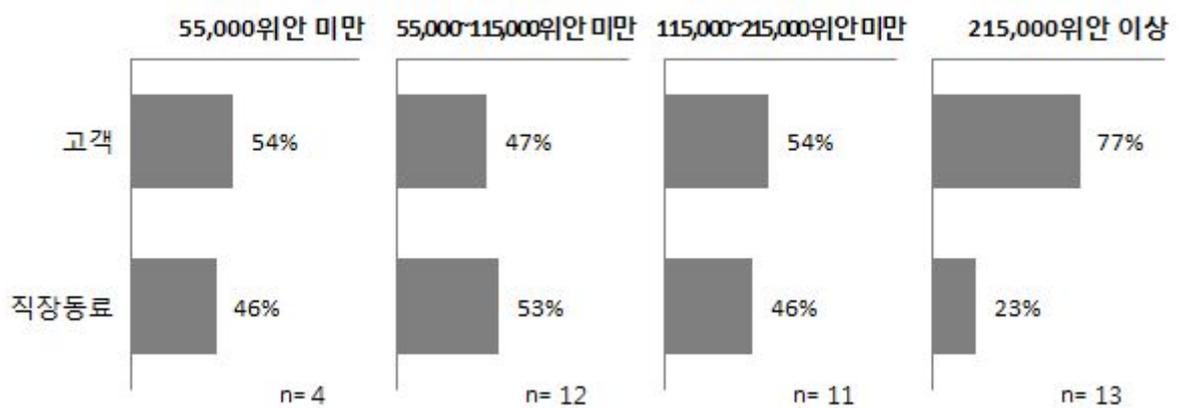
[성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연령대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연 소득별 공식적인 모임 동행인]



□ 한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한식당을 선택 시 고려하는 요소는 주로 ‘음식 수준’, ‘식당 수준’, ‘식당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가격’, ‘장소’, ‘서비스 수준’, ‘종업원 수준’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음식 수준’ 중에서 ‘음식의 맛(56%)’ 과 ‘건강한 음식(42%)’ 을 주로 고려하며, ‘음식의 양(23%)’ 은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 ‘식당 수준’ 중에서 ‘식당의 평판(38%)’ 과 ‘위생상태(41%)’ 를 주로 고려하며, ‘가격할인(16%)’ 나 ‘특별 이벤트(13%)’ 는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식당 상태’ 중에서 ‘내부 분위기(37%)’ 를 주로 고려하며, ‘편의시설(15%)’ 나 ‘주차공간(9%)’ 는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한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항목	순위	세부 항목	비율
Product	1	맛	56%
	2	건강	42%
	3	다양함	33%
	4	양	23%
Price	1	가격	19%
Place	1	접근성	24%
Promotion	1	식당(브랜드)의 평판 또는 이미지	38%
	2	가격할인	16%
	3	특별 이벤트(마술쇼, 밴드, 생일파티 등)	13%
Physical Evidence	1	위생상태	41%
	2	내부 분위기(인테리어, 소품, 음악 등)	37%
	3	외관	16%
	4	편의시설 (화장실, 놀이시설 등)	15%
	5	주차공간	9%
Process	1	격식 있는 서비스	24%
	2	편리한 서비스 (주문, 지불 등)	19%
	3	신속한 서비스	17%
People	1	태도	16%
	2	인지도 있는 경영주/종업원	13%
	3	의사소통	13%
	4	용모	9%
	5	개인적 관계	8%

□ 한식 메뉴 선호

- 충청의 소비자가 자주 먹는 한식당 메뉴로는 ‘비빔밥’ 이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고기’ 가 45%, ‘냉면’ 이 36%로 타 메뉴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자주 먹지 않는 메뉴로는 ‘전’ , ‘감자탕’ , ‘잡채’ , ‘갈비탕’ 이 18%로 가장 낮은 비율임.
- 한식당에 방문하여 먹고 싶은 메뉴로는 ‘불고기(43%)’ 와 ‘한식 비비큐(41%)’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먹고 싶지 않은 메뉴로는 ‘갈비찜’ 이 2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갈비탕’ , ‘잡채’ , ‘전’ 이 2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임.

[자주 먹는 한식 메뉴 & 먹어보고 싶은 한식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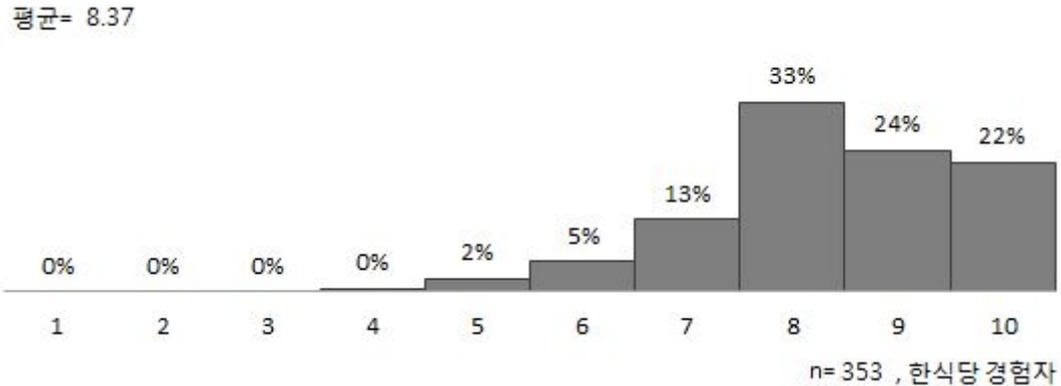
순위	자주 먹는 메뉴	비율	먹고 싶은 메뉴	비율
1	비빔밥	48%	불고기	43%
2	불고기	45%	Korean BBQ	41%
3	냉면	36%	비빔밥	40%
4	육개장	31%	삼계탕	35%
5	삼계탕	29%	육개장	34%
6	Korean BBQ	28%	전골	33%
7	떡볶이	28%	보쌈	32%
8	짜개	28%	떡볶이	31%
9	전골	27%	닭갈비	30%
10	보쌈	24%	냉면	29%
11	닭갈비	24%	짜개	26%
12	갈비찜	19%	감자탕	25%
13	잡채	18%	갈비탕	24%
14	갈비탕	18%	잡채	24%
15	감자탕	18%	전	24%
16	전	18%	갈비찜	22%
17	없음	11%	없음	0%

2) 한식당 방문 평가

□ 한식당 만족도

- 충청 소비자의 한식당 만족도 수준은 평균 8.37점으로 높은 수준임. 8점이 33%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9점이 24%, 10점이 2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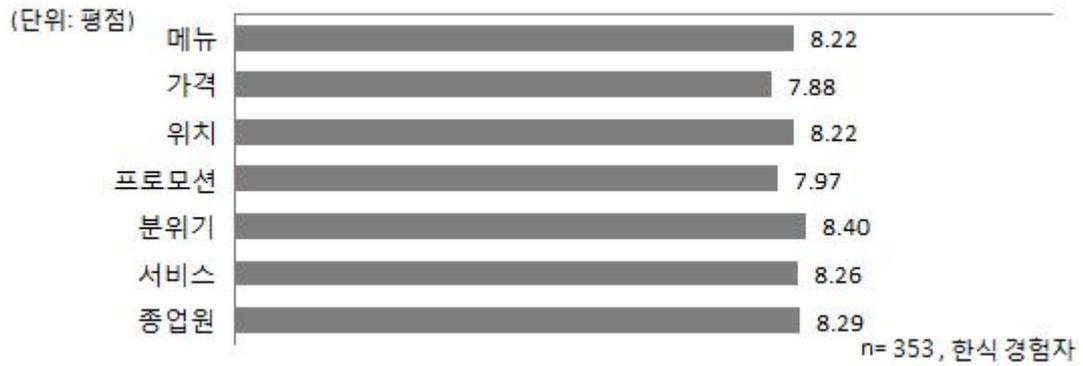
[한식당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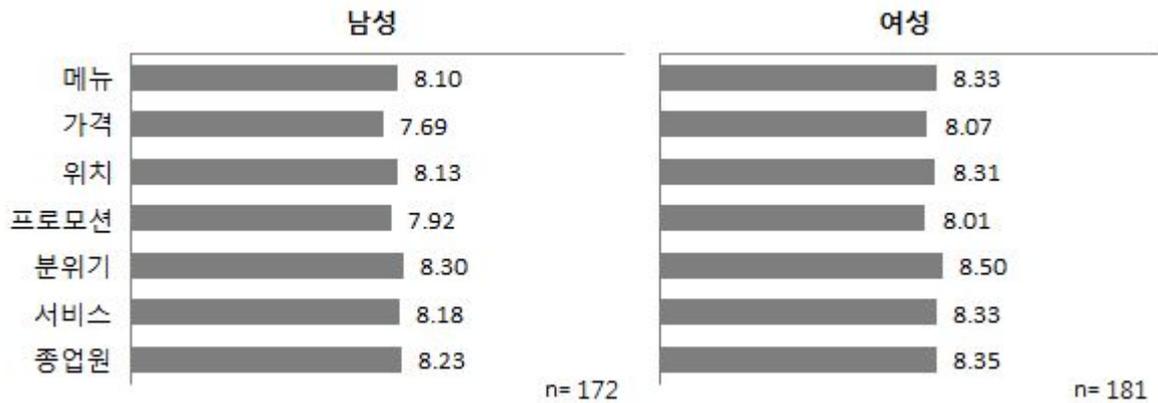
□ 7P 요소별 한식당 만족도

- 한식당 만족도 평가에서 7P 요소별로 보았을 때, 모든 항목의 만족도 수준이 '7.8~8.3' 의 높은 수준으로 고르게 평가하고 있음. 그 중 '분위기(8.40점)' 와 '종업원(8.29점)' 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가격(7.88점)' 과 '프로모션(7.97점)' 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여성이 남성보다 전체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성별 관계없이 한식당의 '서비스', '메뉴', '종업원'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나고 있음.
- 연령대 관계없이 '분위기' 와 '메뉴' 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이며, '가격' 과 '프로모션' 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임.
- 연 소득이 높을수록 한식당의 전체 만족도 평점이 높은 경향이 있음. 소득층과 관계없이 '분위기', '서비스', '종업원' 의 평점이 높게 나타나며, '가격' 과 '프로모션' 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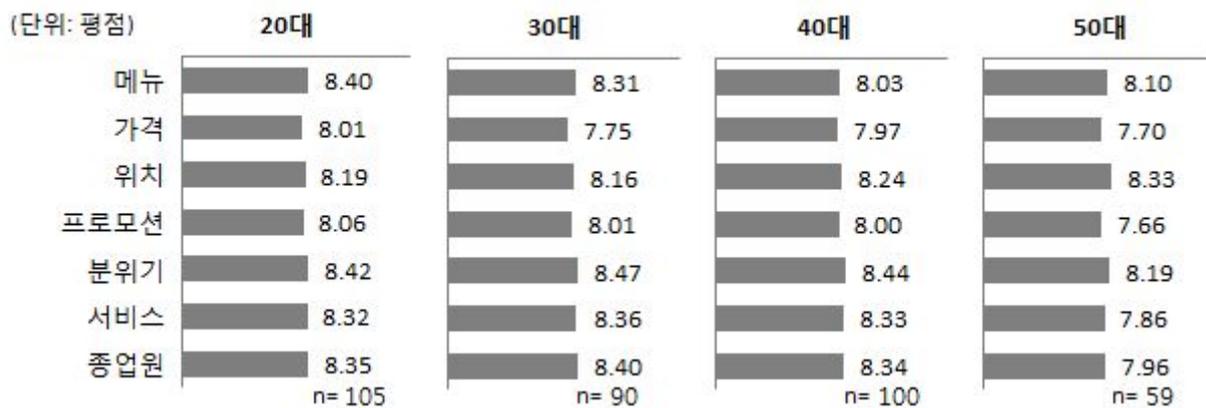
[7P 요소별 한식당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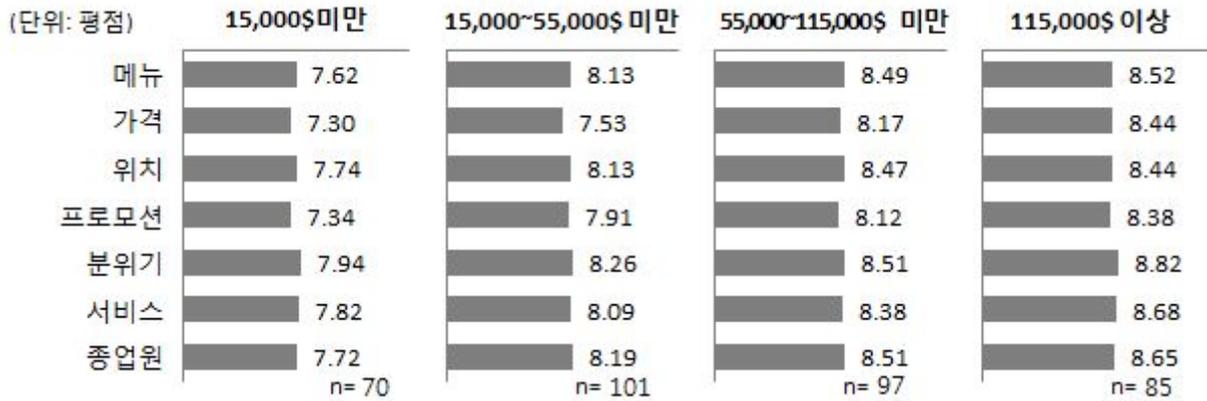
[성별 7P 요소별 한식당 만족도]



[연령대별 7P 요소별 한식당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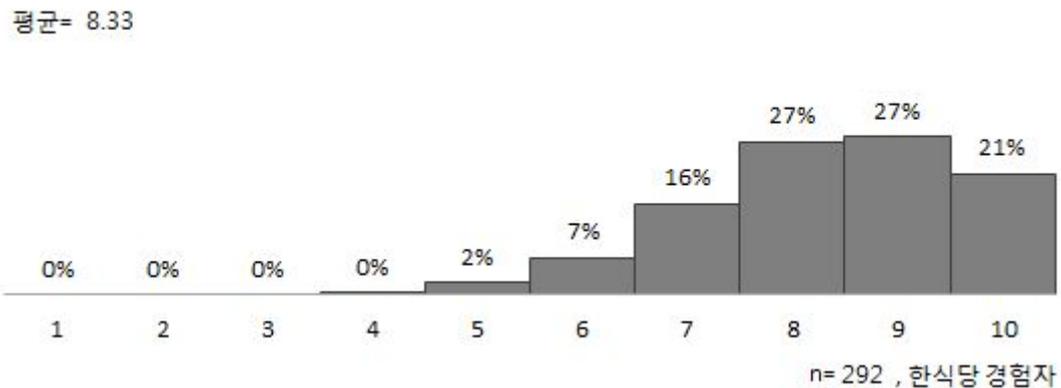
[연 소득별 7P 요소별 한식당 만족도]



□ 한식당 추천의향

- 충청 소비자의 한식당 추천의향은 평균 8.33점으로 높은 수준임. 8점과 9점이 27%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10점이 21%, 7점이 16%임.

[한식당 추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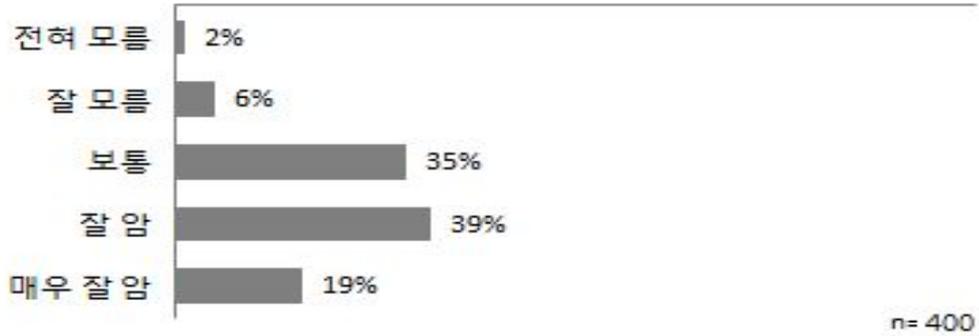
3) 한국 관련 선호

□ 한국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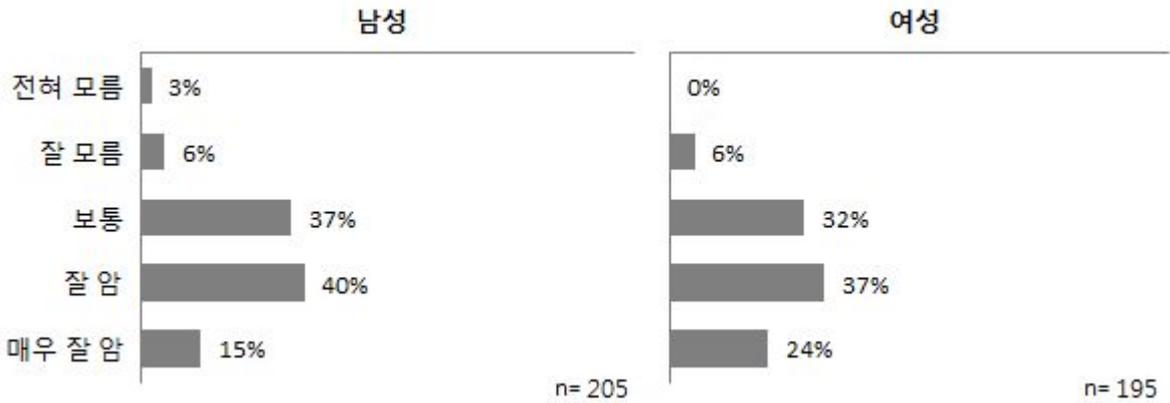
- 충청의 소비자는 한국 인지도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다’ 거나 ‘보통이다’의 비율이 각각 39%, 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성별 관계없이 한국 인지 수준은 ‘잘 암’의 항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 중 여성의 인지 수준이 남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
- 40대의 한국 인지 수준은 ‘잘 암’의 비율이 26%로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인지 수준을 나타남. 반면에 50대의 인지 수준은 ‘보통 미만’의 비율이 60%이상으로 인지 수준이 가장 낮은 경향이 있음.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15,000위안 이상'의 소득층은 '잘 암'의 항목이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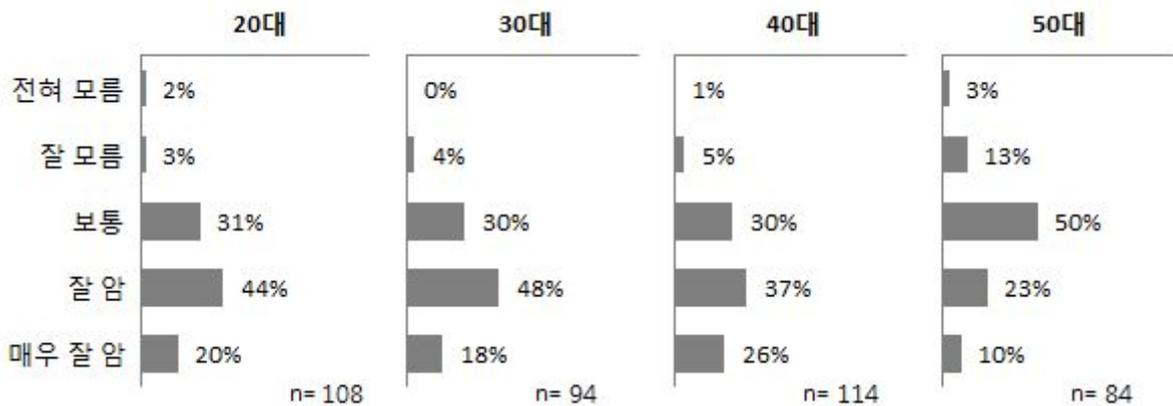
[한국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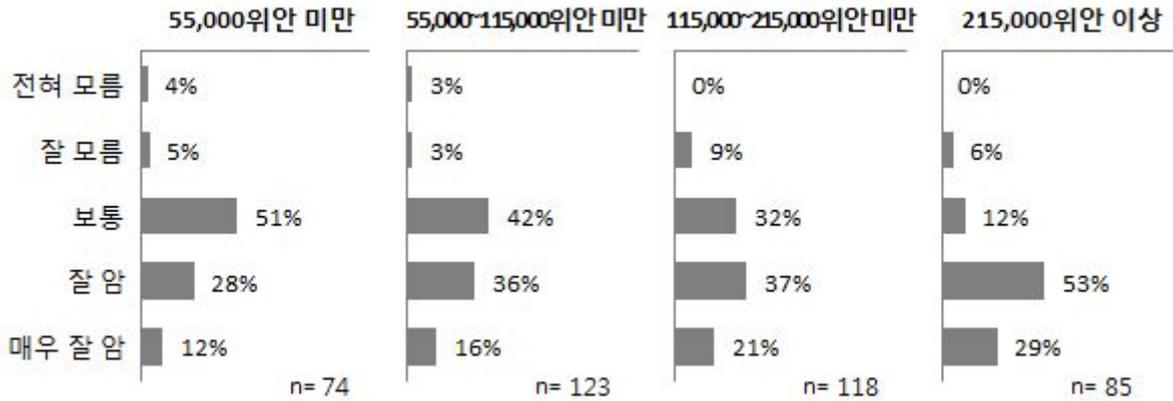
[성별 한국 인지 수준]



[연령대별 한국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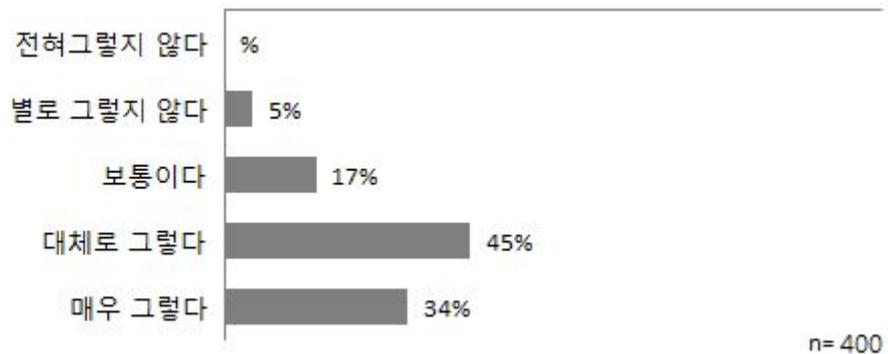
[연 소득별 한국 인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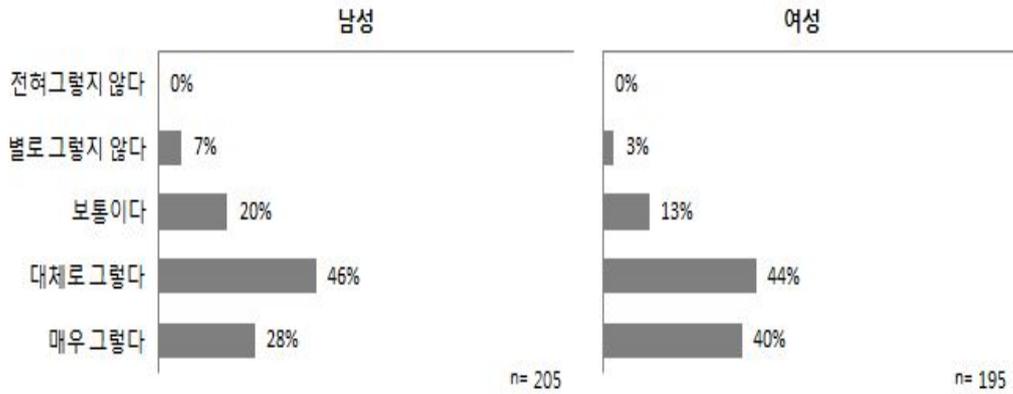
□ 한국 및 한류 호감도

- 충청의 소비자는 한국에 대한 호감 수준이 ‘대체로 그렇다’ 항목의 비율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렇다’ 이거나 ‘대체로 그렇다’ 의 비율이 약 80%로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성별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의 호감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연령층이 낮을수록 한국 호감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 연령층 관계없이 ‘잘 압’ 과 ‘잘 압’ 의 항목이 60% 이상 수준으로 호감 수준이 높음.
- 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 인 소득층은 한국에 대해 ‘그렇다’ 항목의 비율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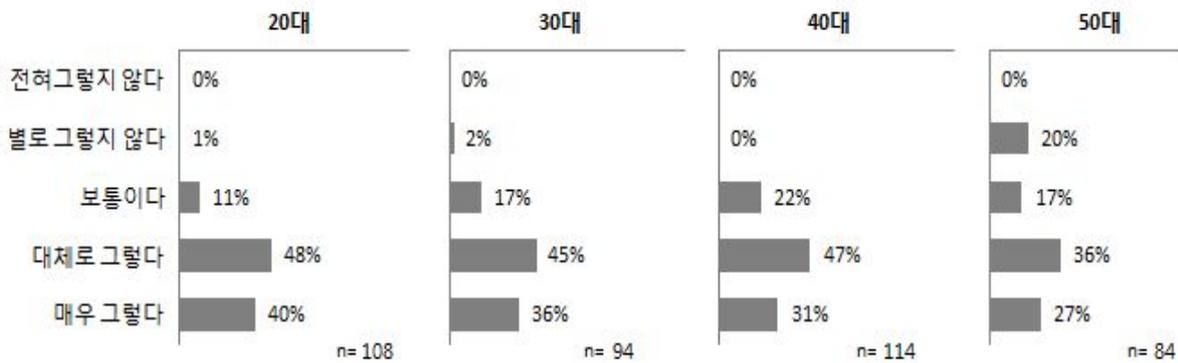
[한국 호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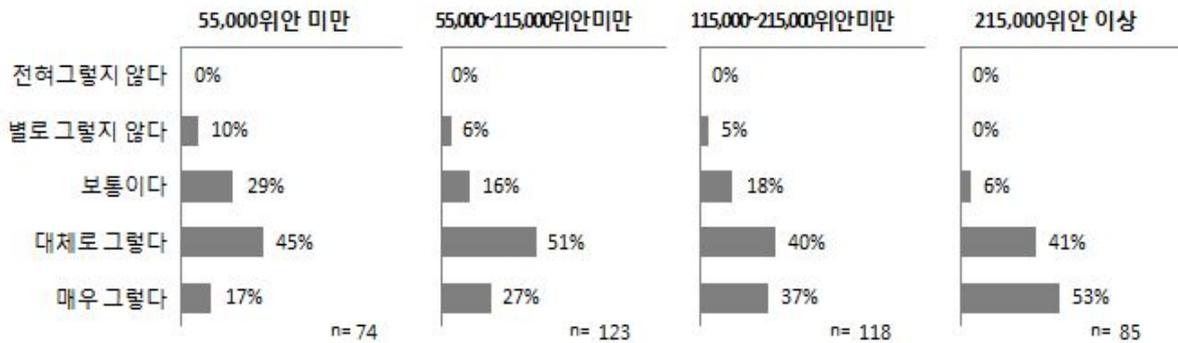
[성별 한국 호감 수준]



[연령대별 한국 호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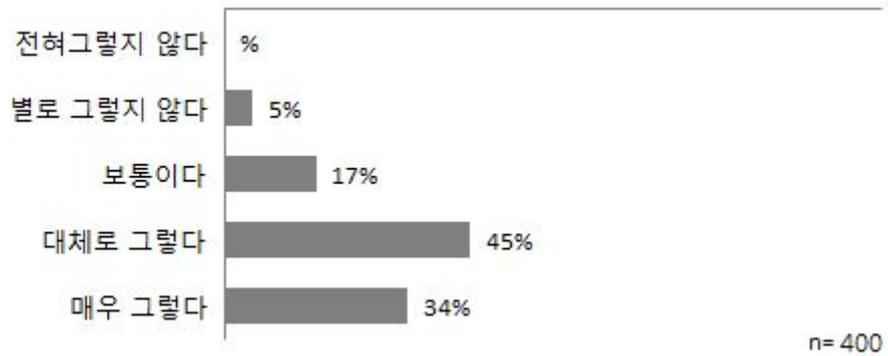


[연 소득별 한국 호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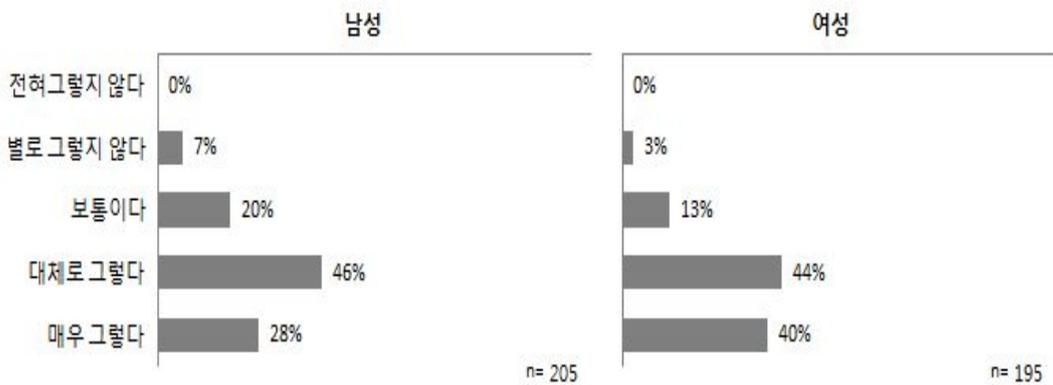


- 한류에 대해 호감 수준이 ‘대체로 그렇다’ 항목의 비율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렇다’와 ‘보통이다’의 비율은 각각 34%, 17% 비율로 나타남.
- 성별 관계없이 한류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여성이 남성보다 한류의 호감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연령층이 낮을수록 한류에 대한 호감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 특히 20대는 한류에 대해 ‘잘 압’ 항목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류에 대한 호감 수준이 ‘대체로 그렇다’와 ‘그렇다’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함. 특히 연 소득이 ‘215,000위안 이상’인 소득층은 한류에 대해 ‘잘 압’ 항목의 비율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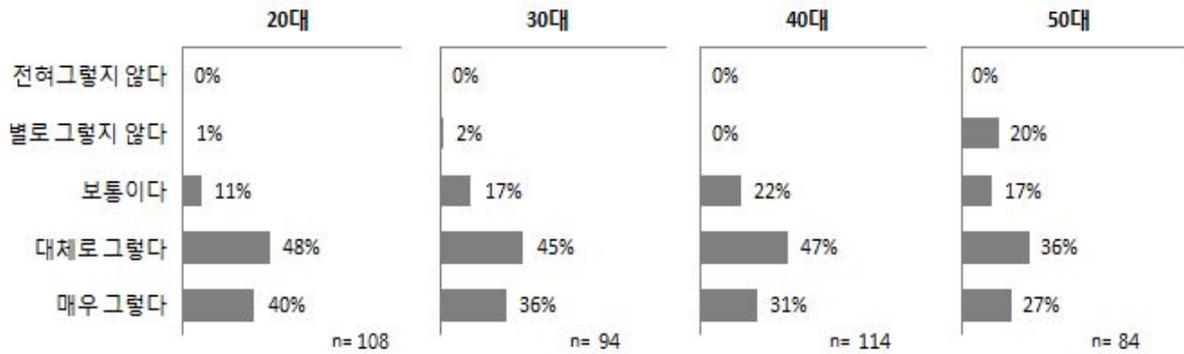
[한류 호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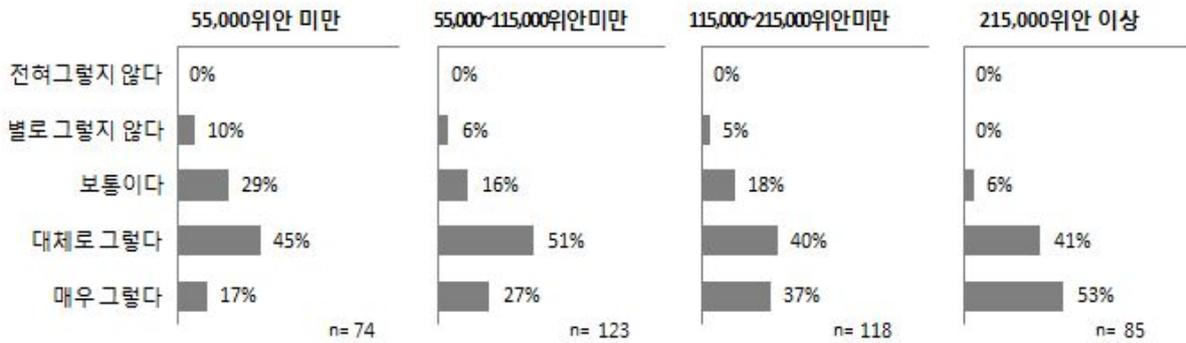
[성별 한류 호감 수준]



[연령대별 한류 호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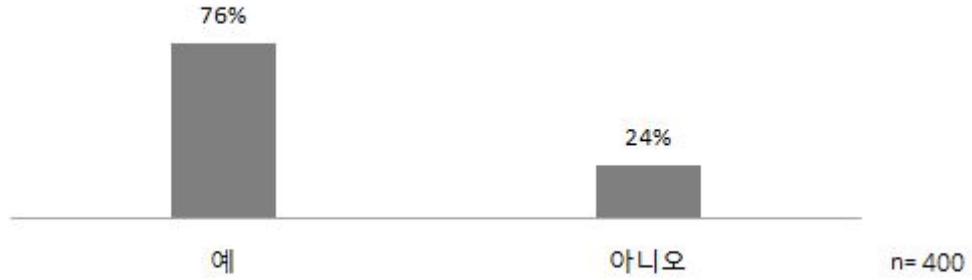
[연 소득별 한류 호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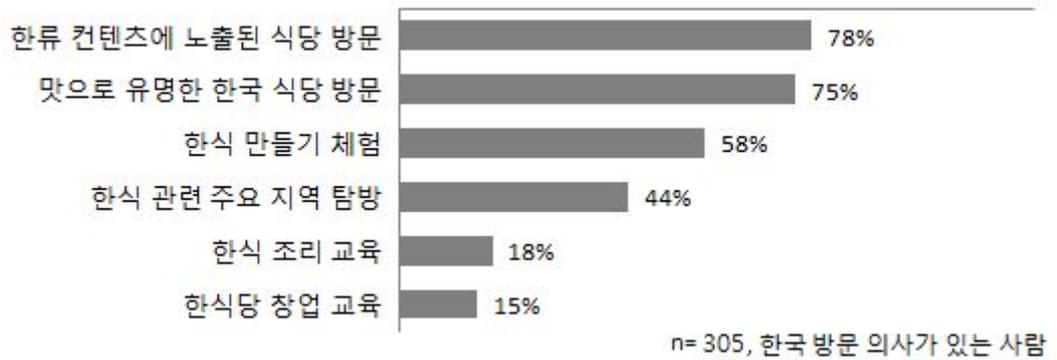
□ 한국 음식 관광 의향 및 한식과 관련하여 해보고 싶은 일

- 충청 소비자 중 ‘음식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음’ 항목의 비율이 76%로 방문 의향 높은 경향이 있음.
- 한국 방문 시, 한식과 관련하여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식당 방문’ 이 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항목은 ‘맛으로 유명한 한국 식당 방문’ 의 비율은 66%이며, ‘한식 만들기 체험’ 의 비율은 75%임.
- 한국 방문 시, 먹어보고 싶은 메뉴는 ‘비빔밥(64%)’ 과 ‘불고기(60%)’ 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반면에 ‘갈비탕’, ‘갈비찜’, ‘전골’ 의 메뉴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음식 관광을 위한 한국 방문 의향]



[한국 방문 시 한식과 관련하여 해보고 싶은 일]



[한국 방문 시 먹어보고 싶은 메뉴]

순위	먹어보고 싶은 메뉴	비율
1	비빔밥	64%
2	불고기	60%
3	Korean BBQ	56%
4	찌개	53%
5	육개장	48%
6	삼계탕	45%
7	냉면	43%
8	닭갈비	42%
9	떡볶이	41%
10	잡채	40%
11	보쌈	40%
12	전	36%
13	감자탕	34%
14	전골	34%
15	갈비탕	30%
16	갈비찜	28%

4.2 빅데이터 분석

[길라잡이] 빅데이터 분석 참고 사항

□ 식당 샘플 수

- 도시별로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가사이트 3~4 곳을 선정하여 해당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모든 외식당 정보를 수집, 정제, 중복 제거를 통해 도출된 식당 수입. 따라서 현지 온라인 평가사이트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식당 수가 실제 수와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존재함.
- 본 조사사업에서는 체계적인 식당 업종 분류를 위해 1차 업태, 2차 에스닉이라는 기준을 수립하고 전체 도시에 적용하였음. 모든 식당을 해당 기준을 적용 및 분류하였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 중 일부 경우는 샘플 수 n=30 미만인 경우가 존재함. 샘플 수가 적은 업태/에스닉의 경우 실제 식당 수가 적거나 혹은 평가사이트 보유 식당 수의 한계 등 여러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해석에 유의가 필요.

□ 등록 리뷰 비율

- 본 조사사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식당 업종별 방문 빈도, 나아가 식당 업종의 인기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 리뷰 건수'를 수집하였음.
- 리뷰 건수 해석 시에 업태/에스닉별 비교를 목적으로 연도별로 수집된 전체 소비자 리뷰 건수 중 각 업태가 차지하는 비중, 업태별로 각 에스닉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로 분석하여 인기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함.

□ 외식당/한식당 주요 판매메뉴

- 해당지역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중 외식당/한식당 업종으로 분류된 식당들이 취급하는 메뉴 리스트를 취합한 결과임. 한식당의 경우 실제 현지 한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메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예 치킨 등).

□ 외식당/한식당 내 주요 소비자 추천 메뉴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들의 판매메뉴에 기록된 소비자 추천 건수를 취합한 결과임. 한식당의 경우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한식당의 메뉴 정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식분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외식당/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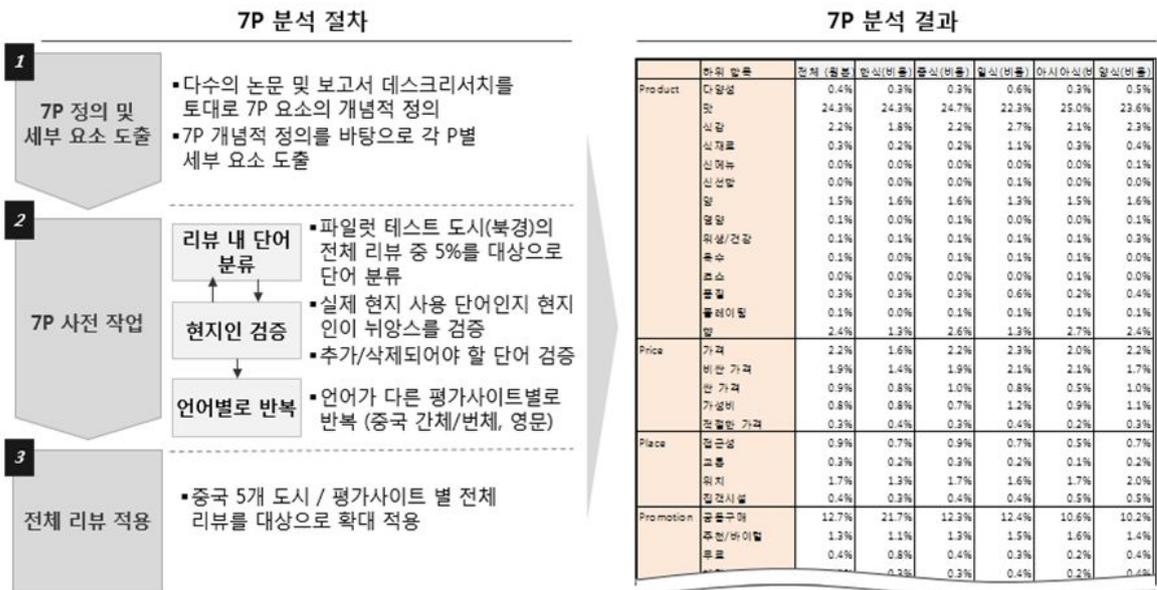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들 중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리뷰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한식당’은 각 평가사이트의 ‘한식’, ‘한국요리’로 분류된 사이트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임.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식당 메뉴키워드 결과는 한식 외에 소비자가 언급한 다양한 에스닉 메뉴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해석이 필요.

□ 추천/판매메뉴 및 메뉴키워드 번역 과정

- 평가사이트 식당 정보란에 등록된 메뉴 정보와 소비자들이 리뷰에서 언급한 메뉴 정보를 중국 현지인이 검수 및 번역하는 과정을 거침. 리뷰 텍스트 특성상, 문맥과 언급 상황이 다양함을 감안할 때 하나의 메뉴명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한글로 번역된 메뉴명은 참고용으로 활용.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7P)

- 7P 프레임을 적용하여 각 세부 마케팅믹스별 개념적 정의 및 세부 요소를 도출하고, 7P 사전 키워드를 작업 후, 전체 리뷰에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1) 한식당 방문 행태

□ 한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충청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들의 전체 리뷰를 크롤링하여 분석해본 결과, 7P 요소인 ‘음식’ 중에서 ‘맛(0.42회/건)’ 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양(0.13회/건)’, ‘식감(0.04회/건)’, ‘향(0.07회/건)’ 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에서는 ‘분위기’ 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 요소(0.09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며, 그 외 ‘가격’ (0.18회/건)과 ‘프로모션’ 요소 중 ‘공동구매’ (1.16회/건)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남.

[7P 세부 요소별 언급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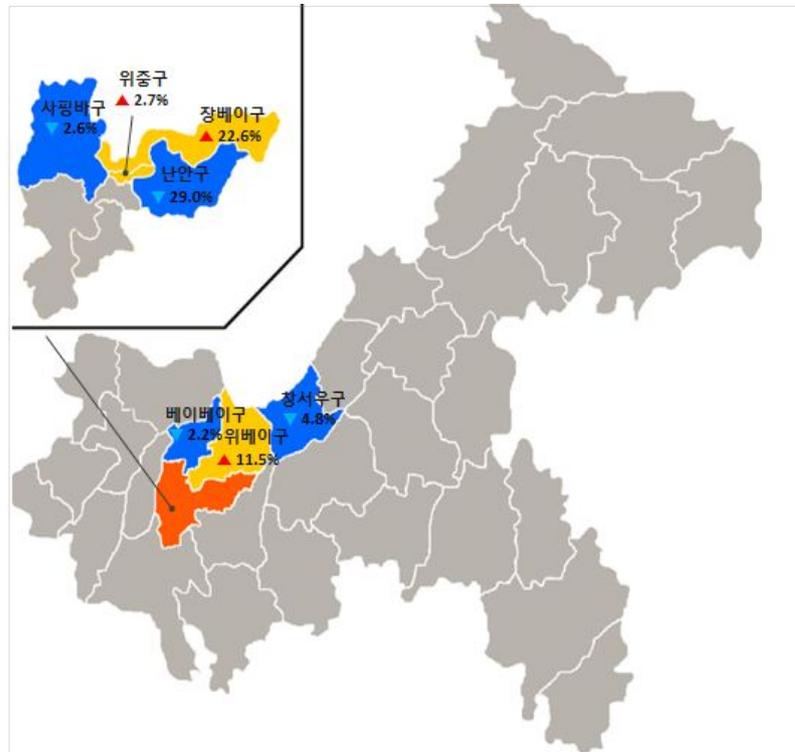
(단위: 언급 빈도/리뷰 건수)

7P 요소	순위	7P 하위 요소	리뷰당 언급 빈도
음식	1	맛	0.42
	2	양	0.13
	3	식감	0.04
	4	향	0.04
가격	1	가격	0.18
위치	1	접근성	0.03
	2	교통편의성	0.00
	3	입지	0.00
프로모션	1	공동구매	1.16
	2	무료	0.01
	3	상품권/쿠폰	0.01
	4	혜택	0.01
물리적 환경	1	내부 디자인 요소	0.09
	2	내부 환경적 요소	0.06
	3	외부 환경적 요소	0.02
서비스	1	대기	0.03
	2	주문	0.02
	3	결제	0.01
	4	포장/배달	0.01
종업원	1	종업원 태도	0.09
	2	사장님	0.01
	3	복장/용모	0.01
	4	요리사	0.00

□ 상권별 리뷰 건수

- 현지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한식당의 전체 리뷰를 크롤링하여 취합해본 결과, 충청 한식당 리뷰 건수 비율은 상권(구)에 따라 추세가 변동하고 있음.
- 중심 구역의 ‘장베이구’ 에서 최근 4년간 리뷰 건수 비율이 22.6% 증가하였으며, ‘위중구’ 에서도 2.2% 증가하였음. 인접 상권인 ‘위베이구’ 에서도 최근 4년 간 한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이 11.5% 증가하였음.
- 반면 다른 구역은 리뷰 건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난안구’ 에서는 리뷰 건수 비율이 최근 4년간 29.0% 급감하였으며, 그 외 ‘샤핑바구’ 등에서도 2~5% 가량 리뷰 건수 비율이 감소함.

[상권별 리뷰 건수 증감 현황]⁹⁶⁾



96) 최근 4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감 현황을 표시

[상권별 리뷰 건수 추세]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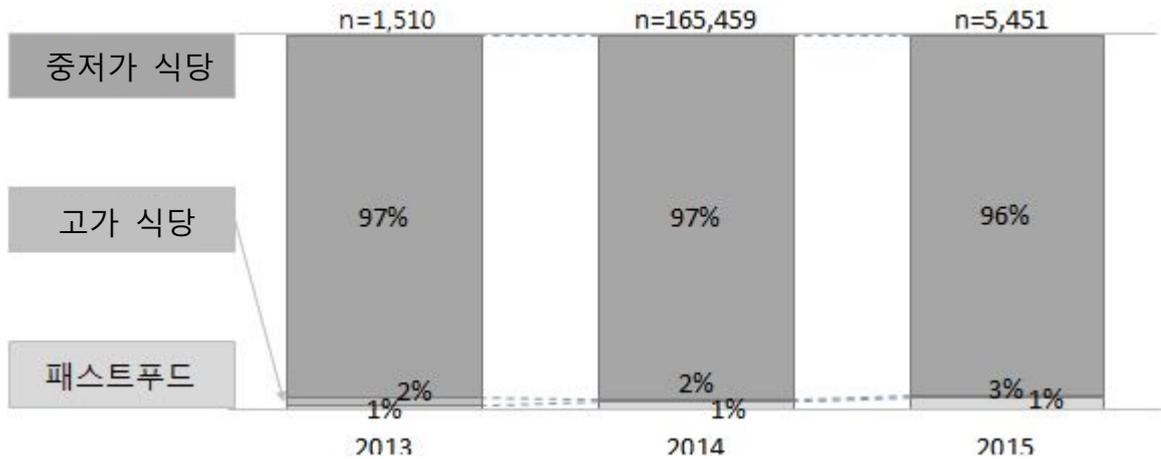
상권(구)	전체 수	12.05~13.04	13.05~14.04	14.05~15.04	15.05~16.04	4개년 Gap
		405	1,253	16,828	43,338	
江北区 (강베이구)		6.4%	29.0%	28.0%	29.0%	22.6%
渝中区 (위중구)		16.8%	17.7%	11.5%	19.5%	2.7%
南岸区 (난안구)		47.7%	27.2%	27.8%	18.6%	-29.0%
渝北区 (위베이구)		2.0%	3.2%	12.8%	13.5%	11.5%
九龙坡区 (주룽포구)		9.4%	10.0%	7.8%	9.3%	-0.1%
沙坪坝区 (사핑바구)		9.6%	6.8%	9.1%	7.1%	-2.6%
北碚区 (베이베이구)		3.0%	1.8%	0.4%	0.7%	-2.2%
万州区 (완저우구)		0.0%	0.6%	0.4%	0.7%	0.7%
巴南区 (바난구)		0.2%	0.3%	0.9%	0.4%	0.1%
永川区 (영취구)		0.0%	0.8%	0.2%	0.3%	0.3%
大渡口区 (다두커우구)		0.0%	0.0%	0.2%	0.2%	0.2%
合川区 (허촨구)		0.0%	0.0%	0.1%	0.2%	0.2%
涪陵区 (푸링구)		0.0%	0.4%	0.3%	0.2%	0.2%
大足区 (다주구)		0.0%	0.2%	0.0%	0.2%	0.2%
长寿区 (창서우)		4.9%	1.8%	0.3%	0.1%	-4.8%
璧山区 (비산구)		0.0%	0.0%	0.0%	0.0%	0.0%
南川区 (난취구)		0.0%	0.0%	0.0%	0.0%	0.0%
开县 (카이현)		0.0%	0.1%	0.0%	0.0%	0.0%
潼南区 (통난구)		0.0%	0.0%	0.0%	0.0%	0.0%
邻水县 (링수현)		0.0%	0.1%	0.0%	0.0%	0.0%
巫山县 (우산현)		0.0%	0.1%	0.0%	0.0%	0.0%
武隆县 (우룡현)		0.0%	0.0%	0.0%	0.0%	0.0%
酉阳土家族苗族自治县 (유양투자족 자치현)		0.0%	0.0%	0.0%	0.0%	0.0%
丰都县 (펑두현)		0.0%	0.0%	0.0%	0.0%	0.0%
云阳县 (윈양현)		0.0%	0.0%	0.0%	0.0%	0.0%
垫江县 (딴장현)		0.0%	0.0%	0.0%	0.0%	0.0%
奉节县 (펑제현)		0.0%	0.0%	0.0%	0.0%	0.0%
巫溪县 (우시현)		0.0%	0.0%	0.0%	0.0%	0.0%
黔水苗族土家族自治县 (펑수이마오족투자족자치현)		0.0%	0.0%	0.0%	0.0%	0.0%
忠县 (중현)		0.0%	0.0%	0.0%	0.0%	0.0%
梁平县 (량평현)		0.0%	0.0%	0.0%	0.0%	0.0%
江津区 (강진구)		0.0%	0.0%	0.0%	0.0%	0.0%
石柱土家族自治县 (스주투자족 자치현)		0.0%	0.0%	0.0%	0.0%	0.0%
秀山土家族自治县 (슈산 투자족 마오족 자치현)		0.0%	0.0%	0.0%	0.0%	0.0%
黔江区 (치장구)		0.0%	0.0%	0.0%	0.0%	0.0%
荣昌区 (릉창구)		0.0%	0.0%	0.0%	0.0%	0.0%
铜梁区 (통량구)		0.0%	0.0%	0.0%	0.0%	0.0%
黔江区 (첵장구)		0.0%	0.0%	0.0%	0.0%	0.0%
근교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97) 최근 4년 데이터 기준

□ 업체별 리뷰 건수

- 업체 중 ‘중저가 식당’의 리뷰 건수가 타 업체의 리뷰 건수보다 많으며, 리뷰 건수 비율은 2013년 97%에서 2015년 96%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임.

[업체별 한식당 리뷰 건수 추세(13~15년)]



□ 현지 한식당 내 주요 메뉴 현황⁹⁸⁾

○ 현지 한식당 내 소비자 추천 메뉴⁹⁹⁾

- ‘한식’ 식당에서 수집된 주요 메뉴 중, 많이 추천된 한식 메뉴는 ‘삼겹살구이’ (1,882건)이며, 평균 가격은 ‘33.0위안’으로 파악됨.
- 그 외 추천 건수가 많은 한식당 메뉴는 평균 가격이 ‘20.3위안’인 ‘떡볶이’ (539건)과 평균 가격이 ‘16.8위안’인 ‘돌솥비빔밥(465건)’ 등으로 나타남.

[현지 한식당 내 소비자 추천 메뉴]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추천 건수
1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33.0	1,882
2	炒年糕	떡볶이	20.3	539
3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6.8	465
4	掌中宝	꼬치구이	-	284
5	烤肥牛	소고기구이	36.7	224
6	麻辣牛肉	마라우육	32.0	208
7	烤鸡翅	닭날개구이	-	174
8	洋葱牛小粒	양파육회	48.0	169
9	南瓜羹	호박죽	-	161
10	小鲜肉	생고기	68.0	157

98) 빅데이터 메뉴 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은 ‘빅데이터 분석 참고 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9) 과거부터 현재(16.04) 시점까지의 누적 추천건수가 활용되었으며, 최근 시점의 추천메뉴와 상이할 수 있음.

○ 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¹⁰⁰⁾

- 15년 리뷰에서 언급빈도가 높은 한식 메뉴들 중 대부분은 과거 시점 대비 언급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많은 ‘한식’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고기’의 언급 빈도 증감률은 ‘-17.5%’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파악됨.
- 반면 언급 빈도 증가율이 높은 메뉴는 ‘치킨’ (1.7%), ‘라면’ (0.9%), ‘볶음밥’ (0.8%) 등으로 파악됨.

[2015년 한식당 리뷰 내 언급빈도 상위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¹⁰¹⁾

순위	메뉴명 (한자)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395	843	9,513	37,963	
1	烤肉	불고기	27.8%	21.2%	11.5%	10.3%	-17.5%
2	炒年糕	떡볶이	16.5%	16.8%	7.5%	7.1%	-9.4%
3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14.9%	11.6%	6.2%	5.7%	-9.2%
4	拌饭	비빔밥	17.5%	15.1%	5.5%	4.3%	-13.1%
5	牛肉	쇠고기구이	9.4%	8.1%	5.5%	4.1%	-5.3%
6	饮料	음료	4.6%	2.4%	3.0%	2.8%	-1.8%
7	泡菜	김치	4.8%	6.0%	2.8%	2.2%	-2.6%
8	包饭	김밥	1.8%	1.5%	0.8%	2.0%	0.2%
9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0.4%	7.6%	3.2%	2.0%	-8.4%
10	套餐	세트메뉴	7.3%	4.6%	2.1%	1.9%	-5.4%

[한식당 리뷰 내 언급빈도 상승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¹⁰²⁾

순위	메뉴명 (한자)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395	843	9,513	37,963	
1	炸鸡	치킨	0.0%	0.0%	0.9%	1.7%	1.7%
2	拉面	라면	0.0%	2.1%	0.9%	0.9%	0.9%
3	炒饭	차오판(볶음밥)	0.5%	2.3%	1.5%	1.3%	0.8%
4	部队锅	부대찌개	0.3%	1.8%	1.0%	1.0%	0.8%
5	芝士年糕	치즈떡볶이	0.0%	0.7%	0.2%	0.7%	0.7%
6	小鲜肉	생고기	0.0%	0.0%	0.0%	0.6%	0.6%
7	海鲜	해산물	0.5%	1.1%	1.2%	1.1%	0.5%
8	紫菜	김	0.5%	0.7%	0.5%	1.0%	0.5%
9	排骨	갈비	0.3%	0.6%	0.5%	0.7%	0.5%
10	年糕火锅	즉석떡볶이	0.0%	0.1%	0.2%	0.4%	0.4%

100) 빅데이터 메뉴 분석 결과에 대한 상세 설명은 ‘빅데이터 분석 참고 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람.

101)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102)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 한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들이 리뷰를 많이 남기는 한식당 가격대는 평균 ‘64.1위안’ 으로 파악됨.
- 주로 ‘70~80위안’ 의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리뷰가 분포되고 있으며, 그 가격대의 식당에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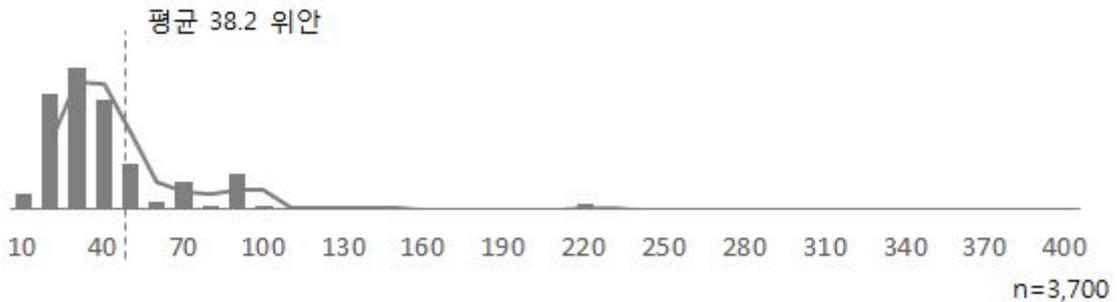
[전체 가격대별 리뷰 건수]



□ 한식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¹⁰³⁾

- 소비자들이 평가한 한식 메뉴의 평균 추천가격은 ‘38.2위안’ 으로 나타나며, 주로 ‘20~40위안’ 의 가격대에서 많은 추천 건수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전체 한식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103) 전체 메뉴 데이터 중 메뉴 가격 정보와 추천 건수가 동시에 있는 메뉴 데이터만 활용되었으며, 실제 추천 가격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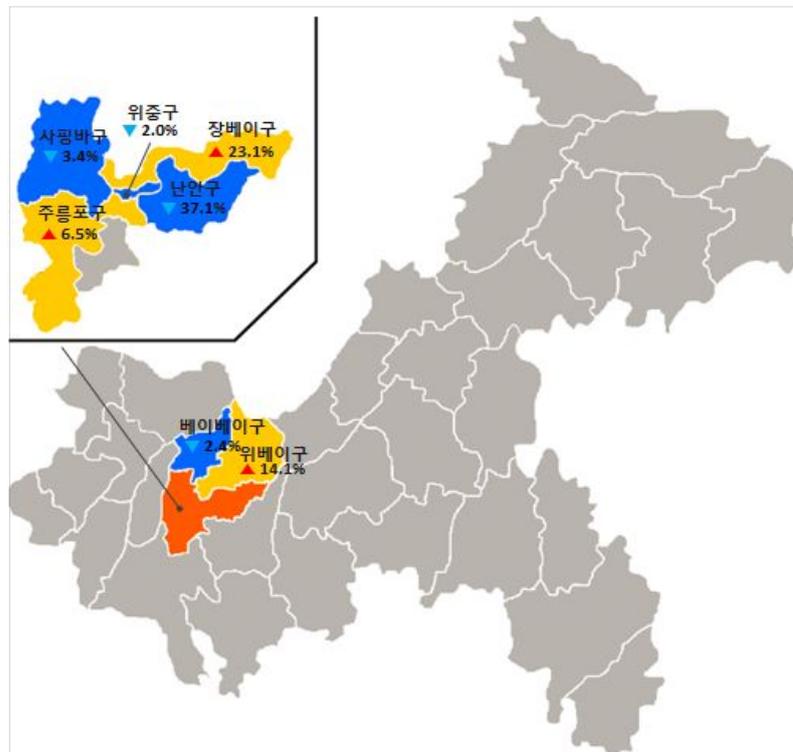
2) 업체별 한식당 방문 행태

가) 고가 식당

□ 상권별 리뷰 건수

- 충청의 ‘고가 식당’에 해당하는 한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은 상권(구)에 따라 추세가 변동하고 있음.
- 중심 구역의 ‘장베이구’에서 최근 4년간 리뷰 건수 비율이 23.1% 증가하였으며, ‘주릉포구’에서도 6.5% 증가하였음. 인접 상권인 ‘위베이구’에서도 최근 4년 간 한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이 14.1% 증가하였음.
- 반면 다른 구역은 리뷰 건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난안구’에서는 리뷰 건수 비율이 최근 4년간 37.1% 급감하였으며, 그 외 ‘샤핑바구’와 ‘베이베이구’에서도 각각 3.4%, 2.4%의 리뷰 건수 비율이 감소함.

[상권별 리뷰 건수 증감 현황 - 고가 식당]¹⁰⁴⁾



104) 최근 4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감 현황을 표시

[상권별 리뷰 건수 추세 - 고가 식당]¹⁰⁵⁾

상권(구)	전체 수	12.05~13.04	13.05~14.04	14.05~15.04	15.05~16.04	4개년 Gap
		316	828	11,715	31,244	
江北区 (장베이구)		6.3%	11.8%	20.6%	29.4%	23.1%
南岗区 (난안구)		57.6%	39.4%	33.9%	20.5%	-37.1%
渝北区 (위베이구)		1.9%	4.6%	13.5%	16.0%	14.1%
渝中区 (위중구)		17.7%	24.5%	11.9%	15.7%	-2.0%
九龙坡区 (주룽포구)		4.4%	12.6%	11.0%	10.9%	6.5%
沙坪坝区 (사핑바구)		9.2%	4.3%	7.0%	5.7%	-3.4%
万州区 (완저우구)		0.0%	0.6%	0.3%	0.7%	0.7%
北碚区 (베이베이구)		2.8%	1.0%	0.1%	0.5%	-2.4%
巴南区 (바난구)		0.0%	0.0%	1.1%	0.3%	0.3%
信義区 (위롄구)		0.0%	0.5%	0.3%	0.1%	0.1%
永川区 (영춘구)		0.0%	0.7%	0.2%	0.0%	0.0%
丰都县 (펑두현)		0.0%	0.0%	0.0%	0.0%	0.0%
巫阳县 (위양현)		0.0%	0.0%	0.0%	0.0%	0.0%
南川区 (난촨구)		0.0%	0.0%	0.0%	0.0%	0.0%
合川区 (허촨구)		0.0%	0.0%	0.0%	0.0%	0.0%
垫江县 (디장현)		0.0%	0.0%	0.0%	0.0%	0.0%
城口县 (청커우현)		0.0%	0.0%	0.0%	0.0%	0.0%
大渡口区 (다두커우구)		0.0%	0.0%	0.0%	0.0%	0.0%
大足区 (다주구)		0.0%	0.0%	0.0%	0.0%	0.0%
渠县 (칭제현)		0.0%	0.0%	0.0%	0.0%	0.0%
岳池县 (우산현)		0.0%	0.0%	0.0%	0.0%	0.0%
岳池县 (우시현)		0.0%	0.0%	0.0%	0.0%	0.0%
开县 (카이현)		0.0%	0.0%	0.0%	0.0%	0.0%
黔水苗族土家族自治县 (칭수이묘족투자족자치현)		0.0%	0.0%	0.0%	0.0%	0.0%
忠县 (중현)		0.0%	0.0%	0.0%	0.0%	0.0%
梁平县 (량평현)		0.0%	0.0%	0.0%	0.0%	0.0%
邻水县 (우릉현)		0.0%	0.0%	0.0%	0.0%	0.0%
江津区 (장진구)		0.0%	0.0%	0.0%	0.0%	0.0%
潼南区 (통난구)		0.0%	0.0%	0.0%	0.0%	0.0%
璧山区 (비산구)		0.0%	0.0%	0.0%	0.0%	0.0%
石柱土家族自治县 (소주투자족자치현)		0.0%	0.0%	0.0%	0.0%	0.0%
秀山土家族苗族自治县 (슈산 투자족 마오족자치현)		0.0%	0.0%	0.0%	0.0%	0.0%
黔江区 (치장구)		0.0%	0.0%	0.0%	0.0%	0.0%
兼阳县 (겸양구)		0.0%	0.0%	0.0%	0.0%	0.0%
酉阳土家族苗族自治县 (유양투자족자치현)		0.0%	0.0%	0.0%	0.0%	0.0%
铜梁区 (통량구)		0.0%	0.0%	0.0%	0.0%	0.0%
长寿区 (창서우)		0.0%	0.0%	0.0%	0.0%	0.0%
垫江县 (디장구)		0.0%	0.0%	0.0%	0.0%	0.0%
근교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105) 최근 4년 데이터 기준

□ 현지 한식당 내 주요 메뉴 현황

○ 현지 한식당 내 소비자 추천 메뉴¹⁰⁶⁾

- ‘고가 식당’ 업체의 주요 메뉴 중, 소비자들이 많이 추천한 한식 메뉴는 ‘삼겹살구이(1,716건)’이며, 그 메뉴의 평균 가격은 ‘34.3위안’으로 나타남.
- 그 외 많이 추천한 한식 메뉴는 평균 가격이 ‘53.2위안’인 ‘떡볶이(477건)’와 평균 가격이 ‘18.6위안’인 ‘돌솥비빔밥(414건)’ 등으로 파악됨.

[현지 한식당 내 소비자 추천 메뉴 - 고가 식당]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추천건수
1	烤五花肉	삼겹살구이	34.3	1,716
2	炒年糕	떡볶이	22.8	477
3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8.6	414
4	烤肥牛	소고기구이	36.7	211
5	麻辣牛肉	마라우육	32.0	206
6	洋葱牛小粒	양파 칩스스테킹	48.0	169
7	烤鸡翅	닭날개구이	-	166
8	南瓜羹	호박죽	-	161
9	小鲜肉	생고기	68.0	157
10	烤牛排	스테이크	-	150

106) 과거부터 현재(16.04) 시점까지의 누적 추천건수가 활용되었으며, 최근 시점의 추천메뉴와 상이할 수 있음.

○ 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15년 리뷰에서 언급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한식 메뉴들이 과거 시점 대비 언급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많은 한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고기’의 언급 빈도 증감률은 ‘-15.1%’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반면 언급 빈도 증가율이 높은 메뉴는 ‘후라이드치킨’ (0.9%), ‘갈비’ (0.9%), ‘생고기’ (0.9%) 등으로 파악됨.

[2015년 한식당 리뷰 내 언급빈도 상위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고가 식당]¹⁰⁷⁾

순위	메뉴명 (한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339	598	6,836	27,072	
1	烤肉	불고기	28.6%	27.1%	14.7%	13.5%	-15.1%
2	五花肉	삼겹살구이	15.6%	15.4%	8.4%	7.6%	-8.0%
3	年糕	떡볶이	15.6%	10.5%	6.2%	4.8%	-10.8%
4	牛肉	소고기구이	10.9%	9.0%	6.4%	4.7%	-6.2%
5	拌饭	비빔밥	16.8%	16.2%	6.0%	3.9%	-13.0%
6	饮料	음료수	3.8%	2.0%	3.2%	3.1%	-0.8%
7	套餐	세트메뉴	8.0%	4.8%	2.2%	2.1%	-5.9%
8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0.3%	8.4%	3.7%	1.9%	-8.4%
9	泡菜	김치	4.1%	5.4%	2.5%	1.9%	-2.3%
10	南瓜粥	호박죽	10.6%	4.5%	2.6%	1.6%	-9.0%

[한식당 리뷰 내 언급빈도 상승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고가 식당]¹⁰⁸⁾

순위	메뉴명 (한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339	598	6,836	27,072	
1	炸鸡	치킨	0.0%	0.0%	1.1%	0.9%	0.9%
2	排骨	갈비	0.0%	0.5%	0.6%	0.9%	0.9%
3	小鲜肉	생고기	0.0%	0.0%	0.0%	0.9%	0.9%
4	海鲜	해산물	0.3%	1.2%	1.5%	1.0%	0.8%
5	麻辣牛肉	마라우육	0.0%	0.2%	0.6%	0.6%	0.6%
6	芝士年糕	치즈떡볶이	0.0%	0.2%	0.1%	0.5%	0.5%
7	牛排	스테이크	0.3%	1.5%	1.1%	0.8%	0.5%
8	掌中宝	꼬치구이	0.0%	0.0%	0.2%	0.4%	0.4%
9	拉面	라면	0.0%	0.2%	0.2%	0.4%	0.4%
10	金针菇	팽이버섯(황귀룽)	0.0%	0.7%	0.5%	0.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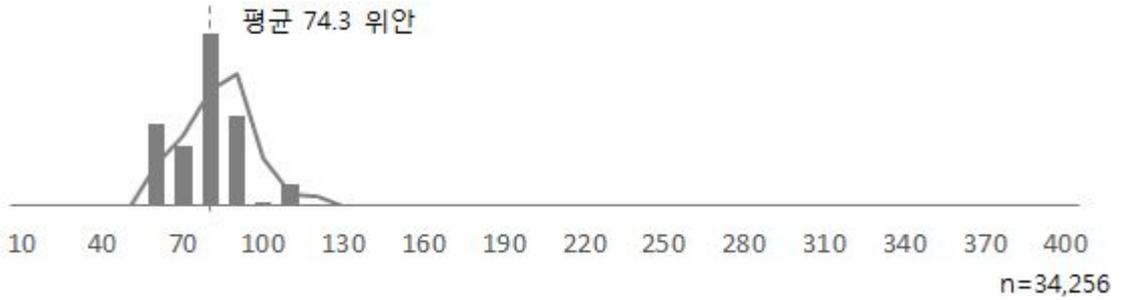
107)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108)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 한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들이 리뷰를 많이 남긴 ‘고가 식당’ 업체의 한식당 가격대는 평균 ‘74.3위안’으로 파악됨.
- 주로 ‘70~80위안’의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리뷰가 분포되고 있으며, 그 가격대의 식당에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됨.

[한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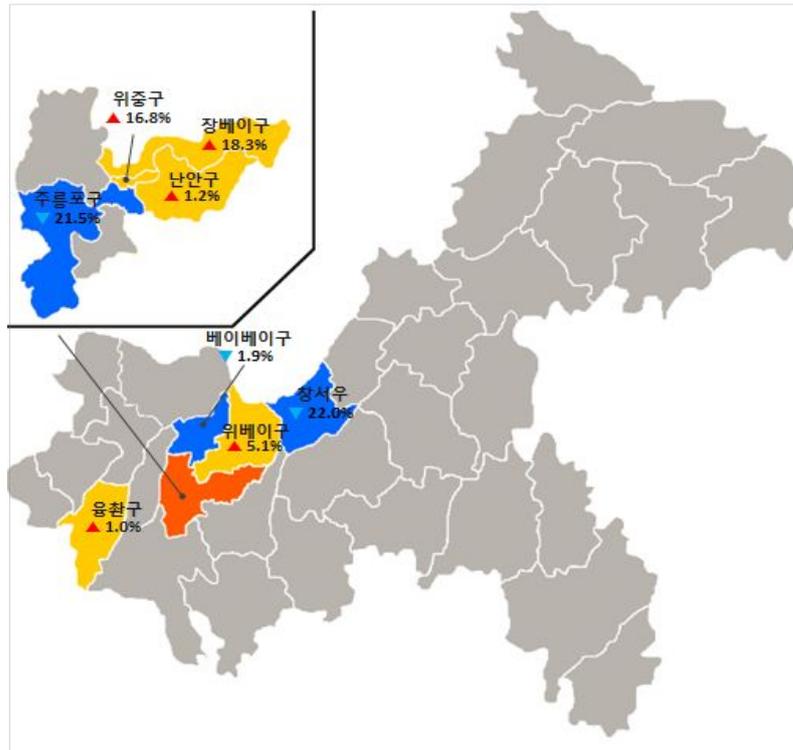


나) 중저가 식당

□ 상권별 리뷰 건수

- 충청의 ‘중저가 식당’ 중 한식당 리뷰 건수 비율은 중심 구역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중심 구역 내에서 ‘주룽포구’ (-21.5%)를 제외한 나머지 ‘장베이구’, ‘위중구’, ‘난안구’ 에서 최근 4년 간 각각 18.3%, 16.8%, 1.2% 리뷰 건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인접 상권인 ‘위베이구’ 와 ‘용환구’ 에서도 최근 4년 간 한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이 각각 5.1%, 1.0% 증가하였음.
- 반면 ‘창서구’ 와 ‘베이베이구’ 에서의 리뷰 건수 비율이 최근 4년간 각각 22.0%, 1.9%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상권별 리뷰 건수 증감 현황 - 중저가 식당]¹⁰⁹⁾



109) 최근 4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감 현황을 표시

[상권별 리뷰 건수 추세 - 증저가 식당]¹¹⁰⁾

상권(구)	전체 수	12.05~13.04	13.05~14.04	14.05~15.04	15.05~16.04	4개년 Gap
渝中区 (위중구)	89	13.5%	45%	10.6%	30.3%	16.8%
江北区 (장베이구)	425	6.7%	62.4%	44.8%	25.1%	18.3%
南岸区 (난안구)	5,112	12.4%	3.5%	13.7%	13.5%	1.2%
沙坪坝区 (사핑바구)	11,233	11.2%	11.5%	14.1%	11.3%	0.1%
渝北区 (위베이구)		2.2%	0.5%	11.1%	7.4%	5.1%
九龙坡区 (주룽포구)		27.0%	4.9%	0.6%	5.4%	-21.5%
北碚区 (베이베이구)		3.4%	3.5%	1.2%	1.5%	-1.9%
永川区 (용청구)		0.0%	0.9%	0.3%	1.0%	1.0%
大渡口区 (다두커우구)		0.0%	0.0%	0.6%	0.9%	0.9%
万州区 (완저우구)		0.0%	0.5%	0.7%	0.9%	0.9%
合川区 (허청구)		0.0%	0.0%	0.3%	0.6%	0.6%
大足区 (다주구)		0.0%	0.5%	0.1%	0.6%	0.6%
巴南区 (바난구)		1.1%	0.9%	0.5%	0.6%	-0.5%
长寿区 (장서우)		22.5%	5.4%	1.0%	0.4%	-22.0%
信义区 (루잉구)		0.0%	0.2%	0.1%	0.3%	0.3%
璧山区 (비산구)		0.0%	0.0%	0.1%	0.1%	0.1%
南川区 (난청구)		0.0%	0.0%	0.0%	0.1%	0.1%
潼南区 (통난구)		0.0%	0.0%	0.0%	0.0%	0.0%
开县 (카이현)		0.0%	0.2%	0.0%	0.0%	0.0%
城口县 (칭커우현)		0.0%	0.2%	0.0%	0.0%	0.0%
巫山县 (우산현)		0.0%	0.2%	0.0%	0.0%	0.0%
巫溪县 (우흥현)		0.0%	0.0%	0.0%	0.0%	0.0%
酉阳土家族苗族自治县 (유양투자족 자치현)		0.0%	0.0%	0.0%	0.0%	0.0%
丰都县 (펑두현)		0.0%	0.0%	0.0%	0.0%	0.0%
云阳县 (윈양현)		0.0%	0.0%	0.0%	0.0%	0.0%
垫江县 (딴장현)		0.0%	0.0%	0.0%	0.0%	0.0%
奉节县 (펑제현)		0.0%	0.0%	0.0%	0.0%	0.0%
巫溪县 (우시현)		0.0%	0.0%	0.0%	0.0%	0.0%
黔水苗族土家族苗族自治县 (펑수이마오족투자족자치현)		0.0%	0.0%	0.0%	0.0%	0.0%
忠县 (중현)		0.0%	0.0%	0.0%	0.0%	0.0%
梁平县 (량평현)		0.0%	0.0%	0.0%	0.0%	0.0%
江津区 (장진구)		0.0%	0.0%	0.0%	0.0%	0.0%
石柱土家族苗族自治县 (스주투자족 자치현)		0.0%	0.0%	0.0%	0.0%	0.0%
秀山土家族苗族自治县 (슈산 투자족 마오족 자치현)		0.0%	0.0%	0.1%	0.0%	0.0%
黔江区 (치장구)		0.0%	0.0%	0.0%	0.0%	0.0%
荣昌区 (룽창구)		0.0%	0.0%	0.0%	0.0%	0.0%
铜梁区 (통량구)		0.0%	0.0%	0.0%	0.0%	0.0%
邻水區 (린수구)		0.0%	0.0%	0.0%	0.0%	0.0%
合川區 (허청구)		0.0%	0.0%	0.0%	0.0%	0.0%
군고		0.0%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110) 최근 4년 데이터 기준

□ 현지 한식당 내 주요 메뉴 현황

○ 현지 한식당 내 소비자 추천 메뉴¹¹¹⁾

- ‘중저가 식당’ 업태의 주요 메뉴 중, 다수의 소비자가 추천한 한식 메뉴는 ‘삼겹살구이(166건)’이며, 평균 가격은 ‘25.3위안’으로 나타남.
- 그 외 많이 추천한 한식 메뉴는 ‘치즈부대찌개(72건)’와 ‘떡볶이(62건)’ 등으로 파악됨.

[현지 한식당 내 소비자 추천 메뉴 - 중저가 식당]

순위	메뉴명 (현지어)	메뉴명 (번역)	평균 가격 (위안)	추천건수
1	梅五花肉	삼겹살구이	25.3	166
2	芝士锅	치즈풍류	-	79
3	芝士锅+部队锅	치즈부대찌개	-	72
4	部队锅	부대찌개	74.0	69
5	炒年糕	떡볶이	15.3	62
6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5.3	51
7	芝士锅拼牛肉锅	치즈소불고기	86.0	51
8	孜然牛肉石锅饭	소고기돌솥밥	25.0	35
9	辣白菜炒年糕	김치떡볶이	12.0	32
10	牛肉锅	소고기샤브샤브	-	25

111) 과거부터 현재(16.04) 시점까지의 누적 추천건수가 활용되었으며, 최근 시점의 추천메뉴와 상이할 수 있음.

○ 한식당 리뷰 내 언급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15년 리뷰에서 언급빈도가 높은 한식 메뉴들 중 대부분은 과거 시점 대비 언급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많은 ‘중저가 식당’ 중 한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빔밥’ 과 ‘떡볶이’ 의 언급 빈도 증감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반면 언급 빈도 증가율이 높은 메뉴는 ‘차오빔(볶음밥)’ (3.9%), ‘김’ (3.5%), ‘부대찌개’ (2.2%) 등으로 파악됨.

[2015년 한식당 리뷰 내 언급빈도 상위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중저가 식당¹¹²⁾

순위	메뉴명 (한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56	245	2,677	10,376	
1	年糕	떡볶이	23.2%	33.5%	11.4%	12.9%	-10.4%
2	包饭	김밥	5.4%	4.5%	2.6%	6.9%	1.6%
3	拌饭	비빔밥	21.4%	12.2%	4.4%	5.6%	-15.8%
4	炒饭	차오빔(볶음밥)	0.0%	6.9%	4.2%	3.9%	3.9%
5	火锅	전골	7.1%	8.6%	3.9%	3.6%	-3.5%
6	紫菜	김	0.0%	2.0%	1.6%	3.5%	3.5%
7	牛肉	소고기구이	7.1%	7.3%	4.2%	3.1%	-4.0%
8	泡菜	김치	8.9%	7.8%	3.5%	3.0%	-6.0%
9	烤肉	불고기	23.2%	6.9%	3.5%	2.6%	-20.6%
10	石锅拌饭	돌솥비빔밥	10.7%	5.7%	1.9%	2.3%	-8.4%

[한식당 리뷰 내 언급빈도 상승 메뉴키워드 시계열 추이 - 중저가 식당¹¹³⁾

순위	메뉴명 (한지어)	메뉴명 (번역)	2012	2013	2014	2015	증감(%p)
총 리뷰 건수			56	245	2,677	10,376	
1	炒饭	차오빔(볶음밥)	0.0%	6.9%	4.2%	3.9%	3.9%
2	紫菜	김	0.0%	2.0%	1.6%	3.5%	3.5%
3	部队锅	부대찌개	0.0%	6.1%	2.2%	2.2%	2.2%
4	拉面	라면	0.0%	6.9%	2.8%	2.2%	2.2%
5	包饭	김밥	5.4%	4.5%	2.6%	6.9%	1.6%
6	炸鸡	치킨	0.0%	0.0%	0.2%	1.4%	1.4%
7	芝士年糕	치즈떡볶이	0.0%	2.0%	0.4%	1.0%	1.0%
8	年糕火锅	즉석떡볶이	0.0%	0.4%	0.6%	0.8%	0.8%
9	鸡排	치킨스테이크	0.0%	0.0%	0.0%	0.7%	0.7%
10	辛拉面	신라면	0.0%	1.6%	1.1%	0.7%	0.7%

112)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113) 지속적으로 신메뉴가 출시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언급 빈도량이 증가해도, 리뷰 건수 증감률(%p)은 (-)로 나타날 수 있음. 증감(%p)는 2015년 데이터에서 2012년 데이터를 뺀 값임.

□ 한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들이 리뷰를 많이 남기는 ‘중저가 식당’ 업체의 한식당 가격대는 평균 ‘36.7위안’ 으로 파악됨.
- 주로 ‘40~50위안’ 의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리뷰가 분포되고 있으며, 그 가격대의 식당에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됨.

[한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중저가 식당]



제6장

상권 외식 산업 분석

1. 분석 상권 선정 및 요약
2. 상권별 외식 산업 분석

VI. 상권 외식 산업 분석

1. 분석 상권 선정 및 요약

1.1 분석 상권 선정

□ 상권 유형별 대표 상권 리스트

[충청 상권 유형별 대표 상권 리스트]

분류	상권 리스트				
주택가	양지아핑 (杨家坪)	샤핑바 (沙坪)	관인치아오 (观音桥)	지에팡베이 (解放碑)	
관광지 상권	지에팡베이 (解放碑)	홍야동 (洪崖洞)	난빈루 (南滨路)	난핑 (南坪)	
소비 중심 상권	관인치아오 (观音桥)	베이창티엔제 (北城天街)	난핑 (南坪)	다룽청 (大融城)	시청티엔지에 (西城天街)
오피스 상권	지에팡베이 (解放碑)	싱푸광장 (幸福广场)	장베이주이 (江北嘴)	관인치아오 (观音桥)	
교통 중심지 상권	디티에촨청통 (地铁全城通)	관인치아오 (观音桥)			
교육 상권	샤핑바 (沙坪坝)	다쉐청 (大学城)			

□ 상권 선정

- 데스크리서치 및 지역 전문가 추천의 결과로 지에팡베이, 관인치아오, 샤핑바, 양지아핑, 난핑 등 5개의 상권을 최종 분석 대상 상권으로 선정함.

1.2 분석 상권 요약

□ 상권 개요

○ 지에팡베이(解放碑)

-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며, 서부 제 1상권임.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해방비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대규모 보행자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은행, 백화점, 고급식당, 카페 등이 둘러싸고 있음.

○ 관인치아오(观音桥)

- 북부에 위치한 상권으로 충청 내 2번째로 번영한 상권임. 고가 브랜드 중심의 쇼핑센터가 새로 건설되었으며, 중산층 이상의 유동인구가 많음.

○ 난핑(南坪)

- ‘컨벤션, 비즈니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및 쇼핑’에 집중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된 상권임. 유동인구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소비력은 높음.

○ 샹핑바(沙坪坝)

- 동부의 핵심 상권으로, 교통 유입량 및 인구밀도가 높음. 여러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 중심의 상권이며, 호텔 및 오피스 등 집객시설 건설 계획이 추진 중임.

○ 양지아핑(杨家坪)

- 거주 지역 주변 대형 상권으로 충청 내 가장 고급의 보행자 거리임. 주요 유동인구는 지역 거주민이지만, 모노레일이 건설되어 타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상권별 한식당 분포

- 평균적으로 북경 내 한식당 분포 비율은 2%내외 이며, ‘관인치아오’ 상권에 서의 비율이 각각 2.6%로 도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샹핑베이’, ‘관인치아오’ 상권에서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비율이 각각 3.4%, 2.8%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에팡베이’, ‘양지아핑’은 각각 1.7%, 1.4%로 도시 전체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됨.

[상권별 한식당 분포 비율]

구분	도시 전체	지에팡베이	관인치아오	샹핑베이	양지아핑	난핑
총 샘플 수	94,941	992	735	346	278	230
한식당	0.6%	1.2%	2.6%	1.2%	0.7%	0.9%
나머지 에스닉	99.4%	98.8%	97.4%	98.8%	99.3%	99.1%

[상권별 최근 1년간 최초 리뷰 등록 한식당 비율]

구분	도시 전체	지에팡베이	관인치아오	샤핑베이	양지아핑	난핑
총 샘플 수	15,103	293	180	58	69	61
한식당	1.2%	1.7%	2.8%	3.4%	1.4%	0.0%
나머지 에스닉	98.8%	98.3%	97.2%	96.6%	98.6%	100.0%

□ 상권별 업태 구성

- ‘난핑’, ‘관인치아오’ 상권은 도시 전체 대비 ‘중저가 식당’ 업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지에팡베이’와 ‘양지아핑’에서는 도시 전체 대비 ‘패스트푸드’ 업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식당은 모든 상권에서 ‘중저가 식당’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상권별 업태 구성]

구분	업태	도시 전체	지에팡베이	관인치아오	샤핑베이	양지아핑	난핑
외식당	총 샘플 수	94,941	992	735	346	278	230
	고가 식당	4.9%	9.7%	13.3%	13.0%	5.4%	7.4%
	중저가 식당	49.9%	31.8%	32.1%	24.6%	28.8%	45.7%
	패스트푸드	26.5%	35.2%	21.0%	33.5%	35.3%	27.4%
	카페/바	16.3%	20.7%	29.5%	27.5%	28.4%	16.5%
	구분 어려움	2.4%	2.7%	4.1%	1.4%	2.2%	3.0%
한식당	총 샘플 수	604	12	19	4	2	2
	고가 식당	4.9%	8.3%	42.1%	0.0%	50.0%	50.0%
	중저가 식당	49.9%	83.3%	52.6%	75.0%	50.0%	50.0%
	패스트푸드	26.5%	8.3%	5.3%	25.0%	0.0%	0.0%
	카페/바	16.3%	0.0%	0.0%	0.0%	0.0%	0.0%
	구분 어려움	2.4%	0.0%	0.0%	0.0%	0.0%	0.0%

□ 상권별 리뷰 건수 비율

- 모든상권에서 ‘고가 식당’의 리뷰 건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15년 상권별 리뷰 건수 비율]

구분	도시 전체	지에팡베이	관인치아오	샤핑베이	양지아핑	난핑
총 리뷰 건수	785,011	35,277	24,259	13,145	4,120	6,220
고가 식당	49.4%	41.9%	60.4%	51.6%	39.3%	68.3%
중저가 식당	21.0%	21.1%	15.0%	30.8%	26.0%	17.0%
패스트푸드	13.9%	20.7%	10.7%	12.8%	19.4%	9.6%
카페/바	13.9%	15.7%	13.8%	4.8%	14.6%	4.7%

□ 상권별 식당 가격대

- 전체 상권 가격대는 ‘관인치아오’ 상권이 타 상권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난핑’ 상권의 가격대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상권별 평균 가격대]¹¹⁴⁾

(단위: 위안)

구분	업태	도시 전체	지에팡베이	관인치아오	샤핑베이	양지아핑	난핑
외식당	전체 가격대	50.2	40.3	52.4	40.0	35.9	43.2
	고가 식당	82.8	75.7	80.3	62.5	66.5	77.3
	중저가 식당	38.2	33.9	35.0	39.6	41.4	33.0
	패스트푸드	33.8	15.3	23.0	20.2	13.4	12.0
	카페/바	19.6	30.8	40.6	20.5	22.5	28.6
외식당 메뉴	고가 식당	48.5	37.0	43.0	55.1	39.5	53.3
	중저가 식당	34.8	25.0	44.4	25.5	39.0	20.0
	패스트푸드	16.9	14.3	22.6	15.7	10.7	8.8
	카페/바	38.9	37.2	30.1	18.1	18.0	79.8

114) 상권별로 식당/메뉴 가격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업태는 ‘-’으로 표기하였으며, 해석에 유의.

2. 상권별 외식 산업 분석

2.1 지에팡베이(解放碑) 외식 산업 분석

1) 상권 개요



교통	지하철역	린장먼(临江门)역, 샤오셴즈(小什字)역
	버스 정거장	우이루(五一一路)역, 귀타이이슈중신(国泰艺术中心)역 등
주요 집객시설	해방비, 따도후이광창(大都会广场), 르위에광중신(日月光中心)	
주요 거리명	칭니안루(青年路), 중화루(中华路), 따통루(大同路)	

□ 상권 구성

- 지에팡베이는 한국어로 ‘해방비’ 라는 뜻으로,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음. 이 해방비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대규모 보행자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은행, 백화점, 고급식당, 카페 등이 둘러싸고 있음.
- 충칭의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고 서부 제 1상권임.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상권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고급 빌딩과 상가가 많은 편임. 세계 500대 기업 중 78개 기업과 8개의 대사관이 밀집 되어 있어 매일 회사원과 통근 차량으로 붐빔.

□ 유동인구 구성

- 평일 유동인구는 약 33만 명이며 주말 유동인구는 약 50만 명임. 국가 공휴일의 유동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확인되며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권임.

□ 식당 운영 현황

- 대부분의 식당들은 길거리보다 쇼핑몰 푸드코트에 위치함. 특히 사천요리와 휘귀 전문점의 수가 많으며 기타 상권보다 에스닉 식당 수가 적은 편으로 한식당 수도 적은 편임.
- 주요 한식당의 경우도 대체로 쇼핑센터 푸드코트에 위치하며 신당동떡볶이, 덕본가(德本家, 부대찌개 전문점), 대림동 치킨(치킨 전문점), PANKOO 부산요리(고기구이 전문점) 등이 있음.

2) 상권 외식산업 분석

가) 상권 외식당 현황

□ 외식당 분포 현황

○ 외식당 분포

- 지에팡베이 상권의 외식당은 해방비 주변과 인근 대도회 광장, 충칭타임스퀘어 백화점주변에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 일부 외식당은 주로 린장먼(臨江門) 지하철 역 주변과 영리쇼핑센터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지에팡베이 상권 외식당 분포 지도]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분포

- 지에팡베이 상권에서 최근 1년간 창업한 식당은 주로 해방비 주변으로 입점하는 경향이 있음. 그 외에도 일부 외식당은 ‘영리쇼핑센터’에 입점하거나 일부 주요 거리에 창업하는 형태임.

[지에팡베이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분포 지도]¹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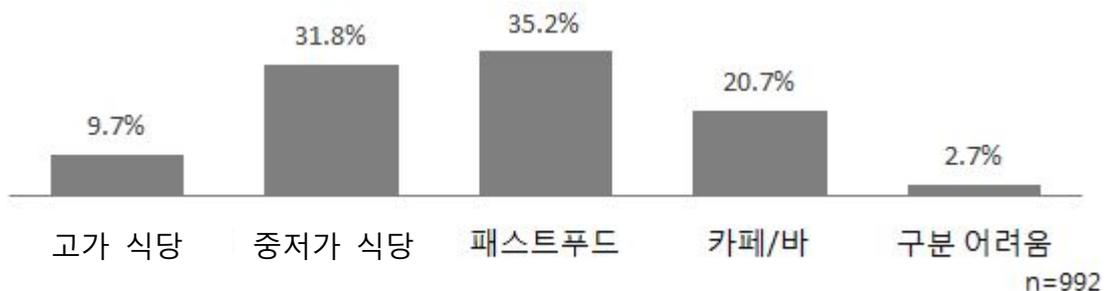


□ 업태별 외식당 현황

○ 외식당 업태 구성

- 지에팡베이 상권에는 992개의 외식당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패스트푸드’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업태별로 ‘중저가 식당’과 ‘카페/바’가 각각 31.8%, 20.7%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

[지에팡베이 상권 업태별 외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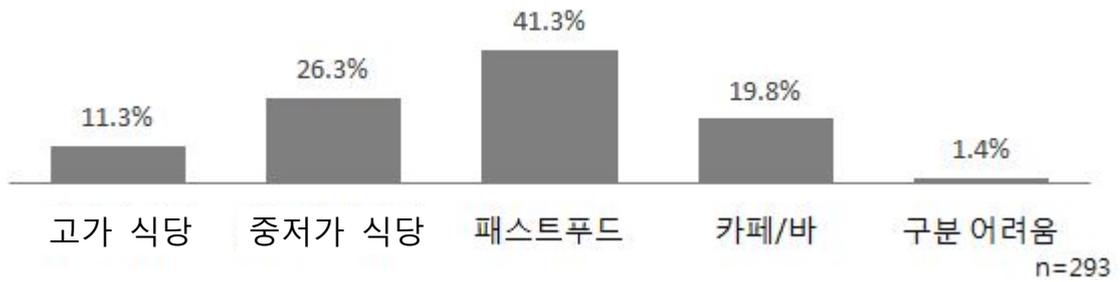


115)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 중 최근 1년('15. 4.~'16. 4.) 내에 리뷰가 최초로 등록된 식당만 별도 분석, 최초리뷰 등록 시점과 창업시점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구성

- 2015년에 창업한 외식당은 업태별로 ‘패스트푸드’가 4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중저가 식당’ 26.3%, ‘패스트푸드’ 19.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가 식당’을 창업하는 비율은 11.3%로 타 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지에팡베이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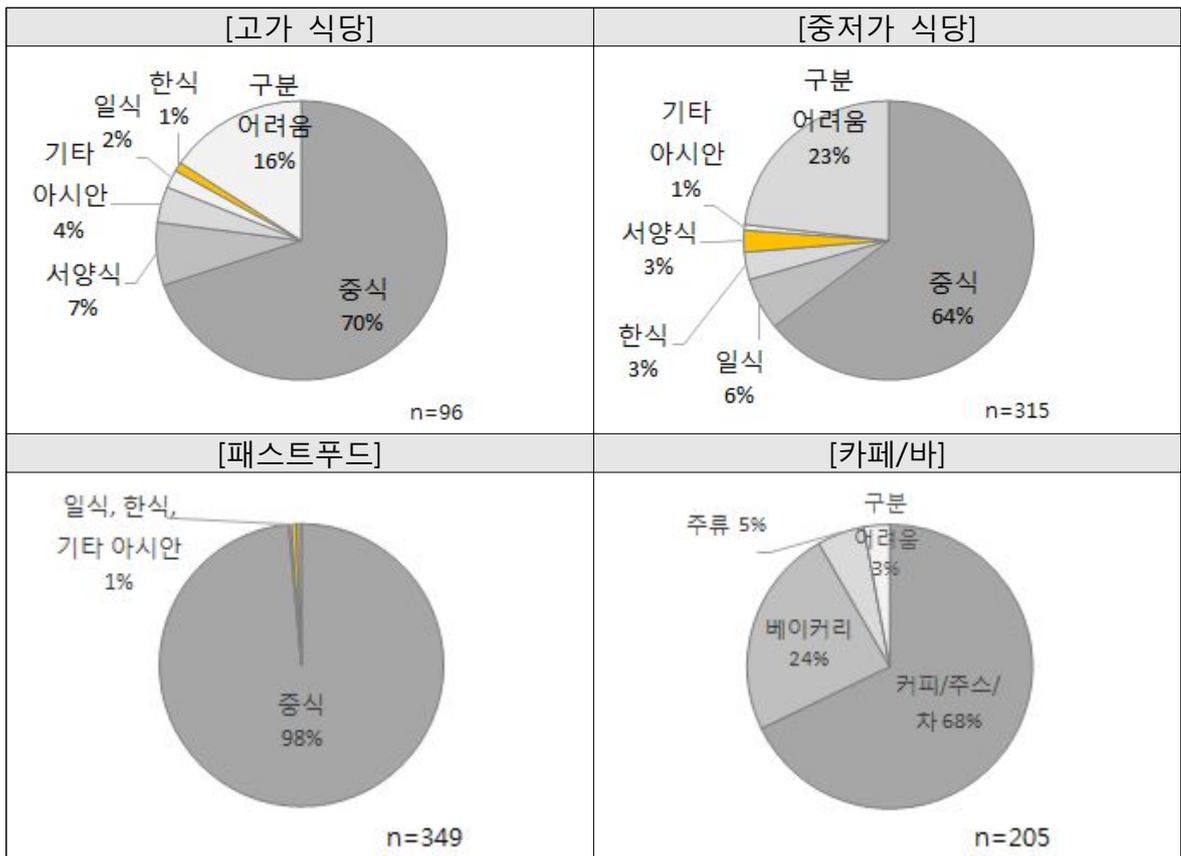


□ 업체 내 에스닉별 외식당 현황

○ 외식당 에스닉 구성

- 업체별로 ‘고가 식당’은 ‘중식’ 식당이 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식’ 식당은 1% 수준으로 타 에스닉에 비해 낮은 비율임.
- 식당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은 ‘중식’ 식당이 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식’ 식당은 3% 수준임.
-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중식’ 식당으로 98%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서양식’ 식당이 1%, 그 외 ‘아시안’ 식당이 극히 일부인 1%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타 업체에 비해 ‘중식’ 식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카페/바’의 경우, ‘커피/주스/차’가 주 메뉴인 식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이커리’가 2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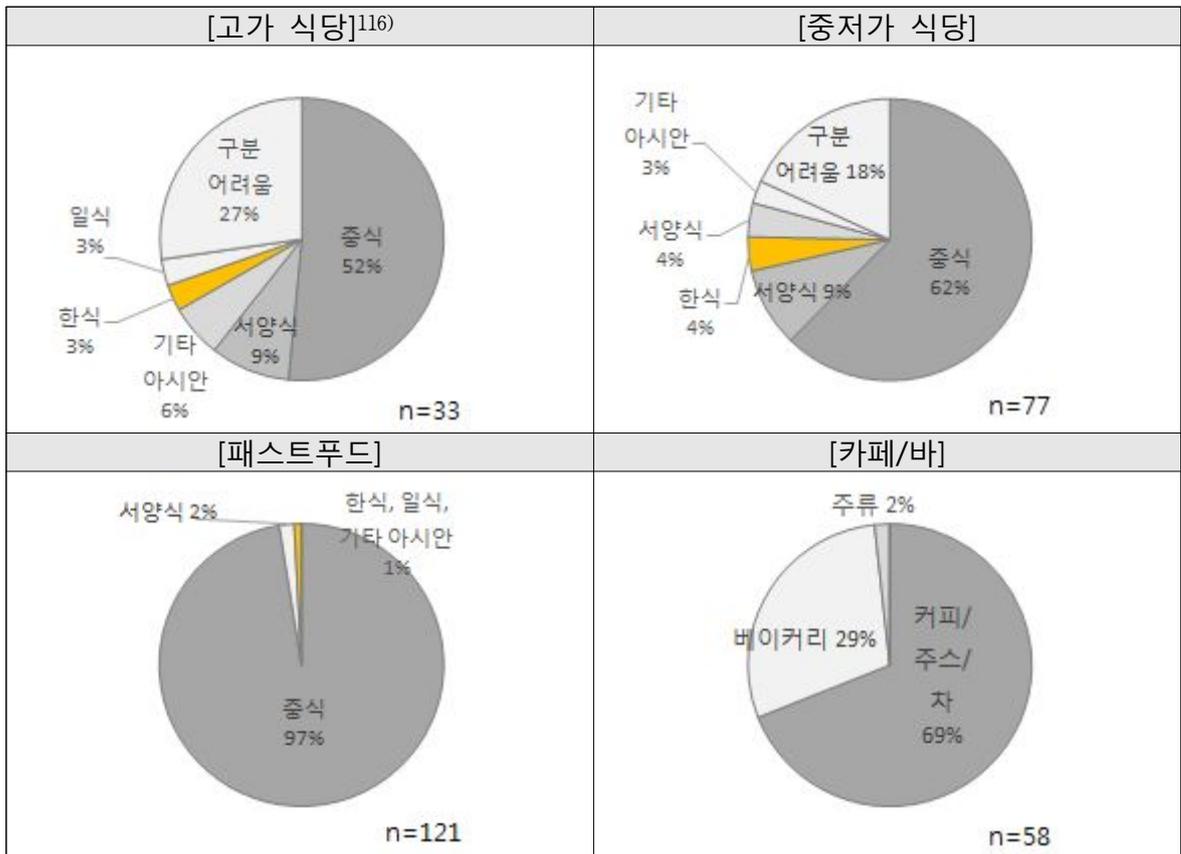
[지에팡베이 상권 업체별 외식당 에스닉 구성]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에스닉 구성

- 업태별로 ‘고가 식당’ 을 창업하는 비율은 ‘중식’ 식당이 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식’ 식당은 3% 수준으로 타 에스닉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음.
- 식당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 은 ‘중식’ 식당이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식’ 식당은 4% 수준임.
- ‘패스트푸드’ 는 대부분이 ‘중식’ 식당인 경향이 있음. 그 외 에스닉 식당 중에서는 ‘서양식’ 식당이 2%, 그 외 ‘아시안’ 식당이 1%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타 업태에 비해 ‘중식’ 식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카페/바’ 의 창업 비율은 ‘커피/주스/차’ 가 주 메뉴인 식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이커리’ 가 2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지에팡베이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에스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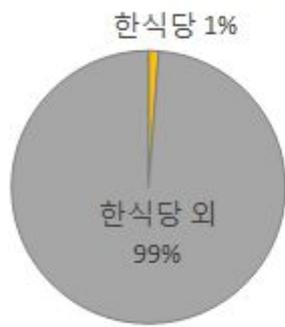
116) 샘플 수가 작으므로 해석에 유의

□ 한식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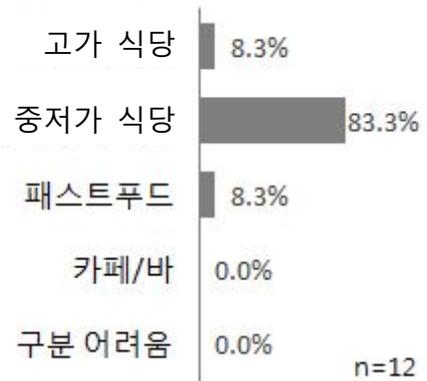
○ 한식당 비율 및 업태 구성

- 지에팡베이 상권에서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함.
- 한식당은 업태별로 ‘중저가 식당’이 83.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는 ‘고가 식당’과 ‘패스트푸드’가 각각 8.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전체 외식당 대비 한식당 비율]



[업태별 한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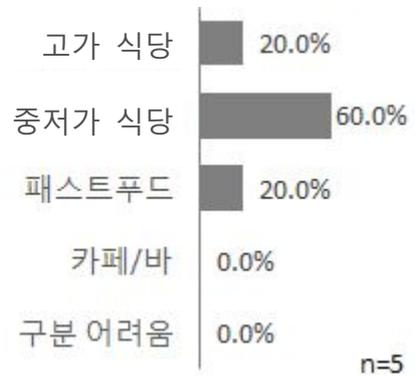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 지에팡베이 상권에 창업한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2%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함.
- 창업한 한식당은 업태별로 ‘중저가 식당’이 6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는 ‘고가 식당’과 ‘패스트푸드’가 각각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 등록 한식당 비율]



[최근 1년간 최초 리뷰 등록 한식당 업태 비율]



나) 상권 외식당 가격대 분포

□ 외식당 가격대 분포

- 지에팡베이 상권에 외식당의 가격대는 평균 ‘40.3위안’ 으로 파악됨.
- ‘20위안 미만’ 의 가격대인 외식당의 분포가 타 가격대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 가격대의 외식당은 ‘카페/바’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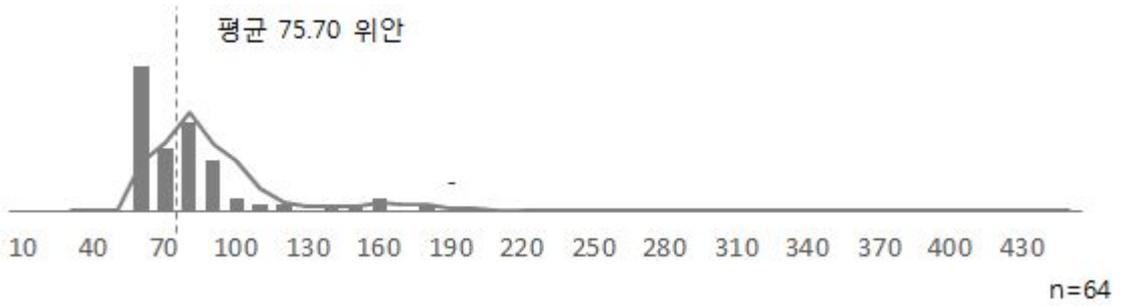
[지에팡베이 상권 가격대별 외식당 분포]



□ 업태별 외식당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의 평균 가격대는 ‘75.7위안’ 으로 확인되며, 가격대의 분포는 주로 ‘40~10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중저가 식당’ 의 평균 가격대는 ‘33.9위안’ 이며, 가격대의 분포가 ‘40~50위안’ 의 가격대에서 높게 나타남.
- ‘패스트푸드’ 의 평균 가격대는 ‘15.3위안’ 이며, 그 분포가 ‘20~40위안’ 의 가격대에 집중하여 분포되고 있음.
- ‘카페/바’ 의 평균 가격대는 ‘30.8위안’ 으로 확인되며, 대부분의 가격은 ‘10~2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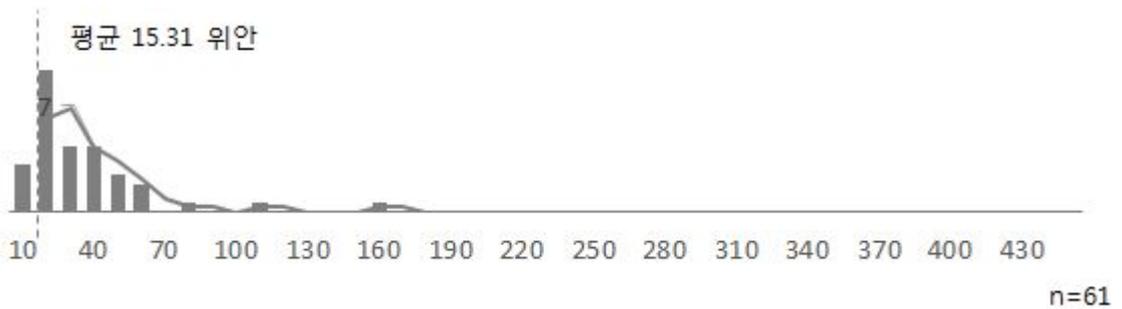
[지에팡베이 상권 가격별 고가 식당 외식당 분포]¹¹⁷⁾



[지에팡베이 상권 가격별 중저가 식당 외식당 분포]



[지에팡베이 상권 가격별 패스트푸드 외식당 분포]



[지에팡베이 상권 가격별 카페/바 외식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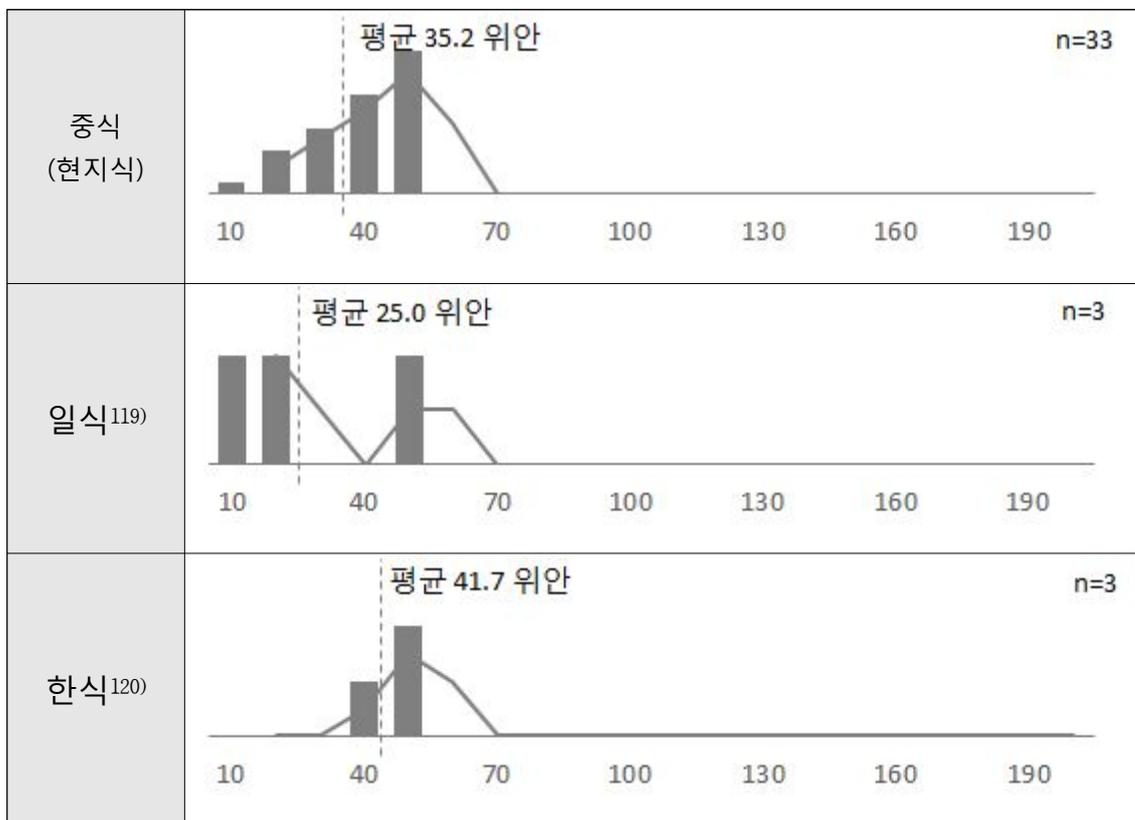


117)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 업체 내 에스닉별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118)

- ‘중저가 식당’ 은 ‘일식’ 이나 ‘중식’ 식당보다 ‘한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가 ‘41.7위안’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식’ , ‘중식’ , ‘한식’ 모두 ‘40~50위안’ 가격대에 외식당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식’ 식당은 평균 가격대 ‘35.2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그 식당은 ‘20~5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음.
- ‘일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25.0위안’ 으로 타 에스닉 식당에 비해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지에팡베이 상권 가격대 분포 및 평균 - 중저가 식당]



118) 타 업체의 샘플 데이터 수가 충분치 않으므로 중저가 식당을 대표로 사용함.

119)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120)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다) 상권 메뉴 가격대 현황

□ 메뉴 가격대 분포

- 외식당 주요메뉴의 평균 가격은 ‘71.9위안’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메뉴의 대부분이 ‘10~3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되고 있음.
- ‘중저가 식당’ 의 메뉴는 ‘10~5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메뉴는 ‘20~3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고 있음.
- ‘패스트푸드’ 와 ‘카페/바’ 의 메뉴는 대부분 20위안 미만’ 에 분포되어 있으며, ‘고가 식당’ 의 메뉴는 전체 가격대에 고르게 분포되고 있음.
- 한식당 메뉴의 경우, 평균 메뉴 가격은 46.5위안’ 이며, ‘10~10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되고 있음.

[지에팡베이 상권 전 메뉴 가격대 분포]



[지에팡베이 상권 한식 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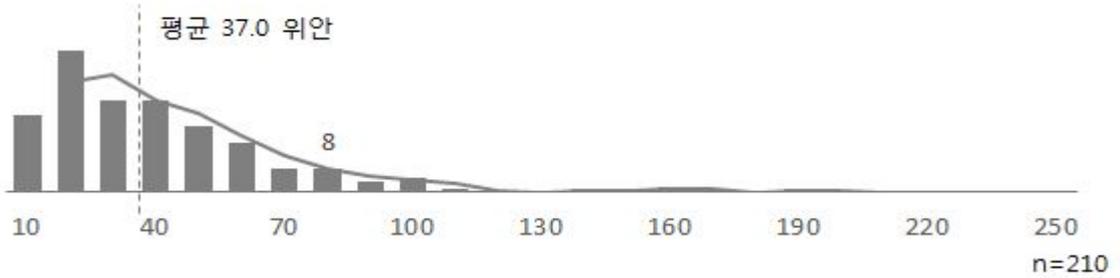


□ 업태별 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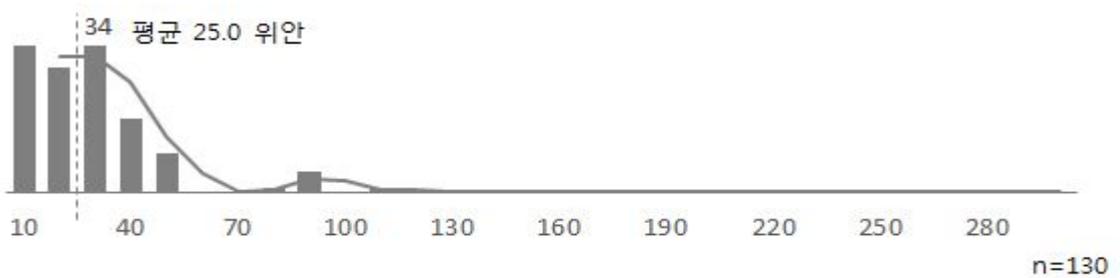
- ‘고가 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37.0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10~100위안’ 의 넓은 가격대에 분포되고 있음.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25.0위안’ 이며, 주로 ‘10~3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메뉴가 분포하고 있음.

- ‘패스트푸드’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14.3위안’ 으로 타 업태보다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함. 주로 ‘10~20위안’ 의 가격대에 많은 메뉴가 분포하고 있음.
- ‘카페/바’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37.2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10~40위안’ 의 가격대에 많은 메뉴가 분포하고 있음.

[지에팡베이 상권 고가 식당 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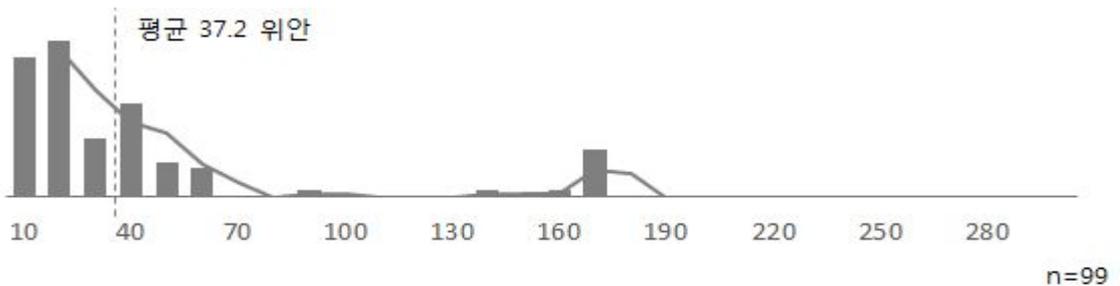
[지에팡베이 상권 중저가 식당 메뉴 가격대 분포]



[지에팡베이 상권 패스트푸드 메뉴 가격대 분포]



[지에팡베이 상권 카페/바 메뉴 가격대 분포]



3) 상권 외식 소비자 분석

가)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7P 요소인 ‘음식’ 중에서 ‘맛(0.46회/건)’ 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향(0.10회/건)’, ‘양(0.09회/건)’, ‘식감(0.08회/건)’ 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에서는 ‘분위기’ 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 요소(0.14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며, 내부(0.10회/건) 및 외부 환경 요소(0.04회/건)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는 경향이 있음.
- 그 외 요소 중 ‘가격’ (0.19회/건)과 위치 요소 중 ‘접근성’ (0.07회/건)와 ‘입지’ (0.01회/건)이 타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음.

[지에팡베이 상권 7P 세부 요소별 언급 빈도]

(단위: 언급 빈도/리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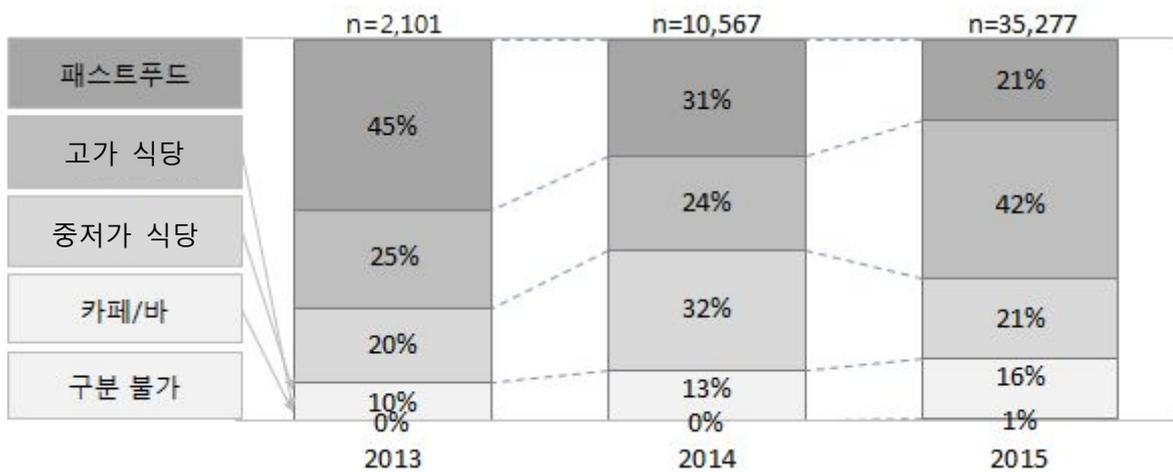
7P 요소	순위	7P 하위 요소	리뷰당 언급 빈도
음식	1	맛	0.46
	2	향	0.10
	3	양	0.09
	4	식감	0.08
가격	1	가격	0.19
위치	1	접근성	0.07
	2	입지	0.01
	3	교통편의성	0.01
프로모션	1	공동구매	1.04
	2	시식	0.02
	3	상품권/쿠폰	0.01
	4	무료	0.01
물리적 환경	1	내부 디자인 요소	0.14
	2	내부 환경적 요소	0.10
	3	외부 환경적 요소	0.04
서비스	1	대기	0.04
	2	주문	0.02
	3	결제	0.01
	4	예약	0.01
종업원	1	종업원 태도	0.07
	2	사장님	0.01
	3	요리사	0.01
	4	복장/용모	0.01

나) 외식당 방문 형태

□ 업체별 리뷰 건수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의 방문 비율은 2013년에 25%에서 2015년 42%로 타 업체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임.
- ‘중저가 식당’을 제외한 타 업체는 방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그 중 ‘패스트푸드’의 방문 비율이 2013년 45%에서 2015년 21%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지에팡베이 상권 업체별 외식당 리뷰 비율(13~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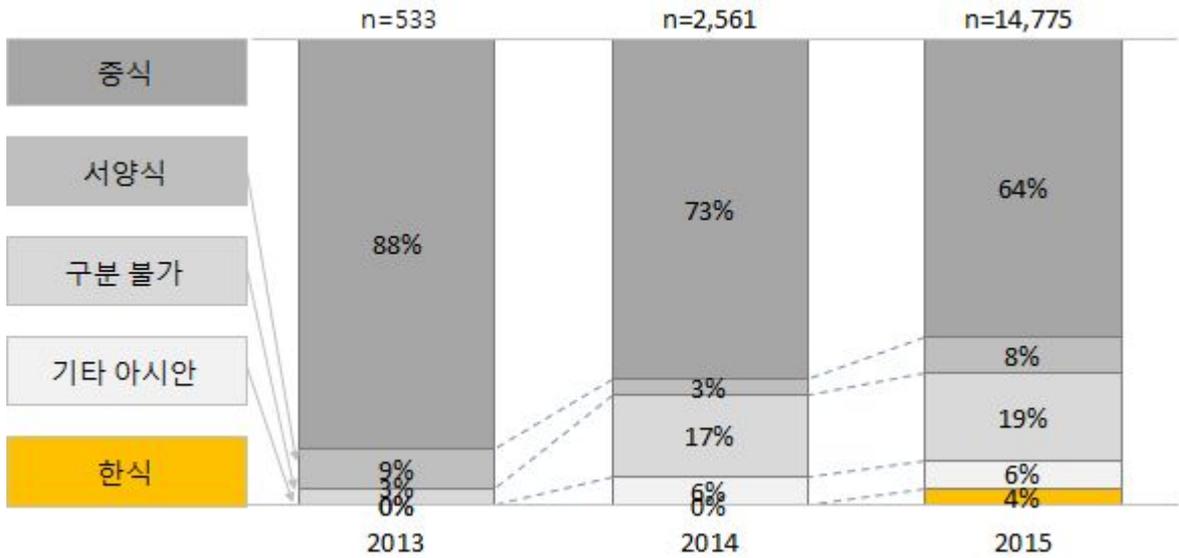


□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 에스닉별로 ‘중식’ 식당의 방문 비율이 2013년 88%에서 2015년 64%로 타 에스닉보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서양식’ 식당도 방문 비율이 2013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이며, 반면에 ‘한식’ 식당은 2013년 0%에서 2015년 4%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 ‘고가 식당’에서 에스닉별로 구분할 수 없는 식당이 2013년 3%에서 2015년 19%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구분 불가’ 식당은 퓨전 식당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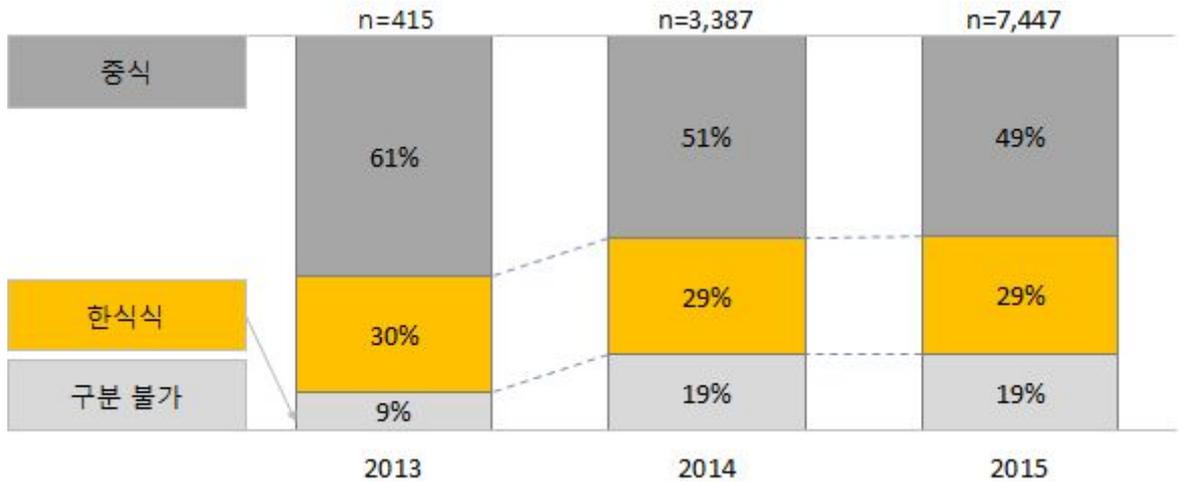
[지에팡베이 상권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 중저가 식당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식’ 식당의 방문 비율은 2013년 61%에서 2015년 49%로 감소하였음. ‘한식’ 식당은 30%에서 29%로 변화가 없음.
- ‘고가 식당’ 과 비슷하게 퓨전 식당으로 추정되는 ‘구분 불가’ 식당의 방문 비율이 2013년에 9%에서 2015년에 19%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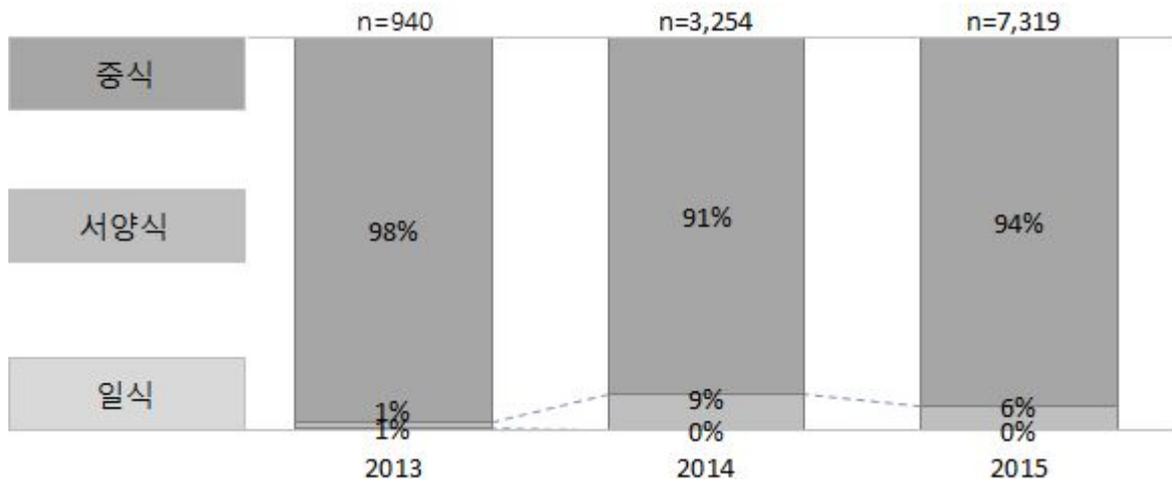
[지에팡베이 상권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중저가 식당]



○ 패스트푸드

- 에스닉별로 가장 높은 방문 비율을 차지하는 ‘중식’ 식당은 2013년에 98% 방문 비율에서 2015년 9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방문율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에 그 외 ‘서양식’ 식당은 201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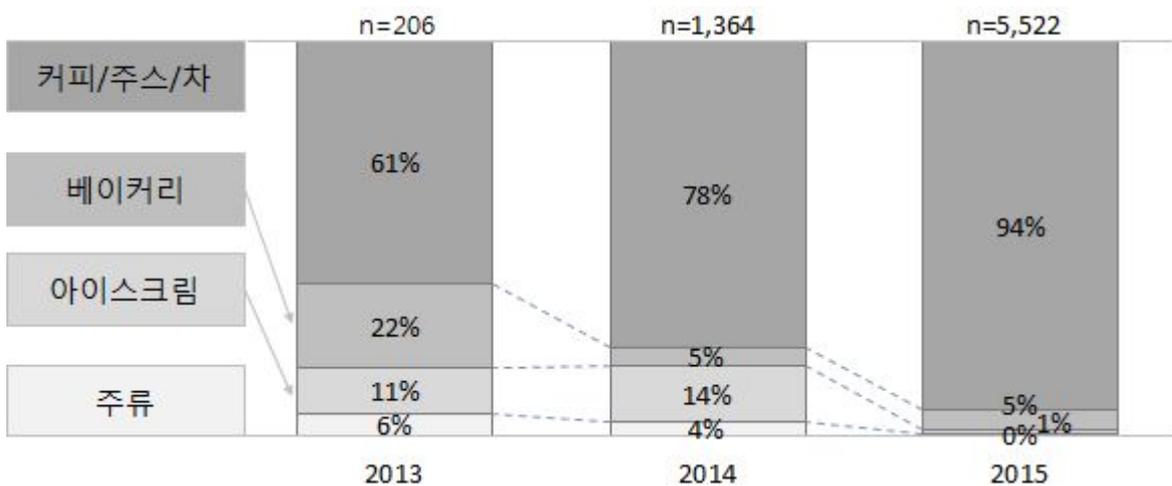
[지에팡베이 상권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패스트푸드]¹²¹⁾



○ 카페/바

- ‘커피/주스/차’가 주 메뉴인 식당이 2013년 61%에서 2015년 94%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외의 업종은 모두 감소 추세에 있음.
- 특히 ‘베이커리’ 식당의 방문 비율은 2013년 22%에서 2015년 5%로 가장 높은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지에팡베이 상권 업태 내 업종별 리뷰 건수 - 카페/바]¹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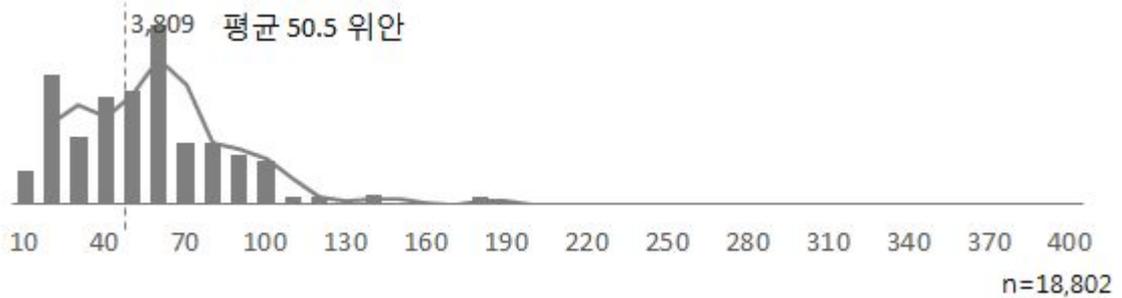
121)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122)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다)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지에팡베이 상권의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식당 가격대는 주로 ‘50~90위안’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이 ‘50.5위안’인 것으로 나타남.

[지에팡베이 상권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라)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메뉴별 추천 건수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추천 메뉴는 ‘매운 민물 생선요리’로 추천 건수가 ‘17,727’ 건이며, 다음으로 선호하는 추천 메뉴는 ‘매운 선지 내장요리’로 ‘12,842’ 건으로 나타남.

[지에팡베이 상권 메뉴별 추천 건수]

□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의 가격대는 주로 ‘10~60위안’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이 ‘19.9위안’인 것으로 나타남.

[지에팡베이 상권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3.1 관인치아오(观音桥)

1) 상권 개요



교통	지하철역	관인차오역
	버스 정거장	관인차오역, 관인차오역상업창랑(观音桥车站商业长廊)역 등
주요 집객시설	웨이라이귀지(未来国际), 마오예백화점(茂业百货) 등	
주요 거리명	관인차오 보행자거리, 지엔신난루(建新南路), 샤오웬루(小苑路)	

□ 상권 구성

- 충칭 북부에 위치한 유일한 상권으로, 충칭 내 두 번째로 번영한 상권임. 관인치아오 상권에 접근하는 주요 교통 시설이 개선되어 접근성이 높아짐.
- 고급 소비 상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오예 백화점’, ‘시에신성광 68(协信星光 68)’ 등 여러 쇼핑센터가 건설되어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등의고가 브랜드 상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유동인구 구성

- 상권 주변의 거주인구가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 파악되며, 고급 소비를 위한 유동인구가 많은 편임. 평일 유동인구는 약 30만 명이며 주말 유동인구는 약 50만 명임. 국가 공휴일의 유동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확인됨.

□ 식당 운영 현황

- 기타 상권에 비하여 해당 상권 내에 식당 및 카페가 많음. 한식당은 상권 내 쇼핑몰 푸드코트에 위치하며 매운 맛을 좋아하는 충청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떡볶이, 라볶이, 부대찌개, 닭갈비 및 비빔밥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 많음.
- 주요 한식당 중 치킨 전문점은 ‘프라이팬 치킨’ 과 ‘BBQ 치킨’ 이 있으며 ‘한라산(고기구이 전문점)’ 등의 프랜차이즈 식당과 ‘맛있다 한국떡볶이(떡볶이 전문점)’ 등의 개인 식당이 존재함.

2) 상권 외식산업 분석

가) 상권 외식당 현황

□ 외식당 분포 현황

○ 외식당 분포

- 관인치아오 상권의 외식당은 대부분 보행자거리와 인근의 이믹스 파크, 룡후베이청티엔지에 등 백화점/몰 시설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골목마다 적은 수의 외식당이 분포되어 있음.

[관인치아오 상권 외식당 분포 지도]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분포

- 관인치아오 상권에서 최근 1년간 창업한 식당은 ‘보행자거리’와 ‘룽후베이청티엔지에 백화점’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경향이 있음. 그 외의 지역은 골목마다 일부 외식당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남.

[관인치아오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분포 지도]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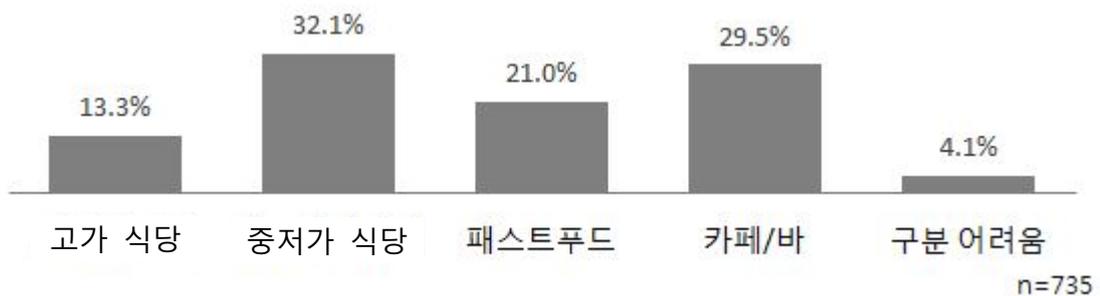


□ 업태별 외식당 현황

○ 외식당 업태 구성

- 관인치아오 상권에는 735개의 외식당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중저가 식당’의 비율이 3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업태별로 ‘패스트푸드’가 21.0%, ‘카페/바’가 29.5%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

[관인치아오 상권 업태별 외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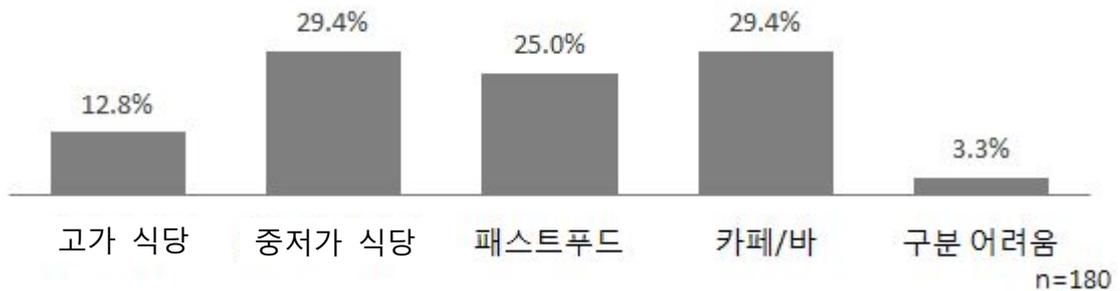


123)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 중 최근 1년('15. 4.~'16. 4.) 내에 리뷰가 최초로 등록된 식당만 별도 분석, 최초리뷰 등록 시점과 창업시점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구성

- 2015년에 창업한 외식당은 업태별로 ‘중저가 식당’ 과 ‘카페/바’ 가 각각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패스트푸드’ 의 창업 비율이 25.0%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
- ‘고가 식당’ 을 창업하는 비율은 12.8%로 타 상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관인치아오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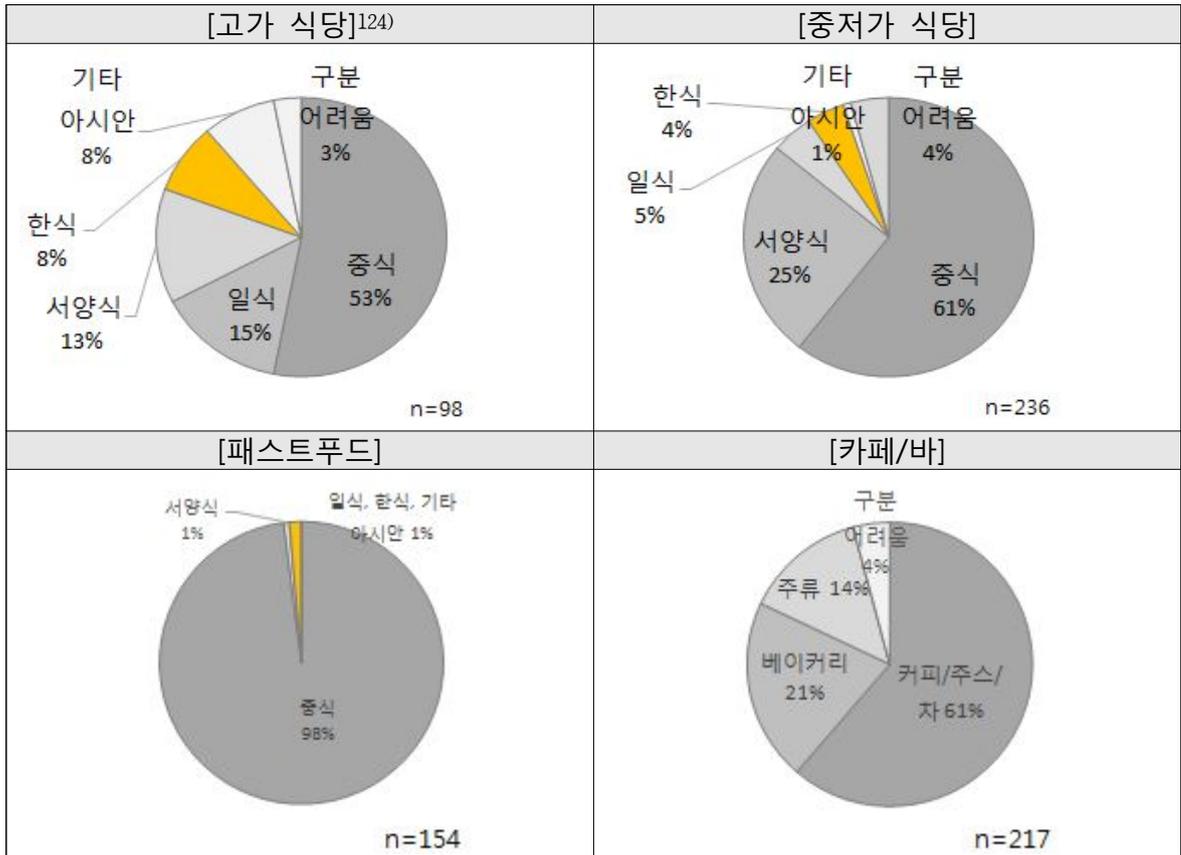


□ 업태 내 에스닉별 외식당 현황

○ 외식당 에스닉 구성

- 업태별로 ‘고가 식당’ 은 ‘중식’ 식당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식’ 식당이 15% 비율로 다음으로 외식당 수가 높음.
- 식당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 도 마찬가지로 ‘중식’ 식당의 비율이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양식’ 식당이 25%, ‘일식’ 식당이 5%, ‘한식’ 식당이 4% 수준임.
- ‘패스트푸드’ 는 대부분 ‘중식’ 식당으로 95%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서양식’ 식당이 1%, 그 외 ‘아시안’ 식당이 극히 일부인 1%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타 업태에 비해 ‘중식’ 식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카페/바’ 의 경우, ‘커피/주스/차’ 가 주 메뉴인 식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이커리’ 가 21%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관인치아오 상권 업체별 외식당 에스닉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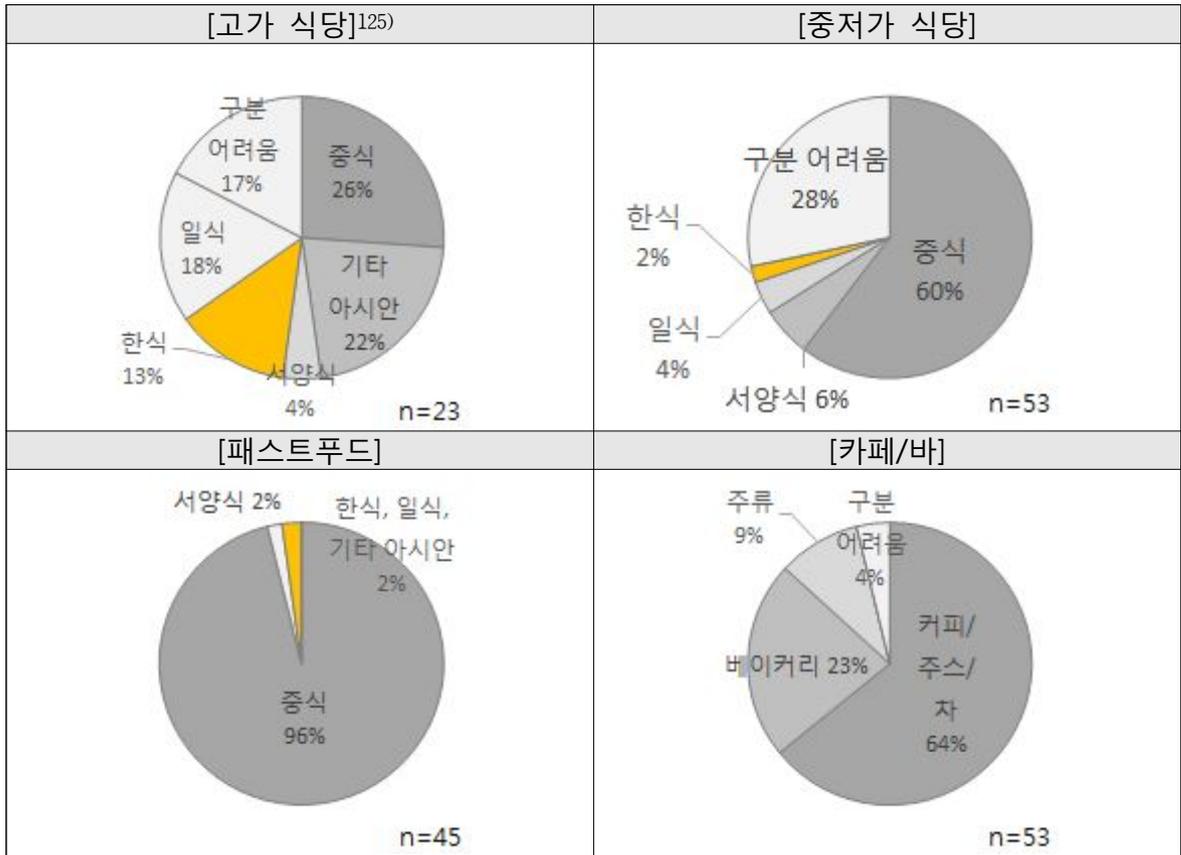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에스닉 구성

- 업체별로 ‘고가 식당’ 을 창업하는 비율은 ‘중식’ 이 2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아시아’ 이 22%의 비율로 많이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식 창업도 13%을 차지해 타 상권 대비 높은 창업 비율을 나타냄.
- 식당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 은 ‘중식’ 식당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식’ 식당은 2% 수준임.
- ‘패스트푸드’ 는 대부분이 ‘중식’ 식당인 경향이 있음. 그 외 에스닉 식당 중 ‘서양식’ 식당이 2%로 타 업체에 비해 ‘중식’ 식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카페/바’ 의 창업 비율은 ‘커피/주스/차’ 가 주 메뉴인 식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이커리’ 가 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124) 샘플 수가 작으므로 해석에 유의

[관인치아오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에스닉 비율]



□ 한식당 현황

○ 한식당 비율 및 업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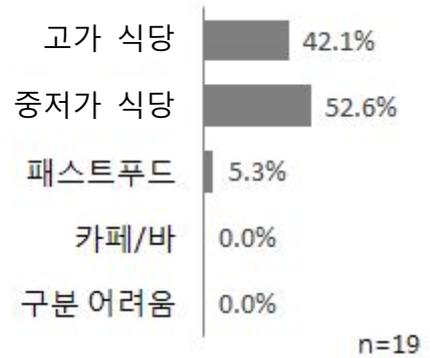
- 관인치아오 상권에서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 한식당은 업태별로 ‘중저가 식당’ 이 5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가 식당’ 이 42.1%의 비율로 타 상권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125)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전체 외식당 대비 한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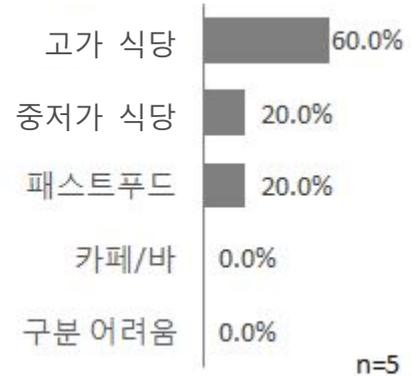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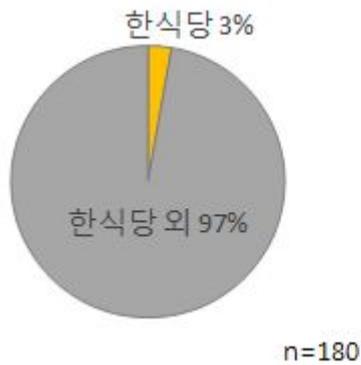
[업태별 한식당 비율]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 관인치아오 상권에 창업한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며, 창업한 한식당의 60%는 ‘고가 식당’으로 나타남.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비율]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업태]



나) 상권 식당 가격대 현황

□ 외식당 가격대 분포

- 관인치아오 상권에 외식당의 가격대는 평균 ‘52.4위안’으로 파악됨
- ‘20~80위안’의 가격대 사이에 외식당이 고루 분포해 있으며, ‘50위안’ 미만은 ‘중저가 식당’과 ‘카페/바’의 비율이 높고, 그 이상 가격대의 외식당은 주로 ‘고가 식당’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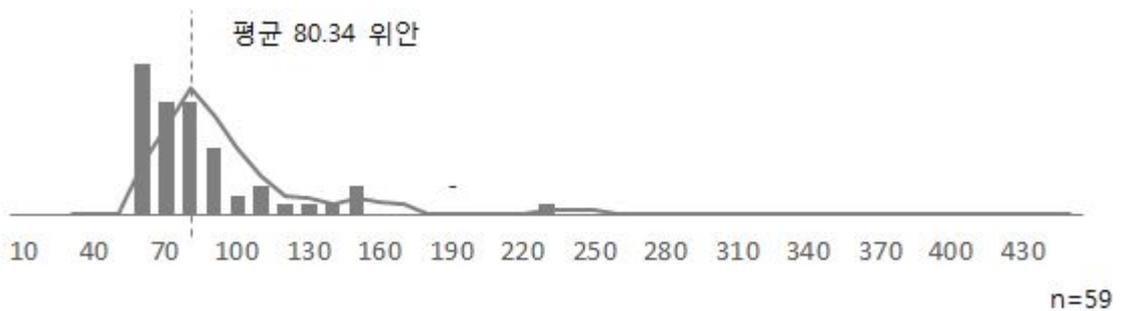
[관인치아오 상권 가격대별 외식당 분포]



□ 메뉴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80.34위안’으로 확인되며, 가격대의 분포는 주로 ‘50~80위안’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35.0위안’이며, 주로 ‘30~50위안’의 가격대에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패스트푸드’의 평균 가격대는 ‘23.0위안’이며, 주로 ‘20~40위안’의 가격대에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
- ‘카페/바’의 평균 가격대는 ‘40.6위안’이나, 대부분 ‘10~30위안’에 분포하고 있음.

[관인치아오 상권 가격별 고가 식당 외식당 분포]¹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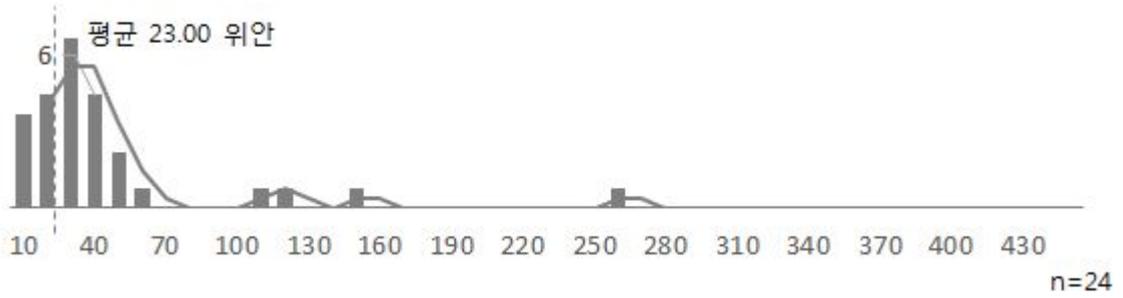


[관인치아오 상권 가격별 중저가 식당 외식당 분포]



126)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관인치아오 상권 가격별 패스트푸드 외식당 분포]



[관인치아오 상권 가격별 카페/바 외식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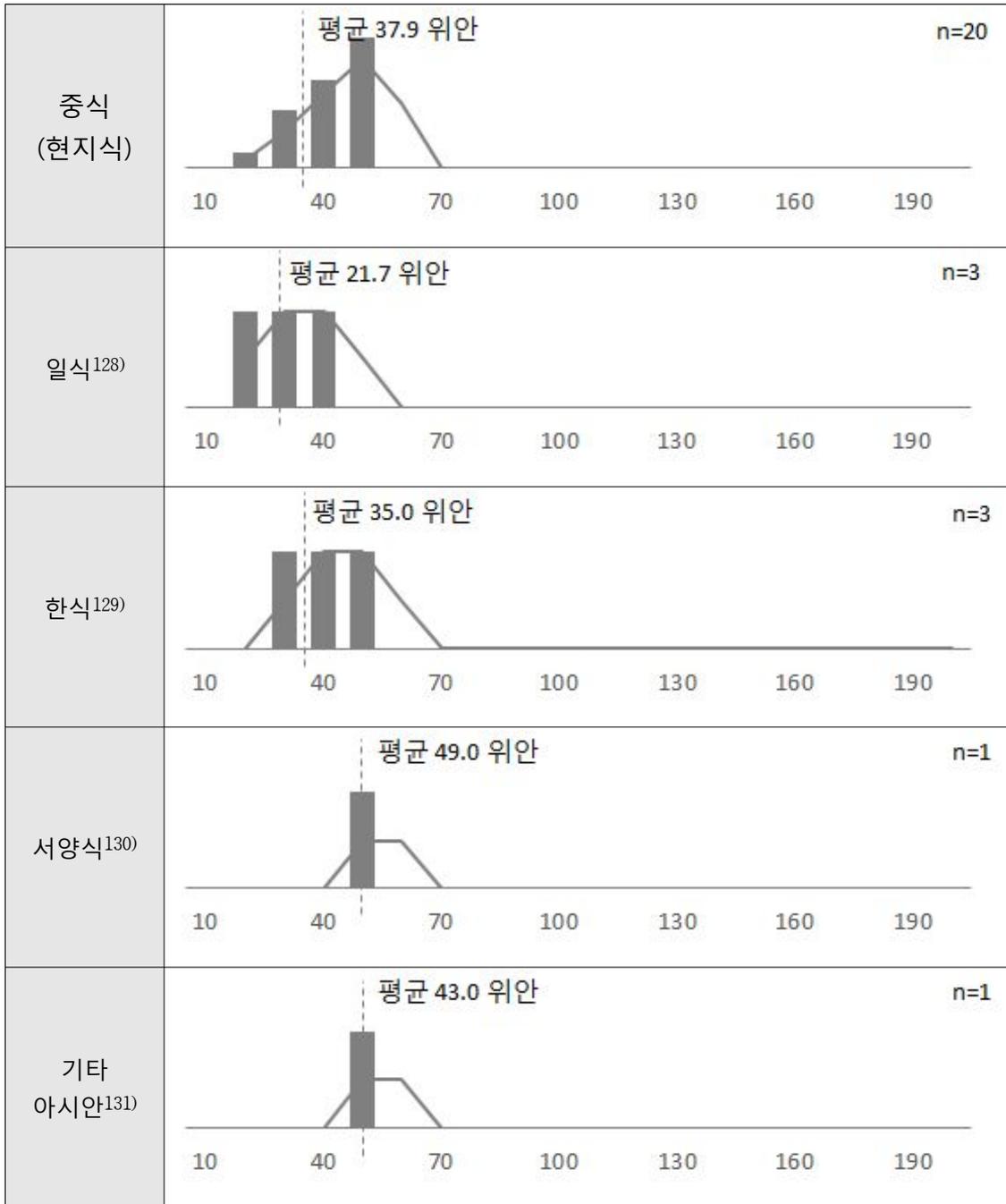


□ 업체 내 에스닉별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¹²⁷⁾

- ‘중저가 식당’ 은 ‘중식’ 식당이 타 식당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반면 ‘서양식’ 과 ‘기타 아시안식’ 식당의 가격대가 ‘490위안’ 으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나타남.
- ‘한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35.0위안’ 으로 ‘중식’ 식당의 가격대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준임.

127) 타 업체의 샘플 데이터 수가 충분치 않으므로 중저가 식당을 대표로 사용함

[관인치아오 상권 가격대 분포 및 평균 - 중저가 식당]



128)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129)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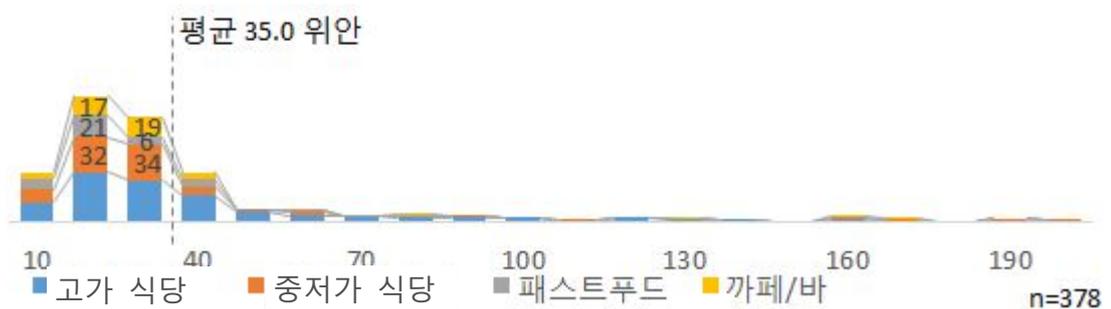
130)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131)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다) 상권 메뉴 가격대 현황

- 외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35.0위안’ 이며, 메뉴의 대부분이 ‘10~4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되고 있음. ‘50위안’ 미만의 가격대에서도 ‘고가 식당’ 메뉴 비율이 타 업태 메뉴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중저가 식당’ 과 ‘고가 식당’ 은 ‘10~30위안’ 의 가격대에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식당 메뉴의 경우 일부 메뉴가 ‘10~4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음.

[관인치아오 상권 전 메뉴 가격대 분포]



[관인치아오 상권 한식 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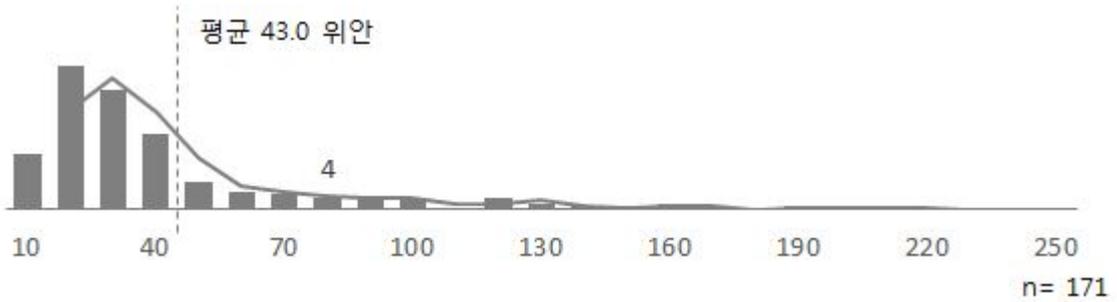


□ 업태별 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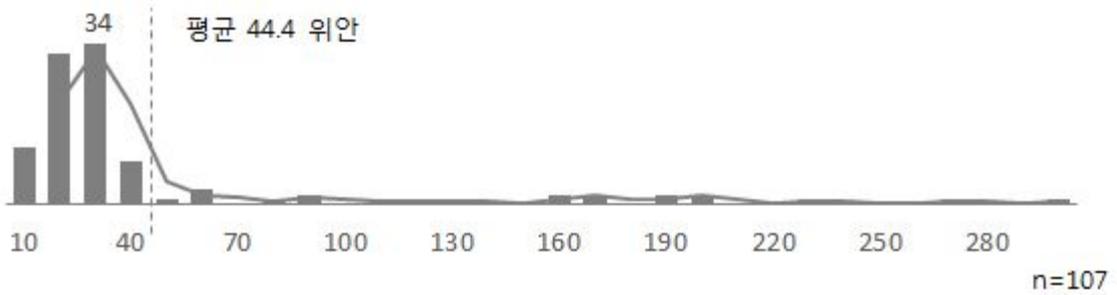
- ‘고가 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43.0위안’ 이며, ‘10~100위안’ 의 넓은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음. 그 중 주로 ‘10~4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 ‘중저가 식당’ 은 메뉴의 분포가 주로 ‘10~30위안’ 의 가격대에서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44.4위안’ 임.
- ‘패스트푸드’ 의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22.6위안’ 으로 주로 ‘20위안’ 의 가격대에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 ‘카페/바’의 경우 메뉴의 분포가 ‘10~200위안’의 넓은 가격대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주로 ‘10~40위안’의 가격대에 집중 분포함. 메뉴의 평균 가격은 ‘30.1위안’으로 형성 됨.

[관인치아오 상권 고가 식당 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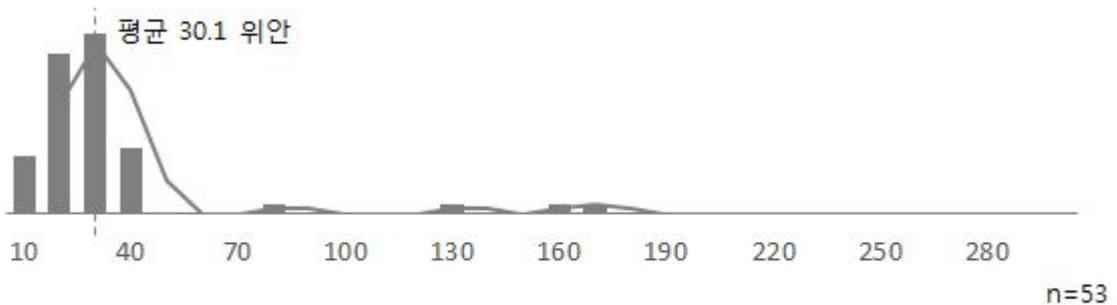
[관인치아오 상권 중저가 식당 메뉴 가격대 분포]



[관인치아오 상권 패스트푸드 메뉴 가격대 분포]



[관인치아오 상권 카페/바 메뉴 가격대 분포]



3) 상권 외식 소비자 분석

가)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7P 요소인 ‘음식’ 중에서 ‘맛(0.44회/건)’ 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양(0.10회/건)’, ‘향(0.08회/건)’, ‘식감(0.07회/건)’ 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에서는 ‘분위기’ 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 요소(0.13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며, 내부(0.08회/건) 및 외부 환경 요소(0.03회/건)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는 경향이 있음.
- 그 외 요소 중 ‘가격’ (0.23회/건)과 위치 요소 중 ‘접근성’ (0.04회/건)와 ‘입지’ (0.01회/건)이 타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음.

[관인치아오 상권 7P 세부 요소별 언급 빈도]

(단위: 언급 빈도/리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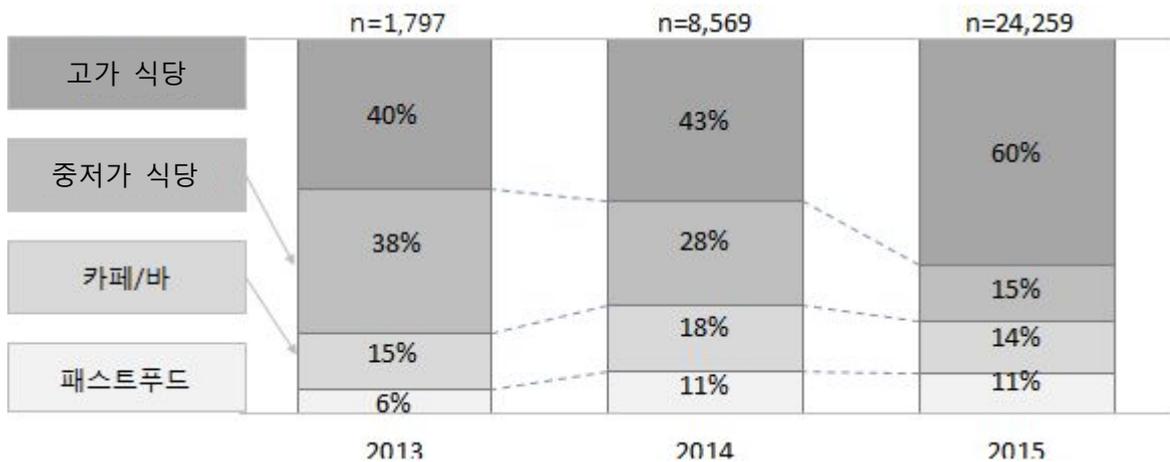
7P 요소	순위	7P 하위 요소	리뷰당 언급 빈도
음식	1	맛	0.44
	2	양	0.10
	3	향	0.08
	4	식감	0.07
가격	1	가격	0.23
위치	1	접근성	0.04
	2	입지	0.01
	3	교통편의성	0.00
프로모션	1	공동구매	1.29
	2	상품권/쿠폰	0.02
	3	가격할인	0.01
	4	혜택	0.01
물리적 환경	1	내부 디자인 요소	0.13
	2	내부 환경적 요소	0.08
	3	외부 환경적 요소	0.03
서비스	1	주문	0.02
	2	대기	0.02
	3	결제	0.01
	4	포장/배달	0.01
종업원	1	종업원 태도	0.07
	2	사장님	0.01
	3	요리사	0.01
	4	복장/응모	0.01

나) 외식당 방문 형태

□ 업체별 리뷰 건수

- 외식당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중저가 식당’ 은 그 비율이 2013년 39%에서 2015년 46%로 타 업체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패스트푸드’ 의 방문 비율은 2013년 30%에서 2015년 21%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그 외 업체에서는 ‘고가 식당’ 은 2013년에 비해 2%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카페/바’ 는 1% 수준으로 감소함.

[관인치아오 상권 업체별 외식당 방문 추세(13~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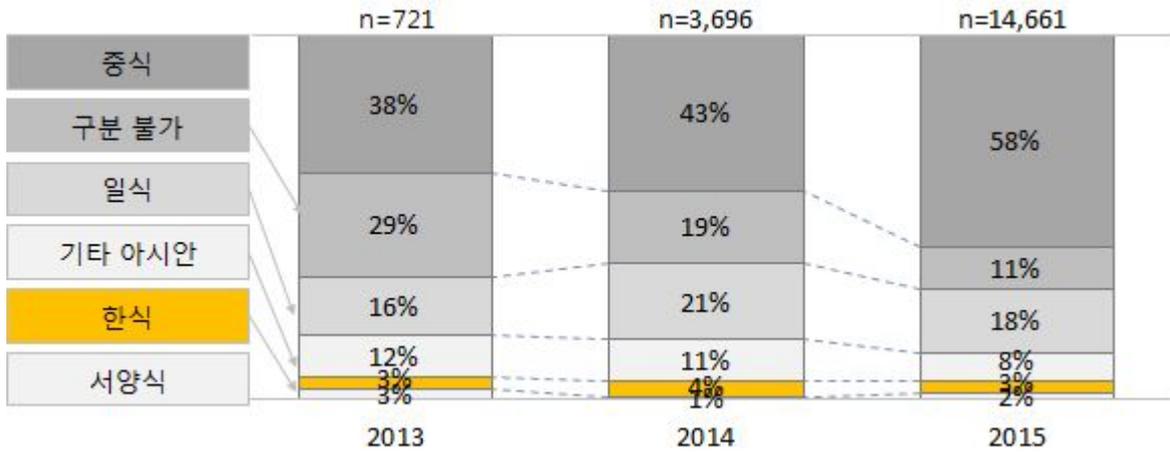


□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 2013년 가장 높은 방문 비율인 ‘중식’ 식당은 38%에서 2015년에 58%로 상당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구분 불가’ 식당의 방문 비율이 2013년 29%에서 2015년 11%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일식의 방문 추세는 2013년 대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한식’ 과 ‘서양식’ 식당의 방문 비율은 약 2~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미비한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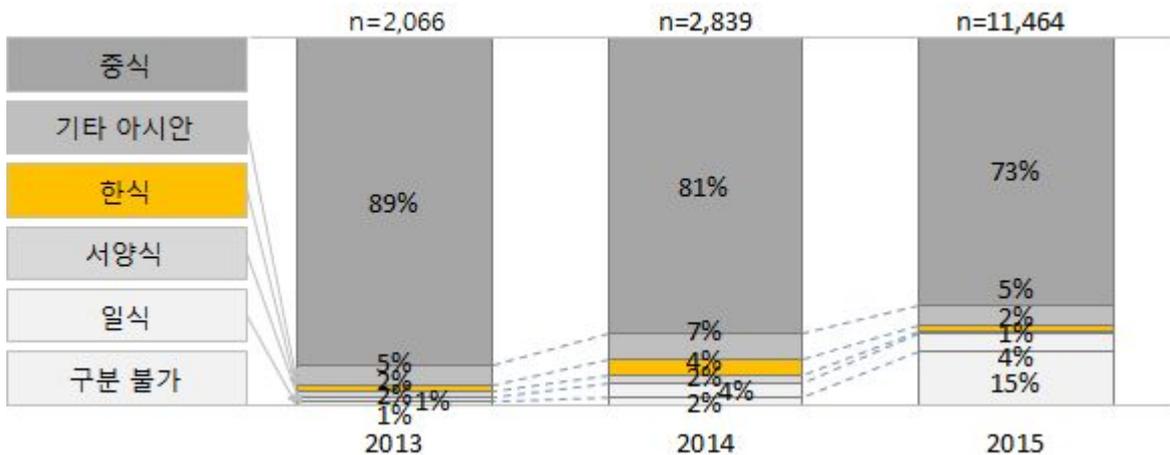
[관인치아오 상권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 중저가 식당

- ‘고가 식당’ 에서 점차 방문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식’ 식당은 ‘중저가 식당’ 에서는 방문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중식’ 식당은 2013년 기준으로 2015년 방문 비율 73%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구분 불가’ 외식당은 2013년 1%에서 2015년 15%로 방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 외 타 에스닉 외식당의 방문 비율은 3년 사이 큰 변화는 없음.
- ‘고가 식당’ 에서 가장 높은 방문 비율을 차지한 ‘일식’ 식당은 ‘중저가 식당’ 에서는 방문 비율이 0~1% 수준으로 상당히 미비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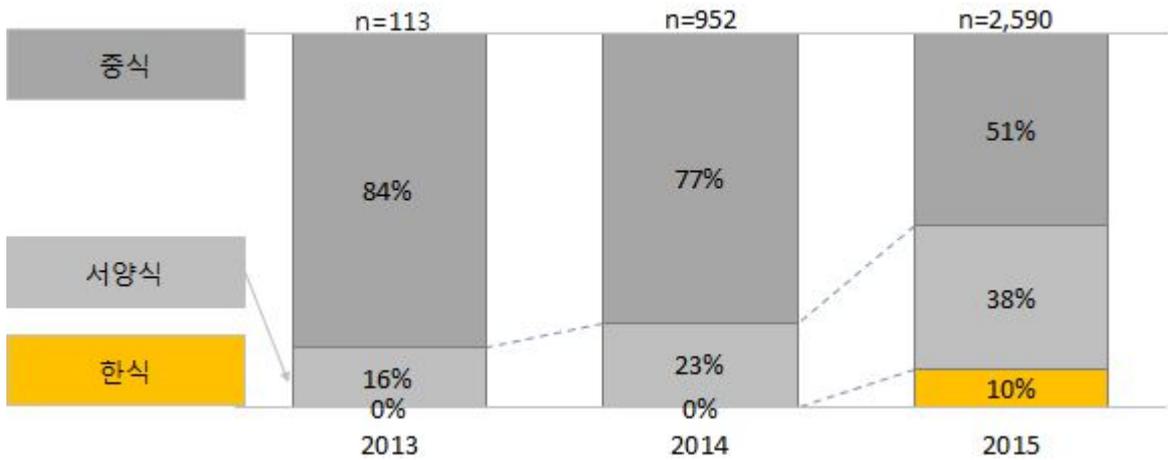
[관인치아오 상권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중저가 식당]



○ 패스트푸드

- ‘패스트푸드’는 ‘중식’ 식당이 2013년에 84%, 2014년에 77%, 2015년에 51%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서양식’ 식당의 방문 비율은 2013년 16%에서 2015년 3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식’ 식당의 방문 비율도 2013년 대비 2015년 10%로 두드지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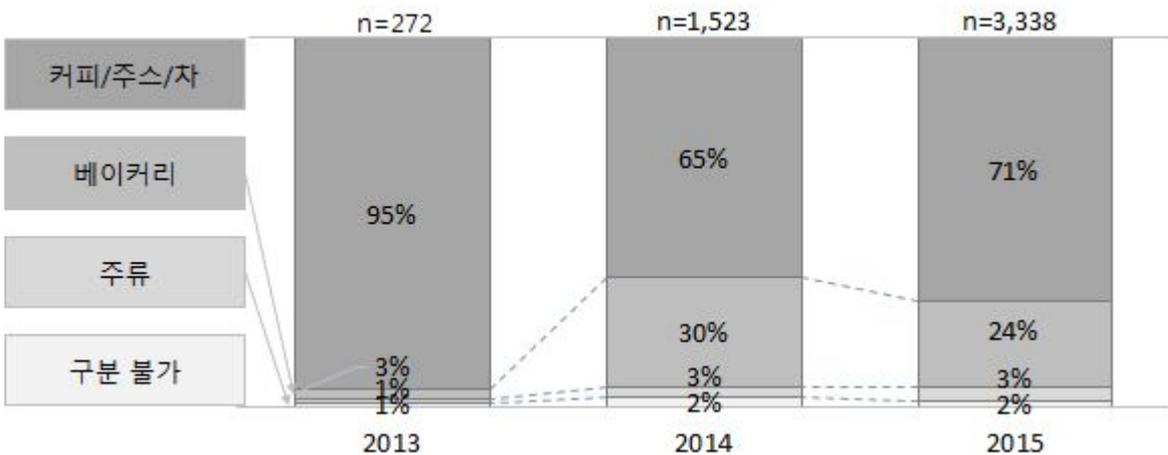
[관인치아오 상권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패스트푸드]¹³²⁾



○ 카페/바

- ‘카페/바’에서 방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커피/주스/차’가 주 메뉴인 식당은 2013년 95%에서 2015년 71%로 방문 비율이 밀리는 추세임.
- 반대로 ‘베이커리’가 2013년 3%에서 2015년 24%로 방문 비율이 증가하였음.

[관인치아오 상권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카페/바]¹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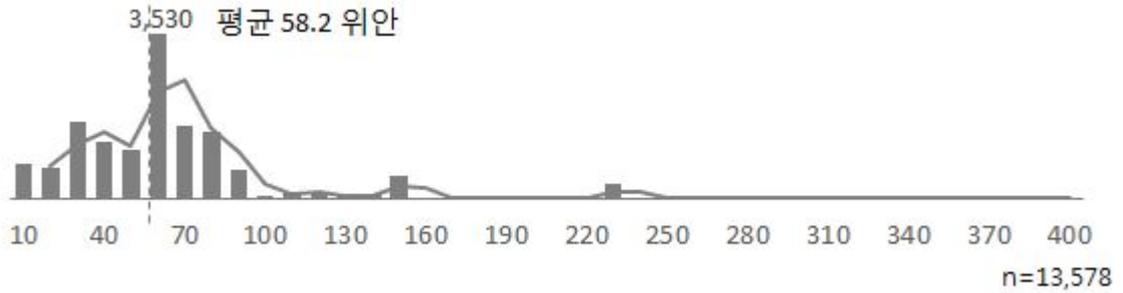
132)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133)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다)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의 가격대는 주로 ‘20~9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이 ‘58.2위안’ 으로 나타남.

[관인치아오 상권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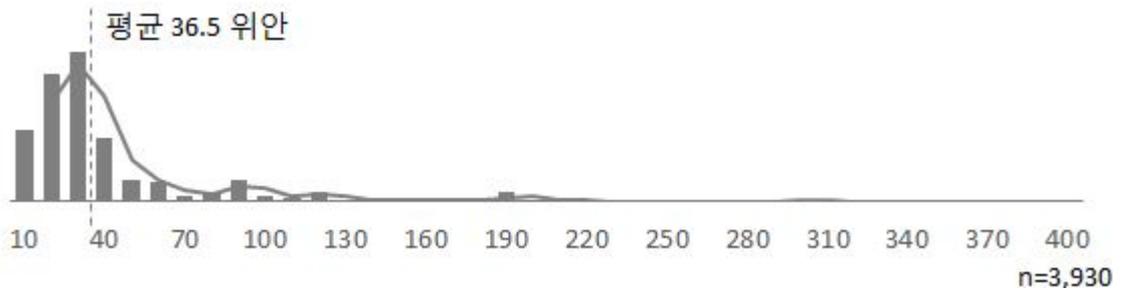


라)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 추천 가격대는 주로 ‘10~40위안’ 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이 ‘36.5위안’ 인 것으로 나타남.

[관인치아오 상권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4.1 난핑(南坪)

1) 상권 개요



교통	지하철역	난핑역
	버스 정거장	난핑역
주요 집객시설	완따광창(万达广场), 시에신청(协信城) 등	
주요 거리명	난청따다오(南城大道), 난핑동루(南坪东路), 완수루(万寿路)	

□ 상권 구성

- 난핑은 충칭 내 상권들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비교적 새롭게 조성된 상권으로 ‘컨벤션, 비즈니스, 관광, 엔터테인먼트 본사 및 쇼핑’ 기능에 집중하고 있음. 특히 타 상권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교통 등의 인프라를 보완중이며 고급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하여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음.

□ 유동인구 구성

- 백화점과 컨벤션센터가 주를 이루는 상권으로, 충청 내 상권 중 유동인구가 가장 적지만 소비력이 높음. 평일 유동인구는 약 20만 명이며 주말 유동인구는 약 30만 명임. 국가 공휴일의 유동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확인됨.

□ 식당 운영 현황

- 난평 상권 내 식당은 주로 대형 쇼핑센터 푸드코트에 위치하여 있으며, 중국 본토요리 및 충청 회귀 전문점과 서양식당이 많음. 기타 에스닉의 경우, 일본 식당보다 한식당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주요 한식당으로는 ‘부산야(釜川屋, 부대찌개 전문점)’, 고기구이 전문점인 ‘헤이두두고기구이(嘿嘟嘟韩式烤肉)’, ‘우리한식요리’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한식당은 모두 고기구이, 부대찌개를 판매하고 있음.

2) 상권 외식산업 분석

가) 상권 외식당 현황

□ 외식당 분포 현황

○ 외식당 분포

- 난평 상권의 외식당은 주로 ‘난평역’ 을 중심으로 근처의 ‘완다 백화점’ 주변과 거주지 설 주변, 그리고 ‘씨티 플라자’ 주변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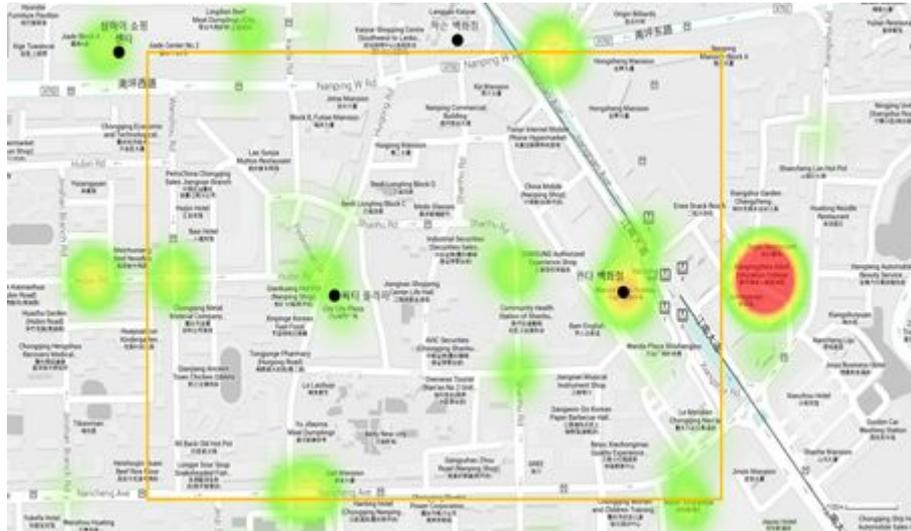
[난평 상권 외식당 분포 지도]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분포

- 난평 상권에서 최근 1년간 창업한 식당은 주로 ‘난평역’ 주변의 인근 거주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짐. 그 외에는 주요 백화점 시설과 인근 거주지역에서 소수의 외식당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남.

[난평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분포 지도]¹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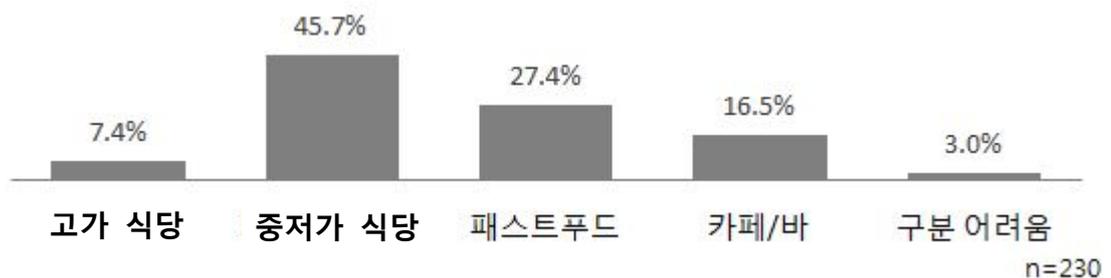


□ 업체별 외식당 현황

○ 외식당 업체 구성

- 난평 상권에는 230개의 외식당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중저가 식당’의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업체별로 ‘패스트푸드’와 ‘카페/바’가 각각 27.4%, 16.5%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

[난평 상권 업체별 외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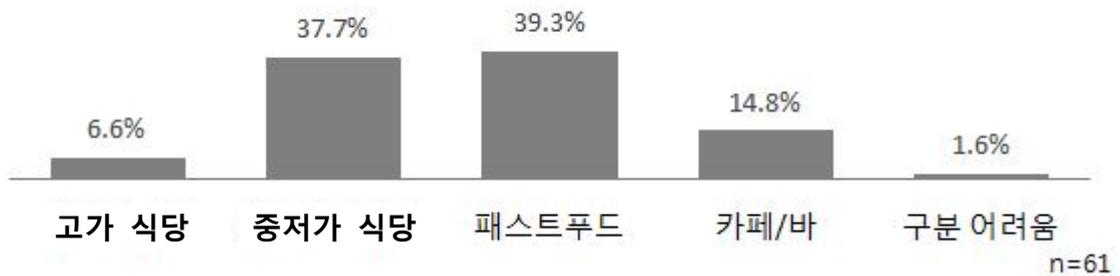


134)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 중 최근 1년('15. 4.~'16. 4.) 내에 리뷰가 최초로 등록된 식당만 별도 분석, 최초리뷰 등록 시점과 창업시점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구성

- 2015년에 창업한 외식당은 업태별로 ‘패스트푸드’가 3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중저가 식당’의 창업 비율도 37.7%로 비슷한 수준임.
- ‘카페/바’와 ‘고가 식당’을 창업하는 비율은 각각 14.8%, 6.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난핑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업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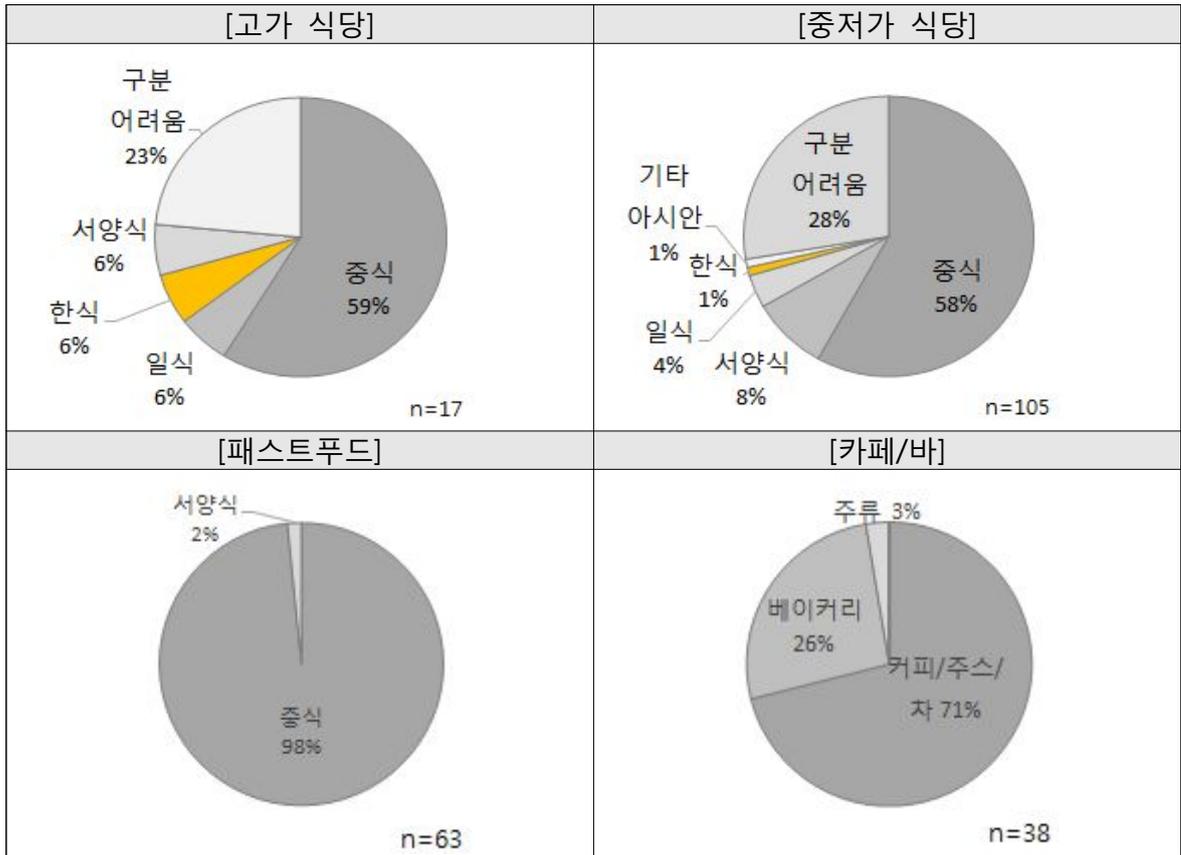


□ 업태 내 에스닉별 외식당 현황

○ 외식당 에스닉 구성

- 업태별로 ‘고가 식당’은 ‘중식’ 식당이 59%로 가장 많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다음 ‘서양식’ 식당이 23%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한식’ 식당은 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은 ‘중식’ 식당이 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식’ 식당은 1%로 비율로 미미한 수준임.
- ‘패스트푸드’는 ‘중식’ 식당이 거의 대부분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서양식’이 2%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음.
- ‘카페/바’는 ‘커피/주스/차’ 업종이 71%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이커리’ 업종이 26%, ‘주류’가 3%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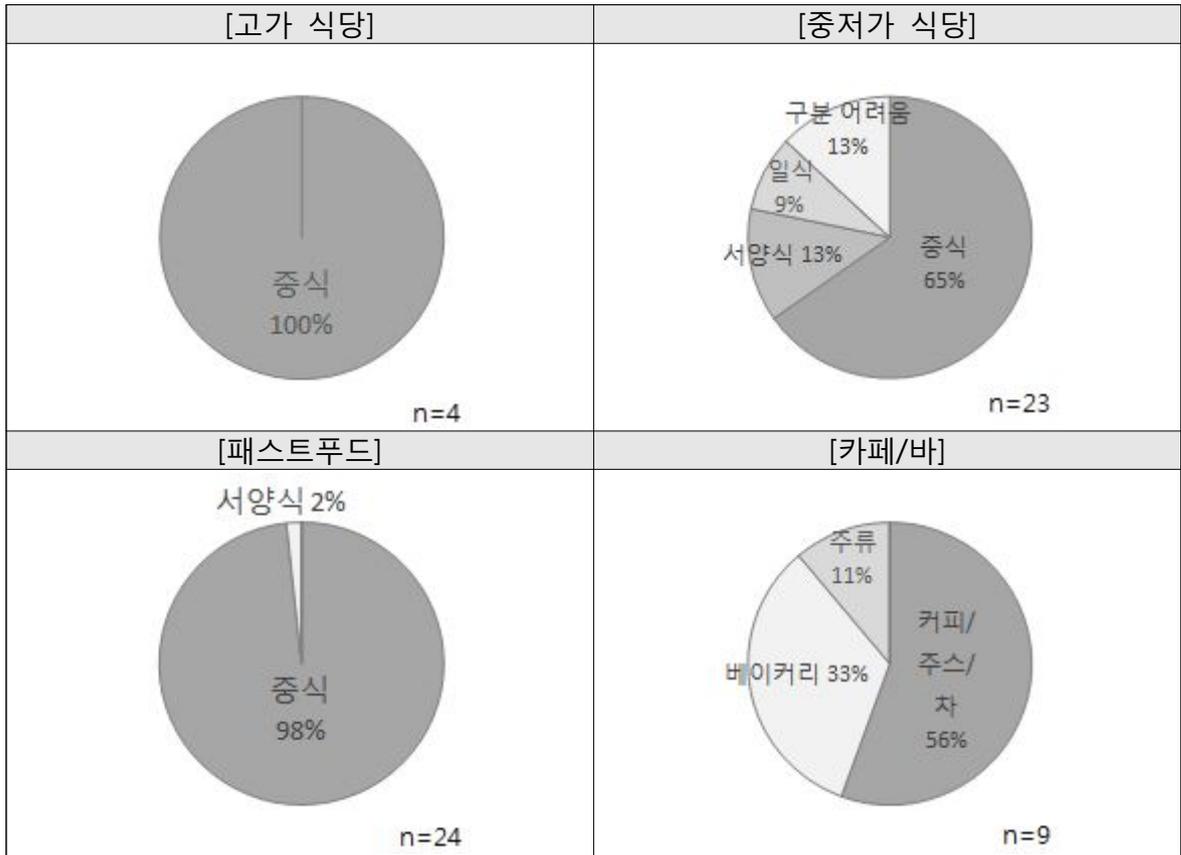
[난핑 상권 업태별 외식당 에스닉 구성]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구성

- 업태별로 ‘고가 식당’ 을 창업하는 비율은 ‘중식’ 식당이 100%를 차지함.
- 식당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 도 ‘중식’ 식당이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서양식’ 식당이 13%를 차지함.
- ‘패스트푸드’ 는 대부분이 ‘중식’ 식당인 경향이 있음. 그 외 에스닉 식당 중에서는 ‘서양식’ 식당이 2%로 타 업태에 비해 ‘중식’ 식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카페/바’ 의 창업 비율은 ‘커피/주스/차’ 가 주 메뉴인 식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이커리’ 가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난핑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비율]¹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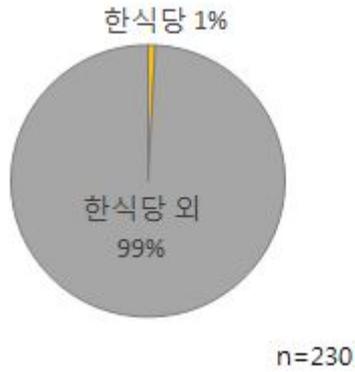
□ 한식당 현황

○ 한식당 비율 및 업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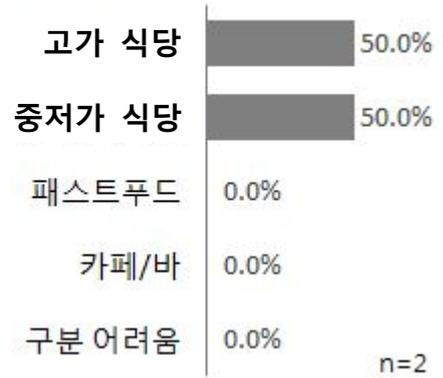
- 난핑 상권에서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로 타 상권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한식당은 ‘중저가 식당’ 과 ‘고가 식당’ 이 각각 1곳씩 분포해 있음.

135)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전체 외식당 대비 한식당 비율]



[업태별 한식당 비율]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 난핑 상권에 창업한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없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비율]¹³⁶⁾



나) 상권 외식당 가격대 현황

□ 외식당 가격대 분포

- 난핑 상권에 외식당의 가격대는 평균 ‘43.2위안’ 으로 파악됨.
- 주로 ‘20~80위안’ 의 넓은 가격대에서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가격이 낮을수록 ‘카페/바’ 가 많으며, 중간 가격대는 ‘패스트푸드’ 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

136) 한식당 존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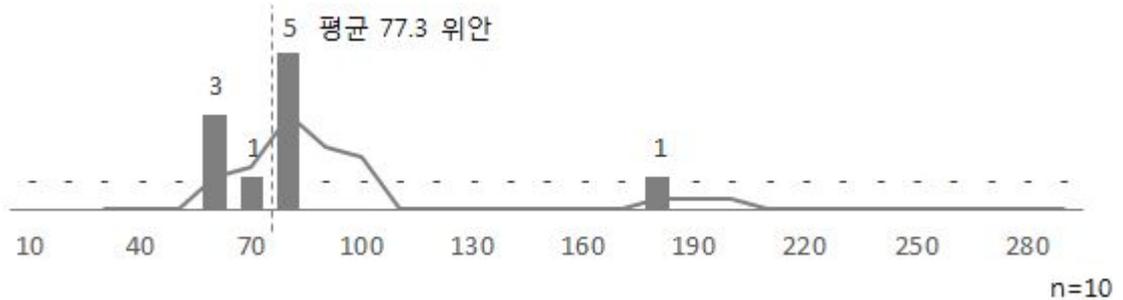
[난핑 상권 가격대별 외식당 분포]



□ 업체별 외식당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77.3위안’으로 확인되며, 가격대의 분포는 주로 ‘50~70위안’의 가격대에 일부 분포하고 있음.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33.0위안’이며, 가격대의 분포가 ‘50위안’의 가격대에서 주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패스트푸드’의 평균 가격대는 ‘12.0위안’이며, 그 분포가 ‘10~60위안’의 가격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 ‘카페/바’의 평균 가격대는 ‘28.6위안’으로 확인되며, ‘10~20위안’의 가격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난핑 상권 가격별 고가 식당 외식당 분포]



[난핑 상권 가격별 중저가 식당 외식당 분포]



[난핑 상권 가격별 패스트푸드 외식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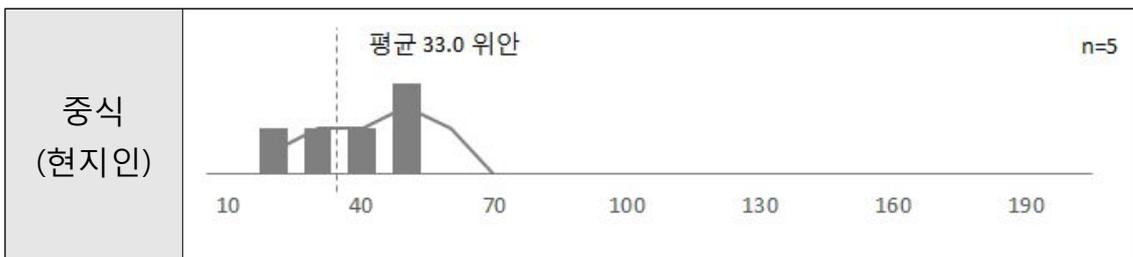
[난핑 상권 가격별 카페/바 외식당 분포]



□ 업체 내 에스닉별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

- ‘중저가 식당’ 에서 ‘중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33.0위안’ 으로 주로 ‘40~50 위안’ 의 가격대에 외식당이 다수 분포함.

[난핑 상권 가격대 분포 및 평균 - 중저가 식당]¹³⁷⁾



다) 상권 메뉴 가격대 현황

- 외식당 주요메뉴의 평균 가격은 ‘40.5위안’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메뉴의 대부분이 ‘10~3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음.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 ” 의 메뉴는 ‘10~30위안’ 의 가격대에 주로 분포되고 있음.

137) 샘플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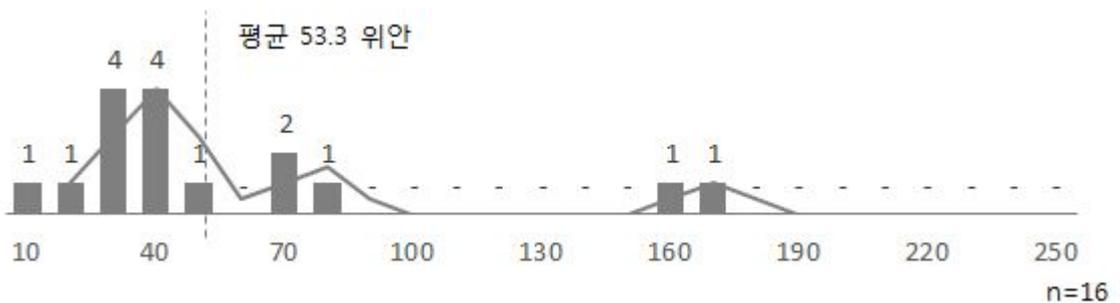
[난핑 상권 전 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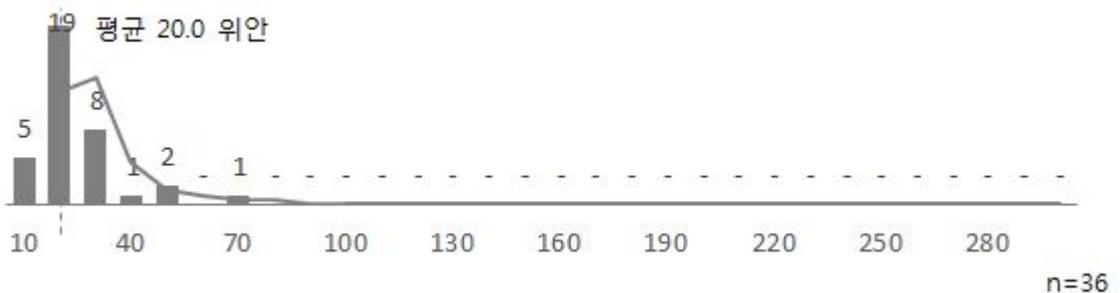
□ 업체별 메뉴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53.3위안’ 이며, ‘10~170위안’ 의 넓은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음. 그 중 주로 ‘30~40위안’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 ‘중저가 식당’ 은 메뉴의 분포가 주로 ‘10~30위안’ 의 가격대에서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20.0위안’ 임.
- ‘패스트푸드’ 는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이 ‘8.8위안’ 으로 주로 ‘10위안 미만’ 의 가격대에 일부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 ‘카페/바’ 의 경우 메뉴의 분포가 ‘20~260위안’ 의 넓은 가격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메뉴의 평균 가격은 ‘79.8위안’ 으로 형성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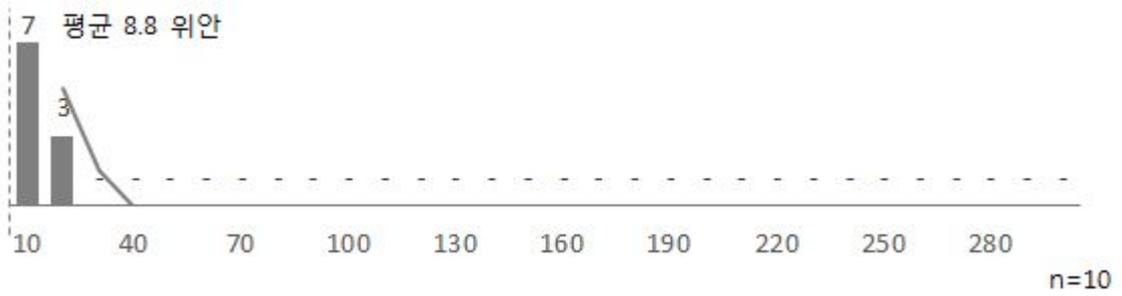
[난핑 상권 고가 식당 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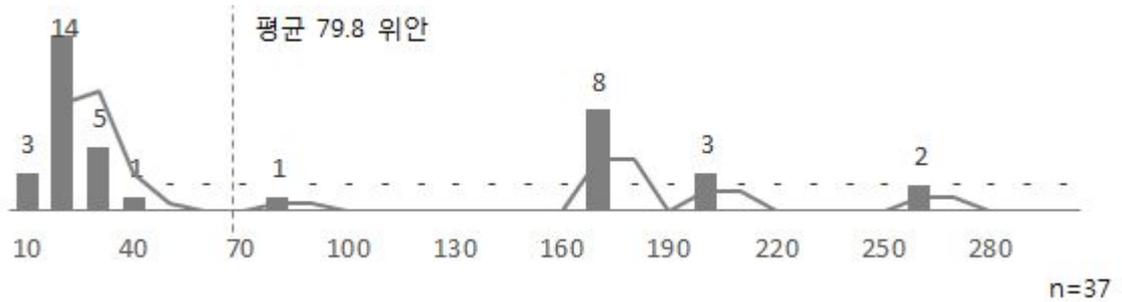
[난핑 상권 중저가 식당 메뉴 가격대 분포]



[난핑 상권 패스트푸드 메뉴 가격대 분포]



[난핑 상권 카페/바 메뉴 가격대 분포]



3) 상권 외식 소비자 분석

가)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7P 요소인 ‘음식’ 중에서 ‘맛(0.36회/건)’ 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양(0.05회/건)’, ‘향(0.05회/건)’, ‘식감(0.05회/건)’ 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에서는 ‘분위기’ 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 요소(0.11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며, 내부(0.08회/건) 및 외부 환경 요소(0.04회/건)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는 경향이 있음.
- 그 외 요소 중 ‘가격’ (0.19회/건)과 위치 요소 중 ‘접근성’ (0.03회/건)와 ‘입지’ (0.00회/건)가 타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음.

[난핑 상권 7P 세부 요소별 언급 빈도]

(단위: 언급 빈도/리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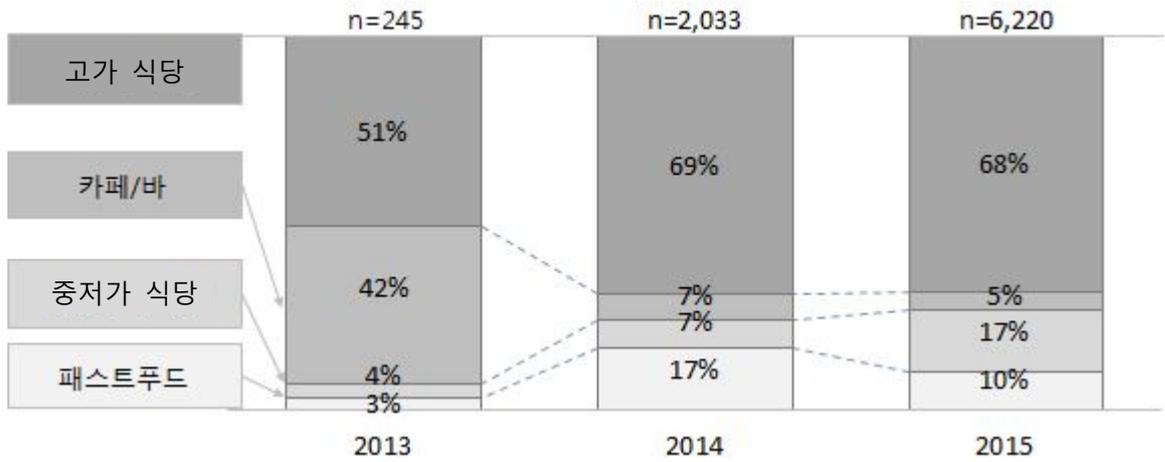
7P 요소	순위	7P 하위 요소	리뷰당 언급 빈도
음식	1	맛	0.36
	2	양	0.05
	3	향	0.05
	4	식감	0.05
가격	1	가격	0.19
위치	1	접근성	0.03
	2	입지	0.00
	3	교통편의성	0.00
프로모션	1	공동구매	1.42
	2	시식	0.02
	3	가격할인	0.01
	4	상품권/쿠폰	0.01
물리적 환경	1	내부 디자인 요소	0.11
	2	내부 환경적 요소	0.08
	3	외부 환경적 요소	0.04
서비스	1	대기	0.05
	2	주문	0.02
	3	결제	0.01
	4	포장/배달	0.01
종업원	1	종업원 태도	0.06
	2	요리사	0.01
	3	사장님	0.01
	4	복장/용모	0.00

나) 외식당 방문 형태

□ 업체별 리뷰 건수

- 외식당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고가 식당’은 그 비율이 2013년 51%에서 2015년 68%로 크게 증가하였음.
- ‘카페/바’의 방문 비율은 2013년 42%에서 2015년 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저가 식당’은 2013년에 비해 17%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난핑 상권 업태별 리뷰 건수 ('13~'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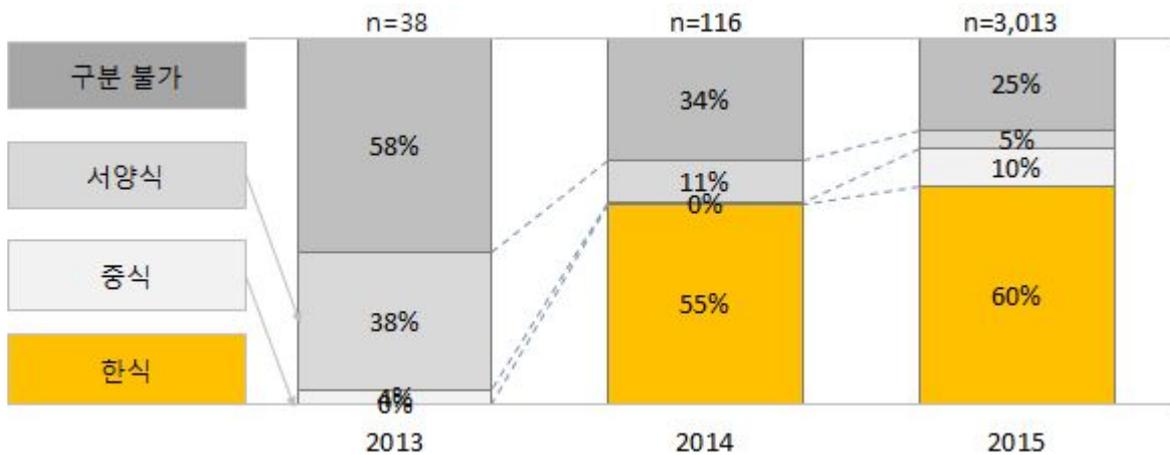


□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 ‘한식’ 식당의 방문 비율이 2013년 0%에서 2015년 60%로 타 에스닉 식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양식’의 경우 2013년 대비 5%의 비율로 크게 감소하였음.
- 퓨전식당과 뷔페 등을 포함한 ‘구분 불가’ 식당은 2013년 58%에서 2015년 25%로 방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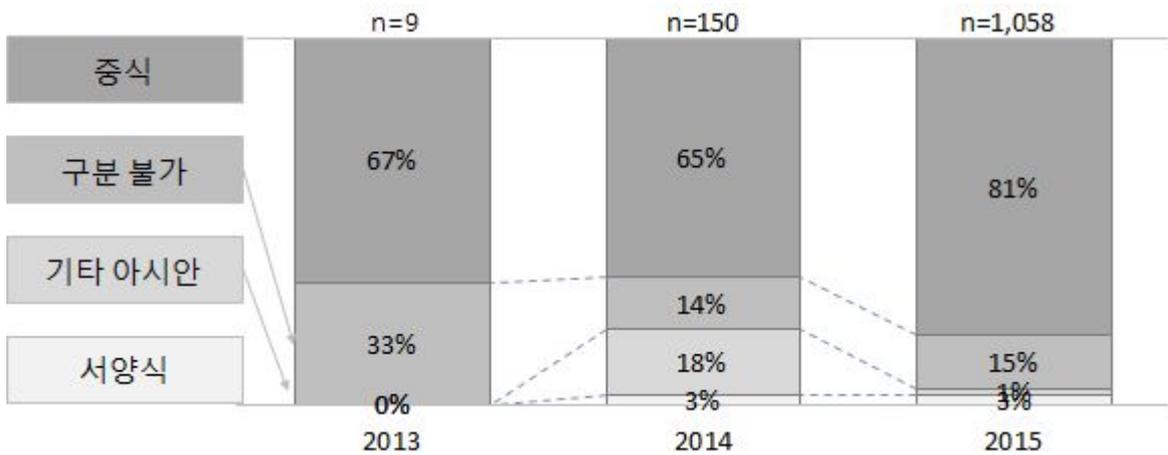
[난핑 상권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 중저가 식당

- ‘중식’ 식당의 방문 비율이 2013년 67%, 2015년 81%로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퓨전식당과 뷔페 등을 포함한 ‘구분 불가’ 식당은 2013년 기준으로 2015년 방문 비율이 1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타 아시안’ 식당은 방문 비율에 많은 변화가 있음.
- ‘서양식’ 식당은 방문 비율이 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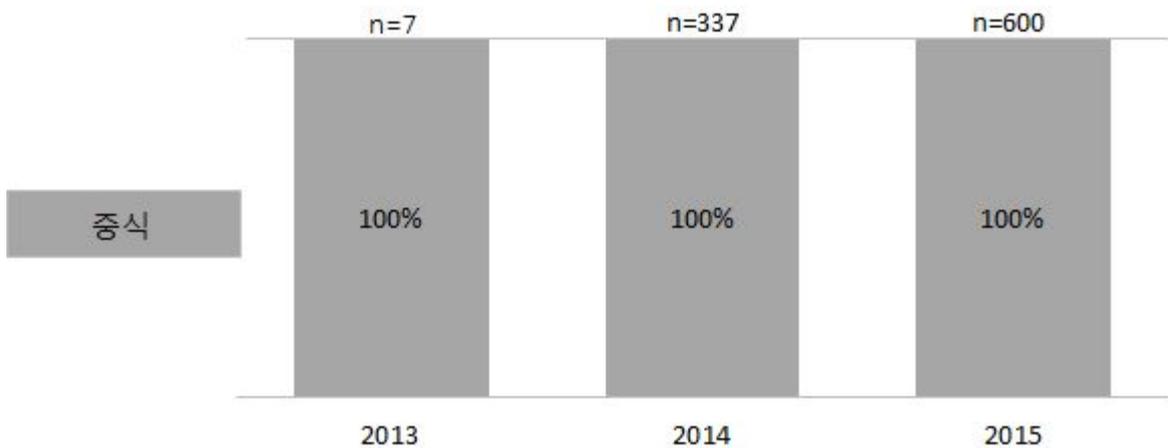
[난핑 상권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중저가 식당]



○ 패스트푸드

- ‘패스트푸드’ 는 ‘중식’ 식당이 방문 비율 100%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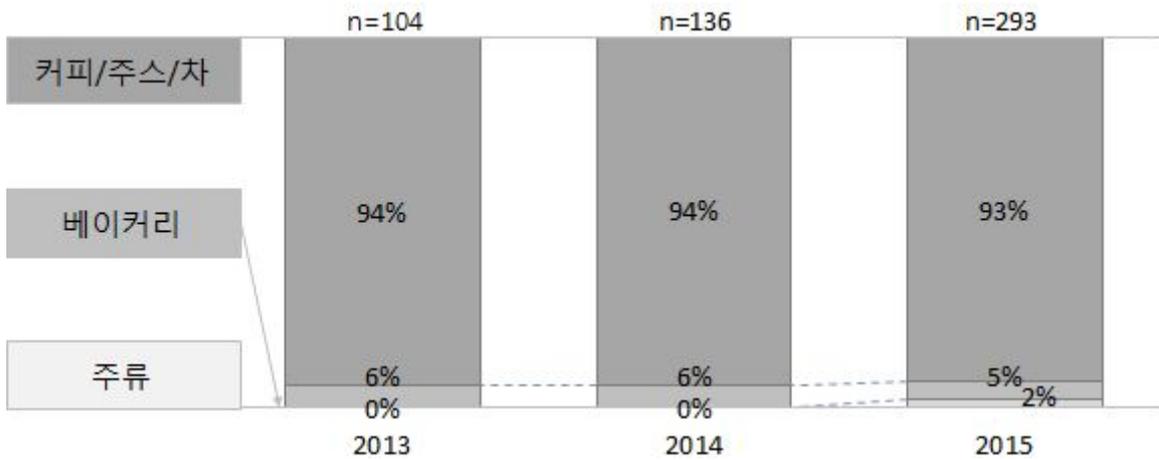
[난핑 상권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패스트푸드]



○ 카페/바

- ‘카페/바’ 에서 ‘커피/주스/차’ 업종의 방문 비율은 2013년 94%부터 2015년 93%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큰 변화는 없음.
- ‘베이커리’ 업종도 마찬가지로 2013년 6%에서 2015년 5%로 방문비율이 변 크게 변화가 없으며, ‘주류’ 업종은 미미한 방문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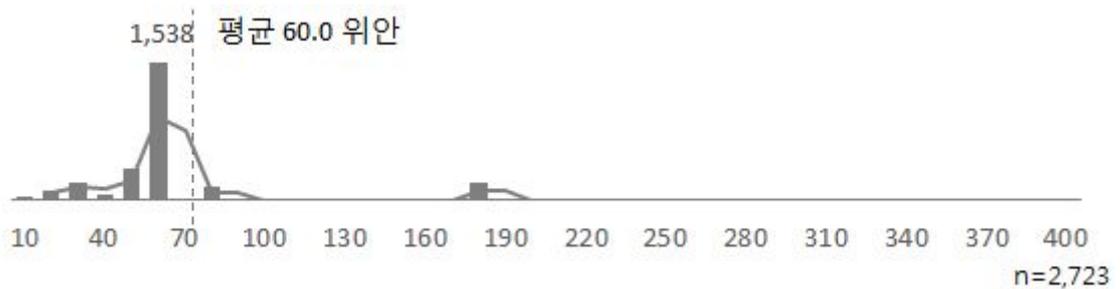
[난핑 상권 업태 내 업종별 리뷰 건수 - 카페/바]



다)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의 가격대는 주로 ‘20~60위안’ 의 가격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은 ‘60.0위안’ 으로 나타남.

[난핑 상권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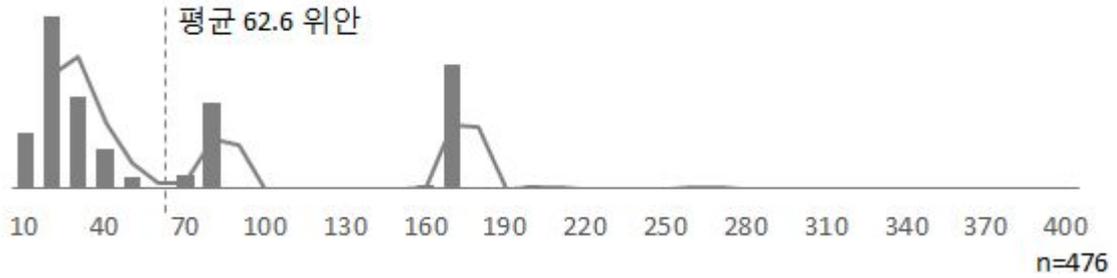


라)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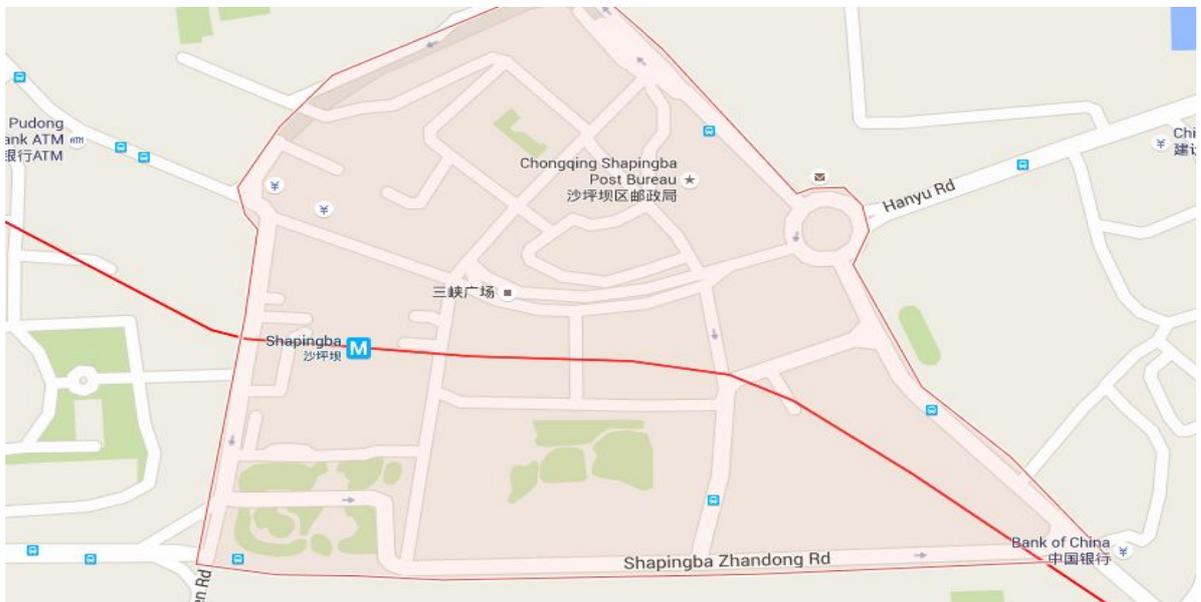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 추천 가격대는 ‘20~3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이 ‘62.6위안’ 으로 나타남.

[난핑 상권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5.1 샹핑바(沙坪坝)

1) 상권 개요



교통	지하철역	샹핑바역, 샹오룽칸(小龙坎)역
	버스 정거장	샹핑바역
주요 집객시설	충칭백화점, 신세기백화점(新世纪百货), 귀메이띠앤치(国美电器)	
주요 거리명	산시아광창보행자거리, 위베이루(渝碚路), 샹난지에(沙南街)	

□ 상권 구성

- 충칭 동부의 핵심 상권으로, 상권 내 ‘산시아광창(三峡广场)’ 지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상권의 접근성을 향상시킴. 하지만 충칭 상권 중에 ‘산시아광창’은 사람들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교통 유입량과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가장 열악한 편임.

- 호텔 등의 집객시설 건설 계획이 추진 중으로 완공 후 상권의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질 것으로 전망됨. 호텔과 부합하는 고급 쇼핑몰도 입점 할 계획이며 외자투자를 위하여 국제 브랜드를 도입할 계획임.

□ 유동인구 구성

- ‘충칭사범대학’ 과 ‘충칭대학교’ 가 해당 상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 유동인구는 학생들임. 소비력의 한계를 보이지만 소매판매액이 높음. 평일 유동인구는 약 25만 명이며 주말 유동인구는 약 30만 명임. 국가 공휴일의 유동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확인됨.

□ 식당 운영 현황

- 사천요리와 휘귀 전문점이 많은 편으로, 비교적 서양, 일본, 한국 등의 에스닉 식당 수가 적은 편이지만 고르게 분포해있음. 대부분의 일본 식당은 스시를 판매하며 서양 식당은 피자가 주요 메뉴임.
- 충칭 전체 상권 내 양자아핑 상권 다음으로 한식당 수가 적음. 샹핑바 상권 내 대부분의 한식당은 주로 ‘산시아광창’ 내 쇼핑몰센터 푸드코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대찌개 전문점인 ‘덕본가’, ‘일품미한식당’, ‘김한궁(고기구이 전문점)’ 이 있음.

2) 상권 외식산업 분석

가) 상권 외식산업 현황

□ 외식당 분포 현황

○ 외식당 분포

- 샹핑베이 상권의 외식당은 주요 백화점 시설인 ‘카이더광창’ 과 역 주상복합 시설인 ‘황화신지위엔’ 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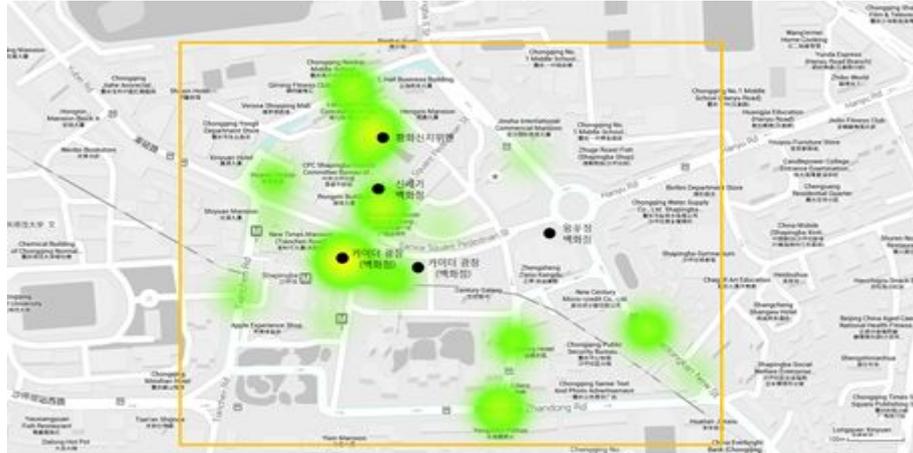
[샹핑바 상권 외식당 분포 지도]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분포

- 샤픽베이 상권에서 최근 1년간 창업한 식당은 ‘카이더광창’, ‘신세기백화점’, ‘황화신지위엔’ 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경향이 있음. 그 외의 지역은 골목마다 일부 외식당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남.

[샤픽바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분포 지도]¹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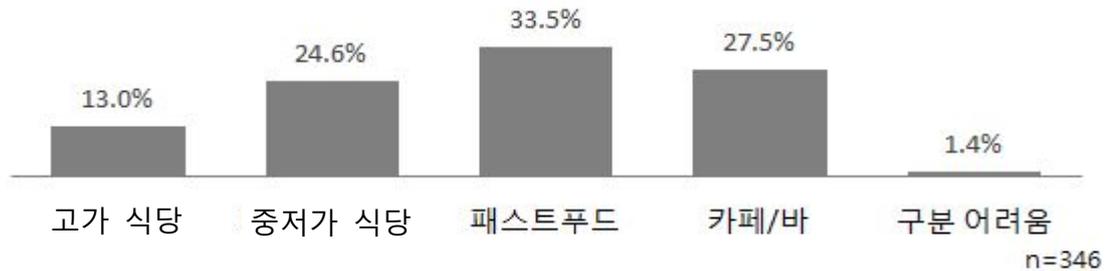


□ 업체별 식당 현황

○ 외식당 업체 구성

- 샤픽베이 상권에는 346개의 외식당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패스트푸드’의 비율이 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업체별로 ‘카페/바’와 ‘패스트푸드’가 각각 27.5%, 24.6%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고가 식당’도 13%의 비율을 차지함.

[샤픽바 상권 업체별 외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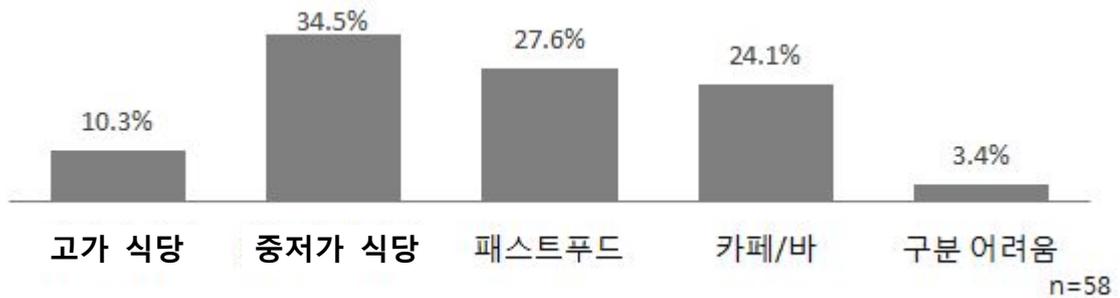


138)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 중 최근 1년('15. 4.~'16. 4.) 내에 리뷰가 최초로 등록된 식당만 별도 분석, 최초리뷰 등록 시점과 창업시점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구성

- 2015년에 창업한 외식당은 업태별로 ‘중저가 식당’, ‘카페/바’, ‘패스트푸드’가 24~34% 비율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그 중 ‘중저가 식당’의 비율이 34.5%로 가장 높은 비율임.
- ‘고가 식당’을 창업하는 비율은 10.3%을 차지함.

[샤핑바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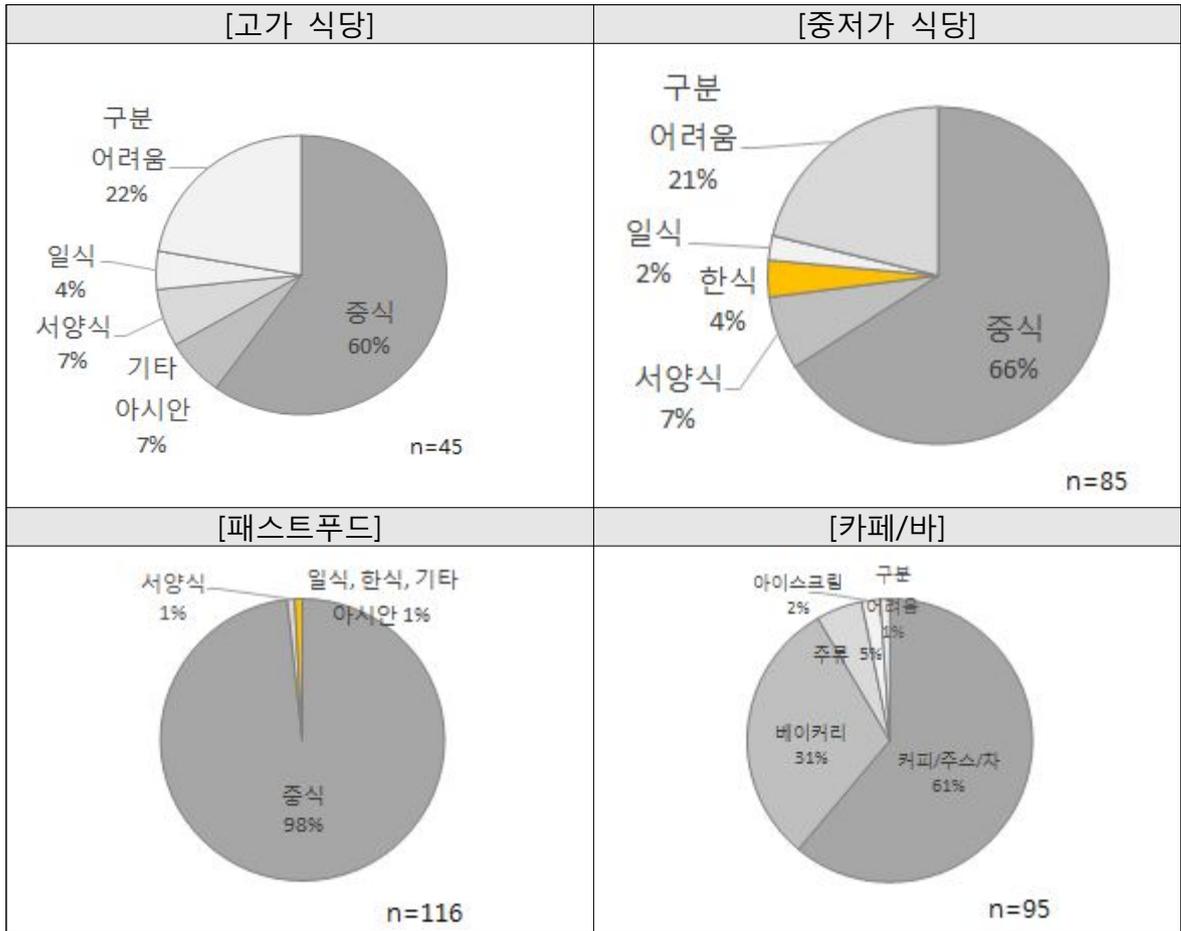


□ 업태 내 에스닉별 외식당 현황

○ 외식당 에스닉 구성

- 업태별로 ‘고가 식당’은 ‘중식’ 식당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양식’ 식당이 7%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은 ‘중식’ 식당이 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식’ 식당은 4%로 미미한 수준임.
- ‘패스트푸드’는 98% ‘중식’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서양식’ 식당과 ‘아시안’ 식당은 1% 남짓한 수준임.
- ‘카페/바’는 ‘커피/주스/차’가 주 메뉴인 식당이 61%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이커리’가 51%, ‘주류’가 5%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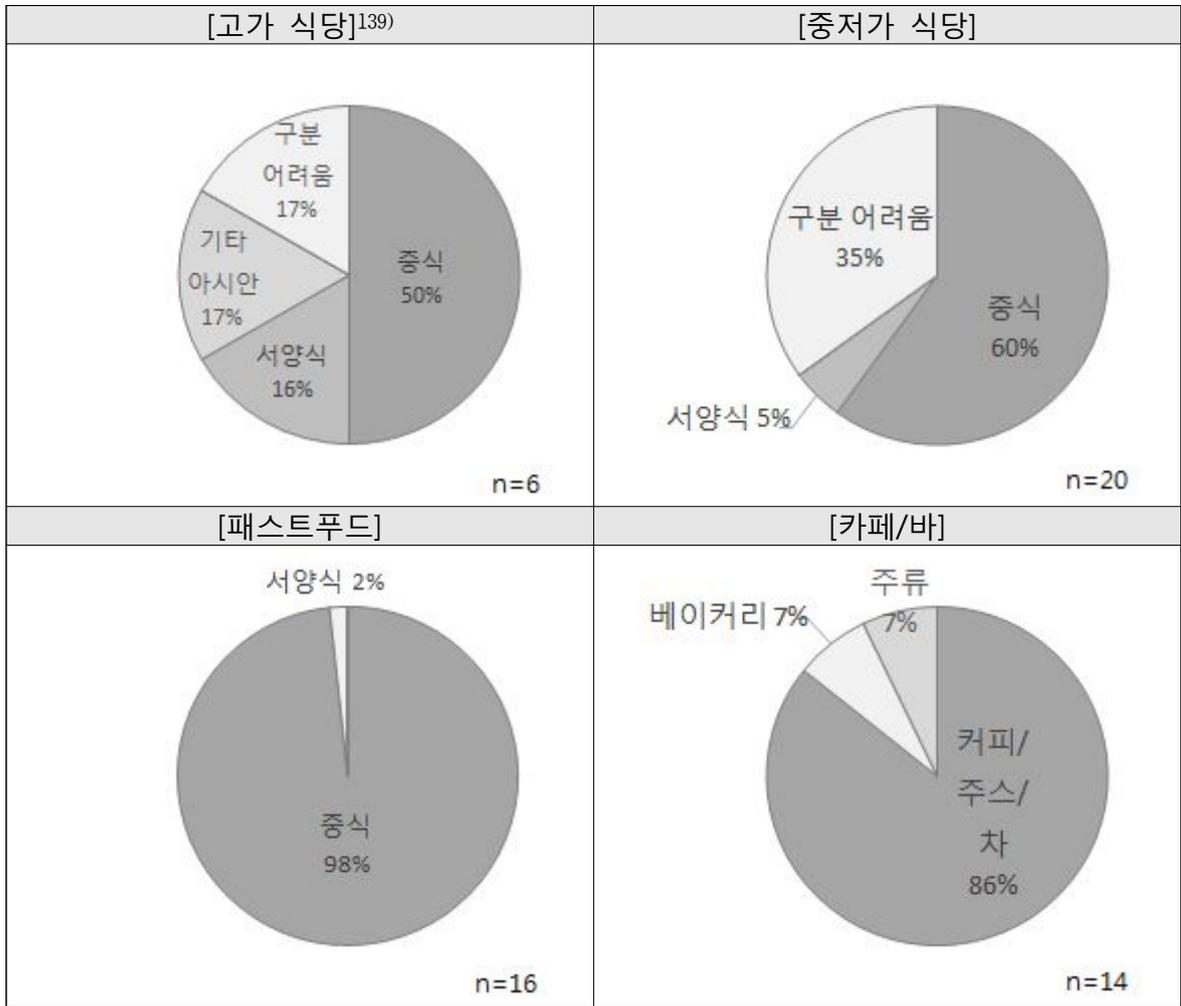
[샤핑바 상권 업태별 외식당 에스닉 구성]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에스닉 구성

- 업태별로 ‘고가 식당’ 을 창업하는 비율은 ‘중식’ 이 50%, ‘기타 아시안 ‘ 17%, 그 다음으로 ‘서양식’ 이 16%를 차지함.
- 창업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 은 ‘중식’ 식당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양식’ 식당이 5% 수준으로 창업함.
- ‘패스트푸드’ 는 대부분이 ‘중식’ 식당인 경향이 있음. 그 외 에스닉 식당은 ‘서양식’ 식당이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카페/바’ 의 창업 비율은 ‘커피/주스/차’ 가 주 메뉴인 식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베이커리’ 가 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샤핑바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에스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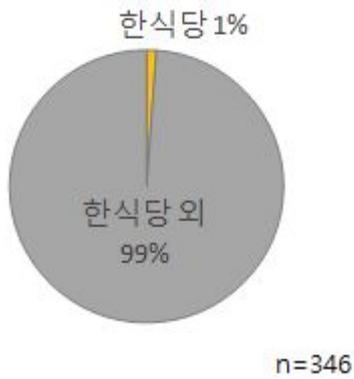
□ 한식당 현황

○ 한식당 비율 및 업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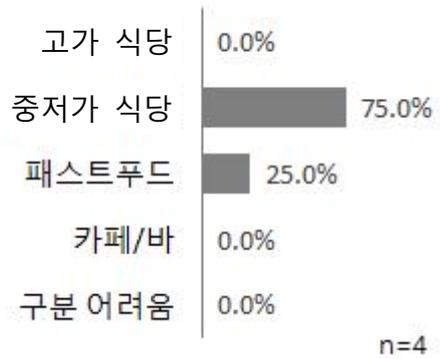
- 샤픽베이 상권에서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한식당은 업태별로 ‘중저가 식당’ 이 75%, ‘패스트푸드’ 25%로 구성되고 있음.

139)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전체 외식당 대비 한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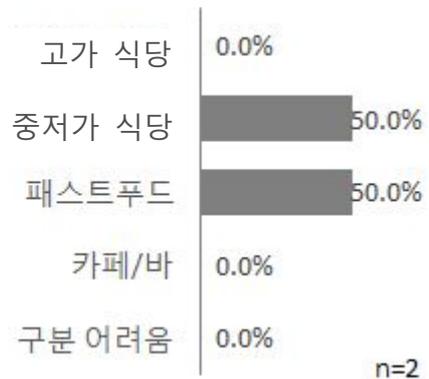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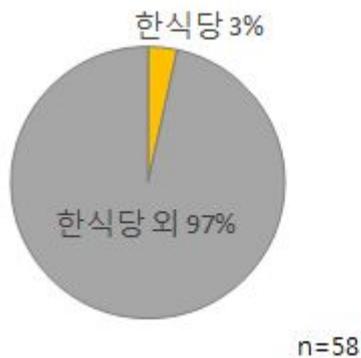
[업태별 한식당 비율]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 샵핑베이 상권에는 2015년에 전체 창업 식당 중 한식당은 3%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중저가 식당’ 과 ‘패스트푸드’ 는 각각 50%의 비율로 창업함.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비율]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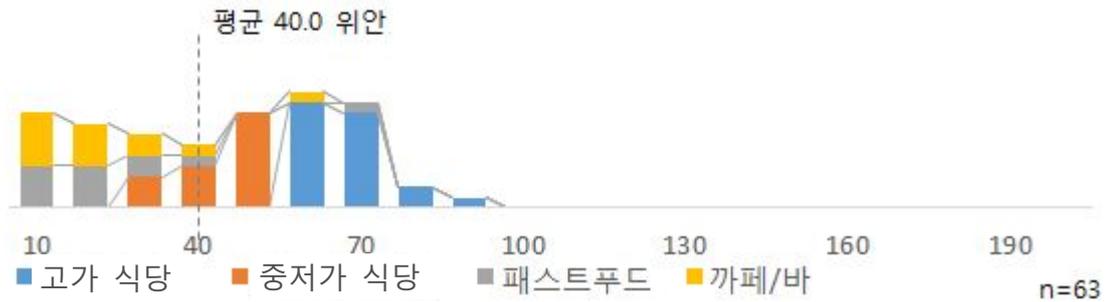


나) 상권 외식당 가격대 현황

□ 외식당 가격대 분포

- 샵핑베이 상권에 외식당의 가격대는 평균 ‘40.0위안’ 으로 파악됨.
- 주로 ‘30~90위안’ 의 가격대에 걸쳐 고루 분포되고 있으며, ‘30~50위안’ 의 증가 가격대는 주로 ‘중저가 식당’ 이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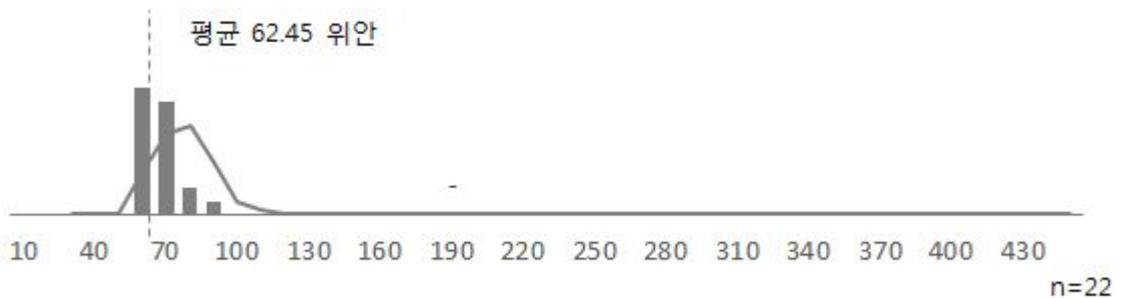
[샤핑바 상권 가격대별 외식당 분포]



□ 업체별 외식당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62.45위안’이며, 가격대는 주로 ‘40~80위안’의 가격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 ‘중저가 식당’의 가격대 분포가 ‘20~50위안’의 가격대에서 집중 분포되고 있으며, 평균 가격대는 ‘39.6위안’으로 형성되어 있음.
- ‘패스트푸드’의 가격대 분포는 주로 ‘10~40위안’의 가격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 가격대는 ‘20.2위안’임.
- ‘카페/바’의 평균 가격대는 ‘20.5위안’이며, 대부분의 가격 분포가 ‘10~40위안’에 분포되어 있음.

[샤핑바 상권 가격별 고가 식당 외식당 분포]



[샤핑바 상권 가격별 중저가 식당 외식당 분포]



[샤핑바 상권 가격별 패스트푸드 외식당 분포]



[샤핑바 상권 가격별 카페/바 외식당 분포]



○ 업체 내 에스닉별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

- ‘중저가 식당’의 ‘중식’ 식당인 경우 ‘30~50위안’의 가격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

[샤핑바 상권 가격대 분포 및 평균 - 중저가 식당]¹⁴⁰⁾

중식 (현지식)	<p>평균 37.5 위안</p> <p>n=11</p>
한식	<p>평균 30.0 위안</p> <p>n=1</p>
서양식	<p>평균 47.3 위안</p> <p>n=3</p>

140)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다) 상권 메뉴 가격대 현황

□ 메뉴 가격대 분포

- 외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28.6위안’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메뉴의 대부분이 ‘10~4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되고 있음.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 메뉴는 ‘10~40위안’ 의 가격대에 집중 분포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 메뉴는 ‘10~2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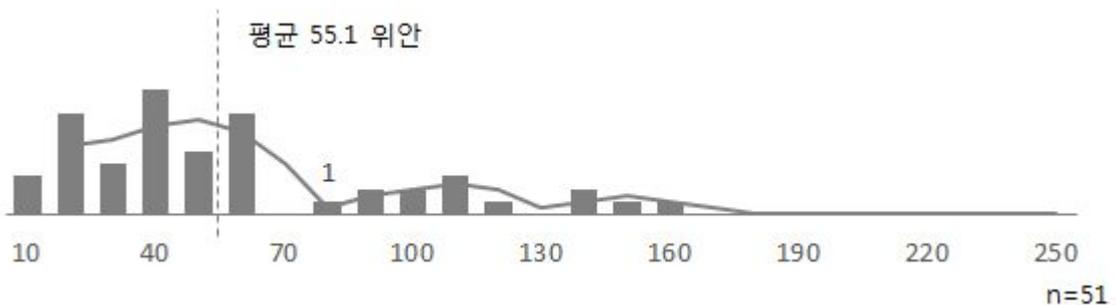
[쇼핑바 상권 전 메뉴 가격대 분포]



□ 업체별 메뉴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55.1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10~200위안’ 의 넓은 가격대에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음. 주로 ‘20~6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이룸.
- 식당 수가 가장 많은 ‘중저가 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25.5위안이며, 주로 ‘20~40위안’ 의 가격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
- ‘패스트푸드’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15.7위안’ 으로, 주로 ‘10~30위안’ 의 가격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가 형성하고 있음.
- ‘카페/바’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18.1위안’ 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10~40위안’ 의 가격대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쇼핑바 상권 고가 식당 메뉴 가격대 분포]



[샤핑바 상권 중저가 식당 메뉴 가격대 분포]



[샤핑바 상권 패스트푸드 메뉴 가격대 분포]



[샤핑바 상권 카페/바 메뉴 가격대 분포]



3) 상권 외식 소비자 분석

가)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7P 요소인 ‘음식’ 중에서 ‘맛(0.40회/건)’ 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양(0.08회/건)’, ‘향(0.05회/건)’, ‘식감(0.04회/건)’ 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에서는 ‘분위기’ 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 요소(0.09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며, 내부(0.06회/건) 및 외부 환경 요소(0.02회/건)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는 경향이 있음.
- 그 외 요소 중 ‘가격’ (0.19회/건)과 위치 요소 중 ‘접근성’ (0.03회/건)와 ‘교통 편의성’ (0.00회/건)이 타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음.

[쇼핑바 상권 7P 세부 요소별 언급 빈도]

(단위: 언급 빈도/리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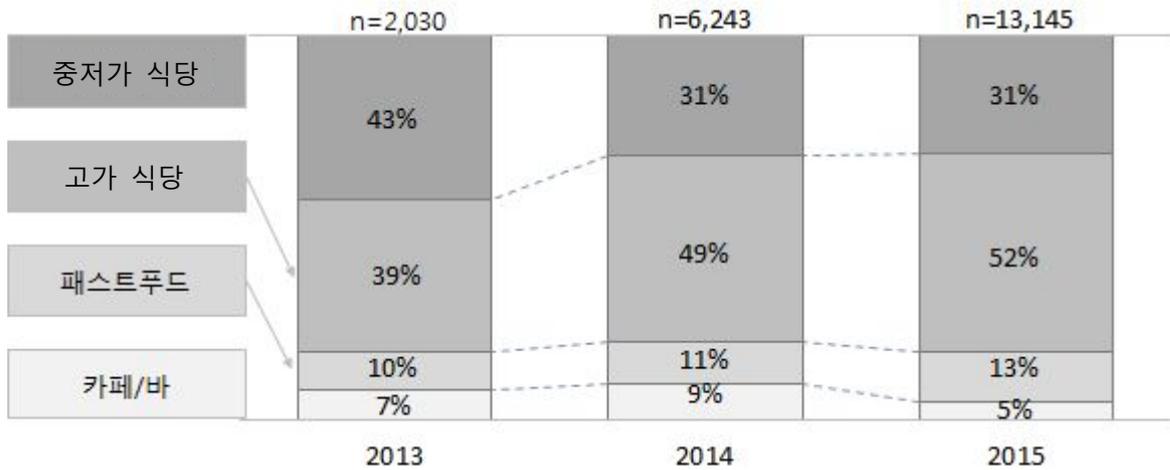
7P 요소	순위	7P 하위 요소	리뷰당 언급 빈도
음식	1	맛	0.40
	2	양	0.08
	3	향	0.05
	4	식감	0.04
가격	1	가격	0.19
위치	1	접근성	0.03
	2	교통편의성	0.00
	3	입지	0.00
프로모션	1	공동구매	1.34
	2	상품권/쿠폰	0.01
	3	혜택	0.01
	4	가격할인	0.01
물리적 환경	1	내부 디자인 요소	0.09
	2	내부 환경적 요소	0.06
	3	외부 환경적 요소	0.02
서비스	1	대기	0.03
	2	주문	0.01
	3	결제	0.01
	4	예약	0.01
종업원	1	종업원 태도	0.05
	2	사장님	0.01
	3	요리사	0.01
	4	복장/용모	0.00

나) 외식당 방문 형태

□ 업태별 리뷰 건수

- ‘중저가 식당’의 방문 비율은 2013년에 43%에서 2015년 31%로 타 업태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하는 추세임.
- 반대로 ‘고가 식당’의 경우 2013년 39%에서 2015년 52%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외 업태 식당은 비슷한 수준임.

[쇼핑바 상권 업체별 리뷰 비율(13년~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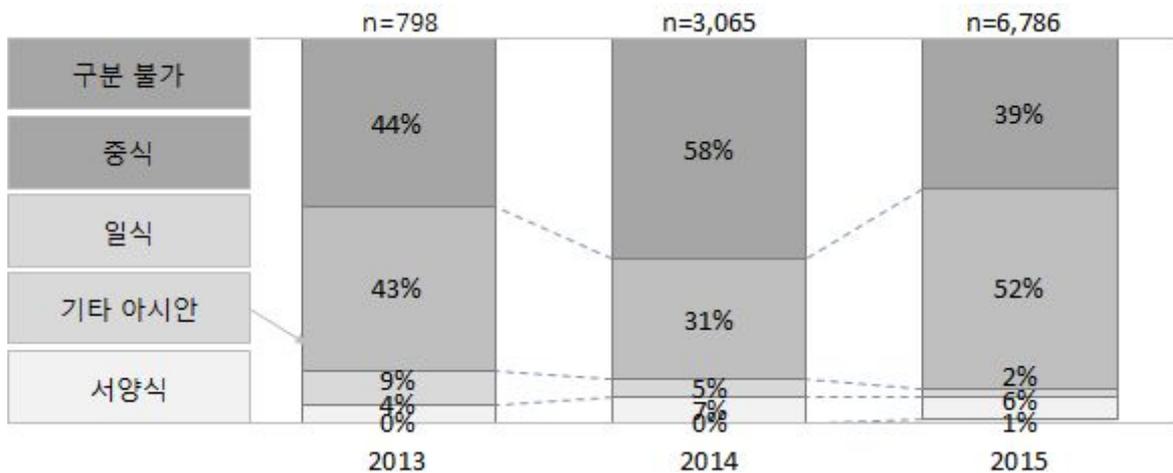


□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 에스닉별로 ‘중식’ 식당의 방문 비율이 2013년 43%에서 2014년 31%로 크게 감소했으나, 2015년에 52%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임.
- 퓨전음식이나 뷔페류를 판매하는 ‘구분 불가’ 식당의 방문 비율은 2013년 44%에서 2014년 58%로 크게 상승했으나, 2015년 39%로 다시 감소하였음.
- ‘일식’ 식당은 2013년 9%에서 2015년 2%로 방문 비율이 감소한 반면, ‘서양식’ 식당은 2013년 4%에서 2015년 6%로 소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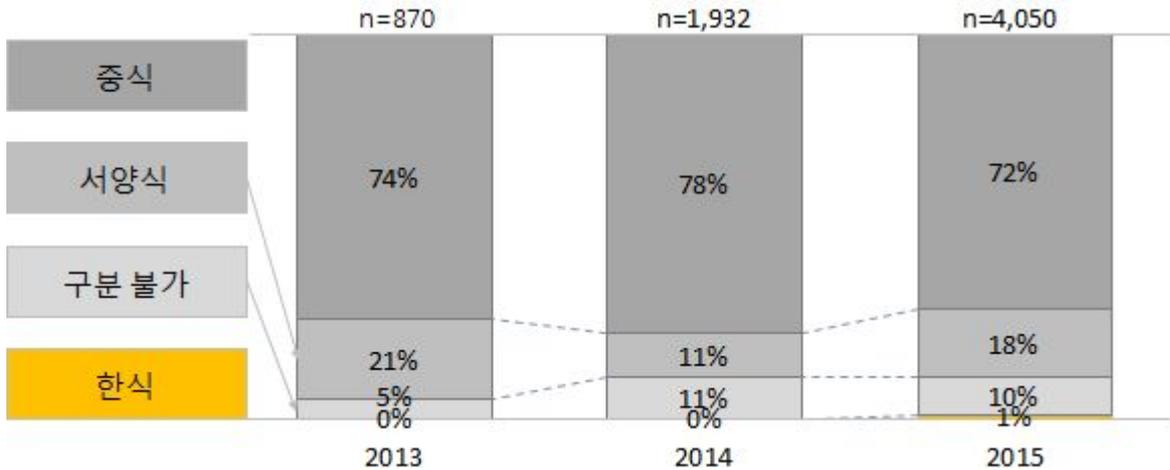
[쇼핑바 상권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 중저가 식당

- ‘중식’ 식당의 방문 비율은 2013년 74%에서 2015년 72%로 큰 변화는 없었음. 또한 ‘서양식’ 식당도 2013년 21%에서 2015년 18%로 방문 비율 상 큰 변화는 없음.
- 퓨전음식과 뷔페를 판매하는 ‘구분 불가’ 식당은 5%에서 10%로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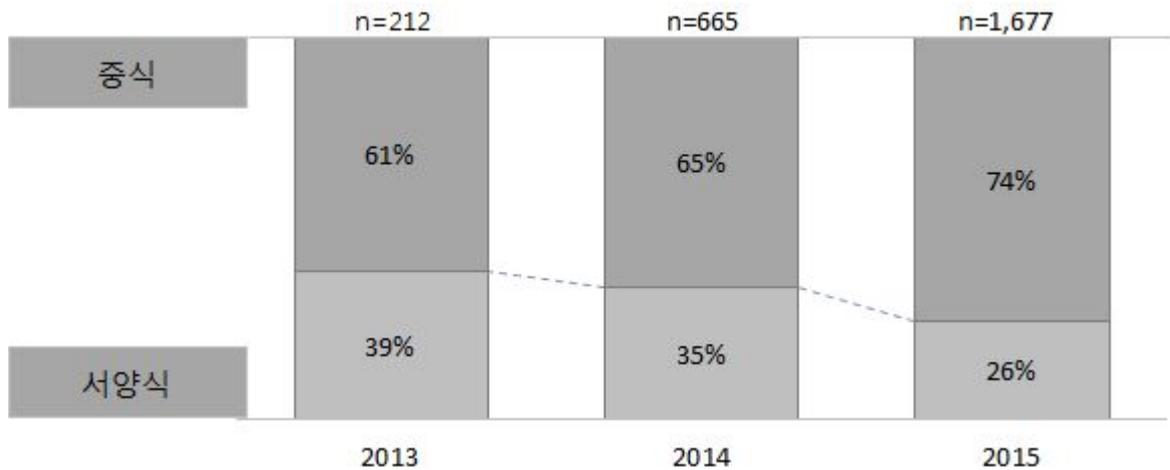
[쇼핑바 상권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중저가 식당]



○ 패스트푸드

- ‘패스트푸드’ 의 경우 ‘중식’ 식당의 방문 비율이 2013년 61%에서 2015년 74%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서양식’ 식당은 2013년 39%에서 2015년 26%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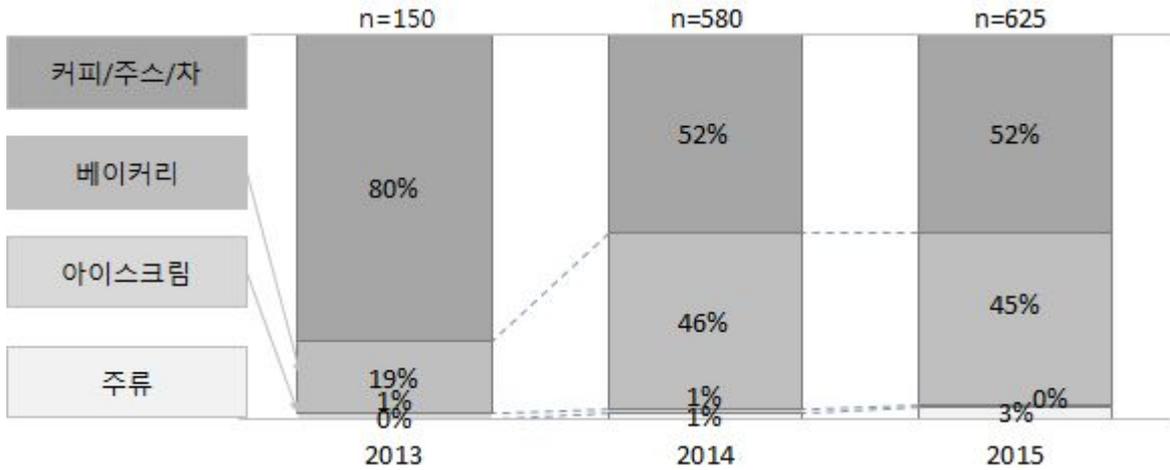
[쇼핑바 상권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비율- 패스트푸드]



○ 카페/바

- ‘커피/주스/차’가 주 메뉴인 식당이 2013년 80%에서 2015년 52%로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하는 추세임.
- 반대로 ‘베이커리’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식당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나머지 업종은 2013년부터 2015년간 미미한 수준의 변화를 보임.

[샤핑바 상권 업태 내 업종별 리뷰 건수 - 카페/바]



다)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의 가격대는 ‘10~70위안’의 넓은 가격대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이 ‘48.7위안’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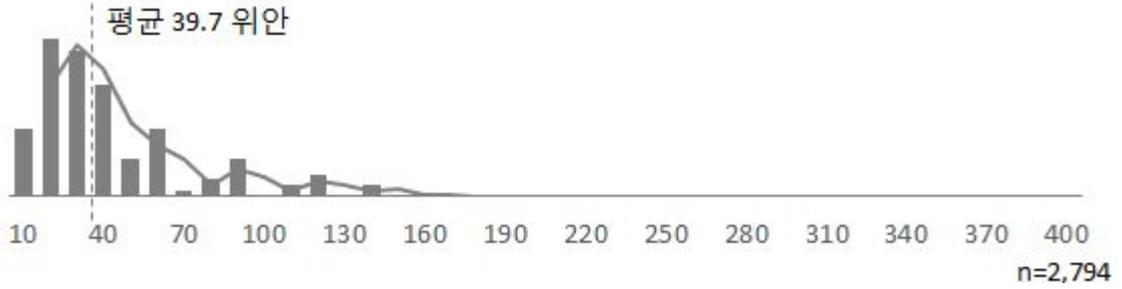
[샤핑바 상권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라)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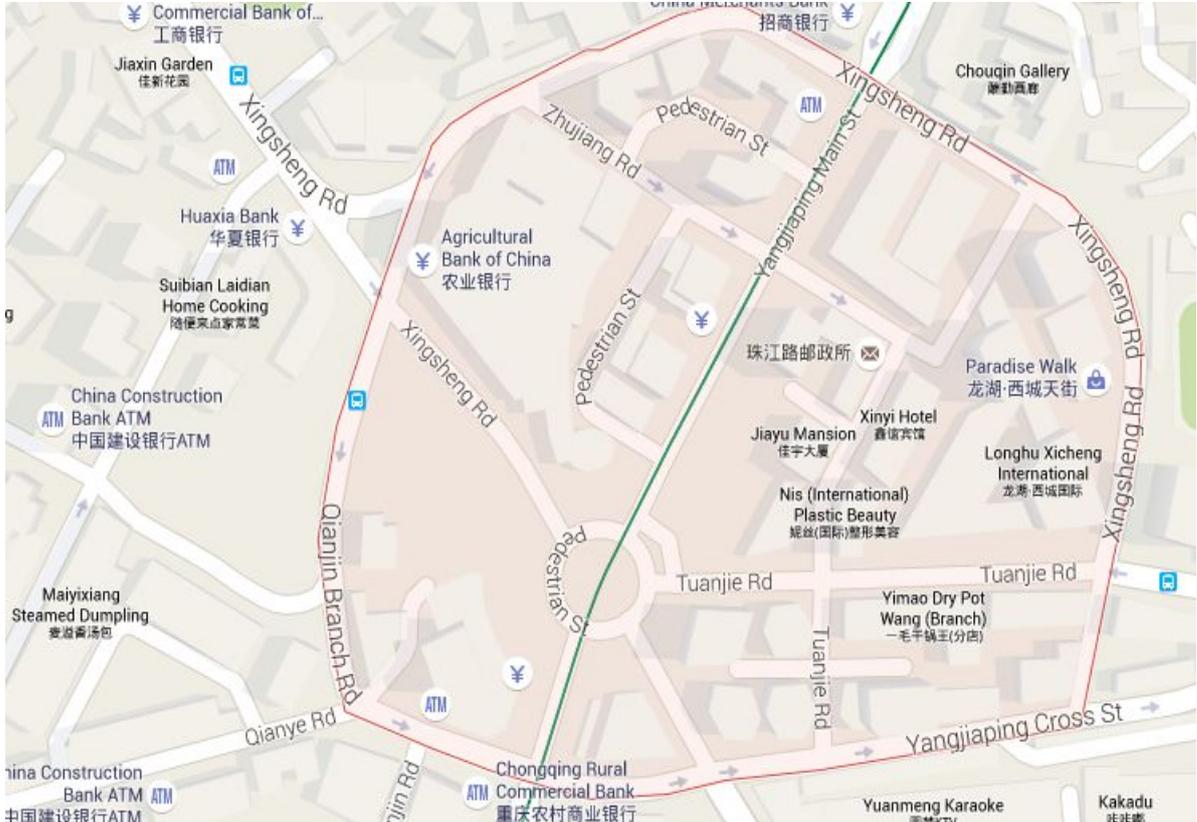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추천 메뉴의 가격대는 주로 ‘20~40위안’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이 ‘39.7위안’인 것으로 나타남.

[샤핑바 상권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6.1 양지아핑(杨家坪)

1) 상권 개요



교통	지하철역	양지아핑역
	버스 정거장	양지아핑역, 양지아핑스창루(杨家坪石杨路)역 등
주요 집객시설	다양백화점(大洋百货), 푸안백화점(富安百货)가르푸, 월마트 등	
주요 거리명	치엔진루(前进路), 양지아핑정루(杨家坪正街), 시지아루(西郊路) 등	

□ 상권 구성

- 거주 지역 주변 대형 상권으로 거주민을 위하여 아름답게 조성된 거리가 위치함. 이 거리는 충칭에서 가장 고급의 보행자 거리라고 불리며 주변으로 유명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이 즐비함. 또한 충칭 내 교통이 가장 순조로운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상권 기반 시설이 개선되어 있음.

□ 유동인구 구성

- 양지아핑 상권의 경우, 주 유동인구는 현지 지역 거주민들이었지만, 모노레일이 건설되어 타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평일 유동인구는 약 30만 명이며 주말 유동인구는 약 40만 명임. 국가 공휴일의 유동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확인됨.

□ 식당 운영 현황

- 타 상권에 비하여 거주인구가 많아, 현지인에게 친숙한 사천 요리 및 휘귀 전문점의 수가 많고 기타 에스닉 식당이 적은 편임. 식당은 주로 대형 쇼핑센터 푸드코트 내에 위치함.
- 충청 전체 상권 내 양지아핑에 위치한 한식당 수는 가장 적으며, 모든 한식당은 프랜차이즈 분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주요 한식당 중 고기구이 전문점은 ‘한국팔색고기구이’, ‘한라산’, ‘PANKOO부산요리’가 있으며 ‘페리카나 치킨(치킨 전문점)’ 등이 위치해 있음.

2) 상권 외식산업 분석

가) 상권 외식당 현황

□ 외식당 분포 현황

○ 외식당 분포

- 양지아핑 상권의 외식당은 주로 ‘보행자거리’와 ‘시청 티엔지에’ 주변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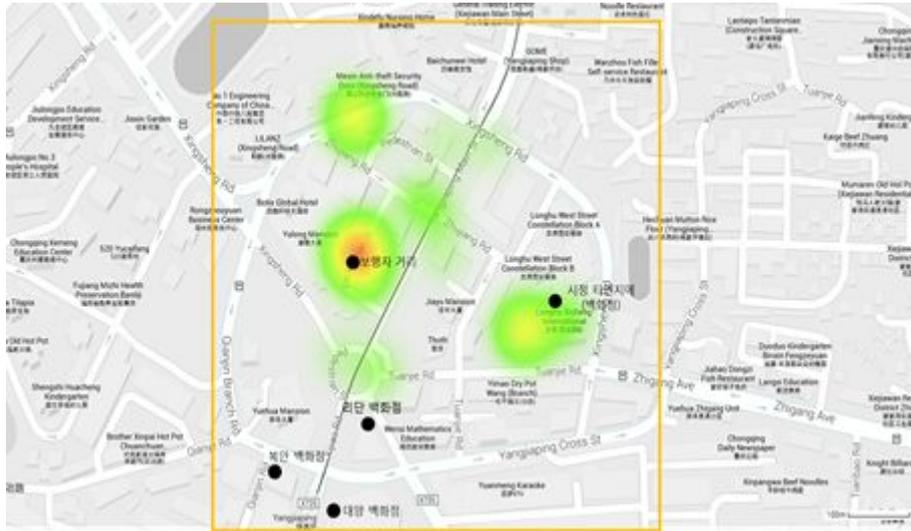
[양지아핑 상권 외식당 분포 지도]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구성

- 양ジア핑 상권에서 최근 1년간 창업한 식당은 주로 ‘보행자거리’ 주변으로 창업하는 경향이 있음. 그 외 ‘시청티엔지에 백화점’에서 창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지역은 일부 외식당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남.

[양ジア핑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 등록 외식당 분포 지도]¹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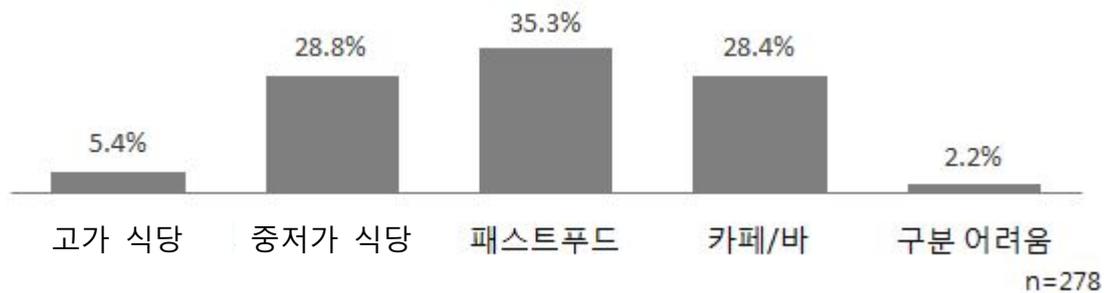


□ 업태별 외식당 현황

○ 외식당 업태 구성

- 양ジア핑 상권에는 278개의 외식당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패스트푸드’의 비율이 3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업태별로 ‘패스트푸드’와 ‘카페/바’의 비율은 28%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음.

[양ジア핑 상권 업태별 외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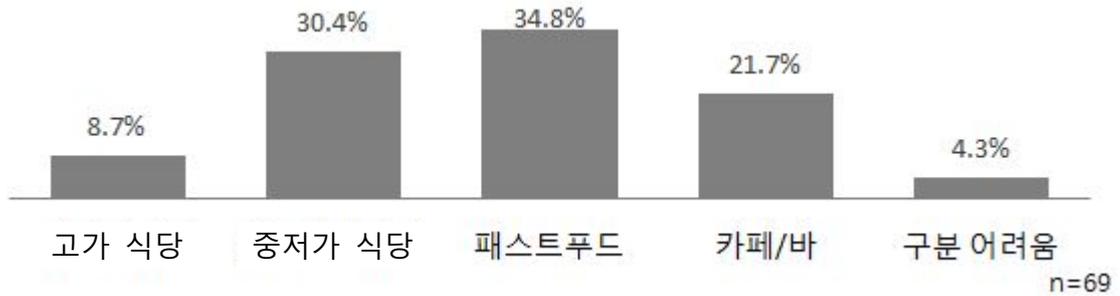


141)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록된 식당 중 최근 1년('15. 4.~'16. 4.) 내에 리뷰가 최초로 등록된 식당만 별도 분석, 최초리뷰 등록 시점과 창업시점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업태 구성

- 2015년에 창업한 외식당은 업태별로 ‘패스트푸드’가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카페/바’의 창업 비율도 30.4%로 ‘패스트푸드’와 유사한 수준임. ‘카페/바’의 창업 비율은 21.7%의 비율을 차지함.
- ‘고가 식당’을 창업하는 비율은 8.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

[양지아핑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업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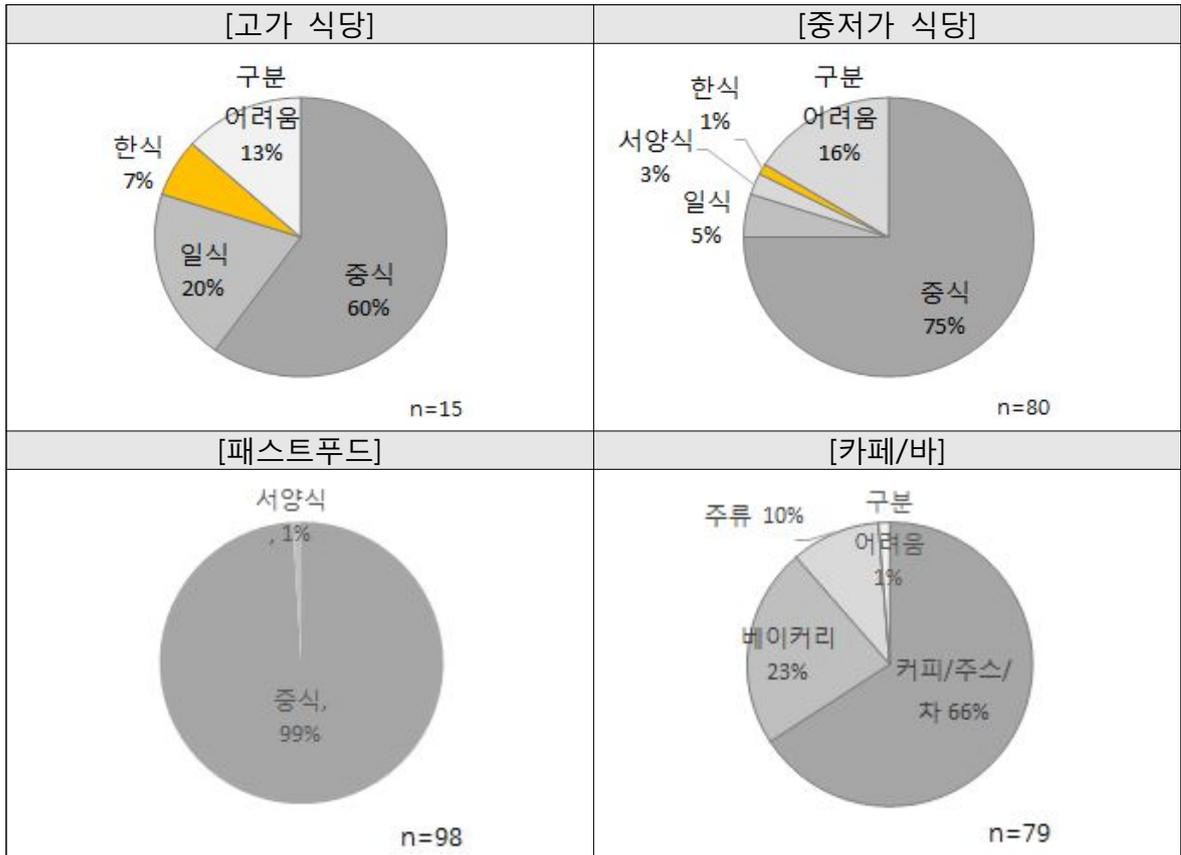


□ 업태 내 에스닉별 외식당 현황

○ 외식당 에스닉 구성

- 업태별로 ‘고가 식당’은 ‘중식’ 식당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식’ 식당은 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중저가 식당’은 ‘중식’ 식당의 비율이 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양식’ 식당이 3%, ‘일식’ 식당이 5%, ‘한식’ 식당이 1% 수준임.
-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중식’ 식당으로 99%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카페/바’의 경우, ‘커피/주스/차’가 주 메뉴인 식당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베이커리’가 23%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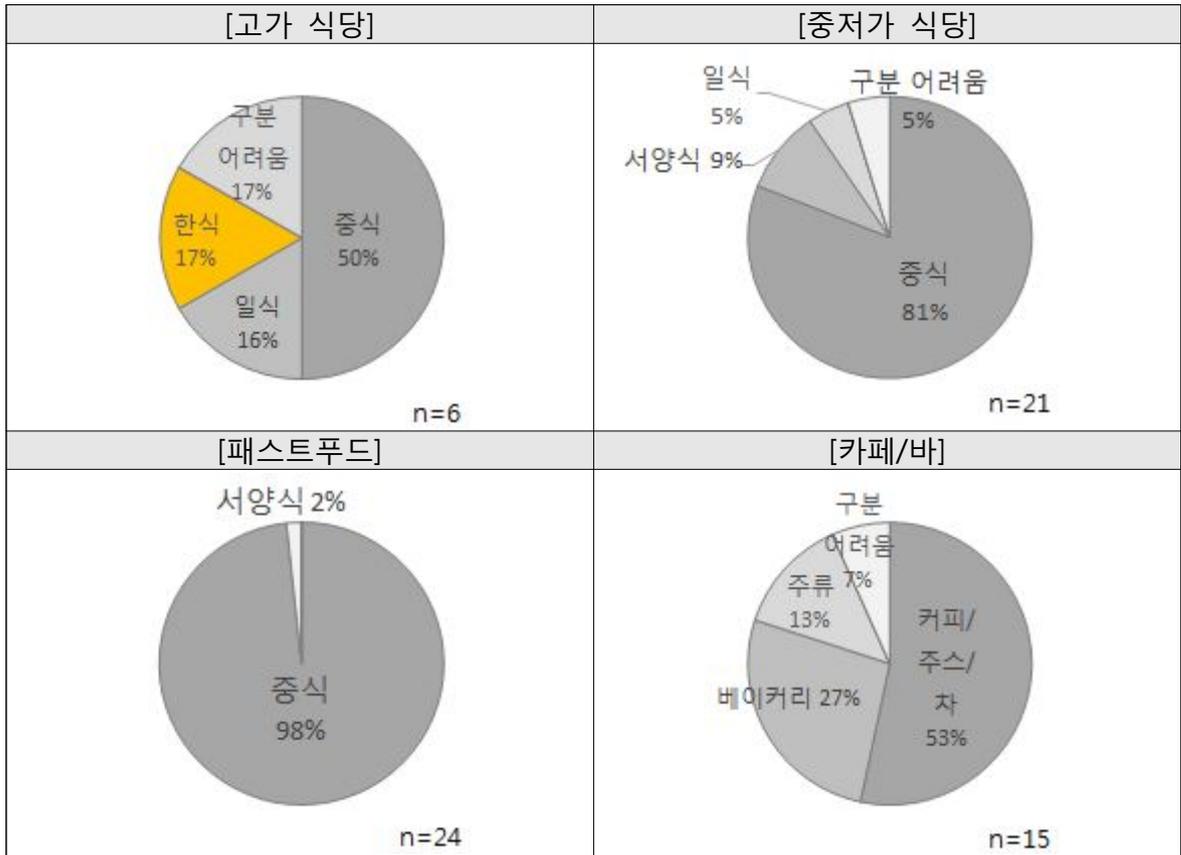
[양지아핑 상권 업태별 외식당 에스닉 구성]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에스닉 구성

- ‘고가 식당’ 은 ‘중식’ 식당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식’ 식당이 17%의 창업 비율을 차지함.
- ‘중저가 식당’ 은 ‘중식’ 식당이 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양식’ 과 ‘일식’ 이 각각 9%, 5%로 미미한 수준임.
- ‘패스트푸드’ 는 대부분이 ‘중식’ 식당인 경향이 있음. 그 외 에스닉 식당 중 ‘서양식’ 식당이 2%로 타 업태에 비해 ‘중식’ 식당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카페/바’ 의 창업 비율은 타 상권과 다르게 ‘베이커리’ 가 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을 하는 경향이 있음.

[양지아핑 상권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의 에스닉 비율]¹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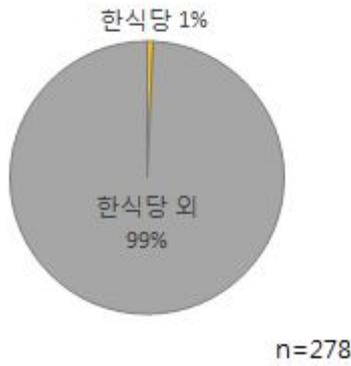
□ 한식당 현황

○ 한식당 비율 및 업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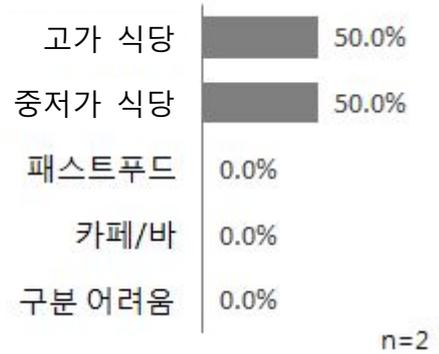
- 양지아핑 상권에서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1%로 다른 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 한식당은 업태별로 ‘중저가 식당’ 과 ‘패스트푸드’ 가 각각 50.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142)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전체 외식당 대비 한식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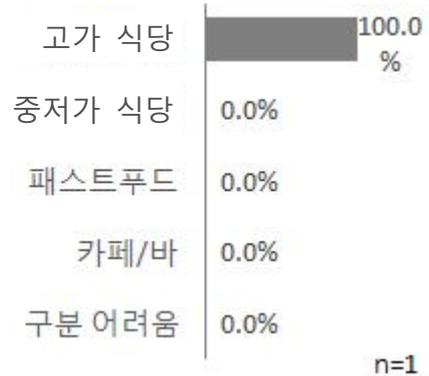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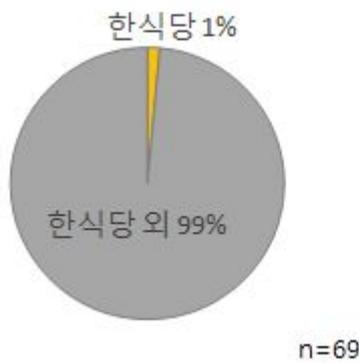
[업태별 한식당 비율]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 양지아평 상권에 창업한 한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며, 창업한 한식당은 하나이며, 업태는 ‘고가 식당’으로 나타남.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비율]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업태]



나) 상권 외식당 가격대 현황

□ 외식당 가격대 분포

- 양지아평 상권 외식당의 가격대는 평균 ‘35.9위안’으로 파악됨.
- 주로 ‘20~70위안’의 가격대에 외식당 분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그 가격대의 외식당은 주로 저가는 ‘카페/바’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으며, 중가는 ‘중저가 식당’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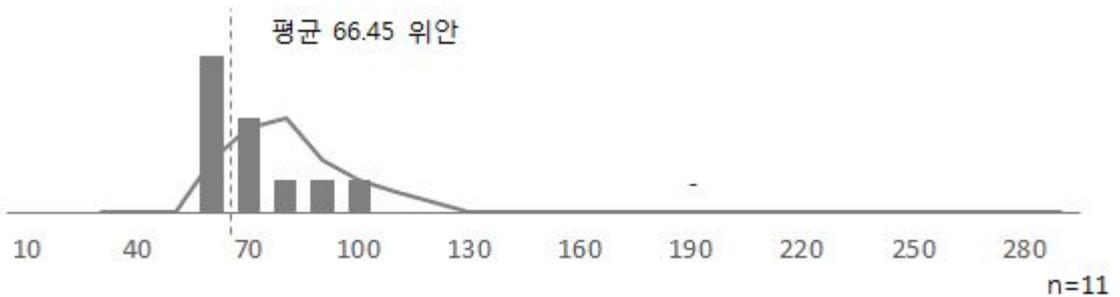
[양지아핑 상권 가격대별 외식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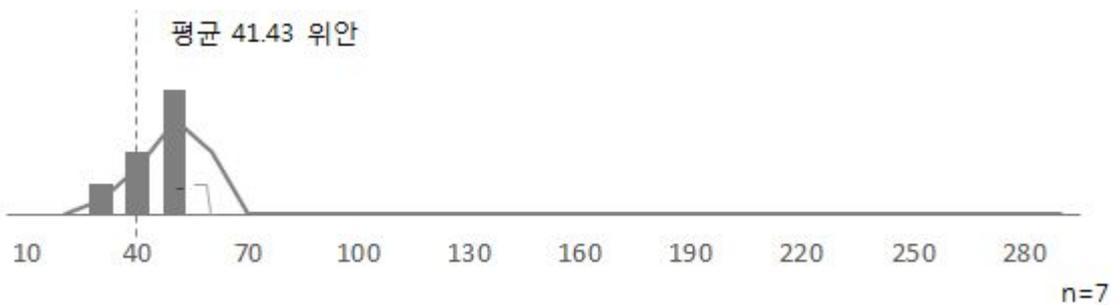
□ 업체별 외식당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66.5위안’이며, 주로 ‘50~60위안’의 가격대에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중저가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41.4위안’이며, 주로 ‘30~40위안’의 가격대에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패스트푸드’의 평균 가격대는 ‘13.4위안’이며, ‘10~20위안’의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
- ‘카페/바’의 평균 가격대는 ‘22.5위안’이며, 대부분 ‘10~20위안’에 분포하고 있음.

[양지아핑 상권 가격별 고가 식당 외식당 분포]



[양지아핑 상권 가격별 중저가 식당 외식당 분포]



[양지아핑 상권 가격별 패스트푸드 외식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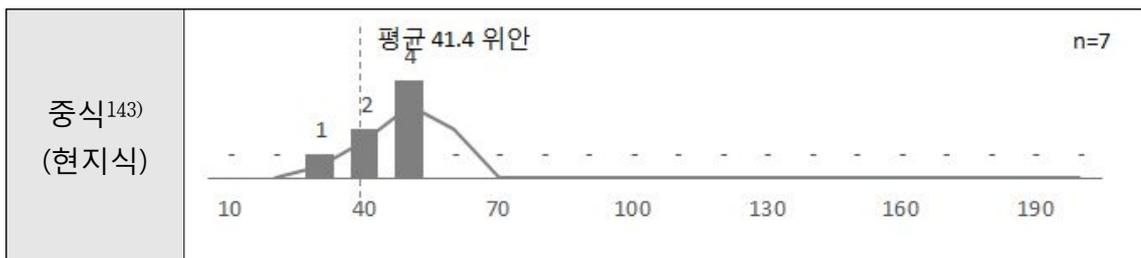
[양지아핑 상권 가격별 카페/바 외식당 분포]



□ 업체 내 에스닉별 가격대 분포 - 중저가 식당

- ‘중저가 식당’은 ‘중식’의 평균 가격대는 ‘41.4위안’으로 형성하고 있음. ‘중식’ 식당의 평균 가격대는 ‘58.9위안’으로 나타남.

[양지아핑 상권 가격대 분포 및 평균 - 중저가 식당]



중식¹⁴³⁾
(현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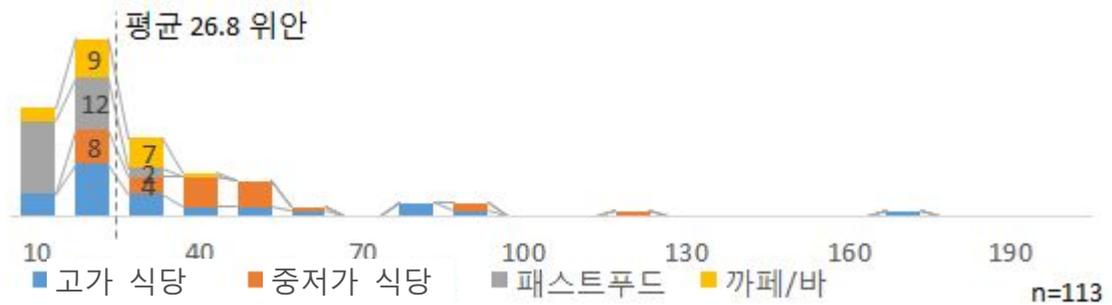
143) 샘플 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

다) 상권 메뉴 가격대 현황

□ 메뉴 가격대 분포

- 외식당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은 ‘26.8위안’이며, 메뉴의 대부분이 ‘10~50위안’의 가격대에 분포되고 있음. 그 중 ‘10~20위안’ 가격대에서는 주로 ‘패스트푸드’의 비율이 타 업태 식당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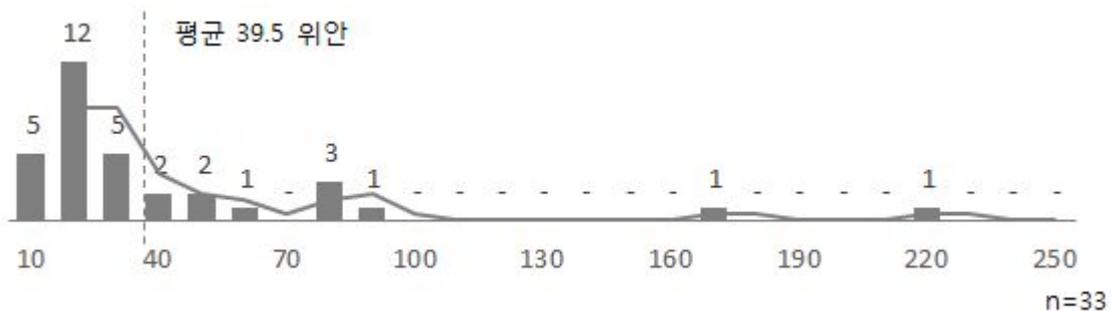
[양지아핑 상권 전 메뉴 가격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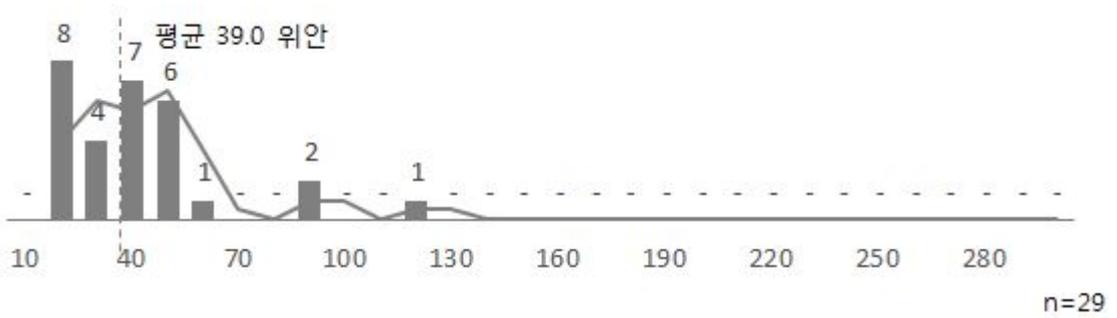
□ 업태별 메뉴 가격대 분포

- ‘고가 식당’은 메뉴의 분포가 ‘10~220위안’의 넓은 가격대에 분포되고 있으나, ‘중저가 식당’과 유사하게 ‘10~70위안’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평균 가격대는 ‘39.5위안’으로 나타남.
- ‘중저가 식당’은 메뉴의 분포가 ‘10~100위안’의 가격대에 주로 분포되고 있으며, 특히 ‘20~50위안’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평균 가격대는 ‘39.0위안’으로 나타남.
- ‘패스트푸드’는 주요 메뉴의 평균 가격이 10.7위안으로 주로 ‘10~20위안’의 가격대에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음.
- ‘카페/바’의 경우 메뉴의 분포가 ‘10~40위안’의 넓은 가격대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메뉴의 평균 가격은 ‘18.0위안’으로 형성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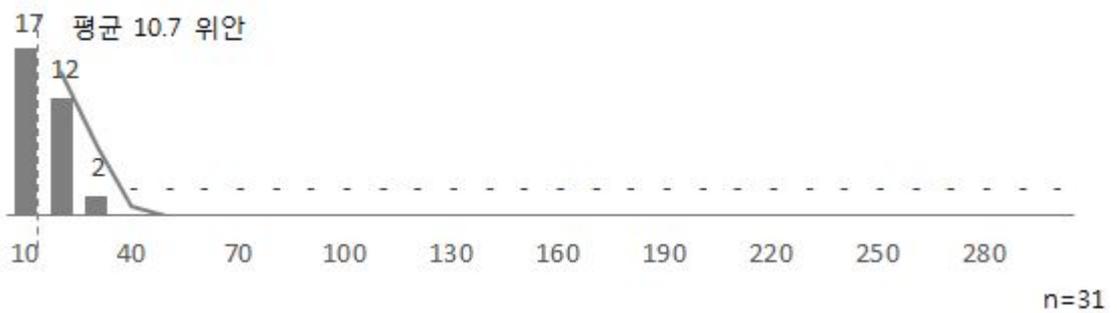
[양지아핑 상권 고가 식당 메뉴 가격대 분포]



[양지아핑 상권 중저가 식당 메뉴 가격대 분포]



[양지아핑 상권 패스트푸드 메뉴 가격대 분포]



[양지아핑 상권 카페/바 메뉴 가격대 분포]



3) 상권 외식 소비자 분석

가)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 7P 요소인 ‘음식’ 중에서 ‘맛(0.44회/건)’ 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며, ‘양(0.09회/건)’, ‘향(0.08회/건)’, ‘식감(0.07회/건)’ 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에서는 ‘분위기’ 를 포함한 ‘내부 디자인 요소(0.11회/건)’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되며, 내부(0.09회/건) 및 외부 환경 요소(0.02회/건)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는 경향이 있음.

- 그 외 요소 중 ‘가격’ (0.19회/건)과 위치 요소 중 ‘접근성’ (0.01회/건)와 ‘입지’ (0.05회/건)가 타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음.

[양지아핑 상권 7P 세부 요소별 언급 빈도]

(단위: 언급 빈도/리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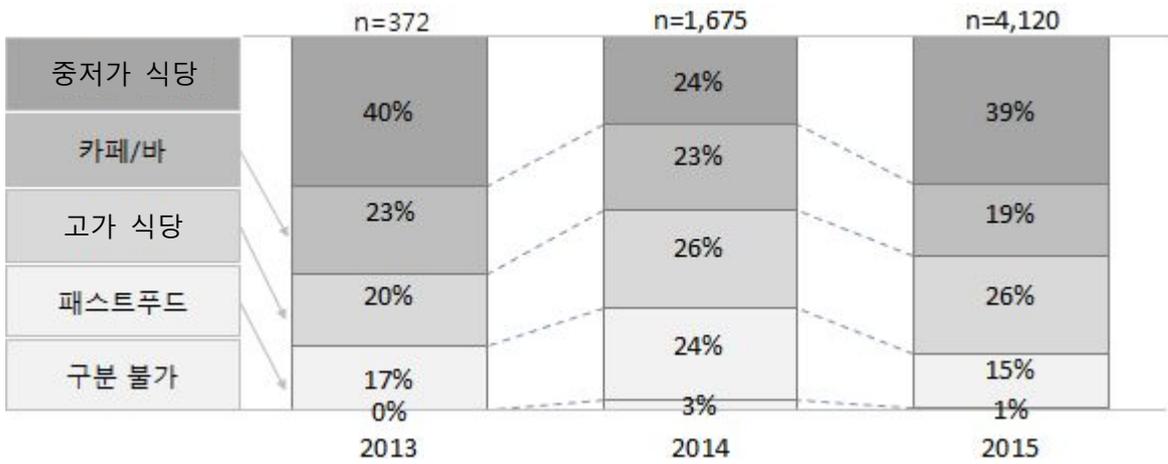
7P 요소	순위	7P 하위 요소	리뷰당 언급 빈도
음식	1	맛	0.44
	2	양	0.09
	3	향	0.08
	4	식감	0.07
가격	1	가격	0.19
위치	1	접근성	0.05
	2	입지	0.01
	3	교통편의성	0.01
프로모션	1	공동구매	1.22
	2	시식	0.01
	3	가격할인	0.01
	4	상품권/쿠폰	0.01
물리적 환경	1	내부 디자인 요소	0.11
	2	내부 환경적 요소	0.09
	3	외부 환경적 요소	0.02
서비스	1	대기	0.02
	2	주문	0.02
	3	결제	0.01
	4	예약	0.01
종업원	1	종업원 태도	0.07
	2	사장님	0.02
	3	요리사	0.01
	4	복장/용모	0.01

나) 외식당 방문 형태

□ 업태별 리뷰 건수

- 외식당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중저가 식당’ 은 그 비율이 2013년 40%에서 2014년 24%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2015년 39%로 증가하였음.
- 반면에 ‘고가 식당’ 의 방문 비율은 2013년 20%에서 2015년 26%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 외 업태에서는 ‘카페/바’ 는 2013년에 비해 19%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패스트푸드’ 는 15% 수준으로 소폭 감소함.

[양지아핑 상권 업체별 리뷰 건수 ('13년~'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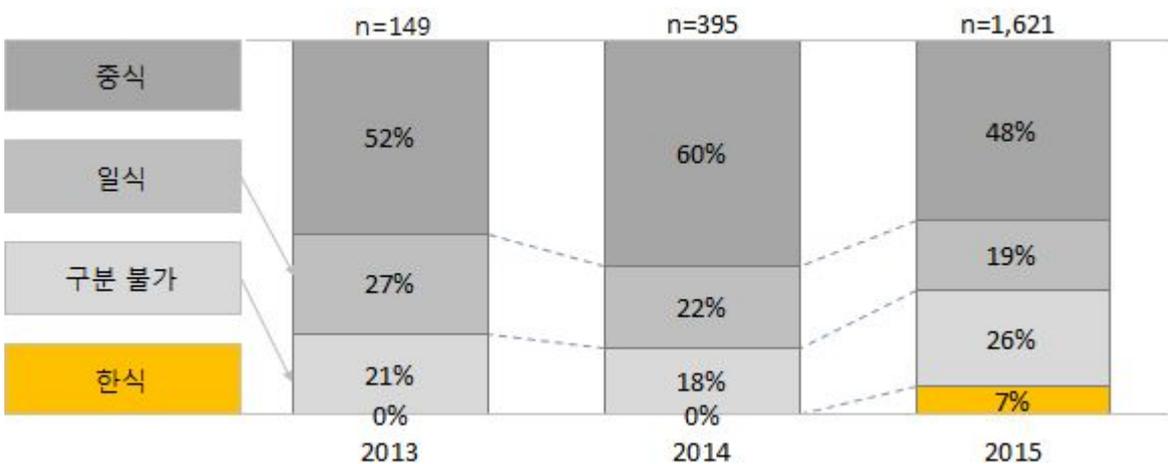


□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 ‘고가 식당’ 에서 방문 비율이 가장 높은 ‘중식’ 식당은 2013년 52%에서 2014년 60%로 방문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 48%로 다시 감소하였음.
- ‘일식’ 식당도 2013년 27%에서 2015년 19%로 방문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반대로 ‘구분불가’ 식당들은 2013년 대비 방문 비율이 증가하였음.
- ‘한식’ 식당은 2013년은 방문 비율이 낮았으나, 2015년 7%로 방문 비율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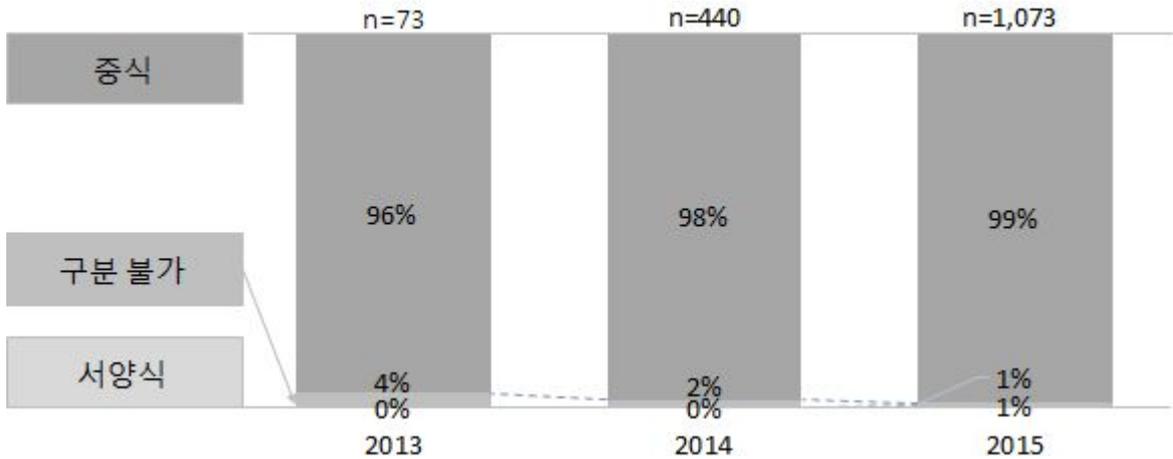
[양지아핑 상권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고가 식당]



○ 중저가 식당

- ‘중식’ 식당의 방문 비율은 2013년 96%에서 2015년 99%로 거의 100%에 수렴하고 있으며, 그 외 타 에스닉 외식당의 방문 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미한 수준임.
- 그 외 에스닉 식당은 2013년~2015년에 비슷한 비율인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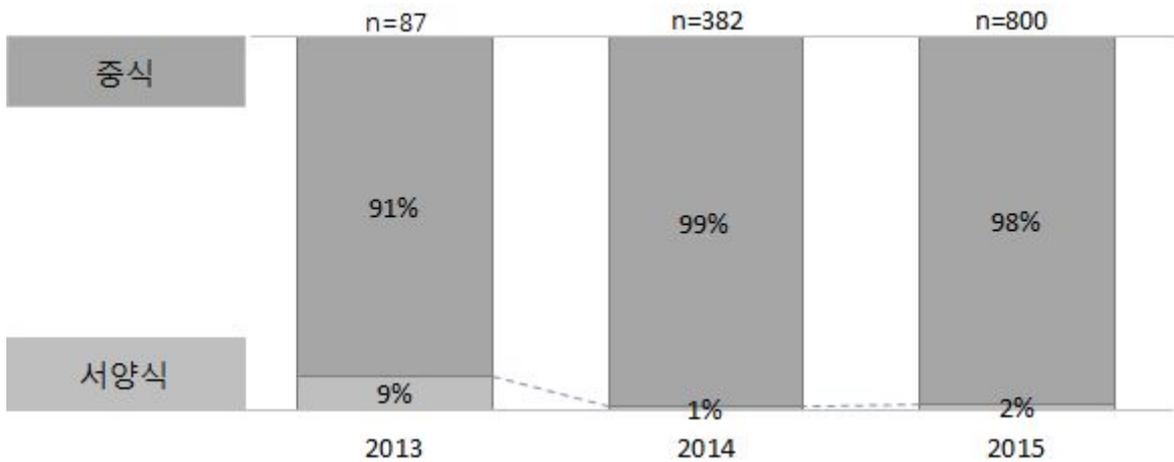
[양지아핑 상권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중저가 식당]



○ 패스트푸드

- ‘패스트푸드’ 에서 ‘서양식’ 식당이 2013년 9%에서 2015년 0%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면 ‘중식’ 식당은 91%에서 98%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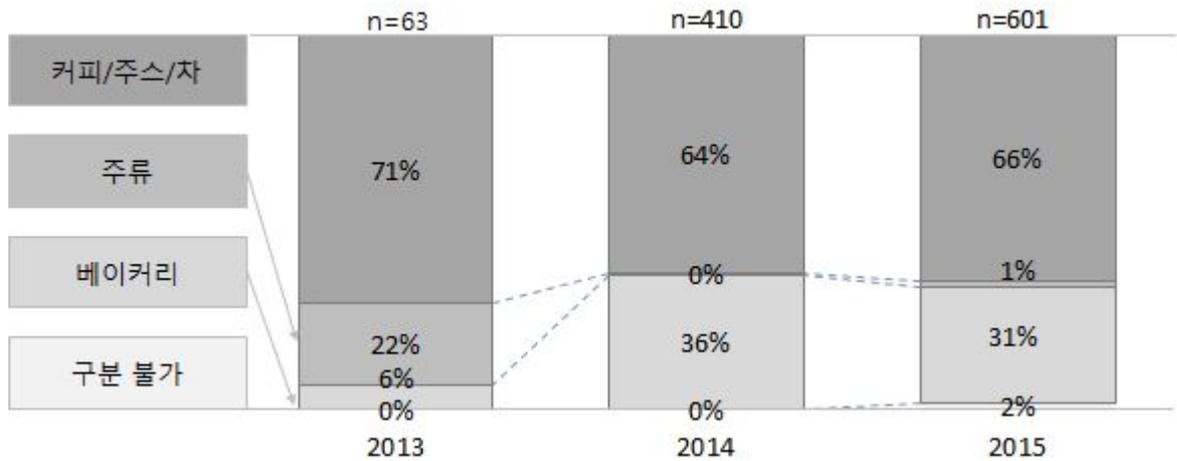
[양지아핑 상권 업태 내 에스닉별 리뷰 건수 - 패스트푸드]



○ 카페/바

- ‘카페/바’ 에서 방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커피/주스/차’ 가 업종 식당은 2013년 71%에서 2015년 66%로 방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 ‘주류’ 업종은 2013년 22%에서 2015년 1%로 크게 감소하였음.
- 반대로 ‘베이커리’ 업종은 2013년 6%에서 2015년 31%로 방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

[양지아핑 상권 업태 내 업종별 리뷰 건수 - 카페/바]



다)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의 가격대는 주로 ‘50~70위안’ 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이 ‘48.1위안’ 으로 나타남.

[양지아핑 상권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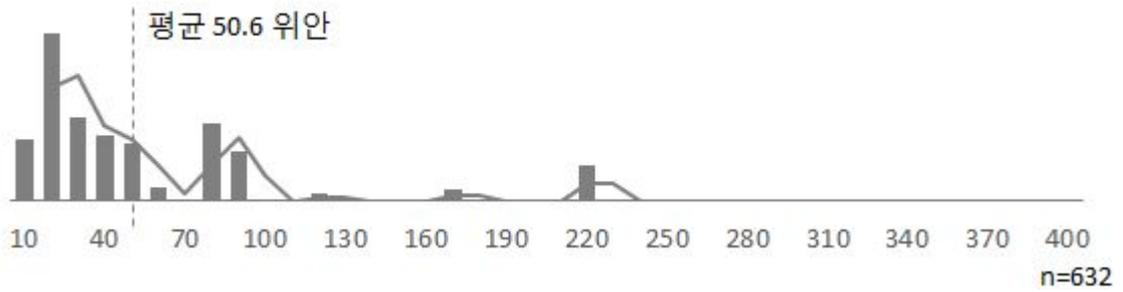


라)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 추천 가격대는 주로 ‘20~90위안’ 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이 ‘50.6위안’ 인 것으로 나타남.

[양지아핑 상권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제7장 실무 정보

1. 한식당 창업 실무정보
2. 한식당 운영 실무정보

VII. 실무 정보

1. 한식당 창업 실무정보

1.1 사업자 등록 절차

1) 개인사업자

□ 개인 사업자 등록 규정

- ‘중국 도농 개인사업자 관리 잠정 조례 실시세칙(中国城乡个体工商户管理暂行条例实施细则)’ 제 2조에 의거에 따라 개인사업자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 호적 증명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외국인은 단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반드시 법인(독자, 합자, 합작법인)을 설립해야하며 합자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국파트너는 반드시 법인사업자여야 함.

2) 법인 사업자

□ 투자 준비

- 중국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한 뒤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 투자선, 대리인 및 투자 지역을 설정함. 일반적으로 투자선과 지역 선정과정에서 계획적인 의사결정보다 친분 관계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평가 후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유한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이며 사업자등록증 수령일로부터 3년 내에 분할납부 혹은 6개월 내에 일시불 납부 중에서 선택해야함.

□ 의향서(意向書)

- 의향서는 중국 투자에 있어 문서화 되는 최초의 서류로서, 중국에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기본 문서임.
- 중국 측 투자자는 의향서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 의사를 확인함.
-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허가 받는 예비 허가 신청의 근거 서류가 됨.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 의향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투자의 예비허가 단계로, 중국에서 투자 예비허가는 ‘항목입항(項目立項)’ 이라고 함. 의향서 작성 후 중국 측 합자·합작기관이 투자프로젝트건의서(중국어로 항목건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주무부서가 승인한 뒤, 외국인 투자허가 위임 범위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관할, 지방정부의 투자 허가기관에 예비허가를 신청함.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可行性研究報告書)

- 중국 투자허가기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투자사업의 투자효과를 판단하게 되므로 세심하게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임.
- 중국 투자사업의 정식 허가를 위해 투자 허가 기관에 제출해야함. 투자허가기관이 심사하는 주요 세 부분은 시장 조사, 기술 분석, 경영 관리 및 연구임.
- 투자사업의 이윤 미흡, 낮은 외환 가득액 창출 효과, 높은 차입금 사용 비율, 원자재 및 에너지 다량 사용, 과도한 공해 배출 등의 문제가 있으면 투자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한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중국 투자 시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근거도 되기 때문에 작성 시 필히 한국의 사업계획서 상 항목들을 포함시켜야함.

□ 계약 체결

- 계약서와 회사 정관을 작성하여 다른 서류들과 함께 투자허가 신청 시 제출함.
- 실질적으로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작성하는 서류 중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서류는 계약서와 정관(定款)임. 중국에서는 계약을 ‘합동(合同)’ 이라 부르고, 계약서를 ‘합동서(合同書)’ 라고 함. 계약은 서명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률 행위로, 합자나 합작투자 쌍방이 합자 혹은 합작기업을 설립·경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 쌍방이 합의하여 그에 대해 서명하는 것을 뜻함.
- 중국과 한국 금융기관의 허가와 감독 뿐 아니라 현지 설립 기업의 경영 관리자와 투자자 쌍방 간의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중국 투자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함.
- 계약 체결 시, 한국어와 중국어로 동일한 내용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투자자 쌍방이 확인 후 서명하며, 필요 시 공증을 받아 투자자 쌍방이 한국어와 중국어 계약서를 각 1부씩 가지도록 함.

- 중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가 주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작성한 계약서가 제대로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정관 제정

- 중국에서 정관은 ‘법인 내부의 조직법이자 중요 사항의 규칙으로서 법인 구성원의 공동행위 준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합작계약을 근거로 하고 계약 내용을 모체로 하여 제정함.

□ 투자 허가 신청

- 단독투자의 경우 의향서를 작성하고, 외자기업 신청보고를 통해 중국 측 예비 허가를 얻고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이 끝나면 투자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게 됨. 한국에서도 해외투자절차를 진행해야함.

□ 각종 등기 신청

- 한국과 중국의 투자 허가기관에서 각각 투자신고허가를 취득한 후 중국 관할 지방정부의 통계국과 공상행정관리국에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통계등기와 설립등기를 해야함.
- 통계등기를 하려면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정부 통계국에 보고해야함.
- 주요경제지표 월간 보고표 (獨立核算工業企業主要經濟指標月報)
- 생산경영현황 월간 보고표 (外商投資企業生產經營情況月報表)
- 월간 수출 통계 보고표 (外商投資企業輸出商品統計月報表)
- 월간 수입 통계 보고표 (外商投資企業進口商品統計月報表)

[법인 설립 관련 상세 내용]

단계	필요서류	연락기관	연락처
1	기업명 사전신청	- 외국인투자기업 명칭 - 사전 신청서(투자자 서명) - 투자자신분증, 비자사본 - 위탁대리인 증명서 (위탁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공상행정 관리국 +86-532- 8575-3968
2	프로젝트 인허가	- 프로젝트 신청보고서 - 투자자들의 기업등록증 - 감사필 재무제표 - 자금신용증명서 - 은행용자의향서 -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 프로젝트 지역선정 의견서 - 프로젝트 용지 예비 허가 의견서 - 투자자의향서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86-10- 6850-2114
3	설립신청 (투자허가신청)	- 외국인투자기업 - 설립신청서(투자자 서명) - 사업타당보고서 - 계약서(합작, 합자) - 장소임대계약서 - 재산권 증명서 및 정관 - 자산증명서 (은행잔고, 출자자금 증명서)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 증명서 - 신분증 사본(공증, 인증 필요) - 기업대표 임명서(신분증 사본) - 이사회 명단 - 감사 및 총경리 위임장 - 수입설비 명세서 -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 기타요구서류	대외경제 무역합자국 +86-532- 8899-761
4	통계등기	- 기업통계등기표 (지정양식)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허가서	통계국 +86-592- 8591-2255

(계속)

단계	필요서류	연락기관	연락처
5	설립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기업 신청 등기표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 허가서(비준증서, 영업일 기준) - 기업명칭 예비허가통지서, 정관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명서 - 신분증사본 - 동사, 감사, 경리 임명서류 - 신분증사본 - 회사주소 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 법률문서 송달 위임장 - 회사 대표사진 2매 - 기타 요구 서류 	공상행정 관리국 +86-532- 8575-3968
6	영업 허가증신청 (영업집조)	- 기업 설립 등기와 동시에 진행	공상행정 관리국 +86-532- 8575-3968
7	인감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허가부서의 소개서신 - 인감제작신청 및 설명서 -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 수권위임서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 사본: 대리인 신청 시) 	公安국 +86-532- 6657-0085
8	기업번호 등기 (기업코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인 서명 - 인감날인 된 기업번호 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설립허가서(비준증서) -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 법정대표 신분증 사본 - 수권위임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 기타 요구 서류 	기술감독국 +86-532- 8309-5555
9	외환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통계등기표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허가서 	외환관리국 +86-532- 8575-3968

(계속)

단계		필요서류	연락기관	연락처
10	은행계좌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개설 신청서 -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 기업번호 증서(원본, 사본) - 수탁위임서 및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세무등기증, 외환등기증 	은행	-
11	세무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 세무등기표 (기업인감날인) -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 정관(원본, 사본), 계약서(합작, 합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허가서 (비준증서사본) - 기업번호증명서(원본, 사본) - 기업대표, 재무담당자, 세금 담당자(회계사) 명단 - 기타 요구 서류 	세무국	+86-532- 8393-1000
12	세관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허가증 사본 - 세무등기증서 사본 - 은행 계좌 증명서 사본 - 기업번호(코드) 등기증 사본 - 통관 업체상황 - 통관 업체관리자상황 등기표 - 기업정관 사본 	세관	+86-532- 8295-5112
13	재정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허가서 (비준증서 원본, 사본) - 영업허가증(원본, 사본) - 정관 혹은 계약서 원본, 사본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승인서 사본 - 재무등기표, 기업통계등기표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허가서 	재정국	+86-532- 8585-5808

(계속)

단계		필요서류	연락기관	연락처
14	취업허가증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허가서 (비준증서 사본) - 영업허가증 사본 - 외국인 고용 신청표, 외국인 이력서 - 고용의향서, 외국인 고용사유 - 관련 자격증서 - 건강 검진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86-532-8591-1281
15	거류증	- 외국인 거류신청표(지정양식) - 신청인 여권, 비자 (단기 Z비자는 취업허가증 취득 후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처리함) - 건강증명서(건강검진서) - 외국인취업증 - 주재원사진 2매 - 고용계약서(또는 임명장) 사본	공안국	+86-532-6657-0085
16	복수비자 (Z비자)	- 고용주의 비자발급통지서 - 외국인 취업허가증 - 건강증명서(건강검진서) - 비자 신청표, 여권, 주재원사진 2매	공안국	+86-532-6657-0085

* 출처 : KOTRA

1.2 인허가 관련 정보

1) 식당 창업 시 필요 인허가

□ 인허가 요건

- 가장 먼저 해야 할 수속은 사용 가능한 식당 명칭인지 식당이 위치할 지역의 공상국(工商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 외식업서비스허가증(餐饮服务许可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함.

- 유해 장소 및 오염원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품종과 수량에 상응하는 식재료의 처리·가공·저장 장소는 청결해야함.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품종과 수량에 상응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소독실·탈의실·세척실·채광·조명·통풍·냉동냉장·먼지 방지·해충 방지 및 폐수 처리시설·쓰레기 보관시설을 구비해야함.
- 식품안전 관련 교육을 수료한 식품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하며 해당 영업장에 상응하는 식품안전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함.

□ 인허가에 필요한 라이선스

- 공공장소위생허가증(公共场所卫生许可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식당 영업을 개시할 수 없음.
- 식당의 업주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건강합격증명을 취득한 자에 한해 고용해야함. 제출 서류로는 다음과 같음.
- 위생허가증 신청양식
-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신분증
- 해당 공공장소의 지리적 위치 도면 및 평면도와 위생시설 평면배치도
- 해당 공공장소 위생 검사 또는 평가 보고서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위생 행정부서가 요구한 기타 서류

□ 환경평가보고(环评报告)

- 환경평가보고에서는 새로 건립한 건물 또는 확장·보수 공사한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며 해당 건물 소재지의 지하수·토양 검측, 해당 건물에 사용된 자재·잠재 폐기물, 환경보전 시설의 설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식당은 물론 해양 건설물, 도로 건설물 등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공 조성물 등을 평가함)
- 보통 환경평가보고는 환경부(环保局)가 비준한 위탁업체가 대행하여 처리하며, 해당 위탁업체의 자질에 따라 환경부가 갑(甲)급과 을(乙)급으로 분류하며 환경평가보고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음.
- 건설 항목 개황
- 건설 항목 주위 환경 현황
- 건설 항목 주위 환경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분석
- 예측 및 평가

- 건설 항목의 환경보호 시설 및 기술
- 건설 항목이 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 분석
- 건설 항목에 대한 환경검측 진행 건의
- 환경 영향 평가의 결론

□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 외식업서비스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함.
- 명칭예선택준증명서(名称预先核准证明)
- 외식업 영업장의 설비 배치도, 위생시설 등의 도면
- 법정대표인(업주 또는 책임자)의 신분증 사본
- 식품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증명 자료
- 식품안전제도의 보증 등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2) 주류 허가증

□ 주류 면허 규정

- 외식업서비스허가증을 발급 받은 식당에 한해 주류 판매 가능함.

3) 기타 준수 사항

□ 영업시설의 공통기준

-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식품 안전문제가 있을 경우, 식품 위생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감독관리부에 의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업체의 식품안전책임자는 상담제도에 참여해야함.
- 식품안전감독관리부가 상담업무를 진행하고, 상담 후 5일 이내에 해당 상담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을 서면형식으로 보고받음.

□ 음식위생 규정

-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의 보장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창고의 식품을 조사하며 변질 또는 보존기한이 초과한 식품을 적시에 처리해야함.
-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개별포장 및 저장할 경우 저장위치에 식품의 명칭·생산일시·보존기한·생산자 명칭·연락방법 등의 내용을 명기해야함.

- 예비포장식품의 포장에는 명칭, 규격, 함유량, 생산일자, 성분 또는 배합 원료표, 생산자의 명칭/주소/연락방법, 보존기한, 제품표준번호, 저장조건, 사용하는 식품첨가제의 국가표준 통용명칭, 생산허가증서 번호 등의 사항을 명기해야함.
-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품종·수량과 상응하는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포장·저장 등의 장소를 구비하고 해당 장소의 청결을 유지해야하며 유독·유해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뒤야함.
-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품종·수량과 상응하는 생산경영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만 하며 청결을 위한 소독, 갱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 방부, 먼지방지, 해충방지, 방충, 폐수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적하 설비 또는 시설 등을 구비해야함.
- 식품첨가제의 신제품과 식품관련제품 신제품을 생산/경영하기 위해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관련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함.
-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 및 허가 여부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만일 허가서 발급이 거절당했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되나 전통적인 중의학 재료이며 식품으로 분류된 물질이라면 첨가할 수 있음.
- 합리적인 설비배치와 공법공정을 행하고, 가공 대기식품과 직접 섭취하는 식품·원료와 완제품의 교차적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이 유독물, 불결한 물질과의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외식업서비스허가를 취득한 종사자는 외식업 서비스 장소에서 당사자가 조리한 가공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생산과 유통에 대한 허가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 외식업체와 단체 급식 배달 업체의 위생규범

- ‘외식업체와 단체 급식 배달업체의 위생규범(餐饮业和集体用餐配送单位卫生规范)’에 따르면 고정된 장소에서 음식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음식가공장소 및 영업장소와 내부의 시설 및 인테리어의 세세한 부분은 해당 규범에 따라 구비해야하며 영업장소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에는 관련 시설의 검사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함.

□ 위생관리 조사

○ 가공 영업장소의 위생조건

- 영업장소 선정 시 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은 피해야하며 안정적인 지형에 배수처리 및 전기 공급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야함.

- 오수 처리장, 쓰레기장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25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하며, 분진·유해기체·방사성 물질·기타 확산성 오염원 영향 범위 밖의 지역을 선정해야함. 국가 발전계획과 환경보존, 소방안전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함.

□ 건축의 구조물·구조·배치·구분·면적 등 위생조건

- 건축구조물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보수와 청결유지에 용이해야함.
- 식품처리구역은 식재료의 진입·식재료 처리·초벌조리·완제품 공급 이동 경로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조리의 흐름에 맞게 배치해야함.
- 완제품을 위한 통로·출구, 식재료를 위한 통로·입구, 식사 후의 식기를 위한 통로·입구는 균등하게 분리하여 배치해야함.

□ 시설 위생조건

○ 지면 및 배수 위생조건

- 식품위생처리구역의 지면은 무독·무향무취·방수·묵은 때가 잘 쌓이지 않는 재료를 이용해 설비해야 하며 평평하고 균열이 없어야함.
- 식기 세척, 초벌조리 등 물을 자주 이용하는 구역의 지면은 청소가 용이하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1.5% 이상의 배수경사와 배수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함.

□ 벽면과 출입구 및 창문의 위생조건

- 식품처리구역의 벽면은 무독·무향·무취에 방수가 되며 평평하고 또한 매끄럽고 청소가 용이한 옅은 색의 재료로 설비해야함.
- 벽면과 벽면 사이, 벽면과 기둥 및 지면 사이, 벽면과 천장 사이에는 때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곡률반지름 3cm 이상의 일정한 호도가 있어야함.
- 식기 세척 및 초벌조리 등 물을 자주 이용하는 구역의 벽면에는 방수가 되고 내구성이 좋아 청소용 옅은 색의 자재(예: 타일, 합금자재)를 이용하여 1.5m 이상의 징두리를 설치해야함.

□ 천장의 위생조건

- 식품 가공 및 경영 장소의 천장은 청소용 옅은 색의 자재(예: 타일, 합금자재)를 이용하여 1.5m 이상의 징두리를 설치해야함.
- 식품처리구역의 천장은 무독하고 해충과 먼지 축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조리구역의 천장은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높이에 있어야 하며 2.5m보다 낮을 시 환풍기를 이용하여 환기량이 음식건축설계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함.

□ 서빙 준비 공간 위생조건

- 조리가 완료된 음식이 고객에게 서빙 되기 이전에 음식을 장식하고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함. 이러한 서빙 준비 공간에는 각종 도구를 세척할 수 있는 소독시설과 공기 소독시설, 독립된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는 25℃보다 낮아야 함.
- 자외선으로 공기를 소독하는 경우 자외선 등(파장 200~275nm)은 출력이 1.5W/m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반사각을 설치하여 세기가 70μW/cm보다 크게 유지해야하고 지면으로부터 2m 이하의 거리를 유지해야함.
- 서빙 준비 공간의 면적은 식사공간의 면적, 최대 수용가능 인원수와 상응해야함.

□ 손 세척 및 소독 시설 위생조건

- 식품처리구역 내부에는 충분한 수의 손 세척 시설이 있어야함. 손 세척 시 이용하는 배수구에 역류방지, 유해생물 침입,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하며 손이 아닌 발로 조종 가능하거나 움직임 감지하는 자동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 통풍배연시설 위생조건

- 식품처리구역은 항시 통풍시설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하며 습하고 혼탁한 공기를 신속하게 제거해야함.
- 조리 공간은 배기기계를 이용해야하고, 유연을 유발하는 설비의 위쪽에는 배기기계에 유연여과배기 장치를 부가적으로 설치해야함. 대량의 수증기를 유발하는 설비 위쪽에는 배기기계를 부가적으로 설치하여 이슬이 맺히거나 김이 서리는 것을 방지해야함.
- 배기구는 세척이 용이하고 쉽게 부식하지 않아야 하며 유해 생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설치해야함.

□ 화장실 위생조건

- 화장실을 식품처리구역에 배치해서는 안 되며, 벽면·지면·변기 등은 방수가 되고 청소용이하여 먼지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설비해야함.
- 화장실 내부 손 세척 시설은 출구 부근에 배치해야하며 배기장치·적절한 조명 시설과 청소용이한 방충망이 있어야함. 또한 외부와 통하는 문, 창문은 밀폐가 가능해야함.
- 화장실의 오물 배출관은 식품가공장소의 배수관과 구분하여 설계하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밀봉된 화장실 오물 배출관을 구비해야함.

□ 식기 세척소독 및 청결유지 시설 위생조건

- 식기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소독해야 하며, 식기의 재질 및 사이즈 등의 이유로 이와 같은 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함.
- 싱크대는 스테인리스강 재질 또는 타일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며 청소가 용이해야함.
- 화학소독을 이용하는 경우 싱크대는 적어도 3개를 설치해야 하며 싱크대에 각각의 용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함.
- 자동 식기소독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설비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살균소독제 자동 주입 장치를 설치해야함.

□ 창고 위생조건

- 식품과 비식품의 보관 창고는 각각 별도로 설계해야함.

□ 급수시설 위생조건

- 급수는 가공의 필요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수질 또한 생활음용위생 표준규정에 부합해야함.
-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비음용물(냉각수, 오수 혹은 폐수 등)의 파이프 시스템과 음용물의 파이프시스템은 다른 색상을 이용하여 분명하게 구분해 완전히 분리하고 역류 또는 교차되어서는 안 됨.

□ 탈의실

- 탈의실과 식품가공장소는 모두 한 건물에 있어야 하지만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며, 탈의실 내부에 손을 세척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함.

□ 채광조명 시설 위생조건

- 식품가공장소는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이 충분해야함.
- 음식의 천연 색상에 변화를 주지 않는 식품처리구역의 조명은 2,201lux보다 낮으면 안 되고, 기타 장소는 1,101lux보다 낮아서는 안 됨.

□ 폐기물 임시보관 시설 위생조건

- 식품처리구역 내에서 폐기물 또는 쓰레기가 생기는 곳에는 모두 폐기물 보관용기를 두어야함. 폐기물 보관용기는 덮개가 있어야 하며 견고하고 악취 및 오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함.

□ 설비 및 도구 위생조건

- 식품 가공 시 이용하는 설비와 도구는 식품의 위생을 보증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된 것이어야만 하며 세척소독 및 검사가 용이해야함.
- 식기 또는 음식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설비 및 도구의 접촉면은 매끄럽고 평평하며 균열이 없어야함. 특히 설비의 내부에는 음식물 또는 때가 끼지 않도록 각진 곳이 없어야함.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무 재질의 도구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나무 재질의 도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식품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음을 보증해야함.

□ 가공 및 조작 규정의 제정과 시행

- 식품가공장소의 면적이 2,000㎡ 이상인 음식점과 300명 이상의 인원이 수용 가능한 음식점 및 체인점의 업주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실시하고 집행 문서를 제정해야함.

□ 조리가공 위생조건

- 조리를 시작하기 이전에 식재료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익혀야 하는 식재료의 중심온도는 70℃보다 낮아서는 안 됨.

□ 서빙 위생조건

- 서빙을 시작하기 이전에 손을 세척 및 소독하고,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서빙하기까지 긴 시간(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60℃보다 높거나 10℃보다 낮은 곳에 보관해야함.

□ 위생관리기구와 인원의 요건 (종업원)

- 영업장 내에는 위생 관리원이 있어야 하며, 특히 식품가공장소의 면적이 1,500㎡ 이상인 음식점, 레스토랑 식당은 전임 식품위생관리원을 두어야함. 그 이하의 경우 겸임해도 좋으나, 3,000㎡ 이상의 경우에는 검사실을 설치해야함.
- 식품위생관리원은 고졸 이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경험이 있고 식품위생관리원 연수를 수료한 후에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각종 건강 합격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함. 전임 식품위생관리원의 주요업무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연수를 진행하고 사내의 위생관리 제도를 만들며 그것을 실시·감독·관리하는 것이며 부가적으로도 종업원의 위생 관리 파일 정비, 행정 위생 부문과의 정보 교류 등을 책임져야함.

□ 식재료 구매 위생조건

- 식중독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음. 음식조리에 사용하는 원재료, 식품, 음료, 알코올 등의 조달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재료의 공급자에게 제품합격증명(검험합격증 또는 화학분석표)을 제출하라고 요구해야함.
- 음식점은 품질보증기한이 지나거나 부패, 변질된 식재료 등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식재료, 식품을 사용해서는 안 됨. 또한 냉채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임자가 지정되어 전용 조리실과 도구, 전용 소독설비, 냉장서랍을 사용해 가공해야함.

□ 종업원 관리

- 신규 종업원은 건강합격증명을 취득해야 하고 일반 종업원은 1년에 최저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검사에 협력해야함.

□ 종업원 개인 위생조건

- 종업원은 개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청결한 작업복·모자(특히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마스크 착용)를 착용해야함. 머리카락이 보여서 안 되며 손톱이 길어서도 안 됨.

□ 메뉴 가격 표시

- 상품과 서비스 가격 태그의 구현을 위한 조치 이행법에 따르면 외식업 경영업주는 감독 하에 제작된 가격표 또는 메뉴를 이용해야함.
- 메뉴에는 음식의 명칭, 용기의 규격, 주요 재료의 중량, 판매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음료, 주류, 담배의 경우 해당 상품의 품명, 생산지, 등급, 규격, 가격을 가격표 또는 메뉴에 명시해야함.

□ 소방안전 관련 규정

- 소방법(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에 의하면 음식점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경우 영업개시 전 해당 지역의 관할 인민정부공안기관의 소방기구(消防机构)에 소방안전 검사(消防安全检查)를 신청해야함.
- 건물 전체에 대해 소방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의 경우, 그곳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건물의 소방허가 취득 여부를 잘 알아보아야함. 소방안전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야함.
- 소방안전 검사 신청 양식
- 영업집조(营业执照,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工商行政

管理机关)이 발급한 기업명칭예선택준통지서(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

- 동법 규정에 근거하여 취득한 건설공사소방검수 복사본(원본 지참)
- 소방안전제도 교육, 비상 상황 시 안전 대피 훈련 기록(업체날인 및 책임자 서명)
- 자동 소방 시스템을 조작하는 직원의 소방업종 관련 자격증 복사본 등 소방기구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1.3 임대차 관련 정보

1) 임대차 관련 법률

- 안전한 임대 계약을 위해 중국 법률 내용과 관계한 임대차 관행의 주의사항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음.

2) 임대차 관련 관행

- 점포 등 부동산을 임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점은 바로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이며 소유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점검해야함.
- 첫째, 식당을 설립할 건물을 임대할 때, 반드시 영업 집조가 발급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함.
- 불법 건축물이거나 주택용 건축물이라면 영업 집조를 취득할 수 없음.
- 건물의 소유증(방산증)을 확인해 영업 집조를 취득한 건물인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상업용 건물인지 주택용 건물인지를 확인해야함.
- 일부 사례의 경우, 건물주들이 비상업용 건물을 영업 집조 취득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속이고 외국인 임차인에게 임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함.
- 둘째, 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건물주인지를 확실히 알아야함.
- 건물의 1차 임차인이 또다시 2차 임대를 하는 경우 1차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 계약기한이 제한됨.
- 실제 건물주의 동의 없이 2차 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었음.
- 셋째, 중국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경영자의 경우 사업 점포 구매 시 중국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음.

- 명의자인 중국인이 직접 그 점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번창하면 명의자가 해당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고 잠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중국인의 명의를 빌려 점포 혹은 공장을 구매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명의자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함.
 - 이름을 빌리는 중국인(명의자)과 이면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함.
 -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 계약서에 한국인이 중국인의 명의를 빌리며, 실질적인 투자와 경영은 한국인이 하고 그 권리와 의무도 한국인이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함.
 - 계약서 자체가 법의 강제조항을 위반했기에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는 증명할 수 있음.
 - 명의자인 중국인은 되도록 근로자 혹은 책임자로 고용하지 않도록 함.
 - 명의자가 명의 대여를 넘어 기업 운영 및 근로에 참여하면 업체 운영 상황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추후에 본인이 실질적 주인이라고 주장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임.

1.4 세무 관련 정보

1) 개인소득세

- 한국과 달리 연말정산 등의 개념이 없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구조이며 외국인 세금 공제의 항목으로는 고국방문항공료, 임대료, 교육비 등이 있음.
- 중국의 조세제도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즉 매월 확정된 세금을 납부해야함.

[소득액에 따른 개인소득세 세율]

소득액(위안)	개인소득세 세율
1,500 미만	3%
1,500~4,500	10%
4,500~9,000	20%
9,000~35,000	25%
35,000~55,000	30%
55,000~80,000	35%
80,000 이상	45%

* 출처 : 상해 CI컨설팅

2) 법인세

- 중국 내의 기업 및 기타 소득의 취득이 있는 조직 (이하 '기업'으로 통칭)은 기업 소득세(법인세) 납세 대상임. 기업에는 국유기업, 단체기업, 사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및 외국기업 등이 포함됨.
- 2015년 4월 기준, 중국 내 외식업 경영자가 납부해야할 영업세는 5%에서 증치세 6%로 개정됨.
- 중국은 모든 영업세를 증치세로 변환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세무 관련법을 개정중임. 2015년 8월 기준, 영업세의 80%가 증치세로 변환되었음.
- 증치세 변환의 이유
 - 영업세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의 편리성은 존재하나 세금납부합리성은 거의 없음. 하지만 증치세의 경우 가치가 증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거래의 총액에 대한 납부가 아닌 거래 중 가치 증가분만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가장 합리적인 조세 방법임.
 - 세금납부, 수취의 편리성보다 세금부과와 합리성 추구
 - 탈세방지

3) 부가가치세

□ 증치세(增值稅)

- 증치세는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에 해당되며 또한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이 특징임.

□ 중국의 증치세율

- 중국의 일반 세율이 17%로 한국의 10%보다 높은 편임. 중국의 납세자 회계 건전 여부 및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 납세자 (17%)와 소규모 납세자 (3%)로 구분함.(기존 개정 전)

○ 개정 중인 외식당 관련 증치세율

- 일반 외식당 경영자의 경우 증치세 6%를 납부함.
- 소규모 외식당 경영자의 경우 증치세 3%만 납부 가능함.
- 일반 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소규모 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1.5 수입·통관 관련 정보

1) 식품 수입 관련 제도

- 중국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중국어 라벨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제품을 압수하거나 벌금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며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에 따르면 식품을 수입하려는 상인 혹은 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함.
- 계약서, 세금계산서, 선적명세서, 선하증권 등 증빙서류
- 관련 허가서류
- 법률법규, 쌍무협정, 의정서 등이 규정한 수출국 정부의 검역 증명서
- 최초로 수입하는 포장음식의 경우 식품라벨 견본과 중문 번역본
-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상응하는 허가증명 문서
-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수입하는 예비포장식품은 중국어 표시 및 중국어 설명서가 있어야함.
- 표지와 설명서는 해당 법 및 중국의 기타 유관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및 국경 내 대리업체의 명칭·주소·연락방법을 명기하여야 함
- 예비포장식품에 중국어 표시 및 중국어 설명서가 없거나, 표지 및 설명서가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이 금지됨.

2) 식품 수입 통관 절차

□ 통관심사

- 수입하는 식품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감독·견본추출검사를 실시하며 세관은 출입국검사 검역기구가 서명 발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관함.
- 세관통관 시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입물품 세관신고서, 송장, 무역계약서, 포장리스트, 선하증권, 적하목록, 세관신고대행 권한위임장, 수출입 관련 허가증서 등이 있음.

1.6 거주허가 관련 정보

1) 비자 종류

비자 종류	목적
F비자	초청형식에 의해 중국방문, 시찰, 강연, 상업, 문화 교류를 위한 단기 연수, 실습 등의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L비자	중국에서 관광여행, 친지 방문 또는 기타 개인 업무로 입국하는 자. 이 중 9명 단체인 경우 단체비자 발급 가능함
Q-2비자	중국에서 단기간 (180일 이하) 친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
Z비자	중국에서 재직하거나 취업하는 자 및 가족
X비자	중국에서 6개월 이상 유학, 연수, 실습하는 자
M비자	중국에서 상업무역활동을 하는 자
D비자	중국에서 정착하여 거주하는 자

2) 기타 정보

□ 단기체류

- 중국에서 단기(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거류증 수속은 필요 없으나 비자 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만 체류할 수 있음.

□ 장기체류

-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신고해야함.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 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허가를 받아 전출 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 거류증 제시)을 해야 하며, 전입 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 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해야 함.

□ 외국인 거주증명서 신청

- 취업증을 취득한 후, 중국에 입국 30일 이내에 기업소지재의 공안기관에 '외국인 거주증명서' 를 신청해야함. 제출 서류는 여권, 건강진단서, 외국인 취업증, 사진, 중국기업의 영업허가증, 외국인거주신청서 등이 있음.
- 현지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임시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1.7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

1) 계좌 개설

- 중국의 외국계 은행 지점 및 중국계 외국환 관리은행 중 우리 투자기업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국가외환관리국 소재지 관할 분국에 보고하여 선정된 외국환은행의 소재지 지점에 계좌를 개설함.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개설하는 계좌는 외화 계좌, 위안화 계좌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계좌는 경상항목 계좌와 자본금 계좌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실제로 중국계 은행의 일방적인 여신 중단, 잦은 자금력 체크, 의사소통의 불편함,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거래은행을 중국계 은행에서 한국계 은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한국 현지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한국계 은행 계좌(자본금 계좌) 1개, 중국계 은행 계좌 1개를 모두 개설하는 것이 사용 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음.

[외화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경상항목 외화계좌	자본항목 외화계좌
- 신청서 - 영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 위안화허가증 - 기업번호(코드) 등	- 신청서 - 위안화허가증 - 영업허가증 - 위안화허가증

* 출처 : KOTRA

2) 금융 지원 프로그램

- 중국 내 대출 방법
- 중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 가능함. 일반적으로 담보만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은행은 기업의 신용 상태와 수익 전망 등을 감안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함.
- 은행에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은행업 감독 관리위원회의 상업은행 내부 리스크 관리 지침에 따른 각 은행 자체의 대출 심사 기준 등에 의해 대개 감정가액의 50~7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한식당 운영 실무정보

2.1 노동법·고용법 관련 정보

1) 인력 고용 관련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

- 외국인 고용은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시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문이 관리함. 외국인 고용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한 만료 전 30일 내에 노동행정부문에 연장을 신청해야함.
-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외국인을 대신해 취업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해야함. 외국인이 종사하는 업무가 특수하여 중국에 적격자가 없고, 국가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외국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중국에서 취업이 가능함.
- 만 18세 이상으로 건강한 자
- 종사하는 업무에 필수적인 전문기능과 이에 상응한 업무경험을 소유한 자
- 범죄전과가 없는 자
- 확정적인 고용단위조직이 있는 자
- 유효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소지자
- 취업비자로 입국하고 입국 후 취업허가증과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하지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취업허가증 취득을 면제함.
- 중국 정부에서 직접 초청한 전문기술자와 관리자 혹은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에서 초청한 고급기술직, 특수기능 자격 증서를 소지한 전문기술자와 관리자로서 외국전문가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해상 석유작업 증서를 소지하고 석유작업에 종사하며 상륙하지 않은 특수기능을 가진 외국인
- 문화부에서 인가한 임시 영업 공연허가증을 소지하고 문예공연에 종사하는 외국인

□ 중국인 근로자 관련 규정

- 중국 현지 채용은 주로 노동자와 고용주가 직접 노동관계를 체결하는 방식과 노무파견 등 두 가지가 있음.

- 노동자와 고용자(중국 국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간단체 등)가 직접 노동관계를 체결하므로 하여 쌍방 직접적인 노동관계가 형성됨.
- 중국 현지에서 외자기업의 수요를 위하여 일부 대형 노무파견조직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국 노동자들은 주요한 노사관계에서의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함.

□ 고용계약서 관련 규정

- 채용하는 고용형식에 따라 노동계약서 체결 당사자를 확정해야함.
- 중국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혹은 노동계약서)의 필수조항은 다음과 같음.
- 고용자의 명칭, 주소, 법적 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
- 노동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증 혹은 기타 신분증명 서류
- 노동계약 기간
- 업무내용과 근무 장소
- 근무시간과 휴가
- 임금, 보너스 등 복리대우
- 사회보험
- 노동보호, 노동조건, 산재 예방 등

□ 근무 시간 관련 규정

- 중국은 주5일(4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근로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음.
- 추가 근로는 1일 1시간(특수상황에는 3시간) 월 36시간 내에서 가능함.

□ 직원 해고 시 유의사항

- 중국 현행 노동법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아래 항목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시용기간 중에 채용조건이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 고용기업의 규정 및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직무상에 중대한 과실, 사리추구와 부정행위로 고용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음에 따라 본 고용단위의 작업업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 단위가 지적해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 본법 제 26조 제 1항 제 1호에 규정된 상황에 의거,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
- 근로자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고용 기업은 본 법의 제 40조, 제 41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음.
- 직업병 위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직 전에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유사 직업병 환자로 진단 또는 의학 관찰 기간 중인 자
- 본 고용단위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부 상실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질병 또는 비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기간 내에 있는 경우
-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인 경우
- 본 고용단위에서 연속 근무기간이 만 15년이고 법적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인 경우
-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상황

2) 인건비 및 복지 관련 사항

□ 최저임금제도

- 각 지방정부가 지역 내 경제발전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수준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음.
- 특히 북경과 상해의 최저임금기준은 '순수입'을 의미함. 양로, 실업, 의료 등의 사회 보험료 및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고 "손에 직접 쥐어지는 돈"을 뜻함.

□ 기본임금 외 기타사항

- 중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 정액제로 할 경우 생산성이 하향평준화 되기 때문에 매월 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급 기준 50%, 휴일 근로는 100%, 법정 휴일 근로는 200%의 가산 임금을 지불해야함.

□ 근로자 사회 보장제도

- 중국 노동법에서는 사회보험료 납부가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미납은 노동법상 위법행위로 간주됨. 급여를 100%로 가정했을 때, 기업의 실 부담은 140~150%가 됨.
- 해고된 노동자가 퇴직 후에 회사가 사회보험에 미 가입한 사실을 노동관서에 진정하는 사례도 발생 했기에 주의해야함.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진출했다가 사업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음.

Appendix) 보고서 Index

구분	Lev_1	Lev_2	국가/도시	단위	개별 지표명	지표 설명	출처	
전체	소비자 영양면태의	파인다이닝	도시	-	파인다이닝	소비자 인식 상 분위기와 접객서비스가 우수하고 고품질, 고가인 풀서비스 레스토랑을 의미함. 테이블서비스와 풀서비스 그리고 코스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요한 날 또는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고급 풀서비스 레스토랑으로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높음.	14년 해외외식한식조사사업	
		캐주얼다이닝	도시	-	캐주얼다이닝	일반적인 수준의 요리와 접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정적인 알콜을 판매하는 형태로 풀서비스 레스토랑.	14년 해외외식한식조사사업	
		패스트푸드	도시	-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는 규격화되고 제한된 메뉴에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일컫음. 다양한 일정한 정해진 양과 재료에 따라 조리되며, 품목별로 개별 포장됨. 비교적 쉽고 미숙련된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은 카운터에서 주문 및 픽업을 함.	유로모니터	
		카페/바	도시	-	카페/바	주요 메뉴는 주류 및 음료이지만, 음식도 제공하는 식당을 일컫음.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 또는 간식류보다는 음료/주류만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 카페/바 카테고리에는 카페, 바, 호프, 커피 전문점, 주스/스무디 전문점 등을 포함함.	유로모니터	
	비대면 영양면태의	고가 식당	도시	-	고가 식당	소비자 인식 상 고가격, 고품질인 풀서비스 레스토랑을 의미함. 네이버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평가한 중가격대 레스토랑 (1인 기준 3코스 지불 가격)의 최대 가격 이상인 식당을 고가 식당으로 구분함.	데스크리서치+웹크롤링	
		중저가 식당	도시	-	중저가 식당	소비자 인식 상 일반적인 수준의 요리와 접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을 의미함. 네이버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평가한 중가격대 레스토랑 (1인 기준 3코스 지불 가격)의 최대 가격 미만인 저-중가격대 식당을 중저가 식당으로 구분함.	데스크리서치+웹크롤링	
		패스트푸드	도시	-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는 규격화되고 제한된 메뉴에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의미함. 음식은 일정한 정해진 양과 재료에 따라 조리되며, 품목별로 개별 포장 가능함.	유로모니터	
		카페/바	도시	-	카페/바	주요 메뉴가 주류 및 음료이며, 주식보다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주류와 음료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일컫음. 카페/바 카테고리에는 카페, 바, 호프, 커피전문점, 주스/스무디 전문점 등을 포함함.	유로모니터	
	도시 보고서 요약			도시	%	지역별 식당 분포 비율	도시 전체 샘플 수 대비 해당 지역의 외식당 샘플 수 비율	웹크롤링
				도시	%	지역별 리뷰 건수 비율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서 크롤링 된 전체 리뷰 건수 대비 해당 상권(구)에 위치한 식당에 등록된 총 리뷰 건수의 비율	웹크롤링
				도시	%	업체별 식당 비율	외식당 총 샘플 수 대비 업체의 총 식당 샘플 수의 비율	웹크롤링
				도시	%	업체별 방문 빈도	한 달 기준 업체의 외식당을 방문한 평균 횟수	소비자 설문
			도시	%	업체별 리뷰 건수 비율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서 크롤링 된 전체 리뷰 건수 대비 식당에 등록된 총 리뷰 건수의 업체별 비율	웹크롤링	
			도시	금액	식당 가격대	소비자들이 식당 별로 기록한 한 끼 식사 비용의 평균치	웹크롤링	
			도시	금액	식당 객단가	식당의 평균 객단가	경영주	
			도시	금액	1 회당 지출 비용	식당을 1 회 방문 했을 때 지출한 금액(1인 기준)	소비자 설문	
			도시	평점	한식당 만족도	한식당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 설문	
			도시	평점	한식당 추천의향	한식당을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비율	소비자 설문	
			도시	-	순 추천 고객 지수 (NPS)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 NPS=추천고객(9,10 점)비율 - 비추천고객(0-6 점) 비율	소비자 설문	
			도시	%	언급 메뉴 키워드 시계열 추이	소비자 리뷰 내에서 소비자들이 해당 메뉴를 언급한 빈도를 총 리뷰 건수로 나눈 비율	웹크롤링	
			도시	금액	메뉴 가격대 평균	외식당 전체 판매 메뉴 가격의 평균	웹크롤링	

			도시	금액	추천 수 반영 메뉴 가격 평균	메뉴 별 추천수로 가중치를 부여한 메뉴 가격의 평균	웹크롤링	
			도시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7P)	외식당을 방문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1+5 순위 중복 응답한 결과	소비자 설문	
			도시	%	식당 방문 목적	사적인 모임, 일상적인 식사, 공식적인 모임 등 소비자들이 외식당을 방문하는 목적	소비자 설문	
거시경제	-	-	국가	만 명	인구 수	해당 국가의 총 거주 인구수	데스크리서치	
			국가	10억 US 달러	GDP	해당 국가의 연간 국내 총 생산(GDP)	데스크리서치	
			국가	US 달러	1인당 GDP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내 총 생산(GDP)	데스크리서치	
			국가	%	경제성장률	연간 경제 성장 지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	데스크리서치	
			국가	US 달러	1인당 가처분 소득	인구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데스크리서치	
			국가	%	GDP 대비 가처분 소득 비율	GDP에 대비하여 가처분 소득이 가지는 비율	데스크리서치	
			국가	US 달러	연간 식비지출액	연간 해당 국가에서 식비로 지출되는 금액	데스크리서치	
			국가	%	가처분 소득 대비 식비지출액 비율	가처분 소득에 대비하여 소비되는 식비지출액의 비중	데스크리서치	
			국가	%	물가상승률	연간 물가 상승 지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	데스크리서치	
			국가	억 USD	연간 외국인 직접 투자액(FDI)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추이 및 국가별 외국인 투자금액 등을 소개	데스크리서치	
			국가	명	연간 현지인 한국 방문자수	연간 해당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의 수	데스크리서치	
국가	만 명	연간 한국인 해당국가 방문자수	연간 한국에서 해당 국가로 방문하는 사람의 수	데스크리서치				
국가외산업적	외식규모	매출액 기준 외식산업 규모	국가	억 USD	매출액	외식당 총 매출액(US 달러 기준)	유로모니터	
		식당수 기준 외식산업 규모	국가	천 US	연평균 매출액	전체/업태별 식당별 연평균 매출액	유로모니터	
		거래량 기준 외식산업 규모	국가	개	거래량	전체/업태별 연간 거래량	유로모니터	
			국가	US 달러	건당 매출액	1회 거래량 별 평균 매출액	유로모니터	
도시외산업적	도시외식업자	외식당 현황	도시	%	업태별 비율	전체 외식당 샘플 수 대비 업태 외식당 샘플 수의 비율	웹크롤링	
			도시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식당 샘플 수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중 첫 소비자 리뷰 등록 시점이 최근 1년(15.04~16.04)인 식당 샘플 수	웹크롤링	
			도시	%	해당 구역 총 식당 대비 비율	구역 내 전체 식당 대비 첫 소비자 리뷰 등록 시점이 최근 1년(15.04~16.04)인 식당 비율	웹크롤링	
			도시	%	도시 총 최초 등록 식당 대비 비율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중 첫 소비자 리뷰 등록 시점이 최근 1년(15.04~16.04)인 도시 전체 식당 내 비율	웹크롤링	
		주요 판매메뉴	도시	수	주요 판매메뉴	평가사이트의 식당 페이지에 많이 등록된 Top 10 메뉴	웹크롤링	
		외식당 가격대 분포	도시	금액	가격대 분포	소비자들이 식당 리뷰에 기록한 한 끼 평균 식사 비용의 분포	웹크롤링	
		메뉴 가격대 분포	도시	금액	메뉴 가격대 분포	소비자들이 식당 리뷰에 기록한 개별 메뉴 가격의 분포	웹크롤링	
	도시외식소비자	일반 외식 패턴	일반 외식 패턴	도시	회/월	월평균 외식당 방문 횟수	한 달 기준 외식당을 방문한 평균 횟수	소비자 설문
				도시	금액	1회당 외식 비용 (1인 기준)	외식당을 1회 방문 했을 때 지출한 금액(1인 기준)	소비자 설문
				도시	금액	월 평균 지출액	월 평균 외식비로 지출하는 금액	소비자 설문
			도시	%	식비 지출액 비중	총 지출액 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	소비자 설문	
			도시	%	식당 인지 경로	소비자들이 식당을 최초로 인지하는 경로	소비자 설문	
			도시	%	자주 가는 업태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외식당 업태	소비자 설문	
업태별 외식 패턴		업태별 외식 패턴	업태별 외식 패턴	도시	회/월	월 평균 방문 횟수	한 달 기준 외식당을 방문한 평균 횟수	소비자 설문
				도시	%	외식당 방문 목적	사적인 모임, 일상적인 식사, 공식적인 모임 등 소비자들이 외식당을 방문하는 목적	소비자 설문
				도시	%	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소비자들이 외식당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7P 요소 (1+5 순위 복수 응답)	소비자 설문
				도시	%	자주 가는 에스닉 식당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 비율	소비자 설문
외식당 방문 행태		외식당 방문 행태	외식당 방문 행태	도시	%	상권별 리뷰 건수 추세	해당 상권(구)에 위치한 식당에 등록된 총 리뷰 건수의 시계열 추세	웹크롤링
				도시	%	업태별 리뷰 건수 추세	업태별 식당에 등록된 총 리뷰 건수의 시계열 추세	웹크롤링
				도시	수	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가격대 정보가 있는 식당의 리뷰 건수 분포	웹크롤링

		도시	수	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가격 정보가 있는 메뉴의 추천수 분포	웹크롤링
업태별 외식당 방문 행태		도시	빈도/리뷰건수	외식당 선택 시 고려 요소	소비자 리뷰 내 7P 관련 단어 언급 빈도를 전체 리뷰 수로 나눈 비율	웹크롤링
		도시	%	에스닉/업종별 리뷰 건수	에스닉/업종별로 식당에 등록된 총 리뷰 건수	웹크롤링
		도시	수	주요 추천 메뉴	추천건수가 높은 Top 10 메뉴	웹크롤링
		도시	%	메뉴별 언급 빈도 시계열	소비자 리뷰 내 해당 메뉴의 언급 빈도를 총 리뷰 건수로 나눈 비율의 시계열 추세	웹크롤링
도시 한식당 방문자	업태별 한식당 비율	도시	%	업태별 한식당 비율	업태별 한식당 비율	경성문주
	프랜차이즈 비율	도시	%	프랜차이즈 비율	한식당 중 프랜차이즈 운영형태를 가진 한식당 비율	경성문주
	경영주 국적	도시	%	비프랜차이즈 비율	한식당 중 비프랜차이즈 운영형태를 가진 한식당 비율	경성문주
		도시	%	한국인 한식당	한국 국적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비율	경성문주
		도시	%	한국계 현지인 한식당	한국계지만 현지 국적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비율	경성문주
		도시	%	현지인 한식당	현지 국적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비율	경성문주
	식당 방문 고객 비율	도시	%	외국인 한식당	외국 국적의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비율	경성문주
		도시	%	현지인 고객 비율	한식당을 방문한 고객 중 현지인 고객의 비율	경성문주
		도시	%	한국인 또는 한국계 고객 비율	한식당을 방문한 고객 중 한국인 또는 한국계 고객의 비율	경성문주
	객단가	도시	%	한국인 아닌 외국인 고객 비율	한식당을 방문한 고객 중 외국인 고객의 비율	경성문주
		도시	금액	한식당 객단가	한식당의 평균 객단가	경성문주
		도시	%	한국산 식재료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성문주
	한국산 식재료 이용률	도시	%	한국산 채소류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채소류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성문주
		도시	%	한국산 소스 및 장류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소스 및 장류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성문주
		도시	%	한국산 면, 쌀, 떡류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면, 쌀, 떡류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성문주
		도시	%	한국산 주류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주류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성문주
		도시	%	한국산 육류, 어류, 젓갈류 이용률	한식당에서 한국산 육류, 어류, 젓갈류를 이용하는 식당의 비율	경성문주
		도시	%	지역별 한식당 분포 비율	도시 전체 한식당 샘플 수 대비 해당 지역의 한식당 샘플 수 비율	웹크롤링
	한식당 현황	도시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샘플 수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한식당 중 첫 소비자 리뷰 등록 시점이 최근 1년(15.04~16.04)인 한식당 샘플 수	웹크롤링
		도시	%	해당 구역 총 식당 대비 비율	구역 내 전체 한식당 대비 첫 소비자 리뷰 등록 시점이 최근 1년(15.04~16.04)인 식당 비율	웹크롤링
		도시	%	도시 총 최초 등록 식당 대비 비율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한식당 중 첫 소비자 리뷰 등록 시점이 최근 1년(15.04~16.04)인 도시 전체 한식당 내 비율	웹크롤링
		도시	%	전체 대비 한식당 비율	전체 외식당 샘플 수에서 한식당 샘플 수의 비율	웹크롤링
도시		%	업태별 한식당 비율	전체 한식당 샘플 수에서 업태별 한식당 샘플 수의 비율	웹크롤링	
도시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구성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한식당 중 첫 소비자 리뷰 등록 시점이 최근 1년(15.04~16.04)인 한식당 업태 비율	웹크롤링	
주요 한식 판매메뉴	도시	수	판매메뉴	평가사이트의 한식당 페이지에 등록된 메뉴	웹크롤링	
한식당 가격대 분포	도시	금액	한식당 가격대 분포	소비자들이 한식당 리뷰에 기록한 한 끼 평균 식사 비용의 분포	웹크롤링	
한식 메뉴 가격대 분포	도시	금액	한식 메뉴 가격대 분포	소비자들이 한식당 리뷰에 기록한 개별 메뉴 가격의 분포	웹크롤링	
도시 한식소비자 분석	한식 외식 패턴	도시	%	한식 취식 경험 및 형태	한식 취식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한식 취식 경로	소비자 설문
	도시	%	한식당 인지 기준	한식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비자 설문	
	도시	회/월	월 평균 한식당 방문 횟수	한 달 기준 한식당을 방문한 평균 횟수	소비자 설문	
	도시	금액	1회당 한식 외식 비용 (1인 기준)	한식당을 1회 방문 했을 때 지출한 금액(1인 기준)	소비자 설문	
	도시	%	한식당 인지 경로	소비자들이 식당을 최초로 인지하는 경로	소비자 설문	
	도시	%	한식당 방문 업태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외식당 업태	소비자 설문	
	도시	%	한식당 방문 목적	사적인 모임, 일상적인 식사, 공식적인 모임 등 소비자들이 한식당을 방문하는 목적	소비자 설문	
	도시	%	한식당 선택 시	소비자들이 외식당 선택 시 중요하게	소비자	

				고려 요소	고려하는 7P 요소	설문	
		도시	%	자주 먹는 메뉴	평소 한식당 방문 시 자주 먹는 메뉴	소비자 설문	
		도시	%	먹고 싶은 메뉴	향후 한식당 방문 시 먹고 싶은 메뉴	소비자 설문	
한식당 방문 평가	도시	평점		한식당 만족도	한식당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 설문	
	도시	평점		7P 요소별 한식당 만족도	7P 요소 별로 한식당에 대한 만족도	소비자 설문	
	도시	평점		한식당 추천 의향	한식당을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비율	소비자 설문	
한국 관련 선호	도시	%		한국 인지 수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소비자 설문	
	도시	%		한국 호감 수준	한국에 대한 호감 수준	소비자 설문	
	도시	%		한류 호감 수준	한류에 대한 호감 수준	소비자 설문	
	도시	%		한국 방문 의향	한국에 대해 방문할 의사	소비자 설문	
한식당 방문 행태	도시	빈도/리뷰건수		7P 요소별 언급 빈도	소비자 리뷰 내 7P 관련 단어 언급 빈도를 전체 리뷰 수로 나눈 비율	웹크롤링	
	도시	%		상관별 리뷰 건수 추세	해당 상관(구)에 위치한 식당에 등록된 총 리뷰 건수의 시계열 추세	웹크롤링	
	도시	수		현지 한식당 내 소비자 추천 메뉴	추천건수가 높은 Top 10 한식 메뉴	웹크롤링	
	도시	%		15년 한식당 리뷰 내 언급빈도 상위메뉴 키워드 시계열 추이	15년 기준 한식당 소비자 리뷰 내 언급 빈도가 높은 Top10 메뉴키워드의 시계열 추세	웹크롤링	
	도시	%		한식당 리뷰 내 언급빈도 상승 메뉴 키워드 시계열 추이	한식당 리뷰 내 언급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Top 10 메뉴키워드의 시계열 추세	웹크롤링	
	도시	수		한식당 가격대별 리뷰 건수	가격대 정보가 있는 한식당의 리뷰 건수 분포	웹크롤링	
	도시	수		한식메뉴 가격대별 추천 건수	가격 정보가 있는 한식 메뉴의 추천수 분포	웹크롤링	
상권외식업 및 상권외식업 분석	상권외식당 현황	상권	%	업체별 비율	전체 외식당 샘플 수 대비 업체 외식당 샘플 수의 비율	웹크롤링	
		상권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외식당 업체 비율	전체 외식당 샘플 수 대비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식당 중 첫 소비자 리뷰 등록 시점이 최근 1년(15.04~16.04)인 식당의 비율	웹크롤링	
		상권	%	전체 대비 한식당 비율	전체 외식당 샘플 수에서 한식당 샘플 수의 비율	웹크롤링	
		상권	%	업체별 한식당 비율	전체 한식당 샘플 수에서 업체별 한식당 샘플 수의 비율	웹크롤링	
		상권	%	최근 1년간 최초 리뷰가 등록된 한식당 구성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 등재된 한식당 중 첫 소비자 리뷰 등록 시점이 최근 1년(15.04~16.04)인 한식당 업체 비율	웹크롤링	
	상권 외식당 가격대 현황	상권	금액		외식당 가격대 분포	소비자들이 외식당 리뷰에 기록한 한 끼 평균 식사 비용의 분포	웹크롤링
		상권	금액		메뉴 가격대 분포	소비자들이 외식당 리뷰에 기록한 개별 메뉴 가격의 분포	웹크롤링
	상권 외식 소비자 분석	상권	빈도/리뷰건수		7P 요소별 언급 빈도	소비자 리뷰 내 7P 관련 단어 언급 빈도를 전체 리뷰 수로 나눈 비율	웹크롤링
		상권	%		업체별 리뷰 비율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서 크롤링 된 전체 리뷰 건수 중 업체별 리뷰 건수 비율	웹크롤링
		상권	%		업체 내 에스닉별 리뷰 비율	레스토랑 평가사이트에서 크롤링 된 업체 총 리뷰 건수 중 에스닉별 리뷰 건수 비율	웹크롤링

Appendix) 소비자 설문

글로벌 외식 및 한식사업 조사_소비자조사
<p>안녕하십니까?</p> <p>저희는 이번에 글로벌 외식 및 한식 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p>

조사 대상자 : 최근 1개월 내 외식 경험이 있는 20~50대 남녀

	남성	여성	계
20대	65	65	130
30대	65	65	130
40대	55	55	110
50대	15	15	30
계	200	200	400

Screening Question

SQ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국가 및 도시는 어디입니까?

국가	도시			
1) 미국	1) 뉴욕	2) LA	3) 기타	
2) 중국	1) 북경	2) 상해	3) 홍콩	4) 기타
3) 일본	1) 동경	2) 기타		
4) 인도네시아	1) 자카르타	2) 기타		
5) 싱가포르	1) 싱가포르	2) 기타		
6) 대만	1) 타이베이	2) 기타		
7) 베트남	1) 호치민	2) 기타		
8) 태국	1) 방콕	2) 기타		

SQ2. 귀하께서는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한국계 현지인 2) 한국계가 아닌 현지인 3) 한국인(→조사 중단) 4)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SQ3. 귀하께서는 [#SQ1#] 에서 거주중이십니까?

- 1) 거주중 2) 비거주중 (→조사 중단)

SQ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자 2) 여자

SQ5. 귀하께서 태어나신 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업태별 자주가는 에스닉]

A9. 귀하께서 [#A1-1]에서 외식하실 때, 가장 자주 방문하는 에스닉 식당은 무엇입니까? (단수 응답)

- 1) American 2) Italian 3) French 4) Spanish 5) Mexican
 6) Indian 7) Japanese 8) Chinese 9) Thai 10) Vietnamese
 11) Korean 12) Others ()

[자주 가는 에스닉 추천의향]

A10. 귀하께서 자주 가시는 [#A9#]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신지 10점을 만점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반드시 추천하겠다	
1	2	3	4	5	6	7	8	9	10

B. 한식 외식 패턴

지금부터는 귀하의 한식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취식 경험 및 한식당 방문 경험

[한식당 여부 판단 기준]

B1. 귀하께서는 어떤 식당을 한식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식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복수 응답]

[TO PROG : 7P요소는 화면 구성 시 보이지 않습니다]

7P 요소	7P 세부 속성
<i>Product</i>	1) 한식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 2) 사용하는 소스, 식재료가 한국적인 느낌을 받을 때 3) 전통 한식 메뉴인 느낌을 받을 때 4) 대부분의 메뉴가 한식일 때 5) 메뉴 중에 일부라도 한식 메뉴가 있을 때
<i>Promation</i>	6) 한국 관련 콘텐츠 (드라마, 가사 등)에 소개된 음식/식당 7) 한국에서 건너온 브랜드일 때 (식당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일 때)
<i>Physical evidence</i>	8) 간판에 한식 혹은 한국식으로 써 있는 식당 9) 한국적인 소품, 영상, 음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i>Process</i>	10) 한국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할 때
<i>People</i>	11) 경영주/종업원 중에 한국사람이 있을 때
<i>기타</i>	12) 기타(_____)

[한식 취식 경험 및 형태]

B2.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한식을 먹어 보셨습니까? [최대 2개 선택]

- 1) 식당에서 먹음 2) 배달 시켜서 먹음 3)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서 먹음
 4) 집에서 조리하여 먹음 5) 먹어본 적 없음 (→D1으로 이동)

한식당 방문 패턴

지금부터 귀하의 한식당 방문 경험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한식당을 방문하실 때의 상황을 잘 떠올려 보시고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당 방문 횟수]

B3. 귀하께서는 한식당을 한 달 기준 얼마나 자주 방문하시나요? (→ 0회 응답 시 01으로 이동)

나는 1달에 평균 ____ 회 한식당에 방문한다

[한식당 객단가]

B4. 귀하께서 한식당을 한 번 방문하실 때, 인당 평균 얼마 정도 금액의 식사를 하십니까?

1회 방문 시, 1인당 지출 비용 () [화폐단위]

[한식당 인지 경로]

B5. 귀하께서 한식당을 방문하실 때, 신규 한식당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 응답)

- | | |
|---|------------------------------|
| 1) 식당 방문 당시 동행인의 선호로 인지 | 2) 주변의 추천(친지, 가족, 외부인 모두 포함) |
| 3) 블로그, SNS (Facebook, twitter, blog 등) | 4)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활용 |
| 5)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체 | 6) 주변에서 눈에 띄는 곳을 충동적으로 선택 |
| 7) 기타 () | |

[한식당 방문 목적]

B6. 귀하께서는 한식당을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방문하십니까? [단수 응답]

- 1) 일상적인 식사 (Eating) 2) 사적인 모임 (Private dining) 3) 공식적인 모임 (Business dining)

[한식당 동행인]

B7. 귀하께서 한식당에 [#B6#]을 목적으로 방문하실 때 주로 누구와 함께 방문하십니까?

[TO PROG: B6 응답에 따라 보기 문항에 다르게 구성됨]

(BASE: B6=1, 일상적인 식사)

- 1) 혼자 2) 가족 3) 친구 4) 직장동료 5) 기타

(BASE: B6=2, 사적인 모임)

- 1) 연인 2) 가족 3) 친구 4) 기타

(BASE: B6=3, 공식적인 모임)

- 1) 직장동료/상사 2) 고객(잠재고객 포함) 3) 기타

[한식당 업태]

B8. 한식당을 방문하실 때 가장 자주 가는 한식당의 업태는 무엇입니까? [단수 응답]

- 1) 패스트푸드점 (fast food restaurant) 2) 카페/바 (Café/bar)
 3) 고급 식당 (Fine dining) 4) 일반 식당 (Casual dining)

[한식당 만족/불만족 이유]

C2. 귀하께서 방문하셨던 한식당에 대한 경험을 아래 항목 별로 10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면 1점, 보통이면 5-6점, 매우 만족하셨다면 10점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만족스럽 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메뉴 (맛, 양, 건강, 다양함)	1	2	3	4	5	6	7	8	9	10
가격	1	2	3	4	5	6	7	8	9	10
위치 (접근성)	1	2	3	4	5	6	7	8	9	10
프로모션 (가격할인, 이벤트 등)	1	2	3	4	5	6	7	8	9	10
분위기 (외관, 내부 분위기, 편의시설 등)	1	2	3	4	5	6	7	8	9	10
서비스 (관리함, 신속함, 격식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종업원 (의사소통, 응모, 태도 등)	1	2	3	4	5	6	7	8	9	10

D. 한식 메뉴 인지 및 선호

[한식메뉴 선호도]

D1. 다음 메뉴들은 한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제시해드리는 메뉴를 보고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1) 귀하께서 먹어 보신 메뉴 중, 가장 자주 드시는 메뉴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____, _____)
- 2) 향후 한식당에서 드시고 싶은 메뉴는 무엇입니까?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 비빔밥		밥 위에 당근과 버섯, 소고기, 달걀 등을 올리고 고추장과 함께 비벼서 먹는 음식	9. 전골		고기나 채소, 해물 등을 냄비나 전골통에 달고 육수를 부어 상에서 끓여 가며 먹는 음식
2. 불고기		얇게 썬 소고기에 간장 양념장을 넣고 재운 후 불판이나 숯불화로에 구워서 먹는 음식	10. 삼계탕		영계에 인삼, 한살, 마늘 등을 넣고 끓인 탕으로, 여름철 즐겨 먹는 보양식
3. Korean BBQ		불판이나 숯불화로에 구워서 먹는 음식으로 기름장에 찍어 먹거나 배추, 상추 등 쌈에 싸서 먹는 음식 (Galbi, Samgyeopsal, etc.)	11. 갈비탕		소갈비와 무를 넣어 끓인 음식으로 국물과 갈비, 당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양식

4. 찜		육박기나 작은 냄비에 국물을 타듯하게 잡아 고기·채소·두부 따위를 넣고, 간장·된장·고추장·젓국 따위를 적서 갖은 양념을 하여 끓인 음식	12. 찜		메밀과 전분으로 만든 쫄깃한 면에 동치미와 소고기 육수를 섞어 만든 차가운 국물을 넣은 음식
5. 볶		생선, 야채, 고추 등으로 지져 만든 다양한 맛을 가진 요리와 함께 밥과 떡볶이 따위 음식	13. 볶		가래떡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쇠고기(해산물)와 여러 가지 야채를 섞고 고추장과 갖은 양념으로 볶은 음식
6. 찜		삼은 당면과 볶은 채소, 보쌈, 고기 등을 간장 양념에 함께 볶아 먹는다	14. 볶		삼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 매콤하게 무친 무와 절인 배추에 함께 싸 먹는 음식
7. 갈자탕		돼지등뼈와 감자, 무, 거지, 들깨가루, 찹쌀, 파, 마늘 등을 넣고 끓여 먹는다	15. 갈비찜		소나 돼지 갈비를 끓여 담가 찢음을 얹고 지방을 제거하여 당근과 밤, 은행 등을 섞어 간장을 비롯한 갖은 양념을 하여 부드럽게 조려낸 음식
8. 육개장		소 양지머리와 근황, 무 등을 두 살은 뒤 대파, 토란 대, 고사리 같은 채소를 넣고 고춧가루로 매콤하게 양념한 음식	16. 닭갈비		닭고기를 고추장 양념장에 재웠다가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배추, 고구마, 당근, 떡과 함께 볶아 먹는 음식
17. 기타					
99. 없음					

E. 한류 및 한국 방문 관련

EQ1. 한국에 대한 다음 항목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3) 한국 대중문화(드라마, K-pop, 게임 등)에 호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SQ5-1.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1) 프랜차이즈 가맹점 2) 프랜차이즈 직영점 3) 기타 ()

가맹점	가맹 사업자가 가맹 본점과 점포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상표,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 받는 대신, 일정 대가를 본점에 지급하고 운영하는 방식
직영점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식재료 구입부터 인물관리까지 모두 본점에서 운영하는 방식

SQ5-2. 그렇다면 현재 운영중인 식당은 개인 단독으로 운영하십니까?

- 1) 예(→A1으로 이동) 2) 아니오 (→SQ5-3으로 이동)

SQ5-3. 그렇다면 운영 형태는 무엇입니까? [단수 응답]

- 1) 개인 간 합작을 통한 공동운영 2) 단독 투자 현지 법인 운영
3) 합작 투자 현지 법인 운영 4) 현지 지사 운영

A. 한식당 현황

[면접원: 지금부터 간단히 귀하께서 운영하는 한식당의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 귀하 식당의 주방에서는 파트 타임 직원을 포함하여 동일 시간에 최대 몇 명까지 일하십니까? _____명

A1-1. 귀하 식당의 홀에서는 파트 타임 직원을 포함하여 동일 시간에 최대 몇 명까지 일하십니까? _____명

A2. 운영하시는 식당의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명 규모 (좌석 수 기준)

A2-1. 운영하시는 식당의 전체 전용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 [㎡ /坪 / 平方米 등 국가별 단위 기재] (→정확히 모르거나 대답 못하면 SKIP)

A3. 귀하 식당의 고객 중 한국인 또는 한국계, 현지인, 외국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고객을 100%라고 할 때의 각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인 또는 한국계	()%
현지인	()%
한국인 아닌 외국인	()%
총 합	100%

A4. 다음 중 귀하 식당에서 사용하는 한국산 식재료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 해 주십시오.

A4-1. 그렇다면 해당 한국산 식재료를 주로 어디서 구매하십니까?

[연접원 : 보기 읽지 말고, 응답에 따라 항목을 체크할 것]

A4. 사용하는 한국산 식재료 (모두 응답)	A4-1. 한국산 식재료 구매 채널				
	한국에서 수입 (직거래, 온라인 모두 포함)	한인전문마켓 또는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	한인이 운영하지 않는 현지 마켓 및 현지 식품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기타 ()
<input type="checkbox"/> 한국산 채소류	1	2	3	4	5
<input type="checkbox"/> 한국산 소스 및 장류	1	2	3	4	5
<input type="checkbox"/> 한국산 면, 쌀, 떡류	1	2	3	4	5
<input type="checkbox"/> 한국산 주류	1	2	3	4	5
<input type="checkbox"/> 한국산 육류, 어류, 젓갈류	1	2	3	4	5
<input type="checkbox"/> 기타 한국산 식재료	1	2	3	4	5
<input type="checkbox"/> 한국산 식재료 사용하지 않음	1	2	3	4	5

A5. 귀하 식당의 대표 메뉴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 순서대로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접원 : 보기 읽지 말고, 응답에 따라 항목을 체크할 것]

--	--	--

- | | | | | |
|---------|-------------|---------------|--------|---------|
| 1) 비빔밥 | 2) 불고기 | 3) Korean BBQ | 4) 찌개 | 5) 전 |
| 6) 잡채 | 7) 감자탕 | 8) 육개장 | 9) 전골 | 10) 삼계탕 |
| 11) 갈비탕 | 12) 냉면 | 13) 떡볶이 | 14) 보쌈 | 15) 갈비찜 |
| 16) 닭갈비 | 17) 그 외 () | | | |

A6. 식당을 홍보하기 위하여 어떤 주로 경로를 활용하시나요? [복수 응답]

[연접원 : 보기 읽지 말고, 응답에 따라 항목을 체크할 것]

- | | |
|-------------------------|--------------------------------------|
| 1) 신문, 잡지 등에 광고 게재 | 2) SNS 홍보(Facebook, twitter, blog 등) |
| 3) 입간판 설치 | 4) 전단지 배포 |
| 5)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체 | 6) 레스토랑 소개 전문 웹사이트 |
| 7) 식당 방문객을 통한 구전/입소문 | 8) 기타 () |

A7. 한식당 경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연접원 : 보기 읽지 말고, 응답에 따라 항목을 체크할 것]

- ① 조리 및 경영관련 교육
- ② 한식에 대한 홍보
- ③ 한식당 자금 지원
- ④ 현지 시장정보 지원
- ⑤ 한식당 마케팅 지원 (컨텐츠 제작 지원, 추천/인증제, 한식당 소개자료 등)
- ⑥ 한식당 컨설팅
- ⑦ 기타 ()

A8.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면접원 : 보기 읽지 말고, 응답에 따라 항목을 체크할 것]

- 1) 외식/한식시장 현황 전반 정보
- 2) 외식 한식 소비자 관련 정보
- 3) 상권 분석 자료
- 4) 한식당 운영 관련 일반 사항 (부동산 시세, 상가임대료, 물가수준, 식자재 유통정보 등)
- 5) 한식당 운영 관련 제도/법제적 사항
- 6) 주요 사업자/잠재 파트너 정보
- 7) 기타 (_____)

B. 지표 조사

* 다음은 한식당 운영과 관련한 항목들입니다. 전년과 비교 및 내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B1. 운영하시는 식당의 2015년도 매출은 2014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1) 매출이 증가함 2) 변화 없이 비슷함 3) 매출이 감소함

B1-1. 운영하시는 식당의 2016년도 매출은 2015년 대비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신가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 1) 매출 증가예상 2) 변화 없이 비슷함 3) 매출 감소예상

B2. 운영하시는 식당의 2015년도 고객 수는 2014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1) 고객이 증가함 2) 변화 없이 비슷함 3) 고객이 감소함

B2-1. 운영하시는 식당의 2016년도 고객 수는 2015년 대비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신가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 1) 고객 증가예상 2) 변화 없이 비슷함 3) 고객 감소예상

B3. 운영하시는 식당의 2015년도 인건비는 2014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1) 인건비 증가함 2) 변화 없이 비슷함 3) 인건비 감소함

B3-1. 운영하시는 식당의 2016년도 인건비는 2015년 대비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신가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 1) 인건비 증가 예상 2) 변화 없이 비슷함 3) 인건비 감소예상

B4. 운영하시는 식당의 2015년도 식재료 원가는 2014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 1) 식재료 원가 증가함 2) 변화 없이 비슷함 3) 식재료 원가 감소함

B4-1. 운영하시는 식당의 2016년도 식재료 원가는 2015년 대비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신가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 1) 식재료 원가 증가예상 2) 변화 없이 비슷함 3) 식재료 원가 증가예상

B5. 운영하시는 식당의 2015년도 임대료는 2014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했나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1) 임대료 증가함 2) 변화 없이 비슷함 3) 임대료 감소함

B5-1. 운영하시는 식당의 2016년도 임대료는 2015년 대비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신가요?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 1) 임대료 증가예상 2) 변화 없이 비슷함 3) 임대료 감소예상

